

용인

서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 강현모



태학사

박종수(朴鍾洙)

공주사대 졸업

문학박사(단국대)

현재 용인대 교수

주요논저: 『대학한문』 『문학과 인생』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

『용인 남부지역의 구비전승』

「조선조 기류 문학의 연구」

「충남 연기지방의 설화연구」 외 다수

강현모(姜賢模)

한남대학교 졸업

문학박사(한양대)

현재 한양대, 한남대, 용인대 강사

주요논저: 『부여지방의 구비전승』(상,하)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북부, 남부)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

「이문학 설화의 연구」 외 다수

용인

서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 강현모

태학사

서 문

이번에 용인지역 구비전승 저서를 4권째 발간하게 되었다. 먼저 용인문화원에 감사드린다. 한 지역에서 한 분야를 이렇게 지원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용인문화원은 향토사(郷土史) 연구의 실질적인 담당자가 되고 있다고 본다. 일부 문화원에서는 군지 발간이나 유적조사, 향토문화재 집행 등 향토사(郷土事)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용인 동부지역은 시행착오를 하였지만 그런대로 자료 수집이 수월했으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도 용이하였으나, 이번의 서부지역은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이유는 기흥읍과 수지읍, 구성면이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에 의해 택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많은 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수지 외에도 동백지구, 죽전지구가 고시되어 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많은 변화를 보이며 우리의 무형 문화재가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구비전승을 기록하게 됨을 안도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 거의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하루빨리 기록해 놓아야 한다. 물론 많은 조사로 기록도 많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분야가 많다. 급한 대로 급속히 도시화되어 가는 지역부터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세계화 시켜야 한다. 그것이 곧 향토애의 뿌리요,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미래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구비전승 자료 조사는 말로 전달되므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대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전달이 가능한 것이기에 전해 들은 내용이 기억되어 다시 말로 재연되기는 쉽지 않다. 이와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 지역의 구비전승을 정밀 조사하여 연구의 자료로 내게 된 것은 의

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자가 용인시민 여러분과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용인문화원 이현규 원장님과 조사에 협조해 주신 기홍읍, 수지읍, 구성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태학사 지현구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사와 집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9년 7월

용인대학교 균재 연구실에서 지은이 적음

【일러두기】

1. 이 자료는 1996년 5월 1일~1999년 6월 10일 사이에 용인시 서부지역 인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 내의 모든 리를 대상으로 조사·채록한 자료를 정리·수록한 것이다.
2. 지역개관은 자료발간 대상인 용인시의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지, 군지, 읍·면사무소에서 제시한 자료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 보고서의 작성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기술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4. 각 리마다 마을개관을 하고, 제보자에 대한 개관은 따로 하지 않았다.
5. 자료마다 일련번호, 제목, 제보자의 성명(나이, 성별), 테이프번호, 조사장소, 조사자, 조사날짜 등을 명시하였다. (단 조사자의 이름이나 나이를 조사하지 못한 자료는 동별로 제보자 1, 2로 표시하고, 나이는 ?로 표시하여 놓았다.)
6. 자료의 배열은 각 리별로 하여 번호를 붙였으며, 그 리의 배열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쪽에서 원형방법을 설정하였다
7.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내용을 일체 가감없이 그대로 활자화하였으며, 와음이나 방언도 그대로 채록하였다.(녹음불량은 기록상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복원시켜 활자화하였다.)
8. 자료 본문에서 방언의 설명이나 상황과 분위기의 변화 등은 ()안에 부연 설명하고, 조사자나 청중의 개입은 []로 묶어 표기하였다.
9. 필요한 경우에 생략을 ...로 표시하고, 테이프에서 채록할 수 없는 부분은 [청취불능]이라 표시하였다.
10. 수록 자료의 구체적인 자료 분류는 용인시 전 지역이 조사를 마치고 발간할 때 붙이기로 한다.

목 차

- 발간사
- 서문
- 일러두기

I. 용인시 서부지역 개관

1. 지역 개관	24
2. 조사 개관	30

II. 기 흥 읍

1. 신갈리	47
1) 마을개관	
2) 설화	
1. 엄병섭(83, 남) 자기 새끼 귀엽다면 좋아하는 호랑이	48
2. 엄병섭(83, 남) 호랑이 꼬리를 잡은 사람	49
3. 엄병섭(83, 남) 호랑이를 잡은 사람	50
4. 엄병섭(83, 남) 삼백 근을 짊어지고 만리를 달린 임경업	51
5. 맹두석(86, 남) 호랑이를 헛바닥을 잡은 사람	51
6. 엄병섭(83, 남) 호랑이와 싸워 이긴 소	52
7. 엄병섭(83, 남) 이무기가 나간 방죽	54
8. 엄병섭(84, 남) 빈대 때문에 망한 절	54
9. 엄병섭(84, 남) 집주인 구렁이	55

10. 엄병섭(84, 남)	은혜깊은 왜가리(황새)	56
11. 엄병섭(84, 남)	구렁이를 찾아 다니는 두껍이	58
12. 김원봉(75, 남)	원님을 끌려먹은 양반	59
13. 김원봉(75, 남)	평양감사와 그의 친구	60
14. 김원봉(75, 남)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64
15. 김원봉(75, 남)	지명유래(메주고개와 아차리고개)	65
16. 김원봉(75, 남)	게으른 사위 길들이기	66
17. 김원봉(75, 남)	바보 사위	69

3) 민요

1. 권칠심(72, 여)	모내기 노래	72
2. 권칠심(72, 여)	저 건네라 잔술 밭에	72
3. 권칠심(72, 여)	유달아개	73
4. 권칠심(72, 여)	시집살이 노래	73
5. 권칠심(72, 여)	사랑 타령	76
6. 권칠심(72, 여)	그네뛰기 노래	77
7. 김꼭지(69, 여)	모내기 노래	77
8. 김꼭지(69, 여)	서울 갔던 선배들아	78
9. 권칠심(72, 여)	낙도 청강 흐르는 물에	78
10. 김꼭지(69, 여)	해를 잡아 주소	79

2. 구갈리 81

1) 마을개관

2) 설화

1. 이영만(80, 남)	죽을 사람도 살린 사람	82
2. 제보자1(70대, 여)	천덕산의 유래	85
3. 이영만(80, 남)	남의 글 훔쳐 베풀한 사람	86
4. 이영만(80, 남)	조상의 묘지를 지킨 채변암	88

5. 이근호(75, 남)	장원 급제할 줄 미리 안 이원조	89
6. 이영만(80, 남)	남한 병자로 과거한 사람	91
7. 체보자2(70대, 여)	호랑이가 살려준 사람	93
8. 체보자3(70대, 여)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94
9. 최점순(67, 여)	부자집에 장가간 나무꾼	96
10. 최점순(67, 여)	신부 보고 놀랜 호랑이	99
11. 홍영순(67, 여)	호랑이를 물리친 여인	101
12. 이선예(73, 여)	도깨비에 홀린 사람	102
13. 최점순(67, 여)	도깨비를 속인 사람	103
14. 홍영순(67, 여)	업구렁이 죽여 죽은 며느리	104
15. 최점순(67, 여)	남궁씨의 유래	105

3. 상갈리 109

1) 마을개관

2) 설화

1. 이정선(79, 남)	이무기가 사는 연못	109
2. 이정선(79, 남)	지명유래	110

4. 보라리 113

1) 마을개관

2) 설화

1. 체보자1(70대, 여)	마을 지켜주는 느티나무	114
2. 조선원(58, 남)	지명 유래	115
3. 김진술(72, 여)	한양 조씨의 종손집을 잡게 된 내력	116
4. 한은수(56, 남)	생거진천 사거용인	117
5. 한은수(56, 남)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느티나무	119

6. 조영림(80, 남)	느티나무의 유래	120
---------------	----------	-----

5. 지곡리 121

1) 마을개관

2) 설화

1. 이복규(68, 남)	도깨비가 불을 밝혀준 할아버지	122
2. 이복규(68, 남)	마귀할멈이 나타난 석성산	123
3. 이복규(68, 남)	시신을 묻으면 비가 안 오는 명당	124
4. 이복규(68, 남)	조광조보다 실력이 좋았던 음애선생	124
5. 이복규(70, 남)	까치산(오산)의 유래	126
6. 김석순(70, 남)	지곡리의 지명유래	127

3) 민요

1. 박제희(70, 남)	모 심을 때 부르던 노래	128
2. 박제희(70, 남)	호미질할 때 부르던 소리	128

6. 궁세리 129

1) 마을개관

2) 설화

1. 제보자1(70대, 남)	궁세리의 지명유래	130
2. 최순규(66, 남)	충신 편도공의 일화	130
3. 최순규(66, 남)	백련지	132
4. 최순규(66, 남)	3개의 명당을 가진 능선	133
5. 오광형(44, 남)	능이 있을 능안골	134
6. 제보자2(60대, 남)	여우에 홀린 사람	135
7. 제보자2(60대, 남)	마을의 풍흉을 가리는 나무	135
8. 윤공중(84, 남)	겨울에 잉어를 구한 효자	136

3) 민요

1. 가게 주인(68, 남) 둘래요 137

7. 고매리 139

1) 마을개관

2) 설화

1. 안오직(74, 남) 두깍전 140
 2. 박덕순(72, 여) 마을의 지명 유래(1) 143
 3. 정정례(68, 여) 곳으로 쫓아낸 고매리의 곰 144
 4. 김형선(59, 남) 호랑이를 쫓아낸 곳 144
 5. 이정희(74, 여) 마을의 지명 유래(2) 145

3) 민요

1. 안오직(74, 남) 호미걸매기요 146
 2. 안오직(74, 남) 두 래 요 146
 3. 안오직(74, 남) 노래가락 147
 4. 안오직(74, 남) 장구타령 <嘆老歌> 147
 5. 안오직(74, 남) 적벽가 148
 6. 안오직(74, 남) 청춘가 149

8. 농서리 151

1) 마을개관

2) 설화

1. 아주머니(60대, 여) 호랑이가 데려다 주는 사람 152
 2. 가게주인 아줌마(54, 여) 삼태기 안같은 농서리 152
 3. 가게주인 아줌마(54, 여) 부정한 산제사 일화 153
 4. 홍영숙(77, 여) 왕초의 산신령 호랑이 155

5. 홍영숙(77, 여)	말 한 마디 잘하고 장가든 총각	156
6. 홍영숙(77, 여)	호랑이와 동행한 사람	157
7. 홍영숙(77, 여)	귀신 이야기를 엮고 복받은 사람	159
8. 홍영숙(77, 여)	이무기와 관련된 일화들	164
9. 홍영숙(77, 여)	지네 장터	166
10. 김하균(70대, 남)	농서리와 지명 유래	168
11. 김하균(70대, 남)	신갈의 유래	169
12. 김하균(70대, 남)	김혁 장군의 일화	171
13. 유원수(55, 남)	고시래 유래	172
14. 유원수(55, 남)	도선과 삼배울	174
15. 김학교(79, 남)	용수골의 유래	175
16. 김학교(79, 남)	도깨비불	176
3) 민요		
1. 김학교(82, 남)	논 땀 때 부르는 소리	178
2. 김학교(82, 남)	둘레 소리(만물할 때)	179

9. 서천리 181

1) 마을개관

2) 설화

1. 제보자1(70대, 여)	서천리의 유래	182
2. 한중순(61, 여)	가막골의 유래	183
3. 김종원(75, 남)	임생골의 유래	183
4. 김종원(75, 남)	궁말의 유래	184
5. 김종원(75, 남)	고래뿌리의 유래	185

10. 아갈리 187

1) 마을개관

2) 설화

- | | | |
|----------------|-----------------|-----|
| 1. 최복동(84, 남) |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기 | 188 |
| 2. 최복동(84, 남) | 함흥차사 | 190 |
| 3. 최복동(84, 남) | 뒤지대감(사도세자) | 191 |
| 4. 최복동(84, 남) |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 193 |
| 5. 최복동(84, 남) | 삼천갑자 동방삭이 | 196 |
| 6. 김정현(85, 남) | 솥을 씻는 저승사자 | 198 |
| 7. 김정현(85, 남) | 청명산과 신이한 짐승들 | 199 |
| 8. 김정현(85, 남) | 과부 보쌈하다 망신당한 사람 | 201 |
| 9. 김정현(85, 남) | 도깨비에 홀린 사람 | 203 |
| 10. 김정현(85, 남) | 꼬마 신랑 | 204 |

11. 영덕리 207

1) 마을개관

2) 설화

- | | | |
|----------------|-------------------|-----|
| 1. 양선명(81, 여) | 도깨비 일화(1) | 208 |
| 2. 이종범(52, 남) | 시묘살이 한 효자 | 209 |
| 3. 이종범(52, 남) | 퇴계 선생과 덕수 이씨 | 210 |
| 4. 이종범(52, 남) | 혈맥이 끊긴 영덕리 | 211 |
| 5. 이종범(52, 남) | 용인의 8명당의 하나 | 212 |
| 6. 이종범(52, 남) | 재물이 많은데 자손이 귀한 집터 | 212 |
| 7. 이종범(52, 남) | 후손을 무사하게 지켜준 비석 | 213 |
| 8. 양대수(59, 남) | 중의 우물 | 214 |
| 9. 양대수(59, 남) | 부처님이 가르쳐 준 우물 | 215 |
| 10. 유기진(75, 남) | 불길한 일을 알려주는 느티나무 | 217 |
| 11. 유기진(75, 남) | 선녀가 내려왔던 청명산 | 218 |

12. 유기진(75, 남)	도깨비 일화(2)	219
13. 김한선(69, 남)	영덕리의 골명 유래	222
14. 김한선(69, 남)	연애 바위	224
15. 김한선(69, 남)	원수 고개	225
16. 김한선(69, 남)	나무가 베어 나빠진 영덕리	226
17. 김한선(69, 남)	원천과 신갈의 유래	226
3) 민요		
1. 양선명(81, 여)	자 장 가	228

Ⅲ. 수 지 읍

1. 풍덕천리	231	
1) 마을개관		
2) 설화		
1. 최난중(70대, 여)	아들을 묻다가 금을 얻은 효자	232
2. 유용숙(70대, 여)	은혜 값은 노루	233
3. 최상남(70대, 여)	도깨비불	235
4. 명경자(67, 여)	복을 가져다 주는 족제비	236
5. 유용숙(70대, 여)	풍덕천의 유래(1)	238
6. 명경자(67, 여)	호랑이의 복수	238
7. 용인이씨(?, 여)	풍덕천의 유래(2)	244
2. 동천리	245	
1) 마을개관		
2) 설화		
1. 김가내(81, 여)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246

2. 김가내(81, 여)	우애가 좋은 형제	246
3. 김무순(79, 여)	형제의 의리는 동서간	247
4. 김정해(59, 여)	도깨비 일화	248
5. 김가내(81, 여)	꽃감에 놀란 호랑이	250
6. 김무순(79, 여)	삐죽새의 유래	250
7. 김가내(81, 여)	삐죽새와 부엉이	251
8. 김무순(79) 손분순(67, 여)	뜸복새의 유래	252
9. 김무순(79, 여)	뒷박 바뀌달라는 새	253
10. 김가내(81, 여)	먼 불에 김을 굽는 며느리	253
11. 김가내(81, 여)	하오를 잘 하는 며느리(1)	254
12. 김가내(81, 여)	하오를 잘 하는 며느리(2)	255
13. 김가내(81, 여)	어리석은 며느리	255
14. 김정호(76, 남)	풍덕천과 이진봉	256
15. 이원순(73, 여)	정성을 드리지 못한 만신	257
16. 이원순의 며느리(40대, 여)	지렁이 먹고 눈 뜬 어머니	258
17. 이원순씨 며느리(40대, 여)	매년 한 명씩 죽는 곳	259
18. 이원순씨 며느리(40대, 여)	방구 소동	260

3. 고기리 261

1) 마을개관

2) 설화

1. 이찬순(37, 남)	광교산의 혈을 끊은 증공군	262
2. 정연수(87, 남)	영무장군 일화	263
3. 정연수(87, 남)	산소 근처에서 나무 못하게 말린 효자	266
4. 정연수(87, 남)	원귀를 물리친 11대 조상	267
5. 정연수(87, 남)	도깨비불 홀린 사람	269
6. 정연수(87, 남)	남사고의 예언	270

7. 정연수(87, 남)	고기리의 지명유래	271
3) 민요		
1. 정연수(87, 남)	단발령	272
4. 신봉리		273
1) 마을개관		
2) 설화		
1. 이은영(65, 남)	시체를 묻으면 비가 안 오는 명당	274
2. 이은영(65, 남)	빈대 때문에 망한 광고산의 절들	275
3. 이은영(65, 남)	흙을 끼얹으며 장난치는 호랑이	276
4. 이은영(65, 남)	호랑이와 싸워 이긴 소	277
5. 이도상(81, 남)	호랑이와 싸운 사람	279
6. 이도상(81, 남)	배고리가 있는 광고산(홍수전설)	280
7. 박훈임(65, 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81
8. 박훈임(65, 여)	말 잇기 이야기	283
9. 박훈임(65, 여)	호랑이 넘어다닌 버들치 고개	284
10. 이도상(81, 남)	팔만구암자 있었다는 광고산	285
11. 박훈임(65, 여)	구렁이 관련 일화들	287
5. 성북리		289
1) 마을개관		
2) 설화		
1. 황희철(66, 남)	빈대 때문에 망하였던 성북리 절터	290
2. 이상철(79, 남)	이빈의 효행	291
3. 김주명(48, 남)	정몽주의 최후와 사당	293
4. 김주명(48, 남)	형제봉의 유래	294

5. 김주명(48, 남)	호랑이굴 속의 금부처	295
6. 김주명(48, 남)	수원에서 이곳까지 뚫린 호랑이굴	296
7. 송산 스님(64, 남)	빈대때문에 망한 성복사지	296
8. 송산 스님(64, 남)	개 때문에 찾은 금부처	297
9. 송산 스님(64, 남)	금은 보화가 묻힌 우물	298
10. 허현욱(78, 남)	인자한 성종대왕	299
11. 허현욱(78, 남)	사이가 좋은 거지 형제	303
12. 허현욱(78, 남)	사라진 돌부처	308
13. 조돈희(70, 여)	도깨비 일화	309
14. 허현욱(78, 남)	지하도적 퇴치 설화	309
15. 조돈희(70, 여)	남편의 인덕으로 부자된 첫째딸	313
16. 조돈희(70, 여)	구렁덩덩 신선비	317
17. 허현욱(78, 남)	절친한 친구의 우정 시험	319
18. 허현욱(78, 남)	집안 대 잇기(씨내리)	323

6. 상현리 327

1) 마을개관

2) 설화

1. 이장님(48, 남)	풍덕천의 유래	328
2. 이장님(48, 남)	왜군에게 불 태워진 절들	329

7. 죽전리 331

1) 마을개관

2) 설화

1. 김황복(74, 남)	형제투금	332
2. 김황복(74, 남)	원님의 재판	334

3. 김황복(74, 남)	주변의 지명 유래	336
4. 구병장(84, 남)	여수회에 묘자리 잡은 지관	338
5. 최병호(72, 남)	바른 정승집안 묘자리 잡기	340
6. 구병장(84, 남)	베트남국의 덕림 조씨 묘자리	344
7. 김황복(74, 남)	성을 먼저 쌓은 서울	345
8. 구병장(84, 남)	수두 고친다고 속여 밥 얻어먹은 사람	346
9. 김황복(74, 남)	임금님의 종기를 고친 사람	347
10. 김황복(74, 남)	책보를 싸아줘야 하는 꼬마 신랑	349
11. 구병장(84, 남)	바보 신랑	349
12. 최병호(72, 남)	대호를 잡았다는 상전(추노)	350
13. 김황복(74, 남)	이를 잡아 힘 센 하인을 누른 상전	351
14. 최병호(72, 남)	상전을 풀려 먹은 종	352
15. 김황복(74, 남)	어사를 알아본 아낙네	354
16. 최병호(72, 남)	시골 사위와 서울 사위	355
17. 최병호(72, 남)	천지교야도 석지교야나	357

Ⅳ. 구 성 면

1. 연남리	361
1) 마을개관	
2) 설화	
1. 제보자1(82, 남) 도깨비 일화(1)	362
2. 강태용(75, 남)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363
3. 이완송(88, 남) 성씨 ‘나’가의 유래	364
4. 김관식(76, 남) 황진이가 기생이 된 이유	365
5. 이순창(80, 남) 홍수 전설	371
6. 이순창(80, 남) 도깨비 일화(2)	371
7. 이순창(80, 남) 곰나루 전설	372

8. 이순창(80, 남)	산삼 동자	373
9. 이복례(82, 여)	이야기 책을 잘 읽어 장가들기	375
10. 장개순(77, 여)	옥쇄를 찾은 사람	376
11. 이철성(72, 여)	의원 형보다 나은 아우의 효성	379
12. 이철성(72, 여)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피난	382
3) 민요		
1. 이복례(82, 여)	회심곡	383

2. 마북리 387

1) 마을개관

2) 설화

1. 노인회장(?, 남)	치성 드리면 아들 낳는 미륵당	388
2. 노인회장(?, 남)	할미성의 유래	388
3. 노인회장(?, 남)	마북리 인근 지명 유래	389
4. 노인회장(?, 남)	왜군 싸웠던 이진봉과 말무덤	390
5. 노인회장(?, 남)	민영환선생 일화	392
6. 제보자1(70대, 여)	둥둥 바위의 유래	393
7. 제보자1(70대, 여)	도깨비 일화(1)	393
8. 제보자2(70대, 여)	지명 유래(무등치)	396
9. 제보자2(70대, 여)	지름을 잡아 망한 집안	397
10. 제보자2(70대, 여)	도깨비에 홀린 남편	398
11. 제보자3(70대, 남)	한약을 먹여 열녀를 만든 사람	399
12. 제보자4(50대, 남)	도깨비 일화(2)	401
13. 제보자4(50대, 남)	술이 있어야 좋아질 둥둥배	402
14. 제보자4(50대, 남)	지명 전설	403
15. 제보자5(50대, 남)	정몽주 일화	405
16. 제보자5(50대, 남)	호랑이의 일화	407
17. 제보자5(50대, 남)	도깨비의 정체	409

18. 제보자5(50대, 남)	옷물의 유래	410
19. 제보자5(50대, 남)	배를 매어 휘어진 삼형제봉	410

3. 청덕리 413

1) 마을개관		
2) 설화		
1. 이일순(55, 여)	오는 손님을 막아 망한 집안	414
2. 이일순(55, 여)	떠는 다리를 잘라 망하기 면한 집안	416
3. 이일순(55, 여)	빌린 담배불을 버린 사람	418
4. 이일순(55, 여)	죽은 여자의 원한을 풀어준 원님	420
5. 이일순(55, 여)	달래나 보지	422
6. 이일순(55, 여)	도습하기 때문에 잡아먹어야 할 짐승	423
7. 이옥선(61, 여)	부모의 자식 걱정	425
8. 이옥선(61, 여)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426
9. 이정희(79, 남)	청덕리의 유래	426
10. 이정희(79, 남)	덕수동의 유래	427
11. 이정희(79, 남)	빈대 때문에 망한 절	428

4. 동백리 429

1) 마을개관		
2) 설화		
1. 전주이씨(72, 여)	구렁덩덩 신선비	430
2. 곽영일(77, 남)	저승갔다 와서 개심한 대왕	431
3. 곽영일(77, 남)	아버지를 속여 평양감사를 한 서손	436
4. 박용칠(72, 남)	혈이 끓겨진 할머니성	445
5. 박용칠(72, 남)	어수물	446
6. 박용칠(72, 남)	도깨비의 정체	447

7. 박용철(72, 남)	도깨비와 귀신의 정체	448
8. 김용식(67, 남)	개를 주고 대신 살은 사람	449
9. 박용철(72, 남)	강회를 싣고 가다가 소를 죽인 사람	451
3) 민요		
1. 김용식(67, 남)	창부타령(1)	452
2. 김용식(67, 남)	논다지는 소리	452
3. 박용철(72, 남)	회심곡(1)	453
4. 박용철(72, 남)	창부타령(2)	454
5. 박용철(72, 남)	회심곡(2)	455
6. 김용식(67, 남)	굿노래	456
7. 박용철(72, 남)	창부타령(3)	458
8. 박용철(72, 남)	회심곡(3)	459
9. 박용철(72, 남)	회심곡(4)	460
5. 중 리		461
1) 마을개관		
2) 설화		
1. 정진수(58, 남)	어정과 어수물	462
2. 이병직(85, 남)	할미성과 바위의 유래	463
3. 이병직(85, 남)	자린고비 때문에 생겨난 메주고개	464
4. 이병직(85, 남)	저승에 살아온 내력	466
5. 이병직(85, 남)	지명 유래	467
6. 이병직(85, 남)	콩죽다랭이와 고서방 망한 유래	469
7. 이병직(85, 남)	호랑이를 잡은 장군	469
8. 이병직(85, 남)	공짜로 변소 쓰기	471
9. 심대선(75, 여)	이야기로 도둑을 쫓은 아주머니	475
10. 심대선(75, 여)	할미성 성쌓기	477
11. 심대선(75, 여)	허리 꿰긴 박숙 고개	478

12. 심대선(75, 여)	구렁덩덩 신선비	478
13. 심대선(75, 여)	복 많은 여자	480
14. 심대선(75, 여)	정조대왕의 효행(지지대 전설)과 뒤주왕	482
15. 정순자(76, 여)	착한 언행으로 복받은 석수	482
16. 정순자(76, 여)	가르친 여자에게 배반당한 나무장사	486
17. 송학석(50, 남)	지네 색씨와 구렁이	489
3) 민요		
1. 이병직(85, 남)	모심기 노래	494
2. 이동욱(66, 여)	옛날에 옛날에 감자 새끼가	495

6. 상하리 497

1) 마을개관

2) 설화

1. 임선옥(76, 여)	독수리 새끼 구해주고 살아난 사람	498
2. 최경량(72, 여)	도깨비가 된 빗자락	505
3. 최경량(72, 여)	독제를 잘 지내고 산 자식	505
4. 최경량(72, 여)	구렁덩덩 신선비	510
5. 김인준(75, 남)	당대 천석지기 묘자리	512
6. 김인준(75, 남)	임금이 방문할 자리를 안 지관	514
7. 임선옥(76, 여)	새끼 세 발	516
8. 임선옥(76, 여)	도둑놈보다 더 대담한 도둑질	521
9. 제보자1(70대, 남)	할미장사와 할미성	525
10. 제보자2(60대, 여)	아기장수	526
11. 제보자3(70대, 남)	호랑이를 잡은 아이들	527

7. 보정리 529

1) 마을개관

2) 설화

- | | | |
|-----------------|----------------|-----|
| 1. 이순남(70대, 여) | 함정에 빠진 사람 구해내기 | 530 |
| 2. 이순남(70대, 여) | 우렁이 색시 | 532 |
| 3. 이순남(70대, 여) | 모기의 복수 | 534 |
| 4. 정규환(70대, 남) | 뛰어난 소도둑 | 537 |
| 5. 정규환(70대, 남) | 원님과 여자 배사공 | 539 |
| 6. 제보자1(70대, 여)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541 |
| 7. 제보자1(70대, 여) | 나무꾼과 선녀 | 542 |

3) 민요

- | | | |
|-----------------|------|-----|
| 1. 제보자1(70대, 여) | 상여소리 | 544 |
|-----------------|------|-----|

여 백

I. 용인시 서부지역 개관

1. 지역 개관

가. 기흥읍 지역 개관

기흥읍(器興邑)은 경기도 용인시 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는 용인시 기곡면(器谷面)과 구흥면(駒興面)에 속했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기곡면과 구흥면을 합치고 지내면(枝內面) 일부를 합하여 기곡면의 기와 구흥면의 흥을 따서 기흥면이라 불리었다. 사기막골[지곡리]의 이름을 따서 기곡면이라 하여 하갈천(下葛川), 행의(行宜), 한의(汗宜), 공세(貢稅), 고매(古梅), 외서천(外書川), 내서천(內書川), 농사(農事), 지곡(芝谷), 보라(甫羅), 상갈천(上葛川), 중갈천(中葛川)의 12개 동리와 구흥면의 역촌(驛村), 신촌(新村), 미동(美洞), 갈천(葛川), 상촌(桑村), 상관곡(上館谷), 하관곡(下館谷), 내기(內基), 갈곡(葛谷)의 9개 동리와 판내면(板內面)의 영통(靈通), 덕동(德洞)의 2개 동리를 병합하여 하갈, 공세, 고매, 서천, 농서, 지곡, 보라, 상갈, 영덕, 신갈, 구갈의 11개 리로 개편되었다. 기흥읍을 중심으로 동쪽은 구성면과 용인시가 위치했고 서쪽은 화성군 태안면과 수원시, 남쪽은 이동면과 화성군 동탄면, 북쪽은 수지읍과 구성면을 닿고 있다. 기흥은 1985년 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9년 4월 15일 현재 인구수는 총 58,955명이며, 세대수는 20,267세대이다. 면적은 46.8km²로 용인시의 7.9%인데 농경지가 9.5km², 임야가 24.3km², 대지가 2.5km², 기타 10.5km²이다. 기흥읍의 행정 구역은 법정리 11, 행정리

66, 반수 336이며, 생활보호 대상자 수가 375가구 1,018명이고 거택 보호자가 90가구 133명, 자활 보호 대상자가 64가구에 140명이다.

주요 문화재로는 공세리(貢稅里) 5층석탑이 있다. 고려시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지상 2.5m의 석탑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42호이다. 이 석탑은 공세리 마을의 황영수 집 앞에 있다. 이 탑은 한강 이남에 현존하는 15~6개의 석탑 중 하나로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다. 안내판에 보면 “지대석에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어 전형적인 고려석탑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의 문화재로 음애 이자선생의 고택, 이자선생 묘, 최유경선생 묘, 이경중 신도비 등을 들 수 있다.

기흥읍은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과 영동선 그리고 신갈 안산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T·G 및 I·C가 3개가 있고 42번 국도가 동서를 관통하며 393번 지방도로가 남북을 관통하고 있다. 또한 기흥 전지역이 국토 이용 관리 지역이며 수도권 정비권역으로 행정수요가 많고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있는 지역이다.

본 지역에는 대학이 3개교, 고등학교 1, 중학교 2, 초등학교 4개교가 있다. 그리고 5인 이상인 기업체가 160개 업체, 연구소 7개소, 연수원 5개소가 있으며 골프장 5개소, 수영장 3개소, 눈썰매장 2개소와 한국민속촌이 위치해 있다.

나. 수지읍 지역 개관

수지읍(水枝邑)은 본래 용인시에 속했던 지역으로서 수진면(水眞面)이라 하여 손기(遜基), 고분(古分), 서봉(棲鳳), 신리(新里), 토월(吐月), 정평(亭坪), 원천(遠川), 동막(東幕), 성복(星福)의 9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그 후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지내면(枝內面)의 의상(儀上), 의하(儀下), 하리(下里), 덕동(德洞), 상리(上里)의 5개 동리를 병합하여 수진과 지내의 이름을 따서 수지면이라 하고 고기, 신봉, 풍덕천, 동천, 성복,

이의, 상현의 8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는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1983호에 의하여 구성면의 죽전리를 편입하였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이의, 하리 2개 리를 수원시에 넘겨주어서 현재 7개 리가 되었다. 수지면을 중심으로 동쪽은 모현면, 구성면, 광주군 오폐면이 인접해 있고 서쪽은 수원시와 의왕시, 남쪽은 기흥면과 수원시, 북쪽은 성남시에 닿고 있다. 1996년 3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다.

인구는 남자 46,845명, 여자 46,246명 총 93,091명으로 인구증가율 19%이다. 면적은 농경지가 8.76km²(21%)이며 임야는 28.47km²(68%), 대지가 1.68km²(4%), 기타 3.10km²(7%)로 총 42.01km²이며 용인시의 7.1%가 된다. 행정구역은 73개 리 306반이며 법정 7개 리로 되어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7호인 심곡서원(深谷書院)이 있다. 심곡서원은 상현리 20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 효종 경인년(1650)에 창건되고 같은 해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 조광조 선생의 신위는 죽전동 충렬사에 포은 선생의 신위와 함께 배향되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불탔으며 후에 건립된 충렬서원에서 이향하였다. 현재 심곡서원이 위치한 곳은 본래 정암선생이 부친의 장례를 모신 후 여막을 짓고 시묘하던 곳이라고 전한다. 이 서원은 홍선대원군이 전국 서원 철폐령을 내렸을 때에도 훼손되지 않았던 전국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다. 경내에는 정암 선생이 생전에 식수하였다고 전해지는 은행목 2그루와 괴목 1그루, 향나무 1그루가 있다. 1974년 10월 15일 외삼문을 해체 복원한 것을 비롯, 강당과 내삼문, 정전을 보수 단청하였다. 이듬해 7월 1일에는 담장 65m를 복원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하였으며, 서고 1동을 보수하는 한편 홍살문을 세우고 일각문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보물 제 9호인 현오국사(玄悟國師) 묘탑비(墓塔碑)가 신봉리 산 11번지에 있는데 이 탑비는 고려 명종조 국사였던 현오대사의 묘탑비로서 동왕 15년 을사년(1185)에 그의 문하생들에 의하여 세워졌다. 이외에 조광조 묘와 이종무장군 묘가 있다.

특히 수지읍은 서울과 성남, 수원 등 대도시와 인접한 수도권외 교통신요지로서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에 의해 택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도상지역이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개발로 다가오는 2000년에

는 인구 15만의 거대한 신흥 도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다. 구성면 지역 개관

구성면(駒城面)은 본래 용인 지역으로서 용인 읍내가 되므로 읍내면이라 하였다. 마곡(麻谷), 북동(北洞), 남동(南洞), 언동(彦洞)의 4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변면(東邊面)의 상지석(上支石), 하지석(下支石), 수원(壽院), 동막(東幕), 백현(柏峴), 중동(中洞), 수음(水音), 덕수(德水)의 8개 동리와 서변면의 보수원(寶樹院), 이현, 독정(篤亭)의 3개 동리와 구흥리의 역촌 일부와 수진면의 죽전동 일부를 병합하여 읍내와 동변, 서변, 수진의 3면을 합한 이름을 따서 읍삼면(邑三面)이라 하였다. 상하, 동막, 중, 청덕, 마북, 언남, 보정, 죽전의 8개 리로 개편하였는데 1931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의하여 용인의 옛 이름을 따서 구성면으로 고쳤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죽전리를 수지면에 넘겨 주어서 현재 7개 리가 되었다. 동쪽은 모현면, 포곡면, 용인시가 인접하였고 서쪽은 기흥면과 수지면, 남쪽은 용인시와 기흥읍, 북쪽은 수지면과 모현면에 접하고 있다.

인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25,129명으로 남자가 13,056명이며 여자가 12,073명으로 인구 증가율 12.6%이다. 세대수는 8,680세대에 농가가 578, 비농가가 8,102이며 면적은 35.15km²로 용인시의 5.9%로 농경지 7.46km², 임야 20.15km², 대지 1.88km², 기타 5.66km²이다. 행정구역은 37개 리 150반에 법정리가 7개 리로 되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가 3개교, 초등학교가 2개교, 연수원 6개소, 연구소 15개소와 골프장 2개의 관광시설과 음성나환자촌(동진원)이 있다.

주요 문화재는 용인향교가 향토유적 제 1호로 지정되어 있다. 구성면에 있다고 구성향교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용인향교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명칭이다. 건립연대는 대략 조선 정종 2년(1400)경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용인향교의 규모는 상당히 짜임새가 있는 규모로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1894년(고종 3) 말에 과거제도(科擧制

度)가 폐지되고 일제의 치하를 거치면서 낡고 퇴락한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였으나, 지방유림들의 유교적 정서를 생각하여 대성전(大聖殿)만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춘추향사(春秋香祠)를 겨우 만들어 오다가 1911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구한국 학부(學部) 소관으로 되었던 향교의 전결(田結)이 정리되는 등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민족혼을 일깨우고 항학 진흥을 위하여 뜻있는 인사들이 명륜학원(明倫學院)을 개설하여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독립지사 김혁, 이영선 선생 등이 명륜학원을 거쳐 나가기도 하였다.

그후 6·25 한국전쟁 당시 명륜당과 삼문 등이 불에 탔기 때문에 대성전만 언덕 위에 흥가처럼 전해지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명륜당(明倫堂)을 복원하였고, 1971년에는 오랜만에 대성전의 기와를 번와하고 무너져 내린 연목과 박공판을 보수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향교의 자체 재원과 지방 재정을 투입하여 명륜당의 지붕을 번와한 것을 비롯하여 내삼문, 외삼문을 복원하였고 향교 내외에 곡담을 설치하는 한편 내삼문 앞에 계단을 설치하는 등 지금의 모양을 갖추었다.

그리고 민영환(閔泳煥) 선생 묘가 구성면 마북리 산 36번지에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 제 18호로 지정되어 있다. 순국지사(殉國志士)로 선생의 묘소는 당초 풍덕천리 토월 마을에 있었다. 길가에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했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보시고 경기도 지사에게 영을 내려 선생의 유택을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이 해가 올해이며 1959년인데 이장을 한 후 묘 하단에 신도비를 세웠다.

선생은 철종 12년 신유년(1861) 7월 25일 겸호(謙鎬)의 아들로 출생, 18세 되던 해(1878)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후 정자(正字), 수찬(修選) 등을 거쳐 예조판서, 한성부 판윤(判尹) 등의 요직을 지내고 1897년 1월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6개국 특명 전권대사로 겸직 발령되었다. 선생은 빈번한 해외 여행으로 새 문물에 일찍 눈을 떠 국가의 제반 개혁을 건의하였으나 그중 군제개혁(軍制改革)만이 채택되어 원수부(元帥府)가 설치된 후 육군을 통괄하게 하였다.

선생은 독립협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정(施政)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친일적인 각료들과 대립하여 일본의 내정간섭을 성토했던 중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와 더불어 백관을 인솔하고 궁궐에 나아가 적극 반대하였으나 실패한 후 당시 종로 백목전 도가(白木麿都家) 이완식(李完植)의 집에 가서 유서 3통을 남기고 자결하여 순국지사(殉國志士)가 되었다.

민영환 선생은 서울 전동에서 출생하였으나, 을사조약 체결 당시 “선향 용인에서 두문불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생전에 용인과 깊은 연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곳에 안장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권 정남 외곽에 위치한 구성면은 경부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주요 지방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또한 군소업체가 산재하고 21개소의 연구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 보다 많다. 그리고 동백지구, 죽전·보정지구가 고시되어 있으며, 대규모 APT 단지의 택지개발로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로 급속한 도시화로 변화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용인군지 참조)

2. 조사 개관

가. 조사지역의 선정 배경

용인 서부지역인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에 대한 구비문학 조사는 조희웅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용인군편(1~9)과 용인문화원에 간행한 이인영의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구성읍지(구비문학편)』와 용인군에서 기존의 자료를 종합하여 간행한 『용인군지(구비문학편)』 등이 있다.

이중에서 집중적이고 본격적인 구비문학 조사방법론에 따라 보고하였던 『한국구비문학대계』 용인군편에는 서부지역 조사로 구성면의 조사에

서 설화 8편과 민요 1편을 수록하였을 뿐, 기흥읍과 수지읍은 조사도 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용인시 동부, 북부, 남부지역에 이어 서부지역인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의 25개 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의 조사는 북부지역과 같은 1996년 5월부터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도시화가 일찍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흥읍은 일찍이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수지읍은 조사하기 이전에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구성면은 다른 읍보다 늦으나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택지 개발을 하거나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민들의 사회적 분위기가 현장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 조사량이 미진하거나 조사하지 못한 마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1999년 6월까지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조사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지역의 조사는 처음부터 구비문학에 한정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지역이 3읍면 25개 리로 광범위하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녹취해야할 조사 보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조사 보조원으로 한양대와 용인대에 설강된 민속학 등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들에게 현장에서 조사방법론과 조사 요령을 수시로 주입시켰다. 그리고 수시로 전래의 동화나 민담집, 전설집, 민요집 등을 읽게 하였다.

이렇게 조사 보조원들에게 조사할 내용과 방법을 숙지시킨 후에 용인시 서부지역의 해당마을을 배정하였다. 2~5명을 한 조로 편성한 다음 조사대상 마을로는 한 법정마을을 선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법정마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50,000분의 1 지도를 주어, 되도록이면 지도상에서 큰 자연마을이나 행정마을을 택하여 조사하도록 권하였다. 그리고 유능한 제보자가 있으면, 그의 주소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오게 하여 추가 조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나. 조사일시와 개관

이번 용인시 서부지역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조사에서 많은 팀들이 조사하지 못했던 점에 기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팀들도 첫 번째 조사팀과 같이 조사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시 현지 조사에 실패한 팀들도 있었다. 이렇게 현장 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것은 이들 지역이 전통적인 농촌마을로도, 그렇다고 완전한 도시지역 마을로도 성장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들로 이곳 지역민으로서의 인식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현장 조사에서 이들은 어떤 전설이나 민담을 구술하기보다는 뒷전에 물러나 있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개관은 자료집에 실린 조사보조원들만의 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자료집 발간에 따른 조사 과정을 살펴보자. 1996년도의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양대의 연극영화과와 경제학부 1학년생들과 한남대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1학년이란 점을 감안하여 1팀에 5명 내외로 조사팀을 편성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용인대 민속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보충조사를 시켰고, 1999년에도 용인대 민속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추가 2차 보충조사를 시켰다. 그럼에도 서부지역 총 25개 리의 조사량은 북부지역의 조사량보다 조금 많을 뿐이다.

이들의 조사과정을 읍·면의 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흥읍

기흥읍은 일찍이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시화를 이루어 왔다. 기흥읍은 11개의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량은 겨우 구성면에 해당할 정도이고, 그것도 신갈리, 구갈리, 농서리, 하갈리, 영덕리만 조사된 자료가 많을 뿐, 상갈리, 서천리는 극히 미미하게 조사되었다. 이 기흥읍의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갈리는 기흥읍의 요충지이다. 이곳은 1996년 5월 18일에 김종부, 박

세희가 조사하였고, 6월 5일에 김미선, 김선희, 홍성란이 조사하였으며, 1997년 5월 14일에 홍석분, 권희진이 조사하였다. 먼저 김종부, 박세희는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어느 가정집에서 조사하였다. 이곳에서는 권철심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 노래판을 형성하여 민요만 중점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권철심 할머니에게 6편의 민요를 채록하였고, 그 중간에 김꼭지 할머니에게 민요 3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김미선, 김선희, 홍성란은 신갈리 원기노인정에서 조사하였다. 이 노인정에는 염병섭 할아버지가 이야기판을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구술하여 주었는데 설화 8편을, 그리고 그 중간에 맹두석 할아버지에게 설화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1년 후에 홍석분, 권희진이 이 노인정을 다시 조사하였는데, 역시 염병섭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판을 형성하여 설화 6편을 구술하였다. 그리고 김원봉 할아버지가 후반에 이야기판을 장악하여 설화 6편을 구술하여 준 것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구갈리는 1996년 5월 18일에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이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한성1차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노인정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이영만 할아버지가 이야기판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이영만 할아버지가 설화 4편, 제보자1(여)이 3편, 그리고 이근호 할아버지와 제보자2(여)가 각각 설화 1편을 구술하였다. 그리고 장소를 한양아파트로 옮겼는데, 이곳은 할머니들만 모여 있었다. 그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최점순 할머니의 구술을 시작으로 옆에 있던 홍영순 할머니와 이선예 할머니가 돌려가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서 최점순 할머니에게 4편, 홍영순 할머니에게 3편, 그리고 이선예 할머니에게 1편을 채록하며 조사를 마쳤다.

상갈리는 이영건, 김남형이 1997년 5월 14일, 신갈리를 조사하다 이웃 마을인 이곳으로 옮겨 조사하였다. 마을사람들의 소개로 이정선 할아버지를 만나 조사하였으나, 대부분 현실적으로 경험하였던 일화들만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 도중에 겨우 게으른 사위 길들이기와 간단한 지명유래 등 설화 2편을 조사하였다.

하갈리는 노기현, 최지훈, 김민석, 남경균이 1996년 5월 17일에 노인정

에서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노인정에 들러 몇 대째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최복동 할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가 6편을 구술하는 도중에 다른 할아버지들은 듣기만할 뿐 이야기판에 끼어들지 않아 이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김홍희, 이태홍, 김선희, 최판암은 1997년 5월 24일에 하갈 2리 노인정에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할 이야기가 없다며 인근에 있는 85세 된 김정현 할아버지를 소개하여 주었다. 택으로 찾아가 조사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편찮다며 꺼려하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자 흥미를 느끼며 재미있게 구술하여, 무려 7편을 채록한 것으로 만족하고 조사를 마쳤다.

보라리는 김태연, 서연희, 서동성이 1997년 5월 11일에 한 개인 집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집 주인인 70세의 할머니에게 설화 1편을 채록하고, 장소를 옮겨 또다른 개인집에서 지곡리에 왔다는 조선원 아저씨에게 지명유래 1편을 조사하였으며, 그리고 김진술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설화 1편을 조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리고 추가조사를 하였던 김상길, 이경환, 최영환은 1999년 5월 26일 보라 1리의 쉼터에서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장의 소개로 제보자를 찾아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쉼터에서 한은수 아저씨에게 설화 2편을 채록하였다. 조사자들은 보라 3리로 자리를 옮겨 박영선 할머니에게 조사를 하였으나 느티나무에 관한 단편적인 일화들만 듣고, 한양조씨의 종부인 조영립 할머니를 만나 느티나무에 관한 전설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지곡리는 김명식, 김화경, 박수진이 1997년 5월 25일에 마을에 도착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제보자를 찾아 조사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찾아가다가 그 2층에 사는 이복규 할아버지를 만나 조사를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이곳과 관련된 전설 4편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추가 조사는 1999년 5월 16일에 신현희, 안혜원, 최선영이 지곡 2리에서 시작하였다. 마을에 도착하여 이장의 소개를 받은 이복규 할아버지를 고추밭으로 찾아가 자기 조상과 관련된 이야기 1편을 채록하고, 이웃 지곡 1리로 자리를 옮겼다. 길가에서 마을 사람의 소개로 마을에 있는 절로 김석순 할아버지를 찾아가 지명유래 1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이장님에게서 소개를 받은 박제희 할아버지를 길가의 논둑에서 조사하였는데, 민요 2편을 음영조로 불러주는 것을 채록한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고매리는 우영제, 유도열, 권오준, 조정현이 1996년 5월 18일에 고매 5리에서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마을 사람들의 소개로 안오직 할아버지를 택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조사하였다. 제보자는 두껍전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지네장터 전설로 길게 설화 1편을 구술한 뒤에 민요 6편을 불러주었다. 이 고매리를 추가 조사한 배건영, 주진옥은 1997년 5월 11일 고매 1리에서 조사하였는데, 마을의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하였지만, 박덕순 할머니, 정정례 할머니, 김형선 아주머니, 이정희 할머니에게 각각 설화 1편씩 채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조사를 마쳤다.

공세리의 조사는 1996년 5월 18일에 고매 5리를 조사한 우영제, 유도열, 권오준, 조정현이 공세 2리 가게 주인에게 청춘가 민요 1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박용현, 사은택, 한원섭이 1997년 5월 18일에 추가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마을에 도착하여 70대의 제보자1 할아버지에게 공세리의 지명유래 1편을 채록하고, 더 이상 채록할 수 없어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다니다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순규 할아버지를 만났다. 제보자는 이곳에 태어났으나 다른 곳에 사시는 분으로 조상과 관련된 이야기로 3편의 전설을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조사자들은 능안골로 이동하여 오광형 아저씨에게 능안골의 유래 1편을, 제보자2 아저씨에게 설화 2편을, 그리고 저수지 앞에서 윤공중 할아버지에게 효행담 1편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농서리는 문상윤, 황영삼, 이선훈, 신현아가 1996년 5월 18일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농서리에 도착하여 텃밭에서 나물을 다듬던 제보자1 아주머니에게 설화 2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농서 2리 상회에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곳 마을과 관련된 설화 2편을 채록하고, 소개해 준 홍영숙 할머니를 택으로 찾아가서 조사하였다. 홍영숙 할머니에게 6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한편 정수미, 정윤정, 황윤혜는 1997년 5월 21일에 농서리에 도착하여 노인정을 찾아가 그 안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에게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김하균 할아버지 등 3분은 조사자들을 이끌고 마을

이 보이는 논둑에 나와서 이곳과 관련된 전설 5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같이 온 고종복 할아버지가 도깨비설화 1편, 유원수 할아버지가 고시래의 유래와 풍수설화 등 2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들은 소개를 받은 김학고 할아버지를 댁으로 찾아가 설화 2편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1999년 5월 16일에 2차 추가 조사를 한 반의옥, 최한호, 이해영은 김학고 할아버지를 찾아가 여러 가지 민속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요 2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서천리는 한정아, 조영옥이 1997년 5월 11일에 서천 2리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팀은 서천 2리의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조사를 하였는데, 제보자¹ 할머니에게 마을 유래 1편을 채록하고, 한중순 아주머니 댁에서 이점인 아주머니에게 마을 동제에 관해 듣고, 주인인 한중순 아주머니에게 가막골의 유래 1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10년간 이장을 하였다는 김종원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곳의 지명전설 3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영덕리는 김호순, 김윤미, 박진숙이 1997년 5월 18일에 영덕 4리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자들은 마을에 도착하여 나이가 많은 양선명 할머니를 찾아가 설화 2편과 민요 1편을 듣고, 술을 마시고 있던 이종범 아저씨에게 명당이나 인물담 등 설화 6편을 채록하고는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김무경, 김정선, 김중숙은 1999년 5월 27일에 영덕리 영통사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양대수 혜천스님에게 영통사와 관련된 전설 2편을, 그리고 마을로 내려와 느티나무 밑에서 유기진 할아버지에게 느티나무와 산명과 관련된 설화 3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한 가정집으로 들어가 쉬고 있던 김한선 할아버지에게 이곳의 지명 등 설화 5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 수지읍

수지읍은 조사 당시에 급격하게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 조성 등 도시화가 되기 시작한 곳이다. 그리고 서쪽은 수원과 인접되어 있어 용인지역이란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곳의 조사과정은 주 조사는 1997

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전인 1996년과 그 이후인 1999년에도 조사하였다.

풍덕천리는 공해선 김경애, 김혜영이 1997년 5월 26일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이 노인회관에 도착하였을 때, 할머니들 7~8명이 모여 있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부회장인 최난중 할머니께서 이야기 판을 형성하였다. 최난중, 최상남, 용인 이씨 할머니에게 각각 설화 1편씩, 그리고 유용숙, 명경자 할머니에게 각각 설화 2편씩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동천리는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이 1997년 5월 18일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이 동천리에 있는 낡은 집의 방 한 칸인 노인정을 찾아갔을 때 할머니들만 모여 계셨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경상도 말투의 김가내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화 8편, 김무순 할머니가 설화 4편, 김정해 이주머니가 설화 1편, 그리고 손분순 할머니는 김무순 할머니가 구술하다 만 설화 1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장님을 만나 소개받은 제보자를 찾아 댁에 갔다가 마을회관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설화 1편을 채록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여 못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었다. 그래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이원순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할머니에게 설화 1편과 옆에 있던 며느리에게 3편의 설화를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고기리는 1997년 5월 18일에 소경석, 전명곤, 김종윤이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고기 2리에 도착하여 이장님댁을 방문하여 이찬순 이장에게 이곳과 관련된 전설 1편을 듣고, 그가 소개해 준 이 마을의 최연장자인 정연수 할아버지를 댁으로 찾아가 이곳과 관련된 설화 6편과 민요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신봉리는 박민, 장세영, 윤희영 조와 이덕재, 이상실, 최기섭 등이 1996년 5월 18일에 조사하였다. 앞의 조는 원래 성북리를 조사하였으나 택지 개발에 따라 마을 뒤송송하여 조사하지 못하고 이곳 신봉리로 장소를 옮겨 조사하였다. 이 조는 신봉 1리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이은영 아저씨를 만나 사실적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설화 4편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뒤의 조는 신봉리 서봉마을 길가에서 이도상 할아버지를 만나 조사를 시작

하였다. 그런 도중에 산에서 나물을 뜯어 오던 박훈임 할머니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때 이도상 할아버지와 박훈임 할머니에게 각각 설화 4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성북리는 김도희, 이정현이 1997년 5월 18일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성북 2리에서 이장을 지냈던 황희철 할아버지에게 설화 2편을 채록하고, 소개해 준 이상설씨를 자택으로 찾아가 전설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이 지역은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에 의해서 1999년 5월 15일에 추가 조사되었다. 성북 2리 길가에서 고추 모종을 심고 있던 김주명씨를 만나 이곳과 관련된 전설 4편을 채록하였다. 그런데 이날 수지초등학교의 경로 잔치에 마을의 노인들이 참석하여 없던 관계로 대원사를 찾아갔다. 이곳에서 송산스님을 만나 역시 이곳과 관련된 간단한 설화 4편을 조사하고 다른 제보자를 찾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5월 16일에 재방문하여 마을 사람들이 추천한 허현옥 할아버지를 자택으로 찾아갔다. 맥에는 조돈희 할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먼저 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조 할머니는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래서 허 할아버지가 긴 설화 6편을, 그리고 조 할머니가 3편을 구술하여 준 것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상현리는 1997년 5월 15일과 20일에 신용철, 최종원이 조사하였다. 15일 별 부담없이 조사에 참가하였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서원 안에 있는 조광조의 시구를 적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했다. 20일에 재차 방문하여 우선 이장님을 찾아가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 자리에서 설화 2편을 채록한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죽전리는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이 1996년 5월 18일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죽전리에 도착하여 25경로당을 찾아갔을 때 김황복 할아버지가 3편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구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판을 형성하였다. 그 이후는 구병장, 최병호 할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구술하였는데, 김황복 할아버지 설화 8편, 구병장 할아버지가 설화 4편, 최병호 할아버지가 설화 5편을 구술하여준 것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 구성면

구성면은 용인의 구읍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덜 도시화되었다. 그래서 7개 리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11개리의 기흥읍보다 조사량이 조금 적다. 이 지역은 1996년도 연극영화과에서 담당하였고, 그 뒤 1997년에 추가로 보충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언남리는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가 1996년 5월 18일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노인정을 찾아갔는데, 5명의 할아버지들이 모여 담소하고 있었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완송 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판을 형성하여 주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보자1, 강태용, 이완송 할아버지가 각각 설화 1편, 김관식 할아버지가 황진이와 관련된 긴 설화 1편, 그리고 이순창 할아버지가 설화 4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들은 노인정에서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다니다가 한 집에서 3명의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복례 할머니에게 설화 1편과 민요 1편을, 장개순 할머니에게 설화 1편, 그리고 말하기 싫다는 이철성 할머니에게 설화 3편을 채록하였다.

마북리는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이 1996년 5월 18일에 조사하였는데, 노인회의 총무의 소개로 창고 뒤에 있는 숲속에서 노인회장을 만나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자리에서 설화 6편을 채록하고, 장소를 노인회관으로 옮겼는데 할머니들 4명 정도가 앉아서 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보자1 할머니에게 설화 2편, 제보자2 할머니에게 설화 3편을 채록하고, 노인회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 앞에서 쉬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사실적인 이야기와 설화 1편을 채록하였다. 다른 제보자를 찾아 장소를 옮기는 도중에 환경위원회 사무실을 들러 두 아저씨, 즉 제보자4에게 설화 4편, 제보자5에게 설화 5편을 채록한 뒤에, 더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한 아저씨의 슬주정으로 조사를 마쳤다.

청덕리는 1996년 6월 16일에 한상인, 서대정이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노인정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막막하였다. 한참 망설이다가 마을을 돌아다니던 도중에 자택에서 쉬고 있는 이일순 아주머니를 만나 조사

를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6편의 설화를 듣고 장소를 이옥선 아주머니 댁으로 옮겨 단편적인 설화 2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이 청덕리는 1997년 6월 2일에 주소정, 김소희가 추가 조사를 하였는데 이정희 할아버지에게 이곳과 관련된 전설 3편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동백리는 김희연, 박범진, 박홍희, 전병식이 1996년 6월 4일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마을에 도착하여 노인정을 찾았으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래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조사하지 못하고 저녁 7시쯤에 다시 노인정을 찾았을 때는 여러 명의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으나 화투치기에 열중하고 있어 채록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도로변 조그만 가게에 계시던 전주이씨 할머니에게 설화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6월 8일 재차 방문하였을 때, 노인정에 나와 쉬고 있던 병으로 귀가 어두운 곽영일 할아버지에 저승 갔다온 이야기와 아버지를 속인 서손 이야기 등 긴 설화 2편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한편 장지현, 장은영은 1997년 6월 2일에 조사하였는데, 노인정에 나와 담소하며 쉬고 있는 박용철, 김용식 할아버지가 있어 조사를 하였다. 여기에서 박용철 할아버지가 이야기 판을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용철 할아버지에게서 설화 5편과 민요 6편, 김용식 할아버지에게 설화 1편과 민요 3편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중리는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등이 1996년 5월 18일에 조사하였다.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시의원 생일이라고 거의 외지로 나가고, 마을회관 앞 나무 밑에서 정진수 할아버지를 만나 이곳에 관련된 전설 1편을 채록하고, 마을 사람들이 추천한 최고령의 이병직 할아버지를 댁으로 찾아가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이곳의 전설과 민담 10편과 민요 1편을 채록하였다. 이병직 할아버지가 너무 피곤하게 보여서, 조사자들은 심대선 할머니 댁으로 자리를 옮겼다. 혼자 계시던 제보자는 처음에는 꺼리더니 나중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구술하여 8편을 구술하고는 갑자기 불 일이 있다며 나갔다. 그래서 장소를 정순자 할머니 댁으로 옮겨 긴 민담 2편을 채록하였다. 다른 제보자를 찾다가 길가에서 이동옥 할머니에게 민요 1편을 채록하고, 송학석 아저씨를 만나 지네색시란 민담 1편을 채록

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상하리는 한남대에서 민속학을 수강하였던 김승연, 손명기, 양권석, 장선호가 1996년 5월 18일에 조사하고, 한양대 연극영화과의 길성진, 김유미, 양운정, 지성원, 최명신이 1주일 후인 5월 25일에 조사하였다. 우선 김승연 등은 마을에 도착하여 노인정을 찾았으나 없어, 이야기를 잘 하는 분을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 임선옥 할머니를 찾아가서 긴 민담 1편을 듣고, 장소를 최경랑 할머니 댁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도깨비, 구렁덩덩 신선비 등 3편을 채록하였다. 조사자들은 다시 김인준 할아버지 댁으로 옮겨 풍수와 도깨비 이야기 2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한편 길성진 등은 일주일 전에 조사하였던 임선옥 할머니에게 앞의 조사팀이 채록한 이야기를 포함하여 3편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수안동 길가에서 70대의 남자 제보자를 만나 전설 1편을 채록하고, 장소를 60대의 아주머니 댁으로 옮겨 단편적인 설화 2편을 듣고, 70대의 최순호씨의 후손에게 설화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보정리는 용인대의 김숙향, 이상덕이 1997년 5월 25일에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문이 닫힌 노인정을 뒤로 하고 이야기를 잘 한다는 이순남 할머니를 자택으로 찾아갔다. 최 할머니에게 우렁색시 등 4편을 채록하고 정규환 할아버지를 소개받았다. 정규환 할아버지에게 소도둑과 음담패설형 등 설화 2편을 채록하였다. 다른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가 집안에서 쉬고 있던 70대 할머니에게서 설화 2편과 민요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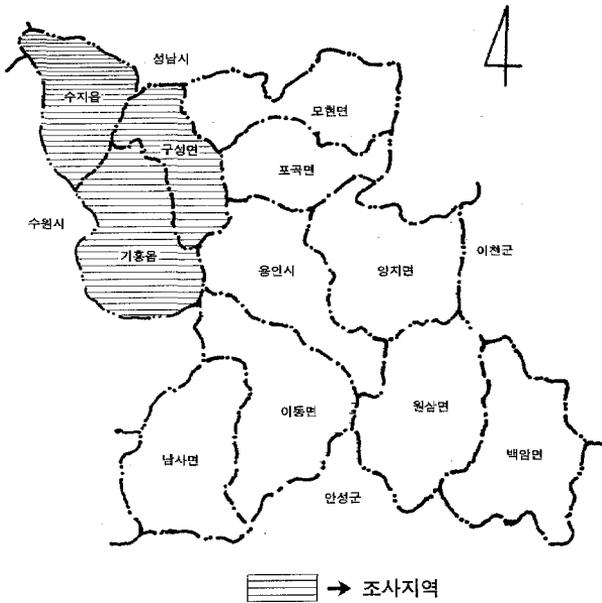
다. 조사지역의 리별 개관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의 총수를 읍면의 리별로 재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는 설화와 민요 등 구비문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조사지역은 용인시 서부지역인 구성면, 수지읍, 기흥읍으로 한정하여 수록하였다. 아래의 조사 자료수와 실제로 수록한 자료수는 한정된 지면으로 차이가 있다.

	살화	면요	제보자	주요살화제보자 (자료수 3편 이상)
【기흥읍】				
신갈리	20	10	6	염병섭(14) 김원봉(5) 권철심(0+7) 김꼭지(0+3)
구갈리	17		7	이영만(4) 최점순(4) 홍영순(3) 1제보자(3)
상갈리	2		1	이정선(2)
보라리	6		5	한은수(2)
지곡리	6	2	3	이복규(5)
공세리	8	1	6	최순규(3)
고매리	5	6	5	안오직(1+6)
농서리	20	2	7	홍영숙(6) 김하균(5) 김학교(2+2)
서천리	5		3	김종원(3)
하갈리	13		2	김정현(7) 최복동(6)
영덕리	18	1	5	이종범(6) 김한선(5) 유기진(3) 양선명(2+1)
소계	121	22	50	
【수지읍】				
풍덕천리	7		5	유용숙(2) 명경자(2)
동천리	18		7	김가내(8) 김무순(4) 이원순의 며느리(3)
고기리	7	1	2	정연수(6+1)
신봉리	12		3	이은영(4) 이동상(4) 박훈임(4)
성북리	20		6	허현욱(6) 김주명(4) 송산스님(4) 조돈희(3)
상현리	2		1	이장님(2)
죽전리	17		3	김황복(8) 최병호(5) 구병장(4)
소계	83	1	27	
【구성면】				
언남리	13	1	8	이순창(4) 이철성(3)
마북리	21		6	노인회장(6) 5제보자(5) 4제보자(4) 2제보자(3)

청덕리	11		3	이일순(6) 이정희(3)
동백리	9	9	4	박용철(5+6) 김용식(1+3)
중리	21	2	7	이병직(9+1) 심대선(8)
상하리	13		6	임선옥(4) 최경량(3)
보정리	8	1	3	이순남(4) 1체보자(2+1)
소계	96	13	37	
총계	299	36	114	

조사지역을 지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 백

II. 기흥읍

- ① 신갈리
- ② 구갈리
- ③ 상갈리
- ④ 보라리
- ⑤ 지곡리
- ⑥ 공세리
- ⑦ 고매리
- ⑧ 농서리
- ⑨ 서천리
- ⑩ 하갈리
- ⑪ 영덕리

여 백

1. 신갈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종부, 박세희, 김미선, 김선희, 홍성란, 홍석분, 권희진 조사
(1996. 5. 18., 6. 5., 1997. 5. 14.)

신갈리는 수원과 용인간의 국도가 생기면서 급속하게 발전한 마을이다. 이 신갈리는 남북으로 중앙에 경부고속도로가, 북쪽에는 영동고속도로와 신갈안산고속도로의 분기점이 있고, 경부고속도로의 수원톨게이트가 이곳에 위치하면서 교통의 요지로 발전하였다.

신갈리는 구홍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역촌, 신촌, 미동, 갈천, 상미, 상관속리를 합하여 신갈리라고 명칭하여 기홍면에 편입되었다. 이 신갈리를 이루는 자연마을로는 갈천, 원기, 상미, 신역동, 신능골, 역동, 신대촌 등이 있다.

갈천은 신갈 옆으로 흐르는 하천이 칩의 형상으로 흘러다고 해서 유래된 명칭으로 갈래라 하는데, 옛 이름은 궁말갈래라고 한다. 그런데 궁말갈래는 옛날에 활쏘는 사정터가 있던 굴마을에서 유래된 것 같다. 그리고 원기는 서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원터라고 하는데, 역을 원으로 잘못 알아서 붙여진 이름 같다. 상미는 고속도로 서쪽에 있는 양지말 북쪽에 있는 마을로, 상촌과 미동을 합하여 생긴 마을이다. 역동은 역말이라고 하는데, 현재 고속도로 분기점에 위치한 마을로 삼남지방과 한양을 잇는 중요한 역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근처에 새로 마을이 생긴 것은 신역동, 신대촌은 역말 남쪽에 있는 새로 잡은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마을이고, 그 동남쪽에 새능골이란 마을이 있는데, 능자리가 있어서 능골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근처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2) 설화

1 자기 새끼 귀엽다면 좋아하는 호랑이

엄병섭(83, 남)/신갈리T 1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미선, 김선희 홍성란 조사(1996. 6. 5.)

노인정의 분위기는 한 쪽에서는 화투를 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술을 드시고 계시는 상황이었다. 우리들이 노인정에 들어서자 모두 반갑게 맞아 주셨고, 할아버지 네 분께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셨다. 제보자는 옛날에 이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라 한다.

그런데, 인자 아버님들 뉘, 할아버님들 말씀들 들어볼 적에, 참 사실 호랭이가 모두 있었다구. 예, 한날은 부인네들이 한 댁 분이 나물 뿌금이를 들고, 그 저 조병준이 살던 그 덕굴고개라고요, 그 절터가 있었죠. 거기.

거기를 나물을 뜯으러, 뜯으면서 올라가니께 아 우째니 강아지 새끼가 그냥 우물우물 해더랴. 그래서 그 부인네들 맘에, 고 강아지니께 이빠서, “아이고, 이빠! 아이구, 갖다 길렀으면 좋겠다.”

요렇게(옆의 제보자를 쓰다듬으며) 쓰다듬었다구, 강아지를. 그러니께 그 우워서,

“어허어형!”

이라고 해대라걸랑. 그래 부인네들이 올라다 보니께 큰 호랭이가 웅크리고 앉았는데, 새끼를 구안(귀여워 하)이께 자기도 신, 신기해서 그렇게 그런,

“으으응흥”

그랬걸랑. 그래서, 부인네들은 나물 뿌금지를 죄 팽개두고 그냥 무서우니께 뱀다 들고 뛰었어요, 집으로. 집에 와서랑은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 날 저녁에, 그 이튿날 식전에 보니께, 어느 곁에도, 그

나물 뽕금이를 제각각, 그 자기네 꺼를 죄 찾아서 문간에다 갖다 놔줬드리아.

그렇게 옛날엔 호랭이도 그렇게 영감하고, 우뚝게 그걸 찾느난 말이여. 갖다 몰어서 노른 이것저것 갖다 몰어다 놓을텐데, 그 집 거마두 찾아서 그렇게 몰어다 거기다 놓드라우. 그래 그런 역사가 있었구.

2 호랑이 꼬리를 잡은 사람

엄병섭(83, 남)/신갈리T 1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미선, 김선희 홍성란 조사(1996. 6. 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근데, 그 낭반 징조부님이 고 우리 뒤에, 그 이름이 고가 개박고개라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왜 신발을, 날 질 적에는 나막신을 신고 땡기지 않았어요. [청중 : 그렇죠.] 옛날에. [맹두석 : (조사자들을 보며)나막신이 뭔지 보지도 못 했지?]

에, 그 우뚝게 당신네 우리 뒤에 가느라고 그 건전엘 가니께, 마침 뒤가 마렵더라. 그래서, 그 뭐 비지 않는 데니까 이렇게 참 옷을 내리구서 뒤를 보느라우 인저 이렇게만 앉아서 뒤를 보는데, 아 이 뒤에서 아니, 앞에서 호랭이가 쫓아 오더라는군 그래.

그래서 우뚝게 어느 길에 이걸 까뭉기구서, 앉아서 그냥 그 호랭이 쫓땡이, 이걸 왼쪽 잡아 땡겼대걸랑. 그러니께 호랭이가 빠팅기고 뺨다 달아 날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낭반이 이를 쫓따구 빠팅기구 있어가지구설랑, 결국은 그대두 야중에 범, 천해장사가 호랭이 아니여. 결국은 어떻게 이 양반이 놓쳐가지구서 그냥 내빼달은 역사도 또 있어요.(웃음)

3] 호랑이를 잡은 사람

엄병섭(83, 남)/신갈리T 1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미선, 김선희 흥성란 조사(1996. 6. 5.)

앞의 이야기에 마치고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주었다.

그렇구 내가, 지가 호랑이 얘길하면 많아요. 그 옛날 얘기 인저 보진 못 해구 인저 으른들한테 들었지만, 그 인 앞에 강심터라구 있어요. 거기는 내 뒷벌벌따구니에 참외들을 놓고, 이렇게 밤이면 원두막을 짓고 에- 있는데, 호랑이가 와서 원두막 기둥에다가 비개질을 헨다 이거야.

그럼 원두막이 그거 뭐 흔들흔들 헬 것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인지 참 말인지 몰르겼으나, 어른들이 말씀해 해니께 인저 그걸 밟아서 지가 말씀 드리는 건데, 그래서 원두막에서 자는 사렘이 이걸 보니 무서워서 내려올 수가 있어야지. 꿈쩍 못 해구 숨도 못 쉬고 그냥 있는데, 거의 건너서 소리를 기가 맥히게 낭자가 소리 하걸랑.

그러니께 이놈의 호랑이가 웅덩이를 비비고 있다가 쏘살같이 그냥 그리 뛰어 가더래걸랑. 그래서 한참 이 원두막에선 있다가 무서워서 나우(오)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울마 있으니께 사렘이 낭자가 와서,

“주인! 주인! 참외 하나 팔라.”

고 이렇게 얘길 해더라. 그래서 그 호랑이가 와 비빈 생각을 하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내려가요, 거기를. 그러니께,

“아이구! 거 발에 가서 좀 많이 따 잡수라.”

고 주인이 그렇게 얘길 했다구. 무서워서 내려가진 못 해구. 그래니께 발에 들어갔다 나와, 에- 옛날 노인네들이니께 원 많이 잡쳤는지, 몇 개 잡쳤는지 따서 잡습구 나오시더니, 그 주인더러,

“나는 돈이 없는데, 널 식전에 조(저) 건너 좀 가보라.”

고 그래구 하더래걸랑. 그래구서 그 분이 그냥 갔대. 그래서 자.

“이거 무슨 변권가?”

하구. 날이 밝아가지구 식즌(식전)에 거길 가 보니까, 아 그, 그 분이 그냥 호랭이를 우뚝게 바짝 들어가지구 좁은 보도랑에다가 요렇게 옆, 자빠뜨려 놔는데 꼼짝 못하구선 죽었드래.

그래, 그런 얘기도.(말끝을 흐림)(일동 웃음)

4 삼백 근을 짊어지고 만리를 달린 임경업

엄병섭(83, 남)/신갈리T 1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미선, 김선희, 홍성란 조사(1996. 6. 5.)

앞의 이야기에 마치고 앞의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는 도중에 해 주신 것으로 임경업이 장사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 거짓말 같으지요? 옛날 분들은 기운이 장사였어. 장사. 임경업이라고 아시지. 그 낭반이, 무쇠 삼백 근을 짊어지고 말미(만리)를 간 양반이예요. 말미. 말이 삼백 근이지, 삼백 근이른은 엄청 큰 거요, 무거여요. 그런데 저는 거 거짓말 같애야.

[맹두석 : 아 삼백 근을 저 젊은 사람들은 젖어요. 그걸 내 알아요.] 그 거를 지고설랑은, [맹두석 : 그걸 지고선 뭐로 서로 내기를 하는 걸 내 봤어요. 그 삼백 근 저요.]

5 호랑이 헛바닥을 짊은 사람

맹두석(86, 남)/신갈리T 1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미선, 김선희, 홍성란 조사(1996. 6. 5.)

앞의 이야기에 마치고 자신이 경험하였던 호랑이 이야기를 한 뒤에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앞의 제보자에 이어 계속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미선 : 애기 좀 해주세요.] [청중 : 그런데 아 이제 간단히 내가 그만 끝낼 거여. 어허. [미선 :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옛날에 요만할 땐데 토끼풀이를 갔어, 여섯 명이. 그런데 한 50여 세 된 사람은 인자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은 호랭이를 못 보고, 그 나머지 다섯 명은 호랭이를 봐서 집으로 뛰내려왔거든.

아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죽었나 허고, 호랭이에게 먹혔다 허고 동네 사람을 붙여가지고 인자 올라가니까, 아 이놈을 호랭이가 헛바닥을 어떻게 이렇게 움켜 쥐고서는 왔다갔다 허.

아 그래서 동네 사람이 피기를 모두 잡았는데, 그때 300원짜리라고, 그 호랭이 잡은 것, 그렇게 큰 거여. 그런데 이 자식이 신문에 난 것을 어떻게 냈는고 허니, 그냥 호랭이가,

“어흥!”

허고 이려고서는 그냥 아기를 딱 벌리더라. 아 그래 인제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벼락같이 뛰어 들어가서 헛바닥을 이렇게 움켜 쥘데. 그러니 이 사람은 헛바닥이 이렇게 움켜 쥘으니깐 헛바닥 안으로 잡아 끌면, 끌어야 물텐데 움켜쥐서 그냥 돌이 왔다갔다 줄다리 허든 것을 잡았다고. 그 놈은 아주 그것말 같은데, 신문에 난 것을 봤어. 넌.

6 호랑이와 싸워 이긴 소

임병섭(83, 남)/신갈리T 1동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미선, 김선희 홍성란 조사(1996. 6. 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를 끝냈던 제보자가 곧바로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호랭이래는 게 참 산중 영웅이예요. 그렇다구 해서 호랭이를 만나다구 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잡아 먹지를 못해요. 산중 영웅이예요.

그런데 에 소가 호랭인 잡어요. [맹두석 : 소가 참 호랭인 이긴 디야.(웃음)] 예. 호랭인 잡는 대요. 그 호랭일 잡을 적에, 그 뭐 참 그 옛날 전설 이지 다.

나무를 해서 팔구 올적에, 소를 가지구 팔구 올 적에 그건 저기 그 뭐야 에- 거가 정자꿀 애기, 시부꿀 애기, 거기서두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뒤꼬 급사가 그때 나무장사가 땡졌었지, 송문턱으로. 그런데 거기, 지금은 참 거기가 뭐 도시가 됐지만, 옛날엔 거기두 그냥 산이 드세구 모두 그러는데.

거길 오는데, 소를 끌고 오는데 호랭이가 그냥 앞을 딱 막걸랑. 그러니까 우뚝게 해느냐 말이여. 소를 끌고 온다 그랬는데. 그럴 적에는 소를 추워 줘야 해여.

“아, 기운 시다. 아유 잘 한다.”

이렇게 추워 돼야. 추워 줘야지. 만약에 무섭다구 해서 사람이 피해면은 그 사람 죽어요, 소한테. 에- 두둔해 주구, 참 상마리다가,

“시다. 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냥 ‘죽는다’구 그러면은 소하구 호랭이 하구 싸울 적에, ‘시다 시다’ 해구서 해주며는, 소가 사람을 그 다리 새이다 끼구서 호랭이 하구 싸운다구.

그럼 결국은 호랭이 잡어요. 그런데 무섭다구 소만 내뺨리구 집으로 도망질을 온대든지 그래면은, 그 호랭이 하구 싸움허는 시간이니께 피해서 집으로 도망질을 칠 수가 있지, 사람이. 결국은 호랭이를 잡어 놓구 소가 돌아와서 그 주인을 죽인 대여. 자기를 내뺨리구 게 자기 몸만 피해서 도망을 왔으니께, 돌아와서 주인을 소가 받아서 죽인 대여.

그러게 호랭이는 산중영웅이구. 또 호랭이 이기는 건 소배께(밖에) 없다구. 소가 그렇게 육덕이 크구 이래도, 그 호랭이 하구 싸울 떡엔 번개불 피덕이 으트게 날란지, 사람을 그 소 배때기다 끼구서 싸운 대여. 그렇게 소두 날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두 있구. 거 뭐 옛날 참 역사적 얘기를 해자면, 그거 뭐 아이구 호랭이가 사람을 타구 앉아서 잡어 먹은 것두 있구. 별 역사가 다 있어.

7 이무기가 나간 방죽

엄병섭(83, 남)/신갈리T 1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미선, 김선희 홍성란 조사(1996. 6. 5.)

앞의 이야기에 마치고 용인시에 관련된 간단한 몇 마디를 하였다. 그리고 짧은 이야기라며 구술하여 주었다.

요건 짧은 거 뭣 마디여 내가. [미선 : 쨌잖아요.] 거기는 옛날에 그 방죽 밑에 거기 방, 저기 강이 있었디야. 방죽이 있었는데 여수네 한씨들이 거기 산수(산소)를 쓸 적에, 그냥은 거기 못 쓰구 배를 타구 들어가서 거기 산수 쓴거여. 근데 그 산수가 그저 있어요, 현재.

그런데 거기 방죽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거기 이미(무)기가 있대는 거야. 이미기. 그래서 인저 거 시대야 인저 따라서, 예- 이무기가 노박(항상) 거기 있는게 아니구 이미기가 나갔어요.

어디루 나갔느냐? 거진이, 왜 거진이 고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고개가 아주 고개가, 산이 드세구 이랬는데. 그 이미기가 나가느라구 그 고개를 뚫구 나갔다는 거여. 그래서 거리쟁이 고개가 생기구, 방죽이 인저 이미기가 나가기 때문에 방죽이 폐지가 되구 이랬던게, 저거 전설로 나온다구. 그건 우리 동네 얘기라구 이게.

8 빈대 때문에 망한 짚

엄병섭(84, 남)/신갈리T 2앞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홍석분, 권희진 조사(1997. 5. 14.)

제보자는 연세가 많으시고 친절한 분이셨다.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고 차분하게 이야기 해주셨다. 처음에는 아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셨지만 자꾸 조르니까 이야기를 하나 하나 꺼내셨다.

옛날에 우리 게서(마을) 말이야, 우리. 나 사는 부락에서 그 때는 산이 이렇게 거(巨)했다구. 나무가 이렇게 아람드리가 들어서구. 그럴 적인데 그러니까 수백 년 전의 얘가지, 그것도. 부인네들 둘이가 앞에, 고기서(거기서) 얼마 안 가. 그런데 절터거리라고 절이 있었어요. [조사자 : 절터어요, 할아버지?] 응.(조사자 웃음) 그런데 이것두 전설이여.

[조사자 : 무서운 얘기인가 봐.] 전설인데. 절이 있는데, 하루는 동남을 해가지고 가니께, 절두 쪼그만 절이래. 빈대가 그냥 보격(부엌)까지 찻드랴. 그러니 저, 저기 거시기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떠났다구.

그런데 지금 꺼정두 거기 그 돌맹일 쳐들면 빈대가 있다는 거야. [조사자 : 빈대가 뭐예요?] 왜 옛날에 빈대가 뭐두 벼룩이 있고, 빈대, [조사자 : 벼룩.] 빈대가 있구 그렇지. 지금은 약들이 좋은께 그런게 다 읊어졌지만, 옛날에 촌에서, 촌이나 도시나 시골이난 빈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빈대가 복곡에까지 차서 무서워서 그냥 떠났다구 그래고. [조사자2 : 빈대가 무서워서 떠났다구요?] 그럼. [조사자 : 절 그 스님이요?] 그렇지. [조사자 : 큰스님이.]

9] 집주인 구렁이

엄병섭(84, 남)/신갈리T 2앞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홍석분, 권희진 조사(1997. 5. 14.)

제보자는 태어난 집에서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사신다고 한다. 어릴 때에는 구렁이를 많이 봤다며 구렁이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에 앞서 왕의 눈물을 대해 말하고, 조사자가 유도하는 과정에서 채록하였다.

그것 그전에는 촌에 울타리에 새가,

“ 짹 짹 짹!”

허고 이렇게 보면, 석가래만큼씩 한 구렁이가 슬슬 돌아다니걸랑. 옛날엔

똥았어, 그게. [조사자2 : 근데 그 구렁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조사자 : 그럼 집을 지켜준다고요?] 그렇지, 이르기를. 그게 집임자라고 해결탕. 그러면 옛날에도 그거를 잡지를 았았지. 집임자니께 잡으면 못 쓴다고 그래서 잡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삭시들 같은 사람들 보면,

“아이구 그것 무섭다.”

고 다 내빼겠지. 남자들도 무서워 해요. 석가래만한 구렁이가 울타리 슬슬 돌아대니구, 왜 초가집에 이렇게 새가 지는 새굴이 있어요. 그런데 추녀를 이렇게 돌아다니며 들어가서 새 새끼 잡아 먹구 그렇게 해. [조사자 : 그러면 구렁이는 사람한테 해를 안 끼쳤어요?] 그런데 가만두면 해를 안 끼치지. [조사자 : 뭐든지 그랬구나!] 그럼.

울타리를 돌아댱겨도 가만 내버려 둔게, 누구든지 집임자라고 건드리지 았거탕. [조사자 : 그런데 그 구렁이가 어디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 몰르지. 그런데 이 근래에는 하나 구경할래 없어요.

10 은혜갚은 왜가리(황새)

엄병섭(84, 남)/신갈리T 2와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홍석분, 권희진 조사(1997. 5. 1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변신담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생각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지끔이나 옛날이나 남한테 잘하면 복을 받아요. 남한테 악하게 하면 못 쓰고. 현대 한 사람이, 옛날에 인자, 그게 전설이여. 옛날에 어딜 가느라고 가니께, 그 나무 꼭대기에서 왜가리가 아주,

“ 짹짹!”

거리고 소리를 지르결탕. [조사자 : 왜가리가요?] 응. 그래서,

“야, 이상하다.”

고 해서, 이렇게 쳐다 보니께, 응, 구렁이가 거기 올라가서 왜가리이 새끼

를 잡아 먹는다구. 황새 새끼를. 왜가리 새끼를. 황새 새끼를 다 잡아 먹
 거랑. 그런데 인제 활랑이여. 활을 미구 대니께. 옛날에는 활을 미구 대냈
 어. 그래서 그걸 보니께, 그걸 잡아 먹으라고 해는데 안 됐걸랑은. 그런데
 그 나무 꼭대기 그 구렁이 있는대로다가 활을 냅다 쫓다구. 그런데 큰 석
 가래 같은 구렁이가 땀씩 떨어지길랑, 활을 맞아서. 그래서 떨어뜨리고 그
 냥 잤다구.

[조사자 : 그 사람이?] 영. 그런데, [조사자 : 시상에 착한 일 했다. 할아버지!] 응. 그런데 그 사람이 인제 몇 해 후에 한 번 지나니께, 멍석 따울
 기가 빨강게 피어 있다, 그 나무 밑에. 그래서 그 멍석 따울기를 따 먹었
 단 말이여. [조사자 : 멍석 따울기가 뭐여, 할아버지?] [일동 : 딸기.] 따울
 기가 있어. [조사자 : 딸기. 따울기.] 나므 따울기 거가 있고. [청중 : 딸기
 를 따울기라고 해.] 응. 그렇지.

그것 따 먹었는데, 그게 뱀 독이 들은 거야. 그래서, [조사자 :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툽툽 붓고, 그냥 꿈쩍을 못 해고 죽게 됐걸랑. 그래서 직
 집이, 자기네 집에 가서 떡, 인자 죽게 됐으니께, 이렇게 드러 누웠으니께,
 [조사자 : 들어 누으셨어요?] 응 들어누웠니께, 백깁(바깥)에서 그것 외가
 리가, 그 참 거기서, 그 나무에서,

“깁!”

거리고 밑이를 그렇게 짓걸랑. 그래서,

“아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구서 백깁으로 간신히 기여 나가서, 양지쪽에 이렇게 앉아 있으
 니께, 난데없이 그 외가리가 와서, 몸이 툽툽 부엌데요. 와서 주둥이로 한
 번 쿡 찍으면 뱀을 한 마리씩 꺼내다가 내뺄고, [조사자 : 몸에서요?] 그
 래. 몸에서. 또 여기 한 번 쿡 찍으면 여기서 또 끄내다가 내뺄구.

그래서 외가리두 자기가 죽을 건대, 그 사람이 활을 쏘서 구렁이를 죽
 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 이거여. 그런데 그 사람은 멍석딸기를 먹고
 병들어 죽게 되었은께, 외가리가 자기 살린 은혜를 생각해구 가서, 몸뚱이
 서 뱀을 끄내서, [조사자 : 몸뚱이서?] 응. 그래서 그 사람이 살랐다 이거
 여.

[조사자 : 할아버지! 정말 착한 일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 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그 저 될 수 있으며는 우리 아들 보고도 그래고, '남들한테 나쁜 일은 해지 말아라. 그저 도와 주면서 좋은 일을 하면 아무 때든지 너의 태어난 지, 우리 죽은 후에 태어난 데도 니들이 잘 된다.'고. (이후 교훈적인 훈계라 생략.)

II 구렁이를 찾아 다니는 두꺼비

엄병섭(84, 남)/신갈리T 2앞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홍석분, 권회진 조사(1997. 5. 1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두꺼비에 대해 묻자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두꺼비가 새끼를 칠레며는 능구리가 있어요, 능구리이. 뱀. 빨건 뱀이 있어. 그런데 그거는 사람은 어떻게 물지는 않는데, 의래 두꺼비가 뱀을 찾아 데니는 거여, 능구렁이를. 새끼 칠라면. 뱀이, 능구리가 두꺼비를 잡아 먹으면은 새끼를 치는 거여.

[조사자2 : 아니 아니 그러며는 능구렁이가 두꺼비를 잡아 먹으며는,] 그렇지. 글썸. [조사자2 : 뱀이 새끼가 생기는 것야.] 두꺼비 새끼가 생기는 거지. [조사자2 : 그래 자기 몸은 죽고.] 그렇지. [조사자2 : 그 먹히면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렇지. 그 연어라는 게, 물피기가 저 아래 어디 있다가 물을 치거슬러 올라오잖아. [조사자2 : 그러고 알을 낳고.] 그럼 거기 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게 마련이여. 그 마찬가지로. [조사자2 : 그럼 먹히며는, 할아버지! 구렁이한테 먹히며는 자기 몸은 다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건 구렁이지.

[조사자2 : 잡아 먹히면 죽는 건데 어떻게 새끼를 쳐요.] [청중 : 그러니까 인저 두꺼비가 알을 잔뜩 배가지고 들어 갔으니까, 거기서 두꺼비가.] [청중2 : 알을 배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두꺼비가, 두꺼비가 먹으며는 뱀

뼈 마디가 다 두께비가 되는 거여.] 그랴. 그렇게 해서. [청중 : 자기 새끼를 위해서 죄 몸을 희생을 시키는 거야.] 죄 몸은 희생을 되고, 인제 그 새끼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껍이가 구렁이를 찾아 땡긴다는 거여. 새끼를 칠라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여.

12 원님을 골려먹은 양반

김원봉(75, 남)/신갈리T 2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홍석분, 권희진 조사(1997. 5. 14.)

앞 제보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한 할머니에게 시집와서 살아온 내력을 들었다. 그래서 다른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제보자가 나서서 이야기판을 이끌어 갔다.

옛날에 원님이 부임을 했는데, [조사자 : 이 마을예요?] 응. [조사자2 : 이 마을에?] 앵. [조사자2 :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했는데, 양반한테, 양반이 사는데 문안을 안 오거든. 그러니까,

“야, 이놈! 고안 놈이로구나!”

그리고. 한 고을 원으로써. 그래구는 인제 이냥이냥 좀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구 있으니까 인자,

“원님! 찾아 뵈러 갑니다.”

이러구선 인자 잉. 그래 인자 연락이 왔거든. 그래 일군을 시켜서. 2월달 인데 그냥 들어오는 길에다 그냥 진흙을 그냥, 옛날에 질(길)이 좁잖아. 진흙을 갖다가 거기다 척척 가래질 해놓은 거야. 그 와서 보니까. [조사자 : 사람들이?] 앵. 인자 거기서 시켰지. 인자 양반이. 그리고 나니께는 어똥게 왔다가 도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놈의 걸, 버선을 벗고, 옛날에는 버선이니까. 이놈의 진흙 발루다가 거기를 올라간 거야. 날은 그날 추운데. 그래 이냥 묻고 갔는데 원님이 와가지고설랑은,

“아이구 춥워! 아이고 추워!”

해가지고설랑은, 췌지 못하고 그냥 잉 그 쇠죽 쓰는 술에다 이냥 장작불

때고서 이놈의 술에다 이놈의 걸 말리는 거야.

“야! 어느 놈이 그래 하필 원님 오시는데, 응 가래를 했느냐? 영 어 저 양반 그냥 그 저기 흙 전부 너희들이 떠어 드러라. 으음.”

이러니까는, 양반이 그래니까는 왜 이 하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장단지 털을 하나씩 전부 뽑는 것여. 아 저 흙을 떼는 거야. 그니 양반 체면, 아 원님 덕분에, 아 체념에 할 수 읍지만, 우리네는 털이 읍지만 여기 털이 시커멓게 낳거든. 이놈의 털을 그냥 죄 뽑는 거야. 아이 아파 죽을 뻔을 했지 뭐, 그냥. 그래도 따갑다 소리도 못해고 그냥 꼼짝, [조사자 :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혼이 났다는 거야. 여기 이 동리에 이렇게.

양반들이 사시는 동네야. 여기 김진사도 살고 그래셨는데. [조사자2 : 아까 원님 인자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림. 진사 벼슬만 해도 원님은 와가지고 문안을 들여야 하는 거야. [조사자 : 문안 안 들여서 싸가지가 읍었구나.] 그렇지. 싸가지 읍는 놈이라구 혼 좀 나 보라구.(일동 웃음) 원님이 부임해 인사를 다닐 만큼의 양반들이.

13 평양감사와 그의 친구

김원봉(75, 남)/신갈리T 2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홍석분, 권희진 조사(1997. 5. 1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뒷사람에게 인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전에 말이지, 벼슬을 해러 갈려면, 벼슬을 해는 사람들은 어디로다가 먼 데로 부임해 나가잖아. 그런데 뭐 감사벼슬로 여기는 것. 그래 저 뭐야, 평양감사로다가 인자 임명이 되서 평양감사를 갔는데 영.

그런데 마누라를 못 잇을 것 아니여, 마누라를. 젊은 마누라를 인자 이냥 두고 가니까, 친구한테 가 부탁을 한거야. [조사자 : 마누라 좀 잘 지켜

다오.] 영.

“우리 마누라 좀 자네가 살펴 주게.”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인저 뭐 참 친구 저 다정한 친구간이니까루다가
 응 인자 꼭 보호를 해 주는데, [청중 : 성춘향?] 응? 보호를, [조사자2 : 보
 호를 해 주는데.] 보호를 해 주는데, 밤이 이숙했는데 보니까는 어떤 놈이
 담을 훌쩍 넘어 오거든. 그러니까 이냥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니
 까루다가 들어와설라무네, 그 지끔으로 말하면 연애편 뭐라고 그래. 그 그
 런 짓을 해거든.

그러니까루다가 그래고. 가만히 들으니까 그래거든. 아하 아 이거, 그래
 그 익 여자가 뭐 송악한 여자니까 그래졌지마는, 그러니까 얘기 전설이지.
 그러니까두루다가 에- 뭐라고 얘기 하나며는,

“오늘로서 나가서 평양감사 목을 빼어 오며는, 잉 자객을 시켜서 목을
 빼어 오면 내가 평생 자기하고 살겠다.”

[조사자 : 아하 자기 남편 버리고?] 영. 그러거든. [조사자 : 못된 여자
 네. 그것.] 영. 못된 여자지. 그러구 허니까루서 그때서 인자,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고. 돈이 있는 놈이니까는 가서 자객을 시켜가지고,

“나가설라무네 그 평양감사에다 목을 빼어 오너라.”

그런져. 그 얘길 듣고 설라무네 인자 그 집이 부자니까루다가 하루 그
 냥 한 서울서 평양이 오백 리인데,

“오백 리 타고 갈 말을 준비해 놓으라.”

고 했거든, 하인들 보고. 그러니까 인자 오백 리 달리는 말을 인자 타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냥 거의 밤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인자
 이 사람도 자객을 시켜서, 에 거기를 이냥 500리를 나간 거야. 나가지고서
 라무네 인자 평양감사 목을 빌라고 인자 떡 재니까는, 그때 그럴 짝에 뭐
 하고 그러느냐며,

“아이구 감사! 잉 나는 집에서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이 이렇게 그냥
 뭐 잉 한가로운 사람이니, 오늘은 내가 감사 자리를 지켜 줄테니 잉, 에
 당신은 좀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시오.”

친구보고, 감사보고.

“아 직무에 이렇게 자네가 대신해 준다니께 말도 읍이 고맙다.”

구. 그러구 해니까.

“아이 고마울께 뭐 있느냐구. 나야 뭐 하나 하나.”

그러니께루. 그때 인자 그냥 뭐야 인자 들어간 뒤에 관복을 바꿔 입은 거야.

“나도 관복 좀 한 번 입어 보고 싶네.”

그러니까루다가 인제 관복을 인자 벗어서 그 사람을 주고, 감사는 편안하게 가 두러누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객이 그때 인자 담을 타고 ‘쿵!’ 하고 넘어오거든. 그러니까.

“요놈! 니가 아무데, 잉 누구의 명을 대면서, 그 사람의 니가 명을 받고 서투 내 목을 비러 왔지만, 잉 내가 앉아서 친 리도 못 보는 사람이, 시, 소위 감사로 나와 있겠느냐. 니가 지금이라도 가가지고 응, 바로 되돌아가가지고 그 잉, 자객 그 시킨 아무게를 목을 안 비어 오면 너는 틀림없이 사약을 받을 것으로 너는 알아라.”

그러니까. 그 자객이라도 지가 살을래까는 그 목을 가서 안 베어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자, [조사자 : 반대로.] 반대로다가 가설라무네 그놈 맥(목)을 베어온 거야. 그놈 목을 베어가지고 갖다가 인자 또 그날 밤으로 가가지고 그 이튿날 또 그 목을 비어가지고 거기를 갖다 준 거여.

“그래 내가 이왕에 자네 좀 편안하게 해 주니까, 자네는 인자 세상에서 잠깐, 당분간 쉬라.”

[조사자 : 친구가 너무 대단해.] 응 친구고. 그러고 허니까 인자,

“아이 이렇게 고마울 데가 어디 있느냐?”

고. 그 마음을 한가롭게, 자기는 쉼 동안 그런 짓을, 그런 일을 헛 거지. 그러고 허니까루, 인자 목을 베타가 인제 바치는 거여. 인제, 올왔다. 그래 이제 과찬,

“내가 참 고마우네. 내가 여기 와가지고 며칠 동안을 이렇게 자네 덕분에 과찬한 저기 대 대우를 받고 이러게 놀, 쉬다가 가니까 고맙다고. 여간 친구 덕분에 이런 참 감사복도 좀 해 보고, 풀었으니까 나는 올라 가겠

다.”

고 헌거야. [조사자 : 그래서 그 부인을 지켜 주고.] 영. 그이를 지켜 주고. 그리고는 인제 올라갈 적에 자기 부인의 행동 나쁜 것을 전부 얘기를 하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 에 그놈의 목을 베가지고 갖다 두었으니, 자네는 이걸 가지고 가서 보관을 허고 있다가, 에 자네 평생을 마치고, 그 벼슬 다 해서 그 평생을 마치고 죽을 때 쯤해서 이것을 발설을 허게.”

인제 감사가 보고 그렇게 시킨 거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평양감사) 그걸 푼뜰 말아설람에 꼭 보관을 해고설라무네 그냥 있는 거지. 그러자 인자 자기 인자 정년 퇴직이지, 지끔으로 말하면. 그러자 인제 시골로다,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그 뒤에 환갑이 된 거거든. 그래 환갑이 되가지고, 아 친구가 환갑 때까지 그걸 모태 가지고 있었어. 환갑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았지 않은가. 옛날에는 환갑이 인간 칠십 고향이라고, 칠십 먹으면 고려장을 시킬 때니까. 인제 우리가 이제 뭘 더 기대하겠나.”

그리고서래무네 있었는데, 그것 아이 살짝 말이 좀 잘못 했어. 아이처럼 그렇게 주었어. 그리고 그걸 푼뜰 말아설라무네 이거를 다락에다 놓고, 그거를 아주 꼭 간시를 그 감사가 허고 있었다고. 그래도 발설을 안하니까 이 여자는 잉, [조사자 : 몸이 달아서.] 몸이 달어. 저기 저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싸서 이렇게 매달어 놓았으니까. 발설을 안하고. 무슨 얘기가 나오며는,

“아이구, 인제 내가 죽나보다.”

이럴텐데, 이걸 얘길 안 해. 그 마누라가. 그런고 있다가 환갑된 뒤에 잉, 다 인자 환갑된 뒤에 돌이 놀아. 술 한 잔 논하고, 마누라 보고설라무네 ‘오라’고 그래가지고,

“당신도 다 살고 나도 인자 환갑 잉 살았으니까, 이거를 당신이 맡아라. 이려고 유골을, 당신이 저질른 일이니 당신이 맡아라.”

그러고 허니가루 그때서, 자기가 이냥 아무도 읍이 저녁에 그러니까는, 그때서 그냥 열 명이라다가 해서 그냥 복고에다가. 옛날에는 복곡이 있었어,

이렇게. 지금은 저렇게 반자를 했지만, 반자가 어디 있어. 거기다 이냥 목
 데서 이렇게 죽더래. 지가 지은 죄니까. 지가 그냥 죄를 받고 마는 거지.
 [조사자 : 이 이야기가요, 이 신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옛날에는 다 여기도 뭐 원님, 여기도 뭐 여기서, 서울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서 부임해 가지고 일 나가며는 서울 가서 있는
 그런 평양감사이지. 옛날에 저기 벼슬이면 평양감사 해면 아주 그만이지.

14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김원봉(75, 남/신갈리T 2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홍석분, 권회진 조사(1997. 5. 14.)

평양감사에 대해 말하면서 앞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 한 뒤에 그 나름대로 들어온 것
 이라며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유명하게 활을 참 잘 쏘는 사람이 있는데, 인제 그 사람이 활로
 다가 인제 고 죽일라고, 그 자기하고 그 원수진 사람을 죽일라고 인자 그
 별론 거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인제 대신 가서 저 사람이 이냥 그 활을
 쏘는 놈한테 가서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냅대 화살 잔뜩 그
 어대고 문구멍에 대고 내리 쏘려 들거든.

그래 쏘려 들적에 그 인제 고계, 고 지키고 있던, 고런 걸을 알아 들었
 은게, 지금 있던 사람이 살거리에다 땀을 쪽 흘리고 침을 발랐는더니, 땀
 을 안 흘리지만은 침을 이렇게 해서 죄 발라서 땀처럼 하고, 활 자루를 새
 파란 켜놓고 것을 꼭 붙잡는 거야.

“이놈! 응 니가 고 잘난 고 조그만 기술로다 남을 잉 이 저기 죽이려
 든대는 것은 너 뭐 도리에 없는 일 아니냐, 내가 너 활을, 니가 활을 쓴
 거를 보니까 니가 활을 쏘는 거를 내가 잉 몇 십 리 밖에서 쫓아와가지고,
 잉 내가 이 화살을 붙잡으러 왔다.”

그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재주가 좋길래, 잉 화살 쏘는 걸 쫓

아워서 그거를 꼭 붙잡나. 그렇게 지혜만 있으면 재주가 없어도, 지혜가 너 낫다는 거지.

암만 지혜만 있으면서 그만한 사람을 놀래키려는 지혜는 있지. 그랬다는 얘기지. 그런 거 다 거짓말이겠지만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수도 옛날에 있었구나. [조사자 : 교훈이지요. 일종의 교훈.] 응.

15 지명유래(메주고개와 아차리고개)

김원봉(75, 남/신갈리T 2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홍석분, 권회진 조사(1997. 5. 1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른 것을 부탁하자 그만 하자고 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께서 이곳의 지명을 제시하자 설명하여 주었다.

[청중 : 거짓말이 이렇게 자꾸.] [조사자2 : 메주고개의 얘지요?] 메주고개 얘기. 메주 고개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조사자 : 못 들었어요.] 그전에. [조사자 : 메주 고개.] 응. 메주 고개. [조사자들 : 메주 고개.]

충주 자린개비(자린고비)가. 충주 자린개비가. [조사자2 : 자린고비.] 자린개비라고. 충주 자린개비라고 아뜰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 충주 자린개비가.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렇게 자기가, 소를 튼튼 하잖아. 이 소를 그냥 냅대, 에 소 뭐 등어리를 타고, 그 등어리 앉아설라 무네 그 대신에 노를 쪼고 땡기는데.

그런 것, 그러는데 메주 고개라는 전설은 충주 자린개비가 얼마나 알뜰한지 장독에 에 장파리가 앉았어. 아 이놈에 그냥 그걸 죄 빨아먹고 발에 다 묻혀갖고 도망허고.

“응!”

허고 날라 가거든. ‘응-’허고 날라가는데, 이놈을 그래 파리 쫄무니 계속 쫓아서 이냥 쫓아온 거야. 그래 쫓아와 보니까, 쫓아와 보니까루 이 파, 포

리가 어디로 간 지를 찾지를 못 하겠거든.

그래서 거기서 오며는 이 구성읍에, 그전에 구성읍이 읍내였어. 구성읍에 갈라며는 아차지 고개라고 있거든. 그래 그것 접시에다 물을 떠가지고, 그걸 그걸 다들라고 왔는데, 아 고기 오다가 그걸 놓치고 접시를 에 놓쳐 버리고 깨뜨려졌거든. 그래서,

“아차.”

그랬단 말이여. 그래서 거기가 아차지 고개이고.(조사자 웃음) 충주 자리 개비가 그렇게도 알뜰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고린 얘기는 해도 괜찮어. [조사자 : 어떤 얘지요?] 좀 [조사자2 : 음담패설?] 아니. [조사자2 : 야한 거요.] 아니. [조사자 : 야한 거요?] 에 야한 것. [조사자들 : 예. 괜찮아요 좋아요 저희들도 저.] 그전에 인저.

[조사자 : 메주 고개는 왜 그것 끝났어요, 할아버지?] 메주고개는 메주 갖다 대서 가서 메주고개이고. 아차지 고개는 접시를 엽질러서. [조사자 : 아차 고개고.] 아차 고개고. [조사자2 : 자린고비하고 관계된 고개예요? 그게요?] 응. 아차지 고개. [조사자2 : 메주 고개는 그럼.] 메주 갖다 댔다고 해서 메주 고개이고. [조사자 : 아하 파리가 그 장을요?] 응. 그걸을 쫓아 와서 파리를 찾느라고 메주 갖다가 죄 밟아도 못 찾았어. 그래서 메주 고개고.

16 계곡 사위 길들이기

김원봉(75, 남)/신갈리T 2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홍석분, 권희진 조사(1997. 5. 1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 구술하여 주었다.

그것은 저 우리 기흥읍에 있었던 얘긴데. 사위를 골라야 할텐데, 부지런한 놈을 골라야 할텐데 세상 부지런한 놈이 어느 놈인지 알 수가 없어지 잉. 그래서 방을 써 붙였대요.

“부지런한 사람이면, 부지런한 총각이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
 이랬단 말이여. 그리고 허니까 방을 보고설라무네 자기가 최고 게울린 놈
 인데, 그 저기를 보고설라무네, 방을 보고설라무네,
 “야, 내가 가설라무네, 에 뭐야 저기를 해야겠다. 저 응 사위 노릇을 해
 야겠다.”

그런데 이 놈의 피가 안 나. 소를 몰고 가다가, 고집 문 앞에 가서만, 고
 대문 앞에 가서, 고 문간 앞에 가서 소를 타고설라네 거기서 새끼를 꼬러
 (꼬며) 간 거야. 새끼를 꼬면서. 아까 총주 그 자런고비처럼. 새끼를 꼬러
 가니깐는,

“아! 여보게!”

어 총각이니까. 그전에 총각이 보면 머리꼬랭이 탁 표가 나잖아.

“아이구 소를 그 몰고 가지, 어떻게 소를 타고서나 그냥 가나?”

그러니까.

“아이 소는 육중한 그 짐승인데, 잉 내가 놀면 됩니까. 소를 타고서나무
 네 새끼를 꼬며 가면 그 새끼가 그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 참 부지런한 놈이거든. [조사자 : 소 등에 앉아서까지
 꼬니까.] 그렇지. 새끼까지 꼬니까.

“참 부지런 하다.”

이러구는, 인자,

“그러면 니가 내 사위 노릇을 해라. 니가 그렇게 부지런 하니까. 내가
 그렇게 방을 써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장가 들고 나서는 도저히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마누
 라랑 방에서 그냥 잠만 자고, 마누라 끼고. 큰일 났거든. 부지런한 사위 고
 른다는 것이 아주 그냥 기오(게으)른 놈을 골랐으니 어떻게 해여.

그런게 그 샌님은 피를 냈는데, 무슨 피를 냈느냐 허면, 그전에 인자 원
 이렇게 갈라면 이방이 있어요. ‘원 내고 이방 내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방이 있는데, 이방이 지끔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면에 대할 것 같으면 면
 서기야. 옛날에 원에 땀기는 것 같으면 면서기야. 그리고 허니까루다가 인
 자에 불르니까, 인자 생인고 허니까,

“왜 그래냐?”

그러니까.

“자네! 공문 하나, 가공문(거짓 공문)을 떠 가지고 올라냐?”

“뭘 낚까?”

그러니까루.

“그냥 덮어놓고 가서, 공문에다가 기으른 놈 응 자지 비어 오렌다 이려고서 거짓말로다가 공문을 내어 주게.”

이랬단 말이여. 그것 어렵지 않지. 거짓말 공문인데. 그래가지고는 인자가서, 인자 올적에 인자 큰 소리다가 그것 인자 사위 들으라고,

“아이 샌님! 큰일 났습니다.”

“뭘가? 이 사람아!”

이러고 허니까,

“아 기으른 놈 자지 비어 오라는데, 해필 이냥 샌님 사위가 걸렸습니다.”

[조사자 : 어머!] 이랬다 말이여. 그 소리 질르니까, 그러고 허니까 아이 큰일 났거든. 인자 그러고 허니까. [청중 : 아이 고지 듣지마. 그 사람 험 얘기 고지 듣는 거여.(웃음)] 그러고 허니까, [청중 : 그 거짓말로 허는 거야.] 그래 거짓말 얘기지. 아이 이체가 안 그래요. 그러고 허니까루다가 이제 이놈이 인자 뭐 저기 그러거든. 저기 딸 보고서루는 인저,

“큰일 났다.”

고 그러고. 딸한테 먼저 말리는 거지,

“큰일 나지 않았느냐”고.

“왜 그래냐?”

고.(일동 웃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필 게가 그 중에 그을러서(게을러서) 나무예, 잉 그 자지를 비어 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느냐?”

고 그러거든. 그러니까루 딸이,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루 자지가 뭐, 짧은 놈 자지인지 늙은 놈 자지인지 모를 쫓 아니여. 그러니까루다가 뭐 뭐라고,

“어머니! 아버지는 인제 다 살으신 노인네고 우리는 한참 젊은 청춘 아

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지 비어 가면 어때요.”(일동 웃음)
그러거든. 그러니까 죄 어머니,

“아! 게으른 놈 자지 비어 오랬는데, 그래 암만 늙었다고 해도 아버지 자지를 비어 가면 되겠나?”

“아! 그게 자지 표나요?”

이러면서 모자가 싸웠드랴. [조사자 : 모녀가요?] 모녀가. [조사자 :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할아버지?] 누가 이기긴 뭐 사위가 이겼지.(조사자 웃음) [조사자2 : 그럼 계속 게으름뱅이로 살았어요?] 사위가 이겼으니까루다가 할 수 읍이, 뭐 저기 잉 뭐 찢라가는 것 아니고 거짓말 공문인가 뭐. 그래서 그것 안 찢리고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

[조사자 :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사위는 버릇을 고쳤어요?] 영? [조사자 : 그래서 사위 버릇을 고쳤어요?] 그렇지. 인제 그때서부터은 참 고쳤지. [조사자2 : 그런 따끔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따끔한 맛을 보고 고쳤지. 그래서 그건 너무 저기 뭐야 학생들 듣는데 좀 될 말이나.

17 바보 사위

김원봉(75, 남)/신갈리T 2뒤

[신갈리 원기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홍석분, 권희진 조사(1997. 5. 1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에 대해 꺼려하던 제보자에게 조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자 또 다른 것이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그록 이거는 인자 아, 그거는 실지적으로다가 아 저 뭐 있던 얘기라고 해도 관련이 아니테. 세상에 인저 사위를 인저 하나 얻었는데, [조사자 : 또 다른 얘기에요?] 영. 아 얼마나 멍텅구린지, 그냥 이놈의 사위가 몰라. 뭐 저기 아주 바보니까 멍텅구리인가.

그러니까루다가 아이 처음에는 그래도 인저 어지간히 헨 줄 알고 사위를 삼았는데. 그 사위가 인자 바보니까 멍텅허니까. 그러는데, 그러자 예,

“저 놈을 시험을 한 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멍청허니.”

그래설래무네 뭐라고 했느냐며는, 시험을 한 번 해 보는데, 예 그 놈을 불러가지고, ‘너 저기’ 인자 그런 소리를 마누라가 들었어. 시험해 본다는 얘기를. 위해는 거는 마누라, 응 두 내외백에 더 있어. 그래 그걸 듣고설래 무네 보니까루다가 큰일 났거든.(녹음이 일부 지워짐.) 사위를. 인자 자기 남편을 시키는 거여.

“이것 아버님이 물어볼 때는, 은행나무지면, 향자나무라고도 합니다.”

이놈 똑똑헌 놈이거든. 잉.

“야, 아무 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뒤지를 알켜 내고, 향자목이라고도 그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똑똑한 놈이여. 그런데 아는 체를 안 해는구나! 과연 잉 아주 무식하고 한 놈은 아니로구나!”

이러구설래무네 인제 그때는 시험에 합격되어서 넘겼단 말이야. 그 이제 마누라가 시켜서 헨거지만, 아이 인자 그 외에는 멍청해니 될 알아야만 헨 꺼 아니여. 그러니까 예, 그래자 인자 자기 장인이 배앓이 나가지고 그냥,

“아파 죽는다.”

고 지금으로 말하면 토사(배탈)지. 잉 토사가 나가지고 죽는다고 야단인데, 야단인데 아이 이 뭐야 저 다른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구 쌤님! 어째서 그러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것 야단인데, 사위 놈은 그래거나 말거나 멍청해거든. 아 그래니까두르다가 동네에서 그냥,

“고양 놈이지. 그런 놈이 어딴느냐? 자기 잉 장인도 부몬데 저렇게 부모가 아파서 죽는다고 얘기해두, 어째서 그러느냐고 말 한 마디 없는 놈, 저 잉 아무 것도 배우지도 못 하고 무식한 놈이라.”

고 이래거든. 그래고 얘길 해니깐두루 그 얘길 들었던 말이야. 그래설래무네 아이구 인제 또 마누라가 시킨 거여.

“아니, 그래 여보! 아버님이 저렇게 아파서 찢찢 매시고 그러는데, 좀 가서 (병)문안이라도 해 드리고 말씀도 드리지 그냥 어떻게 그냥 무심해고 있시우?”

그러고 해니까. 그리고만 했는데, 이놈이 먼침 씨 먹던거루다가 뭐라고 그려나며는,

“아이구 이것, 잉 [조사자 : 은행?] 배는 두지, 이것 두지인데,”

[청중 : 조금 더 크게 해요?] 두지인데, 잉 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처럼 먼저 그랬다야. 그 뒤지를 그냥 올리며,

“올마나 들거느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팡하고 놀르면서, 팡 놀리면서루며네,

“쌀로 말하면 서른 말 아니면 서른 다섯 말은 들겠다.”

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놈이 그것을 도로 씨 먹기 위해 씨 먹느냐고, 그 문병 안 한다고 인자 그 야단을 치니까는 그 씨 먹느냐, 그때 들어와가지고 잉,

“나무는 항자목이고 잉, 쌀로 말하면 잉 서른 다섯 말은 들겠는데.”

그러면서네 배를 이렇게 통(움)켜 쥐고 귀를 이렇게 대면서설라무네, 먼저 뒤지에 대고 하듯기 고대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냥,

“고약한 놈이라!”

구. 그냥 냅대 이냥 몽둥이를 들고 그냥 썰기는 두들기 뚜드린까, 니 이놈이 도망을 가서 죽지 않으니까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 인제 처갓집도 못하고 품짖을 못할 꺼 아니야. 인자 그래니까두루다가 마누라는 집에서 기다리지, 그래도. 영감을 기다렸는데, 그러자 일 년이 지나서 명일 때가 됐는데, 지나서 인자 명일 때가 인자 됐는데, 인제 살살 인자 명일 때 갔지. 응 처가 집을 가서 보니까, 저기 잉 그래니까 인저 이 뭐여 마누라가,

“아이구 어떻게 할려고 오셨소, 여보! 응. 괜히 이웃 사람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설라무네 그냥 잉 만두를 해서, 잉 떡국을 끓여서 이렇게 이렇게 주면서설라무네. 주면서,

“얼른 먹고 가라.”

구. 인제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 누가 볼까 봐. 몰래 이냥 얼른 만두를 해서 잔뜩 먹었지. 배가 불르고 먹고서 이렇고 가니까, 이렇게 나가니가는 그 뭐 바보 놀리는걸량은 뭐 십 전 끝에 일 전 주고, 옛 한 가락 사 먹기 보다 더 쉽지. 옛날에는 옛 한 가락에 십 전이었어요. 일 전이었어요 그

리구 놀리니까두루,

“입마! 귀취 말머르 먹고 가. 뭘 먹고 가나?”

이래거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뭐 알아. 그더니 이 애들이 또 물어 보면,

“너! 뭐 얻어먹고 가니?”

그러니까,

“귀취 말머르 먹고 가.”

이래거든. 그렇게 바보는 할 수 없이 그 어떻게 해, 그것. 바보로 태어난 것. 그걸 바보를 억지로 훌륭한 사람을 맨들래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되지를 앓느냐 거여. 안 돼.

3) 민요

1 모내기 노래

권철심(72, 여)/신갈리T 3왕

박종수, 강현모, 김종부, 박세희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은 신갈리에 도착하여 제보자를 찾던 중에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 노래를 시작하여 주었다.

모야 모야 노랑 모야
언제 커서 영화 볼래
이 달 크고 훗달 커서
칠팔 월에 영화 보렴

2 저 건너라 간을 밭에

권철심(72, 여)/신갈리T 3왕

박종수, 강현모, 김종부, 박세희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를 마치고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제목을 제시하여 주면서 계속해 구술하여 주었다.

저 건네라 잔술 발에
설설 기는 저 포수야
그 산에 비둘기 잡지를 마라
그 산비둘기도 나와 같이 입을 잃고
밤이면 밤새도록 입을 찾아 해매노라
해라 대신이야 해라 만손

3 유달아개

권철심(72, 여)/신갈리T 3앞
박종수, 강현모, 김종부, 박세희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를 마치고 잠시 담화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설이라 유달아개
장비를 키아를 낳내
만져보고 지어나 보고
못 가요 목이 후해로세

4 시집살이 노래

권철심(72, 여)/신갈리T 3앞
박종수, 강현모, 김종부, 박세희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를 마치고 시집살이에 관련된 노래를 여러 차례 반복해 구술하여 주었다. 이

곳에 실은 자료는 앞부분에서 부른 자료이다.

불꽃 끝이 더운 날에
 한 골 매아 두 골 매아
 삼 세 골을 매고 보니
 다른(사람) 즙슴은 다 나오는데
 요 내 점심은 안 나오네
 집이라고 들어가니
 시누 아가씨 하는 말이
 고단새를 못 참아서
 살이 살살 오는구나
 마리(마루)청예를 들어서니
 시아버지 하는 말이
 고단새를 못 참아서
 (살이 살살 와왔구나)
 아버님도 들어보소
 시누 아가씨도 들어보게
 열들 폭 치마
 한 폭 따서 바람 짓고
 두 폭 따서 갈방 짓고
 가요 가요 나는 가요
 중으 되러 나는 가요

그래 놓고 잊어버렸어. 또 한 가지 있어. 그리고 친정 부대를 한계, 엄
 마 아버지 베를 매드랴. 옛날 일을 비를 때는

동냥 주소 동냥 주소
 이 동네 동냥 왔소

친정 아버지 집에 가갖고 그런게. 베를 매다가 동냥을 착 주는데,
 “다른 동냥 주덜 말고 좁쌀을 줘, 좁쌀을 돌려.”
 고 했데. 좁쌀을 준게 공 부엌데. 그 놈을 줍는다고 내뺨고 앉아서 엄마
 아버지, 엄마는 베를 매고, 딴 사람은 눈을 매고, 아버지는 땡기는데, 중이
 라고 쳐다라도 안 보더랴. 딸이 가서 그 발마당계서 가서 좁쌀 줍고 앉았
 어도. 그래 때가 된게로, 밤, 그 중이 그 드럽고 줍고 앉어지 말고, 말하자
 면 우리 시킨대로, 말하자면,
 “줍고 앉었지 말고, 여기 밥이 먹으라.”
 고 허드랴. 그 소리에,

가요 가요
 이 집 문 앞 나는 가요

그러면서루 노래를 했던데, 그것까지 반쯤, 몰라서 못 허졌네. 고것, 모
 르겠어. 말하자면 이 시집을 와서 이 집에 시집을 사는데, 밭을 매서 새택
 을 가라고 허드랴. 그래갖고 밭을 맨게,

다른 즘심은 다 나오는데
 요 내 즘심,
 한 골 매고, 두 골 매-
 삼 시골을 매고 나니
 다른 즘심 다 나오는데
 요 내 즘심은 안 나오네.

그래 집이라고 들어가니께, 시누 아가씨가 쪽 나오면서 고새 못 참아서,
 때를 못 참아서 왔다 허드랴. 그러자 방문을, 마리창을 올라서자 시아버지
 가 문을 열고 하는 말씀이, 고새 못 참아,

아가 아가 때늘 아가

고새를 못 참아서

응, 밥 먹으러 왔다고 뭐라고 허드라. 그래서 그 미느리가 허는 말이,
아홉 쪽, 그전에는 아홉 쪽 치매 있었어요. 치마를 입는데 아홉 쪽이라. 쪽
으로 이만큼,

아홉 쪽 치매를 따라고
한 쪽 따서 바랑 짓고
두 쪽 따서 글방(겉방) 짓고

이래갓고 인자 중 되러 갔는 기라. 중 되러 가가지고, 친정 부대를 가
가지고 친정 마당에 들어선게로, 중.(이하 생략)

[5] 사랑 타령

권철심(72, 여)/신갈리T 3앞

박종수, 강현모, 김종부, 박세희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를 마치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생각이 났는데, 이곳에 와서 하려니
생각이 안 난다면서 한참을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유행가 ‘낙동강 뱃사공’을 노래 부른 뒤
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불러 주었다.

사창 골방에 임도 앓고 나도 앓아
임에 물팍뎡기나 비고
임도 방긋 나도 방긋
방긋 방긋 웃는 입을
못 다 보고 해가 졌네

6 그네뛰기 노래

권철심(72, 여)/신갈리T 3앞
박종수, 강현모, 김종부, 박세희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에 이어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수천당 세모진 나무
오색가지 저 그네를 뛰어
임이 뛰면 내가나 밀고
내가 뛰며는 임이 밀어
임아 줄 살살 밀어라
줄 떨어져(지)면 정 떨어전(진)다

7 모내기 노래

김꼭지(69, 여)/신갈리T 3앞
박종수, 강현모, 김종부, 박세희 조사(1996. 5. 18.)

옆에 들고만 있던 제보자가 생각이 났는지 조사자가 요청하자마자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경상도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다.

물고 철철 물 실어 넣고
이집 저 양반 어대를 갔소
모내 전부 손에 들고
처부(첩의) 방에 놀러 갔소

8 서울 갔던 선배들아

김꼭지(69, 여)/신갈리T 3앞

박종수, 강현모, 김종부, 박세희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에 이어서 계속해 구술하여 준 것이다.

서울 갔던 선배들아
우리 선배 오시던가
오시기는 오시데마는
칠성판에 실폐 오네

9 낙도 청강 흐르는 물에

권철심(72, 여)/신갈리T 3앞

박종수, 강현모, 김종부, 박세희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를 마치고 나자 옆에서 쉬고 있던 제보자가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불러주신 것이다.

낙도 청강 흐르는 물에
배차(배추) 씻는 저 큰 아가
곁에 곁잇은 다 제쳐놓고
속에 속잇은 나를 주네
언제 봤던 님이글래
곁에 곁잇은 다 제쳐놓고
속에 속대를 너를 주랴

10 해를 잡아 주소

김꼭지(69, 여)/신갈리T 3앞

박종수, 강현모, 김종부, 박세희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가 노래를 마치자마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준 것이다.

날은 가자고 울고
임은 자꾸 농치를 얹네
수경은 채를 넘어
나의 혈 길은 천 리로다
천 리만 잡지를 말고
지는 저 해를 잡아 주소

여 백

2. 구갈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구갈리는 신갈리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하관속리, 내기, 갈곡을 합하여 구갈리라고 칭하여 기흥면에 편입되었다. 구갈리는 낮은 구릉지대로 이루어졌는데, 산은 마을 북쪽과 남쪽에 있고, 하천은 남쪽에 치우쳐 흐르고 있다. 그리고 수원과 용인을 잇는 국도가 하천을 따라 위치하여 교통이 매우 편하다.

구갈리를 이루는 자연마을로는 관골, 내기, 갈곡이 있다. 관골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유생들이 모여 공부하던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 서원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신갈리의 원터나 역말 등과 인접하여 생겨난 이름이 아닌가 한다. 그런다가 관골이 점점 마을이 커지자 윗관골과 아랫관골로 나누어 이를 한자어로 상관곡리와 하관곡리라 기록하였다. 그리고 내기는 안말이나 안골이라고 하는데, 갈곡에서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 같고, 갈곡은 갈골이라고 하여 마을의 동쪽에 있다. 갈곡은 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갈천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갈천이 지나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2) 설화

① 쪽을 사랑도 알린 사랑

이영만(80, 남)/구갈리T 1앞

[한성1차 아파트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은 구갈리에 도착하여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한성1차 아파트를 지나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노인정을 묻자 아파트 안에 있다고 하여 찾아가 조사 나온 목적을 설명하자, 제보자가 매우 반가와 하면서 협조적이었다. 그래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고향이 경상북도 청도인 제보자는 이 이야기를 60년전에 고향에서 들었다고 한다.

영남 선배(선비)가 서울 과거 해러 올라갔어요. 요새 인자, 요새로 말하면 고등고시 이런 시험을,(잠시 중단) 시험을 치러 이래 오는 거, 그거 한가진대. 영남서 인자 서울에.

옛날 서울에 와야 벼슬을 해거든. 지금도 뭐 서울에 와야, 종로 와야 뭐 하듯이. 옛날 선배가 올라 다 하니께네, 인자 날이 저물어 가 어데, 한 동네에 가 인자 잘 처소로 정해야 하는제. 그때는 인자 요새로 말하면 어디 여관도, 뭐 하숙 여인숙 이런 것도 잘 없을 때라. 어데 가다 그전이 뭐 참 집 들리면 저거 한 밤 자고 갈 이런 때라요.

그래 한 동네에 가니께네 어디로 편편하니 이래요. 기와집이 편편하다 마 여러 채 있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요. 이래,

“자고 가자.”

고. 이래 청하니까, 아이 종이 나와 가지고,

“아이 우리 집에는 여 자고 가는 데가 아니라.”

이거요. 그래 인제 안에 참 주인이 있다가,

“그 뭐라 카, 어떤 손님이더냐?”

물으니. 그래,

“과거의 선뎌데, 자고 가자 칸다.”

고. 그래.

“그럼, 여기 들리라 케라.”

그래 들어 가니까, 그 집에는 종하고 부인네 하고 둘, 둘이밖에 안 살아요. 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 가서 인자 방에 참, 금방 들어갈라 하이, 사랑 옛날 사랑하는 거이 있거든요. 큰 채 있고, 사랑이 사람이 거처로 해야 뚫고 썰고 했을쨌네, 그냥 뭐하니 해가 있으니께네, 그 종이 들어가 방을 다 뚫고 이러가,

“들리라.”

해갓고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인자 저녁 먹고 이래 있으니까, 인자 저녁상은 물론 집에서 해 쥐가지고 이래 먹고 있으니, 그러니 저녁은 잘 묵고. 이 선배가 인자 저녁이 이속도록 불 켜놓고 인자 공부하고 이래 있으니까.

근데 밤중은 다 돼가니까 또 문-소리가 나요. 문을 다구(자꾸),

“뚝뚝.”

부드려. 열어 보니까 그 종이더러 술을 한 상 아주 잘 차려 가주고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구 그래 인자 종도 들어오구, 들어와 가지구 술도 인자 갖다 놓구 나니, 그 다음에 또 인자 그 집 부인이 인자 따라 나왔데요. 아주 옷을 갈아 입고. 그래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선배는 인자, 여자가 들어오니까 옛날은 서로 남녀가 이래 등을 지지 마주 못 봤거든요. 또 일어서이 돌아서니까,

“아이 선배님!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왔으니까, 내 얘기 들어 보시오.”

“그래 무슨 얘기, 하시오.”

하니까. ‘거기 앉으라.’고 허네. 그래 앉았으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이 집에 시집온 제가 꼭 10년이 됐는데, 시집을 때도 신랑 구경도 못하고 시집만 이래 왔는데, 10년을 내일이 똑 10년인데, 10년인데 10년 되는 날인데, 10년 동안 혼차 살아봐도 신랑 구경도 못하고 이래 살았으니까, 천지 뭐 천지 세상을 몰르니, 나도 이 세상을 생겨났다가 남녀 그 뭐고 요새카면 성하는 거, 그기나 알고 죽겠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 선생님이 갈치 쥐도 나는 죽고, 안 가르치 쥐도 죽는다.”

이거라. ‘갈치 주면 살라 카면’ 하지마는 갈치 쥐도 죽는다 이기라요. 그리

그 그것 어떻게야 살리게 되겠소. 그래서 인자,

“어떻게 해가지고설랑 구경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왔느냐?”

물으니까. 그래 신랑이 인자 옛날 뒤 12살 11살 이때 인자 장가를 가져든요. 가는데 그리 저거는 장개오는 신랑에 어른은 무슨 사유가 있어서가 문 오고, 오촌 숙을 옛날로 카면 상변하는 거대로 동네 사람도 좀 인격있는 사람 도회간(동행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 오촌 숙을 상변을 이래 해가 오는데, 중로(줄곧) 가라 하니까 길이 멀어가지고 술집에 들어가서 참참히 쉬어 갈라르텐데. 그래 한 군데 술집에 가 술로 먹고 돈을 주니까, 주모가 돈을 받아 여코 또 덜라 카고, 주머니에 여코는 또 덜라 카고, 자꾸 돈을 자꾸 손을 내는 기라. 이래 사는데 네 마을로 가던 종이 들어보니까, 하도 갖잖아가지고 아이 그 주모를 밀어 뿌리는 기라. 밀어뿌나 그 할머니 또 구부져 갖고 죽어 뿌렸어요.

죽어 빨구 나니까, 그래 그 책임자는 저그 아버지, 신랑 아버지가 왔으면 아버지가 책임을 지든지 무 이래 할킨데, 그러니 신랑 오촌이 되니, 촌수가 좀 멀어가지구 책임 문 지고 신랑이더러 인자 거 죽은 사람 책임을 져가지구, 그래 요새 말하면 행무소에 가 있는 거라. 행무소 간 지가 인자 10년이라 이게요. 그렇게 하니까 이 신랑이더러 헤에이, 참 신랑이 아니고 선배님이.

“여보세요 10년 동안 살았는 부인 말이죠, 신랑 구경도 문 하고 사흘만 더 살면 신랑 만날킨데 그 다음이 문 참아 죽을꺼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칭중 웃음) 사흘만 더 기다리면 신랑을 만나 보구 살터이니까 말이지, 그러니 자기는 인자 자기 원풀이 해 줘도 죽고 안 해 줘도 죽고 두 가지 다 죽는다 하였는데,

“사흘만 더 살면, 참으면 신랑 볼킨데 왜 그래 죽을라카요?”

하니. 그래 이 색시가 참 낮이 불그래해가 돌아가는 기라. 사흘만이 돌아 신랑이 온다카니까. 그래가 이 선배가 인자 서울로 올라 왔어요. 올라 와서 파연 참 이 선배가 장원 급제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참 요새 같으마 무부총리라 카가 하면, 마 지구(쥐고) 흔들 이런 권리를 했어요. 그래 가지구 장원 급제를 해가지구, 인자 나라 임금한테 가 고하기를,

“아 전하! 이번 내가 과거를 하긴 했지만도, 내 소원을 들어 줘야 내가 참 과거를 하지, 그러 안하면 나는 과거를 못 합니다.”

“그 뭐냐?”

그래 오던 역사를 얘기 했는 기라.

“사실 이리이리한 일이 있으니쎄데, 요새도 와 무슨 큰일 나면 죄수들 석방 시기잖아요. 이리이러, 이리이러한 사람을 석방시기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난 이거 벼슬 안 할꺼요”

필요가 그러하니쎄데, 나라의 임금도 마,

“아이 뭐 그렇게 하라.”

고. 그래 가지구 참 석방이 되 가지고 보내는 기라. 보내고 나니까, 이 양반은 그래서 벼슬을 해 가지구 며칠 있다가 내려가니까, 그 집 신랑은 집에 바로 거 있는 기라요. 여기서 석방시켜 줬으니까. 죽을 사람도 그래 구한 사람도 있어요. 거 용하지요 그거.

아무래도 원을 풀어 줘도 죽고 안 풀어 줘도 죽고. 양단간 다 죽는다고 했는 기라. 그런게 그런 사람, 잉 두 가지 중에도 다 죽을 사람을 살려 줬으니까 얼마만 영천 거여, 그것.

2 천덕산의 유래

제보자(70대, 여)/구갈리T 1왕

[한성1차 아파트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최점순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중단하였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할머니께서 이곳의 지명 유래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그 천덕산이 왜 천덕산이나 그러며는, 옛날에 거기서 난리 시절에 천 명이 거기서 피서를 했다. 천 명이. 그래 왜 이게 천덕산이라나 그런께, 이름이 그런께 그게 천 명이 거기서 난리 시절에, 거기서 천 명이 살아난 거

래. 그래서 천덕산이래.

그래서 그 아구리(입구)에서 이만한 굴이 있는데, 아구리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 가면, 그 가운데 쭈 들어가면 그냥 시퍼런 연못이 있는데, 거기를 못 가, 이냥 아무도 못 가는디, 시퍼런데.

그 물을 옛날에는 먹고 거기서 밥 해 먹고, 그걸 먹고는 거기서 천 명이 난리를 겪고, 거기서 천 명이 살아났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불 때면은 저 양성읍내 뒷 공원에 연기가 난대.

3 남의 글 훑겨 벼슬한 사람

이영만(80, 남)/구갈리T 1앞

[한성1차 아파트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이영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제보자는 좀 생각을 하더니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옛날에 인자 벼슬한 것, 요새 인자 학교가 시험하자면, 뭐 수학을 이렇게 해라, 자연을 해라 이런 것이 있잖어. 사회라 하는 것은,

“니(넛) 가지 제일 즐거운 것, 제일 즐거운 것을 네 가지를 말하라.”

이래. 이래 글제를 냈거든요. 내 놓으니까, 그래 한 사람이 인자 이 보고, ‘천리타향 봉고인’ 아니 천리 타향 아니다.

타향 봉고인

그래 쓰고, 또 다음에

대한 봉감우 많이 가물 때 비오는 것

동방화축, 화축야

금방 쾌명세

이래 써거든요. 옆에 사람이 자기는 질 줄도 모르는데, 요걸을, 요것 쓴 사람은 요것 딱 써 가지고 딱 접어 놓고, 세수하고 인자 와가지고 정성드려가지고 임금한테 올릴라고 이렇게 할 적에, 이것 딱 펼쳐보고 여기다

두 자씩 더 써 넣었어요.

‘타향봉고인’한테 ‘천리, 천리 하면 인자, 천리 이래 두 자 써 넣고 또
요 다음 ‘대한 봉감우’ 한 여기도 ‘칠년 대한’ 두 자 써 넣었어요.

칠년대한 봉감우

쓰고. 요기는 또 ‘동방화축야’ 해 갖고는 ‘무월 동방’ 달 읊는 하루, 아주
그믐 퉁퉁한 밤 말이지. 그 화축이 다 밝다 이거여. 또 요거 인자,

소인 금방 패명세

라. 소인, 우리 젊은 사람은 요 글제 해가지고 이름 올릴 요 때가 제일
반갑더라. 요래 딱 해 놓았, 참 해 놓았는데, 요 뒤에 사람이 요걸로 두 자
씩 더 써 넣어가지고, 딱 따가지고 이 사람이 벼슬해 버리고, 처음에 지은
이 사람은 낙방을 되고 못 했네요.

자기 걸로 가지고 딴 사람이 따로 한 것은 본인이 분명이 안다 이 말이
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원통해 죽어 버렸어. 죽어가 원혼이 돼가지고,
어느 어느만치 있다가 이 참 벼슬, 요념의 걸 지가 두 자씩 더 넣어가지고
벼슬한 이 사람한테 영혼이 가가지고,

“니가 내 말한 것을 답변을 하면 니가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한테
죽는다. 나는 참 이 글 지은 그 선배 영혼이다. 그러니가 너는 죽는다.”

이래 허니까,

“아 해 보라.”

이렇게 하지. 그래

송송명이 성아 술방울이 방울이지만 소리가 나나.

이렇게 했지. 그래 이 사람이, ‘니가 참 지가 그 지야 했지만, 너는 뭐
송방울 한가지라, 옳은 사람이 못 된다.’ 이거여. 그래 또 이 사람 답변은,

유소서 폐야 벼들강아지 강아지이지만 짓나

이래가 답변을 해 버려.

“이놈아 너는, 니도 농간을 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원수를 못 갚고, 참 먼저 글 쓴 사람은 죽고, 뒤에 쓴 사람
인자 남의 걸 떠가 한 사람은 참 벼슬을 하고 이랬다는 이력이 있어.

4 표상의 묘지를 지킨 채번암

이영만(80, 남)/구갈리T 1앞

[한성1차 아파트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가 한문을 가르쳤던 일화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였다. 그러다가 조사자가 풍수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며 파주를 했다. 아 묘가 여기 여기 딱 규모가 있다 했는데, 그러니 이 묘는 옛날에 채번암, 채 번암 저 할아버지 묘라. 할아버지 묘인데, 서울에서 김정승이 적 할아버지 묘 위에 요기 와 미를 쓴다 말이여. 이래 쓸라고 하니까, 본 채번암 저거는 뭐 무식꾼이 뭐 기억자 하나 모르고, 무식꾼이니 막을 돌리가 읊더라. 정승이들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인자 밥을 안 먹고 누워 있다 말이여. 있으니 채번암이 일곱 살 땀데, 그래 참 본 채번암 모친이 들어가, 아무리 가야, 밥상을 가져 가야 해봐야 안 받아 주고 문을 잠가 놓고 이래 있는데. 그래 인자 그 얘기를 허니께, 번암, 채번암이,

“그래 왜 그러느냐?”

허는데, 그래 적 어머니가 애, 얘기를 했는 기랴.

“똥 한 덩이로 밥을 안 먹고 저래 있다.”

고 허니께. 그래가지고 채번암이 인자 적 아버지한테 가 인자,

“무슨 일로 그래 밥을 안 잡수고 계시냐?”

고. 이래 물어. 물으니까,

“인자 사실 아무 저 어느 정승이 그 묘 쓴 밑에 느그 할아버지 산소다. 그런데 내가 그것 참 꼭지에다 똥 쓴 그걸 못 막아낸 내가 살면 무엇하노. 나는 이 길로 죽는게 차라리 옳은 일이다. 나는 죽지 살던 못 한다.”

그래. 채번암이 하면,

“해해 아버지! 그 일로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럼 지가 해결하겠습니다.”

“야, 니가 어이 하노?”

“아이, 저 두루마기나 하나 해 주소. 두루막만 하나 해 주면 지가 하겠 습니다요.”

그러니 그 때는 마 참 가을 그지 문양으로 사는, 두루매기 하나 해 입 는 그것도 큰 일라고. 이려고 사는데 무슨 두루마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인자 지가 해결할라고 하니까, 인자 밥을 먹고 있었다니까.

있으니까, 참 장사날이 딱 되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그 채번암 일곱 살 먹은 어른이 그 정승, 인자 아들한테 인자 그 문상을 가는 기라. 가가 지고 참 여, 그때 뭐라고 한니 뭐, 정승을 갖다가 뭐 대감님이라고 하나.

“대감님! 참 여 좋은 자리 씩니다. 여 밑에 여기는 우리 할아버지 산소 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산소인데, 우리 할아버지 산소 들 때, ‘여기 쓰면 임금이 나고, 여기 쓰면 정승이 난다.’고 해가 우리는 밑에 정승 자리에 썼 습니다.”

아이 위에 정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네 임금날 자리, 자기가 묘 썼 으니까 말이지, 역적에 몰리는 거라, 그만. 대원군 말 한 마디에,

“하이, 여기 안 되겠다. 보니 정승 낳다. 이것 반구 해라.”

이거여. 그래가 탄 데로 그 옮겨 가. 그 자리 장사를 못하고 말았다. 여 만약에 임금 날 자리에 썼다면,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낳으니까 역적이 되는 거라. 그래 당장 죽는 거, 그 이튿날 마 죽는 것이 있었다 그만.

그래 일곱 살 먹어부터 채번암이란 어른이 그만큼 머리가 좋아요. [청 중 : 그 신동이라, 신동. 신이 동이라.]

5 장언 급계할 쫄 미리 안 이언포

이근호(75, 남)/구갈리T 1뒤

[한성1차아파트] 박중수, 강현도,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자신의 고 향이 경북 성주에 있었던 하미비에 대해 말씀하여 주었다. 자기 조상의 이야기라 구술하 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유머가 있고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6대조, 6대조, 6대조 할아버지가 원자 조자 이원조라. 원조 그 분이 우리 고향이서 그 저 태어나가지구 서울 과거를 보러 갔는디, 아마 결혼해가지구 스물한 살이야.

스물한 살인디, 그 인제 옛날이는 과거에 불라하면 뭐 갓 쓰고, 위에 뿔뿔 말아가지 뭐 두툼하니 두루매기 입고 마, 미투리 미투리는 한 마 한 열댓 개 달아가지고 가다가 중간중간 자, 오다가 자고 그렇게 적어도 한 달 계산해 가지구 올라올기라. 그 저 경남서 이까지, 서울까지 오자만.

그래가지구 그래 요시에 보면 수원이라. 수원 근방 서울서 80이라 항게, 옛날 요새아 호텔도 썼(많)고 여관도 많은데, 옛날에는 주로 술집에 그 잠을 재 주고, 뭐 음식도 팔고 그랬는디. 그래 여관집에 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저녁을, 그러니까 잡숫고 고대쫓 자는 기라.

자 가지고 꿈에 아마 좋은 수염 백발 참 노인들이 세 사람이, 두 사람은 바둑 두고 한 사람은 구경하고 있는디. 이 양반도 꿈에, 옆에 서가지구 바둑 두는 구경을 했는데. 한참 바둑을 두다가 한 어른이,

“저 요담에 장원 급제를 누가 하겠는고?”

그 옆에 바둑 두는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이 바둑 두는 사람한테 물었어. 물었는데,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마 경상도서 올라오는 이원조가 장원 할끼다.”

그 자기도 옆에서 들었는기라. 그렇게 한 사람 있다가,

“아니 아니 그이 장원 못 헐다. 장원이. 오늘 저녁이 호식을 한다. 호랭이가 마 물고 간다는 말이여. 그러니 장원 안 된다.”

그러니 자기가 뭐 오늘 저녁에, 뭐 물리 갔, 간단 소리 들으께 말이여, 그만 그 바둑 두는 어른들한테 하기를,

“어른신 나를 좀 그렇게 살려 달라.”

구. 꿈에 말이야. 그 뭐 자꾸 애원항께. 그래 이래 쳐다 보드니,

“아이 그 참, 참 밖에 게 누가 있느냐?”

“예!”

“저 포수를 불러라. 포수를 빨리 불러라. 포수는 인제 그 포수 그래 포수를 불러 와라. 불러라.”

했더니. 그래 있음게네 포수가 나타났대 이기라. 어이? 얼굴은 잘 못 보구 나타났는데, 딱 깬게 꿈이거덩. 그러고 꿈인데, 한 오 분 있음게,

“홍홍!”

하고 소리가 나는 기라. 인제 그래가지구 포수가,

“여기 저 이원조라 하는 사람 있느냐?”

그래 그거는 현실이지. 그래 문을 열고,

“아이, 내가 이원조요.”

바로 그 꿈에, 꿈에 본 그 사람이라, 포수가.

“저 여 호랭이를 잡아 놔, 놓았으니, 당신 이제 장원급제 한다.”

그래가지구 서울 와가지구 참, 거 이 장원급제 했어. 해 가지구 그냥 그러니 남행으로 패(운수)가 풀렸고, 참 이 이 명필이라. 명필이고 인제 그래가지구 저 처음에 부임을 했, 어디 했냐면 제주도 목사을 했어. 처음에 초임. 제주도에 목사를 하다가, 인제 차차 중앙으로 올라와가지구 예조판서, 그게 내무담당이지. 그 하다가 그만 벼슬을 말고, 그 저 가야산 밑에 망귀정 하는데 계시고, 거게 있다가 세상 떠났는데.

6 남한 병자로 과거한 사람

이영만(80, 남/구갈리T 1뒤)

[한성1차 아파트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의 조상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였다. 이때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그 바른 가면은 팔랑개비 뱅뱅 도는 것 있잖아요. 거기다 글로 쓴 거라. 남한 병자를 써 가지고 한 50m 위에다 저 달아 놔. 달아 놔. 50미터 위에다 달아 놔는데, 뱅뱅 돌아가니께, 인자 그 암만 이 글자 이만,(두 팔을 벌리며) 하드라도 돌아가니께 안 보이는데, 글자라 해 봐야 요런 것 써가지고 바람에 요렇게 뱅뱅 달게고 돌아가니까 보일 리가 있어, 그래. 이레가

쪽 써 놓고, 야 저것,

“저것 아는, 저것 참 글 아는 사람이 이긴다. 와이 본대로 말 해라.”
이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여. 들어 가니까,

“금방 봤느냐?”

고. 묻는다 말이여.

“봤습니다.”

“그래 무슨 자드냐? 글자를 말하라.”

고 허드라.

“그래 북방 병자입니다.”

이랬단 말이여. 그래 내, 아 남한 병자 한다는게, 북방 병자 하는 건데, 그래 나와가지고 그래 그 선비는 나오니께네 인자 여기 같으면 여기 방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는 낙방을 돼가지고 저기 나가는데, 하나는 들어오는 사람 보니께 참 사람이 참미(?) 원만한 거라. 이 나가는 사람과 참미 같은 사람이라.

“나는 이왕 떨어졌지만, 니나 가 허고 오니라. 나는 그것 남한 병자를 변연히 알고도, 남한 병자로 한다 한 것이 북방 병자를 해 버렸다. 그래 니나 가 남한 병자라고 해라.”

그래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또,

“그 글자 봤느냐?” 고.

“봤습니다.”

“무슨 자드냐?”

“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냐?”

“아이 남쪽에서 온 사람은 남한 병자라고 하고, 북쪽에서 온 사람은 북방 병자라고 하니 그 어렵습니다.”

그러니 인자 나라 임금이 가만히 생각하니께, 아께 간 그 사람도 맞은 거라. 그 사람은 북쪽에 오니 북방 병자라고 했고, 이 사람은 남쪽에서 오니 남방 병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온 그 사람이 참 알기는 아는 사람인데, 알아가지고 지는 참 발음이 그만 오차가 해가지고, 이래가 떨어

졌는데,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 둘 다 하도록 이래 해 주었으니까, 그 놈이 더 요하잖아요, 그것.

그 놈 먼저, 인제 내중에는 그 사람도 참 우리같이 소견 읊는 사람 같으면 남령 병자로 배웠으니 뭐 남령 병자로 이렇게 했으면, 자기는 하면 뭐 맞출건데, ‘말하기 어렵습니다’ 해 가지고 북쪽에서 온 사람은 북방 병자라고 하고, 남쪽에서 온 사람은 남령 병자라고 하고. 그래 두 사람 다 했다는 말이여. 그래 다 용하다고. 시상을 혼차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이 좋잖아요.(웃음)

7 호랑이가 알려진 사람

제보자(70대, 여)/구갈리T 1뒤

[한성1차 아파트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듣고 있던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꺼냈다. 이것은 실제로 경험하였다고 하는 내용이지만, 설화적 요소가 있어 수록하기로 하였다.

황산 모택이, 황산이 모택이, 차가 갔는디, 막 사람이, 차가 이리 갔는디, 앞에 호랑이가 요러고(꼬부리고) 있더라. 그래서 차가 못 가잖아. 그래서 인자, 그러면,(웃음) 얘기를 안해서도 못 허겠어.

“그래 니그 짝 차에 있는 사람 한 가지 하나 떼져 봐라.”

그런게 짝 다 안 받았는디, 삼대 독신 외아들이 받드랴. 받고 온게, 그리 받고 오니 또 하나가 있다가, 그 사람이 인자 그런게 내리, 내리라고 허지, 인제 그 사람 받은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내리는디 안 내리고 되느냐고 내가 내린다.”

고 딱 들어 내리는디,

“그 사람 때문에 나 죽는다고 내리라.”

고 그랬지. 그 사람 둘이만 살고, 짝 황산 모택이서 차 궁그렸대. 그래서 그 사람들 둘이 살았대.(웃음)

8]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제보자(70대, 여)/구갈리T 1뒤
[한성1차 아파트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인 강림도령은 너무 산만하고 설화적 구성을 전혀 이루지 못하여 수록하지 않았고, 뒤에 이영만 할아버지가 조수와 관련 있는 것을 말씀하였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로 수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고려장 지내는 것 왜 지내느냐요?’ [조사자 : 고려장요?] 여든 살 먹으며는 옛날에 고려, 고려 때는 고려장을 안 지내면 임금님이 지나고 뭐하고 사는데, 딱 사는 거여. 그래갖고 70만 먹으면 갖다가 고려장 묻으면, 거기다 범어른 그냥 덮어 놓고 오는 거여. 그러니까 인자 그때 같이 고려장을 한다며는 지금 인류이고 하나도 읍어요. [청중 : 그러면요.]

그랬는데 어느 평신이 아주 효자여, 아들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기 어머니를 업어다 내버릴 수가 읍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 고민을 허는 거야. 그래갖고 인자 내빌러 가는 듯하고, 지고 갔다가 도로 지고 와서 다락에다 감춰 놓은 거야. 옛날에 벽장이 있잖아요. [청중 : 그렇지.] 거기다 한쪽에다 감춰 놓고 인제 남 안 보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이 숙제를 풀어라.”

그렇게 인자 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냥 신하들이 다 몰르는 거여, 그 숙제를. 그래서 거기서 고민이 될 수 밖에. 고것 못 풀어내면 이 중국에서 인저 우리 한국을 치고 들어올 판이니까. 아 인자 고민을 허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안색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너! 나 안 갖다 인자 내버렸다고 나라에서 뭐 잉, 그 잘못된 너 저기 별을 받게 됐나?”

인자 걱정이 돼서 묻잖아. 그 강사 말따나 팔십 먹은 노인네가 인자 오

십 먹은 아들 걱정을 하는 거여.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아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무슨 숙제를 풀으리는데 그걸 못 풀어서, 대신들이 하나도 못 풀어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드래.

“그러면 그게 뭐, 뭐냐? 얘기를 해 보라.”

그래도 귀를 얻어들어도 옛날 노인네들이 유식하다 이거야. 이 여 공부는 짧아도 그래서,

“새끼를 백 발을 파가지고 재를 맨들데, 꼭 백 발이 살아있게 만들고, 나무를 백 가지 나물을 해라.”

이랬어. 거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나 고것 잊어버렸어.

“아 어머니 말씀 맞다.”

고. 그리고 인자 갔어. 궁에를 들어가가지고,

“이것 내가 알아 맞출테니까 맞나 보라.”

고 했어요. 그래갖고는 새끼를 100발을 파서 푹푹 멍쳐서 들을 싸 놓으니까, 고대로 있잖아요, 재가. 새끼재로 널리면 안 날라가요. 백 발의 요 재 고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건 맞았다.”

고. 그리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깨끗이 닦아서 인자, 지금으로 말하면 오분이지. 인자 오분에다 하나 봉을 해서 딱 놓으니까,

“이게 백 가지 나물이다.”

고. 이려고 물었어. 고 사신 온 놈이. 그 놈도 미련했든가 봐. 백 가지 나물을 해라고 했은께, 낭구가지에다 100개에다 이렇게 깎아서 백, 백색이잖아. 백색이고 백 가지, 가지가.

“들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것 맞다.”

고. 그래갖고 우리 한국이 이겼다는 얘기가. 그래갖고 중국이 지금, 대국이지 그때는. 대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인제 맺어가지고, 중국에 훌쩍 넘어

가지고 지킴 우리 기가 살아 있는데, 인자 차차는 왔다갔다 하잖어.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허니께. 인자 그렇게 된 얘기 있는데, 고 좀 뭐가 더 붙어 있는데 인자 오래 돼서 잊어 먹어 버렸어.

9 부자집에 장가간 나무꾼

최점순(67, 여)/구갈리T 2앞

[한양아파트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은 한양아파트 노인정으로 자리를 옮겨 조사를 하였다. 이 노인정은 할머니들이 모여 노는 장소로 몇 분의 할머니들이 있었다.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곳에 모여 있는 할머니들이 호의적으로 맞아 주었다. 그 중에서 제보자가 선뜻 나서 이야기관을 형성시켜 주었다. 제보자는 천정이 전북 익산시이고 이야기를 구술하는 동안 재미있게 모션을 첨가했다.

옛날이 옛날이 어트게 가난헌가 나무장사 해서 나무로 먹고 사는디. 가난헌게 장개를 못 가. 누가 딸을 쥐야지. 누가 딸을 쥐야지. 그러디 그 딸이 부자집에 큰 애기 하나가 참 좋은 놈 있는데, 이게 아침만 허면 이렇게 넘다보고 입맛만 따시는 거여.

근디 딸을 주간디. 엄마하고 둘이서 나무장사 해서 먹고 사는디, 산에서 나무 굵어다 시장 가 팔아서 싸래기 한 되 팔아서 먹고 사는디. 그러니까 지어매더러 하루는 그려.

“저 아랫집 부자집 큰 애기 나 즐랑가?”

그런게 직 어매가,

“아이고, 이놈에 자숙! 그런 소리 내도 마라. 그 집이 얼마나 부자고 외동딸 시방 그냥 끌르고 끌르고 허는디, 너 감히 그런 소리 허지도 말어.” 그런단 말이여. 그런게 도시락을 지 어매가 싸주면, 죽을 싸주던지 보리밥을 싸주던지 산이 가서, 그 점심을 먹을 때 이 바우, 바우를 깨깎이 붙고 썰고서 거기다 밥을 한 덩이 요렇게 떠 놓고서나,

“바우님! 바우님! 산실님! 산실님! 나 거게 아무께께에 밀이 큰 애기더러 장개 줌 가게 해 달라.”

고. 꼭 빌어 그냥. 그래 그 근방은 나무가 없으게, 저 십리 밖에서 나무를 매가지고 그리 오는 거여. 밥을 먹으러. 그 정성을 드릴려고. 장개를 그리 꼭 갈라구. 또 밥을 요렇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떠서 놓구서는 깨까지 불구 띄구서는 또 비는 거여

“산실님! 바우님! 나 그 큰 애기로 장개 줌 가게 해 달라.”

구. 아 그렇게 어니 날 백 일을 빌으니까, 어느 깨끗한 새털 하나가 이상하게 빠졌더니, 거기가.

“이상하다.”

그러구. 새털을 종이에다 싸서 호주머니에 넣갓구 아무하구두 애기 앓구서는, 자기 예감이 인자, ‘아 이것을 인자 갖다가 그 새악시 드나드는 디다 갖다 꽃아 놓아야 겠다.’ 그 생각이 뜨드랴.

그런게 하도 인제 정성을 들인게, 산신령이 인제 바우님이 시킨 거여. 그래서 인자 그 새악시 화장실 드나드는 디다 그냥 꽃아 났어. 옛날이든, 옛날 그 배깔 화장실이지. 이런 화장실이 있었나? 거기다 이렇게 인자 꽃아 났더니, 아 웬? 아 새악시 속이서 막, 궁둥이 밑에 치마 속이서, 밑이서 말이여 새소리, 갖은 새소리가 다 나. 여올라구 시방 좋은 디서 혼인말 오는다, 막.

“빼시 빼시.”

막 새소리가 나네. 공개 못 여우는 거여. 그냥 못 여우지, 누가 그냥 생겼는디 장개를 오것어. 그래서 인자 [조사자 : 여운다는 말이 시집 보낸다고요?] 응. 시집 보낼라고 오는다, 아 그런디 인자 중매가 자꾸 들어 오는다 못 여워. 이 놈의 소리가 나서, 궁덩이서 이런 디서. 무슨 새소리가. 하도 정성을 들이니께 그 산신령이 해 줬지.

그래서 인자 지어매더러 그랬어. 막 봉개 막 곳도 허구 막 빌고 별짓을 다 허고 난리가 났지. 인자 부갓집 외동딸인디. 아 그러니까 지어매더러 그랬다.

“아이구, 큰 애기 나 달라구려. 그러면 내가 낮어 준다.”

구 그러니께.

“어구,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우리 허구 그집 허구 어디 감히 혼인 안 혀. 허지도 말어.”

[청중 : 나무장사한테 누가 시집 와.]

“어구, 인자 봐유. 결국이는 내게 올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구. [청중2 : 그게 연분이기 때문에.] 영. 그런단 말이여. 아 그런디 여전히 그 소리가 난게, 그 집이서 난리가 난 거여. 그래서 인자 하루는 지어매더 러 그랬다.

“내가 낮아 준다구 가서 그렇게 해 봐유.”

“니가 어떻게 낮나?”

“아유 내가 낮을 수 있어.”

궁개 가서 인자 헛 일 삼아서 헨 거여.

“아유 우리 애가, 미친 놈이 아이 지가 낮어 준다구 저러니, 그 그게 뭇 소린가 모르겠시유. 내 자식이라두.”

그런게 그 소리 들은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여, 지어매가.

“그럼 우리 집이 오라구 허라.”

구. 갔어.

“아, 어찌게 낮을 수 있나?”

“내가 잘 허면 낮을 수 있유.”

그러는 거여. 그렇게 인자,

“밤중에 나오지두 말구서, 오늘 저녁에 아무도 문도 열어 보지 말구, 방애가 앉았어유. 그럼 내가 낮어 줄텐게.”

그런단 말이여. 인자 들키니까. 그렇게 불두 끄구 다 방애가 있는데, 아 화장실에 가서 그 털을 빼서 싹 허니 호주머니에다 넣고 나온게 똑 그치는 거여, 그 소리가. 새악시가 그 소리 나는 것이.

그러니까 낮어가지고 좋아서 야단이여. 막 그냥 쌀두 가져 오구. 이 집이는 그냥 굶어 죽게 생겼는다. 나무만 안 팔으른 쌀도 가져오고 그냥 주기도 허고 그러는 거여, 좋아서. 딸 줄 감히 생각도 않구.

한 열흘이나 있다가 또 해 났어. 참엔 허락 안 항게, 몇 번 해야지 약 올려야지. 또 갖다 놓게 아 또 그러네. 아 먹고 떨어지게, 음식 다 살 먹구 떨어진게 또 갖다 놔. 그러니까 막 또 그렇게 소리가 나. 큰일 났어 또. 그때는 인자 그랬디야.

“여간해서 못 낫것는 디유?”(웃음)

시침 딱 띠구, 총객이.

“여간해서 못 낫것는다.”

구 그러.

“그 딸을 나를 쥐 봐유. 그럼 낫것슈.”

그 딸을 병신 만드는 것보담 주는게 낫지. 불쌍한 놈도 살려주구. [칭중 : 그럼, 그럼.] 그래 장개를 갖드라. 공개 정성을 그렇게 들이몬, 지극하몬 복이 돌아온다는 얘기여, 속담이. 그래서 잘 살드라. 그 집서 그냥 바리바리 실어서, 딸을 그냥 땅도 좀 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살드라, 잘 먹고. [칭중 : 그렇게 공든 탑이 무너지랴구. 언제든지 내가 이걸 꼭 해서 성공해야겠다 그렇하고 하면 참 좋은 거여.] 야유, 그런 얘기가 있다.

10 인부 보고 놀란 호랭이

최점순(67, 여)/구갈리T 2앞

[한양아파트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해학적인 이야기라며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어떤 색시가 시집을 갔는다, 어 인자 신랑이) 똥이 마렵다구 그래서 똥을 누러 갔더니, 가니까 인제 바깥에 저기 저 아까 들으니까네 바깥에 있다잖아. 그러니까 색시가 따라간 거여. 인자 원삼, 원삼쪽두리 한체. 신랑이 어리잖어, 옛날에는. 그 따라가서 인제 치간(변소) 앞에 가서 요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신랑이 호랭이 물어갈 팔자여. 그래,
“섞-!”

소리가 나더니, 와서 덜컥 들어 엮는 거여, 인자 신랑을. 옛날에는 이(흥내를 내며) 다리가 벌리고 앉아서 똥을 뉘야 되잖아. [청중 : 그러믄유.] 그렇게. 그 쪼끄만께. 그래더니 ‘확-’ 소리가 나더니 호랭이가 와서 신랑을 툅 업는 거여. 고려닌까 그냥 색시도 툅 업혀 버렸어.

그런게 둘을 엮고 가는 거지. 그눔의 호랭이가 기운도 쏘던 게버. 그래 뛰어가다 어디다, 어디다 갔다가 툅 내려 놓드래. 인제 색시는 정신이 있웅개, 신랑은 까무라 쳤는데. 그래 툅 내려 놓고 이렇게 보니까, 막 왼삼쪽 두리에 막 활웃에다 에 요상아룻하게 무섭게 입은 그 둘을 업고 왔웅개, 호랭이도 놀렐 것 아닝가배. 그런게 자꾸 뒷걸음을 치더래. 그래, ‘때는 이 때다.’ 싶어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머리가 능숙했어. ‘때는 이 때다’ 싶어 갖구는,

“이 늬의 호랭이! 나 잡, 나부터 잡아 먹으라.”

고. 확 덤비니까 그냥 천연 험한 낭떠러지루 호랭이가 떨어진 거여. 올라오지도 못허구. 그 늬이 놀래서 떨어졌어. 그래갖구 그냥 색시가, 신랑이 얼마나 쪼끄만턴지 들쳐매 업구 온거야, 집이루. 오니까 집에선 신랑색시가 다 없어졌다구 막 난리가 난거야. 윈 집안이 이냥. 첫날밤이다. [청중 : 그럴테지. 호랭이 잡는다고 햇불 잡고 했겠지.]

그래가지구 썩 들어가니까 깜짝 놀렐 거 아니야. 그런게 마루바닥에 갔다가 확하고 색시가 진이 빠진 거여. 그래 그 사실 애길 다 했어.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동네에서 전부 그냥 열너비를 세우는 거여. 그래 그 신랑 살리고, 그렇게 잘 회(해)로 하고 살더래.

옛날이는 색시는 열다섯 살이믄, 신랑은 열 살이여. 그래도 그 참구 그 역경을 참구 다 살았는디, 그 신랑을 키워갖고 아들딸 낳고 그렇게 살았는디. 지금은 똗이 젊은 여자들이 지 맘대로 못, 신생활을 하면서 무슨 스트찌(스트레스)가 스트레이즈가 들어 가.

11 호랑이를 몰리킨 여인

홍영순(67, 여)/구갈리T 2앞

[한양아파트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옆에 있던 할머니께서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이야기판에 참여하였다. 이 이야기는 음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보자는 친정인 경상도에서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한다.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허드라고. 모 내는디. 이렇게 모 심는데.

“내가 심심하고 대간헌게, 힘 드는데 얘기나 혈꺼랴요.”

“얘기 좀 허세요?”

어떤 옛날에 아줌마가 하루 점드락 모를 내구 집이 갈 생각을 형개, 친정 어매 생일인디, 친정을 가야 것는다 떡을 한 동구리 밤이 해가지구 인자 친정을 가는 거여. 널 아침이 생일인디. 밤이 인자 산골을.

아 산골을 재를 너머 가는디 호랑이를 만났어. 어트게 옛날이는 왜 꺼떡 광목이다가 뚜드려서나 그 꺼떡 광목에다가 웃겨 주지. 그게 그냥 허리가 낙성허게 뚜드리잖어. 찹쌀풀 쥐가지구서나 반듯반듯하게 그냥 뚜드려서, 광목치마를 어수룩어수룩하게 해 입구 가는디, 아 호랑이를 만났어. 재 넘어서 가는디 큰일 났드라.

속곳까지 이냥 훌딱 벗어 집어 냅쓰구서 이냥 꺼떡 치마를 꺼꾸로 그냥 쪼개 쓰고서나, 발을 이렇게 하구서나 막 이렇게 허고 있었더라.(일등 웃음) 있응개. [청중 : 호랑이마냥.] 응. 호랑이마냥. 막 이렇게 쓰구서 가랭이를 짝 벌리고 막 있응개, 호랑이가, [청중 : 경도(월경)가 있었더라네.] 경도가 있어나 없었나 그 밤에 보이간.

아 호랑이가 이렇게 오더니, 아이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거든. 아이 시커먼게 이 시상에 이쪽저쪽 있으니까. 이늬의 호랑이가 이렇게 보구서 도망가더라. [청중 : 경도가 있응개 빨개잖어.] 응 빨건 것도 알어. [청중 : 그 백혀서 있는게. 그 훌딱 벗어갖고 빨건게 옆드려 있는게. 경도가 있는게.] 그런 얘기 허고 배살을 쥐고 웃었다네. [청중 : 경도가 있으니까 빨개잖어.

‘아이구 저 놈이 나 잡아 먹을라고 험다’고 도망 가버리드래요. 냅다 도망 가더라. 그런 얘기를 허드라.]

12 도깨비에 홀린 사람

이선예(73, 여)/구갈리T 2앞

[한양아파트 노인집] 박종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가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청중들은 함께 호랑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도깨비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제보자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이 이야기를 친정인 충남 금산에서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들었다고 한다.

흰히 길이 있으니 얼마든지 걸었더니 그냥, 아이 집이 안 나오고서 어디까장, [청중 : 도깨비한테 홀렸구만!] 도깨비 들려가지구 밤새드락 해뻤어. 집이가 안 나오네, 우리 집이 안 나오는 거여. 어디까장 밤새드락 워디까장 해매구서. 우리 집서 난리가 났어. 외가집서 자는지 알았지.

그랬드니 월매를 해뻤나, 어딘가 부면 웅덩이두 나오구, 어딘가 보면 가시덩쿨도 나오구. [청중 : 도깨비가 끌구 땡기는 거여.] 그러능 거여. 끌구 땡겨서. 아 그래서, [청중 : 빗자루라구대. 빗자루.] 이것이 무엇인가, 새복이 되는 거벼. 밤새도락 해매구. 대체 무엇인지 까시녕쿨처럼 생겼는디,

“이게 무엇인가 한 번 본다구. 대체 무엇이 이렇게 풀리능가 한 번 본다.”

구. 이렇게(손으로 휘어 잡는 행동을 함) 형개, 무슨 빗지락이 잡혀. [청중 : 그렇게 인제 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럼. 그래서,

“요놈의 것이, 내가 무엇인가 날 새면 와 본다.”

구. 그 낭구가 하나 썼는데, 까시덩쿨에다 이렇게 묶어 났어. 묶어 놓게로 묶어 놓게는 괜찮어. 나는 무서움 여간 안 타. [청중 : 안 타난 봐.] 응. 그런게는 인자 가만히 생각해 봉개, ‘아 이게 워디다’ 하는 생각이 나드라고.

그래 집이 와가지고 날 샌 뒤에, 거기부터 내가 이런 디가 막 뜯기구 그랬어.

그래갓고 가봉게 빗지락이여. 그 수수 빗지락. 피가 묻었어. 궁둥이가 피가 조금 이렇게 묻었대. 피 묻으면 그렇대. [청중 : 시상에 빗자루에 피가 묻으면 그렇대.] 응. 빗지락이 나를 끌구 땡겼어. 나 그렇게 도깨비 당했어. [청중 : 그래서 부지땅, 불 때는 부지땅이 있지. 옛날에 부지땅을 못 봤어. 말한 것 있어. 이런 디 막 피가 나고, 막 혈키고 그러니까. [청중 : 아니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 빗지락 같은 것 못 깔고 앉게 하잖어. 생리를 허게 되면 묻게 되면, 그게 저기 현대, 그래서.]

13 도깨비를 속인 사람

최점순(67, 여)/구갈리T 2앞

[한양아파트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도깨비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도깨비가 그랬대. 돈을 많이 벌어서 논을 샀ندی, 논을 샀ندی 그냥 인자 어디서 그랬다나. 논을 샀ندی, 그 네 귀통이를 들고서, [청중1 : 밤에 으샤으샤 한데잖아.] 들어지간디. 그게 안 들어지지. 이 가지고 갈라구. 이 내 돈으로 샀다구.

그래서 못 떠며 강계, 자갈을 어디서 갖다 자갈을 하나 던져 놓더라네. 그걸 오기 부리느라구. 그래서 모를 심으며 그런디야.

“아 그놈들! 재주도 좋다. 영락없이 요때 되면 여기다 대고 이를 심으니까, 그놈들이 재주 용타.”

고 그런디야. 해마두 여름이면 모를 심어 놓으니까. [청중3 : 고 자리다 심어 논거지.] 응. 내가 벌어준게 논 사가지고. 그래 자갈을 자꾸 넣어 놓은게,

“아이구 이거 개똥이나 쇠똥이나 갖다 넣으면 이 논 버릴건데, 자갈을

갖다 놔서 참 좋다.”

구. 이게 인제 도깨비 성질을 알았으니까. [청중 : 어긋나게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하루 밤에 자꾸 나니께, 그냥 자갈을 싹 치우고 개똥, 소똥을 그냥 잔뜩 실어 놔드라나. 그러니까는 잔뜩 갖다 부어 놔. 그러니 그 이듬해, 그 해 인제 모를 심었으면 얼마나 잘 되겠어. [청중2 : 재수 있으면 도깨비가 그러자고 하여야 살아.]

14. 업구렁이 쪽여 쪽은 며느리

홍영순(67, 여)/구갈리T 2앞

[한양아파트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조금 있다가 옆에 있던 제보자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상사뱀의 결말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옛날이는 참 밥을 해가지구, 보리밥을 해서 이렇게 걸어 놓잖어, 낮에 먹을라구. 시원하게. 소쿠리에다 이렇게 걸어 놓고, 밥을 때려 가. 시아버지 혼자 집 보구.

아 그런디 밥 때구 즘심을 먹을라구 그러는디, 밥을 덜어 먹네, 시아버지가. 이제 말두 앓구서는 속으로만 미워하는 거여, 시아버지를. 시아버지는 안 먹었는디. [청중 : 안 먹었는디?] 안 먹었는디. 여전히 그러.

그래서나 인자 지켰다, 하루는. 가만히 지켜본게, 인자 업이 그 집에 들어 오능 거여. 집이를 보는 거여. 큰 구렁이가 스프르 오더니 소쿠리에 가서 떨어 먹는 거여, 밥을. 먹구 나가는 거여.

“저 놈의 것을 내가 잡아야지.”

그래 그걸 때려 잡았다네. [청중들 : 그것 안 잡아야지. 그럼 그럼. 안 잡아야 하는디.] 잡아가지구, 잡은게루 꿈이 큰 암, 암 그 수쿠렁이가 있다 느만. [청중1 : 한 쌍이지.] 한 쌍이여. 꿈에 그러는 거여.

“내가 너를 녹아 죽인다구 말이여. 내가 니 집이 부자 될라구 하는데,

나를 이렇게, 내 짝을 그렇게 했으니.”

큰일 났더라. 그래서나 인자 갖다가 막 며느리를, 큰 그전이는 항아리 있잖아. 항아리다 넣구서는 뚜껑을 덮구서 감춰 놔드랴. 인자 그날 영락없이 때가 되니까 오더라네. 구렁이 한 마리가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만 장독으로 가드래. 대가리를 요렇게 들루고서 있다가 나가더니, 나중에 열어 보니까 물만 하나 있드랴.

사람은 읊어. 사람은 녹아가지구. 그냥 막 거시기로. [청중 : 구렁이가?] 응. 구렁이가. [청중들 : 그러니깐 그 구렁이는 잡으면 안 돼. 그럼, 그럼.] 그런 얘기도 있어. 구렁이 엮이 있는 거여.

15 남궁씨의 유래

최점순(67, 여)/구갈리T 2앞

[한양아파트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혜리, 이윤경, 이정배, 광소현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학상! 승이 남궁가라는, 학상 승 봤어? [청중2 : 남궁씨?] [청중1 : 남궁이여, 남궁.] [조사자 : 남궁?] 응 남궁. [청중1 : 남궁. 성이 남궁이라고 있어.] 참 어려운 성이지. 저기 우리에게 한 사람 있어. 근디 내가 생각할 제 남궁가란 성이 다른 승은 많은디. 그 사람 하나거든. 내가 유식현 족보 맨드는 할아버지더러 물어 봤어.

아, 왜 남궁가라는 사람은 다른 승은 많은디, 딱 그 집 하난디. 삼 형제 인디, 하나 면장이고 하나 선생이구, 하나는 뗏하는가 몰라. 삼 형제여. 그 물어본게 그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얘기 꼭 듣게 얘기 혀. 얘기를 들었어. 할아버지가 그려.

“내가 일러주꾸라우?” 그려.

“예, 일러 주세요.”

이상해서 내가 그래요. [청중1 : 강경서 저기 있다니까.] 건물이 있다니까. 건물. [청중1 : 강경 문턱골에 가 하나 살어.]

“내가 일러 주께라.”

“예, 일러 주세요.”

그랬더니, 옛날 옛날이 사는데, 아 원님이 시방 말하든 대통령, 이런 고을 원님이 세상에 아들이 없는 거여. 그전이는 다 배가 고파팠잖어. 근디 아래 웃, 아랫집 사람이 저녁도 못 끓이구 죽도 못 끓이는 집이서 그냥 저녁만 먹으면 새끼들,

“까르르-!”

그러는 거여. 이 집은 두 내우 아무리 부잔디 웃을 일이 없어. [청중 : 재기 새끼가 없응개 그려.] 새기가 없응개. 그래서 그 원님이 가만히, 그 원님인게 다 알지. 이렇게 짚어 보니까,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마누라는 아들 삼 형제가 있어. 그래서나 종을 시켜서,

“저 아랫 집 아무 것이 좀 오라구 그려라.”

이 집은 궁가구, 그 집은 남간디.

“그 남서방 좀 오라구라.”

[청중 : 그 본 남편은 남가구] [청중2 : 그게 아니지. 그 가난한 사람은, 원이 궁가고.] 원님 종이 가서나, 아 찾아서,

“오라.”

고 현게.

“아이구, 나 죄가 읍는디 왜 오라구나!”

그러는 거여, 무서워서. 그래 가니까,

“이리 들 와라.”

그리구서,

“다 나가라.”

구 했어. 인자 앉혀놓구서 원님 히는 얘기가,

“너 오늘 저녁이 딱 열두 시 우리 집이 오니라.”

그렇 거여. ‘아구! 날 죽일려고 그러나.’ 정말 이상허.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꼭 왔다 가.”

인자 온 거여. 온게로,

“마누라 방에 들어가라.”

구 했어, 따루. [청중 : 자기 마누라 방을 들어가라구 한거여.] 응. 아들 삼 형제가 있음께.

“지금은 너, 그러나 아무 소리, 쥐도 모르게 해야 한다.”

고 그렇게. 조졌어. 자기가 낳은 것으로. 그런데 딱 방 한 번 들어갔는데, 애기가 임신을 했어. 아 난게 아들을 낳네. 공개 남가하구 공개하구 짬뽕 해서 남궁가여.(일동 웃음) 아 그래가지고 또, 또 불렀어.

“또 오라.”

고. 그런데 또 한 번 들어강게, 또 애기가 있어. 시번 들어가서 삼 형제를 낳어. 마누라가 삼 형제가 분명히 있음께. 나가주구 오래오래 아들이 장명 허게 컸는데, 아 친, 그 원님이 인제 죽었어. 그 낳은 아버지는 살구. 오래 오래 그래도 그렇게 몰르구 그렇게 사는 거여. 그때까징 인자 말두 앓구 그 아버지가 또 죽었네. 그런데 마누라가 허는 소리가,

“너! 거기 가거라. 문상을 가거라.”

그랬어. [청중 : 공개 즈그 아버지지, 그계.] 거기도 아들들이 수북허고 그 래 인자 진짜 즈 아버지지. 그 삼 형제가 똑같이 가, 한꺼번이. 가니까 문 앞에 딱 들어서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여, 그냥 눈물이. 흐느끼면서 고안히. 친아버지니까.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 물보다 진하다 거기서도 난 말이여. 그러니까 인제 그냥 온 거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여. 그 그냥 와 가지고 막 울며 오는 거여.

“왜, 느덜 그렇게 울며 오냐?”

“아이 문상도 못하고 생여 보도 못 했어유.”

“왜 못 했냐?”

“그냥 말두 없이 내가 눈물이 나오는데, 삼 형제가 어떻게 하나?”

구. 그때는 무릎을 탁 치며 그 얘기를 형거여. 그때사.

“이따이마 해서 너를 낳다. 근게 그계 느 아버지여.”

[청중 : 그게 진짜 아버지여.] 그때는 가서,

“그러나?”

구. 막 늘어 붙들고 집 아버지, 죽은 지아버지 가서 울으면서 지어머니를
원망을 하드라.

“살아서 그 얘기를 하지. 인자 그러나?”

구. 그래서나 그 째뽕해서 남궁가가 됐다구 그러드라구. 궁계 남궁가는 그
렇게 드물어.

3. 상갈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이영건, 김남형 조사(1997. 5. 14.)

상갈리는 신갈리의 남쪽에 인접한 마을로 교통이 편한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경기도 도립박물관이 있다. 이 상갈리는 기곡면 지역으로 갈내의 위쪽에 있어 윗갈래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금화와 중갈천을 합쳐 상갈리라고 하고 기흥면에 편입되었다. 여기에 금화는 쇠뿔이 또는 쇠뿔이라고 하는데, 풍수설에 의하면 금반형의 좋은 터가 있어 쇠뿔이 또는 쇠뿔리라고 하다가, 이 쇠가 빛난다는 뜻의 한자어로 금화라고 하였다고 한다.

2) 설화

① 이무기가 사는 연못

이정선(79, 남)/상갈리T 1앞

[상갈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영건, 김남형 조사(1997. 5. 14.)

조사자들은 신갈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아웃 마을인 상갈리로 이동을 하였다. 돌아다니다가 소개를 받고 김정선 할아버지를 댁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제보자는

실제로 경험하였던 일화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여 주었다. 그런 중에 설화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을 독립시켜 놓았다.

저기, 여기 삼양농산 있는데 말이죠, 거기 이 큰 웅덩이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냇, 그 그것말이 조금 보태졌겠지요, 물론. 명주실 그 꾸리라고 이렇게 둥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 한 꾸리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깊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용이 났다는 거죠, 용이. 그래 인자 고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거기. 그 그 웅덩이에. 그래 인자 고기를 잡으러 인제 그러니까 하나 들이는 못 잡고, 왼(은) 동네가 전부 풀려서 인자 그 물을 퍼내가지고 잡는대요.

그렇게 많던 고기도 그냥 한 마리도 읊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밋 수십 가마를 잡는 때가 있고. 왜 그렇게 없는 때는 읊느냐. 도깨비가 그냥 전부 그냥 몰아 갔다는 거예요. 거기 고기를. 그래서 어떤 때는 도깨비가 몰아 가면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렇고 도깨비가 안 몰아 가면 그냥 동네가 실컷 먹고도 남도록 그냥 몇 수십 가마를 잡았다는 그런 전설은 거기 있어.

[조사자 : 그거예요?] 용미라는데. [조사자 : 용미요] 용미. [조사자 : 용용자 씨갓고 용미가?] 용 용, 미자 그런게, ‘용 용(龍)자 꼬리 미(尾)자. 그런게 용꼬리라는 얘기죠’ 그제.

2 지명유래

이정선(79, 남/상갈리T 1앞)

[상갈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영건, 김남형 조사(1997. 5. 1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 연못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 이곳의 지명에 대해 설명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새푼이거든요, 원. 상갈리면서 새푼이에요. [조사자 : 새푼? 응 새푼이.]

새푼이란 게 무슨 말이나 하면은, 옛날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쇠푼 꽤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가 그전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새푼이에요, 여기가. 상갈리면서 새푼이 [조사자2 : 새푼이?] 새푼이여. [조사자 : 아! 그렇구나.]

여 백

4. 보라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태훈, 서연희, 서동성, 김상길, 이경환, 최영환 조사(1997. 5. 11., 1999. 5. 26.)

보라리는 신갈리에서 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경부고속도로의 동쪽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이 건설된 마을이다. 이 민속촌의 건설로 교통이 매우 편하여졌다.

보라리는 기곡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보평, 통산, 나곡, 방곡을 합하여 보라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하여 보라리라는 이름으로 기곡면에 편입되었다.

보라리를 이루는 자연마을로는 통산, 나곡, 양지촌, 음지촌이 있다. 통산은 통미 또는 통메라고 하는데, 옆에 통묘산이 있어 부르게 된 이름이다. 나곡은 마을 뒷산의 계곡이 깊어 보라산의 라자와 골 곡자를 합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라산골짜기이란 말이 줄어서 된 것 같다. 음지촌은 음지말이라고 하는데 통메 마을 동쪽 응달진 곳에 자리잡은 마을을 가리키고, 양지촌은 양지말이라고 하며 양지쪽에 자리잡은 마을을 가리킨다.

2) 설화

① 마을 지켜주는 느티나무

제보자(70대, 여)/보라리T 1앞
 [보라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태훈, 서연희, 서동성 조사(1997. 5. 11.)

조사자는 보라리를 찾아가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한 집에는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곳에 대해 묻자 제일 먼저 느티나무에 대해 말씀을 하여 주었다.

예전에는 진짜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느티나무에 느티나무 그런 것처럼 똑같이를 조상처럼 모셨어요. [조사자 : 아 그래요. 느티나무 옛날에 음식 갖다 놓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했어. 큰 굿을 해. [조사자 : 그러면 정말 신이 있어서 해요?] 아니 신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런 걸 혈 적에 저기 만신을 불러서 하지, 질대 만신 불러서 하지. 이런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만신 불러가지고 하지. [조사자 : 네?] [청중 : 만신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어요?] [조사자 : 직접 와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 거기 저 느티나무에 삼신 받아가지고 이 애 아버지를 낳았어. [청중 : (웃음)저희 아버지가 되게 어렵게, 사십 먹어서 저희 할아버지가 4대 독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때 와서, 우리 아버지도 되게, 우리 할머니가 마흔 다 되선가 그렇게 우리 아빠를 보셨어요.] 사십 먹어서. [청중 :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집에 정화수 떠놓고 기도 해갖고 저희 아버님 낳았다고.]

[조사자 : 그럼 전설이 있겠네요. 느티나무 전설.] [청중 : 거의 우리 나라, 아니 우리 나라? 우리 동네는 느티나무가 많이 이렇게 동네를 거의 터주대감처럼 이렇게 뭐 살려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사자 : 그럼 뭐.] 그러니깐 난리에도 이 동네 사람 하나, 이 동네 사람은 나가서 다 잘 되고, [청중 : 죽은 사람이 읍데요. 6·25때.] [조사자 : 6·25때요?] 예. [청중 : 느티나무 때문에. 이것 잘 지켜 주시니께.] [조사자 : 뭐 느티나무에 그런 전설 같은 것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 그것. [청중 : 지금은 돌

아가셨는데, 저희 저기에 그럼 무당이라고 할까. 아니면 보살이라고 할까.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도 할머니! 그 할머니도 느티나무에서 많이 하셨지요? 그럼. [청중 : 굿 같은 것, 그러니까 느티나무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동네를 많이 이렇게 살피주고, 그렇게 막 뿌리가 되게 깊더라구요.

[조사자 : 무당집은 있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리에도 저기 인민군이 저 느티나무 밑에 섰었거든. 그러더니 여기를 비껴 놓고 통미 가서, 저 아래 동네 가서 있기때미 그 통미는 더러 불타고 그랬어도, 여기는 숯 하나 까닭 없었어요. 사람은 까닭 없고, 숯 하나 까닭 없어.

[조사자 : 인민군. 인민군이 여기 들어 왔었어요?] 한 달. [조사자 : 한 달 동안 보셨어요?] 느티나무 밑에를 숨어 있다가 이 동네를 피해서, 그 저 통미, 저 아래 동네 가서 있기 때미 거길 쳤지. 거기 밋 집 불 나고 거기 사람은 죽었어도, 여기 사람은 하나도 여기서는 그냥 난리 저기 겪은 사람도 하나 뭐 깨끗하게 있다가 저기 했지. [조사자 : 이쪽에 숨은 사람들?] 응. 잘 지냈지.

2 지명 유래

조선원(58, 남)/보라리T 1앞

[보라리 청중의 집] 박종수, 강현모, 김태훈, 서연희, 서동성 조사(1997. 5. 11.)

앞의 제보자의 조사를 마치고 다른 제보자를 찾아 나섰지만 신통한 제보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집에서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지곡리에서 사시는 분이다.

제일 먼저 저기가 저 밤골여. 밤골. [조사자 : 밤골요?] 거기 인자 밤이 많이 난다고 밤골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담말 음지촌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가 음담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와도 여기 녹지 않아요. 늦게 녹는다고.

그 다음에 요 근너는 양달말. 양담말은 양지쪽이라고 그래가지고 양달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통미라고 있다고. 통미는 뭐 전해오는, 우리가 보기는 그 옛날에 그 통 그 미는(때는) 사람 있잖아요. 통 미는 사람이 가다가 어디 쉬어서 뭐 어떻게 했다고 통미라고 해서 졌다고 그러드라고. [조사자 : 통미요?] 잉. 그 유래가 인자 얼마 있으면 나올 거여. 저기 전부 조사를 했다고.

③ 한양 조씨의 종갓집을 잡게 된 내력

김진술(72, 여)/보라리T 1와

[보라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태훈, 서연희, 서동성 조사(1997. 5. 11.)

조사자는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양 조씨의 종갓집을 찾아갔다. 종부였던 제보자를 만나 한양 조씨의 내력과 사당에 제사지내는 것을 전폐한 이유를 듣는 도중에 이곳에 터를 잡게 된 내력을 듣게 되었다.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그냥, [조사자 :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깐 그런,] 이 집을 여기에다 정, 장소를 잡을 적에, 옛날에 우리 나라는 밥술갈이나 먹는 사람들 다 절에 다닌거여. 어느 집이던지 절에 안 땡기는 집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그런데 어느 중이, 어느 쪽쯤 가서 산을 그냥, 옛날이든, 지금 경운기가 이렇게 갈 적이 이것 포크레이를 파지만, 옛날이든 그렇게 하지 않고 소가 이렇게 갈거든. 소가 보습이라는 것, 이렇게 생긴 것, 보습이라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어느 사람이 장에 가서 며칠이든지 갈아가지고는 잉 그 보습이란 것이 있어. 쇠로 했는데, 이렇게 삼각으로 되었어. 요 끝머리에 가서 피가 묻어나오면 거기에다 종가집 터를 닦아라.”

고 하더래. [조사자 : 옛날이에요?] 응 옛날에. [조사자 : 스님요?] 그럼

(잠시 다른 이야기로 중단됨) 그래가지고, [조사자 : 어느 분이 인제 어느 분 중이, 어느 분한테 그렇게 말씀 하신 거예요?] 모르지, 터치고 그렇게 흘러내려 오니께 누구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 [조사자 : 네.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산 밑창을 그냥,

“어느 어디 쫓 갈라.”

고. 그렇게 시켰겠지. 나는 듣, 보지는 않았지만 무턱대고 갈지를 않았겠지. 그런데 이 근처를 그냥 이렇게 깔고 나니까, 사흘을 깔고 나니까, 사흘 되는 저녁 때쯤, 그 보습이란 그 쇠 끝트머리에 피가 묻어 나왔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종가터를 닦았다. 이 안채 터를 닦았다 그러는 전설이지.

4 생개진천 사거용인

한은수(56, 남)/보라리T 2뒤

[보라 1리 십터] 박종수, 강현모, 김상길, 이경환, 최영환 조사(1999. 5. 26.)

조사자들은 마을에 도착하여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이 장님의 소개로 제보자를 찾아가는 도중에 침터에 여러 분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제보자가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주변의 분위기는 매우 시끄러웠다. 이 이야기는 이곳에 있는 느티나무에 대해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노인네들은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게 읍어서 조그만할 때부터 살았지만 읍어, 별루. 여기는. 그야말로 참 여기 전설의 고향에 나오 고 허는, 지금은 뭐 전설의 고향에, 그렇게 살아서,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이라고 그러고.

지천석이 허고 뭐 바뀌가지고 뭐 용인에 와서, 나중에 대부분허고 용인에서 살았던 그런 얘기 뭐. 나서, [조사자 : 그것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그건 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얘기고 뭐. [조사자 :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요. 저희는 모르거든요.]

지천석이라는 사람은 진천에서 이렇게 진천에 땅을 지으며 살았는데, 거기서 사자가 잡으러 와서 잡혀가니까, 용인에 사는 지천석이 허고 바뀐 거야. 그런데 그 저 위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용인에 사는 지천석이 허고 바뀌친 거여.

거기서 진천 사는 지천석을 용인에 사는 지천석이네 집으로다가나 보냈어. 그러니 이 사람은 정신은 맨날 진천 사람인데, 몸은 여기 용인 지천석이 아닌가.

그래 여기 와서도, 자식을 거기서도 여럿 낳고 여기 와서도 살면서 보니깐, 자식이 그냥, 마나님이,

“자기 영감이 틀림없네.”

는 거야. 뭐 틀림 없거든, 그렇게 맨들었으니까. 그래서 살아서는 진천이요 죽어서는 용인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그때 나와 왔어. 전설의 고향에 몇 번 나왔어.

[조사자 : 전설의 고향에서, 얘기가 나온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무슨 있다든가?] 구런 것 있다고 해. 여기 지천석이 죽을 지경이지. 용인 땅에 와서 그냥 다른 마누라가,

“자기 영감이라.”

고 그러지.

“나는 여기가 아니고 진천이라.”

고 진천에 가보니, 거기 가 보니까 또 거기 마누라는,

“우리 영감 아니라.”

고 닭 쫓듯이 내보내거든. 그래 할 수 없이 용인 와서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여생을 즐겁게 살았는데, 그게 바로 생겨, ‘생겨진천 사거용인’이라고 살아서는 그런데 진천 땅이 죽어서는 용인인데. 살아서는 땅 새가 좋고 농사가 잘 되고 진천 땅에서는, 땅이 많으니까 살기가 좋다는 거고 용인 땅은 산이 많아. 그래 사거 용인. 용인 가서 가쁜 죽어서 오는 데가 용인 땅이다.

5. 고향화복을 알려주는 느티나무

한은수(56, 남)/보라리T 2뒤

[보라 1리 쉼터] 박종수, 강현모, 김상길, 이경환, 최영환 조사(1999. 5. 2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 마을에서 일어난 일화들에 대해 말씀을 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이곳의 느티나무에 대한 신앙을 묻자 마을의 산신제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 느티나무와 관련된 일화들이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하야간 여기서는 느티나무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6·25 때도 나가가 지고 전사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많았거든, 6·25 때. 그러구 여기는 폭격을 그렇게 하고 그랬어도 죽은 사람이 불과 뭐 네 다섯 명 미만 안 죽은 데가 여기야. 정말 안 죽었어.

그래서 저 아래 내려가면 느티나무가 있는데, 거기 내려가면 느티나무가 아마 뭐 허다기보다도 참 많이 돕지 않았나. 그러니까 봄에, 이른 봄에 앞사귀 나오는 걸 보면 올해 풍년, 흉년을 예측하고 그랬어, 노인네들이.

앞이 아래서 핀다. 또 위에서부터 피는 수가 있어, 나무가. 밑에까지 피는데, 피다가 느티가 위에서부터 피면 뭐 비가 늦게 온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물을 퍼서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짓잖아. 그러니까 지금 6월경이른 인제 이른 모 시작할 때야. 옛날 같으면, 제기 지금 같으면 이른 모 시작하며, 옛날 같으면 망중 때 이른 모 심어. 지금은 벌써 다 심었지만. 옛날 같으면 지금, 씨 뿌리는 데도 비가 오는가를 그걸로 다 따지고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

아휴 올해는 늦비가 많겠다. 이른 비가 많겠다. 밑에서부터 피면 장마가 좀 일찍진다. 또 윗 피면 장마가 늦게 진다. 앞사귀 나오는 대로야 그렇게 들 노인네들이 따지니 뭐.

6 느티나무의 유래

한양 조씨 종부(? 여)/보라리T 2뒤
[보라 3리 사당결] 박종수, 강현모, 김상길, 이경환, 최영환 조사(1999. 5. 2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보라 3리로 자리를 옮겨 조사를 시작하였다. 먼저 박영선 할머니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였나 느티나무에 대해 단편적인 일화들만 듣고, 한양 조씨 종부인 할머니를 만나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자 : (느티나무의) 유래는요?] 시작되는 유래는, 이 집이는 이성계 씨의 처가집이 되는 집이여, 이태조에. 여기는 이성계에 거 장인 장모 사당이여. 유래라면 그런 거여.

그래가지고 마당 가생에다가 느티나무 쪼그망 거를 심었거던. 전라도에서 이리로 이사 오시면서 이성계씨 장인, 장모가 인제 마당 가생에다 저 절 심은 거가 지금 저렇게.

요기 인제 엄마 나무가 있었는데 그건 너무 늙어서 죽었고. 요건 인제 가장구(가지) 뺏어서 나가가지고, 뿌리가 뺏어서 나가서 짝 나온게 이게 그 아들들이야. 그 아들들이 인제 다 살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보호수로 해 놓고, 그 나무 둘레고 뭐고 다 써 있을 거야. 써 붙였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써 붙였다고.

5. 지곡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명식, 김화경, 박수진, 신현희, 안혜원, 최선영 조사(1997. 5. 25., 1999. 5. 16.)

지곡리는 신갈리에서 남동쪽으로 7~8km정도 떨어진 마을로, 남남동쪽에서 북북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그리고 남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주로 북쪽으로 통한 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지곡리는 기곡면에 속하여 지실, 디실, 지곡이라고 불리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사기막, 다래울, 기와집말을 합하여 지곡리라고 기흥면에 편입되었다. 지곡리란 이름은 이곳에 지초란 풀이 많이 나고, 부아산 뒤쪽으로 골이 깊어 지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로는 이곳의 사은정에 모셔진 4분이 이곳에서 젊은 시절에 학문을 닦고 강론하며 교유하던 곳이라 해서 지곡(智谷)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지곡리를 이루는 자연마을로는 하동, 중동, 상동, 사기막, 월애동, 기와집말 등이 있다. 월애동은 다래울이라고 하는데, 음애 이자선생이 달맞이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기와집말은 음애 이자 선생이 이곳에 기와집을 지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사기막은 옛날 사기그릇을 굽던 집터가 있어 사기막골, 사구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동·중동·하동은 지실의 위치에 따라서 붙여진 윗쪽, 가운데, 아랫쪽 마을의 이름들이다.

2) 설화

1 도깨비가 불을 밝혀준 할아버지

이복규(68, 남)/지곡리T 1앞

[노인회관 2층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명식, 김화경, 박수진 조사(1997. 5. 25.)

조사자들은 이곳 저곳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제보자를 노인회관 2층의 자택으로 찾아가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잘 아는 것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조사자들이 도깨비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 말씀도 같고 불이 번쩍번쩍 해었다고, 여기 우리도 봤어. 여기에서 불이 쑥 갔다 쑥 왔다. 뭐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했었는데. 그건 저 비짜락(맞은 편에 있던 싸리 빗자루를 가리키며), 저 비짜락을 뭐 잘못 해가지고, 으트게 되서 부인네들이 깔고 앉았다가 그걸 버리면 그걸 인시 뭐 그런 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장을 보셨는데 이장을 32년간 보셨어. 근데 그때 소임이라고 있다고 소임. 소임. 그래서 신갈서 약주를 잡수고 안 오시면, 얼른 안 오시면 지금 민속촌 고개 있지요. 그게 옛날 길예요. 민속촌에서 가는 길이 또 있어요. 고굴고개라고 우리가 그걸 넘어서 신갈 초등학교를 여기서 걸어 땡겼어요.(코 푸심)

그런데 이 양반이 약주를 잡수면 얼른 오시진 않고, 인자 소임이, 그 사람이 마중을 나와서, 민속촌 그 저 저저 사은영고개라고 지금 차 다니는 데요. 거 선황백이가 있었고, 거기가 아주 험했어요. 소가 이렇게 나무 싹고 가게되면 뭐 가까스로 가게 될 정도로 선황이 이렇게 있어서, 나무가 죽은 듯이 사람이 가면서 돌 하나 던지고 침 세 번 빨고 그라는 거, 것들. 내가 나도 봤어요. 그라고 하고 다니는 것들.

그런데 신갈에서 약주를 잡수고 오시다가 인자 그 복고개, 복고개라고 해. 거길 오면, 오시면 앞이 환한데. 앞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인자 소임도 같이 쫓아오면서,

“아 할아버지! 그 길을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계속 오시다가 여기, 여기 여기에 연못이 있었어요. (검지 손가락을 바깥쪽을 가리키며 원을 그린다) 우리 논인데. 연못을 없애고 논을 만들고, 저 위에 그 둔봉(뚝봉)을 맨들었지.(뚝봉의 만든 유래 설명 생략)

셋개울 다리라고 해, 셋개울 다리. 여기 다리에 오게 되면 불이 온데간데 없어졌다야.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듣지 않고 소임, 고산옥이라는데 고산옥, 높을 고자 무리 소자 구슬 옥자 고산옥이라고 그 양반 돌아갔지, 벌써.

인자 그것을 전설이라고 할까 무슨 뭐 뭐라고 할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

2 마귀할머니 나타난 석성산

이복규(68, 남)/지곡리T 1앞

· [노인회관 2층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명식, 김화경, 박수진 조사(1997. 5. 2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신이한 이야기란 측면에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스스로 구술해 주었다.

그리고 그게 이자 부아산이라고 있었어. 저 부아산. [조사자 : 저희 학교 있는데.] 여기서 가면 부아산이라고 있다, 여기 삼거리에 큰 산 있죠. 저 넘어 산은 석성산, 정산이라고 그라고.

예전에 그 뒤편에서 마귀할머니가 나온다고 그래서 성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갈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면, 원정을 가게 되면 거길 갔었다고. 옛날에 인제. 그런데 여기 그거 그것에서 그건 끝을 내야 되는데,(웃음) 그리고 끝을 내고.

3] 시인을 묻으면 비가 안 오는 명당

이복규(68, 남) /지곡리T 1앞

[노인회관 2층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명식, 김화경, 박수진 조사(1997. 5. 25.)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스스로 구술해 주었다.

한참 가물고 그럴 때면,
“누가 와서 모(묘)를 썼다.”

고 해서. 가서 파제치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소릴 들었어요. 그래 실제 송장이 나왔다는 얘기가. 그러니 야 묘자리가 좋으니까 거기다 갖다 쓰고는 비가 안 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상하다. 여기다 뭐 갖다 묻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는 가서 파제치니까 송장이 나왔다. [조사자 : 원래 묘를 쓰면 안 되는 자리예요?] 네? [조사자 : 묘를 쓰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안 되는 자리데, 자리는 좋다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면 틀림없이 쓰면 되는데, 여기다 쓰면 비가 안 오는 어찌고 저찌고 해서 농민들한테 시련, 농민들이 시련을 겪는다. 아 그 자리는 좋은데. [조사자 : 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갖다 쓰면은 임자가 써도 소용이 없어, 파제치니까. 산 임자가 써도 소용이 없는 거야. 저는 보지는 못 했어요. ‘파제쳤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어.

이제 그런 것이 아마 구전으로 전해졌어.

4] 조광조보다 실력이 좋았던 음애선생

이복규(68, 남) / 지곡리T 1앞

[노인회관 2층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명식, 김화경, 박수진 조사(1997. 5. 25.)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곳에 농사가 잘 되었다고 간략하게 말한 뒤에 생각이 났는지 자신의 조상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음애 선생은 제보자의 14조 할아버지로 조선 중종 때의 본명이 이자라는 분이다.

그(조광조) 양반하고 동연배 양반이야. 한 시대 양반인데, 우리 음애 할아버님이 연연 연세가 위시고, 대과 급제 장원 과거에서 일등을 해서 장원 장원급제, 장원급제라고 있지요. 그걸 하신 양반이 음애 선생, 우리 14대 할아버지.

근데 조광조 선생은 대과에 급제를 못 했어요. 진사에 급제를 해가지고 진사, 진사한 사람은 초시라고 그러지. 옛날로 따지면 보통문과를 그걸 봐가지고, 요즈음 말하면 고등고시라고 그러지요. 보통문과 시험을 봐가지고, 고등 보통문과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보통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해가지고 픽업[pick up : 중간에 발탁되는 것]이 되가지고, 이 양반이 개혁 그래서 우리 음애 할아버님은 그때 인자 조광조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저기 하다가,

“너무 과격하다 중용(바닥에 가운데 중(中)자를 쓰며)을 지켜야지. 중용이라든가 중도라는 게 있지요. 중(할아버지 기침) 중용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음애 할아버님께서는 파직을 당하시고, 조광조 선생은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저저 수지면 있지요. 수지면 거기에 서원이 있지요. 조광조 선생 서원이야.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이제 시체를 가져다 묻는 것이 순리인데, 이것은 평상시에 입던 옷을 가져다 묻었다고, 저 수지면에.

그래서 그 양반이 어디서 돌아갔나 하면은 우리 저 사원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 음애선생께서 한양 조씨가 조광조 선생하고, 그 밑에 두 분하고 네 분이 사원정,(한참 동안 기침) 저저 보라리는 민속촌 아래야. 한양 조씨가 많이 사서, 여기는 한산 이가가 많이 살고.

그리고 이 동네는 한산 이가, 밀양 박씨, 현풍 곽씨, 제주 고씨 대개 이러한 풍파가 전에 살았었어.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게다가 또 뭐뭐 다 와서 살지. 근데 모르겠어 지금은 성씨가 어떻게 되는지

5] 까치산(오산)의 유래

이복규(70, 남)/지곡리T 2앞

[지곡 2리 고추밭] 박종수, 강현모, 신현희, 안혜원, 최선영 조사(1999. 5. 16.)

조사자들은 지곡 2리에 도착하여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 제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 제보자는 지곡 2리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곳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곳의 시체에 대해 말씀을 하시다가 이곳의 지명에 대해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래 여기가 해주 오씨네, 해주 오씨네 산소가 저기 있는데, 근처의 17대에 서일공이라는 산소가 있어, 지금도 그 바람에 우리가 산을 50, 40정보구를 빼앗겼어. 우리는 사패를 그 후에 받은 거고, 그 낭반들은 그 전에, 17대하고 14대하고 차이가 무척 3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실천을 했는데, 산소를 잃어 버렸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산소가 보니까 비석이 나오거든. 그래서 보니까 해주 오씨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해주 오씨에다가. 가르쳐 줬는데, 이 낭반들이 때를 쓰는 거야.

“이거 우리 산이다.”

그래 4패를 받았으니 방법이 읍지. 그래 권력 투쟁을 한 거야. 그래 원이라 해서, 저 지금의 군이죠. 군에서 해결을 못하고 조정에서 해결을 했어, 중앙에서. 그래 거기서는 중앙에서 얘기가,

“한산 이씨 덕은 많고, 해주 오씨네 산소 백에 없으니께, 그 한 40정보만 줘라.”

그러고 판결을 내려서 40정보 줬어.

저 오산이라 해서, [조사자 : 저기요?] 아니. 이 산 보이는 것이 오산이요, 오산. [조사자 : 저 산요?] 영. 저기 전기 첩탑 있죠? 저기가 오산이라고 그런다고. 그래 나라 오자 오씨인데, 까마구 오자 오산이라고 그런다구.

그래 나쁘게 평을, 평이야. 평을 해기 위해서 나라 오자가 오산인데, 까

마구 오자 오산이라. 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조사자 : 해주 오씨네 그것 때문에.] 예. [조사자 : 저 산이요?] 영.

6 지곡리의 지명유래

김석순(70, 남)/지곡리T 2뒤

[지곡 1리 어느 절], 박종수, 강현모, 신현희, 안혜원, 최선영 조사(1999. 5. 16.)

조사자들은 지곡리에 도착하여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길가에서 한 마을분을 만나 제보자를 소개받았다. 제보자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5대째 살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절에 의지하여 살고 있었는데,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쉽게 호응하여 주었다.

어느 비석에 보면, 지곡리가 지금 지초 지자 난초 지자 지곡인데, 이른제(언제)는 이게 기흥면 기곡리라고도 있고, 또 기흥면이 곧을 직 어디 뭐 다른데 꾸부러진 데도 없어요. 여기 외골짜구니요, 여기. 그래 곧을 직 자 직곡리라고도 그러고. [조사자 : 직곡리요?] 응. 있고. 여기가 기흥면 기곡리여. 그런데, [조사자 : 기곡리요?] 기곡리.

그래서 피난곳이라고 그랬어. 들어오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조사자 : 마을이 지곡.] 지곡 지곡. 여기가 뽕 들러 이렇게 외, 외골짜구니가 외골짜구니가 뭐냐면, 지금은 그 뭐야 그 용인으로 떨어져지고, 제기 차가 넘어 다니지만, 전에는 이게 풀리질 않고 맥혔으니까는, 들어오면 도로 빠꾸해 나가야 되고. [조사자 : 그래서 직곡리요?] 응.

근데 그 곧을 직자가 뭐하니까, 그 난초 지자가 그계 향기로 지짜란 말 이야. 또 향기로. 난초가 향기롭고 해서, 인자 이 중간에 지초 지자를 써서 지곡리라 그랬어요

3) 민요

① 모 심을 때 부르던 노래

박제희(70, 남)/지곡리T 2앞

[지곡 1리 어느 논가] 박종수, 강현모, 신현희, 안혜원, 최선영 조사(1999. 5. 16.)

제보자는 이곳에서 13대째 여기서 사는 분으로 이장님의 소개로 맥을 찾아갔으나 안
계셨다. 그래 나중에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논으로 찾아가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민요를 음영조로 불러 주었다. 이 노래는 모 심을 때나 논맬 때, 호미질할 때 부
르는 민요라고 한다.

어~ 화 어기 넘자~
지거~었~네에

② 호미질할 때 부르던 소리

박제희(70, 남)/지곡리T 2앞

[지곡 1리 어느 논가] 박종수, 강현모, 신현희, 안혜원, 최선영 조사(1999. 5. 16.)

앞의 민요를 불러주고 나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불러주신 것이다. 이 노래는 호미
로 매거나 소질을 할 때 부르는 민요라고 한다.

둘레야~~ 둘레야~~
어~허와 둘~레야~

6. 공세리

1) 마을개관

박중수, 강현모, 박용현, 사은택, 한원섭 조사(1997. 5. 18.)

공세리는 신갈리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 신갈저수지 동쪽 중앙에 위치하여 저수지를 이용한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 마을은 원래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저장하여 두던 창고가 있었으므로 공세굴 또는 공세동이라고 하였다.

공세리는 기곡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공세동에 한의동을 합쳐 공세리라 이름을 지어 기흥면에 편입되었다. 공세동이라는 지명은 각 군·현 등의 치소와 관련되어 자주 보이고 있는 이름이다.

공세리의 자연마을로는 한일, 큰말, 공세, 불당골, 탑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일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한의동이 변음된 것으로 보인다. 한의동의 유래는 '크다 넓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큰마을의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세는 세금을 건어 쌓아놓은 창고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고, 불당골은 절골이라고도 하는데 절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큰말은 한자어 대촌이라고 쓰는데, 가장 많은 집들이 모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탑안은 서쪽 저수지 근처에 5층 석탑과 석조여래상 등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2) 설화

① 공세리의 지명유래

제보자(70대, 남)/공세리T 1앞
[큰마을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박용현, 사은택, 한원섭 조사(1997. 5. 18.)

조사자들이 이 마을에 도착하여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마을 사람의 소개로 제보자를 택으로 찾아갔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곳의 지명에 대해 설명하여 주었다.

여기 저, 고속도 궁따릴 내려가면 여 탑이 있는데, 그래서 그 탑. 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락을 탑안이라고 해요. 그 뿐이에요. [조사자 : 근데 왜 그게 탑안이에요?] 탑이 있는 동네라 탑안이라고 탑안.

② 흥인 편도공의 일화

최순규(66, 남)/공세리T 1앞
[큰마을 발가] 박종수, 강현모, 박용현, 사은택, 한원섭 조사(1997. 5. 18.)

조사자들은 앞 제보자에게서 더 이상 이야기를 채록할 수 없어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자리를 옮기는 도중에 발가에서 일을 하는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이사를 하여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 일요일에 심심하여 이곳의 밭에 무엇을 심고 산소도 볼 겸하여 왔다가 조사자 일행을 만났던 것이다.

여기는 저 공세리라고 말이여.(녹음 작동을 시험함) 공세리라고 주을 공자, 세금 세자. 세금을 이자 최씨네 문중으로 주라는 그런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공세리여, 여기가.

근데 저 위에 가면 능안골이라고 있어요, 능안골. 저 위에 가면 능안골이라고, 거기가 저 최씨네들 선산이요, 이 얘기가 사팍지지여. 이조 때 여기를 전부 이자, 이 근처 땅을 전부 다 인저 하사 받은 거여. [조사자 : 누가요?] 최씨 문중에.

아 어떤 때 언제 그랬냐면은, 이성계 있잖아요. 이성계. 저 아 태조, 태조, 태조가 도통사, 요동반도를 치러 갔잖아. 거기에 좌 뭐야, 좌장군, 우장군 뭐 다 거기 밑에 있잖아요. 그 밑에 한 사람이 우리 저, 편동호 할아버지여.

근데 요동반도를 인자 가서 치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너 무나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도저히 거기를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군하기로 한 거여, 회군.

그날 저녁에 모이가 전부 다 회군하기로 인자 하는데, 거기에 인자 우리 인자 전부 다 찬성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했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여기 와 계시는 그 양반이여. [초사자 : 최씨?] 응.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거기에서 자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는 그날 저녁에 말을 몰아가지고 개성을 오셨어. 그래가지고 개성에 와가지고 인자 최영 장군한테 그 보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저 거시기가 인저 이 이성계가 회군을 해가지고, 이자 저 이조를 창건을 했잖아. 그때에 이 양반이 벼슬을 고만두고 전주로 피난을 가셨어. 근대 이성계가,

“그 양반을 불러 오라.”

이거여. 그래서 갔어. 신하를 시켜서 갔는데. 이 대답 할, 안, 안 올라 오셨어. 대답도 오질 않고. 그래갖고 ‘여기 있다면 죽겠다’ 해가지고 또 청주로 가셨어. 청주, 저 진천 거가 가면 죽전천이라고 있고, 죽전내라고 있고. 이 뭐 저 죽전리라고 있어. 거기에 머무르셨다고. 그런데 다시 이자 이 이성계가 또 보냈어, 신하를. 거기가 있다는 걸,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때 그 양반이 거기서 또 사양을 했어.

다음에는 3대 태종, 태종대왕 방원이가 세 번째 직접 왔어. 신하로써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은 저 충신이 아니다. 두 임금을 또 섬기면은 충신이 아니다. 내가 술을 먹어가지고 이것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네. 또,

“신하가 임금에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고서는 그냥 돌아가 버렸어, 방원이가. 근대 태종대왕 되기 전에. 그러면 이미 죽인다는 거 아니야. 죽는다 아니여. 사형선고 받은 거지. 그래가

지고 이 양반의 형님들이나 모여, 그 분들이 전부 고려 벼슬을 하시다가 다 인자 그만 두시고, 어디 산속에 가 다 묻혀 계시고 하는데, 인자 찾아 갔어.

“어떻게 해면 좋겠냐?”고.

“이모(이미) 인자 고려는 망했다 이거여.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는 늙어서 인자 죽어야 하고, 자네는 동생은 아직 젊으니까 나가서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라.”

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인자 벼슬을 하셨어. 그래 좌참참. 인자 그때로 말할 것 같으면 의정부사가 좌참참이여. 근데 그 양반이 참찬으로서 그 뭐야 저 의, 의정부사를 하셨거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장이지. 그리고 서울판윤을 하셨고, 서울판윤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시장.

[조사자 : 그런 것을 하시면서 여기 이 땅을 하사받으신 거예요?] 응. 아니 내 말 들어봐. 그러다가 인자 그 양반이 인자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아 태조가 편도라는, 인자 자 방원이가 편도라는 호를 지어 주었어. 돌아가신 뒤에. 저 편할 편자 건널 도자 편편하게 건넌다, 고려에서 이조를. 편도라는 호를 내려 줬고. 지금도 편도공 산소라고 지금 이 그렇게 인정고 있거든. 그래서 그 양반이 에 인자 돌아가신 뒤에 산소를 여기다가 정했는데, 이 전체를 인자 하사했지, 정부에서. 그래서 하사받은 땅이야.

3 백련지

최순규(66, 남)/공세리T 1일

[큰마을 발개] 박종수, 강현모, 박용현, 사은택, 한원섭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에 묘지와 관련된 지명을 채록하였다.

여기 가면은 그 양반 인자 제각도 있고, 저 시름사라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백련지라고 연못이 있어요. 또 그 연못에 유래가 또 유명합니다. [조사자 : 무슨 지?] 백련지. [조사자 : 백련지요?] 응. 백련지라고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인자 에 길뒀은 연꽃이 분홍색 아니여.

그런데, 하얀 연꽃이 필 때가 있어. 그 해에 우리 최문에서 벼슬을 하던 은 꼭 장원급제를 해. 그래서 그 이름을 백련지라 지었어 그래서. 그런 연 연못이 있고.

④ 3개의 명당을 가진 능선

최순규(66, 남)/공세리T 1앞

[큰마을 발기] 박종수, 강현모, 박용현, 사은택, 한원섭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편도공의 일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문의 일이라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 위에 올라가면 인자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가 또 유명해. 와 유명하느냐면, 한 능선에 명당이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것은, [조사자 : 한 능선이에요?] 한 응. 능선 하나에.

제일 위에는 천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산소를 쓰면 왕이 난다.’ 그래서 능안골이여. 그 밑에 에 지열이라고 있어. 그래 우리 백로호 할아버지가 지열에 모셨고 그 밑에 에 그 양반의 다섯째 아드님에 산소가 있어. 인열, 인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풍설이 그 거짓말 아닌 것 같애.

그 인열에다 모신 그 저, 산소 있잖아, 그 자손네들이 오늘날까지 벼슬 명맥을 계속 이어 오고 있어. 지천대감 있잖아, 지천대감. 저 최명길 그 양반 손이고, 또 명곡상공, 정승을 여덟 번하신 분. 명곡 상공. 여덟 번 한 게 아니고, 여덟 번 사표를 써 냈지. 그래서 여덟 번 하셨다 해. 그 명곡상공도 그 양반 손이고, 그 인열에 모신 분.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냥 그렇게 번창하고 많은 벼슬들을 했어.

[조사자 : 그 묘를 잘 써가지고 그런?] 그러니깐 그런 전설이 있지. 인자 왜냐면 천열, 지열, 인열. 그런게 팔대, 우리 에 대한민국의 팔대 명당의 하나다. [조사자 : 팔대 명당 중 하나예요 여기가?] 잉. 그래서 지관 공부 하는 사람들이, 뭐 딱 그냥 여기를 공부허러 많이 온다고. 이 안에 가면, 내가 가면 또 자세히 설명도 해 줄 수 있는데.

5 능이 있을 능안골

오광형(44, 남)/공세리T 1와

[능안골] 박종수, 강현모, 박용현, 사은택, 한원섭 조사(1997. 5. 18.)

조사자들은 앞 제보자에게서 더 이상 이야기를 채록할 수 없어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능안골로 옮겼다. 능안골에 들어섰을 때 제보자가 집안에 쉬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여기가 인제 뭐냐 하면은, 인제 옛날에는 능안골이라고 했던 말이에요. 능안. 응 (녹음상태에 대해 조사자에게 물음) 능안이 왜 능안이나? 예날 임금이 저 여기 능텃 자리예요. 여기 올라가시다 보면은 아 한 300m 올라가서 좌측으로 가면은 거기 굴이 있어요. 거기 능안골. 으 능, 능이 슬 자리로 여기를 옛날부터 지목을 했다고.

근데 용인이 원래 인제 ‘살아서 진천 죽어서 용인’이라는 소린 들었죠. 그런데 용인이 인제 능자리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을 헬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즈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능이, 여기, 여기 보시면 강도 없고 물이 없잖아. 그래서 ‘임금이 묻힐 자리만큼 능자리는 좋은데, 그런 마땅하지는 않다.’ 그래서 능안. 여기가 안쪽에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길 능안골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깐 전주 최씨, 그 옛날에 뭐 어디까지 벼슬이 올라 갔는지 몰라도, 여하튼 그 전주 최씨 그 벼슬했던 말이야. 그래 인제 능은 못 됐고, 전주 최씨 그냥 벼슬한 사람덜

여워 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주 최씨 그 묘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가 보면 묘도 잘 해 놓고, 그래서 고깃 정도이지. 그리고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6 여우에 홀린 사람

제보자2(60대, 남)/공세리T 1앞
[능안골] 박종수, 강현모, 박용현, 사은택, 한원섭 조사(1997. 5. 18.)

조사자들은 앞 제보자에 더 이상 이야기를 채록할 수 없어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마을 안을 돌아다니다가 제보자를 만나 부탁드리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오다가 여우한테 흘려가주고, 그 그 노인네가 그이한테 혼나서 놀래서, 그 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신 기여, 그로다 놀래가지고, 그 여우한테 놀라가지고, 혼날 것 아니여.

그, 그래 비 오다가 여우한테 흘려가지고 혼나서 그 병을 앓아가주고는 그양 돌아, 돌아가셨어. [조사자 : 근데 그 여우한테 홀린 사람이여, 그 할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다음, 그 분 베껴 없지. 딴 분은 없어. [조사자 : 근데 그 여우가요 어디서 나온 거?] 어서 나온 건지 그건 모르지. 그건 뭔지 모르는 건데.

7 마을의 풍경을 가리는 나무

제보자2(60대, 남)/공세리T 1앞
[능안골] 박종수, 강현모, 박용현, 사은택, 한원섭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멈추었다. 그래서 조사자가 마을의 제사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에 채록한 것이다.

옛날에, 아 모르신데 그 할아버지도 어찌컨데, 낭구가 저기 뭐 풍, 풍년이 들면 밀창에서 피구. 또, [조사자 : 나뭇잎이요?] 응. 저기 흉년 풍년을 가린데, 이게.

풍년 들 때는 밀창에서 먼저 피구. 중모 나갈 때, 나갈 때는 중간에서 피고. 만약 나갈 때는 꼭대기서 핀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대, 난.

8 겨울에 잉어를 구한 효자

윤금중(84, 남)/공세리T 1앞

[저수지 앞] 박종수, 강현모, 박용현, 사은택, 한원섭 조사(1997. 5. 18.)

앞의 제보자에게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았는데 연세가 좀 많았다. 제보자는 황해도에서 전승되는 것을 들은 것이라 한다. 제보자는 충청도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살았다고 한다.

우리 옷대 할아버지가 겨울계 인저 아버지가 병이 나서 누워 계신데, 아주 팽팡 일어붙은 겨울계.

“잉어가 잡숴고 싶다.”

고. 그러고 하셨는데, 그러니 뭐 생각이 참 난감하지. 겨울기에 물이 다 얼어 붙었는데, 어디가 잉어를 잡을 수 있나.

그래 어쨌던지 낚시를 해서 들구선, 거기 아주 큰 한강같은 저 개울이 있어요 저 황해도 저- 그게 무슨 나무리(넛물이) 그리 내려가는, 해주에서 내려가는 건데, 그거 아주 강 같아요. 그런 개울인데, 거길 인저 낚시를 들고 가서서 인저,

“아버지께서 이 겨울계 잉어가 잡숴고 싶다고 해서 왔으니, 잉어를 잡게 해 주십사.”

이렇게, 하 그냥 별안간에 구름이 들면서 뇌성벽력을 하더래요. 그래, 그 낚시를 그냥 무심코 얼음 위에 던졌다 말이야. 그래 이 얼음이 뇌성벽력에 쪼 깨졌지. 인제 얼마 있으니까, 정말 큰 잉어가 하나 낚시에 물렸어,

올라왔던게. 그래 잡아갖고 집에 와서, 인저 그 아버님한테,

“잉어를 잡았습니다.”

“이건 내가 먹을 잉어가 아니다. 그런게 도로 갖다 놔 줘라.”

그런 우리 집안에 전설이 있어요. [조사자 : 그래 잉어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게 도로 갖다가 보내 줬지. [조사자 : 그 다음에 일 같은 거 안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알고, 호 효자 효자문을 세워서 외정 때까지 있었어요. 외정 말년까지. 그 전각이 있고 그랬었어요.

3) 민요

① 돌 래 요

가게 주인(68, 남)/고매리T 1뒤

[공세 2리 가게] 박종수, 강현모, 우영제, 유도열, 권오준, 조정현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은 고매리에서 노래듣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다니다가 공세 2리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가게 들려서 음료수를 사 마시며 주인에게 이야기나 노래를 부탁하자 들려주신 것이다.

돌래요 돌래요~

어하오기나 (잊어버렸네)

여 백

7. 고매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우영제, 유도열, 권오준, 조정현, 배건영, 주진옥 조사(1996. 5. 18., 1997. 5. 11.)

고매리는 신갈저수지 남쪽 끝에 위치한 마을로 신갈리에서 12km정도 떨어진 동서로 길게 뻗은 마을이다. 이곳은 기흥단지가 들어서 신흥공업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저수지를 이용한 상업도 발달되어 있다.

고매리는 기곡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골맷골 또는 고매동에다 공세동의 일부 합쳐 고매리라고 하여 기흥면에 편입되었다.

여기에 속하는 자연마을로는 원고매, 골맷골, 신고매, 만평이 있다. 원고매는 고매동의 원래마을을 가리킨다. 그리고 골맷골은 원고매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고매곡의 뜻이라 한다. 신고매는 원고매 동쪽에 있는 새로 생긴 마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만평은 원고매의 서쪽인 저수지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로, 옛날 마을 앞 벌판에 칩덩굴이 뒤덮여 있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 설화

① 두껍전

안오직(74, 남)/고매리T 1앞

[고매 5리 자택마당] 박종수, 강현모, 우영제, 유도열, 권오준, 조정현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이 이곳에 도착하여 조사 나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두껍전이 라고 명명하고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옛날에 책에서 보았다고 한다. 조사자는 이곳에서 60여년 간을 살아온 분이다.

옛날 두껍전 이야기나 할까 그럼. 하도 저기 하니까 옛날 두껍전. 그 옛날에, 앓아요.(조사자를 가리키며) 그 한 어려운 집 딸이 열십팔 세 고명 딸이 있는데, 그 심청전을 할까? 있는데, 인제 두껍전이, 그 우리는 그런 건 들은 소리이고.

한 집에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딸이 있는데, 사는데 인제 그 동네에서 아주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동네에 웬 거지가 와서, 그 동네에서 묵었다 이거야. 그냥 노다지(계속) 묵(먹)어. 한 거지가.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그냥 딴 데가 빌어 먹지도 않고 그 동네에서 그냥 귀찮게 굴르니까. 한 삼 년을 귀찮게 굴으니까, 동네 사람이 때려 죽였다 이거야. 때려 죽였는데, 그 동네가 인제 그, 그 놈 죽은 뒤로부터 우환이 들어서 망해기 시작을 하는 거여. 그래 인제 선몽하기를, 인제 사람이 일 년에 돌씩 셋씩 죽어 나가구 이래서, 그 어디가 점을 치니까는 그 총각이 나타나서, 빌어먹은 총각이, 죽은 놈이 나타나가지구 원한테 선몽을 해는 거지.

그러면는 그 원이, 그 고을의 원이 가면, 원이 귀신이 나타나면 그냥 말도 못 들어서 죽어. 그래 몇 사람이 죽어나가다가, 한 원이 인제 장담하고, 그 고을에 원으로 왔는데, 그 인제 장담하고 인제, 그 인제 점을 치니까,

“인제 그 마을에 사당을 짓고, 초당, 초당을 짓고 일 년에 색시 하나씩,

열십팔 세 된 여자 하나씩만 넣어 주면 이 마을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원한테, 한 담력 썬 원한테 그 이 총각이 죽인 게, 거지가 그 얘기를 할라고 들어 갈라면 원이 그냥 기절해서 죽구죽구 해서, 한 사람이 장담하고 거기 간 겨여.

“그까지 미신이 뭐 있냐? 내가 꺾어 낸다.”

고. 그래가지고 가서 있으니께 증말 사흘만에 머털 산발한 총각 놈이, 거지가 들어와서 무릅을 꼴터래.

“너, 그래 소원이 뭐냐?”

고 그러니까. 그냥,

“장가 못 들고 죽었기때때 일 년에 처녀 하나씩만, 열 시, 꼭 열일곱 살 아니면 열여덟 살 먹은 여자 하나씩만 넣어 주려는 이 마을이 편하다.”

구.

“그러냐!”

구. 그래 인제 서당을 짓고, 일 년이면 그 마을에서 돈을 건어가지고 색시 하나씩 사 넣어 주는 거야. 그렇다면 그 이틀날 동네 사람이 인제 시체 갖다가 장사를 지내는 거지. [조사자 : 처녀 시체를요?] 잉? [조사자 : 처녀 시체를요?] 처녀 하나씩이지, 일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 년은 꺼덕없이 아주 편하구 우환이 안 끌거든.

그것도 아주 읊어져야 하는데, 해마다 그, 그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어떤 마을의 소문을 듣고 열십팔 세 먹은 여자를, 참 아버지 하나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아니여. 가족이 어렵고 어려워서 직의 부모네가 참 굶기를 밥 먹듯이 허고 해니까, 이 효녀 딸이라. 효녀가. 효녀 그 소리 듣고 인저, 저 옛날에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 석에 인당수에 팔려가가지고 왜 봉사가, 심봉사가 눈 떴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 식으로 이 여자도 참 열녀고, 부모를 위해서 부모 몰래 그걸 팔려가는 거지.

근데 그 여자가 한 십 년, 그렇게 어렵고 어려워도 아침마두 밥할 때마두 부뚜막에 두깨비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요 조금만한 두깨비 새끼가 하나가 나타나다가, 한 십 년 아침 풀 적마두 나타나더래. 그러면 인제 밥한 수갈을 수지라다가 읊는 밥이라도 참 폭 떠서 주면 그것 먹고, 또 읊어

지고 읊어지고 이렇게 일을 한 십 년 걸렸는데.

야중에 자기 그 팔려갈 물(무렵)에, 그 때는 인제 소당(솔뚜경)만큼 커졌더라, 두깨비가. 이렇게 커더라 졌는데, 그런데 그 공양미를 참 얼마만큼 대금을 받고서 인제 부모 위해서, 부모 몰래 팔려가는 거지. 소리 듣고 심청이처럼. 팔려가 기주구서 인제 쪽두리 낭자를 해기주구 가는데, 가마 뒤에 두깨비가 짝 가말 타고 갈텐데, 두깨비가 그냥 자꾸 구찮게 굴더라. ‘저도 가자’고, 두깨비가.

그래니까 가마 안에다 데리고 갔다는 말이여. 가마문을 열어서 인제 데리고 가가지고선 그날 밤에 뇌성벽력을 허고 소낙비는 쏟아지고 허는데, 아 가마에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인자 그 킁킁한 방에다가 인제 색시를 하나 집어 넣어 놓았는데, 소낙비는 뇌성벽력하고 오는데, 방문이, 문이,
“삐걱! 삐걱!”

자꾸 열렸다 닫았다 꼭더라. 그래 뭔가 허고 내다보니까 두깨비가 거기 기어 왔더라. 그래,

“나는 이왕에 죽을라고 온건데, 너 여기 왜 오나?”

그래도 ‘좀 문 열어 달라’는 기색이 있어서 문을 열어줬더라. 그래 인제 들어와서 우묵에 인제, 색시는 옷목에 이렇게 앉았고, 맞은 바닥으로 이렇게 옆댕이로 돌아 앉더라. 모루. 그러더니 어느 뎨가 앉았는데, 뭐이,

“털썩!”

하더라. 그래 보니까 그 지네가, 그 총각 죽은 그 귀신이 대들보에서, 지네가 나와가주구선 그 이 두깨비가 먼저 봤지 인제. 그래가주구 그 독을, 두깨비가 독을 퍼렇게 올리고, 독을 두깨비도 올리고, 먼저 올렸으니까는 ‘털썩’ 하는데, 그 놈도 인제 무조건 내려오다 보니까는 두깨비가 독을 올리니까 그 놈도 마주 독을 내려쉴 것 아니여. 서로 전쟁이 있다 이거여. 그에 전쟁이여. 전쟁을 붙여가지구선 결국 두깨비가 독을 기획적으로 먼저 봤으니까는, 먼저 올라가 저 놈이 먼저 뉘새를 맡았기 때문에 먼저 죽었더라. 그래 인제 ‘털썩’ 하는데 보니까, 그냥 한 발쭝 댄는 지네가 방바닥에 푹 떨어져서 죽었더라. 그래 이제 두깨비도, 인제 지네 죽고, 그 놈도 그 두깨비도 마저 죽더라.

그래서 그 이튿날 그 동네에서 인저 이 처녀를 장사 지낼라고 인저 행여를 꾸며가지고 가니까 살아 있거든. 멀쩡하게 살아있다 말이여. 그래가지고는 그 여자가 정말 참 이름난 집, 시방으로 따지면 아마 국회의원 마누라로 되다시피 그 효, 효녀라구. 열녀, 열녀문을 거기다 세우고, 자기 잘 살고 부모네 베풀해서 잘 살고.

그래 그 두껍전이라는 게 고, 고풍하게 되었어. [조사자 : 지네가 자주 등장하네요?] 그렇지. 두껍이. 그러고는 그 마을이 그 뒤로는 아주 평균적으로 잘 살고, 그 이주 동네가 마을이 좋고 해가지구, 그 부상을 더 많이 주구 해서, 그 집이 이제 잘 살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인저 두껍전 약간 있는데 많이 빠졌어. 그런게 옛날 이야기가 되고.

2 마을의 지명 유래(1)

박덕순(72, 여)/고매리T 2앞

[고매 1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배건영, 주진옥 조사(1997. 5. 11.)

조사자들은 고매리에 도착하여 제보자를 찾아다니던 중에 집에서 쉬고 있는 한 할머니를 보았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야기를 부탁하자 한참 꺼리다가 생각이 났는지 이 마을의 전설을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가 고매리 만평인데, 저 고 너머로는 방죽이 크게 있거든요. 그 방죽 안에는 천가대가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거기가 방죽 막는 바람에 물이 하나(가득)가 잡혀서, 거기는 인자 동네가 뜨고.

그 너머로다가 넘어 왔는데, 거기가 만평이라는 동네데, 거기는 저 만인만가대가 앉는 만평이라는 동네여.

근데 그리고 또 그 아래 내려가서는 영천, 영천리라는 동네가 있거든. 근데 그 영천리라는 동네는 그 방죽 물이 방죽이 터져서 물이 막 내려가게 되면은, 인자 영 이냥 싹 실려서 영영 없어지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땀에 거기가 영천리라고 붙은 이름이 저 있데요. 그래서 그 인자 만평, 고매리,

아차 저기 천가대, 또 영천리, 그리고 그 다음은 난 더 모르겠네.
그렇게 여기는 전설이 돼 있어요.

3 구리로 뽑아낸 고매리의 꿈

정정례(68, 여)/고매리T 2앞
[고매 1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배건영, 주진옥 조사(1997. 5. 11.)

앞의 제보자는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조사자들은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제보자는 점심을 먹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조사자의 방문을 받고 구술하여 준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여기가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인데, 옛날부터 이 동네를 골이 12골이라고, 산이 많아서, 그래 고을 12고을이라 그래 골매골이라고 그런데요.

12골인데, 동네에서 크게 산제사도 지내구 10월 초하루날이면 산제사도 지내고 동네 큰 행사가 있대요. 그랬지 뭐.

산제사를 지냈는데, 그 기흥단지에 공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꿈이 나타나서 공사하는 도중에. 굶도 하고 옛날에는 굶도, 꿈이 나타나서 굶도 하구 그랬다구.

굶을 하고부터는 꿈이 도망을 잤디야.

4 호랭이를 뽑아낸 굶

김형선(59, 남)/고매리T 2앞
[고매 1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배건영, 주진옥 조사(1997. 5. 11.)

제보자는 원고매리에서 사시는 분으로, 이곳에서 지내는 산신제에 대해 말하는 도중에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옛날에 도로 공사할 적에, 기흥단지 도로 공사할 적에 그 호랑이가 내려와서 울고 그래가지고, 한 번 무당이 와서 그 곳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나서 호랑이가 안 내려왔었다고. 그런데 호랑이 내려오는 길을, 산 잔등을 째라서 호랑이가 내려와서 저기 밤에는 소리를 지르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못했거든, 여기.

근데 한 번 굶인가 정성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고.

5 마을의 지명 유래(2)

이정희(74, 여)/고매리T 2앞

[고매 1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배건영, 주진옥 조사(1997. 5. 11.)

앞의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에 제보자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한 것이다.

저기 산이 저기가 국사공이라는 산인데, 옛날에는 아주 해마다 한 번씩 저기 뭐 줄 걸리고 아주 큰 굶을 하고,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크게 잘 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인제 개화가 되면서 굶을 하는게 읊어지고, 또 저기 고 다음에는 일년에 한 번씩 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지금꺼정 정성을 드리고 내려오고 있어.

그리고 여기 숲이 아! 숲이 다 없어졌구나, 거진 다. 그 숲에는 노인네들 말씀이 거기는 금송아지, 금닭이 있다고 그렇게 이 동네 전설이 내려오는 소리는 그거여. 그거밖에 들은 거 없어.

그런데 인저 고매 1리, 2리, 3리, 4리 아마 지금은 5리까지 있을 걸. 그렇게 됐을 꺼야. 이렇게 많아졌다고 이 산 너머도 고매리. 여기서 내려가 사거리도 고매 1리. 고매리라는 것은 뭐, 이 동네 원래 아주 산골이었거든.

그러니까 저 이 옛 고짜에 매화 매짜 아니어, 고매리가. 그러니까 아마 내 고향의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매화 매를 썼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3) 민요

1] 호미걸매기요

안오직(74, 남)/고매리T 1뒤

[고매 5리 자택마당] 박종수, 강현모, 우영제, 유도열, 권오준, 조정현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는 자신이 살아온 일생담에 대해 장광설하게 말씀하여 주었다. 그리고 나서 조사자가 노동요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선소리) 오하 오기 넘차 찍었네

(후 령) 오하 오기 넘차 찍었네

삼촌 종자 짝이 나서
만국 장인 열매 맺는
신비로운 이 농사를
하늘 땅의 조화로다
(후령)

2] 두 래 요

안오직(74, 남)/고매리T 1뒤

[고매 5리 자택마당] 박종수, 강현모, 우영제, 유도열, 권오준, 조정현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에 이어서 계속해 구술하여 준 것이다.

돌래요 돌래요
오하오기 넘친

3 노래가락

안오직(74, 남)/고매리T 1뒤
[고매 5리 자택마당] 박종수, 강현모, 우영제, 유도열, 권오준, 조정현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를 마치고 제보자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자청하여 구술하였다.

삼각산 나린 즐기이이~~
비 온 땅에에~다 닿도록
무시(모시)리를 무시리이라
산불채석에서 무시리라
동자야 공양미 올려라
염불 공부

4 장구타령 <嘆老歌>

안오직(74, 남)/고매리T 1뒤
[고매 5리 자택마당] 박종수, 강현모, 우영제, 유도열, 권오준, 조정현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를 마치고 새로운 노래를 부탁하자 놀면서 부르던 장구타령이 있다며 불러주었다.

얼씨구나~~지화자 좋네에
아니놀지는 못허리라
하늘과 같이 높은 사랑

하해(와) 같이 깊은 사랑
 칠년 대한 기쁨 아래
 빗발같이도 반긴 사랑
 당명항에 양굴(귀)비요
 이도령의 춘향이라
 일년 삼백육십오 일에
 하루만 못 봐도 나 못 살것네
 한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낭기(나무)를 해도 고목이 되면
 오든 새도 아니 오고
 꽃이라도 낙화가 지면
 오든 나비도 아니 오고
 물이라도 건수가 지면
 놀던 고기도 아니 와요
 우리두 더 늙어지면
 오든 친구도 아니온다
 왔을 적에 놀아를 보구
 거들 거들이 놀아 보자
 덩기덩덩 바람에 춤을 추구
 널널이 가락으로 춤을 추자.

5] 적벽가

안오직(74, 남)/고매리T 1뒤

[고매 5리 자택마당] 박종수, 강현모, 우영제, 유도열, 권오준, 조정현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를 마치고 제보자는 '청년들은 시방 모른다'면서 노래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삼강을 수전이요
적벽은 우정이다

6 청춘가

안오직(74, 남)/고매리T 1뒤

[고매 5리 자택마당] 박종수, 강현모, 우영제, 유도열, 권오준, 조정현 조사(1996. 5. 18)

앞의 노래를 마치고 일제시대에 대해 말씀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지 자발적으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시퍼런 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뒀어나 봄시다
천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 사네
못 사는 세월을 허송을 할까나
노지를 말아라~ 노지를 말어요~
젊어서 청춘에 놀지를 말아야
늙어서 행복이 자연이 이루네
의연한 저 달이 창밖에나 밝어서~
산란한 내 가슴~ 더 산란허구나
창밖에 오는 비~ 산란도 하구요
뒷끝에나 돋는 달~ 무정도 하구나
의연한 저 달이

이것 한 것 아니야. 창밖에 비추시라 한 거여.

저 달이 증치냐 금전이 증하냐
두 가지를 놓고서 장깨뽕 험시다
무심한 기차는 날 실러어 놓고요

한 고향 혈 주를 왜 몰라 주느냐
달 뜨던 동산엔 달 떠야 좋구요
님없는 동산에 달 떠야 무엇을 하
일본 동경이 얼마나 좋길래에~
꽃같은 날 두고 열락선 타느냐
일 년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편지를 말구요
일 년에 한 번씩 다녀를 가세요

8. 농서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문상윤, 황영삼, 이선훈, 신현아, 정수미, 황윤혜, 반의옥, 최한호, 이혜영 조사 (1996. 5. 18., 1997. 5. 21., 1999. 5. 16.)

농서리는 신갈리로부터 14km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신갈저수지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농서리에는 삼성 반도체 단지가 있어 고매리와 함께 신흥공업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농서리는 기곡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농사동과 내서동 일부를 합쳐 농서리라고 하여 기흥면에 편입되었다. 이곳에 농사동이란 이름이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점으로 보아 농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생긴 지명으로 보인다.

이 농서리를 이루는 자연마을로는 용수골과 반월이 있다. 마을의 남쪽에 있는 용수골은 한자어로 용교라고 하는데, 용인과 수원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그리고 용수골 서북쪽에 있는 반월은 마을 형태가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 설화

1] 호랑이가 데려다 주는 사람

제보자1(60대, 여)/농서리T 1앞

[농서리 텃밭 앞] 박종수, 강현모, 문상윤, 황영삼, 이선훈, 신현아 조사(1996. 5. 18.)

제보자는 앞에서 도깨비불에 관해 말씀하신 뒤에, ‘요즘은 하기도 싫어 못 해, 아는 것 있어도 구찮아 못 해, 지껄이기가 싫어’하다가 조사자가 요구하자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호랑이의 속성에 대해 대화를 계속 나누었다.

호랑이가, 그건 옛날에 저 남한산성, 남한산성 걸어다닐 적에요, 남한산성에. 에 이쪽에서 걸어가지고 저 송파 넘어가는 고개. [조사자 : 송파요?] 응. 이 천상 넘어가면 송파여, 뭐여.

그 양반이 우리 시촌인데, 그거 진짜래. 번쩍번쩍하고 담배 불을 붙여 준데. 그래 그 쫓아온 데요. 뒤를 그렇게 즐렁 즐렁. 그래 앉아서 담배를 피면은 조만치 앉아 있다가, 또 담배 다 피고 가며는 또 즐렁 즐렁 집 있는 데까지, 동네까지 데리다 주고 가더래.

그것은 내가 들었어.

2] 삼태기 안같은 농서리

가게주인 아줌마(54, 여)/농서리T 1앞

[농서 2리 상회 앞] 박종수, 강현모, 문상윤, 황영삼, 이선훈, 신현아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들의 이야기듣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다니는 동안에 마을 가게에 들렀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이야기를 잘 하는 분을 묻자 잠시 생각하다 여러 분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때 조사자가 아주머니도 이야기를 잘 하실 것 같다며 이 마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우리 이 동네는, 마을이 꼭 삼태기 안 같으죠. 옛날에 시골에서 봤어요, 삼태기. 삼태기 안 같애. 그렇죠. 이렇게 둘러고, 요기에 이렇게 바닥이라고 그러지. 꼭 삼태기 안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요렇게 됐으니까, 이 위에 마을 형상은 꺾데기로 생겼고, 지금 바닥은 이 논이여. 응 이렇게 해서 꼭 삼태기처럼 안같이 생긴, 여기가 그 지형이 그렇게 생겼는데. 저 위에는 인제 산지붕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 산지라고 호랑이 지사,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산지붕이라고 하는 산지사 지내는 산지붕이 있고,

3 부정한 안개가 일화

가계주인 아줌마(54, 여)/농서리T 1앞

[농서 2리 상회 앞] 박종수, 강현모, 문상윤, 황영삼, 이선훈, 신현아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마을의 동제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런 도중에 동제를 지내면서 부정하였던 일에 대해 설명하여 준 것을 채록한 것이다.

30여 년 전에 제를 지낼 때라고. 인자 제를 지내는데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네 오라버니 한 분이 지사를 반대를 했는데, 그 양반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냥 밤새껏 결혼식에서 첫날밤에 신부가 배가 아픈 거야. 응 나 어릴 때는 여기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는 수원을 걸어 땡겼어, 수원 시내를. 그래가지고 밤새 마차를 타고 수원 병원, 도립병원에 가는 거야. 그 래 가보니까 아무 병도 없더라는 거지 뭐여. 응 그,

“사람 죽는다.”

고 막 야단을 치는데, 아이 의사가 진찰을 하니까,

“아무런 병도 없다.”

고. 그래 인저 도로 그 20리 길을, 오고가고 40리 아니여. 밤새껏 와 돌아 땡겼으니까. 그래 새벽녘에서 흰하니까 여기를 집에 오게 된거지. 생겼지.

인제 수원서 도로 오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를, 그 젓날이라나서 인제 그때도 잘 하느라고 했는 데도 부정을 타가지고 그 제사를 한 번 지내려 갔는데, 제사를 모시는데 그냥 촛불이 막 흔들리드라. 막 흔들려 이렇게 막,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축 읽으시는 분이 우리, 저 우리 집 양반에 형님이여. 우리 애기 아빠, 우리 애기의 애들에 큰아버지지.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호랑이가 와 계시더라고. 부정에 탕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축을 읽고 나오는데, 제사를 치고 제사를 지낸 것은 다 거기다 그릇은 죄(전부) 닦아서 거기에 뒤야 되고 그 우물도 따로 있어요. 그 물 퍼다 제사 지내는 우물이. 그거이 물 퍼다 다 설 것이 해서 놓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여기 내려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냥 뽕뽕이를 돌리는 거라, 벌을 줘서. 응. 그냥 열한 시에 1시에 제사를 지, 제사를 모시는데 6시까지 해맨 거야, 까시밭 길을. 세 분이서 밤새껏 해맨 거지 뭐여. 제사지내고 부정 타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서 막 그 마을에 내려와 보니까,(물건을 파느라고 잠시 중단) 그래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마을에 마침 임신한, 저 임신한 분이 몰라고서 시장에 가서, 아이구 시장을 봐 오시는 일을 하셨데요 그 양반이 유산을 된 거야. 그냥 난리가 난 거지, 동네 마을에 내려오니까. 그 양반네들이 막 밤새껏 해매고 벌을 받고 밤새껏 내려왔는데, 6시 이런 때 해가 환할 때 보니까, 고기서 고긴데 집을 못 찾고 뽕뽕 허맨 거랜 거야. 응 땃 십 년을 살던 자리를 그렇게 헤맬 수가 있겠어요.

그래 내려 오니까는 안 사람은 임신을 해 가지고, 응 그냥 별안간에 말하자면 낙태라고 그러지요. 그게 돼가지고,

“죽는다.”

고 난리를 하는 거고 그 제를 지내기를 참 힘들게 지냈데요, 한 해를.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말하자면 동네가 전부 힘이 들어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이 많고, 또 동네가 씨끄럽지.

그래 그때 당시 우리 그 축 읽던 우리 큰아버지, 우리 시아주버니지. 그 우리 집 양반의 형님이니까. 근데 우리 집, 그런게 우리 그 시아주버니 양반도 얘기가 있는 지를 모르고 축관을 하셨데요.

그러니까 그 애를 낳긴 낳는데, 우리 집 시아주버니는 별안간 병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병을 10년을 앓고, 고치질 못하고 그냥 지나 가셨어요. 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 애는 자랐는데, 지금 서른 여덟인가 그래. 그런데 그 애가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애가 아파 나서부터 계속 아프기 시작하는 것을 아부지하고 시비 서로 싸와, 아픈 거를. 그래가지고 아부지가 한 7년인가 10년인가를 앓고, 애는 10살인가 되니까, 아부지는 돌아가시고 애는 지금 있지요. 조카인데 서른 여덟인가 됐어요.

4 왕초의 산신령 호랑이

홍영숙(77, 여)/농서리T 1앞

[농서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문상윤, 황영삼, 이성훈, 신현아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에게 2편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가게 일에 바빠서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 그래서 상점 주인이 소개해 준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댁으로 찾아갔다. 제보자는 남편하고 피난을 와서 이곳에서 정착하였는데, 단칸방에서 외롭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호랑이나 다른 이야기가 없느냐고 말하자 처음에 귀찮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산신령이 호랑이고, 왕초가 산신령이지. [조사자 : 그것도 얘기에요?] 아이 호랑이가 따로 있어, 산신령이. 호랑이 왕초가 산신령이야. [조사자 : 왜요?] 응. 아이 우리네는 임금이 있으니까, [조사자 : 임금이요?] 우리네도 임금이 있으니, 대통령이 임금이 지 뭐야, 옛날 임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으니까 우리네도 사는 거고. 호랭이도 왕초가 있으니까 쫄맹이들이 사는 거 아니야. 그래 왕초가 사람도,

“잡아 먹으라.”

고 명령을 내려야 잡아 먹지. 아무나 잡아 먹는 거. 아니여. [조사자 : 아 호랑이 왕초가 오면, 졸맹이 호랑이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림. [조사자 : 그래가지고 잡아먹을 사람.] 호랑이가 잡혀 먹을 사람은,

“너 이문디 이문디 어디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 잡아 먹어라.”

이래야 호랑이 잡아먹지. 사람이라고, 호랑이라고 그전에 사람 잡아먹는 건가. 그런 것 어디 있어.

5 말 한 마디 잘하고 장가든 흥각

홍영숙(77, 여)/농서리T 1뒤

[농서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문상윤, 황영삼, 이성훈, 신현아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그런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일락 바닷가인데 그냥 오막집에서 혼자 살면서, 텐날 오줌을 요 요기가 부엌인데, 부뚜막 문에다 대고 질질 깔기고 또 들어가 자고 또 들어가 자고 그래. [조사자 : 총각이요?] 그래.

그래 인제 하루는 겨울이 됐는데, 나와서 오줌을 놀려고 문을 벌떡 여니깐 눈이 이렇게(두 팔을 쭉 펼치며) 왔드래. 그래 인제 호랑이가 잡아 먹으라고 온 거야. 하두 드럽게 굴구 그래서. 그게 와서 앞마당에 앉았는데, 저는 못 보고 호랑이는 사람을 본 거지. 그러니까 한테는 소리가,

“아유! 눈이 많이 오셨구나! 산신령님 땡기시기 어려우시겠다.”

그러구 한 마디 했대. 그래 좋아서,

“흥!흥!흥!”

그러드래. 그래서,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호랑이가 어정어정 그 문 앞이루 오더래. 오더니 자꾸

궁뎡이를 들이대면서 쫑지를 툽툽 치더래. 그래서,

“왜 그러나?”

그러니깐.

“여기 옆허라고 그래는 소리냐.”

고 그러니까. 쫑지를 툽툽 치더래. 그래서 옆혔데. 옆혔더니 한없이 어디루 막 뛰드래 그냥. 고기 이냥. ‘이제 잡아먹으려구 날 옆구 뛰는구나!’ 그러구. 등어리에 옆허가면서 별생각을 다 했지 뭐. 호랭이 등어리에 옆허가는 놈이 오죽하겠어.

그랬더니 어떤 지, 저 참 먼 데를 가더니, 그냥 부잣집으로 그냥 쑥 들어가더래. 그래 그 집 말리(마루)에다 갔다 놓더랴. 그래 그 집에 처녀가 나이가 많아서 시집을 못 가고 있더래. 그래 그 집에 갔다 내려놓니까, 그집 처녀랑 장가를 들고 사위 삼아서 행복하게 살드래.

그래 그 말 한 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는 거야, 옛날부텀. 그 말 한 마디 칭찬해 줬다고, 거기다 갖다가 장가를 들여준 거여, 호랭이가. 말은 못해도 호랭이가 그렇게 능통해다는 거야.

6 호랭이와 동행한 사람

홍영숙(77, 여)/농서리T 1뒤

[농서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문상운, 황영삼, 이성훈, 신현아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유형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그 경희대학교 있는데, 거기 임씨네라고 하나 사는데, 우리 동네에 살았어. 옛날에는 짜리 찌다가 이렁(계) 바소구리 쳐가지고 팔아 먹잖아. 팔아 먹어야지, 그게 돈이 생기지. 일거리가 있어 돈버리가 있어. 그러니까 바소구리를 찌러 인자 겨울 되면, 인저 밥 해 먹고 변또(도시락) 싸가 지게 똥바리에나 달아매고 그리고 인자 산엘 가는 거야.

그래 거기서 용인 산에 어깨산이라는 데, 거길 가서 아주 싸리를 이만하게 세 뭉땡이를 찌서 묶어서 그걸 지고 인제 끙끙대고 인제 오는데 어둡지 뭐. 거기서 걸어 올라니까, 여기서 용인이 한 30리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오는데, 저기 경희대학 지금 지은데 주차장 있어. 근데 거기 그 근방에 서낭이 하나 있어.

그전이 거기 산은 알아도 후미지다고 그러는 거야. 거기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서 선각시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 그제. 거길 오는데 그냥, 호랭이가 나타나더니 진짜 뒤에 여기 ‘달랑달랑달랑달랑’ 쫓아오더라. 그래서,

“나를 헤꼬지 하려면 뒤로 서서 오고, 나를 살릴려거든 앞에 서서 가라.”고 그러니까 앞서 서서 ‘줄렁줄렁’ 불을 비치고 가더라. 그런데 동네 다 들어와서 거기, 옛날에 넘기장래(?)라고 진짜 일본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 더러운 부자였었어. 명주도 짜고 그런 거지 뭐. 그 집에 개가 먹이는데 그냥, 거길로 인자 개가 그냥 들고 짓고 난리를 치더라. [조사자 : 개가요?] 응. 그러니까 호랭이가 앞서서 자기 살려줬으니까 어떡 하여.

“여기 손님 왔으니 손님 대접하라.”

고 그냥 소리를 한 마디 지르니까냥 그냥,

“뀌엄!”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냥 개 짓는 소리가 쏙 들어가더라. 주인이 나와서 야단치는 바람에 그냥 바소거리를 그냥 찌가지고 지고 오던 것도 그냥 거기다가 꽤데기질 치고 콩밭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앞드려서, 그 사람들이 야단치고 들어간 다음에 지고 왔다. 집이루.

그니 그래 그냥 오래 살지도 못 했어. 그렇게 놀래갖고 그래가지고 개 물려 보내고 그냥 주인한테 붙들렸으면 맞아 죽었지 뭐.

7 귀신 이야기를 엮고 복판은 사람

홍영숙(77, 여)/농서리T 1뒤

[농서 2리 지택] 박종수, 강현모, 문상윤, 황영삼, 이성훈, 신현아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동물에 관한 이야기, 귀신이나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하였더니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리산 산신제와 숯구이 총각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는 내용이다.

집에 가다 저물어서 묘이가, 이렇게 이렇게 쌍묘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잤다. 잤더니, 자다 들으니까 뭘 무슨 소리가 나더라. 선낭댁에서 잤대.

“선왕님! 선낭님!”

하고 부르더라. 그래,

“왜! 그래.”

“나 요 아랫동네에 가서 애기 받아놓고 올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럼, 가서 잘 받고 오라.”

고 그래서 인제 거기다 가만히 드러누워서 있으니, 드러누워서 어디 잠이나 와.

“애기 받고 오는 거라.”고

“그래 어떻게 받았나?”고

“아래 윗집에서 낳는데, 윗집이는 양반의 집인데 아들 낳고, 아랫집은 상놈의 집인데 딸을 낳는데 원래가 깨끗하게 잘 해 줘서 그 집은 이 밤 세 그릇에 돈 3000냥을 탔다.”

고 그러더라, 복을. ‘그러고 상놈(양반의 잘못)의 집은 밥에다가 바우를 집어 넣어서, 죽 세 그릇에 돈 1000냥을 탔다’ 그래더라. 그래 암만 부자래도 그만큼 탔으니 재산이 주는 거지 뭐 늘지 않지. 그래서 인제,

“그것 너무나 거지. 안 된다.”

고 허니까.

“아이 그 집은 그렇게 해야 된다.”

고 인제 그 이가 자고서 날이 새니까, 그 아랫 동네에를 살살 내려가 보니까, 아난게 아니라 엿저녁에 애기들을 두 집에서 낳더래. 그러니까 가서 양반의 집에 가서,

“여봐라.”

하고 부르니까 주인이 나오더래.

“그래 엿저녁에 애기 낳는데, 와서 찾는다.”

고 야단을 치더래.

“아니 그런게 아니라, 나두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러니까.

“그럼, 7년 후에 다시 봅시다.”

그러고 갔데. 그래 갔는데, 옛날에는 시집들을 일찍 가고, 장가들을 일찍 가잖아. 인제 그집 딸하고 참 어떻게 해서 혼인을 했대. 하게 됐대. 그런데 이 총각이 글방에 가며는, 옛날에는 학교가 없어 글방에 다니잖아. 그래 글방에 가면은,

“야이 새끼야! 너는 상놈의 집 색시하고 장가 들었지. 장가 들었지.”

하고 자꾸 놀리고 그러니까, 그 시끄러워가꼬 집이 와서 지 어미더러 하는 말이,

“엄마! 저 여자 보내자고. 나는 애들이 놀림 받아서 글방에도 못 나간다.”

고 그러니까 지 엄마가 며느리를 불러가꼬,

“친정에 가서 니 신랑이 찾을 때까지 있다가 오라.”

그러거든. 그러고 나오니까, 이 여자가 두 말도 없이 나가더니, 자기 방에 가서 살림해가지고 온 거 다 때려 부수고, 옷 한 벌 싸서 들고서 그냥 어디로 나가더래. 친정이루도 안 가고.

어디쯤 한없이 걸어가니까 그냥 해는 저물고 갈 때도 없고, 이렇게 가다가 별판에서 이렇게 산 있는 데를 디다 보니까, 산에서 연기가 꼬약꼬약 나더래. 그래 거기를 찾아들어 갔어, 그 여자가. 저 술밭 속인데, 오막집이 하나 있더래. 그래 왜 가서 보니까 할망구가 이렇게 청솔가지를 때고 앉았더래. 그래서,

“할머니! 할머니!”

그래 대답을 하더라.

“여기서 나 하루 저녁만 재 달라.”고

“아, 이런 집에서 어떻게 여기서 자느냐구? 못 잔다.”

고 그러니까.

“아이, 집이 없고 어디 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허겠느냐?”

구. 그러니까 그래 불 때는 데에 가서 응거리고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노인네 보고 하니까.

“아드님은 어디 갔느냐?”

니까.

“아 여기서 더 가지고 숯 굽는다.”

고 그러더라. 그래서,

“숯 굽는 것 해는 한다.”

고 그래서

“그러냐?”

고. 그래 거기고 하더라. [조사자 : 옛날예요?] 응 옛날에. [조사자 : 스님 요?] 그럼 가 앉았으니께 인저 불을 때구 밥을 해가지구 들어와서, 아들이 오니까 인자 차려주었는데, 참 씨커명게 해고 들어왔더라. 그래 이 여자가,
“머느리 삼으려는데 어떻냐?”

구. 아이 안 와서 걱정이지, 그런 사람이 뭐이 걱정이야. 그래 인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구.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지 엄마보구,

“변또를 싸서 달라.”

구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따 점심에 해다 줄께 그냥 가라.”구.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오느냐?” 고

“연기나는 데만 쫓아가면 될 꺼 아니냐?”

구. 그래서 점심에 해서, 참 그런 산골에서는 뭐 요만한 광우리이나 있겠어? 쪼그만 데다 해서 밥 한 사발 해서 건건이(반찬) 좀 담고 이고 찾아간께, 연기가 참 나더라. 거길 쫓아가서 보니까, 숯을 한 구덩이를 다 태서

이렇게 끄내서 묶구. 또 불 붙이고 그러더래.

“밥을 먹으라.”

고 허니까.

“내리 누(놓)라.”

고 [청중 : 얘기를 사러 와요(밖에서 들어오면서, 잠시 중단)] 그래서두루 그 여자가 밥 먹는 데를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숯가마 이맛돌 이렇게 걸쳐 놓은 독맹이가 이만한데 그게 자기 눈으로는 다 금으루 보이드래. 그래서,

“밥 먹고 저기 이맛돌을 죄(전부) 빼가지구 싹싹 뛰어서 미숫구리(짐싸기)를 하라.”

구 그러더래.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그게 내 밥사발인데, 이맛돌을 빼라면 어떡 하나?”

구. 그러니까.

“아 밥그릇이라도, 그렇게만 하면 밥 안 먹구, 일 안 해도 먹구 산다.”

구. 그래서 그 여자가 참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다 해서 묶어 놓니까, 서울에다 편지를 써서 지 작은아버지인가 누가 서울에서 금방을 하더래. 그런게 글로 부치면서 편지를 써서,

“이거 팔아가지구 집두 사구 살림두 다 장만해 놓고 기별해라.”

구 그랬던가. 그리고 해 났는데 참 기별이 왔더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자 그 남자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거나 행복하게 잘 사는데, 아들딸도 낳아 놓고, 뭐 재산이 없어 뭐가 없어. 땡땡거리고 잘 사는데, 이 여자가 생전 웃지를 았더래. 그래서 남자가,

“이만하면 우리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웃지를 았냐?”고

“한 가지 소원 들어주면 웃는다.”

고 그러드래.

“그래 한 가지 소원이 뭐냐?”

고 허니까.

“그지(거지) 잔치를 하라.”

더래. [조사자 : 거지요?] 응. 사내가 인자, 그 내별고 온 사내가 거지가 됐

다는 거야. 그래 인저 사흘을 참 거지 잔치를 했는데, 마지막 밤에 이 남자가 들어오드래. 미남이래, 남자는. 근데 들어오면서 도포도 해놓고 그냥 안 당포의 중의적삼 다 해 놓고 기다리고 있드래. 그래 들어오니까,

“저기 저 지끔 저 들어오는 사람 데려다가 목욕도 싹 시키고, 이발도 시키고 그래라.”

고 그러드래. ‘그래라.’ 그래 죄 시켜 놓고는 옷을 내다 주면서,

“이걸 갈아 입으라.”

고 갈아 입으니까 참 신사 멋쟁이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 인자 남자도, 나중에 얻은 남편보고,

“나는 이 사람 따라가서 이 사람 살려야 되겠으니까, 당신은 이만해도 인자 자식도 그만 살 짓고 재산도 이만하면 살 거니까. 찾아가라.”

하니까. 그 남자가 허는 말이,

“한 집이를 살자.”

고 그러드래.

“한 집이서 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인자 남자를 앞시키고는 오면서 다짐을 했다.

“나한테 또 그런 소리를 해야. 연장을 헐 거냐 안 할 거냐? 내가 헐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 해라.”고

“아 그런다.”

고 인자 걸어서, 옛날이 걸어 땡겼지. 차가 어디 있어. 인자 걸어서 걸어서 그냥 냇갈 뚝으로 해서 오는데, 냇갈에 오다가,

“저기 저것 집어서 도포자락에 넣어가지고 가자.”고.

“아이 그냥 가기도 무거워 죽겠는데, 왜 돌을 주서 가느냐?”고.

“그래도 내 말 거역허느냐고. 해라면 해라지. 왜 그렇게 말이 많겠느냐?”

고. 그래 그게 금이더라. 여자 눈에는 금으로 보이는데, 남자 눈에는 돌로 보이니까. 여자는 그만큼 복을 많이 타고났다는 거여. 그래서 그걸 주서 갖고 와서 팔아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다 죽드라.

그러게 자기가 엄마 배속에서 나올 때 복을 많이 타고나야 뭐이든지 해도 잘 되는 거야. 복 없으면 헐 수 없어.

8 이무기와 관련된 일화들

홍영숙(77, 여)/농서리T 1뒤

[농서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문상윤, 황영삼, 이성훈, 신현아 조사(1996.5.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이무기나 지내장터에 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① 구렁이의 압시

그래 왜 촌 사람 하나, 저 강개 방죽에, 그것 오래되지 않았어. 요즘에 일언으니까. 뉘시질을 가는데, 거기 저수지가 쪼끄만한게 하나 있어, 거기 하나. 거기로 뉘시길을 가는데, 이따 구렁이가 진짜 길을 가서 딱 막고 있었어. 그런데 뉘시대로 대가 떠 넘기면서,

“니가 여기 있으면 내가 못갈 줄 알고 이렇게 길을 막 막고 서느냐.”
고 그러고서 걸로 떠 넘기고 가서 뉘시질을 허니까, 이따만한(팔뚝을 들어 보이며) 잉어, 잉어가 이번에 잡히드라. [조사자 : 잉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식구가 해 먹고서 다 죽었어. [조사자 : 다 죽었어요?] 그래.

그걸 해 먹지 말라고. [조사자 : 먹은 거예요?] 인자 거기, 인자 가지 말라고 길을 막은 건데, 고집시우고 가갖고 다 죽었단게. 애들까지.

② 이무기가 되는 이유

구렁이가 용 돼 올라갈건데 못 되가지고 이무기가 돼가지고 그런건데. 예산리는 그 구렁이가 귀가 달리고 이렇게 땡긴게. 그러니까 그 용이 때 올라가는 그 근방에는 이렇게 안개가 인자 피잖아.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이때 돌돌돌돌 말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 애기 뻐 사람이 그걸 보고,

“저기 용 올라간다.”

고 소리 질르면 올라가다가 떨어져. [조사자 : 애기 댐 여자가요?] 못 올, 못 올라가. 그러니까 그게 이무기가 되는 거여. [조사자 : 올라가다 떨어지게 되면요?] 그건 생전 못 해, 인자. [조사자 : 한이 맺히겠네요?] 성공 못 해, 그건. 용이 돼야 성공을 하지.

③ 원천 방죽의 이무기

[조사자 : 그런데요. 용이 맨날 말 잡아 먹는다는 데요?] 그런게 이무기한테 걸리며는 사람도 잡아 먹어. 그래 여기 원천 방죽에 물 빼는 수문에, 그런게 원천 사람들이 고기가 많으니까 기계 놓고 드르박으로 파는데, 미국 사람이 오, 와서 이렇게 디러다 보더니, 고기가 버글버글 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잡으면 어떠냐?”

고 물으니까.

“잡을 수 있으면 잡으라.”

고 그 미국 사람이 걸어부치고 거길 들어가서 이렇게 허고 보니까, 대가리는 이만한 구렁이가 썩 허니께,

“노 노 안 잡는다.”

고 그냥 뛰어 나오더라. 그래,

“왜 그러느냐?”

고 허니까.

“저기 빨이 있다.”

고. 그래 거기 이미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여. 그래가지고 못 잡엿데.

④ 사람을 잡아먹는 이무기

[조사자 : 이미기가 구렁이보다 커요?] 구렁이보다 크지. 밋 십 년을 묵은건데, 그럼. 아이 귀가 하나 생겼는데 그럼. 귀가 이만(손목을 잡으며) 하다는데. 요만(손가락 마디를 가리키며) 한 것도 아니고, 여기 꽤 크게 달렸데요. 사람 귀만하게. 사람 생켜. 아이 여기 지금 텔레비들 외국 구렁이들

봐. 막 이만한 것도 막 깔렁깔렁 그냥 집어 생키대.

그래 이복서 피난 내려오는데, 배는 고프고 그냥 어디 가서 밥도 은어 먹을 데는 읍고, 배는 고프 죽졌는데 그냥, 진뻑하니 영감 마누라 걸어서 나오는데, 어디 동네는 저만치 있고, 이쪽에서 가니깐 큰 덩풀사리가 하나 있는데, 머루가 포도송이마냥 이렇게 얼마나 묵었는지 이렇게 다 알이 새까만케 익었더라. 배 고프에 이냥 그걸 정신없이 가서 따서 그냥 영감 마누라 먹는데, 영감은 인자 이쪽에서 따 먹고 마누라는 저쪽에서 따 먹고 그러드래.

“인제 그만 따 먹고 갑시다.”

그러고 하니까 대꾸를 안 허드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따만한 구렁이가 마누라를 여기, 이만큼(허리를 가르키며) 생켰드래. 허리 동아리까지. 그러니까 이 발만 남았드라. 그래가지고 어말갈딱딱하고 마누라도 거기서 물려서, 뱀이 물렸으니까 죽을 것 아닌가 배. 그냥 뛰어와서, 동네로 뛰어와서 헐레벌떡 하니까,

“왜 그러냐?”

고 그러드래.

“거기 이리이리 해서 머루를 따 먹다 보니까 뱀한테 마누라가 다 먹고 허리 도막까지 넘어 갔다.”고

“그 여보시오 그 머루가 거기 왜 있는 줄 아느냐고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왜 안 따 먹고 있는 줄 아느냐고? 거기 그게 있어 갖고 못 간다.” 그러드라.

10 지네 강터

홍영숙(77, 여)/농서리T 1뒤

[농서 2리 자택] 박중수, 강현모, 문상윤, 황영삼, 이성훈, 신현아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구렁이와 비슷한 동물이란 점에서 지네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강원도 이쪽에, 전설에 얽힌 애긴데,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올 때도, 그 그림 나 봤어. 그러니까 동네가 밋 동네 사는데, 1년에 하나씩 슯치녀 하나씩 바쳐야 해. [조사자 : 뱀한테요?] 그렇지. 뱀이 아니고 그건 지네야. 그런게 거기다 바쳐야 되는데, 그 제일 어려운 집의 처녀가 인제 그 해에 잡혀갈게 아니여.

이만한 두꺼비가 오더니, 맨날 밥을 해서 이렇게 푸면, 이(뚜드리며) 부뚜막 있는데 와서 이래고 앉으더라. 그래서 처녀가 밥을 푸다가 말고 이렇게 떠서, 한 주걱을 떠서 주면 고걸 먹고 가고 먹고 가고, 그런데 그 이듬해 인제 그 처녀가 그 제물로 바치게로 된 거야. 그런게 부모네들은 울고 불고 그냥,

“한 해 더 여긴해 주면 안 되느냐?”

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인자,

“차레가 돌아왔으니까 안 된다.”

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처녀가 그날 저녁에 인자 제물로 바치게 돼서 가는데, 저 아래 인자 그 동네 인자 산 있는 쪽으로 가는데, 바위가 이렇게 있더라. 인자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인자 이렇게 집을 하나 지었더라구. 방한 칸을 이렇게 지어 났어. 그래 고기 갖다가는 그 처녀를 놔두며는 아침에 관 가지고 가서 담어다가 파묻는게 인자 일이라.

그런데 그 처녀는 거기를 갔는데,(잠시 중단) 갖다가 넣어 놓았는데, 넣어놓고 문을 잠구고 갔는데 이놈의 처녀가 방 가운데 가만히 이려고 앉았으니까, 두꺼비가 어디서 왔드랴. 그 밥 준 두꺼비가. 이만하게 됐드랴. 두꺼비가 어디서 앙금앙금 기어오더니, 옆에 와서 이렇게 앉드랴. 그래서,

“니가 뭘허러 여기로 왔나? 여기 왜 왔나? 왜 왔나?”

허니까. 한 밤중 되니까, 찬 바람이 ‘훅-’ 들더니 이냥 보천장에서 뭐 이냥, “쩍쩍쩍.”

하는 소리가 나드랴. 그래서 거 올려다 보니까, 하야튼 지네가 엄청 크드랴. 그러니까 이냥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바람을 그렇게 일으키드

래. 그냥,
“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그냥 지네가 거기가 떡 붙었드랴. 그러니까 이 밑창에서 두깨비하고 지네하고 인자 겨누는 거여. 서루 겨누니까 이냥 두깡이가 그냥 그 등어리 우툴두툴한게 있잖아. 거기서 그냥 허연 그 잣같은 짐이 막 나오더니, 이놈의 지네가 딱 떨어지드랴. 떨어지더니 그냥 죽더랴.

그래가지고 두깡이가 자기 은혜를 갚았다는 거여. 밥을 자꾸 쥐 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갚어 주드랴. 그래서 동네 사람이 아침에 관을 가지고 시체 치러 가니까, 여자가 밤에 살았드랴.

“아 그 으떻게 된 사실이나?”

고 그러니까.

“이래 이래 해가지고 두깡이가 이렇게 해서 지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그러니젠 앞으로 제물 없어도 산다.”

고 그러드래. 그래가지고 제물이 없어졌다. 그 지네를 잡아가지고, 두깡이가 그 지네를 잡아가지고, 그 몰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집으로 그렇게 독을 뿜으니까 죽드래대. 그래서 그것 전설의 고향에 한 번 나오더라고.

10 농서리와 지명 유래

김하균(70대, 남)/농서리T 2앞

[농서리 논둑에서] 박종수, 강현모, 정수미, 정윤정, 황윤희 조사(1997. 5. 21.)

조사자들이 농서리에 도착하였을 때 노인정에는 3명의 할아버지들이 있었다. 그래서 조사 나온 목적을 설명하자, 조사자 일행을 이끌고 마을이 보이는 건너편 길가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다.

[조사자1 : 할아버지 여기가 왜 농서리요?] 그게 본래 농사동이야. 여기가 농서동. [조사자1 : 농서동이요?] 농서동, 옛날에는.

이 저 왜정 들오기 전에 여기가 농사동이었어. 처음에는 농사동. 농사를 짓기 농사에 농사 농자 글 사자, 농사를 지으며 글을 배운다. 농사동인데, 왜정이 출입하믄서 농사동으로서 또 바뀌었다구, 농사동으루. 그래서 지금은 농서리라고 인제 글 서짜 농사 농자.(용수골에 대한 설명 생략)

[조사자1 : 그럼요 이 동네에만 내려오는 전설 얘기 같은 건 없어요?] 그러게 여기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저쪽 마을은 방아다리라 해갖구. 저기는 제조공장이 있어서 죽조꼴이라 해갖구. 여기는 용이 승천했다 해가지고 용서꼴이여. 세 개 마을이 합동인데도, 여기는 방아다리, 여기는 죽조꼴, 여기는 용서꼴. 이 유래가 여기는 용이 승천했다 해서 용서꼴. 저기는 방아다리라 방아간이 있어서 방아, 방아다리. 대 공장이 있어서 대, 죽, 대 죽자를 써서 죽저꼴. 이게 근례는 이래 돼 있는 거야.

[청중1 : 옛날이 일루 배가 들어 왔다는 게 진짜 맞긴 맞아요, 응? 배가 들어 왔다는 그 이 용산면에?] 여그 배가 들어 왔다는 거여. 옛날에. [청중1 : 그러게!] [조사자2 : 응, 강이 있었다는.] 배가.

배가 들어 왔었다는 거야, 조수가. 지금은 즈기 변천되서 이즈- 우리도 보지 못한 거지. 옛 역사로만 저- 전해 내려오는 말씀을 들은 것 뿐이지! [청중 : 배가 드루 왔다는 기 이해가 안 가드라고] 배가 드루왔다는 거야. [청중 : 배가 드루왔다 그러더라고, 여기-이.] [고종복 : 그계,] 배가 드루와서 이거 배가 있더라 거야.

111 인강의 유래

김하균(70대, 남)/농서리T 2앞

[농서리 논독에서] 박종수, 강현모, 정수미, 정윤정, 황윤혜 조사(1997. 5. 2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지명에 대해 말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이어 계속하여 주었다.

그 이름은 모르고, 여기가 아랫 갈래. [조사자1 : 아랫 갈래요?] 아랫 갈래. [고종복 : 갈래야, 그거.] 또 신갈이 갈래 아냐. 신갈도 갈래야. 원 갈래. 또 웃갈래. 갈래가 왜 갈래냐 하르는 그 유래가 또 이 유명스럽지.

여그 한양 과거 길이었어, 요 앞이. [조사자1 : 과거길이요?] 응. [청중1 : 한양 과거길은 내가 알지.] 과거길인데, 여기가 양천, 그때는 양옥으로 그땐 부자가 살았어. 거기서 어떤 과거를, 저 경상남도에서 과거를 이 짐보따리 싸고 짚신 차고서 올라가자며는 여거서 인저 서울, 지금으로 치면 그깡패지. 옛날에는 인저 그래서 에 돈을 쥐서 엽전 냥이나 쥐가지고 그사람을 시켜서. [청중 : 큰집으로 보내는 거지. 큰 집으로.] 과거를 못 보러 가게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야. 암만 가도 밤낮 갈래여! 또 가도 갈래, 또 가도 갈래여.(웃음)

[조사자1 : 아 길이 그렇게 가래가 저가지구?] 아니! 갈래가, 여기서 갈래? 너 시켰 패 쥐, 술을 뺏여 놓고, 과거를 보러 가니까.

“너 그래도 갈래?”

(일동 웃음) 응. [조사자들 : (웃음)아, 근까 그래서 갈래라구!] 갈래가 된 거여, 유래가. 너 그래두 갈래? 그래두 과거를 보러 그냥, 또 가문, 또 가도 역시. 이 이때 지금 시국은 깡패지. 또 시켜서 못 가게, 서울 저 점수는 모자라고 제가 과거에 등급은 헬턴데, 아이 선비들이 올라 오니까 과거에 등급을 못한 데니까. 돈을 쥐서 엽전 냥이라두 쥐서 못 가게 또 한다 이거여.(개인에 대한 이야기 생략)

“너 그래두 갈래?”(웃음)

[조사자1 : 그 진짜 재밌는 데요.] [청중1 : 나 안 갈래 그른 어떻게 거요?] 그래서 한밤 시킨 가다보른 또 갈래여. 싫킨 맛구서, 선비들이! 이 여기서부터, 갈래가 신갈부터 다 풍덕천이 다 가두루 갈래여. [조사자1 : 아, 신갈부터 저 풍덕천 이쪽까지요?] 그까지 전부 가문서 갈래여.

“너 그래두 과거 보러 갈래?”

이 얘기지. 그래서 갈래가 유래된 거지.(웃음) 방해를 하고 그걸 못 가게 지연을 시켜서 저희가 벼슬을 낚, 으 벼슬을 할래니까 못 가게 하고 했는데, 저- 경상남도 선비들이 올라와서 하남에서 올라와가지고 여서부텨, 갈래에서 매만 맞고 여기 좌천해 내려가구 그랬어.

12 김혁 장군의 일화

김하균(70대, 남)/농서리T 2와

[농서리 논둑에서] 박종수, 강현모, 정수미, 정운정, 황윤혜 조사(1997. 5. 2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지명에 대해 반복하여 간략하게 구술하였다. 그래서 효자나 내려온 이야기를 부탁하자 고종복 할아버지가 이곳의 장군 이야기를 꺼내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그전에 우리도 어려서 열세 살 먹어서 그 양반 벼슬을 떠서, 야 이거 이쁘길래 벼슬 저 금 뭐야 저 벼슬이 달렸걸래, 미정지를 뒤희면 우리 한문을 알아 뭘 알아. 한 장 걸러 미정지만 나오고 찢어서 제기 만들어 차구 해.

그 양반이 왜정에 중국으로 망명을 땡기다가, 그 양반이 거 학소지? 학소 그 양반이 조선 독립군 운동가지. 그다가 왜 감옥소에 들어가서, 왜 밤에 불침 뇌서 한국 사람인게 밝혀져서, 중국으로 도망 땡기다가. [조사자1 : 불침이여?] 불침을 밤에 뇌서 이 한국 사람인데 불침을 이렇게 별안간, “앗 따거워.”

했지. 그래 한국 사람인게 들킨 거지. 게 낮에는 중국말만 하고 땡기니깐 유명한 분이지. [조사자1 : 그니까 밤에 몰래 잘 때 뇌서 한국 사람인지 아닌질 밝혀내구.] 그게 인제 들킨거지. 그 감옥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몇 해 살지도 못하시고, 그 갑옷을 내가 봤어. 그런 걸 갑옷을 잘 두었씨며는 그 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두 뭐 알어? 어려서 열댓 살 먹을 적에, 거 한 장 걸러 한 장씩, 책장에 있는 미정지만 찢어서 제기만 찰 줄 알았

지.

그예 지금두 거 후회만 하지, 제기만 차서 내부렀다구.(웃음) 그 갑옷에 그냥 별이 저 이거 누런 별이 달렸는데, 하이 재밌다구 뜯어서 가지구 논 거만 생각 나지. 그 유래를 모르지. 이 그 양반두 여기 김혁 장군이, 여기 그 지금 저 다 별장자리지.(잡음이 심하게 남) 거기에 서 있었지. 아 우린 아는 게 그거 밖에 몰러. 거 정리를 해 봐. 그이 얘기나 해 줬으니.

13 고시래 유래

유원수(55, 남)/농서리T 2뒤

[농서리 논둑에서] 박종수, 강현모, 정수미, 정윤정, 황윤혜 조사(1997. 5. 2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풍수에 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도선의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저 옛날 유래라고 그러지. 우리 나라의 지관이 이 팔도강산에 이도선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도선이. [조사자1 : 예. 도선.] [조사자2 : 예, 대충.]

도선이라고 야기 들었지. 도선이. 그러니까 지관이 명지관이야, 그 사람이 그러잖아. 이거 저- 지리를 잘 안다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집터나 묘자리나 잘 아는데.

그 양반이, 우리 나라 고시래가 나온 그 유래가 그 사람 때문에 나오 거야. 도선이 때문에 나온 거야. 이름이 도선이거든. 그건 들었지. 도선이 어머니가 고씨야. 거 얘기 들어 알지?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조사자2 : 아니. 저] [조사자1 : 얘기해 주세요.]

도선이 어머니가 고씨인데 그냥 저 남의 거 좋은 일 해기 위해서 그 부모 상 당하면 다 집터를 잡아 주고, 뭐 살 집터를 잡아주고, 또 묘자리 잡아주고 그랬는데. 그런 좋은 일을 다 당연히 하다 보니까.

막상 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묘를 쓸러니까 쓸 자리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자기 집을 주변을 이렇게 싸악 훑어보니까, 해필이면 부엌 바닥이 묘자리로 명당자리라네, 부엌 바닥이. 부엌 바닥. 지금으로 하면 싱크대지. 지금마냥 주방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걸 파고 거기다가 모셨는데, 모신 지 삼일 만에 밤에 꿈에, 인제 선몽이라고 그러지.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미친 녀석 도선아! 너 이놈아! 너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신 어머니를 왜 너의 부엌 바닥에 묻었냐? 미친 놈이라.”

고 그러더라는 거야. 너 전라도 저- 징개맹개 김제뜰이라고 그러지. 그 저 벌판 아니야, 거기는 곡창지대라고 그러지.

“거기 가면 큰 넓은 들판 가운데 쪼끄만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갔다 모시면 너희 어머니 제사 지낼 필요도 없다. 왜 거기다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임마! 미친 놈아! 부엌 바닥에다가 묻냐?”

고 그러더라는 거야. 아 가만히 꿈을 깨서 보니까, 자다가 깨다 보니 꿈이더라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잘못 했구나!”

그래, 그 밤에 자기 어머니 시신을 다시 파가지고 전라도로 내려갔다는 거야. 내려가서 거기다가 모시고 나니까, 그 일대가 전부 가무는 거야. 이상하게. 이게 모, 모 심을 때가 되면서 비가 와야 되는데, 징개맹개 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저 그게 사투리야. 징개맹개 뜰이라고 그러는게, 그게. [조사자1 : 징개맹개 너른 들.] 어- 근게 저 그 주위에 비가 안 오더라는 거야. 묘를 쓰고 나서. 그러니까,

“아무개 도선 어머니가 묘를 쓰고 나서 땅이 저이기 비가 안 온다.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할 꺼 아니야. 근데 인제 그 주변의 그 내용을 아는 거야.

“그 참 좋은 명당 자리를 잡아주고, 집터 잡아 주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기 썼는데 참 불쌍한 노인네라.”

고. 하면서 들밥을, 우리로 말하면 농가에 들밥이 나옴 먹잖아, 인제. 들밥을 내다 먹다가 인제 그 어머니가, 도선이 어머니가 고쨌데, [조사자1 : 아 고시래.] 그래서 밥을 한 숟갈 떠서, 먼저 먹기 전에,

“고씨네!”

하면서 던진 게 그게 고시래의 유래가 된 거거든. ‘고씨네.’ 승이 고씨기 때
문에,

“고씨네! 한 술 잡수소서.”

하고 먼저 준 거-, 이건 예의를 갖춘다는 거지. 즉 말하자면, 그래 준 것이
인자 그러다 보니까 그날 별안간에 그냥 구름이 먹구름이 딱 몰려 오더니,
그냥 소나기가 막 와서 그- 그 주변이 전부 물이 너덕해진 거지. 물이 좀-
말하자면, 아 그러니깐 풍년이 들은 거여.

그게 소문이 나가자곤, 그게 전국 각지 충청도 일대 전부 다 고씨래라고
해서, 고씨네가 아니라 고시래여. 그게 원래. 고씨네편에 인제 말이 조금 바
뀌다 보니까 고시래로 바뀐거거든, 그게 인제. 그래서 도선의 어머니가 그
렇게 되서 그런 고시래란 유래가 나왔다는 얘기고.

14 도선과 삼배울

유원수(55, 남)/농서리T 2위

[농서리 논둑에서] 박종수, 강현모, 정수미, 정윤정, 황윤혜 조사(1997. 5. 21.)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같은 도선이란 인물과 풍수지리란 점에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주었다.

거 내가 사는 고향에는 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거 도선이라는 사람
이 인제 그 지나 가다가 절을 세 번 했다는 거여. 거- 용인군 이동면 요 삼
배울. 삼배울이여 거기가. 삼배울. 석 삼자 절 배짜 울타리 울짜 이렇게 써
놔는데.

왜 이거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면, 도선이 지나 가다가 절을 세 번 하자
삼배울이라 이렇게 울타리를 이름을 진거야 했는데. 어- 그 당시에 그 지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구 좋구 삼태인, 삼태 한가지로 생기고 좋아

서 했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구 나서부터는 저 거 임진, 일본놈들이 들어와서 산처를 전부 끊었다고 그러지. 뭐 보면 정상에 쇠말뚝 박았다 이런 얘기 들리잖아. 그래가지구서 그때부터 그 젊은 사람이 자꾸 죽어 나가고, 인저 그 말하자면 청춘 과부들이 동네에 많이 생기고 인저 이런 현상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서 그 동네 이름이, 동네 삼혈이라는게 산봉우리가 세 개가 이렇게 있는 데서, 첫혈이 내려와서 동네를 감싸서 이렇게 내려와서, 삼궁산의 삼태가 지나가서 삼배울, 응 석 삼자 절 배자 써서 글짜 그대로 만들어 논거야. 예날 사람들이 영리한 거야. 그러고 보면.

근데 그 삼봉산 뒤에는 시궁산이라고 했어. 시궁산. [조사자] : 시궁산이요? 시궁산. 시궁산은 옛날에 이순신 장군 충청도에서 태어났잖아. 놀이여 놀이를, 여기 와서. 시궁산 있는 데서 와서 놀이를 한거야. 그것 시궁산에서. 그래 인제 유명한 산이다 이거지.

그래서 인제 그 도선이가 그런 걸 다 보고 이름을 저가지고, 인저 삼배울이라 이름을 졌다 이거지. 그래서 일본놈들이 산혈을, 혈을 끊어가지고, 혈을 끊어가지고 그 동네에 젊은 사람이 자꾸 죽고, 따라서 과부들이 많이 생기고 인저 그랬더라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몇 백 년 인저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게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러는거지. 이건 실지여 그건. 산 혈이 끊은 걸 우리가 봤으니, 고개 넘어서 나무하러 다니구 그랬으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거 사실이야. 지방에 가서 직접 가서 들어야 재미가 더 있고 그러지.(웃음)

15 용수굴의 유래

김학고(79, 남)/농서리T 3앞

[농서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정수미, 정윤정, 황윤혜 조사(1997. 5. 21.)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이때 마을에서 나가 가장 많다는 제보자를 소개하여 주어서 맥으로 찾아갔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대부분 사실적인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우선 이곳의 지명에 대해 말씀한 것인데 앞에서 채록한 것과 대동소이하였다.

[조사자 : 뭐 이쪽으로 오니까, 용 용수리를 뭐 용이 지나가는 형상이라고, 산이?] 영. 저 산이, 뒷 저 뒤산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용에 머리라는 거지. 그래 용수풀이란 게, 용수, 용에 머리라는 거예요, 그게. [청중 : 망했다는 전설.] [조사자 : 찢었다고요?] 응. 다 찢러 먹었지.(현재의 상황 설명은 생략)

그래 여기가 용수풀인데, 그래서 그 전설에 내려오는 말을 들으면, 으른 말씀이 그래. 용의 허리가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여기가 용의 주둥이다, 용의 머리이다 그래서 용수풀 되었는데. 그래 뭐 그런 얘기나 대충 알거나 허지 뭐. 어떻게 된 내력도 몰르고 전설에 크게 된 인물이 읊어요, 여기, 그전부터.

16 도깨비불

김학고(79, 남)/농서리T 3앞

[농서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정수미, 정윤정, 황윤혜 조사(1997. 5. 2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저기 할아버지들 얘기를 들으니깐요 도깨비불이 뭐 봤다.] 아 이 그건 거야. 옛날에 도깨비불 현지에 나도 봤는데 뭐. [조사자 : 요즘에도 보셨어요?] 아니. 옛날에 그런게 몇 십 년 전이지. 날이 우측허가니 그러며는 흐리거나 또는 서늘허거나 그러면 불이 왔다갔다 그래.

“쭈!”

고 저기 가서 확 켜졌다 또 꺼지고. 그래 들어올 적에 보면 환하게 들어와.

그런데 여기 쫘 오면 확 꺼져 버리고 도깨불은, [조사자 : 들어올 때 보면 환하다가 가까이 오면 턱 꺼진다고요?] 응.

이 넘어, 이 넘어 저 아래 집이 있는데, 거기 회관이었거든. 농서리 회관. 150호나 되었는데, 거기 와서 영락없이 꺼지드라고. 요위 저 넘어, 저 거너만 해두, 저 거너만 해두 그 연막간이 하나 크게 있었는데, [조사자 : 연막간요?] 연막간. 이 인자 연자방아 찼는 것. [조사자 : 아하 연자방아요?] 연자방아간이 있는데, 거기도 그냥 이렇게 ‘쭈’ 와서 거기 저기 환야. 연막간 여기서부터 환하게 들여다보고 그랬다고, 고 불이. 그런데,

“쭈루룩!”

다 그래. 그런데 파란불이지 뭐. 불도 빨강지도 안 하. [조사자 : 얼마 한데요?] 얼마한가 아나. 불만 봤지.(웃음)

그런데 저기 얘기 들으니가 도깨비가 그게 생기는 원인이, 이 그전에 도리깨질 허는 그 도리막작이라는 도리깨질이 있잖아. 그런데 인저 손같은 데가 깨지거나 피가 인자 거기 묻을 거 아니여. 나무에 가서. 그게 인제 그 조화를 부린다드만 그려.

그래 싸래비 같은 것 일해다가 손 터지고 그럴 적에 거기다가 피 떨어면 그것 내버리며는 그게 조화를 부리는 거여, 그게. 으른들 말씀에. 그래 장력이 신 사람은,

“이게 뭐 와서 이러느냐고 허면, 이놈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러느냐?” 고 붙잡아서 거기시길 허면 낭구에다 찡챙 때어 놓는데, 그 이튿날 가 보면 도리깨 장치 아니면 빗자루대. 그런게 그 놈이었다는 거여. 그 놈이 놓고서 부렸다는 거여. 서기를 했다는 거여.

불이 빨갛치도 않고 파랑지. 빨간, 파란 불이, ‘쭈루룩’ 갔다 ‘쭈루룩’ 오고 그러지. 뒤까지 오지. [조사자 : 그러고 보니까 동네 분이 다 보신 것 같네요?] 그럼. 그것 도깨비불은 웬만한 사람, 한 60세 이상 사람은, 여기서 살던 사람은.

3) 민요

I 논맬 때 부르는 소리

김학고(82, 남)/농서리T 4왕

[농서 1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반의옥, 최한호, 이해영 조사(1999. 5. 16.)

조사자들이 농서리 노인정에 도착하였을 때는 6명의 할아버지들이 담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그곳의 어른들은 농서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다. 특히 농서 1리가 2리에 비해 더욱더 그러했다. 그곳의 어른들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농요 대회나 두레 행사에 참여 했기 때문에 그들 마을의 풍습을 사랑하고 아끼는 면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질문에 대답도 잘 해 주시고 주윗분들도 함께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녹음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노래는 정월에서 삼월까지의 세시풍속을 듣다가 제보자가 생각이 났는지 논맬 때 노래를 말씀하여 불러줄 것을 청하여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인제 에 논 맬적에 논 매는 소리가 있고, 또 인제 손 손으로만 하는, 인제 그 호미 가지고 하는 노래 손으로만 하는 노래 인제 그 두 가지가 있고 [조사자 : 보통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부르시는 건가요?] 그렇지 뭐. 그러면 뭐 그 노래하라고? 이게 인제 일을 하다 힘이 들고 그러면은,

에~ 힘들 들구 날도 덥고한데
우리 소리나 한 번 해보세~
에~ 에

그럼 이제 후렴을 받아요. 인제 저 이 창에서 인제 선소리꾼이, 그러면 후렴을 받아.

에~ 에

답하는 거야. 아 준비가 됐다 그 소리야. 그럼,
(후렴) 에~ 에~ 에이리~ 방오~

그럼 인제 저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해 보셔.(주위에 두 분의 할아버지들

에게 같이 하자고 말함)

에이~ 에이리~ 방오~ 노세
 방오하는 우리 농근
 이~ 이~ 에이리 방오~
 힘도 들고 날도 더우니
 에이~ 에이리~ 방오~
 노세, 노오라 젊어서 놀아
 에이~ 에이리~ 방오~
 일락 서산에 해 떨어지니
 에이~ 에이리~ 방오
 노세 노오라 젊어만 놀아
 에이~ 에이리~ 방~ 오
 늙어지면 못 노오나니~
 에이~ 에~이~리 방~오

아이구. [조사자 : 후렴구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 방오 소리, 논
 매는 방오 소리. 방오 논매는 소리지 뭐여. 이렇게 매면서 하는 거여.(양손
 으로 흉내를 내며)

② 들레 소리(만물할 때)

김학고(82, 남)/농서리T 5앞

[농서 1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반의옥, 최한호, 이혜영 조사(1999. 5. 16.)

앞의 노래에 이어서 계속하여 불러주신 노래이다.

논에 풀매는 소리. 그리고 인제. [조사자 : 정말 신나시겠어요?] 아. 그

렇지. 인제 그때는 그냥 춤도 추고 술도 먹고 하는 거지. 그 인제 그 다음에 논 흙친다고 그래. 인제 풀 뽑는 거. 풀 뽑거든. 인제 논 이 호미로다 한번 뒤집어 봤으면은 이 뒤집은 새로 또 풀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또 없애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제 그걸 뽑아. 손으로만 뽑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뽑고 [조사자 : 다 뒤집어 놓고 뿌리 뽑히니까 쫓어내는 거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열흘이고 보름 있다가. 이제 그때 소리는 또 둘레 소리야. [조사자 : 아 소리가 또 틀린 거예요?] 어 틀려. 손으로만 없애는 거지, 손으로만. 허허허. (할아버지가 시작하자 옆에 계신 두 분의 할아버지들도 같이 시작하심.)

오~ 오~ 오아~ 들~레~야
 이~ ~ 에이리~ 들~ 레
 요~ ~ 아~ ~ 들~ 레~ 야~
 예~ 이~ 리~ 들~ 레~ 요

(선창) 인제 논떼기 거전 다 했으면

(후렴) 들~ 레~ 여~ 들~ 레~ 여~

인제 그렇게 하다가 원두리, 인제 이렇게 원두리가 돼. 인제 원두리가 뭐냐면 이 둘레 싸요. 둘러서 이 인제 일꾼들이 둘러 싸. 작업 끝난 거지. 그러면,

우여라~(크게 외치듯이 소리를 지른다.)

그러지.

우야~! (옆의 할아버지가 거들 듯이 소리지른다.)

[조사자 : 우여라?] 우여라. 그러지 우겨라. 그래. 인제 그러면 끝나는 거여. 끝나고.

9. 서천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한정아, 조명옥 조사(1997. 5. 11.)

서천리는 신갈리로부터 남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신갈저수지 서쪽에 위치한다. 이 마을은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가 들어서면서 교통이 발달되었다.

서천리는 용인군 기곡면 지역에 속하였던 곳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외서천 내서천을 합하여 서천리라고 하여 기흥면에 편입되었다. 서천리는 서그내 또는 서천이라고 하는데, 이 서그내는 호미 서를 쓰는 서그내로 호미나 쟁기를 뜻하는 말이 농업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으로 생각되는데, 이 서그내가 소리나는 대로 서(書)와 내 천(川)자의 한자를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천리를 이루는 자연마을로는 내서천, 외서천, 상서천, 불당골, 가마골 등이 있는데, 내서천, 외서천, 상서천은 마을의 위치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가마골은 서그내 동쪽에 있는 마을로 그릇을 굽던 가마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불당골은 절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1)설화

1 서천리의 유래

제보자(70대, 여)/서천리 T 1앞
 [서천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정아, 조영옥 조사(1997. 5. 11.)

조사자들이 서천리에 도착하여 조사하려고 생각하니 막막하였다. 도시화된 마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정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채록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집에서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딴 저기는 전설이 못 들었는데, 그러드라고 으른들. 옛날이는, 옛날이는 여기 쌀을 많이 해서 쌓서 둘 데가 읍어가지고 땅에다 묻어 났대. 쌀 다 썩엇대. 쌀이 하두 많아가지고. 그래서 썩은내대. 원 썩은내인데 서그내라고 짓지, 이름을.

[조사자 : 썩그낸데 서그내가 다시 서천리로 바뀐거예요?] 영. 그렇지. 썩은내래요. 썩은내. 그런데 서천리 바꿨지. [조사자 : 그럼 여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쌀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요.

옛날이는 저 가마골, 가마골 부자라고 이름도 났엇데요. 그래서 가막골, [청취불능] 저 경희대 짓은데, 거기. [조사자 : 예 경희대요?] 저기는 가막골 부자라고 이름도 나서 철공시공도 하고 지금은.

[조사자 : 그러면 이쪽은 농사가 잘 돼갖고,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부자가 돼서.] 그렇지. 부자가 여기가 더 많이 있었다가. [조사자 : 그럼 가막골같은 디는 특히 더 그렇다는 거네요?] 그렇지.

2 가막골의 유래

한종순(61, 여)/서천리T 1앞

[서천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정아, 조영옥 조사(1997. 5.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점인 아주머니에게 이곳 마을에서 지내는 마을제사인 성황당에 관해 들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보자에게 가막골에 대해 묻자 구술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 : 여기가 가막골이 왜 가막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뭐 가막골이라고 한 것은 옛날에 뭐 여러 가지로 말한, 말이 있는데 몰라. 가막골이랑게. [조사자들 : 그래도 한 가지라도요 아시는 것요?] (웃음)거기 저, 그러니깐 그전에 대장간 알지요 대장간. 이렇게 쇠 달궜서 뚜드리는 것. 그 대장간도 있었고.

그러고 인저 그것 굽는 가마가 골짜구니마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저, [조사자1 : 그러면 대장간 마을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 그 가마. [조사자1 : 그 가마 때문에 가마골이라 했, 그 가마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인제 뭐 인저 그릇 굽고, 뭐 쇠붙이 인저 달구고 이러느냐고. [청취불능] 응. 그런게 있어서 그런 거.

3 임생골의 유래

김종원(75, 남)/서천리T 1앞

[서천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정아, 조영옥 조사(1997. 5.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장을 10년 동안 하였다는 제보자를 맥으로 찾아갔다. 조사자가 지명유래에 대해 유도하는 도중에 체록한 것이다.

여기가, 이 동네 종손들인데, 여기를 갖다가 이 골짜구니 이름이 임생골이라고 그러거든. [조사자 : 임생골요?] 예, 임생골. 임생골.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입자가 아 땃길 입자 입가, 입씨가 있어. 땃길 입자. [조사자 : 땃길 입자요?] 잉. 땃길 입자가 뭐냐면 왜 책임감, [조사자 : 책임감요?] 책임 진다는 입자, 그게 땃길 입자거든.

그래서 예전에 궁녀가 하나가 있었어요. 입씨. 그 여자 성이 입씨인데, 궁녀였어요. 궁녀. 그래서 여기서 죽어서, 거기서 돌아가시고선 죽어서 거기다 갖다 파묻었어요, 그 궁녀를. 거기가 입생골. 그래서 그 궁녀의 그 성을 따서 입생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조사자 : 여기다 묻었으면, 여기 무덤도 있겠네요?] 네. 그것 꽤 오랜 얘기인데, 여 여기를 파 보았더니, 거기 혹시 무슨 유물이나 들었을까 하고, 궁녀니까. 그것 파보았대, 동네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몇 분이 봤는데, 아무 것도 뾰도 안 나오고 숯만 나왔대, 숯. [조사자 : 숯요?] 숯은 그전에 사람 죽으면 [칭취불능] 하느라고 숯을 묻었다고 [조사자2 : 밑에다 숯을 밑에 깔고 거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숯을 옆에다 묻었어.

그래 숯만 나오고 아무 것도 없었어. 그래서 거기가 입생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4 궁말의 유래

김종원(75, 남)/서천리T 1앞

[서천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정아, 조영옥 조사(1997. 5.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 동네 이름도, 동네 이름도 그 궁자를 땃어. 여기가 궁촌이여, 궁촌. 궁말. [조사자 : 궁촌요?] 응. 마을 촌자 그런게 궁말이라고 한다고. 여기를 서천리에서 여기를 이를 적에 궁말.

그래 여기가 왜 궁말이나? 그런게 그 궁녀 하나에 얽힌 전설이 그렇게 큰 거지. 옛날에는 궁녀도 큰 것 아니여. 그러니까 거기가 입씨가 성장했기 때문에 입생골. 여기 이 동네 이름을 궁말, 궁촌이라고 했어. 궁촌.

[조사자2 : 아니, 서천리에서 여기를 부를 적에 그렇게 부르다고요?] 영, 궁말.

5 고래뿌리의 유래

김종원(75, 남)/서천리T 1앞

[서천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정아, 조영옥 조사(1997. 5.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이곳의 지명에 대해 청중과 함께 제시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저, 이 동네 끝에 내려가면, 저 고래뿌리라고 고래뿌리. [조사자 : 고래풀요?] 고래뿌리. 고래뿌리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그러니깐 여기에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조사자 : 여까지요?] 예. [청중 : 고래가 살았다는대.]

그래서 고래가 거기 들어와서 나가질 못하고 죽었어요. 큰 고래가. 그래서 거길 갖다가 고래뿌리라고 그러는 거여. 그런, [조사자 : 이쪽 동네 끝이 어느 쪽이에요?]

끝은, 요 아래 내려가면 거긴 뭐라고 그러느고 허니 와곡이라고 해. 왜골. 여기서 불를 적에는 왜골, 왜골 그렇게 불르는데. 거기가 와골여 와곡. [청중 : 지금들은 사람들이 그냥 왜골.] 왜골이라고 그러지. 왜골, 왜골. 그런데 거기가 그걸 한자로 쓰며는 와곡이라고, 와곡이 한문으로. [조사자 : 거기가 전해 내려오는 몇 가지?]

그 와곡에 고래뿌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걸 왜 고래뿌리라고 했느냐면, 전에 그 물이 들어왔을 적에 고래가 거길 들어와 가지고 못 나가고 거기서 고래가 죽었어, 크게. 그래서 거길 갖다가 고래부리라고 그래.

여 백

10. 하갈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한정아, 최지훈, 김민석, 남경균, 김홍희, 이태홍, 김선호, 최판암
조사(1996. 5. 17., 1997. 5. 24)

하갈리는 신갈리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도시로 바뀌어 가는 중간 단계에 있어 옛 건물들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신식 건물이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따라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이다. 하갈리는 특별한 것은 없고, 신갈저수지의 서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외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적은 곳이다. 그러나 저수지에 관한 전설 같은 것은 들을 수 없었다.

하갈리는 신갈의 아랫쪽에 위치하고 있어 아래갈래 또는 하갈천이라고 하여 용인군 기곡면에 속하였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한의동의 일부를 합하여 하갈리라고 칭하여 기흥면에 편입되었다.

이 하갈리의 자연마을로는 하갈과 가부동이 있다. 하갈은 저수지 북쪽 끝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갈천의 아래에 위치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가부동은 옛날에 술을 만들던 곳이라고 하여 가마골 또는 가마굴이라고 하다가 한자어로 가부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2) 설화

①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기**

최복동(84, 남)/하갈리T 1앞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정아, 최지훈, 김민석, 남경균 조사(1996. 5. 17)

제보자는 이곳이 고향으로 몇 대째 계속하여 살아온 분이다. 현재 다른 친구들은 다 죽고 혼자만 살아있다고 한탄 반 자부심 반으로 말하였다. 나이에 비하여 정정하였으며, 이야기도 조리있게 구술하여 주었다.

이는대로 대답을 할 겨. 하룻밤을 자고 가도 만리성을 쌓았던 말이 그 으뜨게 된 말이야. 하루밤을 자고 가도 만리성을 싸랬다 이거여. 그 알우. 그 의미를 알아. [조사자 : 어려운 데요?] 몰라요. 이 그건 우리들 서로 친 구간에도,

“아 님아! 하루 밤을 자고, 자고 가도 만, 만리성을 싸랬어.”

그 소리 했어. 그래서 인제 하루밤을 자고 가서 만리성을 쌓았다는 얘기여. 과객이 말이지, 옛날에 과객이 가다가, 과객이라는게 저 큼직한 부자집 사랑방으로 돌아 댕기며 은어 먹는 거이여. 그게 과객이요. 응 글자나 좀 읽지.

과객이 참 한 군데, 고전(고개)에를 넘어가야 할텐데, 날이 저문데. 가만히 보니깐, 사랑이 사랑방이 하나, 하나 있는데, 사랑방이 있거든. 그래 들어가서 이제 주인장을 찾으니까. 여자가 나와요. 그래,

“여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루 저녁, 하루 저녁 좀 쉬고 갈라고 들어 왔다.”

고 하니까.

“그럼, 사랑방으로 들어가시유.”

응, 그래 이제 사랑방으로 들어갔지. 들어가 앉았는데, 아이 저녁상을 내오거든, 여자가. 그러니 이제 그때서 물어볼 꺼 아니여.

“주인, 바깥 주인은 어디 가고서, 응 어디 갔느냐?” 고.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내 얘기를 잘 해 줄테니 그런 줄 아시유?”
그리고 나가거든. 그래 이제 빈 상을 가지러 들어왔단 말이지, 다 먹었음
께. 댁에 남편은 만리성을 쌓으러 갔다 그거여.

“만리성을 쌓으러 갔는데 석 달이 됐다.”

그거여. 석 달이 그러믄 옷이 남루하지 뭐여. 그러니깐.

“내 노자를 후히 주고 갔다 오면 사례금을 후히 줄테니, 그 내 남편 옷
을 좀 남, 그 석 달이 됐으니, 옷이 다 떨어졌을테니 내 옷을 한 벌 싸 줄
테니 그걸 좀 갖다 주고 오시오”

말이여. 아 그 돌아다니는 사람이 노자 후히 줘, 또 이거 갔다 오면 사례금
을 상당히 줘. 아 그런 별이가 어땀어.

“아 그러라.”

구. 아 이 여자가 들어가서 편질 써서 이 옷갈피에 넣어서 해서 보따리 쌓
아 찻단 말이야. 그래 인제 이 사람이 노자를 후히 줬으니까, 인자 그걸 가
지고 그 만리성을 쌓는 데를 갔는디, 가기만 하면 나오질 못 한다는 거이
야, 거기야. 이 만리성이니까. 그 진시황이 쌓은 거이여, 진시황.

가서 인제 물어 물어 거기 위병만 노한테 찾아가니깐, 아 참 찾았던 말이
여. 그래 찾아가지구서,

“그 집에서 옷을 보내서 내 가지고 왔으니 옷을 입으라.”

구 그니깐. 그 사람이,

“여긴 잠시 비껴나질 못하니 말이여. 내 대신 일을 하셔 말이여. 내 옷을
입고 올 켜이니.”

“아! 그래라.”

구. 아 옷 빨리 주니깐 인제 가져가고, 그 사람이 대신 가서 일을 한단 말
이여, 이제. 아 와서 옷을 입을라고 에 흘쳐니깐 편지가 들었거든. 그 뜯어
가지고 보니깐.

“이 편지 본, 본 즉시로 뒤도 돌아다 보지 말고 집으로 오시오 말이여,
빨리.” (잠깐 옷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볼 꺼 뭐 있어. 옷 입고서 하두 그냥 집으로 들고
뛰는 거지. 아 그러믄 거기서 붙들려서 꼭 일하는 것이. 아 그래서 하루밤

자고도 만리성을 그래서 쌓았다는 거. 하룻밤에 만리성을 쌓았다는 거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그것 죽어야 나오지 나오것어.(웃음) [조사자 : 속았네요?] 그래 그것이 그렇게 해서.

2 함흥차사

최복동(84, 남)/하갈리T 1앞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정아, 최지훈, 김민석, 남경균 조사(1996. 5. 17)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식자가 우환이란 것에 대해 말한 후에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리고 아이고 뭐여. 정신이 오락해서 뭐 함흥차사, 함흥차사라는 게 뭘 지 이슈? 함흥차사. [조사자 :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이 함흥차사라는 게 한 번 가면 오지 못 오는 거. 응. [조사자 : 왜요? 가면 왜 못 와요. 오면 되지.] 그게 함흥차사라는 거.

그래 옛날에 말이지. 임금의 아들이 참 저희 아버지보다 똑똑하거든. 근데 이 무술하는 거 보면 즈 아버지가 하는 거도 좀 틀리거든. 그런게 즈 아버지를 내쫓았던 말이며. 내쫓으고 자기가 임금으로 들어 앉았던 말이며.

그러니까 즈그 아버지가 골이 나니깐 함흥으로 내뺐어. 군사를 데리고 함흥으로 갔단 말이며. 아 그래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깐, 아 이거 큰 아주 불상자거든. 응 부모한테 아주, 아주 불효를 했거든. 그래 이 신하를 보냈단 말이야.

“가 모셔 오라.”

고. 가기만 하면 안 와요. 가기만 하면 죽여. 아 그래 몇 번을 신하를 보내도 오지 않는다 말이며, 그냥 죽여서. 그래 이제 한 신하가 말이며.

“내가 가서 모셔 온다.”고

“아, 그럼 그러라.”

고. 그래 사람이 그 의견이 많아야지. 새끼 든 암소를 끌고 갔단 말이며.

갓 낳은 거를. 갖다가 이제 바깥에다 매고 들어갔지. 아 이놈의 소가 배깅에서 땡땡땡땡 돌고.

“음매!”

소리하고 야단이거든. 아 그래서(웃음) 왕이,

“아 어째, 소가 저렇게 소리를 치고 울고 야단이나?” 고.

“네! 새끼를 떼 놓을 것 같으면 그 새끼를 찾느라고 그러합니다.”

그러더니,

“하, 내가 짐승만도 못하구나! 응 짐승도 죄 새끼를 그 떼 놓고 와서 그렇게 찾느라고 소리를 뽉뽉 질러는데, 아 이거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

고 그래서 그럼, 그, 그 사람이 가서 모셔왔다는 거. 그래 이제 궁궐을 잘 짓고 아버지를 모셨다는 거.

3] 두지대감(사도세자)

최복동(84, 남)/하갈리T 1왕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정아, 최지훈, 김민석, 남경균 조사(1996. 5. 17)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리고 요기 수원 능마루, 수원 능을 알시테지들. 그 용두사 절 있고 그 알지요? [조사자 : 예 예!] 응. 그래 두지(뒤주) 대감이 있었요. 두지 대감. [조사자 : 두지 대감요?] 한 분은. 그 아들은 참 임금해서 그 저, 그 옆편쪽으로 갖다 썼고. 이편 쪽에 쓴 건 두지 대감이야.

으째 두지 대감이냐든, 그 아버지를 그 아들 그 아마 장남이었던지, 아 그 왕노릇을 했던지, 즈 아버지가 내놔야지, 당채. 아 그래 동구바깥에 나가서 냅다, 활로다 냅다 응 드리 썼단 말이야. 대궐을. 대궐에다가. 아 상등에다가. ‘딱’하고 은어 맞아가지고, 그래 이제 활처럼 부르르르 떨거든. 아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우편 일이나?”

고 하니깐.

“아이 활이 그 대청에 쫓혔습니다.”

“그럼 빼오라.”

고 아 빼오다 보니까, 빼가지고 가 보니까 제 아들 꺼여. 응. 그래서 이게 역적으로 모는 거지, 말하자면 아들을. 그래 이걸 잡아다가 두지를 찌가지고 게다가 넣어가지고서 말이지 산 사람을, 일 주일을. 지금 여름 삼복인데, 풀땀에다 물어 두었던 말이야, 일 주일을.

그래 일 주일만에 가서 끄내 보니까 죽었어. 어느 날에 죽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 아들이 또 효자라. 지시를 일 주일 두고서 지낸 대요. 일 주일을 두고 어느 날 죽은 줄 몰라서. [조사자 : 제사를 일 주일.] 응.

그 아들이 효잔데 인제, 능처럼 여기 수원 갔다가 잡아서. 그 아들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인제, 아들은 이제 역적으로 몰렸지만 인제 손자가 있으니깐, 죽을 때가 된간 손자한테 그걸 물려 주는데 말이야.

“내게는 충신이, 네게는 역적이라.”

고 그랬다는 거. ‘누그 아버지는 역적이고, 난 충신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두지대감, 그 아드님이 참 효자라.

어찌 됐는지, 그 서울서 이 수원을 저녁마다 저 산소를 땡겨 왔고, 땡겨 간디야. 응 땡겨 가는데, 그 지주젯(지지대) 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개가 아주 지루하다구. 지루하다고 그래 지주젯 고개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여.

거기 지주젯 고개 보면, 거기 그 비, 비가 있어요 계곡에 비각이 있었요, 거기에. 그래서 인제 그 인제 수원 갔다가 인자 그 아버지를 인젠 암만 역적이래도 참, 참 나라 장사로다가 참 묘를 쓰고 그랬는데, 그래 인제 소나무를 인제 전부 심는 거지 인제 뭐여. 그냥 저 나라에서 그 잡아가지고 내려, 내려오면서 그 산 내력을 잡아가지고 와서 수원에서 떡 잡는데, 그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전부 소나무를 길가생이나 마나 그냥 응, 전이나 마나

그냥 다 심는 거지. 심는데, 그때 문득 살기가 어려워서 송귀절(소나무 껍데기), 송귀절 아시오. 송귀를 해 먹는 거. [조사자 : 송귀?] 송귀도 몰를 거여. 소나무 껍질이 이렇게 비껴서 먹는 게 있어. [조사자 : 그걸 먹어요?] 응. 그게 송귀라는 거여.

송귀 꺾어, 꺾어 먹지 말라고 콩을 볶아서 주머니(주머니)로 하나씩 해서 나무마다 매달았다는 게요. 그래서 그 나무를 길렀는데, 나무가 이 따위 아름다리 서지. 그런게 왜정 때 많이 베어 내고, 그래 해방이 되고 몽땅 그 죄 베어 냈어요. 그 그래 시방 환해. 그냥 아주.

그런게 그 절, 그 나라에서 지어준 거. 용두사 절이라고. 절이 크지. 그래 그게 두지 대감이라는 게여, 그래. 그 아들이 아주 그러매도 효자라, 나라 장사로 지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여. 그런게 재기는 죽어서 저편쪽에 갔다가 쓰고.

4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최복동(84, 남)/하갈리T 1앞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한정아, 최지훈, 김민석, 남경균 조사(1996. 5. 17)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아이구 또 뭐, 음어 들은 것도 많은데 정신이 오락가락해서’라고 한 뒤에 자신의 내력에 대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50세에 천식이 걸려 지금까지 고생한다며, 그래도 할머니와 함께 해로하며 살아온 내력을 재미있게 구술하여 주었다.

사람이 어떻게 그때에 그 사람이 엄청 많았던 모양이야. 나라에서 아주, 아주 명을 내렸단 말이야.

“칠십만 되면 고려장을 허기루.”

응. 아 그래 그 뭐여. 다 그래 인제 칠십 먹어서 참 고려장을 하는데, 그 아들이 효자더랴. 그거 나라에서 알게 되면 목감지 달아나지. 갖다가 고려장을 해서 놓고, 산 사람을 갖다가 묻는 거, 말하자면. 산 사람을 갖다 놓

고 이제 사흘 목을 쥘 양식을 갖다 넣어준 데여. 그럼 고거만 먹으면 결국 죽는 거.

그래 이 사람은 어떻게 한고 하니, 구멍을 뚫어 놓고 말이야 때마다 몰래 목을 쥘, 동네 사람들 몰래 조식 때마다 갖다 구멍에다 들이 밀어 드렸단 말이야. 들였는데 아 이 사람이 한 고을에 딱 지나다 보니까 광고가 붙었거든. 광고가 붙었는데.

“구슬을 서 말을 꿰 오는 사람이면 나라에서 큰 상을 주겠다.”

고 이렇게 했던 말이여. 그런데 그 구슬이라는게 끈개만 뚫어졌대면 아무래도 그 꿰지 못 꿰여. 하지만 이게 그 속에 들어가서는 꼬부랑게 그게 뚫어 났단 말이야. 그래 그게 들어가야지 여간해선. 그래 인제, 저녁에 인제 그 내외 자면서 그런 얘기 했던 말이여.

“고을에 가니까 광고가 붙었는데, 구슬 서 말을 꿰면 큰 상을 내린다.” 고 했으니. 그것 어떻게 되는고 하니, 중국서, 시방 중국이라고 하지만 그 전엔 대국이라고 했어요, 대국. [조사자 : 대국요?] 응. 대국서 그 트집 잡느라고,

“이걸 꿰어 와야지, 꿰어 오지 못하면 돈을 암만암만을 물어라.”

이렇게 해서 내보냈단 말이여. 그 그 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광고(방)을 붙였단 말이여. 그래 그걸 보았단 말이지. 그래 저녁에 내외 이제 자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 응, 그 아내에서 그러거든.

“아버지가 지혜가 많으신 분이여. 그러니 조식 진지 갖다 드릴 적에 여쭙어 보라고. 아버지가 에 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여쭙어 보라.” 고

“그러라.”

고. 그래 참 밥을 가지고 가서 드리면,

“아버지! 아버지! 이 사실이 여하하고 여하하다.”

고 얘길 했거든.

“응~ 거 어렵지 않다. 응 큰 개미를 잡아서 말이야 뒷다리에다가 명주실을 붙들어 매서 그 구멍에다가 디밀어 봐라. 그 그러믄 그 개미가 그 구불구불로 나갈 거란 말이여.”

아 그렇게 해서, 인제 와서 인제 알았단 말이여. 그래 인제 원한테 가서,

“그 내가 꿰어 오겠다.”

고 그러니깐 꿰 오겠다고 허니깐, 그래 이제 나라에 가서 참 그 구슬 서 말을 갖다 줬단 말이여, 응 원이. 그래 이 사람이 참 그렇게 해서, 큰 개미를 잡아서, 그 뒤다리에다가 명주실을 붙들어 매서 꼭 그 구멍에다 디밀어 보니깐 아 영락없이 나오거든. 아 그래서 서 말을 다 꿰었던 말이야.

그래 꿰, 그걸 꿰가지고 인제 원한테다 또 바쳤지 뭐야. 인제 원이 인자 나라에다 갖다 바쳤는 게지. 그래 갖다 바쳤더니, 그래 이 원이 가지고 나라에 들어 가서,

“이것 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걸 누가 꿰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꺼 아니야. 그래,

“거 우리 게 그 고을에 아무개가 꿰었습니다.”

“그럼, 게 데려 오너라.”

그런게 와서 인자,

“나라에서 부르니 가자.”

고 그런다 말이여. 그래 쫓아 가는 게지. 갔는데,

“너는 이것 어떻게 해서 꿰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꺼 아니야. 어떻게 꿰었느냐고.

“지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 그러냐?”

하면, 조석 때마다 진지를 갖다 드려서 재기가 어겨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게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쭙어 보니깐, 그 아버지가 일러 주어서 그 꿰었습니다.”

“그랴!”

그래서 효자도 그때부텀 낳다는 겨. 영 효자상 타고, 그거 참 그 꿰은 상 타고, 그 사람 도루 살고, 응 그 후부텀 뿔이 읊어졌다는 겨,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겨, 그 후부텀.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뭐 뭐 지아부가 젊어지고 그 손자가 쫓아가 고려장을 하고서 냉중에 지계를 내버리니까,

“아 아버지! 왜 지계를 내버리고 오세요?”

“아니다. 내버리고 간다.”

고 허니까게.

“아니요. 그것 가지고 가야 이 다음에 아버지 또 아버지 그 지계에다 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아니여. 어느 놈이 그래. 저그 아버지를 갖다가 그래 산 채로 갖다 물어요. 그 나라에서 법으로, 법으로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려장을 시킨 게여.

아마 그때 인구가 엄청 많았던 모양이여. 그런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아까, 그 그래서 그 고려장이 읍어졌다는 거여, 그 때부텀 응. 그래 효자 그때서 효자도 생기고, 효자상 타고, 그 켜 일 상 타고 해서 크게 부자로다가, 또 그 아버지 살리고 말이여. 그때부텀 고려장이 읍어졌다는 거, 그때부텀.

그게 칠십, 칠십 고려장, 고려(교회)일이라고 하잖어. 칠십 고려장이라고.

5 삼천갑자 동방석이

최복동(84, 남)/하갈리T 1뒤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정아, 최지훈, 김민석, 남경균 조사(1996. 5. 17)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이를 먹으면 죽어야 한다며 실제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강도짓이나 집안 싸움에 관련된 대화를 하시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삼천갑자 동방석이 아으슈? 삼천갑자 동방석이. 동방석이가 에 남 공덕을 많이 했어요. 게 삼십에 죽을 나이예요. [조사자 : 삼십예요?] 삼십에.

그래 이제 삼십에 죽을 나이니깐, 사자가 와서 잡아갔단 말이지. 아 태 평관이 책을 이리저리 들춰보더니, 아 거 살아서 공덕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 거 참 찍이긴 아깝단 말이야.

그르니깐 나가서, 인간에 나가서 공덕을 더 허라고 말이야. 그래 삼십이 니깐 석 삼자 밑에 열 십자란 말이지. 열 십자 꼭대기에다가 빼쳐주었던 말이야. 그러믄 삼천 살 아니유, 삼천, 삼천이지? 그래 삼천 살, 삼천갑자 동방석이야.

아 그래가지고 인저 와서, 나와서 인저 공덕을 허는데, 그 뭐 크게는 안 해요. 밥 굶어서 들어왔은 사람들, 그 사람 부잣집에 가서 그, 부잣집은 밥은 으레(항상) 식구들 먹고 남을 꺼 아니여. 그거 몰래 훔쳐다가 주는 거여. 땡기며. 그래 늘 그거여 뭐. 그 뭐 무슨 돈을 많이 훔치거나 곡식을 많이 훔쳐다가 주거나 그래도 안 해요. 꼭 굶, 굶어서 들어왔은 사람들, 밥 그거 몰래 훔쳐다가 주고주고 그렇게 돌아댁기는 사람이여.

그래 삼천 살을 살았는데, 귀신이 되어가지고 뵈야 사자가 잡아가지요. 아 귀신이 되서 아무, 보질 못 한다 말이여. 아 그런게 삼천 살이 이제 잡아들일 때가 됐는데, 어 사자가 나가서 보니, 아 뵈여야 잡지요 뭐. 그 당시에.

여~ 뵈질 않으니깐 피를 냈단 말이여. 넷갈에 앉아서 숯을 빨아요, 숯. 거 숯을 빨면 하얘지우?(웃음) 그러니 그 용기를 내가지고 숯을 앉아서 빨단 말이야. 게 동방석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놈이 앉아서 숯을 빨고 앉았거든. 헤 그러니깐,

“나 원 제미, 삼천 살을 삼천 갑자를 살아도 동, 에 숯 빠는 놈은 처음 봤다.”

고 했단 말이여

“오냐! 니가 동방석이냐!”

구. 그때 올라갔다는 거여.(웃음) 그래서 죽었다는 거여. 그래 뵈지 않았데요, 글썄. 삼천 살을 살았으니 그게 귀신이지 사람이여. 그러니께 그 쪽 어디서 큰 것이 뗏시를 안하고, 꼭 굶는 사람들 어 밥 남은 것 훔쳐다가 주고 주고, 그게 땡기며 그거 뭐여 그것 뭐. 삼천 살을 살았다는 거여.

⑥ 눈을 찌는 짜증사자

김정현(85, 남)/하갈리T 2완

[하갈 2리 자택] 박중수, 강현모, 김홍희, 이태홍, 김선호, 최판암 조사(1997. 5. 24)

조사자들은 노인정을 들렸으나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없으며 제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제보자의 집은 갯바친(포장천) 집으로,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 제보자가 쇠약하게 보였다.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눈만 감으면 송장이라며 다 잊어서 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구술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재미있게 구술하여 주었다.

에, 30에 죽을 팔자여서, 산신령이 인자 잡아들여야 했던 말이여. 그 데려다 놓고서 가만히 보니까 공덕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 그런게 죽이기가 아깝단 말이여. 그래,

“나가서 공덕을, 1년을 나가서 공덕을 더 하라.”

고 그래 삼십이니까, 그 숫자 꼭대기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여. 그러면 천(天)자가 되잖아. 어 열 십자 꼭대기에 빠치면 일천 천자, 천자여. 그러니까, 삼천 삼천 살이란 말이여.

그래 삼천 살을 사는데, 귀신이 됐지 뭐. 눈에 사람이,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그 사람이 멍기면서 무슨 일은 안하고, 꼭 굶는 사람이 있으며 그 있는 집에 가서 밥 남는 것 그것 갖다가 굶는 사람들 주고 그랬지. 무슨 큰 귀한 것이 돈이고 쌀이고 그런 것 퍼 가지는 않아. 그 멍기면서 그 저 굶는 사람 그 밥 남은 것 갖다 (주고) 가.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뭘 갖다 주고주고 해서, 그 먹은, 먹는 사람도 모르지. 그러니까 밥이 갖다 놓았으니까,

“누가 갖다 놓았는가 보다.”

그냥 먹는 거지. 그냥 불로지, 불로지. 그런게 삼천 살은 살았는데, 아 양중에 이거 참! 잡을래니 잡을 도리가 있어야지. 귀신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인자, 인제 그걸 어떻게 했는고 허니 의견을 냈단 말이여. 아 그러니까 당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래야 잡을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 인제 낭중에 냇깬에 나가서 인제 냇깬에 솟을 빨아, 솟. [조사자 : 솟요?] 응. 솟. 아이 솟 빨면 하야?(웃음) 그래 솟을 빨고 앉아 있지. 그래 앉았는데, 아이 그러니까 삼천갑자 동방석여, 그 이름이. 아이 동방석이가 이쪽 편에 보니까 어느 놈이 앉아서, 냇깬에 앉아서 솟을 빨거든. 그러니까,

“원 니미! 삼천 살은 살아도 솟 빼는 놈은 처음 봤다고. 삼천갑자를 살아도 솟 빼는 놈은 처음 봤다.”

고 그렇다고 했던 말이여.

“오냐! 니가 기구나!”(웃음)

동방석이가 그때서 올라 갔다는 거야, 사자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야.

7 청명산과 신이한 짐승들

김정현(85, 남)/하갈리T 2앞

[하갈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홍희, 이태홍, 김선호, 최관암 조사(1997.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는 이것저것 자신의 살아오면서 보았던 것을 간략하게 말 씀하여 주었다. 조사자가 이곳 지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청명산에 나도 그전에 나가서 들었지. 이 동네에서는 못 들어 봤어. 어디 먼 데를 나가서 그 하루 밤을 지는데, 노인네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디서 왔느냐?”

고 그랴. 아 그래,

“기흥면에서 왔다.” 고

“아 기흥면이면 청명산 아느냐?”

고 그러더라.

“그랴. 그렇다고 청명산 밑창에서 산다.”

고. 아 여기서 그 소리는 못 들었는데,

“거기 환계술 닭이 있다.”

고 그랴. 그 환계술 닭이 울어야, 전설의 닭이 운다 그거여. 그 청명산에서 그 환계술 닭이 울어야, 전설에서 닭이 운다고 그랴. 그 예전부터 아주 내려오는 그 말이라고 그랴! 그런데 여기 여 톱 밑에서 몰러! [조사자 : 환계술 닭요?]

그런데, 이 청명산 말여, 꼭 꼬랑지가 바란색의 그런 여우가 있는데 못 잡어. 똑 송아지만한 몸뎡이는, 다리가 짧아서 그렇지. 여간해서 눈에 띄질 않아. 거 일본 놈 표수, 한국 사람 표수 뎡(모두) 그 도로 뎡겨야 못 잡어. 눈에 띄질 않아서. 그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 난, 나도 한 번밖에 못 봤어. 저녁 때 아주 엄청 커. 몸뎡이는 송아지만 하고, 다리가 짧아서 그렇지 송아지만 한데, 꼬챙이가 반을 쪼어, 하얗게.

그리고 여기 청명산에 백사가 있어, 백사. 그 무슨 수로 잡어, 백사를 번개붙여. 번개붙 뺨적 해. 내가 꼴비려 갔다가.(웃음) 후다닥 이란단 말이여. 아 그래 난 토쟁이가 슬슬 가다가 뛰는지 알았지 뛰여. 아 그러더니 뺨적 하니 번개붙이여. 아. 근데 몸뎡이가 봐야지. [조사자: 아아, 백사가 그렇게 키요?]

그런데 인자 요런 돌틈 샘이 나오는데, 요런 돌틈으로 들어 가. 응 요기 참 들러 붙었지 뛰여. 그 틈으로 들어 들어가는데, 뎡뎡이만 조금 봤어, 요만치.(손가락으로 표현함) 응 몸, 몸뎡이는 못 봤어. 번개붙이여, 그냥.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저녁 때, 서쪽으로 그 해가 넘어가잖아. 그 해가 따듯하니까 이 놈이 나와서, 고 이놈이 나오니까, 이놈이 이렇게 오니깐, 이렇게 수북하게 됐는데, 고개이 크 이렇게 고마리처럼 뎡끄랴게 해 냐았어.

이놈이 거기서 서리고 있다가, 사람이 별안간 닥치니까 그냥 화다다 거동을 해야. 아아 그러니 이 몸뎡이는 못 봐. 거 무슨 수로 잡어. 응. 아 거 요만큼 봤어!(손으로 다시 표현함) 뎡뎡이. 똑 하얀 허니.

그리고 일정 때, 그때 이 저, (기침) 산검이 무웠단 말이여. 울타리를 그

뎨 울타리여. 저 나무 그 나무, 가장지 따다 하고 비(베)다가 하고. 울타리 그걸로 하는 건데. 그런데 저 건너 산 밑에서 사람인데, 아 낮에는 버젓이 길두 가서 나무를 벨 수가 있어야지. 산감이 무서워서.

그런게 해질 꼴에 가서, 그 위치게서 그 움직씩 되는 것을 톱으로다 비는데, 음! 아 이렇게 비다 보니까, 큰 토끼이만한 놈이 앞에 와서 앉아서 노리고 쳐다 보는데, 앞다리가 예잇 장정 손, 손, 손목 굽기만 하더라! 그런게 그렇게 쪼그마게 비더라. 응 몸뚱이가. 아 그 처음에는 그 하도 쪼그매서 톱을 들고

“췌! 췌!”

그랬드래만 그라! 그래서 살살 고 넘어로 넘어 가더라. 그 왜 넘어가니까 그런가부다 하고, 또 정신없이 비니까 아! 금방 없어. 앞에서 쳐다 보더라, 앞에 와서. 아 그때는 무서운 생각이 나서 그만 톱을 들고 내리 뛰었던 말 이야, 짐으로. 아 내려뛰어서 인자 바자에 앉았는데 머리가 뚝뚝 거러더라.

8 과부 보뎡하다 망신당한 사람

김정현(85, 남)/하갈리T 2앞

[하갈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홍희, 이태홍, 김선호, 최관암 조사(1997.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에게 신이한 동물에 대해 더 묻자 대답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아, 잊어 버렸어, 몇 가지 되지도 않았어. 나 못 해. 눈도 어둡고 기억력이 없어, 기억력이. 예전에 들은 것도 죄 잊어버리고

아! 지금 할아비도 없어. 그저 한 칠십만 조금 넘거나 칠십이 되면 죽어. 죄 죽어. 여기 그 저 보라리도 거기도 그렇게 그저 칠십도 죽고, 칠십 인자 칠십 안 되 죽어. 죄 죽어 나 하나만 남았어. 남자들이 그걸 못 해. 옛날에

니미 남자들이 후해서 흠아비가 많았는데.

아 옛날에 한 사람이 흠아버인데, 아 과부를 데머러 갔단 말여. 그런게 친구들이 죄 해 놓고서 인저, 그 며고서 인저, 그때 섬여, 섬. 으 섬여, 가 마가 없어. 그러니께 떡서리 아니 저 섬을 작대기다 이렇게 꿰가지고서, 장 대에 다 꿰가지고서 둘이 미고 가는 겨.

그래 인자 과부가 있는지 알고서, 과부가 그 시어머니도 과부, 그 며느 리도 과부여. 아 그래 인저 그걸 떼머러 등미워 갔는데, 인저 밧써 거기서 파발이 돼서 알았던 말이지.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어디로 몸을 피했단 말 이야.

그런데 인자 그 늙은 과부가 그 마음 놓고서 자는데, 어 에미 문을 열어 체치고 사뭇 체기 섬떼기를 가져오더니 그거다 집어 놓고서, 장때기를 꿰 어다가지고서 미고 가네 그랴. 응. 그저 늙은이를, 애띤 늙은이를 거 가지 고 가는 겨지 뭘. 그래 가서 떡 내려 놓으니까, 섬에서 겨 나오면서 그러드 랴.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 내며)에이 나하고 살 사람이 누구냐!”
(웃음)그러고 겨 나오더랴. 아! 그러니 어떡 햐.

“아, 가라.”

고. 그래도,

“가긴 내가 왜 가. 내 살라고, 나하고 같이 살라고 나 데려온 거 아녀!”
그러고서 귀신 망귀 같지 않고. 그러고 허니깐 인자 아이 큰 우절이지 뭐 여! 응 지 어머니 할머니뻘을 데려 왔으니 그 어떡햐.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줘서 보냈단 겨. 돈.(웃음) 안 가니 어, 어떡 햐.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돈 줘서 보냈다.

아 예전엔 모두 그랬데는 겨. 예전엔 과부가 죽었다. 아 그래 젊은 과부 가 어디 있으면, 그 섬떼기를 가지고 밤에 가서 섬에다 짚어놓고 장때기다 미고 온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9 도깨비에 홀린 사람

김정현(85, 남)/하갈리T 2앞뒤

[하갈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홍희, 이태홍, 김선호, 최판암 조사(1997.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귀신이나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할아버지 생각하시기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은 내가 봤나? [조사자 :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근데 옛날에 이 전기불이 없을 땐 말여 도깨비불은 많이 봤어. [조사자 : 진짜 보셨어요?] 도깨비불? [조사자 : 아 어때요? 그런 거 보시면 어때요, 무서워요?]

도깨비 불 홀리면 그냥 가시덤불 속으로 모두 끌고 당겨.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 홀린 사람은 훨씬 길 뵈여. 가시덤불로 저 언덕으로 저런대로 끌고 당겨는 거여, 밤새도록. 닭이 울어야 이제 놔 줘. 도깨비, 그게 도깨비여!

[조사자 : 할아버지도 도깨비불 보, 따라가신 적 있어요] 도깨비 불이야 나도 봤지. 보긴 봤는데, 그 이튿날 아 가 봐야겠다고 해서 가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 처마 저 밑구녕에 이 저 셋가래가 죽 있잖아. 석가래마다 죄 불이 그렇게 붙어서 있어. 저 저 촛불 모양. 아 그래 돌이 가다 봤는데, 꽤 오래 됐어.

에 날이, 참 날이 흐리고 그런게 있어요. 날이 흐리면 더 그런 게 보여. 그런게 샅지, 집으로 가서 그 이튿날 인자 거길 가 보는 것 아니여. 아무렇지도 않아! 이 석가래에 불이 붙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안 되어 있어.(옛날에 살았던 생활에 대한 말씀 생략)

도깨비 혈께. [조사자 : 허깨비.] 허재비. 허깨비가 도깨비여. 허깨비가 도깨비인데, 도깨비 홀리면 밤새도록 끌려 당겨. 응 그럼 얼굴이 죄 상처기 나고, 어 저저 가시덤불 속으로 끌고 당기면 가는, 쫓아가는 사람은 신작노로 보인다, 환하게. 그 가면 걸리고걸리고 얼굴에 상처기가 나고서.

그래 인제 닭이 울어야 이 인자 어디에 가 있던지, 그때 가선 도깨비에 흘린지 알지. 에이 또 장적이 신 사람은 또 도깨비 안 흘려. 참 지금까지에 쓰고 이 뭐를 헌 사람은 도깨비에 흘리지 않고, 도깨비 볼도 못 봐. 봐지도 않아.

10 꼬마 인랑

김정현(85, 남)/하갈리T 2뒤

[하갈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홍희, 이태홍, 김선호, 최관암 조사(1997.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등 콩쥐팥쥐, 일제 시대의 이야기,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 뒤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20살에 결혼하여 9남매를 낳아 6남매를 길렀다고 한다. 귀가 좀 어두워서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웃음)그것은 내가 한 마디 해 주지. 옛날에 말여, 인자 그야말로 참 열 두서너 살 먹어서 장가를 들었는데 말여. 그런게 그 그뻐 시방의 학교지만, 그뻐 글방에 다니거든, 한문. 그래 그 때는 애기들 점심 먹으러 왔단 말여. 그러니까 지 어머니가,

“애! 그 아 발 매는데 이 밥 좀 갖다 줘라.”

그리고서 해서 싸서 주거든. 아 인제 그걸 가지고 갈 거 아녀여. 그 옆에 가 발 매는데. 가지고 가서(웃음) 가지고 가는데, 아! 또랭이 있거든. 그걸 건너갈 수가 없어. [조사자 : 넓어서요?] 그러니까 이놈이 쪼그매코 하니까, 으른들은 그 건너 뛰지 몰르지. 그런게 건너뛰지 못하고서,

“아줌마아! 아줌마!(웃음) 아! 이것 좀 건너나 달라.”

고 그랬단 말여. 그 여간 그 여편네가 여간 부아가 날게 아녀. 쫓아 와서 여기 발길로다 거들어 찻단 말여. 아 또랑으로 쑥 들어갔지. 아! 그래서 밥 그릇도 또랑으로 죄다 들어갔단 말여. 그래 골딱지가 나니까 그러고서, 그 냥 혼자 가서 밭을 매지. 아! 이거 참 시부모네가 알면 쪼겨 나갈 판이거

든. 아 큰일 났지 뭐여,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어둡도록, 아마 좀 어둡도록 매고선 인자 슬슬 들어오니깐 그러더랴. 제 사내가, 들어가니까 문간에서 그러더랴.

“괜찮아. 어여 들어가. 괜찮아, 내가 미끌어져 넘어졌다고 그랬어.”

하이 이렇게 꾸며 댔단 말이여. 미끄러져서 또랑에 빠졌다고 그랬디아, 가서 지 어머니. 아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아이 뭐 그 밥도 못 먹고 그래, 또랑에 그래 쓸어 박아서 밥도 못 먹고 여적, 배도 고평텐데 여적 그 어둡도록 매고서 있느냐고. 어여 들어와 밥 먹으라.”

고 그러거든. 아! 그 때부터 그 사내를 무서웁게 생각했디아. 그런게 어디 있어. 아! 바른대로 했다간 니미, 참 예쁜네 쪼겨 나가지.

“내가 미끄러져서 밥을 죄다 들어 얹었다.”

고 직 집에 가서 시어머니더러 그랬디아. 아 그러고 보니까 인제 매고서, 인제 문간에 이간 제어미 쪼껴나갈 텐데 이것 어떻게 하나. 이걸 알면 쪼껴 나갈텐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문간에서 그러더랴.

“괜찮다고. 내가 미끌어져 내가 넘어졌다고 했어.”

아 그러고 허드랴. 아 그래서, 그 봉변을 당허드랴. 아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사내를 무서웁게 생각하더랴. 그래 그 쪼그만해도 그 좀 맹랑하잖아. 그 밧길로 차서 그 빠졌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 쪼껴나지.

여 백

11. 영덕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효순, 김윤미 박진숙, 김무경, 김정선, 김종숙 조사(1997. 5. 18., 1999. 5. 27-30.)

영덕리는 신갈리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영동지구의 개발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 최근에 이 영덕지역은 수원시에서 편입시키려 하고 있어 용인에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영통리와 덕곡을 합하여 영덕리라 하여 기흥면에 편입되었다. 이 영덕리를 이루는 자연마을로는 잔다리, 오금이, 덕골, 석현, 샘말, 기와집말, 황곡이 있다. 잔다리는 마을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 강이 흘렀을 때, 배를 매어 두었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한자어로 세교, 잔교라고 하는데, 배를 매어두었다는 점에서 보면 잔교가 옳다고 하겠다. 그리고 오금은 한자어로 오평이라고 하여 마을의 서쪽에 있다. 오금은 5부자가 살았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하는데, 마을의 형태가 굽이 깊다거나 구석진 곳을 칭하는 오구미에서 유래된 것 같다. 덕곡은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덕암산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큰골의 뜻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현은 돌고개라 하여 잔다리와 오평의 중간에 있는 마을인데,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덕곡과 잔다리 사이에 있는 샘말은 샘이 많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하나, 두 마을 사이에 있다고 해서 사이말 또는 한자어로 간촌이라고 쓴다. 기와집말은 석현 동쪽에 있는 마을로 큰 기와집이 있었기에 생긴 이름이고, 마을의 남쪽에 위치한 봉곡은 황골이라 하여 풍수지리상

봉황이 앉아 있는 형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덕리는 옛날에 주로 경주 이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가 많았으나 요즘은 근대화로 인하여 많은 성씨가 어울려 살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양반계층이 많이 살았다고 하며, 마을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임업이 주산업이었다. 근래에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특별히 발전된 산업이 없다.

영덕 4리인 덕곡은 큰 도로변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주위가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구수는 약 50여 호로 이루어져 있다. 길을 따라 들어가면 우선 버섯을 재배하는 하우스가 눈에 띄었고, 논과 밭에는 젊은층보다는 중·노년층이 많았다. 또한 풀이 무성한 논과 밭이 간혹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농촌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마을의 이야기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나 가게에 들어가 물어보니 외부인임에도 별 의심없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시골 인심은 여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 설화

① 도깨비 일화(1)

양선명(81, 여)/영덕리 T 1와

[영덕 4리] 박종수, 강현모, 김효순, 김윤미 박진숙 조사(1997. 5. 18.)

시집살이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마을에서 물에 빠져 죽은 동네 할머니에 대해 말씀하다가 도깨비에 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야 그냥 참 전기불이 있어? 등잔불이니깐 맨 도깨비지 쫄. 요 아래집이 도깨비가 많아. 저녁에 나오면 그냥 불이 번쩍번쩍쩍하고 그냥 들어 땡기고, 소당도 요렇게 훌딱 뒤집어서, 요렇게 재쳐서 덮어놓고. [조사자 : 뭐?] 소당. [조사자1 : 솔뚜경.] 영. 그걸 요렇게, 부엌에 들어가서 뒤집어서 덮어 놓고. 절구질도 하고. 아주 절구질도 청승같이 막 절구질을 그렇게 잘 한다구. 그래 내가 우리 시어머니더러,

“어머니! 어머니! 저 소리 좀 들어 봐요?”

“무슨 소릴 들어 보니?”

“아유 저기서 절구질을 저렇게 해유. 아무게네 집에서 절구질을 해유.”
 “아니다. 들어가 자라.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저기 하니.”
 그러시고 어떤 땐 날 불르고, 그냥 배깁에서 불리. 그러면,
 “엄니! 저기서 누가 불리요.”
 “에유!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들어가.”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조사자 : 아시면서도 시어머닌 그냥 그러시는 거
 예요?] 나 놀래껴배. ‘들어 가라고. 그런 소릴 듣고 있냐구, 그냥.
 “콩당, 콩당, 콩당.”
 말래(마루)도 올라오고. 그냥 별짓 다 해유. 요 아래 올라오면 2층집 그집
 이가 그렇게 도깨비가 심해. 아이고. [조사자 :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
 는 읍어. 요즘에는 요기 배깁에 요기 나가면 저기가 옷낭구가 참 많어. 그
 냥 도깨비 불이 츠르룩 왔다 츠르룩 갔다 아주 도깨비 많았어.

2 시묘살이 한 표자

이충범(52, 남)/영덕리T 2앞

[영덕 4리] 박종수, 강현모, 김효순, 김윤미 박진숙 조사(1997. 5. 18.)

앞 제보자의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조사자는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동네를 돌아다녔다. 이때 술을 마시고 있는 술자리에 들어가서 조사나온 목적을 설명하자 제보자가 관심있게 물어 보았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이 동네의 효자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뒤의 마을 지명 유래에 대한 설명 후에 계속한 이야기를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

9대째 되시는 분께서 그 효자로 살았어. 그때 시묘살이라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지에 가서 에 그 움막을 짓고 에 3년 동안을 사셨대는 거지. 집엘 안 오시고.

그래서 인제 그 효자비를 그 나라에서 하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저거는 일제 명치시대에 준수한 거고. 원래 효문은 그 불에 타가지

고 없어지고, 그 후에 준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고.

(뒤에 있는 것을 옮겨 놓았음) [조사자 : 효자문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효자문은 그래서 내 저 9대 선조되시는 분이 시묘살이를 해서, 저 묘지에 가서, 부모님 묘소에 할아버지, 아버님 묘소에 가서 무릎뺀가 이게 당도록 빠질 정도로 가서 효를 하고서 자손이 읊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손이 끊겨가지고 양자를, 그 후에 양자를 해서 이렇게 들이고 대가 그렇게 이어 나가는데. 그 후에도 손이 귀해가지고, 사실 손이 귀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할아버지 때만 해도, 보편은 우리 족보 보편은 양자 들어왔다 나갔다 한 게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인제 아버님 대에 와가지고 저 사남때 그게 변절한 거지. 그 후에 또 우리 대에서, 내 대에서 사남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

3 퇴계 선생과 덕수 이씨

이종범(52, 남)/영덕리T 2앞

[영덕 4리] 박종수, 강현모, 김효순, 김윤미 박진숙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자기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제가 인제 그 덕수 이씨예요. 덕수 이씨이면 아실는지 모르지만은, 그 율곡선생 아시죠? 율곡이 인제 우리에게 선조 되시는 분인데, [조사자 : 오천원짜리 쥐 봐. 인상이 비슷하신 것 같어.] 그래 덕수 이씨도 충무공하고 율곡이 있지요. 그래 두 분 중에 한 분은 인제 무인이고, 한 분은 인제 문인이신데. 율곡은 나한테 한 17대조 정도 되죠.

[청중 : 거 분당, 분당에 가면 퇴계선생, 그 중앙공원, 그 묘지에는 퇴계 선생은 땅을 살 때마다 자손에게 요지만 사주어 가지고 전부 다 갑부로

사는데, 왜 울곡 자손이 이렇게 사는지 몰라.](일동 웃음)

그래서 용인 문화사에 제가 저희 집안의 내력이 나와요. 인저 저, 저대 대로 인제 그러니까 여기 크 중시조라서, 이조 때 인저 이조판서를 저희 11대 되시는 분이 인저 여기 묘소가 있는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양반이 인저 그 유공하셔가지고, 세자를 자신을, 세자를 가르치고, 인현왕후가 그 양반은 외조부 되시고.

그런게, 그래서 인저 그, 이 전라도 그 천석하고 인저 땅을 하사를 받았는데, 전라도는 가기가 싫으시다고 해가지고 여기로다 해서 다 저것들 된건데.

4 혈맥이 끊긴 영덕리

이종범(52, 남)/영덕리T 2앞

[영덕 4리] 박종수, 강현모, 김효순, 김윤미 박진숙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지명에 대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이곳이 지금 골프장과 개발로 인하여 마을이 망가지고 있음을 한탄하였다.

여기 옛날에는 큰 덕자 골 꼭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에 피난곳이라 해서, 중시조께서 청렴결백해셨기 때문에 일루 터를 잡으신 거예요. 보다시피 들어오다 보면은 찾길이 안 닿잖아요? 쪽 들어와 있잖아. 그냥 ‘난을 피해야겠다’ 해서 인제 자리잡은 곳이. 여기를.

참 그 옛날에 일제시대에 수여선에서 철로가 이루 나가고 했는데, 그전 까지만 해도 이건데. 그 후에 인저 일제 시대에 이 철로가 나는 바람에 혈맥이 끊겼다 해가지고, 여기가 인저 말하자면 폐허가 됐다 이런 얘가지. 그전만 해도 부유하게 지내오고 그랬지.

5 용인의 8명당의 하나

이종범(52, 남)/영덕리T 2앞

[영덕 4리] 박종수, 강현모, 김효순, 김윤미 박진숙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에 마치고 자기 조상 중에 효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묘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자, 앞에 있는 묘지가 용인의 8대 명당 중에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서 여 묘소가 예 8대 3명당에 든다는 거야. 그 용인에는 산수(산소)지가 좋잖아요. 그런데 인제 그 그 중에도 이 명당 자리에 든다. 그런데 3명당에는, 명당이라면 아주 제일 좋은 거고, 8대지 고 밑창에 드는 거라 해서, 이 묘소가 삼태기형이라 해서 내려오는 그런 건데.

[조사자 : 만데 묘자리도 좀 가 봤어요. 저쪽 모현에 정몽주.] 예. 그렇지. 거기도 유명한 데도. 저 여기 저 뭐 됩니까. 민영환씨, 그 구성 거기도 그 유명한 데고.

그런데 인제 그 여기 능자리를 잡는다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하야튼 저기 했던 거지. 그래서 인제 후대를 갖다가 우에다 썼었다. 묘소를 땅,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그 저것도 있었고.

6 재물이 많은데 자신이 귀한 집터

이종범(52, 남)/영덕리T 2앞

[영덕 4리] 박종수, 강현모, 김효순, 김윤미 박진숙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는 자신이 조상의 묘지를 잘 관리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의 말씀과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주위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기와장이 나왔다며 이야기를 계속 구술하여 준 것이 이 이야기이다.

지금도 여기를 파보면 기와장, 또 이조자기 이런 것이 출토도 되고 그러지요. 그래서 인제 그 저쪽에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은 이 기와집터라 해가지고 에 거기를 파며는 기와장이 나와요. 그 집에도, 에 거기다가 옛날에 집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다 집을 지면 에 재물적으로는 부한데, 에 자손이 귀하대.’ 그런 전설적인 얘기도 있어. 그래서 인제 거기서 살던 사람이 자손이 귀하니까, 재물은 느는데 자손이 귀하니까 그 집을 읊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대대로 인제 내려오는, 내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왔던 얘가지.

7 후손을 무사하게 지켜준 비석

이종범(52, 남)/영덕리T 2앞

[영덕 4리] 박종수, 강현모, 김효순, 김윤미 박진숙 조사(1997. 5. 18.)

앞의 집터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지형에 대해 말씀하였다. 그리고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자신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왜 청주까지 가셨느냐. 우리 할아버지께서 꿈을 꾸시니까, 이 저 비석이 남쪽으로 이렇게 숙었대요, 꿈에. 그래서 인제 에 그 전에도, 젊어서 인제 꿈을 꾸시며는 그 원래 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인지, 에 그런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비석이 남쪽으로 숙었으니까, 남쪽으로 피난 가면 니들 안심할 거다.”

해서, 사실 남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게, 그런 거 저게 있었고.

8 증의 우물

양대수(59, 남)/영덕리T 3왕

[영덕리 영통사] 박종수, 강현모, 김무경, 김정선, 김종숙 조사(1999. 5. 27.)

조사자들은 영덕리에 도착하여 제보자들을 찾아다녔으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마을에 있는 절을 찾아가 스님인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의 법명은 혜천으로 1971년에 이곳의 절에 스님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곳에 나무를 하러 다녔다는 말씀으로 보아 이곳에서 자랐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이성을 은근하게 자랑하는 분이였다.

내가 1971년도에, 에 여기에 내가 창건을 했어요, 저기 앞산이 청명산이에요. 푸를 청자. 맑을 명자. 청명산에서 꼭대기에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그 우물이, 녹음을 해도 괜찮아요. 뭐 우물이 이제 고 넘어가 용인 땅이에요, 거기가. 여기는 수원 땅이고.

그 용인 땅에 고 넘어를 가면 배지밀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산이 가프라지지만 고 넘어는 편해요. 그래 절터가 있었어요. 옛날 거기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우물을 팠다고 해서 ‘증의 우물’이에요. 증이 팠다고 해서 증의 우물이란 말이야. 그래 증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에 인저 얘기 듣기론 인제 오래 되서, 이제 지나가다가 뭐 인자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물이 나왔다.

그래 산꼭대기는, 그래 여기가 가물어 가지고 에 아주 뭐 눈에 모를 못 내더라도, 거기는 항상 이렇게 그 많이 [조사자 : 괴여?]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무 다니면서 그 우물을 병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을 떠먹은 장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나뭇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니까, 인저 뭐 뿔이냐요 물이 썩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풀 수가 없으니까, 줌으니까. 그래서 스님이 연구를 해서 올라가서 ‘이걸 어떻게 바가지로 떠먹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인자 그 밑의 흙을 싹 파내니까 인저 바가지로 떠먹게 되

어 있어요.

인자 그 옆에 흙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 돌을 쌓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다 지게로 빼다가, 뽑아다가 돌을 쌓고 나무를 갖다가 주변에 심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거기가 약수터가 되었어요.

9 부처님이 가르쳐 준 우물

양대수(59, 남) /영덕리T 3앞

[영덕리 영통사] 박종수, 강현모, 김무경, 김정선, 김종숙 조사(1999. 5. 27.)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우물의 주변의 정화사업이나 아예 관련된 기우제 신앙에 대해 간략하게 구술하여 주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신령을 만나서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신령님이 꼭 있어요. 그래 없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텔레비 보면 막 신령님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웃음)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그 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허느냐면은 인자 영통사 스님 저보고,

“올라오지 말라.”

는 거여, 인제. 거기 기도허러 올라오지 말고, 여기서 하라는 거지. 그래 이게 잣나무잖아요. 이게 큰 잣나무. 여기 모셔놓은 분이 용왕님이예요.

이게 용왕은 물 속의 왕이란 말이라 말이제. 그런게 우리가 텔레비 보면 막 관, 관을 쓰고 그 용왕이 계신단 말이에요. 용왕이 계신 자리는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현실적인 이야기 생략 : 물이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인제 그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물 자리를 가르쳐 주더라 이것이야. 그러니까 나 영험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신령 령자 통할 통자 그래서 여기가 영통사여, 여기가.

그런게 그래서 화성군 영통리 했지만, 동네 마을도 있었지만, 그래 동네 마을 이름을 따서 영통사. 그래서 신령이 통한 절이니 아주 유명한 절이란 말이여. 그런게 인자 영통지구, 그런게 영통동. 그래서 여기가 영통동이 되는 거여, 여기가. 그래 인자 여기가 화성군에 있었다가, 이제 영통,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 여기서 71년 정도부터 있었지만 그런 내력 내가 지켜나온 일.

그러니까 아까 신령님이 올라오지 말라고 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올라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물이 없으니까 부처님 앞에 인제 기도를 했더니 우물자리를 가르쳐 줘가지고, [조사자 : 거기가 여기예요?] 잉. 여기가 바로 용왕님을 뵈셔 뵈었어. 그런게 여기서 우물자리가 그렇게 물이 나오는 거요. 그래서 그 거기서 인제 무지개를 박는 거여, 여기다가. 인제 비 오면 이렇게 무지개를 박잖아요? 게 영통사 절에다가 무지개를 박았으니까 엄청 좋은 터여, 여기가. 좋은 터는.

그래서 인제 무지개를 박고 현 자리는 물이 나온다는 얘긴데. 중생이니까 답답해서 우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동네 분이고,

“여기서 물이 나오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는 얘가지 그제. 그래서 인제 그 공장, 큰 공장에 뚫는 큰 기계 있잖아요. 그걸 데려다 놓고, 인제 오산에서 기계를 데려다 놓고 허니까, 안 파주는 거여.

“물이 안 나온다.”

고 여기는, 여기는 근본적으로 물이 없는 데여, 여기가. 그러니까 그냥 싣고 기계를 갈라고 한다 말이여. 그래서,

“안 된다. 일단 기계를 내려 놔라.”

“그러면 스님이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지. 인자.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당신들에게 기계가, 여기 품값만 주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것 있느냐?”

그런게 일단 기계를 내려놔야 못 갈 것 아니에요. 그래 인자 기계를 내려놓고, 내가 좀 기도를 잠깐 했어요. 하야튼 이제 그 마당에다가 내가 인자

동그라미를 그려 줬지, 인제.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이제 그 큰 기계 끌어서 회회 뱅뱅 돌아가면 우물이 뚫지 않는게비.

그래서 이거를 한 100m를 뚫었어요. 그런데 100m는 다 안 되고, 한 85m 되거든. 그런데 순 바위만 뚫어가지고. 그래 얼마나 바위를 뚫었으니 그 사람들이 힘 들었지요. 근데 물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아주 약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설이 있고,

10 불길한 일을 알려주는 느티나무

유기진(75, 남)/영덕리T 3앞

[영덕리 느티나무 밑] 박종수, 강현모, 김무경, 김정선, 김종숙 조사(1999. 5. 27.)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사찰 경내를 한 번 돌아본 뒤에 마을로 내려왔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느티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제보자를 발견하고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 느티나무 역사가 500년인데, 500년인데(기침) 여그 인제 이거 본토 그 할아버지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 느티나무가 역사가 500년인데 전장(전쟁)이 날라면은, 전쟁이 날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장이 지금 많이 났잖어? 여학생들은 잘 모르지만도, 일정 때 제 2차 전장, 뭐 그 후로 6·25전장. 뭐 수없이 전장이 이렇게 우리는 겪었는데, 그런 전장이 날 때에는 이 느티나무가 운다는 거야.

[조사자 : 어떻게?] 어떻게 우냐? 그러면은 아주 그 서글픈, 아주 슬픈 그런 음향을 내면서 어, 이 일대가 막,

“웅~ 웅~!”

울리면서 그 느티나무가 울었다는 거여, 전장이 날라면은. 왜 전장이 날라면은 그렇게 느티나무가, 나무가 ‘중경 중경’ 우냐? 전장이 나게 되면, 아 아군이 됐든 적이 됐든 사람이 많이 죽는단 이말이여. 전장이 났다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게 되니까 슬프다 이거지요. 사람이 안 죽어

야 되는데, 많이 죽어서. 그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죽어 나가니까, 인자 즉 말하자면 슬픔에 젖어서, 어 즉 말하자면 초목도 울었다. 나무도 울었다. 즉 말하자면 그런 전설이 있어.

그럼 그 느티나무 앞에 가면은 비문이 있어요. 그 느티나무 역사에 대해서 비문이 있다니까. 어 비문을 거 딱 읽어 보면은 ‘인제 그 전장 날라면은 느티나무가 슬픔에 젖어서 울었다.’ 인자 그런 역사가 나와 있어. 써져 있어. 그렇게 써져 있고.

11. 언녀가 내려왔던 청명산

유기진(75, 남)/영덕리T 3앞

[영덕리 느티나무 밑] 박종수, 강현모, 김무경, 김정선, 김종숙 조사(1999. 5. 27.)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에 있는 청명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전설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곳에서 태어난 노인들이 하던 말을 들었다고 한다.

난 요기 이사 와가지고 인자 느티나무 밑에 더 시원하니까 가거든. 가면 인자 할아버지들 옛날에 여 살았던 할아버지들 만나. 자연히 만나면 인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여그 동네 역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인자 나오고 거 인제,

이 앞에 있는 산은 청명산인데, 청명산. 이 산이 거 할아버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글자 그대로 인제 청명하다라 해서 청명산인데, 옛날에는 항시 이 산봉우리는 그렇게 높으게, 높으질 않는 산이지만도 이 산이 보면은 그렇게 큰 산은 아니거든?

큰 산은 아닌 데도 항상 그 산봉우리가 보이지 않게 가려 있다는 거여, 안개가. 안개가 끼여가지고, 그 봉오리가. 그러면은 인제 왜 그렇게 봉우리 가려 있느냐? 하는 것을, 인자 그 뭐, 뭐냐?

문장덜이, 문장덜이 해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하늘에서 선녀가, 선녀들이 이 산은 비록 그렇게 큰 산은 아니지만도, 하늘에서 선녀들이 이 산을 많이 내려온다 이거야. 그러면 인제 일반인, 사람들이 선녀를 보이지 않게 할려고 안개가 항상 싸여 있다 이거야.

어 그래서 이 산이 아주 명산이래, 명산. 이 산에 올라가면은, 산이 여가 제일 여가 상봉인데, 바로 그 조금한 5m 밑에서 항상 물이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있어요. 그 물을 인제 올라가서 병(병) 가져가서 인자한 병씩 떠다가 먹는데. 약수로 이렇게 먹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산봉우리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힘든 일이 아냐? 물이란 것이 낮은 데서 나오는데, 나오게끔 돼 있지. 높은 데서는 물이 안 나오게 돼 있다 이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산은 올라가면 노상 그 산이 아주 물이 더 있지도 덜 있지도 않아, 딱 그 양이. 물통으로 말하자면 한 두 통 정도, 대개 고여 있어.(일상적인 이야기 생략)

그래서 그 으 청명산, 청명산 상봉에서 나오는 약수는 특별한 약수다. 즉 말하자면 하늘에 그(기침) 선녀들이 먹는 약수다. 어 어 이제 이렇게 옛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게 전설이 있어.

12 도깨비 일화(2)

유기진(75, 남)/영덕리T 3앞뒤

[영덕리 느티나무 밑] 박종수, 강현모, 김무경, 김정선, 김종숙 조사(1999. 5. 27.)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도깨비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하였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에 앞의 도깨비를 만난 배경에 대해 설명하여 주었는데 생략하였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친구들은 다 흰해서 가니까 이상이 읍이 집이를 돌아갔는데, 이놈은 인제 감감한,(Tape 뒷면에 계속) 군소채지도 전기 하나

웁어. 거 뭐 거기서 저 면은 더 두말할 것도 읍고, 전부 초롱불이야, 초롱불. 그렇게 했는데, 해만 졌다 하면은 뭐 캄캄한 밤중이지. 그런데 뭐 인자 해만 졌다하면 이 도깨비들이 막 설쳐요. 해만 졌다 하면 도깨비불이.

[조사자 : 도깨비불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도깨비가 인자 혼자 다니는 거 아니고 집단으로 다녀. 도깨비는 혼자 절대 다니는 법이 읍어, 도깨비는. 집단, 이 한 20명, 30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좌-악 일렬로 나라비 서서, 나라비 서가지고 일렬로 좌-악 가다가,

“오늘밤에 이 사람을 체포하자.”

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하나 간다. 이 사람을 체포하자고 했을 때 강강술래하는 식으로 빙 둘러싸요. 그래가지고 좌~악 이렇게 오무라 들어요, 빙 둘러가지고. 일렬로 좌-악 가다가 사람이 저기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그 도깨비불이 새파래요. [조사자 : 어 새파래요?] 아주 파래요.

그렇게 번쩍번쩍하고 막 지금 뭐 네온싸인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불이 번쩍반짝 하면서 막- 일렬로 가요. 여기서 보면 저- 건너편에, 인제 그 산 밑구녕 부근에 골짜기 같은 데서 막 시작해서 나와요, 도깨비들이. 그 도깨비가 그- 뭐냐? 지금 말하자면 뭐냐 하면은 죽어가는 그 혼신이야. 혼. 그 참 억울하게 죽었다. 뭐 참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 또 인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인자 뭐 묘도 없고 그냥 막 파고는 갔다 물어버린 거야. 그런 혼, 그런 혼신이 인제 그,

“남과 같이 나는 살지 못하고, 죽어서도 남과 같이 좋은 무덤을 갖지 못하고 또 대명 일이 닥쳐도 뭐 참 물 한 모금 못 얻어 먹고, 너무너무 원통하다.”

해가지고. 그 원한에 싸여가지고 도깨비가 된 거야. 도깨비가 된거야. 아 그렇게 이 죽어 갔던 혼신덜이여, 혼신. 즉 말하자면 인제 거 보고 도깨비라고 그래.

도깨비라고 그러는데,(기침) 그래가지고는 일렬로 가다가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했을 적에 저 사람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에게 해를 쳐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뭔가 좀 틀렸다 이 말이야. 뭔가. 아 욕심이 지나쳤

다. 남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 마음 심보가 좋지 않다. 그런게 이 사람은 좀 기압을 줘야겠다. 응? 버릇을 고쳐 놓아야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인자 도채비가 그 사람을 인자 혼을 준거야. [조사자 : 혼을 줘요?] 근데 일렬로 가다가, 사람을 갖다가 더욱 가며는 빙둘러 싸가지고 포위를 해여. 포위를 해가지고 조금조금 이게 모아 들어요. 그럼 망 안에 가 딱 들었지, 사람이. 망 안에가 들었으면 이 놈을 거꾸로 들어다가, 인자 어디 바우, 숲속 그 가시덤불 뭐 있는데, 그런 데다가 갖다가 움짱도 못하게 쭈그러 앉혀요. 죽이지는 안 해요. 기압을 준거야.

너는 욕심이 많아서 틀렸어. 다시금 니 마음에 있는 욕심을, 다음부터는 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기압을 준거야. 그러면 인자 동네서는 동물한테 물려갔나, 또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한테 흘려갔나. 그런게 온 동네방네 막 인자 구석구석 찾고 돌아다니고,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온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도깨비가 흘린 사람을 찾는 과정 생략)

도채비가 흘려간 사람은 도채비가 죽이지는 않으니까, 또 먹지도 않으니까. 기압만 주는 거니까 도채비에 흘려간 사람은 살아있다. 그런게 찾는 데까지 찾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도채비가, 도깨비가 사람을 갖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둔다는 걸 인자 알거든. 바우 틈이나 또 가시덤불 속이나 아주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데, 고런 데다 갖다 수서 박아 놓는다 말이며. 딱 쭈그러 앉혀 놔. 움짱도 못하게. 그러면 움짱도 못 해요. 그래도 눈뜨고 그대로 있는 거여.

[조사자 :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어. 움짱도 못하고 숨만 쉬고 그대로 있는 거여.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 도깨비들이 혼을 꼭 누르고 있으니까. [조사자 :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혼이 말이며, 혼은 내가 보이지 않지. [조사자 :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깨비에 흘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인제(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청취불능) 몸에 있는 정신은 다 나가버린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인제 그 도깨비가 기압을 준거여.

[조사자 : 그러면 도깨비한테 흘렸다가 제 정신이 돌아오나요?] 그런게 우리가 가서 인자 찾아가지고, 지금 사고나면 뭐 그 소방대원이면 당나귀

로 싣고 오니께 인자 병원으로 가는 식으로, 우리가 가서 인자 그 놈을 업고 가시덤불 속에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데 바우틈 속에 거기다 갖다 딱 쪼그리고 앉혀여, 거기다가. 그럼 가서 막 어저지로 그냥 빼가지고 업고,

몰라. 아무 것도 몰라. 살아는 있는데 아무 것도 몰라. 녀이 다 나가버리고 그놈을 업고 집에 와가지고, 인자 물을 뜨겁게 데워서 물 좀 먹이고, 사방을 이렇게 주무르고, 응 뉘어 놓고, 막 이렇게 주무르고 막 이렇게 인자 하면은 몇 시간 후에 눈이 깜박깜빡 해여. 인자 정신이 좀 돌아오니까. 완전히 혼을 빼가버린 거야, 도깨비가.

그래가지고 도로 회복이 되요. 아무 병도 없이 회복이 되는데, 그 도깨비한테 한 번 흘려 갔다는 사람은 정상이 못 되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도 정상이 못 되고, 뭔가 조금 한 칠푼이나 팔푼이다 그러잖아? 너는 너는 육푼이나 아니냐 이려고 농담도 하는데, 육푼이나 칠푼인가. 그런 평을 받는다고. 뭔가 좀 그 정상이 못 되고, 좀 모자란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도깨비한테 흘려 갔다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할 일을 못하고, 뭐 밥을 못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상인 것 같애도 정상이 아니다. 100% 정상이 못 된다 말이여. 도깨비한테 한 번 흘려 갔다 나온 사람들은 녀이 나갔던 사람이니까.

13 영덕리의 골명 유래

김한선(69, 남)/영덕리T 3앞

[영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무경, 김정선, 김종숙 조사(1999. 5. 27.)

앞의 제보자에게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제보자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 앞에 앉아 쉬고 있는 제보자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곳의 지명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좌우간 여 항골 마을에 물땅골의 땅이여. 물땅 골의 골. 그 다음에 할머니 골, 그 다음에 늙은이 골, 그 다음에 젊은 총각골.

[조사자 : 아, 그 청명산 골짜기마다 이름이 있어요?] 골짜기마다 그 명, 명칭이 있는 거여. 저게, [조사자 : 왜 그런 명칭을 붙였나요?] 그거는 나 두 잘 모르는데, 그 곡절이 있는 거여. 물땅골. [조사자 : 말씀해 주세요.]

영. 그 다음에 중늪이골, 총각골 뭐 해서 일곱 골이 있는 거요, 그래. [조사자 : 총각골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 골은 골마다? [조사자 : 예 아 니, 총각골이요. 총각골이 궁금해요.]

총각골에는 거 총각무덤이 무덤이 거기 셋이 있다고 해 가지고 총각골 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꼬뜨머리는, 그저 끝의 머리가 짧아서 그냥 저 명이 그만큼 짧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일곱 골이 된 거여.

그래서 옛날서부터 칠, 칠공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전설의 고향이여. 여기 각 청명산에 이 골이 일곱 골이야. 저 영통지구까지. 황골마을부터 영통지구까지 일곱 골이 나온 거요. 작은 골까지. 큰 골서부터 일곱 골.

[조사자 : 아.. 할아버지 그리고 그 골짜기마다 그거 다 말씀해주세요. 그 골짜기 명칭이 왜 붙여 졌는지?] 골짜기가 처음부터 물땅골. [조사자 :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겼죠?] 거기서 물이 많이 나와요. 이 큰 골 이니까. [조사자 : 물 물이 뭐예요?] 먹는 물. 약수물. 약수물이 거기서 많 이 나온 거여. 큰 골이니까. [조사자2 : 물탕골은?] 약수물, 약수터. [조사 자2 : 그래 물터골예요?] 영. [조사자 : 이름이요?] 물땅골이라고 그래요, 물땅골. 나도 몰러, 전해온 얘기가 물땅골이여.(구술상황 설명 생략)

[조사자 : 저희도 무지 궁금해요. 지금 두 번째 골 얘기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골은 왜 늪은이골이라고 그러 거여. 늪은이골. 왜 늪은이 골이냐, 거기는 늪은이들이 거기서 놀기에 그 판단이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 늪은이들이 맨날 일은 안하고 거기서 그래도 놀고 그랬던 그 골이 있 어요. 거기 골이 이렇게 넓어.

[조사자 :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골은 그게, 그거는 조금 더 저 그래도 핏기 있는 분들이 골을 찾는 건데, 그 골이 제일 길어요. 길으 니까 그 짧은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영통서부터 그 올라가는 길 이 아주 길다고. 그래서 거 짧은이 골이여. 그 다음에 저,

[조사자 :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가 이제 짧은이 골이라고 있어.

이제 짧은데 고걸 운치면, 그 저 오리나무 서낭당을 타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길이 짧아요. 거 예전에 거 서천리 사람, 서천리 처녀하고 황골 총각하고 만나는, 골이 거기가 그 음침하다고 해가지고, 집도 읍어, 거기. 집도 읍어 거기서 만나는 골이 그게 다섯골째 골이여.

[조사자 : 골 이름은 뭐예요?] 거 오리나무골이라고. 오리나무 골이리고 거기는 짧어. 거기는 사람은 얼마 안 살고, 아주 음침해 거긴. 고깔 넘어가도 집이 읍어. 인제 그게 다섯 개 아녀?

[조사자 : 네. 그럼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는, 거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하갈리 방죽이 뵈여. 근데 이거 저 거기 시루에서, 시루 그 오기를 검은 흙이루다가 맨들었다구, 옛날에. 그게 그 고개를 이리 넘어서 이리 가야 시장을 봤다구, 옛날에. 그런데 이 황골사람한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기서 못 가게 하니까 여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시루를 거 검은 시루를 하나씩 뒀다는 전설이 있어.

[조사자 : 아, 그럼 총각골은 어디로 갔어요?] 총각골은 저기 끄트머리 총각골이여. [조사자 : 일곱 골은 그냥 일곱 골이라며요. 할아버지?](웃음) 그게 일곱 골이 총각골이여. 그걸로 끝난 거여.

여 구비구비가 여기서 물탕골, 요렇게 구비가 저그서 일곱 골이여. 저 끄트머리까지.

14 연애 바위

김한선(69, 남)/영덕리T 3앞

[영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무경, 김정선, 김종숙 조사(1999. 5. 27.)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앞의 지명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 바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독립하여 실었다

거기에는 옛날 옛날 그 곡절이 많은데, 거긴 연애 바우라는게 있었다구. 연애바우. [조사자 : 그런데 왜 지금은 없는 거예요?] 아 이래 개간이 되

니까, 이 바우들이 다 읊어 졌지.

[조사자 : 왜 연애 바우?] 거기 가면 연애 바우가 왜 연애 바우냐? 바우가 커다란데, 구멍이 이-만큼씩 뚫어졌어. 거기에 대해서 왜 옛날에 소꿉장난덜 해잖아. 그 바우를 자꾸 인저 ‘술단지 건다’ 그리고 돌맹이로다 캔게 이렇게 뚫어진 거여. 이렇게 다섯 개가 ‘국 끓인다, 밥 끓인다.’ 인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뚫어진게.

아 이것 녹음이 되는 건가? [조사자 : 그럼요. 보세요. 여기 테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어. 그래 저 밥을 해갖고 해면, 그래도 총각 어른이 인저 저 늙은 할망구랑 이렇게 사귄 사람이 거기서 놀구 그렇게 지내구. 소꿉 장난 해구, 연애 걸던 그 묘(모)이한다 그런게. 이게 전설인게.

15 원수 고개

김한선(69, 남)/영덕리T 3뒤

[영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무경, 김정선, 김종숙 조사(1999. 5. 27.)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마을과 관련된 지명에 대해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이곳에 있는 느티나무에 대해 말씀하시다 조사자가 고개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옛날 들은 얘기인데, 원수 고개 거기 가면은, 거기 옛날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도 외진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소를 팔아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살해 당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원수 고개라고 이름이 지은게 있었요.

[조사자 : 원소요?] 원수. [조사자들 : 원수. 왜 살해 당했데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돈을 뺏어 갔으니까, 소 팔은 돈을. 그 산이 굉장히 지금도 험해요. 요즘도 요기 요 산 넘어 들어가며는 사람이 안 사는데, 그 고개가 하나 있다고요.

16 나무가 베어 나빠진 영덕리

김한선(69, 남)/영덕리T 3뒤

[영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무경, 김정선, 김종숙 조사(1999. 5. 27.)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마을에 관한 잡다한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해 주었다.

솔직히 나무가 자꾸만 읊어지고 나서 이 동네가 좀, 사람들이 잘 살았었는데, 그 당시 옛날에 제일 부자 동네였거든. 그래서 황골이라면 제일 잘 사는 동네였었는데.

저기 앞에 숲이, 나무가 자꾸만 잘려져 나가면서 그 복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요 앞에 쪽 나무가 있었거든. 숲의 나무가. 이 동네를 외위싸고 있는 동네. 이 뒷전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기가 빠져 나가니까, 나무를 잘르니까. 자꾸만 베어 가고, 일본 사람들이 그 집짓을 사람은 다 베어가고, 이 앞에 숲이 이것 개발해기 전까지 조금씩은 있었어, 저기 뚝에.

그전에 여기 앞이 안 보였다고, 저 길에서. 그 정도로 많은 숲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숲이, 나무를 비고 나서 참 이 동네 사람들이 못 살기 시작한 거지요.

17 원천과 인가의 유래

김한선(69, 남)/영덕리T 4앞

[영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무경, 김정선, 김종숙 조사(1999. 5. 27.)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잡담을 하거나 생각이 났는지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① 먼내

저기 저 원천, 원 원천이라는 데가 있죠? 원천이 옛날에는 먼내라고 그랬다고, 먼내. [조사자 : 먼내?] 먼내. [조사자2 : 먼- 내] 잉 먼내.

왜냐면 여기(영통)에서 가깝디도 않고, [조사자 : 멀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중간이라고 해가지고, 먼내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이것 먼내.(웃음) 그래가지고 이것 원천이라는 데가 먼내고.

② 신갈

여기 신갈이라는 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신갈이 개울이 많잖어. 이 하갈리니, 뭐 저 서천리, 서천리도 천자가 내천(川)자 아녀? 그래 우갈리, 우갈리도 그 개울이 많어. 고속도로라나 뭐. 그래서 갈래라고 그랬어. 갈래.

왜냐면 내천자에 네 갈래로 뻗었다. 내 천자, 내 천자니께 네 갈래로 뻗었다는 거 아녀? 그러니까 그 갈래라고 하는게, 신갈을 옛날에 ‘갈래’라고 그러고, 원천을 먼내라고 그랬었지.

그래 그렇게 옛날에 짚신짜를 신고 땡길 적에, 그 뭇간가 먼내는 하루 갔다 와도 짚신짜이 덜 달고, 그러니까 거 짚신해서 먼내. 갈래는 위낙에 개울이 많다고 해서, 그 개울이 많잖어? 신갈 가면. 저 태평양 화학서부텨 접쪽에 저 지곡리, 구성면도 뭐 냇갈 빼놓고 뭐 있겠어? 거 다 냇갈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되서 갈래라고 그런 거여. 갈래! 내천자. 그래서 갈래.

③ 황굴

여기는 황굴(황굴마을을 가리킴)이라는 게, 내가 불적에는 한문으로 풀어 보면 곡 곡자라는게 들(덜) 좋아. 곡곡은 눈물 고인 곡이란 말이여. 눈물고인 고인 곡곡. 거 곡을 한다 하는 곡 곡자라. 벨루(별로) 몇 대, 3대

지나면은 다 그, 그 집안이 망해. 신씨, 이씨, 그런께 이씨, 신씨, 최씨, 김씨 다 망해서 됐구. 처음에 와서는 흥하다가 오래, 3대를, 아니 3대는 지나지만 4대까지는 못 나가. 여기가 그런 데여.

[조사자 : 그게 왜 그럴까요? 지명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한문으루 풀이하면 이름을 잘 지면은 벼슬도 따고 왜 그거 있잖어. 환 환경이 좋으면 벼슬도 되고, 뭐 산소자리 좋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제 그 고전 문화를 자꾸 캐고 보면은 그런게 조금 들어가잖어.

3) 민요

1) 짜장가

양선명(81, 여)/영덕리T 1앞뒤

[영덕 4리] 박종수, 강현모, 김효순, 김윤미 박진숙 조사(1997. 5. 18.)

앞에서 시집살이에 관한 말씀과 도깨비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 민요는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을 말씀하던 도중에 불러준 것이다.

멍멍 개는 짖는다.

꼬꼬 닭은 운다.

자장자장

하면서 뚜드리고 이렇게 등어리를 뚜드려 가면서,

우리애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

그냥그냥 이렇게 재밌었어. 엽고 땡기면 그냥 이 사람이 얼러 보고, 저 사람이.

Ⅲ. 수지읍

- ① 풍덕천리
- ② 동천리
- ③ 고기리
- ④ 신봉리
- ⑤ 성북리
- ⑥ 상현리
- ⑦ 죽저리

여 백

1. 풍덕천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공해선, 김경예, 김혜영 조사(1997. 5. 26.)

풍덕천리는 수지읍의 중심지로 용인시에서 차를 타고 서북쪽으로 30분쯤 가야 하는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분당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다. 이곳은 대단위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완전한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로망을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마을의 동쪽 끝을 남북으로 지나고, 마을의 남쪽은 수원과 광주를 잇는 4차선 국도가 지나며, 인접의 신봉리와 합하여 수리지구의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용인군 수진면에 속하였던 풍덕내, 풍덕천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토월리, 신리, 정평리의 일부를 합하여 풍덕천리라고 하여 수진면에 편입되었다. 이 풍덕천은 이방원의 자객에게 죽은 정몽주의 시신을 고향인 경상도 영천으로 운구하는 도중, 이곳에서 명정이 불어온 바람으로 날아올라 현 묘소에 떨어졌다고 하여 풍덕에서 왔다(來)는 풍덕래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내는 하천을 가르키는 천(川)와 같이 발음되었기 때문에 천자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곳은 옛날에 전쟁터로 풍덩풍덩 빠지기 때문에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풍덕천리는 풍덕내, 토월, 새말, 정평, 해방촌 등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었다. , 왜적과 싸웠던 방축이 세워졌기 때문에 방축골이라고도 하는 토월은 달이 뜨는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정평은 들 가운데 정자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고, 새말은 토월마을의 남서쪽에 새로 마을이 생겨 붙여졌다. 그리고 해방촌은 해방 후에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2) 설화

1 아들 낳다가 금을 얻은 효자

최난중(70대, 여)/풍덕천리T 1와

[풍덕천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공해선, 김경예, 김혜영 조사(1997. 5. 26.)

조사자는 고층건물이 잔뜩 들어선 수지읍 지역의 중심지인 풍덕천리에 도착하였다. 막막한 속에서 생각한 것이 노인정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노인회관을 찾아갔는데 할머니 몇 분이 화투를 치고 계셨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노인회 부회장인 최난중 할머니께서 선뜻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아들을 5형제를 낳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인제 아버지가 병이 들었대, 살다가. 인제 그 아들들이, 또 아이들을 죄 한꺼번에 낳는지. 애, 갓난애들이 다섯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일돌이, 이돌이, 삼돌이, 사돌이, 오돌이 이렇게 지었는데,

“일돌아!”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고 그래.

“갓난 애기를 갖다 묻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면은 그것을 뜯어다가 약을 하면 내 병이 낫는데더라.”

그러니까.

“못 한다.”

그러더라. 그래 네 아들이 다 그랬는데, 막내 아들은 잉 저기 할 수 없이, “인제 그렇게 하겠다.”

고. 인제 대답을 했대요. 그래 인제 그냥 인제 엄마, 아빠는 그냥 아를, 즈 그 마누라한테다가 업혀가지고 산중으로 파러 갔대요, 인제. 산중으로 파러 갔는데 그냥 애기가 병글병글 웃으니까 한 번 파고 들여다 보고 두 번 파고 들여다 보고, 묻기는 물어야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래도 이걸 부모 명령이니깐 그냥 부모를 살리기 위해설랑은 그걸 인제 끝까지 파는 파는데, 거진 파서 인제 애를 늘라고, 저기 애를 즘음에 장땡이서 받으니까는 그냥 왜,

“땡-!”

하고 소리가 나더니, 이런 금 덩어리가 솟더라고,(주먹을 움켜쥐면서) 거기서.(일동 놀람) 그래서 인제 아버지한테 효도를 저기 해서 애도 안 묻고, 그 금 덩어리를 갖다 아버지를 병간호를 해서 낫대요. [청중1 : 그 참 옛날 얘기네.] [혜선 : 할머니! 그런 데요, 그 금이 어디에서 낫대요?] [청중1 : 그 부모를 잘 모시면.] [청중2 :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땅에서 솟았다잖아. 그런게 다 그게 부모에게 효를 한다고.

[청중3 : 효심에 된거지 뭐.] [청중1 : 그니까 부모한테 잘하면 복이 돌아오는 거여, 그계. 그러니까 부모한테 하면은.] [경예 : 효자네요?] [청중1 : 그럼, 효자 아들이지.] 그럼 부모에게 효한 땡가로드.

2] 은혜 깊은 노루

유용숙(70대, 여)/풍덕천리T 1앞

[풍덕천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공해선, 김경예, 김혜영 조사(1997. 5. 26.)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말 주변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자꾸 권하자 마지 못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옛날에 짚신장사 하는데 할아버지가, 짚신장사를 하는데 옛날에, 저 조기 이평화 집 지금 조 용인에. [조사자1 : 이 동네요?] 용인. 용인이지. [조사자1 : 용인요?] 이평화 집.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짚신을 삼고, 삼으니까 노루가 뛰어들어 오드래. 방으로 응. 그래서 인제,

“너 왜 여기로 들어오니, 들오니?”

허니까. 표(포)수한테 놀래서, [조사자1 : 포수요?] 응. 표수가 잡을라고 허

니께 방이루 들어 왔지. 그래서 거기 가서 인저 안늑해도록 해 놓고,

“에이. 여기 있다가, 있다 가거라.”

자꾸 할아버지, 짚신장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머리를, [조사자1 : 노루한테요] 응. 바지를 이렇게 노루를 쓰다듬으니까 가만히 있더라, 노루가. 그래서 인저 얼마 만에 나가더래요.

“인제 가거라. 갔겠다.”

인제 해가 일썬 한데 ‘가거라’ 그러니께, 그 짚신장사 할아버지 이렇게 입은 저 바지를 이렇게 잡아당기더라. [조사자3 : 노루가요?] 너 왜, 응.

“너 왜 그러니? 날 난 왜 해고지 할려고, 해꼬지 할려고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러니까. 대가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안 그런다.”

고. 나가서 쫓아갔대. 인자 쫓아갔데요. 아이 쫓아가니께 큰 덩풀이 있더라. 큰 덩풀이 있는데, 거기를 발로 이렇게 노루 막 파더라. [조사자1 : 땅을 파드래요?] 덩풀 속. 그래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냥 인삼이 그냥 거기서 꽃이 피 있더라요. [조사자1 : 덩풀 속이에요?] 응. 그래서,

“그것 캐라고. 그거 캐라.”

고 해서. 그래 그 이튿날 인저, 저기 가지고 그걸 표를 해 놓고 캐러 갔어. 그걸.(청중의 질문과 조사자의 답변 생략) 그걸 캐서 나랏님께 갖다 바쳤대, 삼을. 그 인삼. 산삼이지, 인삼이여. 산삼.

그래서 지금에 용인 노루실 이평화 집이, 그래 이름이 이평화 집이야. 거기가. 노루실 노루실 있어. 그렇게 그냥 에러워서 그러디, 그래 이평화가 되었다고. [조사자1 : 이평화요?] 이평화 집이여.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나랏님께 바쳐야지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읍다.”

고. 그 나라, 나라에 지금께 모양 대통령 있잖아. 나랏님께 바쳤어. 그거야 얘기는.(웃음)

[조사자3 : 그래서 상도 타고 그랬대요?] 응. [조사자3 : 상도 타고 그랬대요?] 암. 상도 타고 부자 됐지. 조사자 : 나랏님께 상 타고 이 그림. 산삼을 바쳤는데, 임금, 임금님께 바쳤는데.

[조사자1 : 그럼 노루가요, 그게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 거네요?] 그렇지. 노루가 인제 살려준 거여. 짚신장수한테 그렇게 살게 밀고해 준 거여. 은혜를 갚은 거여. [조사자1 : 재밌어요.]

3 도깨비불

최상남(70대, 여)/풍덕천리T 1앞

[풍덕천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공해선, 김경예, 김혜영 조사(1997. 5. 2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유용숙 할머니가 끼어들어 이야기 판이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넷가에 빨래를 하러 가는데, 파란 불이 왔다갔다 혀. [조사자1 : 할머니가 직접 보셨어요.] 아니. 우리 엄니가 그러서. 그전에 나는 조금했으께로 모르지. [조사자1 : 그 넷가요요. 빨래하러 가는데요?] [조사자2 : 그럼, 무슨 사고 같은 건 안 나셨어요. 사람이 죽는다던가 도깨비불을 보면요.]

응, 그런 일은 없어. 그런 건 없어. 그건 봐서. [유용숙 : 나도 봤어. 우리 저 작은 올케네 가는데, 둘째, 셋째 올케네 가는데 도깨비불이 여기 이렇게 읊으리고 있다가 퍼져요. 있다가는 또 경충 저만치 쉬-이 가서 개울로 건너가. 또 그렇게 가서 쉬-이 허면 물방앗간 있잖어. 그럼 그집 가서 들어가드라고, 물방앗간으로.]

[조사자1 : 파란 불이요?] [유용숙 : 그게 도깨비불이지. 허깨불. 그거 허깨불이야. 허깨불. 그건 봤어, 나도 봤어.] 우리 저 청계산으로, 그때 15살에 시집 왔을 적에, 아니 그 시어머니가 얘기를 낳는데 인자,

“진지 잡수라.”

고. 인자 더우니까는 인제, 살구나무 밑에 낭구를, 살구나무 밑에 마당에 이렇게,(녹음 방법에 대한 대화 생략) 그러구설랑 저기 했는데, 이러구 어린애를 안고 그러구 있는데. 그냥 모래를 딱 이리 끼얹어. 그게 도깨비대.

[청중 : 그게 도깨비여.]

도깨비 그거를 저기 잘 위해야 하는데, 위하질 못하고 떡을 안 해다 놓고, 그래서 인저 그걸 무섭다고 인저 이사를 왔어, 이루. 이사를 와가지고 살았는데, 도깨비터래 그게. 응 그레가지고설랑은 무서워서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 왔지 뭐야. 그레설랑은 그게 끝이야.

도깨비가 있어, 있기는. 도깨비란 놈이, 한참 저기 딸이 전에 왔는데, 자기네 살던 데서 얘기를 해요. 아침에 아침을 하려구 나오면은 솔당이 쑥 들어가 있더라. 솔단지. [조사자1 : 솔단지 안예요?] 응. 솔뚜껑이 쑥 들어가 있드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아침도 못 해 먹겠으니. 도깨비가, 도깨비가 장난이지. [청중 : 부자가 되는 건데.] [조사자1 : 도깨비요?] 아. 그래서 인저 들어 갔다야. 들어가면 똑 여전히 솔당이 덮여 있어. 부자터가 되더라. 도깨비가 그렇게 농간을 허는데, 부자가 되드래. 솔안에 쑥 솔당을 디밀어 넣고. 아이 아침도 못 해 먹고 이것 큰일 났네. 어떻게 해여. 좀 아침이나 좀 해 먹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나가 보면 여전히 뚜껑이 덮혀드라고.

4 복을 가져다 주는 쪽제비

명경자(67, 여)/풍덕천리T 1앞

[풍덕천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공해선, 김경예, 김혜영 조사(1997. 5. 2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던 제모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야기판을 독차지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시는데, 우리 할머니가 딸이 잘 사는 아주, 할면네 집이 부잔데, 인제 다 시집들을 갖는데 인제 하나 남았다. 인제 고 것이 마, 시집을 마침 가게 됐는데, 쪽제비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더라.

그이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시집을 왔는데 그게 가마에

그냥 어떻게 얼릉 타는 걸 못 봤대. 그래 얼른 올라 탔는데, 아유 집이를, 신랑집에 와가지고 내리니까, 아 쪽제비가 달카닥 내리더라. 내려가지고서는 이냥, [청중 : 그 쪽제비도 저거여.] 그 옷에 썩여 왔다.

옷에 썩여 왔다. 그래가지고서 이 집은, 그냥 아주 신랑 집이 못 사는데, 아주 그냥 금새 금새금새, 뭐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그냥 뭐 비가 절새를 맞춰서 착착 잘 오고, 농사도 잘 짓고.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부잔데, 아휴 친정에는 그냥 차츰차츰 괜히 그냥 그지가 되는 거여. [청중 : 다 가지고 왔지.] 그럼. 다 가지고 왔지 인제.

그래 인제 그 쪽제비가 그냥 이 집은 부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늙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그냥 손주 아들들이 그냥 그 땅을 어떻게 샀느냐 하면은 오 형제가 있는 대로 시집을 왔더라. 오 형제. 오 형제의 맏이로 왔는데, 그 오 형제가 그냥 다 뭇나무 장사를 하더라.

뭇나무 장사를 해서 벤또 그냥, 뭐야 옛날에는 그냥 양재기나 바가지 쪼각 해다 해서나 반찬도 따로 안 넣고, 찐지 쪼각이나 이만하게 쓸어서 된장이나 뭐해서 이렇게 박아 주면, 그걸 먹고 수원에 가서 그 낭구를 팔고, 올 때는 좁쌀을 한 되나 두 되를 팔아가지고 온대.

아휴, 그래설랑 해던 사람들이 그냥 벼락같이 부자가 되가지고, 소를 사가지고 또 그냥 그거를 인제 또 팔아서, 돼지가 소가 되고, 소가 또 땅이 되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어머 죽을 때 가서 이 사람이, 시집은 이가 죽을 때가 되가지고서는, 그때는 아들딸이 그냥 다 팔아 먹더라. 그래가지고 죽을 때는 도로 그지가 된 거래. 자기 살 동안은 부자였었는데.

그래서 재산은 가져왔다가 도로 가져가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재산을 몇 대로 물려주는 이도 있고 그런 거야. [청중 : 그래서 미느리를 얻으면 그래 복이 들어오는 수가 있고, 부자가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고 그래는 거여, 그께.] 그 친정은 아주 그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시집에 와가지고선 시집을 그냥 부자가 되는 거여. 떠느리를 얻어서 부자가 된거지.

[청중 : 쪽제비는 그께 부자가 되는 거야.](제보자에 관한 조사와 앞의

원인에 대한 대화 생략) [청중2 : 그 쪽제비래. 혼나비허게 보는 것였고 하향고 여긴 나비를 물었잖아. 쪽제비.] [조사자 : 쪽제비가요?] [청중 : 영, 큰 나비 무는 것은 업쪽제비이라.] [조사자 : 쪽제비가 하얀.] [청중 : 하얀 나비에 이 주두덩이에.]

5] 풍덕천의 유래(1)

유용숙(70대, 여)/풍덕천리T 1앞

[풍덕천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공해선, 김경예, 김혜영 조사(1997. 5. 2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동네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묻자 ‘옛날 할머니들이나 알지 우리는 모른다’고 했다. 조사자가 전에 들었던 풍덕천의 유래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여기가 왜 풍덕천이래요?] 풍덩 빠져서. [조사자 : 누가요?] (일동 웃음) 풍덩 빠져서 풍덕천이래. [조사자 : 어디서 뭐가, 어디서 누가 풍덩 빠져요?](일동 웃음) 몰라. 어디서 빠졌는지, 헤엄쳐서 나오지도 못하게 풍덩 빠지는 데가 풍덕천이래, 이름을 그냥.(잠시 생각함)

[청중 : 옛날 여기서 그 상추 전철역에 폭 빠진다는 풍덩, 떨어지려는 처갓집에서 떨어지면 풍덩 그래.] 그래서 웃, 그래 전철, [조사자 :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6] 호랑이의 복수

명경자(67, 여)/풍덕천리T 1앞

[풍덕천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공해선, 김경예, 김혜영 조사(1997. 5. 2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청중 한 분이 앞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의 앞 부분에 대

해 물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음담패설형 이야기로 호랑이의 복수담이 들어있는 것이 특색이다.

자기 고향에를 가는 거여. 얼마나 친정애를 가고 싶은지. 가는 사람마다 백이면 백 명이 다 죽었는데, 이는 안 죽는 거야. 왜 안 죽었느냐며는 호랭이가 딱 내려와서 잡아 먹을라고 보니까는, 뭐를 얼마나 많이 잡아 먹었는지 이냥 빨경터래.

“오냐!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무서운 짐상들이 있구나! 내가 탐비다가는 저게 나를 그냥 ‘깡’ 허구 잡아 먹으면.”

[조사자1 : 아~ 엉덩이에 피가 묻으니까, 호랑이가?] 영. 엉덩이에다 피를 다 묻히고, 이 머리를 다 긴 거를 다 여기다 내리는 거야. 이렇게(머리를 얼굴 앞으로 내리는 시늬를 함) 이 쪽진머리를 다 내리고 이러구 가는 거야. 이러구 가니까,(상체를 숙이고, 뒤로 걷는 모습) 여기(엉덩이)가 빨거니까, 여기(다리쪽) 머리가 제 나구. 그런 걸 보더니 아유 이 호랑이가,

“아유 세상에, 내가 여기서 왕이루 알고 잡아 먹었는데,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허구서. 백 명이나 다 잡아 먹구, 그때 가서 그 사람은 안 잡아 먹구 친정애를 갔대. 친정애를 갔다가 또 오는데 또 그르구 왔대. 또 그르구 오니까 또 여전히 호랭이가 내려왔다는 질겁을 해서 가더래.

“아흐, 나보다 무서우네.”

그래서 그이 집을 혼자 다 가도록 따라가 봤대. 따라가 보니까는 집으로 들어가더래.

“오냐, 내가 저 사람을 언젠가는 잡아 먹어야겠다.”

허구서 거기를 왔대. 와가지구서는, 오니까는 애가 저기 똥누러 나오더래, 달밤에. 똥 누러 나오는데, 그냥 눈은 이렇게 길같이 많더래.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엄마!”

“왜?”

“나 어떤 개가 엮고 이리 뒷동산으로 지내 가, 지내 가!” 그래.

“응? 그래?”

그래서 자꾸 그냥 막 따라 갔대. 식구들이 그냥 직 나와서 된치(후레쉬)불은 없는데 달밤이니까, 그냥 식구가 몽땡이를 갖고, 별거 가지고 이냥 가니까, 애가 벌써 그냥 얼(어디)로 갔는지, 어떤 짐생이 왔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발자국을 보니까 호랭이 발자국이래. 그래 그런가부다 했어, 이제 죽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으니까 고만이야. 그런데 언젠지 또 애가 또 하나 낳는데, 또,

“똥이 마렵다.”

고. 그래서랑,

“요강에다 누라.”

고. 그러니까,

“요강에선 죽어도 안 눈다고. 달밤에 장뚝간 앞에 가 눈다.”

고 그러더라.

“그럼, 누라.”

그랬더니. 아 또 얼마 있으니까 그 뒷동산으로 이렇게 그냥,

“엄마! 엄마! 나 개가 물구 가!”

그러드래. 아유 그래서,

“어머나! 왜 개가 물고 가니?”

고 하더라. [조사자 : 옛날에요?] 응 옛날에. [조사자 : 스님요?] 그럼 아유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개 쫓아 줄게.”

그르구는 아버지 엄마가 다 나가니까는 벌써 기냥 얼루 갔는지 없드래. [칭중 :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밥이냐! 허구 기냥 갔지.] 그냥 갔지. 잉. 그랬는데 또 하나를 낳았어. 또 하나를 낳았는데, 인제 또 인제 얼마큼 자라야 똥 마렵다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때 가서 또,

“똥 마렵다.”

고 그러드래. 그래서 요강에다 누래니까, 개 역시도 거기선 안 눈다고 나갔는데, 그러면 애미가 들이나 쫓아버렸으니, 그 밖에 나가서 뉘어서 데리고 들어오면 어떠우. 그냥 또 그렇게 누웠데. 눈 똥을, 누똥을 적인데, 그

래서 가서 애가 기냥 울면서 기냥,

“어떤 개가 엄마! 어마! 이 뒤로 업구 가, 업구 가!”

그러니까는. 나가니까는 아유 그 날은 놓구 갔대. 애를 떨어뜨리고 갔대. 그래서 그냥 데려다가, 애를 안아다가 데려다 놓으니까 그냥 놀래서 그런지 어찌 그런지는 쪽 뺨고 죽더라. 그래서 그냥 그 자식만 하나 저기 했던 거야.

그러서 나중에 또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애를 열 셋을 낳았대. 애를 또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데를 갔느냐면 저 ‘예뻐양’이라고 하는데, 저 경안인데, 명주 고름이 하나가 얼마나 커요? 그게 다 들어가도 그렇게 길데는 거여. 거기를 빠져 죽은 거야, 애가. [청중들 : 아유, 어메나!] 그래가지구서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아유! 저기 애 떠내려 간다.”

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서 건지니까, 아이구 그 집의 애더라. 그 호랑이가 물어가는 집 애. 그래서 인제 애를 물에서 죽었어.

그러는데 이번에, 이번에 이 저 메누리를 얻었는데 메누리가 아주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한대. 그래 잘하구, 시아버지는 아주 술테보구 그래. 그러니까는 메누리한테 들지. 들지 않는데 유언을 했어.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며는,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인제 죽을 때는 내가 메누리도 많지 않고 너 하난데, 똥을 싸고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는데, 내가 죽는 동시에 너를 왜 불쌍하게 고상을 시키느냐. 다 자식도 구엽긴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도 몰르게 은젠가는 어느 산에 가서 죽을테니까, 내가 너 저 원망은 안 한다.”

그러구. 다 대소방에 가서 유서를 썼어, 돈을 주고. 유서를 써가지구서 장 틈에다가 넣어 났어요. 그랬는데 그 메누리는 하나 안 뭐래고 뭐래고 그러냐면,

“술태부 아버지 거느리는 것만에도 불쌍해 죽겠는데, 내가 만일에 오줌, 똥이나 싸고 죽으면 어떻허니? 그래서 내가 몸 성해서 내가 죽을라고 그

러는 거니까, 너는 조금도 내 나무래지 않고, 지서에서 문초올 때는 조금도 우리 메누리를 나무래지 말아라.”

근게 인제 나갔어. 나가는 날 어떻게 나갔느냐면, 옷을 곱게 입고 인절미를 한 말 해가지구, 그 인절미를 아버지께 드릴 꺼, 또 메누리 먹을 꺼, 그리고 놔두고 나머지를 싸가지구 나갔대. 그래서,

“어디 가시냐?”

니까는. 뭐 거기 저 어디야, 경안서 그 뭐 어디 새골인가 어디인데, 거기 가는데,

“딸네 집에 간다.”

그러드래. 그래서 어무니 가시는 줄 알고,

“어무니! 안녕히 다녀오세요. 어무니 그러구 저 오래 계시지 말고 얼른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드래. 그래서 인제 그때는 전화가 없어서 전화도 못 했데요. 어머니가 안 오시니까는 기냥 편지를 그기다 썼데요.

“어머니가 아무 날 나가셨는데, 여태 안 오시니 님이 집에 계시냐? 안 계시면 편지를 허든지 인제 어뜨케 인편에 기별을 허래.”

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인제 전보를 치든지 그러며는 오나 봐요. 그래서 인제 전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어머니가 안 왔데는 거여, 거기를. 안 왔데니까는 그때부터면 이제는 또 큰딸네로 해도 큰딸네도 안 왔데고, 그냥 목적은 작은 딸네로 간뎀으니까, 거그서 안 왔데니까, 또 큰딸네로 전화를 해도 안 왔데고.

그때부터면 인제 큰 사우가 이냥 발 벗고 나서서 찾는 거여. 그때 죽은, 죽는다고 그럴 때 어느 산구석에 어디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찾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몇 날 며칠을 찾아도 읍고, 몇 달을 찾아도 읍는 거야. 그래서 인제 고만이었지, 뭐. 고만이구서 인제 그래두 기냥 원(은)간을 찾아본다구 사우가 땡기면서 찾는 거야.

찾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뭐야, 등산 땡기는 사람이, 등산 땡

기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여기다가 자기 죽는 거 그거를 써서 저기 해놓고,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함)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죽었어.

그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 산에 가서 폭 업드려서 죽었는데, 인절미도 못 다 먹었드래. 그래 말러가지구 있드래. 근데 새 그런 것들도 다 못 쫓아 먹었는데, 워낙 딱딱하면 못 쫓아 먹는 거여. 그래가지구 있드래. 그래가지고설랑은 어떤 사람들이 인제 내려와가지구, 어느 동네를 왔을 거 아냐. 그래서 거 동네서 그랬대.

“어떤 여잔데, 인절미를 해가지구 가서, 산에 가서 업드려서 죽었다구. 어느 봉이더라지구.”

그랬대. 그러니까는 그 밋 마을을 다 들어서 알을 거 아냐. 몇 달 됐으니까. 그래서 인제 사우가 그 소리를 듣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하루 웬 쟁(중)일을 가도 못 가졌드래요. 얼마나 멀은지. 그래서 그냥 가다가 이부자리 그런 걸 가지고 가서 하루 저녁을 자고, 먹을 거를 싸가지고 가서 먹구. 그래가지구 인제 거기를 또 갔데요.

갔더니 아유 가 보니까, 그냥 그 어머니가 아주 다 살을 짜 먹어서 없구, 뼈다구만 앙상하게 남았드래. [청중 : 그러니까 호랭이가 그런 거지.] 그래가지구, 호랭이가 먹으면 다 먹지. 그래가지구 그거를 다 기냥 가지구 간 자루에다가 제 쓸어서 가주와가지고, 집이서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가서 그 뼈를 제 맞춘 거야. 우리 고종 사촌 형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나 시아버지 누님의 할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렇게.

그래가지구 우리 할아버지가 그 뼈를, 냄새도 안 나드래. 너무 오래 돼가지고 바래서. 비 맞고, 눈 맞고 막 이래서. 그래가지구 그거를 해서 넣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나간 날루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 제사를.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요, 오래오래 살다가, 그 유서를(이하 부분 녹음이 지워짐) 쓰고 죽은 저기루 메뉴라 속 하나 안 씹이고 죽었데요.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유서까지 쓰고 죽었는데, 내가 왜 술을 많이 먹어 속 씹이려고, 속 안 씹이려고 죽었대,”
인제 시아버지는.

7 풍덕천의 유래(2)

용인이씨(? , 여)/풍덕천리T 1앞

[풍덕천리 노인회] 박종수, 강현모, 공해선, 김경예, 김혜영 조사(1997. 5. 2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 할머니들이 이것저것 대해 말씀하는 도중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조사자3 : 근데요, 풍덕천이요 그냥 혹시 전해 들은 얘기도 없으세요? 풍덕천이 왜 풍덕천인지요?]

이름이 왜 풍덕천이냐! 그거는 전에, 옛날에들 할아버지들이 적지.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어 풍덕천 자가 풍뎡이래. 풍뎡이. 그래가지구 풍덕천이라고 불러. 우리는 풍덕천이 우리 할아버지 자리야. 그렇다고 풍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인 이씨거든? 용인 이씨데, 그 풍덕천 거그가 용인 땅이에요. 수지 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지로 들어가는 거여. 지방 인천, 전에 장두 세고, 풍덕천서 전에 거그서 애가 옛날에 거그 ... 싹터여렸지? 싹터, 싹터래나 봐.

[조사자3 : 싹터?] 전에 활쏘구, 전에 활들 쏘구 그랬잖아. 창들 왜, 활 쏘구 옛날에 그래 산들도 점령하구. 또 왜 활들 쏘구 이기며는 뺏는 거여. 응 그래 산들도 뺏구.

2. 동천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동천리는 용인군 수진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동막리와 원천동을 합하여 이름을 지어 수진면에 편입되었다. 동천리는 풍덕천리에서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풍덕천리에 비하여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 마을은 북쪽에 분당구 동원동, 서쪽에 고기리와 인접한 분지형 마을이다. 마을의 형태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동막천과 성북천 사이에 길게 뻗은 형상이다.

이곳에 속하는 작은 자연마을로는 아랫손골, 윗손골, 동막골, 먼내, 성교촌 등이 있다. 이들이 생긴 유래를 보면, 손곡은 아름다운 풀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불려졌는데, 마을이 커지다 보니 아래 위로 나누어진 것이다. 그리고 동막골은 군의 동쪽으로 광주와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막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동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도 한다. 먼내는 머흔내의 준말로 그 뜻이 험한 시내라는 데서 비롯되었는데, 음이 변하여 먼내가 되고 이의 한자어 표기로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성교촌은 천주교도가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2) 설화

①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김가내(81, 여)/동천리T 1앞

[동천 3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조사자들이 동천 3리에 도착하여 찾은 노인정은 낡은 집에 방 한 칸으로 할머니 5-6명이 모여 계셨다.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부탁을 드리자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전설이나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주변에서 권유하자 경상도 말투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저 애기가 하두 울어싸서래. 애기를 업고 어무이가 봤어라. 영 잇어 먹고.

“호랭이가 내려 온다.”

케도 울고, 뭐,

“여시가 내려 온다.”

케도 울고,

“이우지 할무이들 머라 칸다.”

케도 울고, 하도 그런게 안 달게 지서라. 난중엔,

“곶감 주께 울지 마라.”

카이칸네, 아가 딸각 곤치더라.(웃음) [청중 : 그래서 호랭이가 내려왔다면 서.] 응. 곶감 소리를 듣고, 호랭이가,

“와 아이고, 내카만 곶감이 더 무서운 갑다.”

카면서 호랭이가 마 산으로 올라가 비렸대.(웃음)

② 우애가 짙은 형제

김가내(81, 여)/동천리T 1앞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형제의 우애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조사자 : 의형제 의가 좋았다고요?]

형제가 의가 좋아가지고, 인제 저 저 먹고 배(벼)로 이래 해가지고, 인자 벋단을 이래 쌓아 놓으면, 동생 집에 벋단이 좀 작으면 형님이 인자 지고 동생 집이 갖다 주고.

동생도 또 형님 집에 갖다 주라고 헐다고 지고 오고. 그랬지 뭐. [조사자 : 의가 좋아서 그랬다고요?]

③ 형제의 의리는 동서간

김무순(79, 여)/동천리T 1와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 옆에 있던 제보자는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이야기판에 끼어 들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옛날에 할머니가 아들을 둘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은 못 살고 큰 아들은 좀 넉넉하게 살드라. 아래 윗마당인데.

그래 어머니가 평일 아침에는 널롱 나가시면 시어머니만 있었지. 그랬는데 한날은 나락이 거진 팔르게 되니깐 그래도,

“오늘은 일찍 나락을 죄 덮어야 한다.”

고 나가서더니 긴 치매 입고 나가서더라. 그래 인제 가만히 보니까, 한 치매에 다가 큰 아들의 배(벼)를 담아다가 작은 아들네 명석에다가 쏟고, 또 손으로 이렇게 다독다독해 놓고 또 한 명석 또 가지 고래, ‘자식이 저렇구나’ 했다. 근디 한날은 형제 동생맥의 의가 엄청 좋았는데, 한날은 동생맥이 쫓대.

“내가 떡을 해 먹고 자네를 안 줄테니 그런 줄 알라.”

구. 그런게 한날은 인절미를 했는데, 인제 한날은 낭구해 썼으면,

“아이구, 떡 잡수시라.”

고. 시고 그러라니깐, 셋고 들어오더니, 떡을 갖다 노니깐 하는 말이,

“아이, 개들 줌 오래지, 안 오냐?”

그러니깐에.

“아이 그 집이도 떡 해서 어그저께 혼자 먹고 안 줬는데, 우리도 혼자 먹어야재 뭘 주느냐?”

구 그래엿대. 인자 남자가 그럴 듯하게 듣더래요. 그 인제 아랫 동서네가 떡을 했는데. 인제 서로 맘 떠보느라고 해는 게지. 떡을 해 가지구 차려 노니깐, 시동생이지. 시동생이 허는 말이,

“아이구! 어머니 허고 저기 형님들이 안 오려나!”

그러니깐,

“아이 그 집이두 떡해서 접대(전번에) 혼자 먹었는데, 뭘 오래느냐고. 우리도 그냥 먹자.”

고. 그러니까 남자들의 의가 끊어지더래요, 그 예날에. 이나 지금이나 여자들 의리가 좋아야 남자도 의리도 좋은 것야. 세상도 뭐 지금이나 옛날 이나 똑같야. 의리 좋게 사는 거. 지금덜 젊은 사람들은 의리있게 살라면 더 좋지.(웃음) 세상에 좋아서. [청중 : 그려. 말이가 무저쩍 의리가 좋아야 그 밑에도 좋은 거여.]

4 도깨비 일화

김정해(59, 여)/동천리T 1왕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 그 내용에 대해 끼어들면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밀려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금방 소나 기라도 퍼부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자, 이제 도깨비 이야기가 나왔다.

개울 저 근너 밤나무 있잖여, 저기 저 거기 가는데, 복식이 엄마, 거 중 풍 들린 노인네, 거 가는데 뒤에서 자꾸 뭐라고 부르더라, 이렇게요. 그래

가지구는 막, [청중 : 저 개울에 가면.] 개울 저 건너. [조사자 :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왜 거기 장사집, 행여집 있잖여. 거기서 비만 오면,
“땡글땡글땡글.”

헌데. [청중 : 아이 나는 거기.] [청중1 : 그래 불러 싸서 어찌 됐고? 불러 싸서.] 불러 싸서 기냥 하이간 땀을 짖 빼고 갔데요. [청중 : 돌아도 안 보고?] 네. [청중2 : 동생 위문 나갈 때 저 개울에서.] 글썸. 으음 세 번을 그렸디야.

그 개울 있잖야. 어숙어숙할 때면 꼭 송아지 우는 소리가 난디야, 꼭 송아지 우는 소리랴. 그래 진지 소가 울어 싸서 그리야 하고 일어나서 둘러 봐도 아무 것도 없어서, 집에 와서 난중에 들어보니젠 거기서 옛날에 전쟁이 있었다고 하대. 군인이 죽었대. 여름에 죽었다야 군인들이. 그래서 귀신이 우는 소리랴.

[청중3 : 우리 할아버지도 물 푸로 갔다가 오는데 누가 그렇게 울더랴. 옛날에 면장 할배들은 그.] [청중 : 여기 저 고 면장 할아버지 때 들었는데,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 많이 있어.] 그래 정신 차리고 있다가 그 이튿날 올라가면 빗자루가 있더라요. [청중3 : 옛날에 그런 일이드라요. 있는데 뭐라면.] 빗자루더라.

우리 사촌 올케가 사촌 올케가 저기 장사 땡기는데, 밤에 밤에 오는데 기냥 저기 불이 환하게 앞에 켜 있더라여, 기냥 그래. 그래가지구 오는데 집까지 그 불이 밝혀지더라. 그런 사람도 있데요. [청중 : 그기 도깨비 짓이지. 뭐 도깨비 짓.]

그리고 우리 친정 아버지, 친정 아버지는 그전에 소를 팔러 갔는디, 소를 팔러 갔는데 거기 웅덩이가 있었는데, 산에. 큰 웅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디리 부르드래요.

그냥 그래갖구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까지 그냥 소에다가 잔뜩 매고 왔는데, 아 거기가 빠졌데요, 거기가 웅덩이에 빠졌데요. 그냥 막 잡아 땡기는 것 같나. 막 잡아 땡겨 가지고서는 소가 그냥 냅다 뛰는 바람에, 그냥, 그냥 달려 나왔데요. 달려 나왔데요. 그리구 산에서 그렇게 부르대. 날קות은 날, 밤에 늦게 가른.

5 곱감에 놀란 호랑이

김가네(81, 여)/동천리T 1앞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앞 제보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던 제보자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어 구술하였다.

곱감이 무서워서 호랑이가 뛰달려 빠가지고 오다가, 소 잡아 먹을라꼬 소 외양간에 들으가니까네, 소도 소도득늬이 와가지고, 소 또 흠칠라카니까네. 이래이래 보니까 또 뭐시 있더라.

“아이고 내카만 더 무시운 늬이 여기 있는 갑다.”

싫어 쫓아뛰다가 웅덩이에 빠졌다대.(웃음)

6 뽕새의 유래

김무순(79, 여)/동천리T 1앞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 옆에 있던 제보자는 고향인 듯한 괴산에서 경험하였던 도깨비 이야기를 하는데, 녹음상태의 불량으로 녹취할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조사자에게 물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지금 학생들 뽕꾸기 우는 소리 들어? 몰리지. 뽕국이 우는 소리. [조사자 : 아니여. 잘 못 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게.

뽕꾸기가 뽕뽕뽕 해거든. 그거 가만히 들어 봐. 뽕뽕이지. 뽕뽕이가 왜냐? 뽕뽕이가,

“뽕뽕. 뽕뽕!”

하는 게 뽕뽕이면, 옛날에 한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참 어렵더라고. 어려워서 뽕국을 끓여서는, 거기 상에다가 시어머니 꺼하고 남편네 꺼하고 인자

두 그릇을 이렇게 놓고, 시어머니 마실 가신데 모시러 갔더니, 남편네가 자기 썬 줄 알고 다 묵었다는 그거야.

그래 시어머니 모시고 와보니, 시어머니 드실 게 읊지. 그래 인제 남편네가 다 먹었다는 소리를 못하고, 개가 먹었다고 그랬겠지. 그랬더니 이 늙은이,

“요년이 니가 쳐묵었지. 무슨 개가 묵었겠느냐?”

고, 두들기니깐, 그 집 시어머니가 때려서 죽을 때 한 소리여.

“개개객.”

‘떡푹떡푹’ 하다가 개개객하는 거 잘 들어 봐. 그래서 그런 거여.

7 뽕꼭새와 부엌이

김가내(81, 여)/동천리T 1앞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김가내 할머니께서 옆의 할머니에게 질세라 또 한 마디 하였다.

[청중 : 죽었어.] 이러대. 어떤 사람들은 저어 뽕꼭새하고 앵무새하고 그러는데, 앵무새는 시누부고, 뽕꼭새는 저저 올켄대. 시누부가 자꾸 저저 먹고 쩌쩌쩌쩌하는 거는,

“올때마다. 올 때마다. 올때마자.”

‘올때마자’ 그렇게 하는 거여. [조사자 :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때마자’ 올 때마다 먹으러 가 간다고. 그러니께 인제 또 그 부엌이가 한다 소리가,

“엄척더불안제비. 엄척더불안제비!”

그렇게 한다대.(일동 웃음) .

8 뽕북새의 유래

김무순(79, 여) 손분순(67, 여)/동천리T 1와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이 이야기는 김무순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자가 뽕북새에 대해 다시 물었다. 그리자 손분순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래 이 새도 여러 가지여. 공작적인 새도 있고, 우선 도리께할 적에
 “칙칙.”

허면서 ‘개객’하는 새가 있고. 새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뽕북새는 그
 떡국 먹고 시어머니한테 맞아 죽느라고,

“개개객.”

한게야 그게. [조사자 : 그럼, 뽕북뽕북하는 뽕북새는 뭐예요?] 뽕북이는
 그거는 눈에 안 있나.

“뽕북뽕북.”

하는 노래가 있잖아.

(이후 손분순 할머니 구술) 그 그거는 그거 하는 것 아니지. 그거는 해
 가 지면 인제 수제비 뜨느라고, 수제비 뜨느라고,

“뽕북뽕북.”

하지. [조사자 : 수제비를 뜨느라고요?] 영. 눈에 뽕북뽕북 하지. 할머니
 무엇라고 하는 모르지. 해가 한참 7시나 넘으면 그라만마 운다마. 울면서,

“뽕북뽕북.”

이러는 거지. 그거는 수제비 뜨느라고 뽕북뽕북하지.

9 되박 바뀔달라는 새

김무순(79, 여)/동천리T 1앞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김무순 할머니께서 한 마디 더 하셨다. 되박 바뀔달라는 새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다.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되었으면 그러실까. 할머니께서는 또 시집살이 이야기로 돌아갔다.

되박 바뀔 달래는 새도 있어. 되박은 인제 시어머니가, 자기 딸은 큰 되를 주고 며느리는 작은 걸 줬어. 큰 되로 하는 밥이 많잖은가. 작은 되로 하든 밥이 죽고.

밥을 해 놓고 시어머니 보로 푸라고 하니깐, 밥이 죽단 말이지. 그래서 또 며느리들 보고 먹었다고 또 두들겨 팬 거야. 그 옛날엔 그렇게 시집살이가 심했어. 밥 해 쳐 먹고서 밥을 적게 했다고 쫓아 댕겼지.

10 먼 불에 김을 굽는 며느리

김가내(81, 여)/동천리T 1앞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여기서 김가내 할머니께서 시집살이에 관한 3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 첫 번째는 이렇다.

옛날에 그랬더라고. 저 며느리보고 방에 가서 개짓는 소리로, 며느리를,
“김을 꾸라.”

고 주면서, 상을 올렸는데 김이 하나도 없었더라고. 그래

“아가! 아가! 김이 다 어쨌뇨?”

그러하니. 하이,

“어머니! 못에다가 먼저 넣고 물 길러 갔더니마는 다 타뿔고 없다.”

카데. 그러니 후제,

“아가! 아가! 김 꾸울 때는 먼 불에 꾸버려라.”

한날 아침에 보니까네, 마당 복판에서 김을 들고 떡 서 있더라.

“아가! 뭐 하노?” 카니.

“어머니가 먼 불에 꾸으라고 케서, 저 동산에 불 붙는데 김 굽습니다.”

(일동 웃음) [청중 : 옛날엔 미련해서도 시집살이 더 했데이.]

㉫ 하오를 잘 하는 며느리(1)

김가내(81, 여)/동천리T 1앞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여기서 김가내 할머니께서 시집살이에 관한 3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재미있었다.

그리구 시집가면 소도 위하고 개도 위한다 카니까네. 그래 인자 시아버지가 진지 자시는데, 소도 인자 거 으 소죽을 주구, 개는 인자 사람 목고 난 다음에 준다고 안 줬단 모양이재. 개가 ‘공공’ 짖어싸. 며느리 가만 있디, 저저 뭐고,

“아버님! 아버님! 저 아, 이부터 잇어 먹었다야. 아 소씨가 자시는데, 개씨가 공공씨를 하십니다.”

카더만. 시아버지씨 여기를 보니까네 밥티가 하나 있거든.

“아버지 조동지(주둥이, 입)에 밥 붙었습니다.”(웃음)

개하고 소하고는 위해 놓고, 시아바이한테는 조동지라 칸거라.(웃음)

12 하오를 잘 하는 며느리(2)

김가내(81, 여)/동천리T 1앞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여기서 김가내 할머니께서 시집살이에 관한 3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다. 앞 이야기에 이어 바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해 주셨다. 이렇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한바탕 웃었다.

옛날에 한 여름에, 시아버지가 낱구를 해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개가 짖드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개가 왜 짖나 내다 봐라.”

하니까네.

“아 저 샌님이 열무씨를 뒤치락 내치락 겹치니깐 개가 짖는다.”

고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낱구 해 가지고 왔으니, 그때는 상투지. 상투 위에 낱구가 떨어져 있으니깐,

“아버님! 대갈님에 검불님이 붙으셨다.”

고 그랬디아.(일동 웃음) [청중 : 옛날 그 그러고 미련해.]

13 어리석은 며느리

김가내(81, 여)/동천리T 1앞

[동천 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는 미느리들, 내 쪼끄만 나 애들 적에 보면, 그 저기 뭐고. 시어멈씨가,

“아가! 아가! 불 담아서 오느라. 화리에 불 붙고 오느라.”

그러니까.

“예, 가서 봐야지요.”

채로, 가서 채로 불을 담어 오는 거여. 오다가 채 밑이 다 타불리고, 불을 하나도 읊지.

“불을 다 어졌어?”

“채 담어 오니까니 채 밑이 타버려서 불 다 허치고 하나도 읊습니다.”

(웃음)옛날에 그리 어리숙이 살았다고.

14 풍덕천과 이진봉

김정호(76, 남)/동천리T 1앞

[동천 2리 마을회관]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시더며 이장택에 말씀 잘 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집에 가보라고 하시며 집을 알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이장님택을 찾아갔다. 그런데 우리가 나오자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우산을 써도 그 굵은 빗줄기는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비를 맞으며 찾아갔건만 마을 회관에 가셨다는게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그만 돌 수 있다. 그 비속을 헤치고 마을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에 도착 하니 할머니 세 분과 할아버지 네 분이 계셨다. 그런데 아까 할머니들이 계시던 방하고는 분위기가 달랐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그랗게 둘러 앉아 민화투를 치고 계셨다. 우리는 실례를 무릅쓰고 인사를 하고 ‘이야기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다 모르신다고 하시며 화투에 열중하셨다. 아까 이장님 택의 말씀 잘하신다는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모른다며 피하기만 하셨다. 제보자는 여렸을 적부터 여기 사셨다는 토박이인데, 지금은 귀에 보청기를 끼고 눈도 잘 안 보이신다며 한 마디만 하셨다.

풍덕천이 있잖아. 풍덕천 앞에 그 이진봉이라고, [조사자 : 이진보요?] 이진, 이진봉이라 산 이름이 있어, 산 이름.

산 이름이 이진봉인데, 거기다가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저 어디 어디 쫓아라나, 저 아래 쪽이라, 하야튼. 군인이 거기다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거기 병사가 이 옆쪽으로 올라와 해고지라는 데가 있어. 그리 돌아오다가, 저 대장동이라는 데가 있거든.

[조사자 : 대장동요?] 저 안에. 대장이 거기서 잠을 자구, 그러구선 이리 돌아 내려와선 저리 군사를 데리고, 그 아래 충청물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군인이, 그 말하자면 강이야, 강.

그러니깐 산 끝이 강이니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깐 그냥 몰려서 강에가 빠져 죽었는데, 옛날에. 그래서 나 쪼끄마내서도 거그서 그 뭐 무쇠총이니 말이지, 그런 총이 나온 걸 봤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

15 정성을 드리지 못한 만인

이원순(73, 여)/동천리T 1왕

[동천 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그 마을 회관에서 오래 버텼건만 기다린 보람은 없었다. 우리가 인사를 하고 나오는 순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화투에만 열중하셨다. 좀 심심한 기분이 들었다. 마을 회관을 나와서 동네를 해매다가 물어 물어 이야기를 잘 하신다는 할머니의 집을 알아내서 찾아가다. 그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며느리와 그의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하고 소문 듣고 왔다고 하며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쾌히 승낙을 하시며 들어와 앉으라고 하셨다.

정성을 드리려 가서 밤중에 정성을 들리려, [조사자 : 어디요, 할머니?] [조사자1 : 할아버지, 어디에 가셨다고요?] 송말. 산예를 가서 인자 정을 치고, 정을 치고 정성을 드리는데, 하 냅다 뛰어 온다 말이지. 그래,

“아 왜, 이렇게 뛰오 와. 왜 이렇게 뛰어 와.”

그러니깐. 아이 저기 도사님이래나 아 무슨 님이래나, 아 그냥 근게 그 정성드리로 온 사람이 정성이 깨진 거여. 그냥 막 흙을 냅다 던지던이, 문에다가. 그래서 불을 다 끄고, 초불만 내려 놓더라구. 그런 건 봤지. 촛불만 내려 놓더라구.

[조사자 : 흙을 누가 던졌는데요, 할머니?] 만신이. 만신이 인자 정성 드리려, 만신집으로 누가 정성드려 달라고 인자 날자를 잡아와서, 그 산에 가서, 그 산중에 가서 정을 치고 인제 정성을 드리는데, 말하자면 호랭이가 그냥 냅다 흙을 끼얹은 거여. 만신한테로.

그러니겐 이 정성을 못 드리고 집으로 냉큼 뛰어와가지구, 문을 열고 촛불을 내려 놓고 있더라구. 전기불을 끄고 촛불을 내려 놓고 있더라구. 그거는 봤어.

16 지렁이 먹고 눈 뜬 어머니

이원순씨 며느리(40대, 여)/동천리T 1앞

[동천 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다른 이야기는 없느냐고 묻자, 옆에 있던 할머니의 며느님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제보자가 ‘옛날 이야기와 전설이 틀리고’ 하여서, 옛날 이야기면 된다고 설명하자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인제 이렇게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신랑이 외국으로 돈을 벌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인제 이택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봉사야.

봉산인데, 이 뭐 고기는 해 줄게 없구 그래가지구, 지렁이를 잡아가지구 매일 인자 해 주는 거야. 그니깐 엄, 시어머니가 이걸 먹어 보니깐 너무너무 맛있어, 고기가. 그래갖구 인자 그거 하나를 인제 농, 농 밑에다 살짜기 넣어논 거야. 자기 아들 오면 즐라구, 너무 맛있어 가지구.(웃음)

그래가지구 인제 그 기일이 다 돼가지구 신랑이 나왔데요. 나왔는데 인제 자기 엄마가 아들이 오니깐,

“애야! 애야! 응 일찌기 저기 어머님이 이렇게 잘 해 줘가지구, 나 이렇게 고기 매일 해 주고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데 너 즐려고 하나 여기다가 감춰 놔다.”

그래가지구, 싹 끄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주는 거야.

“너두 먹어 봐라. 너무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 이거 지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웃음) 자기 시어머니가,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청중 : 눈을 번쩍 떴어.] 눈을 번쩍 뜬 거야. 그래갖구 봉사를 면했대.(일동 웃음)
 [청중 : 재미있네.]

17 매년 한 명씩 죽는 곳

이원순씨 며느리(40대, 여)/동천리T 1앞

[동천 3리 자택] 박중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재미있다고 하자, 옆에 있던 상일 엄마인 제보자가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를 구술하여 준 것이다.

어느 엄마가 얘기를 엮고, 어느 주말에 비가 하도 오길래 주말 옆에서 비를 가리고 서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깐, 그 주말 가운, 안에서 남자들이 서너 명 있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야! 잉 저 꼭대기 산 위에 소나무가 하나 있데요. 그런데 그 소나무에서 일 년에 한 명씩 꼭 거기서 죽는대. 오늘이 바로 죽는 날이래, 그계. 그래서 우리 셋 중에서 누가 내기를 하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안 갈려고, 무서우니까. 그런게 그 소나무를 꺾어 오며는 어,

“오늘 죽는 날이니까 한 번 갔다 오라.”

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밖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깐, 자기는 너무 돈이 궁한 거야. 그래가지구 들어가가지구 그러는 거야.

“내가 갔다 오겠다구. 으 가서 내가 소나무를 한 딱 꺾어놓고 올테니깐, 그 이튿날 보면 될 꺼 아니냐?”

그런 거야.

“그러면 갔다 오라.”

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인자 애를 업고, 인자 낫을 하나 들고 간 거야, 산애를. 가 가지구 인제 소나무 가지를 탁 꺾고 돌아서 이자 왔어요.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인제, 막 내려오니까 뭐가 획 잡아당기는 거야. 그 래갖구 놀래갖구 낫으로 콧 친 거야. 귀신인 줄 알고.

근데 그제 인제 가지 나뭇가지에 포대기가 걸린 거야. 근께 귀신인 줄 알고 탁 친 거야. 그러구 내려왔는데 얘기가 죽은 거야. 얘기 모가지를 쳐 버린 거야. 그런데 그날 죽는 날 하나가 또 희생이 된 거야.

그래가지구 이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매일 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얘기가 죽었어. 대신 그 여자가 나서서.(일동 웃음)

18 방구 솥

이원순씨 며느리(40대, 여)/동천리T 1앞

[동천 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강면구, 정영은, 장준원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인제 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인제 방구가,

“뽕”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자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느냐고 창문을 그 딱딱 뚜뜨린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다가,

“자네! 소리는 그걸 메꾼다 치고, 냄새는 어떻게 할 건가?”

(웃음)그러더라.

3. 고기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소경석, 전명곤, 김종윤 조사(1997. 5. 18.)

고기리는 수지면의 서북쪽 끝에 위치한 산간마을이다. 이 마을은 서쪽에 광교산, 백운산, 바리산으로 막혀 교통이 불편한 곳이다. 서쪽은 높은 산들을 경계로 수원시 상광교동, 의왕시 오전동과 학의동, 북쪽은 분당구 석운동, 대장동과 인접하여 있고, 마을의 중심 입구인 동남쪽에 수지면 동천동과 인접되어 있다.

고기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수진면 지역인 고분현과 손기동을 합쳐 마을 이름을 정하여 수지면에 편입되었다. 이 고기리를 형성하는 자연마을은 손기, 장의, 곡현, 셋말, 배나무골, 언덕말과 늦은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 손기는 고기리를 중심마을로 손의터라고 하여 마을의 입구에 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호랑이가 많았던 이곳에서 손으로 호랑이를 잡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의는 손기에서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장토리라고 하는데, 산간인데 비하여 토지가 비옥한 데서 붙여졌다. 그리고 곡현은 고분재 또는 고분현이라고 하는데, 마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고분재란 굽은재의 변음으로 보이는데, 의왕시 학의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길이 굽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그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셋말은 고분재와 손의터 사이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배나무골은 옛날에 이곳에 배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언덕말은 언덕 아래 있는 마을이라고 붙여졌는데 안하동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늦은재는 늦은재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것이다.

이 고기리는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산치성을 드리는데, 수태지를 잡아서 지낸다
고 한다.

2) 설화

① 광교산의 혈을 끊은 쩡공

이찬순(37, 남)/고기리T 1왕

[고기 2리 이장택] 박중수, 강현모, 소경석, 전명곤, 김중윤 조사(1997. 5. 18.)

조사자들은 고기리에 도착하여 이곳저곳을 찾던 중에 고기 2리 이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사람들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 설명 중에 인물이 경상도에 많이 나온다는 유래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 중공군들이 넘어와가지고 여기 뒷산, 뒷산(광교산)에 내려오는 혈이 있는데, 그 혈을 끊었다는. [조사자 : 혈을 끊었다는 것은?] 산혈을. 그냥 산인데 쪽 맥이 이렇게(앞산을 가르키며) 내려 오잖아요. 그럼 맥, 맥을 제일 약한 부분을, 너무 끊기 좋은 부분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죠,

인제. 지리적으로 그 옛날에 뭐 따지고 보면, 이렇게 산혈에다가 뭐 쇠 말뚝을 박았다는 등, 쇠물을 부어서 막았다는 등 그런 식으로다가 한 거죠. 산혈을 끊은 거죠. [조사자 : 왜 그렇게 한 거죠?]

에, 그렇니까 옛날에 장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장수들이 전부 그 산맥이나 이런 데서 장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구 그 중공, 중국이나 인자 일본에서는 그 장수들이 나오지 못하게, 장수가 나지 못하게 그 산혈을 끊으며는, [조사자 : 그 기를 막아 버리는 거죠?] 그렇죠. 산 기를 없애 버리는 거죠.

[조사자 : 예전에 중공군들이.] 에, 중국에서 내려와가지고. [조사자 : 아주 오래된,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 얘기죠. [조사자 : 그 언제 쯤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려 때가 그때 될 거요. 오래 됐을 거예요, 이 애

기.

그리고 중공군의 장수가 군사들을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저 이북서부터 끊어 내려오는 거죠. 끊어 내려와가지구 경상도도 일부 못 끊고, 전라도도 일부 못 끊구 그랬는데, 전라도를 끊다 보니까 그 장수가 이렇게 끊고 보니까 자기네 그 조상혈을 끊었다고 그러드라구요. 그 중국 장수가.

[조사자 : 어릴 때 들으니까, 청나라.] 예 그렇죠. 그래 저 끊고 보니까 자기 조상혈을 끊었으니까, 더 이상 안 끊고 그 장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중국으로. 그러니까 그 장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지형에도 밝구 그런 사람을 중국에서 아마 장수로 해가지구 아마 조선으로 내려보낸 모양이죠.

그래 끊다끊다 보니까 자기 조상혈을 끊고 나니까, 그때부터 안 끊고 도로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은 인재가 경상도하고 전라도 쪽에서 많이 난다는 이런 얘기로. 전라도도 일추 다 끊고 경상도로 넘어갈 찬데, 자기 조상혈을 끊었기 때문에 그냥 그리 올라갔다 그러드라구요. 그래 지금 경상도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고.

[조사자 : 아 그게 신빙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 전라북도도 거의 많이 끊었다고 하드라구요. 끊다 보니까 자기 조상혈을 끊어서 그러고 올라갔다 그러드라구요.

2 영무장군 일화

정연수(87, 남)/고기리T 1앞

[고기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소경석, 전명근, 김종윤 조사(1997. 5. 18.)

조사자들은 이장님에게 이 마을의 산신제에 대해 듣고 마을에서 연세가 가장 많다는 제보자를 소개받았다. 제보자는 연세가 여든일곱이지만 매우 정정하였다. 그렇지만 말하는 중간 중간에 발음이 잘 들리지 않아서 채록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영무장군, 대마도 점령할 때 통제사를 지내신 분이. 대마도 전쟁 때 통제사를 지낸 영무장군이라고. 장수가 있는데 예, 여기 이 근처 저기 떠나라고 거기 살피고, 저 고림동 젓고개라고 있어. 해갓구 젓고개라고 몇 집이 있지. 옛날에 거기 공묘가 좋으니까.

아 근데, 아 인제 어느 댜인가노니, 그 손이 임진왜란 때 여기 사는데, 집이 살았었는데, 첫 뭐니 그 손이 얼마 안 됐어. 하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 오니까, 어디로 오냐, 황해도를 금천으로 피난을 갔어. [조사자 : 임진왜란 때 쳐들어 와가지고 여기 있는데, 피신을 황해도 들어가요?] 영. 왜적이 쳐들어 오니까 피난을 갔어요. [조사자 : 피난을 갔다구요.] 네.

그러자 여기 전주 이씨네 늙은 장씨가 있는데, 외가가 장순 이씨인데, 여기서 장순 이씨 구경을 못 한다요. [조사자 : 아 거기 황해도에서요.] 아, 여기서. 요 넘어 좁은 골짜구. 그래 장순 이씨 구경을 못 하는데, 그 분이 황해유수로 가셨거든, 그때 이근찬씨가. 황해유수로 가니까, 황해도 금천골에 갔니까 장순 이씨가 있거든.

“아! 반갑다.”고.

“아! 왜 그러시냐?”

고 하니까.

“아 내 외가가 장순 이씨네, 경기도에선 장순 이씨를 구경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친에 들으니까 옛날에, 전에 웃어른께서 왜적이 쳐올르니까 여기쯤 와서 빼놓고, 너 여기서 살았다.”

고. (지나가는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과정 생략) 아 그러니까.

“그러냐!”

고. 그러니까 후하니까 장사를 훤히 보여. 그때 그 산소가 묶였었어. 시방은 저 사방사업 해 놓고 거기다 다 묻는 거기 때문에. 손이 없으니까 뭐 하나 들어갔어. [조사자 : 예, 소원이 없으시죠.] 인자 황해도로 갔어.

“내 외가 인제, 거기가 장수 이씨 장천부원군여.”

“그러냐고 내 사는 덕경인가.”

그 일러줬거든, 그 외손이니까. 그래 처도 실전을 했었는데. 그 틈 안에 병자호란 때 여 광주 이씨가, 여기 이, 여기 와 장점한 양반이 주다 보니까,

한 염포점배기 누매하고 말짱, 아 막말로 목탄을 귀 먹고 살아도 지낼만 허게 이렇게 자릴 잡았어, 처음에. [조사자 : 아 목탄요.] 네. 그 지방에. [조사자 : 황해도 지방에 목탄이 많이 났었나봐요?] 아, 그럼. 나무가 좋으니까. 그 놈을 맘대로 그, 그때야 허가니 뭐니 그저 마음대로 할 때니.

그렇게 됐는데, 그 장순 이씨의 신두비 있잖아. [조사자 : 신두비요?] 신두비. 아 예전에 대관들 사는데 신두비라고 있어요. 신두비를 빼서 감추고서, 어따 파묻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열 한 살 적엔가 그 찾는다고 황해도 와가지고 무두 불룩불룩한 데는 전부 파보고. 근데 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그렇게 사패를 지냈었는데 그 문서가 있나? 그냥 말 어디 사패라고 말대로 했는데, 시방 땅문서니 뭐니 있잖아요. 그게 읍으니까 전부 딴 사람들이, 전부 땅 그 채고 이려고 그렇거든. 그러자 왜놈 또 일본놈들이 인자 침략해 오니까, [조사자 : 일본놈들이 침략해 또?] 일본놈들이 왜적들이 분풀이 해러 또, 일정 때 말하자면 침략을 해오니까 그 장순 이씨 한 집이 여기 살다가 그 종손네를 거기를 찾아 갔거든. 아 그, 우리 시방 내려오는데, 이러이러헌데 저희가 땅 따 가겠느냐고. 뭐 뭐 아이 분이 올라와서 아 자기 앞으로 쟤다, 전부.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항렬이 높으니까, 대번 내려오시면 시방 정도를 헐라고 허는 걸, 우리 정중을 산을,

“아 좋다.”

고. 내가 그랬었거든. ‘좋다’고 그러니까.

“그 돈은 읍고, 에 아무 때 내려오시면 내 증서를 써 주마.”

하고 말이여. 그래 떡 증서를 써 주고 가. 그래 증손이라는 분이 그 써 줘서. 인저 기일이 되니까 내려가서, 돈 준다는 기일,

“그 증서 내 놓으라.”

고. 그래 돈 궤짝을 이렇게 염내(여느 척) 히고서 증서를 썼거든. 찢어버리고 내 주긴 뭘 줘요, 매만 싫것 맞고 왔데요.(웃음)

[조사자 : 아이, 할아버지가 저 고기 만나셨어요?] 아 그전 얘기 허느니까 그렇지.(기침) 어든 이왕자하고 뭐 그 종손의 아들이 와서, 그 종손이 날보고 그런 얘기를 해. 자기 아버지가 어디 가서 뚜들여 요빈 냐다고. 나

시방 점심 잔뜩 먹고 왔는데

그래 또, 여기 황매만 맞고 땅을, 증서는 딱 며듯이, 증서를 내놓고, 그래 종터가 있음 뒤예요. 에 몇 천 평 되는데, 산이 십삼장 이반삼묘래요. 그 영무장군 시방 묻힌 산이. [조사자 : 산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십삼장 이반삼묘. 그래 성안이 풀은 이걸 따야, 이걸 제 놓았기에 단 사람이, 그 지천이. 그런데, [조사자 : 어느 지역이요? 황해도예요 여기예요?] 여기서. [조사자 : 여기요. 이 고기리에 있어요?] 아 그럼요. 영무장군.

3] 산소 근처에서 너무 못하게 말린 효자

정연수(87, 남/고기리T 1왕

[고기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소경석, 전명곤, 김종윤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완 장군 묘소가 있다고 하면서 배우지 못하여 구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효자 이야기를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자 생각이 났는지 시적한 이야기이다.

효자 얘기요? 효자 얘기는 또 인자 여기 저 판교라고, 고향이 어디인지. [조사자 : 저는 서울입니다.] 여 판교라고 짐작하시지요? [조사자 : 예 판교 이야기.] 판교 넘어 그거 전에 나씨가 사는 데여. [조사자 : 나씨요?] 예, 그래 상을 놔서 인자 그 넘어로다가, 판교가 넘어가, 행촌이라고 하는데, 상을 참 친상을 맞고서 하는데.

판주 어디 지나다 보니까, 거기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때 낭구를, 낭구를 자꾸하고 하루 구냥 허는데, 한 사람이 그 산소 앞에서 대성통곡을 울고 있거든요 그 원이,

“아, 그 무슨 그 그렇게 우느냐?”니깐.

“내 다름이 아니라 내 선산인데, 요기 산이 우리 산이라고 [조사자 : 선산요?] 예. 선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 저 되련님들이 와 낭구를 저렇게 망세기니, 그걸 하지 말랄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있다.”

“아, 그러시냐?”

구. 광주원이면, 그래서 효자집이라구, 요 근처로는 효자집이 나씨백이 읍어요. 효자집이네. [조사자 : 이곳의 효자는 나씨 형제 그 쪽이밖에 읍다고요?]

4 연구를 물리친 11대 묘상

정연수(87, 남)/고기리T 1뒤

[고기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소경석, 전명곤, 김종윤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의 조상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었다. 즉 십대조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로, 원귀 때문에 고을이 폐쇄의 위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그 원혼을 위로해 주고 그 덕분에 벼슬을 하게 되었다는 아량형 전설이다.

우리 할아버지 십대조께서, 춘천 부사또 가 옛전에, 춘간 때 외졌데요, 가면. 도입하면 그날 저녁으로 죽고 죽고. [조사자 : 춘천 그 관가?] 어. 춘천 그때 부사또죠. 그 내 십대조께서 자원을 했었요.

“그 춘천 그 집(신의 잘못)이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내려 가라.”

고. 내려 가셨지. 그래 내려 가니까, 동헌 대청에서 황초롱을 밝히시고, 밤을 인제, 밤새 인제 헐 때, 아마 새벽 한 시 쯤 됐었지. 자정이 지났는데 동헌 대청에다가 황초롱을 이렇게 양쪽을, 그 팔뚝같은 초 있잖아. 그 밝히고 지내시는데, 아 젊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산발하고, 목에 칼을 이렇게 쏘고 어여빠 걸어 오더라.

“너 귀신이나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 저 귀신이올시다.”

“그래, 귀신이면 너 무슨 소원이 있어서 왔느냐?”

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박 아무개라 장 아무개 딸인데, 며 아전 아무가 거 겁탈하려고 해서 용정 싫어하니까 저를 이렇게 칼을 목에 찔러서 이 관사태 고 목나무에다 넣어는데요. 올려놓았다. 여기 사또에게 ‘원수를 갚아 달라’고 이렇게 밤이면 들어와서 앉으면 그날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그런다.”

“아 그러냐고. 내 원수를 갚아 주마.”

그래 그 이튿날 새벽에 되니까 인자 아전들이,

“이 양반도 또 돌아가 어쩐느냐?”

허고. 가서 큰 기침을 해서,

“아무 양반이 인자 쌍반이 오셨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 아침 식사를 에 딱 지나시더니, 이것 아전들 모아 놓고,

“야! 춘천 군내에 에 강원도, 강원도에서 장작 두 개비, 하 숯 한 섬. [조사자 : 장작 두 쪽?] 두 쪽요. [조사자 : 장작 두 쪽허고.] 숯 한 섬. [조사자 : 숯 한 섬요. 이렇게 숯 한 덩어리요.] 그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옛날에는 섬으로 조금만 있었어요. 그것을 구해 오라.”

고 허니까.

“아 그건 왜 구하느냐?”고.

“그자, 해 오라.”

고 그랬단 말이여. 그러니까,

“그 고목나무를, 그 큰 고목나무에다 갖다가 전부 장작하고 숯하고 싸오라.”

고 그러드래. 싸으라고 하니까, 인자 그 춘천군 다 모으니까 그건 뭐 태산으로, 강원도에서 전부 모아 논 것을 거두더니,

“불을 놓으라.”

고. 불을 놓으니까 그냥 불이 막 불길이 하늘에 닿을 법하고, 어 고목나무가 삼시간에 타서 파란 안개가 일더니,

“정 아무씨는 명관입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죽을 줄 알라.”

고. 휘파람을 불고 파란 안개가 일더니 날아갔어. ‘누구 아무 모일에 죽을

줄 알라'고, 그 귀신이. [조사자 : 그 사또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 부사또. 내 십대조여. 그때 부사또 있을 때. 그때 구신 나왔으니까, 내 구대조께서 안주 명사로 가서 20메꺼 계시다가, 제주 목사로 또 갔는데, 기별을 하니

“아무 날 아무 시에 죽을 듯하니, 올라오라.”

고. 그러니까 아들 아니예요. 올라오니까 멀쩡하시거든. 그런데 그 시간에 운명 딱 했어. 그 귀신이 얘기한 날. 운명을 딱 했는데, 그 후로는 고목나무에서 처음 보고, 그 후로 내 구대조께서 부사또 벼슬을 사셨거든. 그런데 지사가 어느 날이나면 시월 시무날이요. 아니야 시월 초열흘날, 시월 스무날이라니, 시월 초 열흘날. 이 몇 년 전에 갔다가, 참 제사에 내가 며칠 땡겼어요.

5] 도깨비불에 홀린 사람

정연수(87, 남)/고기리T 1 뒤

[고기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소경석, 전명곤, 김종윤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도깨비불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였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라 한다.

[조사자 : 도깨비불도 있어요?] 아 불도 있시오. 불이 있는데 인제 또 허지요. 여기 등짐을 해가지고 어디느냐면 거기를 지방 사당동 어디를, 서울서 저, [조사자 : 과천?] 고천 넘어가 남태령, [조사자 : 남태령 고개.] 아래가 그 장승백이라고 있어요. 돌간 밑단에.

거길 가는데 날이 잔뜩 흐렸어요. 잔뜩 흐렸는데 인자 여럿이들 가는 것이지요. 이 집에다 뗏을 들고 이럴 때, 소나무에다 등불이 쭉 걸려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일시에 없어져요. [조사자 : 소나무

에 등불들이요?] 네. 아 저게, 그게 도깨비불이에요, 그게. 도깨비라는게 그게.

[조사자 : 언제 때예요?] 그 때가 내가 열 다섯 먹던 헝가. 옛날 옛적 일정 때죠. [조사자 : 색깔이 있어요?] 소나무 틈에 이렇게 그때에, 시방은 길이 좋지만요, 소나무 틈에 그저 소바리 하나 나서면 짐 신고 땡길만 했는데, 저기 저 소나무곁에 등불이 쪽 걸려 있어요.

[조사자 : 일반 등 켜 놓은 겁니까, 호롱불 켜 놓은 겁니까?] 절에 불 켜 놓았던 것 같이. [조사자 : 연등 동그략게요?] 네. 그게 있는데. 그 근처에 절이 있고 허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닭이, 절이 흰 해. 저 심방절이라고 사뱅이 고개로다가 지나가는 배 있고, 종지기로 내려가는 그 [청취불능] 지나가는 내려 고개가 있어요. 거 가니까 닭이 우는데, 그 불이 짝 없어져요, 닭소리 듣더니. 그게 도깨비불이에요.

6 남사고의 예언

정연수(87, 남/고기리T 1두)

[고기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소경석, 전명곤, 김종윤 조사(1997.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모른다고 하였다. 조사자가 박문수에 대해 묻자 생각을 하더니 이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명지관 남사고의 일화로 후손이 자기의 묘소를 찾을 것을 예견하였다는 내용이다.

[조사자 : 다른 어사 얘기 그런 것.] 어사요 [조사자 : 박문수 어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박문수 얘기. 그런데 저 얘기는 내가, 박문수 얘기는 뭐 자세히는 모르고.

전에 이 인자 정신이 있어빠렸어. 남씨 남, 남 뭐래. 남서골(남사고인 듯) 지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요. [조사자 : 예. 남씨 성을 가지신 분요?] 예. 그런데 자기 그렇게 땡기며, 지사가 암만해도 자기 친상을 보러 땡기는데.

그런데 저 경상도 내려가서 인자 문경 조령, 문경 새재 고개 있담애. 그 연통이러는데, [조사자 : 연풍? 현풍?] 영, 연풍이러는데, 문경 고개 못, 저 새재 고개 올라가는 처참(처음)에 보니까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남씨 비석이거든.

“구대장손 남서구나 개봉청을 한다.”

고 그렇게 허였대. 자기가 남서구인데요. [조사자 : 비가요?] 비가 있는 데요. [조사자 : 신도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남서군데요. 아 그렇게 9대, 9대 장손이래요. 9대 장손인데 ‘이 개봉초를 한다’ 이렇게 써 있드래요. 그래서 거 보고서는, 그 비석을 보고 표를 했드래요.

7 고기리의 지명 유래

정연수(87, 남/고기리T 1뒤

[고기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소경석, 전명곤, 김종윤 조사(1997. 5. 18.)

앞에서 민요를 부른 뒤에 이곳의 지명에 대해 설명하여 주었다. 그리고 난 뒤 이곳에서 지내던 산신제에 대해 설명한 후 조사를 마쳤다.

① 배나무골

옛날부터 이 지역에는 사기그릇을 만드는 사기터가 많았다. 지금은 백토를 구하기가 쉬운데 옛날에는 어려웠었다고 한다. 마을 앞에 죽은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백토를 구해다가 배나무에 주니까 죽은 배나무가 살아 났다고 하여 배나무골이라 하였다.

② 샘 마을

지금 금수골이라고 지금은 기도원이 있는 자리의 바위 사이에 샘이 하

나 있었는데 그곳에 금붕어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을 금수물이라고 불렀고 지금의 샘마을이라는 유래가 되었다.

③ 고분재

마을 앞에 고개가 있는데 곧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굽이를 쳐서 내려와서 고분재라 불렀다.

3) 민요

① 단발령

정연수(87, 남)/고기리T 1 뒤

[고기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소경석, 전명곤, 김종윤 조사(1997. 5. 18.)

앞의 남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나 노동요 아는 것이 있으면 하나 불러 달라고 하니까 시작한 짝막한 노래이다. 이 노래의 유래는 1907년 군대 해산을 계기로 단발령이 내렸을 때 단발령을 풍자하여 불렀던 노래라고 하면서 들려주었다. 음영조로 구술하여 주었다.

왜정병 만나서 부러진 상투
야! 망군아 풍장아 너나 잘 있거라

4. 신봉리

1) 마을개관

박중수, 강현모, 박민, 장세영, 윤희영, 이덕재, 우상실, 최기섭 조사(1996. 5. 18.)

신봉리는 읍소재지 풍덕천리로부터 서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마을이다. 이 마을은 신시가지 건설로 아파트촌의 봄이 일어나고 있는 서쪽에 있는 마을로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의 마을이다. 이 마을은 수원 광주간의 국도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나와야 한다.

신봉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신이동과 서봉동을 합쳐 이름을 신봉리라 이름하여 수지면에 편입되었다. 이 신봉 1리는 현재 40여호에 80여명의 주민들이 밭농사와 논농사를 주업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따라서 농업이 주 산업이고 몇몇 가구에서 양계나 젖소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20여년 전만 해도 주변의 산에서 생산되는 딸감을 업으로 살아온 마을이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딸감은 수원 인근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이 신봉리를 형성하는 자연마을은, 서봉골, 동녘말, 양지말, 옹기점, 중말, 홍천말로 이루어져 있다. 서봉골은 봉황이 살았다거나 마을 위의 골짜기에 서봉사가 있었기에 붙여졌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 이름은 후자에서 전자로 의미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동녘말은 서봉골의 동쪽에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고, 그 중에 양지바른 곳에 있기 때문에 양지말이란 곳이 따로 생겨났다. 그리고 옹기점은 한자어로 점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옹기를 굽던 터가 있던 마을이라고 해서, 중말 혹은 중간말은 신봉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천말은 홍천의 가에 자

리잡은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이 신봉리는 마을의 명산인 광교산에서 신봉리 마을 전체가 산신제를 지냈는데, 최근에는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2) 설화

① 시체를 묻으면 비가 안 오는 명당

이은영(65, 남)/신봉리T 1앞

[신봉 1리] 박종수, 강현모, 박민, 장세영, 윤희영 조사(1996. 5. 18.)

앞에서 이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여러 가지 잔다한 일들에 대해 말씀하여 주었는데, 설화로서 가치가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 중에 조사자들이 신봉리의 유래에 대해 묻자 수지를 설명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한 것이다.

무슨 용인에는 말 있잖아. 저 충북 진천에는, ‘살아서는 진천이구 죽어서는 용인이다’ 그게 뜻이 있는 말이에요. 용인에는 산세가 이렇게 묘자리가 많고, 좋은 데가 많구. 아 진천에, 충북 진천에는 거기가 사람 살기가 그렇게 좋대요.

“살아서는 진천이구 죽어서는 용인이래요.”(웃음)

[조사자 : 아, 왜 그래요? 왜 용인이 뭐 좋은 터가?] 용인은 저 이, 이 저 산이, 이렇게 산소자리가 잘 빠진 데가 많다. [조사자 : 아! 명당자리가 많다고요?] 응. 명당자리가 많다는 거지.

거 뭐 저 나오잖아, 테레비에도 거물급들은 거의 이냥 뭐 산소자리고 뭐고 그냥 사가지고 몇 천 평씩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뭐 너무 허는 거여, 그건. [조사자 : 요 근방에는 유명 묘자리든가, 묘자리에 얽힌 뭐 얘기라든가, 아 옛날에 무슨 묘를 써가지고 정승이 났다더라.]

요 저게 감교(광교)산이여. 감교산. 감교산인데. [조사자 : 감교산요?] 응. 감교산인데, 여기 여 골짜구니 어디 그 산소자리가 유명한 데가 있대

요. 거기다가 아 그 갖다가 시체를 갖다 매장을 하게 되면, 이 자손들이 잘 되고 또 부자가 되고. 그런데 그게 뭐 미신이겠지.

그런데 그 몰래들 밤에, 그걸 이제 비가 안 온대. 또 거기다 갖다가 사람을 갖다 묻게 되면. [조사자 : 아, 그 자리에다가요?] 응. 비가 안 온대. 비가 안 오구. 그래가지구 인제 사람들이 낮에 가서 파구. 전부 찾아보구, 비가 안 오면. 그 전에 많이 그랬었다구.

그래가지구, 그래가지구 누가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 소릴 듣구 거기다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밤에, 몰래 그냥 밤에 갖다 거기다 묻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야단이 나서, 비가 안 오구 그래가지구. 그 옛날엔 인제 미신들을 많이 믿었으니깐. 인제 그걸 파서 동네 어디 갖다가 이장을 시키게 만들구. 그렇게 했지.

그래 그런 자리가 여기 있었다구. 저기 골짜구니 감교산이란다. [조사자 : 아, 다른 건 또 없어요?] [조사자2 : 좋은 묘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구.] 응. 거기가 있고.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한 군텐데, 감교산에.

② 빈대 때문에 망한 광고산의 절들

이은영(65, 남)/신봉리T 1앞뒤

[신봉 1리] 박종수, 강현모, 박민, 장세영, 윤희영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산신제에 대해 말씀하였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지 이 광고산에 절들이 많았다고 하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이 감교산이라는 데가 절이 유명했었지, 절이. 절이 아주 팔만 구암자가 있었어. 팔만 구암자. 그러니까 저 산에 거의 다 절터였었어. 지금도 가보면 이 축대 쌓고 비석 있고 다 있어, 지금도.

[조사자 : 지금도요?] 그림. 거 저 스님들이 왜 망했느냐? 빈대, 빈대지. 절 몰르 거여, 말만 듣고. [조사자 : 빈대 알죠] 빈대. 그게 저 썩드기처럼

빨게요. 아유구 그게 그게 물면 씨리고 그냥 잠도 못 자요. 그래 거 빈대 때문에 그 스님들이 망했데요, 거기 절이. [조사자 : 아, 빈대 때문에 망했대구요?] 응.

빈대가. 지금도 말 들어보면 뭐 돌 속에 빈대가 있는데, 모르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빈대가 많았대요. [조사자 : 그 산 터에, 절 터에요?] 응. 절에 그렇게 빈대가 많아 가지구 절이, 그 절이 팔만 구암자면 엄청난거지, 팔만 구암자. [조사자 : 아 그렇게 절들이 많이 있었다구요?] 응. 그렇게 절이 많아. 그래가지고 빈대 때문에 망했대. [조사자 : 빈대는 그런데 어떤 때 많이 생겨요?]

거 난 그건 몰르구. 그게 어떡해서 빈대가 어디서 생기는 건지 그걸 난 알 수가 없어. 이 같은 건 내가 알기에 저 영양실조, 그 이렇게 잘 못 먹고, 거 먹지 못하면 생기는대. 근데 우리도 끌려 갔지만 군대 가서두 이가 있어가지구.

그게 물으면 씨리구 피를 빨잖게 빨아 먹어요. 그리구서 이런 종이 뚫어진데, 이런데 방바닥 뚫구 나가구. 사람이 잘 못하면 또 와. 나와가지고 이렇게 빨아 먹구. 빈대가 아주 그냥 그렇게 시리구 아파요.

3] 흙을 끼얹으며 장난치는 호랑이

이은영(65, 남)/신봉리T 1뒤

[신봉 1리] 박종수, 강현모, 박민, 장세영, 윤희영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마을에서 행하는 세시풍속이나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 이제 그 호랑이가, 그 진짜 잡아 먹으려고, 사람 해 끼치려면 금방 와서 잡아 먹지. 그런데 그냥 장난을 놀구.

그냥 그 얘기책을 빌려가지구 오는데, 호랑이가 그냥 흙을 푹 끼얹자

지구 그냥 머리가 하늘 끝까지 솟구 그냥. 무섭지, 그 얼마나 무서워. 그래 인제,

“점잖은 짐성이 왜 이러냐?”

고. 이냥 소리 지르고. 그거 무서웠지, 인제 지질러져 쓰러질 거 같으지. 흠을 푹 끼었는데. 그 왜 인제 조금 올라와 보면, 또 앞에 와서 장난을 놀구. [조사자 : 꼬마가 책 빌려오는 데요?] 응. 그러니까 그 해 끼칠려, 무슨 그 까짓게 금방이지. [조사자 : 장난 칠려구?] 응. 장난 칠려구. 이렇게 장난을 놀구, 흠을 푹 끼었는데 호랑이가 이 그렇대요.

4 호랑이와 싸워 이긴 소

이은영(65, 남)/신봉리T 1뒤

[신봉 1리] 박종수, 강현모, 박민, 장세영, 윤희영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산신제에 대해 말씀하였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예전에 호랑이가 많긴 많았었나 봐. [조사자 : 이쪽에, 이쪽 동네가요?] 응. [조사자 : 산이 좋아서 그런가 보죠?] 응. 산이 인제 크구 그래 가지구. 인제 그제 영물 아니야. 산에서는 그제. [조사자 : 신령.] 아주 뭐 증말 참 육지에서는 사람이 대통령을 먹지만, 산에서는 그제 이냥, [조사자 : 호랑이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가 얼마나 치(최)고 아니여, 산에서.

그제 누가 수원, 수원을 갔다 오는데, 저 고개 끝에가 있어요. 저기 고개. [조사자 : 저 고개가 있다고요?] 이리로 넘어가면 저 고개가 크진 않아도, [조사자 : 조그만한 고개가요?] 버들치 고개라고 있어. [조사자 : 버들치 고개요?] 버들치 고개. 저기 그 상현리, 그 수원시로 되어 있는데, 저 한참 가야 돼. [조사자 : 이쪽 맞 동네가 상현리입니까?] 아 여기는 성북리구. 고 너머가 바로 상현리야. [조사자 : 상현리요?] 응. 경희대학교

있는데.

인저 거기, 인저 나무를 팔고 오는데, 인자 호랑이가 사람을 해칠려고 인저 하는데, 이 소가 또 동작이 그렇게 빠르대. 거 인자 소를, 인자 호랑이가 사람을 해칠려고 그러면, 인자 소, 소한테 가서,

“시다. 시다.”

그냥 해 쥐야 된대. 그래 사람이 먼저 무섭다고 오면, 그 오면 소하고 싸우게 맨들, 내버려 두면 집에 와서 그냥 전부, 인저 사람이구 뭐구 눈이 뒤집혀서 사람도 전부 죽인테요, 소가. [조사자 : 소가요? 호랑이를 만나면.] 잉. 그래가지고 호랑이하고 같이 사람하고, 사람이 거기서 응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여. ‘시다. 시다.’ [조사자 : 아, 사람이 도망가면 안 돼구?] 응. 그래 가지구, [조사자 : 소보구 힘 내라구.] 잉.

이 소가, 자기 다리 밑에다 사람을 넣고, 그냥 호랑이가 오면 뿔로 받아 쳐가지고, 그렇게 빠르테요. 그런게 호랑이가 진테, 소한테. 소가 그렇게 힘이 좋고 빠르데 동작이. 그렇게 그 흉난 소는 갖다 부리지도 못한테, 인저 잡아서 도살을 해야지. 소가 아주 눈이 뒤집혀진대. [조사자 : 호랑이하구.] 응. 그렇지. 호랑이하구 싸우고 왔으니까.

그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사람을. 그 얼마나 영물이여. 사람을 그냥 알아가지고, [조사자 : 아래다 깔구.] 꺾 다리 밑창에다 넣고, 호랑이하구 그냥 들어오면은 뿔로다가, [조사자 : 소가 진짜?] 잉. 소가 힘이 얼마나 좋은대. 그러니까 한 번 받아서 저기 하면 나가서 떨어지고, 나가 떨어지구 그렇게. [조사자 : 사람한테 참 고마운 동물이에요. 그렇죠?] 아- 고마운 동물이지. [조사자 : 농사 지어주고.] 응.

거 소가 미련하다고 그래도, 미련하지 미련하긴. 그런데 이 수원에. 이 우마차 달구지 끌고 나무 팔러 가면, 그냥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달구지 위에 타고 오면, 그 수원서 그냥 다 집이 다 찾아와요. 다 찾아와서 마당에 와서 딱 서서, 인저 하면은, 인저 집식구들이 나가서 소 길마, 이렇게 뭐 전부 띠구, 해서 끌어다가 소죽 먹이고 밥 주구 그러지. 그렇게 소가 길, 길눈은 아주 밝아요. 몇 번 왔다갔다 하던데 다 찾아 와. 그래 소가.

소가 그 영물이여, 소도 호랑이 하구 그렇게 싸워가지고 틀림없테요.

아주 그건. 이 고개에서 한 번 그렇게 싸웠었다. [조사자 : 저 앞 고개에서요?] 버들치고개라는 데서. [조사자 : 버들치 고개요?] 다리 밑창에다 사람을 넣어가지구 그냥 살리려구. 그래가지구 저만, 지가 희생되어 죽어도 사람을 살리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소가 고맙지. 고맙기만 해. 그래 싸우는 걸 보구 사람이 그냥 오면, 집에 와서 사람도 죽인대. [조사자 : 눈이 뒤집혀서.] 응. 뒤집히지. 그렇게 소가 영물이래.

5 호랑이와 싸운 사람

이도상(81, 남/신봉리T 2와)

[서봉마을 길개 박종수, 강현모, 이덕재, 이상실, 최기섭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은 신봉 1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다 8대째 살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다. 우선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도중에 전설을 들었다.

호랑이가 많이 있었대나 봐. 여기 마을 갖다가, 가다가 호랑이 하고 싸움을 하고 그랬다는데. [조사자 : 아 그랬대요. 그럼 기억 나세요. 그런 얘기?] 그런 소리만 들었지. 저 어떻게 되었나는 확실한 건 모르지. 우리가, [조사자 : 그건 다 할아버님 어리셨을 때 들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주 젓먹이 어린애 때 들은 얘가지.

그때는 호랑이가 많았던 몬양여. [조사자 : 아 동네예요?] 응. 자 위에. 저기 요기 방앗간 뒷집이, 시방은 해랑을 다시 지었지만는, [조사자 : 이쪽 동네 저쪽에.] 응 다시 지었지만, 이렇게 그렇게 간반으로다가 이렇게 해랑을 지었었는데, 그 저기 문틀에 죄 이빨로다가, [조사자 : 호랑이가요?] 뜯은 자국이 있드라구,

[조사자 : 그 집이 오래된 집입니까?] 그렇지. 오랜된 것인데, 인제 혈구서 다시 지었지. [조사자 : 지금 다시 지었다구요? 아 그때 옛날에는 호랑

이가 이렇게 나왔었었다구요?] 예. 옛날에는 호랑이가 있었대요. 여기서 뭐 마을 갔다가, 가다가 저 개울게서 호랑이하고 씨름을 했다는 말이 있어. 부재들래. 그 께안고. [조사자 : 아, 장정이요?] 둥굴루구. 옛날 분들은 기운은 쟈대. [조사자 : 지금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호래이하고 아마 두쟁이를 현 몬양이여.

[조사자 :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응? [조사자 : 이기셨데요?] 엉? [조사자 : 이기셨데요, 호랑이하고 싸워가지고.] 몰르지. 그건 인자 이기고 안 이기고는. 이겼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지.(일동 웃음) 이겼다. 인자 호랭이가 피해서 달아난 거지. 달아났을 테지. 호랭이가 이기나, 참 아니 호랭이 이기나, 저 사람이 못 이겨.(웃음)

6 배고리가 있는 감교산(홍수전설)

이도상(81, 남)/신봉리T 2왓

[서봉마을 길가] 박종수, 강현모, 이덕재, 이상실, 최기섭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고을에서 지냈던 산신제나 성황당에 대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산신제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떠올랐는지 그 도중에 구술하여 주는 것을 채록한 것이다.

저것 감교산이라구 아주 이름난 것여. [조사자 : 아, 명산입니까. 좋은 산입니까?] 명산이지. 우리 명산. [조사자 : 혹시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빌고 다니고 이런 건 없습니까?] 빌고. [조사자 : 소원 빌려다니고.] 아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우리네가 확실히는 몰라도.

저기 저 저 감교산이라는 앞봉에, 그 뭐 옛날에 여기 배가 들어와서 거기, [조사자 : 배가요?] 배. 이 때는 배고리 뭐 금이라나 뭐라나 그걸로 헨 배고리가 있다고들 그러는데, [조사자 : 그게 전설인가 보지요?] 그걸 우리네가 봤어. 또 어떻게 알아 뭐. 얘기만 풍문으로 들었지.

[조사자 : 아, 할아버지! 그럼 아주 어리셨을 때 들은 얘기군요?] 그렇지. 그런 소리는 있는데, 그 뭐 알아, 우리네가. 아니 시방 험다는 하는 그 뭐여 탐정기 가지고 다니며 저기 허는디, 있으면 그게 있을 거여, 다 빼갔지. [조사자 : 이쪽에 배가 들어와서 옛날에 바다 물이 찻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웃음) 그럴테지. 옛날에는 물이 찻대는 거지. [조사자 : 배가 다 널만큼?] 응. 그런게 그 때라 했던 몬양이야. 그건 이 세상 배판힐 적에 아마 했던 몬양이야. [조사자 : 예 그런게 그 전설이 있군요. 인자 그 고리, 고리가 있다.] 그런 고리가 있다 내려오는 거지, 그게.

7 해와 달이 된 옥이

박훈임(65, 여)/신봉리T 2앞뒤

[서봉마을 길가] 박종수, 강현모, 이덕재, 우상실, 최기섭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에 있는 그릇을 굽던 집이나 민속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이때 산에서 나물을 뜯고 오다가 조사자 일행을 만나서 조사 목적을 듣고 나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았다우.(Tape 뒷면에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서 두 분이 살았는데, 핵교 저기 저, 자손들 돌, 손주, 손주를 돌을 두고서 어디를 갔어. 갔는데 인제 팔떡을 해가지구. 솥팔떡을 해 가지구 인저 돌, 돌에 갔어, 할머니가.

[조사자 : 아기 돌에요?] 응. 갔는데, 한 고개를 넘어 가니까 부짓닷게 휘젓고 저기 왼 어깨에다가 팔떡을 해가지고 데박을 담아가지고 쉬지도 앓고선 고개고개 넘어갔거든. 한 고개를 넘어가니깐 범이 앓았다. [조사자 : 아, 호랭이가요?] 범이 앓어설랑은,

“할머니! 그걸 하나를 날 주면은 안 잡아먹지.”

그러더라. [조사자 : 아 팔떡을요?] 영. 그래 인저 하나를 훌떡 내 줬거든.

그러니 한 고개를 또 넘어가니까 여전히 또 있더라야. 그래 인자,

“할머니! 할머니! 그게 뭐이냐?”

고 그러니까.

“팔떡이라.”

고 그러니까.

“그것 나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더라. 그러니 또 하나를 훌쩍 남겨 줬다야. 그런데 또 한 고개를 넘어가니까 여전히 또 있더라야. [조사자 : 또 있어요, 호랑이가?] 응. 그래서 인저, [청중 : 그 놈이 자꾸 가는 거여.] 예. 그래설랑은 또 하나 던져 주니까 또 안 잡아먹고. 그래 인저 또 한 고개를 가니까 또 여전히 있고.

[조사자 : 팔떡 다 떨어지겠네요?] 예. 인자 한 되쯤 해 가지고 갖거든. 요만한 된박에다가 해서 원어깨에다 미고서 갖는데, 그렇게 인자 고개마다 가니께로, [조사자 : 호랑이가 있어요?] 영. 열두 고개를 넘어가니까 이 놈의 팔떡이 다 달아났는지. 다 달아났는데 인자 그 애들이,

“우리 할머니가 오실 때가 되었는데, 왜 안 오시냐!”

고 그러니까는. 이 호랑이가 인제 그 집, 그 애들 있는 데를 간겨여. 가설랑은,

“아강! 아강! 엄마 왔다. 문 열어 달라.”

고 그러니까는.

“아고,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그렇게 했드라. 그러니까,

“아냐! 너희 어마여. 문 열어 줘.”

그런게. 이렇게 애들이 문을 찢고서는,

“손을 내밀으라.”

고 해드래. 그래 손을 내미니까는 털이 있거든. 그래설랑은,

“털이 있는데, 아유 우리 엄마 손은 털이 없고 반반했는데, 우리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털이 많아?”

그럼 이러니까.

“아니다. 오다가 이렇게 저렇게해설랑은 털이 많다. 열두 고개를 넘어오

느라고 씻지도 못해서 털이 많다.”

그러니까.

“아니다고. 우리 엄마 아니라.”

고.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래도 그 문을 열어 달래서 열어 줬대지 뭐유. 열어 주고서는 콩볶쟁이를, 그 인저 그들을 잡아먹는 거여, 호랭이가. [조사자 : 꼬쟁이, 꼬매쟁이, 꼬매장이를요?] 영. 잡아먹는데, 인자 한 애가,

“할머니! 그 먹는게 뭐냐?”

구 그러니까는.

“아이구 이 먹는게 콩볶쟁이다. 콩 볶앙이 볶아서 먹는 거다. 오드득 오드득.”

소리가 나네, 자꾸. 그러니까.

“아냐! 콩볶앙이를 먹는 거여.”

그러고서. 그런데, 한 아이를 다 잡아먹고, 인자 또 한 아이를 또 잡아 먹는 거여. 인제 애들이 돌인, 낡맨데. 그래설랑은 이제 그걸 다 잡아 먹고 났는데, 나오니까는, [조사자 : 애들 둘을 다요?] 응. 다 잡아먹고 나오니까로 우물에 가서 그냥, 상냥구가 있어가지구 수수깥 낭구하고 있어가지고 두 배로 이렇게 섰는데, 거기를 인제 올라갔대요.

애들이 또 올라가가지고서는 거기를 뛰어올라가설랑은 잡아먹고서는, 또 호랭이가 똑 떨어지는 바람은 수수깥에 가서 피같은 게 있잖우. 그게 호랭이 피래요. 그래가지구서는 이에 해는 여자구. 달은 남자가 됐디야. [조사자 : 아 오누이가요?] 영. 그렇게 됐디야. 그렇다구 그러면서, 옛날 노인네들이 그렇게구 옛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구. 그래 그거는 안 잊어버렸지.

8 말 잇기 이야기

박훈임(65, 여)/신봉리T 2뒤

[서봉마을 길가] 박종수, 강현모, 이덕재, 이상실, 최기섭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설화라기보다는 형식담이라고 하겠다.

옛날에 허른 솔밭 속에설랑은 내려다 보고는 감득이, 다근 솔밭 감득이, 감득이 그리고 흘쭉이, 흘쭉이 그리고 짹째기, 짹째기 낭떨어지기 여기가 낭떨어지기 아니유.

9 호랑이 넘어다니 벼들치 고개

박훈임(65, 여)/신봉리T 2뒤

[서봉마을 길가] 박종수, 강현모, 이덕재, 이상실, 최기섭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호랑이나 귀신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한 것이다.

벼들치 고개 여기. 여기가 뭐 목쟁이요. 이 여 호랑이 땡기는, 요 아래가. 이리 넘어 다니는. 옛날에 호랑이가 눈이 그냥 오면은 눈이 이렇게 썩면 그냥 더벅더벅 발자국이 더벅더벅 났대요. 소 발작(국)마냥. [조사자 : 호랑이가요?] 응. 호랑이가 아이구.

[조사자 : 호랑이가 뭐 사람 물어가고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예. 그거도 하느님께설랑은 명령이 내려야 잡아먹지. 지 마음대루 못 잡아먹어요, 그것도. 하느님으로서 다 명령이 내려야지, 다.

[조사자 : 옛날에는 뭐 호랑이한테 물려갔다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마을에 그런 얘기 흔히 있잖아요?] 응. 마을에 있었지요. [조사자 : 호랑이한테 물려갔다는.]

그전에 우리 친정에서 나 살 적에, 우리 친성님들이 나무를 갔어요. 저 삼박골이라 하는 데를. [조사자 : 친정이 가까우세요?] 아 가깝지 않아요. 용인, 저 용인군 내산면(현 양지면) 정수리에서 왔거든. [조사자 : 내산면 정수리요?] 응. [조사자 : 그런데요?] 호랑이, 나무를 갔다가, 이만 때요.

나무를 갔다가요, 나무를 해서 갔는데 그냥, 술밭 속에 그냥 아주 엉뚱 엉뚱한 술밭 속에 있는데요, 거기에 호랭이가 있더라고요. [조사자 : 할머니! 아주 어렸을 때네요?] 예.

호랭이가 있는데, 우리 형님들이 호랭이를 보구니에 이렇게 담아 왔다 구. [청중 : 새끼.] [조사자 : 새끼?] 영, 새끼를. 담아 왔는데, 그냥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친정에 와서 그냥,

“깽깽!”

우는 소리를 해서, [조사자 : 아 어미가요?] 영. ‘깽깽’ 울어설랑은 도루 갖다 넣어 줬어요. [조사자 : 호랭이 새끼를요?] 해, 해꼬지 할까 봐. 갖다 넣어 주었다고. 한 번은 돼지 새끼도 그렇게 또 담아 왔어요. [조사자 : 돼지 를요?] 영. [조사자 : 산돼지?] 영. 아주 그냥 거기는 산이 거(크기)해가지고요.

10 팔만구암자 있었다는 광고안

이도상(81, 남)/신봉리T 2뒤

[서봉마을 길가] 박종수, 강현모, 이덕재, 이상실, 최기섭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지방에 대해 묻자 주변에 절이 엄청 많았다고 하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저 넘어 절에 가본 그 자세히 알텐데. 우리는 저 등물에 들었는데, 그 저 여기 절 있잖아. 잘 모르지.

옛날에 여기가 팔만 구암사여, 절만. [조사자 : 절이 그렇게 많았어요?] 영. 여기 여기 뒷서뻐기가 다 절이 있었다요. 여기 그래서 그래설랑은 통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가 아니라구 몰랐데요.

그래서 인제 장마가 지는데, 국수밭이 내려와가지구 사람이 사는 줄 알고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다 이게 절이더라. 국수밭이 내려와가지고. [조

사자 : 국수발요?

임진왜란 때 그랬나 봐. 임진, 임진왜란에 거 곧장 지나가는 놈의 걸, 거 일본놈들 그 저 말허고 사람허고 그 몰 먹고 죽으라고 거 잿물을 풀어 서 내려 보냈디야. 그래 물이 뿌야니까,

“이웃지 사람 산다.”

고 쫓아 올라가서 절이 쳤데요. [청중 : 그래 그래갓구서는 국수발도 내려 왔데요.] [조사자 : 위에 사람이 산다구요?] [청중 : 국수발이 내려 왔대.] [조사자 : 그때 절을 다 없애 버렸는데요?] 네. 절이라는 것, 절농 안에다 짚 세기틀, 예전에는 짚세기 아니여. [청중 : 짚세기 한 커레가 다 달았더라.] 짚세기를 신고서 절을 다 구경하고 나오면은 짚세기가 하얗게 보푸라기 앉는다는데. [조사자 : 옛날 절이 그렇게 많아가지구.] 여기가 팔만 구암사 라. 팔만 구암사면 얼마여. 저 너머 절 하나가 요 근자에 생겼거든. [조사자 : 새로요?] 요것 인제 생긴 지가 한 사 년, 4년 되나 봐.

근데 절을 짓고서 주인네는 어딜 나가고, 그 아마 그 저 참 친족이 되는지, 가까운 사람이 거기가 있는데. [조사자 : 관리하면서요?] 영. 있다가 인저 나오니까 바깥에. 문을 열고 나오니까 호랭이가 한 마리 앞마당에 앉았더라요. [조사자 : 절 있데요?] 절 집이. [조사자 : 절 집이?] 예. 그 호랭이가 와서 앞마당에 떡 앉았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만 구려.

“야, 나는 주인이 아니고, 여 주인이 없으니 널 저녁에 오라.”

구. [조사자 : 호랭이 보구요?] 응. 그래가지구 얘기를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없더라. [조사자 : 호랭이가요?] 응. 그래 주인네가 오니, 그 얘기를 했다는 구려. [조사자 : 호랑이가 왔다갔다요?] 그랴. 했는데, 그 주인네가 인자 가서 피기를 얼마나 샀는지, 사다가 인자 아마 잘 해서 상에다 해서 바쳐서, [조사자 : 호랑이한테요?] 가다가 그, [청중 : 놔 줬구만.] 호랭이가 앉았던 앞마당에 거기다 갖다 뵈디야. [조사자 : 호랑이 먹으라고요?] 그렇지. 그러고서 인자 들어가서 있다가 인제 식전에 나와 보니까 하나도 읍이 죄(전부) 먹고, 죄 먹었드려야.

II 구렁이 관련 일화들

박훈임(65, 여)/신봉리T 2뒤3뒤

[서봉미를 길가] 박종수, 강현모, 이덕재, 이상실, 최기섭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뱀에 물렸을 때의 민간요법에 대해 말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의 친정인 정수리와 가족 상황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① 입을 죽여 망한 집

옛날 우리 친정 동생네서요, 옛날에는 이 저기 싸리문, 싸리문이구 뭐여 저기 울타리를 막대로 했잖아요, 울타리 가챙이. [조사자 : 그렇지요] 장마가 지는데 그 터에 지인(주인)네래요.

터에 주인 큰 구렁이가 그냥 싸리문 있는데 가서는 턱 걸쳐 있는 거를, 주인네가 그거를 그냥 동강을 쳐서 내버렸데지 뭐요. 갖다가. [조사자 : 그 구렁이를요?] 영. [조사자 : 해꼬지 안 했는데요, 구렁이가?] 응. 그랬는데 해꼬지는 해는 건 모르것구.

그냥 여전히 거기 와 있다. [조사자 : 구렁이가요?] 갖다가 버틴게. [조사자 : 동강난 게요?] 영. 여전히 그냥. 개울에 떠내려 보냈는데, 여전히. [조사자 : 또 와 있고] 응. 또 와 있고 또 와 있고.

그래서 그냥, 군데 그냥 그게 결국은 그 집 식구가, 사람이 하나 없어져도 없어지드라구. 에 언짢아요.

② 소도 잡아먹는 이무기

그전에 우리 친정 동네설광은 그전에 저기 탄광이 있었시오. 탄광. [청중 : 탄광.] 탄광. [조사자 : 탄광요?] 예. 여기서 불을 터서 왜, [조사자 : 석탄 캐는 것.] 석탄 캐는 데가 있는데, 아주 그냥 거기들 캐러 가가지고

서는 귀 달린 뱀이 있었어. [청중 : 귀가 달린거요?] 예. 귀가 달리고 이 손두요, 이 발짝이는.

눈 오며는요 거기, 그 앞에다 소를 못 내다 매요. [조사자 : 왜요?] 소를 죄 잡아 먹어서. [조사자 : 소를 잡아 먹었어요?] [청중 : 이무기로구면. 용 못된 이무기.] [조사자 : 용 못된 이무기.] [청중 : 그거야.] [조사자 : 그런 게 있었데요?] 그래예.

그래가꾸서는 그 탄을 캐러 들어갔다가 못 캐구들 말어 버렸어. [청중 :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이무기래. 참 그계 이무기.

5. 성복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도희, 이정현,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7. 5. 18, 1999. 5. 15.)

조사자들이 지도를 들고 성복리를 찾아 출발할 때는 날씨가 매우 좋아 웬지 일이 잘 풀릴 것 같았다. 성복리는 광주 수원간 국도변에 있어, 직행버스와 시내버스가 자주 다녀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조사자들은 버스에서 내려 성복 1리를 지나 마을로 계속해서 들어가 성복 2리에서 조사를 착수하였다. 성복 2리에 도착하여 어른들께 물어서 노인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았으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날씨조차 갑자기 바람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자 너무 막막하여 포기할까도 생각하였지만, 이장님 댁을 찾아 사정 이야기를 하자 반갑게 맞아 주었다.

성복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수진면 지역이었던 곳을 수지면으로 편입되었다. 이곳 이름의 유래를 보면 옛날에 성주 이씨가 많이 살았는데,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으라고 성복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성복굴 또는 성복동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구성하는 자연마을로는, 성남, 성동, 성서, 능구리, 도리실, 도탐말, 응굴, 응달말, 정자들 등이 있다. 성남, 성동, 성서 마을은 마을의 남쪽과 동쪽 서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도리실은 성서의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도탐말은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 또 응굴은 마을에서 동쪽의 국도변에 있는 마을이고, 정자들은 정평이라고 하여 정자나무가 있었으므로 생긴 이름인데 그대로 마을에 붙여진 것이다. 응달말은 국도 남쪽에 있는 마을로 응달이 지기 때문에 붙여졌다.

성북리는 3개 마을로 이루어진 총 761세대에 주민수가 2219명이나 되는 큰 마을이다. 성북 1리는 315세대에 920명, 성북 2리는 362세대에 1055명, 성북 3리는 83세대에 244명으로 연암 김씨와 양천 허씨를 중심으로 9개 성씨로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효자각과 산 유래 등과 관련된 많은 민속이 있는 고장이었다.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별장처럼 화려하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으면서도,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마을의 향취를 느끼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학적 의의가 있는 유무형 유산들을 알지 못하고 잊어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다.

2) 설화

① 빈대 때문에 망하였던 성북리 절터

황희철(66, 남)/성북리T 1앞

[성북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도희, 이정현 조사(1997. 5. 18.)

앞에서 이곳의 산제사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에 이곳에 절이 많았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제보자는 성북 2리 이장인데, 조사자들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이야기를 마치 고 옛날에 이장을 하였던 분의 맥까지 조사자들을 인도하여 주었다.

그게 인저, 이 안에 전부가 절로는 절이 몇 개, 절마다 댕겨 내버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그 밑이가 한 사흘 정도가 되야 절을 다 돌아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얘길했다구.

근데 이 골짜기마다 다 절터가 있지 없는 데가 없어. [청중 : 절이 굉장히 많았대.] 응. 절이 많았다는 얘기가. 그리고 인저 상재방 불상에는, 에 고려 말년에 빈대가 들었다고. 그 절터를 완전히 석조상도 다 있구, 다 있어. 근데 건물만 없지.

빈대들이 와서 망했다고 하지. 근데 그건 몰러. 학생들은 학술적으로 배우는 게 더 빨러.

3 이빈의 효행

이상설(79, 남)/성북리T 1앞

[성북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도희, 이정현 조사(1997. 5. 18.)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약도로 효자비를 찾아보았지만 쉽지가 않았다. 우선, 마을 사람들도 자세히 모르고 있었고,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많아서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다시 황희철 이장님을 찾아뵙고 부탁드렸다. 1시간 정도 해맨 후에야 간신히 이상설씨를 찾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 주시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할아버진데 성함은 이빈, 예 그 낭반이 철종 때, 철종 때 분여. 근데 예 철종 5년에 저 예 비각을 세웠거든.

예 근데 원체 저 분이 철종보다 한 70년 전에 숙종 때, 숙종 때에 효행이 있으신 분이야. 근데 그때 아마 국가에 무슨 사정에 따라서 금방, 예 저어 표창을 못 하구서 70년 후에야 저것이, 예 인제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어 효자문을 세웠거든.

그랬는데, 그 효행에 대해서 나두 좀 어떻게 확실한, 무신 근거가 있으면 저 좋겠어서 근거를 좀 알아 보려 했는데, 알아 볼 도리가 없었어. 그래서 나두 인자 그전에 노인네들이 헐, 얘기 허던 얘길 들으면.

그 어머니가, 이빈 효자 어머니께서 병환이 들으셨는데, 병환이 들으셨는데 예 암만 약을 써도 안 듣더래요. 근데 계~ 병자가 겨울에,

“참외가 먹구 싶다.”

구 찾더래. 참외가. [조사자 : 어머니가요?] 예. 근데 옛날에 더군다나, 지금이야 뭐어 겨울에두 참외 어어 수박두 다 있지만, 옛날이야 뭐 그게 있나. 철종 때니까 지금부터 즉어도 백 한 삼십여 년 전 일인데. 없으니까 자손된, 어 자손에 입장으로 말하자면 애처롭기 짝이 없었지. 그래 겨울인데, 그 때가 더군다나.

겨울인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인제 지금두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파트 생활을 해서 뭐 마당이라는게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단독 주택에 다 마당이 있구 다 있지. 그러니까 노인네 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 먼저 일어난

사람이 나가서 마당을 쓸게 마련이지. 에 손님을 마중하는 데두 그렇구,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당을 쓰는 법인데.

마당을 쓸러 나가니까 그 눈이 왔는데, 눈 위에 에 참외 넝쿨이 있으면서 거기 가서 참외가 한 개 달렸더라. 그래서 그 놈을 따다가 인제 봉양을 해 드렸다는 거여. [조사자 : 겨울인데요?] 으응. 겨울인데, 에 그게 그것이 확실한 건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좌우간 그런 얘기가 전해 와요. 그렇게 효행을 했구,

(잠시 생각하시다가.) 그 다음엔 또 에에, 별안간 무슨 으음, 물고기, 무슨 저 청어라나 뭐라나,

“그것이 잡숫구 싶다.”

구 그러시더라. 오래도록 아파 앓으셨던 모양이여. 그래 청어가 그때만 해두, 에 정말 여긴 산간 지방이 되서 구하기가 어렵지. 그런데 저어 뒤에 여기 냇가에 흐르거든. 넓은 내같이 흘러. 그래 여름에 목욕두 하고 그러는데, 그런게 옛날에 빨래라는 거를 다 개울에 가서 하지 않았겠어. 추울 때구 더운 때구.

그래 어 이날 빨래를 허러 에 그 며느님이, 그러니까 이빈씨의 아내지. 며느님이 나가서 빨래를 허러 나가서, 인저 물에다 빨래를 담그구 빨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고기가 놀더랴. 그러니까 더군다나 인자 이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앓으시는데, ‘그걸 잡숫구 싶다’구 그러셨는데, 더군다나 눈에 그게 띄었으니까,

“얼씨구나!”

허구. 잡아서 해다 드렸을 거 아냐. 그렇게 에, 그러니깐 효행이 에 그렇게 효행을 이미 얘기하더라서, 그 효행이 인제 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임금님께서 에,

“효자문을 세워라. 세워 줘라.”

그래서 저 효자문을 세워 주었는데.

3 정몽주의 최후와 사당

김주명(48, 남)/성북리T 2앞

[성북 2리 길가]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5.)

조사자들은 마을에 도착하여, 길을 가다 밭에서 고추 모종을 옮겨 심는 네 분을 보았다. 그래서 그 중 한 분께 여쭙보았다. 바쁘셔서 좀 꺼려하셨지만, 우리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드리자 일을 하시면서 구술하여 주셨다. 이야기해 주신 분은 그 동네에서 집안 대대로 3대째 방앗간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옛날에는 통통방아로 방아를 찧고 다녔다고 한다.

[조사자: 복이 많아서 성북리에요?] 응. 버스 타고 오다가 구길로 왔지? 그게 뭐냐면은 저기, 이성계 알아? 이성계가 거, 이성계가 저기, 방언인가 저기, 정몽주 도리깨로 때린 거 선죽교에서 알아? 그 사람 거기 거, 서당 이야 서당. [조사자 : 어~, 서당이에요?] 서당이구.

그 사람이 이방언이가, 거 이성계를, 저 정몽주를 때려 죽인 거 아니며, 도리깨로 선죽교에서. 응? 그래가지구 그 사람이 인제 거기 서당이구.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가지구. 여기 용인군에 묻혔다구. [조사자 : 어~ 어...] 용인군에 묻혔는데.(호미로 땅을 파는 소리)

그거를 저 어떻게 묻힌 거냐 하면은, 저 옛날에 명정 있잖아. 명정같은 거 저기(녹음이 지워짐) 거 모를 거야. 명정이라는 게. [조사자 : 명정이 뭐예요?] 명정이며는 저 거 죽어가지고 앞에 글씨 써가지고 앞에 이렇게 들고 행여, [조사자 : 아~ 예.] 들고 가는 사람 있지? 그 명정을 날렸다는 거여. 명정을 날려가지구 거 광주 모현면, 모현면에 거기서 거 떨어져가지구 명당 자리라서 저 정몽주 산소가 거기 있다구.

[조사자 : 아 그게 산소인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가 저기, [조사자 : 떨어지는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 명당자리라서 정몽주 산소가 거기에 있다구.(동네 개가 짖음)

(이후 부분은 이 제보자에 대한 조사 뒷부분에서 구술한 것을 이곳으로 옮겨 놓은 것임) 이방언이가 죽인다는 걸 그 정몽주를, 그 사람이 저기 아

니야, 학자 아니야, 정몽주가.

그러면서 나 죽이라고 정몽주가 알면서도 말을 앞에 타고 간게 아니라 뒤로, 말을 말 대가리가 사람 몸 반대로 된 거지. 잉? 사람은 말 궁텅이 쪽으로 보고 음? 엉텅이는 말 대가리를 보고 이렇게 타고 갔대는 거여. 그 그래서 거기서 쇠도리끼로 맞아 죽였대. 선죽교에서 죽어가지고 된거지.

정몽주가 그전에 거기 가리켰던 서당이라고. 거기 가 보면 풋말에 뛰라고 돼 있냐면, ‘하마비’ 라고 돼 있어. 하마비. [조사자 : 하마비요?] 한문으로 하마비가 돼 있다구. [조사자 :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글세, 그건 모르지. 하마비.

4 형제봉의 유래

김주명(48, 남/성북리T 2와)

[성북 2리 길가]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5.)

정몽주의 최후와 사당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 후, 밭에서 일하고 계신 네 분께 영비천을 드렸다.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영비천을 드시면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형제봉을 가리키며 해 주신 이야기이다.

① 형제봉

형제봉이라고 있다구. [조사자 : 형제봉이요?] 형제봉이 있는데, 그 봉우라지가 똑같아요, 봉우라지가. [조사자 :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거 저기가 전설이 있다며는 형제봉이구.

·(호랑이 굴에서 금부처를 발견하였다는 뒤에 연결된 것을 읊긴 것임.)
굴이 있긴 있는데 안덜 가. [조사자 : 형제봉이 어느 쪽?] 형제봉이 이 쪽 올라가면, 저기 봉우라지, 요렇게 요렇게(산을 가리키며) 두 개된 봉우라지가 있다구. 그래서 형제봉이라고 그러는 거, 형제봉.

② 빈대 때문에 망한 절터

형제봉 밑에 가면 그런 큰 옛날 절터가 있어. 절터. [조사자 : 절터요?] 영. 절터가 있구. 그래가지구 그 절이 왜 망했냐며는, 그 옛날에 보면 이 빈대라구 있어. 빈대. 지금 저 옛날에는, [조사자 : 몸예요?] 아니 저, 빈대. 빈대라는 게 뭐냐며는 이런 벌러지, 그러니까 그 벌러지.

그래서 그 빈대가 하두 많아가지구, 빈대가 하두 많아 가지고 절이 그냥 망해가지구 도망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구. 빈대가 너무 많아 가지구 배기질 못 해니까.

[5] 호랑이굴 속의 금부처

김주명(48, 남)/성북리T 2앞

[성북 2리 길가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5.)

앞의 절터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해 구술하여 주신 이야기이다. 옆에 아저씨가 장난으로 계속 '저 사람 얘기 믿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그래가지구 그 절에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떠날 때, 우물에다 거 금부처를 묻어가지구선, 저 금부처를 묻어가지구선 그 동네 사람들이 거 금부처를 묻었다 그래서, 금부처를 켜려고 우물을 죄 뒤져보고 그래도 없더라구. [조사자 : 금부처가요?]

그러고 그 위에 절터 위에 올라가며는 큰 동굴이 하나 있어요. [조사자 : 위예요?] 저기에 올라가면 동굴이 있는데, 그래가지구선 그 동굴이, 동굴이 있는데 동굴 안에다가 그 전에, 그 나두 여기서 계속 살다 이렇게 보니까 누가 어디서 금부처를 캐가지구 금부처를 동굴 안에서 너.

그러니까 호랭이 굴이지, 거기가. 옛날엔 호랭이 굴이었는데, 거기다가 인저 누가 인자 나무들, 옛날이면 나무덜 해다 때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구

선 거 동굴에서 금부처 두 개를 발견해가지구, 그 좃어갔다는 그 얘기를 내 옛날부터 내 들었어.

6 수원에서 이곳까지 뚫린 호랑이굴

김주명(48, 남)/성북리T 2앞

[성북 2리 길가]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형제봉에 관련된 말씀을 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지 가리키면서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여 군부대 있잖아. 군부대. [조사자 : 이 근처예요?] 어. 요기 독바위라구 군부대 있다구. 거기 보면 수원시 그 저기 청소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그 맞은 편에 보편은 거 있다구.

그 옛날에 큰 굴이 있었어요, 거기가. [조사자 : 굴이요?] 굴이 있었는데. 거 굴하고 통해서 일루 나왔다는 소리가 있더라구. 호랭이 굴하고 맞닿다는 소리가 있어. 어. 굴이. 우리도 굴도 봤지. 여기 수원 나가다가 굴도 있는데 그 굴에서 이렇게 통과하면은 거 호랭이굴 맞닿는,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러더라구.

그런 소리도 듣고 우린 자랬시니까. 그래가지구 그 도로가 새로 나가자구 인제 그 굴이 다 메꿔지고 없지.

7 빈대 때문에 망한 성복사지

송산 스님(64, 남)/성북리T 2앞

[성북 2리 대원사]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5.)

수지초등학교에서 수지읍 70세 이상 노인 분들의 경로잔치 행사 때문에 대부분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혹시 어른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고 찾던 중 우연히 절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면 어른들이 계실 것 같아 찾아갔다. 그 곳에서 한 불자님께 우리들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주지 스님께 우리를 소개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준비하시다가 하던 일을 멈추시고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해 주신 이야기이다.

원래 그 성북사지가 있었어. [조사자 : 성북사지요?] 성북사지. 에~ 성북사지가 있는데, 그게 인제 그 고려의 현우국사 [조사자 : 현국사요?] 현우. [조사자 : 현우요.] 야. 현우국사가 계셨던 사찰이라고.

그래 그 성북리는 특이하게 그 자랑할 만한 건 없고, 고려시대 현우국사가 계셨던 그 성북사지. 그게 인제 저~ 광교산 옆에게가 있고. 그래서 인자 그 사찰이 그 유효때, 전에 근게 고려 말 그때, 아니 조선 말, 조선 말 그때 그 뭐 빈대가 많아 가지고 영? 예, 그래서 사찰이 폐사가 된 거라.

그래서 그 사찰, 빈대 때문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래가지구 폐사가 됐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 그런데 특이하게 이 동네에서는 이제, 내가 와 있는지 20년이 됐는데도, 특별한 그 무슨 유래된 얘기라든가 그런 것 잘 모르겠더라구.

8 개 때문에 짚은 금부처

송산 스님(64, 남)/성북리T 2앞

[성북 2리 대원사]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5.)

스님께서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에 망았던 개울에 대해 말씀을 하시었다. 또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으로, 말씀 도중 현재의 사회 모습과 삼세(전생, 현재, 내세), 삼악도와 삼선도 등 불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건 내가 들어서 아는 건데, 그 저 현우국사 사지터 있잖아. 그 터 거

기에서 올라가면 이런 굴이 하나 있어요, 굴이.

그래서 인저 사냥꾼이 그 굴을 이자 뭐 잡으려고, 들어요. 먹으면서 애기해요. 잡으라고 개를 굴에다 보냈대. 그러니까, [조사자 : 어떤 개요?] 개. [조사자 : 멍멍 개요?] 영. 그 사냥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짓고 난리거덩. 그래서 사람이 뜯 들어가 보니까 금부처가 하나 있다는 거야, 금부처. 그래서 그 금부처를 인자 좇어 왔어. 와 가지고,

“이 금부처를 이자 인사동 거리에 가서 팔면은 돈을 억수로 많이 받을 것이다.”

허고 금부처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이자 여 허니까 어떤 사람이,
“아, 그것 좀 보자.”

그러더래.

“야. 이거 참 돈 많이 나가겠다.”

고. 허고 빌딩, 해가지고 빌딩 앞에서 이 분 보고,

“여기 섰어라고 섰어라고 나는 여기 올라가서 물어보고 어, 거시기 해서 잉? 해줄 테니까. 팔아 줄테니까.”

섰으랑께. 이 시골 사람이 모르니까, 빌딩 앞에 가 서갖고 이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고것 가지고 어디로 갔겠어? [조사자 : 팔러 갔어요?] 팔러 가긴, 갖고 도망갔지. 아 빌딩에 문이 하나만 있어. 근께 시골 사람이 앞에서 그냥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응, 남 좋은 일 해본 거야.

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 그런데 인자 모르지.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는 해.

9 금 보화가 묻힌 무덤

승산 스님(64, 남)/성북리T 2앞

[성북 2리 대원사]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성복사지 옆에 인자 우물터가 하나 있어요. 우물터가 있는데, 에 그 우물터에 옛날에 그 금, 금수저 뭐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뭐, 그 뭐 화투같은 거 이런 것이 거기가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구 그 우물을 누가 덮어뿌렸어요. 큰 바위로 우물을 딱 덮어버렸어. [조사자 : 쓰던 걸요?] 어. 이자 그 돌을 놔가지고 우물을 딱 덮어버렸는데.

그 우물은 인자 팔라고, 지금도 그 우물을 손대면 비가 와요. 어. [조사자 : 고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래. 누가 손대도 못해.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손을 델라고 올라가며는, 올라가서 우물을 파며는 천개 번동이 치고 비가 역수로 쏟아지고 그래서 못하고 또 와버리고, 와버리고.

지금도 그 우물이 못 쓰게 돼뽕고, 물만 옆으로 흐르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덮었는데 손도 못 대겠더라구.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더라구.

근자, 성복사지에 대해서, 대해서는 얘기가 있는데, 이 동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몰라(웃음). 음 그래. [조사자 : 그럼 지금도 그걸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어, 지금도 손 안 대. 그걸 여러 사람이 손델라고 어 뭐 했는데, 지금도 손 안 대더라구.

10 인자한 영종대왕

허현욱(78, 남)/성북리2 2앞

[성북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운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6.)

동네에 다니면서 어른들께 이야기해 달라고 청하자 모든 분들이 이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잘 하신다면서 추천해 주셨다. 그래서 15일에 몇 번 찾아갔지만 계시지 않았는데, 다

음날이 되어서야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와 단 둘이 계셨는데, 우리가 온 사정을 말씀드리자 웃으시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셨다. 그리고 점심 때가 좀 지났을 시간인데도 우리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다. 총각김치가 유난히 맛있었다.

며칠 저녁을 해도 내가 얘기가 남아요. [조사자 : 아, 정말. 식사는 하셨어요?] 왜 식사를 대접하려고?(웃음) 이것도 워낙에 내가 얘기꾼이라, 얘기꾼이 아니라 좀 몇 가지 알아요. 인자 시작하는 거여 인저.

왜, 우리 나라 임금님이, 저 이씨 조선에 태종태세문단세 있잖어. 그 지금 지금 이 저 '왕과 비'에 나오는 게 그 세종대왕 세조대왕이야, 세조 근데 세조 담에 세조의 둘째 아들, 아 첫 큰 아아 저기 그제 보며는 큰 아들이 죽었는데, 책에 보며는 장자라구 그랬더라구. 큰 아들 작은 아들. 둘째 큰 아들이 에~ 임금 들어 앉으면서 바로 또 죽었쎄유. 그가 또 덕종대왕이구. 고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이 임금이 돼서 죽었는데 예조대왕이야. 그것도 얼마 못 했어. 몇 해 안하고 그냥 바로 죽었어유.

그래, 그래고 나서 고 다음에 세조, 저 성종대왕인데. 폭군 연산 알지? 그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대왕이거던. 근데 성종대왕이(기침) 에 그 황후가 윤씨예요. 그 윤씨가 어떻게 사나운지, 그 저 말하자면 에 궁안에 인저 궁녀들을 그냥, 이쁜 궁녀들을 데려다가 많이 뇌똥잖아. 그건 왜 데려다 왔느냐 하든, 저녁에 임금이 순행 돌다가 말하자면 마음에 드는 새악시 있으면 하룻저녁 자고 그렇게 해서, 그래 임금이 아들들이 많아요. 딸이고 아들이. 이 저 우리 저 성종대왕 그 낭반이 18남이여.

근데 그 성종대왕이 어떻게 정치를 잘 했는지. 인저 해가 저물고 날이 저물무는, 저녁 때쩍(쭈)해서 순행원을 들고 서울 장안을 쓱 돈단 말이여. 어떤 집이 연기가 나나, 또 밤이 오라(오래)도록 뭐 말하자면 대문을 열어 놓고 자나.

그런 걸 살피고 돌아다니는데, 아 하룻 저녁엔 어떤 골목을 지나다 보니깐 큰 기와집이, 고래등같은 기와집이 있는데 문이 안 닫혔어. 그래서 이 양반이 슬슬 들어가 보니까, 안방에도 불이 꺼져 다 불이 꺼졌는데 저 짝 뒷사랑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술먹는 소리가 여러 사람 먹는 소리요. 근데 문 앞에 보니까 신발은 한 켤레밖에 없거던. 그래

서 문을 푹푹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하고 몰으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술상을 기냥 크게 차려놨는데, 한 사람이 똑 한 사람이 술을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술먹는 식으로다가,

“아, 자네 한 잔 들게?”

“아이고 과음하였네.”

저 잔 보고 그래면서 혼자 미친 사람 모양 그렇게 하고 있거던. 그래서 임금이 물어 보았어요.

“어떤 이유냐? 이왕이면 친구들 여러 사람이 앉아서 술을 먹는 식인데, 으째 그러냐?”

그러니깐,

“아이 영감님은 어디 사람이시유? 어디 사시오?”

그러니깐,

“난 대궐 앞에 사는 이 서방이라는 사람인데, 이것 당신네 집에 불이 켜져서 내 들어왔소.”

“얘기하면 기가 맥힙니다.”

옛날에 과거 있잖아, 과거. 이 양반이 과거를 열두 번을 보고 이번엔 열세 번째 마지막 봤는데, 불 적에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급제를 허문, 여러 사람들이 나 말하자면 축하주를 해 줄 거냐?”

그래선 이 사람이 과거를 봤는데 열세 번째 떨어졌어. 그래서 자기가 당선된 것처럼 친구들이 앉아서 술 권하는 식을 그렇게 허더라 이 말이여.

그런게 임금이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깐 ‘세상에 저런 사람을 좀 살려야겠다’. 인제 내가 과거에 떨어져서 말하자면 그냥 벌써 가족은 친구 저 친정으로 보내고, 자기는 벌써 개나리 붓짐을 싸놓고 그렇게 술 놓는 식으로 하고, 그날 밤으로 그냥 아무 절이나 떠난 대요. 그래서 임금이 허는 말이,

“자, 내가 대궐 앞에 사는 이첨지라는 사람인데, 보니까 과거를 새로 본다고, 아주 급시로 본다고 써 붙였는데 내일 가서 그 과거를 보시오.”

말이야. 그 임금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과거 문제도 쉽다. 아주 쉬워. 대당택 그 등우에다 이 갈매기 구자를 하나 떡 써 놓고 ‘이게 무신 자요?’ 할 적에 그 ‘갈매, 갈매기 구자 올습니다.’ 이렇게 허며는 당선이다.”

이거여. 근게 그 이튿날 영감이. 이 사람이 인저 대궐 앞에 떡 갔어요. 아 과거에 급하게 과거 본다고 써 붙였거던. 어 어끄제 본 그 영감 말이 옳단 말이야. 근데 그저 갈매기 구자를 외우면서 들어갔데요. 근데 저 들어가면 서도 ‘갈매기 구, 갈매기 구구’ 허고 들어갔는데, 또 그걸 내놓으면서,

“이게 무슨 자냐?”

할 적에는 저놈의 께 구잔 구잔데, 심, 당체 무슨 구잔지 그렇게 잊어부렸어요. 왜 그랬나면 이 사람이 아주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야. 아 그래선 낙제다 이거여. 그거 못 알아냈으니깐 낙제 아니여. 대궐 밖에 쫓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헐헐단심을 하고 뛰어오더래요.

“아아, 여보! 여보!”

“아 왜 그러냐구. 바빠서 죽겠는데, 지금. 과거보러 들어간다.”

고 근게. 이 사람이 붙들고선, 과거 문제 쉽다 이거여.

“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갈매기 구자를 못 알아내서 내가.”

아 그게 아니라, 그걸 못 밝혀내니까 임금이, 딱 저 병풍에 갈매기 그린 걸 똑똑 두드렸단 말이야. 게 이 사람은,

“똑똑이 구자.”

라고 그랬어요. 그걸. ‘갈매기 구’자를 ‘똑똑이 구’자라고 그랬으니깐 그냥, 정말 떨어져서 나왔, 나오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오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과거보고 나올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리시오.”

그래 이 사람이 과거를 보러 들어갔어. 어 인제 어쨌든 그 문제를 낸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최후 불러야 될 것 아니여. 그래선 그 사람이 들어가선 서신께,

“이게 무신 자냐?”

고 딱 내놓으니깐, 이 사람이 허는 소리가,

“거 시골 사투리로는 똑똑이 구자요, 서울 말로는 갈매기 구자 올시다.”

이래 이렇겐 임금이 있다가, 아까 그 사람도 맞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맞았다고 불러 들이라.”

고. 아 그래서 두 사람이 합격이 됐데요. 그,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냈느냐 하며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하나 잘 되면 고만인데 남을 살리지 않는다 이거여.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당선이 됐으면서도, 그 사람은 또 말을 그렇게 해 가지고 시골 사투리 서울말 이거 글자는 맞았다 이거여. 그래니깐 그 사람도 당선을 시키고, 자기도 당선을 시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벼슬 해 먹었어요. 인제 요간 요거 하나.

[조사자 : 근데 옛날에 임금님이 돌아다니면서 불이 켜지고 대문 열린 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에. 그거 도둑, 도둑 맞을 까배. 그러니깐 혹시나 몰라서 말하자면 대문을 열어놓고 자며는, 인제 도둑 맞으니까 ‘이 문을 닫고 자라.’

아 그래고 이 집이 연기가 나나? 안 나나? 그건 조석을 못 끓이면 연기가 안 나거던. 그러니깐 밥을 못 허며는 연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연기 안나는 집이, 이 양반이 그 집을 이리저리 쌀이라도 참 원조해 주고, 그렇게 참 정치 잘 했어요, 성종대왕이.

11 사이가 짙은 거지 형제

허현욱(78, 남)/성북리T 2앞뒤

[성북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6.)

앞의 성종대왕의 순행을 돌다 불쌍한 신비를 과거에 합격시켰다는 이야기를 끝내고 나자, “아 그럼 한 마디 가지고 안 되지. 두어 마디 해야지.” 하시면서 계속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전에 저 경상도 어느 지방에 참 한 백여 대촌이 사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아들이 열 살이요, 둘째 아들이 아홉 살 연년생인데.

그렇게 두고선 근게 세 살 먹어서부터 독선생을 두고 말하자면 다른 사

람들은 이 글방, 옛날엔 그 글방이 학교예요. 동네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부하는 데가 그 글방인데, 학교지. 근데 이이는 돈이 많고 부자니까 선생 하나를 들여서 자기 아들 둘만 가르키는 거여. 그래 인저 애들이 논어 맹자 다 읽고 아주 참 그 유식하게 많이 배웠어. 열 살 만에 많이 배운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거던. 그래 돌아갔는데, 그 선생, 선생한테서 공부를 애들이 허기는 허는데, 아 이놈의 마나님이 선생님하고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았어. 그런데 둘이 아주 푹망 재미나게 살아야 하는데, 아 이놈의 애들이 걸리적 거리거던.

“이놈의 애들 때문에, 이거 아주 애덜을 죽여 없애야지. 그래야 우리 둘이 재미나게 산다.”

고 애들 죽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왜 돼지도 잡고 뭐 꿩도 잡고 하는 궤수가 하나 있어요. 그, 그 궤수보고 짚어.

“자. 우리 애들을 어디어디로 보낼테니, 당신이 가서 개들만 죽여 주머는 논 두 섬지기를 준다.”

“그러냐구. 그렇게 허마.”

그래고선 그냥 앓는 시늉을 이 어머니가 하면서,

“나는 죽었다고. 누가 그래는데 닭소리 안 들리고 개소리 안 들리는 산꿀짜기에 가서 어~ 고사리를 꺾어다 그걸 삶아 먹으면 내가 낫는 대는데, 가서 그걸 꺾어 오너라.”

근께 애들이 효자여. 그래 이날 식전 밥을 해서, 쌀 달래고선, 밥을 싸 짚어지고 형제가 참 여길로 치면 저 산꿀 개소리 안 들리고 닭소리 안 들리는 데면 참 무지무지한 산꿀 아니여. 거기 가서 둘이 인저 고사리를 꺾는 거여. 그냥 조곤조곤,

“우리들이 꺾어서 어머니 약을 해드려 어머니 얼른 나오셔야지, 이거 큰일 났다.”

고 그러면서. 근데 궤수가 인저 죽일라고 산에 올라갔어요. 아 내려다 보니까 그 꿀짜구니에서 애들이 그냥 둘이 지어머니 그 얼른 고친다는 그런 참 애길 해가면서 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죽일 수가 없거던, 그 사람이.

근게,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개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 어머니가 너들을 이렇게 죽여달라고 그래서 내 죽이러 온 건데, 차마 너들한테 총을 못 들이대겠으니, 너들 윗도리 하나씩 벗어라.”

말이야. 벗어서 땅바닥에다 놓고 거기다가 총을 쏘아선 이 죄수가 그걸 해 짊어지고,

“너들은 그냥 두말 말고 그냥 서울로 향해서 가라. 그냥 도망을 가라.”
말이야. 그래서 형제가 둘이 천상 지 어머니가 지들을 싫어하니 도망 안 갈 수 있어. 그냥 서울로 그냥 빌어 빌어 먹어서 그냥, 아마 한 일 년 이상을 두고서 서울을 걸어 올라간 거여. 걸어 올라가니 뭐 아는 사람이 있어 뭐 있어. 근데 둘이 형제가 날마다 같이 빌어 먹어. 대문 밖에 가서,
“밥 좀 주시오.”

하고. 그러니깐 형제네 한 집에서 밥 주는 걸 가지고는 항상 모자라거든. 그래서 서울 보터고개라고 한람동 꼭대기 보터고개 있어요. 그 너머는 장충단이고. 고기 가서 둘이 의논을 했어요.

“야, 우리 형제가 된 걸 빌어 먹으면 정말 어렵다. 그러니깐 너는 남문 밖에 가서 은어 먹고, 나는 남문 안에 가서 은어 먹자. 그리고 꼭 일 년에 두 번씩만 만나. 네 생일날하고 내 생일날하고.”

근데 이 에 어떻게 동생 생일은 만나서 같이 먹고, 형 생일날이 아마 지금으로 일면(치면) 한 시월달 쯤 이렇게 됐는데.(Tape 뒷면에 계속) [조사자 : 시월요?] 시월달쯤. 그렇게 됐는데, 에~ 그 집에서, 아니 이 사람이 인저 어떤 큰, 비가 구중구중 오는 구죽죽허게 오고 그러니깐 어디가 잘 데 있어. 큰 소슬대문 옆맹이 가서 인저 자는 거여. 둘, 혼자, 형이.

아 자고 있는데, 아 인저 이 사람 정신없이 자는데 안에서 대감, 그 큰 대감 집이야 바로. 대감집 문간에서 자는데, 대감이 꿈을 꾸니까 아 소슬대문 바깥에서 그냥 청룡 황룡이 그냥 막 꿈트러져 꿈에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거든. 하인을 불러 가지고,

“바깥에 대문 밖에 무슨 개가 있던 거지가 있던 그냥 가 데리고 들어

오너라.”

이 말이야. 그래 하인이 나가 보니까, 아 청년이 하나, 저 뭐야 아이가 하나 빌어먹는 그지가 웅크리고 자거든.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가선, 그저 밤에 난리가 난 거지, 그냥.

“일던 물 디어아(데워라).”

해서 그냥 그 놈이 크게 될 놈인 줄 알고, ‘물 디라’고 그래서 목간을 시켜서 인저 해놓으니까 얼굴이 참 잘 생겼거든. 그래 그때만 해도 열 살 열한 살이면 장가 들일 때예요. 그래 애를. 그 집이 또 아들도 없고 무남독녀 외딸이여. 아 두 내우, 인제 대감 두 내우분이 의논을 한 거여.

“우리 사우 삼자.”

고 말이야. 시월 달인데 자기 생일도 모르지, 잊어버렸지. 거기서 공부해 가면서, 공부도 참 뭐 그냥 가르쳐 주니까 공부도 그냥 무불통지여. 그래서 그 집에서 사우를 삼아가지고 인저 결혼을 해서 첫날밤을 자는데, 새약시하고 들이 인저 첫날밤을 딱 자는데, 가만히 눈을 감, 눈을 감고서 생각하니까 그날 저녁이 자기 그 날이 생일이여. 제 생일날이여.

아 제 동생하고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큰일 났지 뭐여. 그냥 자다 말고, 그냥 색시보고 얘기도 안하고 그냥 들고 뉘뛰는 거여, 보터고개로. 거기 가 보니까 동생이 기다리려니 허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보이질 았터라 그 말이여. 거기 나무가 큰 게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목을 매달았더래, 동생이.

그래 쫓아 올라가선 그냥 끌러선 만져 보니까 몸뎡이가 뜨뜻하거던. 아직 죽진 았았어요. 그런게 드리쳐 허고선(들쳐업고선) 새약시 방으로, 자기 새약시 방에 들어가선 그 참 요이불에다가 그냥 폭 묻어선 뇌니까 깨더래요. 깨나선, 이 자기 동생 하나 살릴라고 허기는 했는데, 이거 처갓집한테 여간 미안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 새약시가 들어가선 자기 부모님한테 가 보, 보고를 했어요.

“이상스럽다고. 신랑이 밤에 자다 말고 뛰어나가더니, 웬 그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선 살리긴 살렸는데 이상하다.”

고 그래. 그 사우를 불러서 인저 얘기를 허니깐, 그런 사실 얘기를 하거던.

“동생하고 오늘, 내 생일날 생일인데 동생하고 약속한 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정말 목을 매서 내가 참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엮고 들어와서 그냥 내 방에다 재웠노라.”

고. 거 살리긴 살렸어. 근데 그 보따리를 뒤져보니까, 그냥 땀기 은어서 좋은 놈은 형하고 같이 먹을라고 싸고, 나쁜 것만 먹고. 근데 그제 그냥, 그게 시월달이래도 먼저부터 해서 은어 썩기 때문에 곰팡이 썰은 놈도 있고 썩은 놈도 있고 그렇터래요. 예 그걸 그냥 그 집에서 이걸 좋은 음식이라고 말이지, 만조백관이 모여 가지고선 그냥 그걸 씻어서 그냥 죄들 먹어 치우고 그랬어요.

근데 개도 또 역시 목간을 시키고 모두 해보니까, 개도 그렇게 미남이거든. 개도 또 공부를 시켜보니까 개도 그렇게 공부를 잘 해. 그래서 그 과가 보이는 그 대감한테도 또 딸이 있어서, 그 양반이 사우를 삼았어.

그래서 인제 과거를 보는데 애들 둘이 다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하나는 경상남, 형은 경상감을 따고, 동생은 전라감을 따고. 근데 도지사 따는 거는 그때만, 그때만 해도 도지사. 그렇게 따 가지고 의(어)사화를 꽃고선 그냥 일가치레 하고선 길을 막 고향에 가는 거라. 우선 어머님부터 뵈야 됐어요.

그래서 형제가 막 그냥, 그 뭐 감사 둘이 내려가는데, 하인들도 여간 많이 쫓아 내려갔을 거여. 암 길이 메어지게 하고 들어가는데, 바로 그 자기네 집 앞으로 가거던. 자기 어머니가 앉아서 기다리니까, 가 서서 보니까 아이고 자기네 집 앞으로 오거던.

‘아 이거 이거 장사가 나서, 내가 인제 아들 형제 죽이고 내가 죽나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더니 자기 어머니한테 형제들이 그냥 절하고, 그때서 자기 어머니가 잘못이, 잘못을 생각하는 거여. ‘내가 왜 내 아들들을 그렇게 했, 했는가.’ 그러나 이 아들들 형제들은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거여.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뻔매네, 내 우리 둘이 이렇게 크게 됐다.”

그래서 어머니를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효자 노릇하고 정치 잘하고 그렇

게 했대요. 이거 뭐 얘기라고 좋지 않죠? [조사자 : 재밌어요.](웃음)

12 사라진 돌부처

허현옥(78, 남)/성북리T 2위

[성북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6.)

도중에 할아버지의 손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우리처럼 이렇게 대학생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성불리라는 텐데, 요 위 동네가 성 성부리라는, 성부리라는 동네예요. 근데 저 위 광교산에 절터가 있는데, 그 절터가 옛날에 성불사였대요. 성불사. 그래서 성북골, 성북골 성불.

근데 절터 지금도 있는데, 보물은 안 나와, 지금. 보물을 켈, 켈라고 가며는 뭐 비가 오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보물을 나도 좀 혹시 있나하고 주, 주으러 가봤더니 없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뭐 부처하고 돌부처하고 뭐하고 있으르는 산다고 야단해서, 근게 그저께쫘 그저께쫘 우리 큰아들 뭐 친구 애들이 산으로 풀 비러 갔다가, 그 돌부처를 하나 놓고선 막 장난하고 그랬대나.

그래가지구 그저께 봤데니까, 오늘 사러온 사람이 있씨니까 그거 갖다가 팔아 먹는다고선 절로 올라갔는데 없어졌어요. 같이 노은(놀은) 자리 풀 뽑아놓, 풀을 뜯어다 놓고 이주 뭐 우여고 뭐고 그러는 식으로 장난하고 놀았다는데 부처는 없어졌어요.

어 이상하테 거. 그런 보물은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래는 모양이여.

13 도깨비 일화

조돈희(70, 여)/성북리T 2뒤

[성북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6.)

옆에서 옷을 다리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도깨비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해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쑥스러워 하시면서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조사자 : 얘기 좀 해 주세요. 도깨비.] 아이 도깨비 얘기할 줄 몰라. [조사자 : 지금 하셨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막 할머니들이 손자에게 해 주시던 얘기 있잖아요.] 다 잊어먹었어, 나도.

[조사자 : 도깨비불 그런 거 보셨어요?] 도깨비 불이 그냥, 저기서 그냥 퍼런 불이 짝악 내려와요. 산을 타고. [조사자 : 그게 사람 죽으면 나오는 불이라고 막 그러는데.] 아 몰라. 도깨비 불이니까 도깨비들이 끌고 댕기다가 그냥 어디쯤 가면 집이, 집도 몰르고, 그랬다가 환하게 밝았대나 봐. 퍼런 불이 왔다갔다 그러더라. [조사자 : 파랗게 보여요?] 응.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약초 캐러 갔는데 그냥, [청취불능] 에 가서 거시 했는데, 그냥 도깨비불이 그냥 파랗게 좌악 나오더라잖아. 그래가지구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아, 어딘지 갔더니까, 아침이니까 참,(녹음이 지워짐) 작은 아버지가 술 처서(취해서). 음 그렇게 도깨비한테 흘려 다니셨대. 깜빡하면 죽는 거여. 그 도깨비가.

14 지하도적 퇴치 설화

허현옥(78, 남)/성북리T 2 뒤

[성북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듣고만 있었다. 이야

기를 끝내자마자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나서서 이야기를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도깨비불은 몰라도 이거 거짓말 같은 애긴데. 내가 그 무서운 얘기 하나 허지. [조사자 : 오싹한 거 아네요?](웃음) 오싹할 것도 없지.

아, 옛날에 한 사람이 장가를 들어, 들어서 길을 차려 와가지고 첫날밤을 자는데, 웬 남포소리 같은 게,

“짜르릉! 꾸르릉!”

울리더라. [조사자 : 남포요?] 남포소리 같은 게. [조사자 : 대포요?] 어. 대포 소리같은 게. [조사자 : 아아.] 그게,

“짜르릉! 짜르릉!”

울려서 점점 가깝게 들리더니, 어떤 그냥 무섭게 이렇게 생긴 놈이, 사람은 사람인데 무섭게 생긴 놈이 문을 버쩍 열더니, 그냥 자기 새악시를 그냥 안고 내빼거던. 근게 첫날밤에 색시를 잃어버렸잖아.

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분해 죽겠어. 근데 이놈을 어디가 찾느냔 말이야. 근데 그 그날부터 찾아 나선 거여. 자기 색시를. 찾아 나섰는데 어딘가 어딘가 그냥 발뭌발뭌 그냥 동네마다 찾아 돌아댱기고 그러는데, 어떤 동네를 딱 가니까는, 그런 애길 하니까,

“아~, 그 놈이 그랬구나!”

그러더라.

“그 놈이 어떤 놈이냐?”

그러니깐,

“이 산 넘어 가면은 거기 그 도둑놈이 있대는데, 일반 사람은 거기 못들어 간다.”

이 말이여 그냥. 이렇게 삼태기 같이 생긴 동넨데, 거 산이 상당히 높는데 그냥 대나무가 그냥 총총 들어서서, 도대체 그 그 새로 거길 갈 수가 없어. 그래 이 사람이 그냥 틈을 하나 구해 가지고 그 대나무를 잘르면서 그 산을 참 산을 넘어갔어.

넘어가서 그 아래 내려가 보니까는, 그냥 동네가 요렇게 삼태기 안같은 게 아주 기와집이, 뭐 그냥 큰놈의 기와집이 있는데, 아 이 뽕뽕 돌아도

당채 들어가는 문이 없더라고요. 그래 한 쪽에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데, 샘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기 나와서 물 퍼가는 사람이 있는 모양 같아서. 이 사람이 그 샘문 위에 저 뭐 뭐야, 오리나문가 무신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 나무 꼭대기에서 가만히 숨어서 있으니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이 그 나뭇 잎사귀를 쭈욱 훑어서 물에다가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사람이거든 내려오고, 짐승이거든 어디로 가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 갔어. 내려가니까,

“어떤 분이요?”

물더라.

“그런게 아니라, 나 사실이 여편넬에 장가 들어서 첫날밤에 잇어 부렸는데, 그걸 찾으러 왔는데, 여기 여기 이놈이 가져갔다는데 그걸 찾으러 왔소.”

그러니까는,

“그러냐.”

구. 자기도 역시 그렇게 첫날밤에 거길 붙들려 온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요새 여자 하나, 요즘에 여자 하나 데리고 데리고, 데리고 들어오더니, 나는 내쫓아서 나를 하인 하인으로 시키고, 그 여자하고 지금 산다.”

이 말이야. 그 무지한 놈이.

“그러냐.” 구.

“일리 들어오라.”

구. 데리고 들어오더니 큰 팡에다가 집어 넣더라고요. 집어넣고,

“거길 그냥 아뭇 소리 말고 있으라.”

고. 근데 밥 먹을 꺼, 그런 음식을 쥐 가며 한 끼에 물을 마 지금에 이르면 정종 병 하나 씩을 갖다 떠다 줘요. 그 물을 먹고 그렇게 장사가 되는 거야. 그 물, 그 물을 먹고. 근데 그거 그 물을 먹고선 있으니까, 한 한 달 두 달 이렇게 먹고 들어 앉았는데, 그냥 그 안이 부듯하게 그냥 몸뚱이가

살이 찌더래요, 이 사람이. 괜히,
“이놈의 새끼! 내가 인저 원을 푼다.”

고. 인저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아니라고 좀 더 있으라고 더.”

물을 또 갖다 먹이더래요. 그래 먹고선,

“인저 나와 나오슈.”

말이여.

“그놈 이길 자신 있다.”

구. 그 문을 열었어. 이 자식이, 그 무지한 놈이 돌다가 보니까는 그 창고
문이 열려 있거던. 그 문을 딱 열어 보니까 웬 자식이 여기 들어 왔었어.

“너, 일루 나와.”

나갔어. 나가더니,

“야 너도 힘풀이나 쓰겠다. 한 번 해 보자.”

“너 입마! 내 마누라 내 놔.”

그러니까.

“글쎄 내놓고 안 내놓는 건, 니가 나를 이기르는 네 마누라를 가져가고
[할머니 : 재밌는 얘기 좀 해주지.] 지르는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근데 대포(거짓말) 얘기지. 말하자면 이만한 무쇠공이 하나 있는데,

“이걸 떨어뜨려서 아니 내던져서, 하늘로 집어 던져가지구 맨 나중 떨어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근데 먼저 그 주인 놈은 떨어뜨렸는데, 아마 한두 시간 있다 떨어지더래.

근데 이 사람은 집어던지니까 하루만에 떨어지더라나.(웃음) 그렇게 힘이
장사였어요. 그래선 이제 다하고 그러니까는,

“음 그럴 것 없이 우리 싸움을 하자고. 칼 가지고 해서 너 누구 모가지
가 먼저 돌아가던지 그러곤 이기자.”

그래 두 놈이 그냥 싸우는데, 하늘 하늘까지 그냥 날라 올라가면서 싸우
는데, 그 물 떠다가 이 사람 맥인 사람도 치마폭에다가 재를, 고운 고운
저기 재를 들고 나가 썼고, 또 저쪽 에펜네도 들통을 들고 나가 썼는데.
그냥 칼날이 번쩍 하늘 반쯤에서 번쩍하더니 대가리가 하나 떨어지는데

보니까 주인 놈의 대가리더래.

거기다가 이 물 떠다 준 사람,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재를 갖다 끼었었어. 재를 안 낀지면 도로 그 놈이 올라가 붙는데요, 그런 장사들은. 그래서 그냥 재를 갖다 끼었으면 못 붙어.

그래서 이기고서는, 창고가 여럿인데 보니까는 그냥 창고마다 그 여자들이여, 그냥. 남의 집 저 첫날밤에 데려다가 그냥 하룻밤 자고, 또 가서 데려오른 이쁜 놈 그놈 데려가 살고, 이걸 갖다 가뉘 놓고 그냥 이지랄해서. 그런 그런 나쁜 놈이 있더라요.

그래선 그 여잔 물 떠다 준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고, 잊어버린 여자는 거기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손잡고 살았더라요.(웃음)

15 남편의 인덕으로 부가된 썩새딸

조돈희(70, 여)/성북리T 2뒤

[성북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6.)

할아버지께서 계속하여 혼자 말씀을 하시었다. 그러자 옆에서 계시던 할머니께서도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셨는지 처음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다.

(큰딸이 이제) 지 아버지 환갑 잔치에 왔다. 그렇게 환갑잔치가 왔는데, 지 아버지가 가니까는 그냥 쪽지게 차리더라. 쪽지게 차려놓고 그냥 상 받고 야단이더라. 그러니까 어렵잖아. 내가 없으니까 갈게 없잖아. 그러니까 인저 개나리 붓짐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서는,

“아이 여보! 개나리 붓짐을 싸가지고 갑시다.”

그러고 붓따리 하나를 딱 짊어지고 갔대. 작은애 집이름, 친정애를. 아버지 환갑인데. 근데 그냥 잔치꾼이 많고 참 잘 살더라. 그런데 인저 이이가 먼저 갔나 봐, 큰딸이. 큰딸이 먼저 갔는데 그냥,

“먹던 상에서 먹으라.”

그래구 먹으래더래. 그냥 ‘여기서 먹으라’ 그러고 반가워하지도 았구. 그러니까 저 저기, 그때 저 잘 사는 딸이 왔잖아. 인저 둘째 딸이라는 작은딸이 왔는데,

“야, 평풍 갖다 쳐라. 자부덩 갖다 뇌라.”

그러더래. 작은 사우가 오니까. 부잣집 사우가 오니까. 그래고,

“상 다시 보라.”

고 그러고. 장인 장모가 그냥 받아들이고 야단이더래. 장인 장모가 그냥. ‘상도 다시 잘 받아다 주라’고 그러고, 큰 사우는 먹던 상에서 먹게 그냥 두더래. 그래서 딸이 인제 그랬대.

“여보! 여보! 당신은 오장도 았냐구. 여보 이리 나오게.”

그래. 이제 마누라가, 색시가.

“왜 나오레나? 응, 친정에 왔는데 바로 가냐구.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는 걸 뭘 오해를 사냐.”

인저 친정 어머니가, 인저 이 딸이,

“오해를 사냐구. 어머니가 그러는 걸 뭘 오해를 사냐구. 그럼 친정 부모를 버리냐고 딸이야. 잉? 다 끝까지 보고 가자.”

고 그러더래. 저기 장모가 그러는 거지, 아니 사위가 그러는 거지. 사위가 인저 ‘끝까지 보고 가자’고 그러니까, 딸이 더러워 못 있졌잖아. 그 칭(층)하를 그렇게 하니까. 사위는 똑같은데, 았는 사위가 오니깐 그냥 상을 다시 그냥 차리고 그냥, ‘자부덩을 갖다 뇌라, 돛자리를 갖다 깔아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색시가 그간(그러니까) 참 분하고 아주 못 보겠더래. 그래서 ‘여보! 이리 나오라’구 그러니까, 그 사위는 먹는 거여, 배 고프니까. 그냥 배 고프니까 먹지 뭐여. 그러니까 인저 그 여자가 나와서,

“여보, 갑시다 그러더래. 그거 도로 짚어지고 오라고 가자.”

구. 그래 도로 짚어지곤 았대, 집이름. 와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았어서, 저 옛날이지 뭐, 선비 이 아랫집 가서 하전을 파는 거여. 하(화)전 모를 거여. 그 꿩이로 파서 산에 가서 땅을 파는 거여. 이 저 하전을 팔았대,

들이.

“우리도 이렇게 파서래도 스승 이렇게 심어서 먹고 살지구. 우떻게 하나.”

구. [할아버지 : 그 다음 애긴 내가 허지. 당신 고겨.] 부모는, 부모는 저기 라구 그래드래. 그래 가지고선 있는데 중이 지나가더래. 중이 들이 지나가 더니,

“하, 여기다가 집을 지며는 어디로 문을 한을 하고(향하고) 어디로 어떻게 하면 잘 살겠다.”

그러더래, 중이. 그래 가만히 들으니까는 중이 그러더래.

“낮말은 쥐가 듣고 야니 밤말을 새가 듣는다고 그러더래나. 그런 소릴 왜 하나구. 알켜(가르쳐)주지 말라.”

구 그러더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한겨여 인저. 그러니까는 영, 근디 가만히 있다가,

“아르켜 달라.”

고 그랬대. 인이(이 사람)가. 그냥 붙잡고,

“시님 좀 제발 좀 아리켜 달라고. 어디로 어떻게 하고 어디로 어떻게 하면 잘 살겠나?”

고 그랬대. 그러니까는,

“그것 봐. 아르켜 줘야지. 해지 말랬지 않나?”

구. 스님이 하나 그러더래.

“아르켜 주고 가야지, 어떻게 안 아르켜 주냐?”

그러더래, 스님이. 그런데 해니까는, 파다파다 보니까 꼬부랑 암소가 와서 그냥 돈을 한가득 지고 와서 거기 와서 엎어져 죽더래. 꼬부랑 암소가. [조사자 : 암소요?] 어 옛날에. 돈을 지고 와서. 그래서 인이가 인저, 인이가 인저 지서에 갖다 준 거여. 저기다가 갖다가, 면에 갖다가,

“이렇게 돈이 왔으니, 이렇게 꼬부랑 암소가 이렇게 됐시니까, 이 돈은 내게 아니니까 여기다 둔다고. 임자가 나서면 주라.”

고. 마음이 곧지 뭐여. 그러니까 그계 복이 온 거야. 인저 갖다 주고 있시니까는, 암만 있어도 임자가 없더래. 암만 몇 년을 뒤도 임자가 없더래, 이

게. 그러니깐 그 준 면에서,

“가져 가라.”

구 그러더래.

“이건 당신 복이라구. 당신,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 복이라.”

구.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그냥 집을 거기다 고래등같은 집을 잘 졌대, 그냥. 잘 짓고 그냥 하인을 몇을 두고 그랬대, 그이가. 그런데 인저 하두 저렇게 되니까,

“우리 친정에 가 보자.”

고. 딸이. ‘친정에 좀 가 보자’고 그랬대. [조사자 : 부자 됐으니까요?] 잉.

“이렇게 부자 됐시니까 우리 친정에 좀 가 봅시다. 개나리 붓짐만 지고가 봅시다.”

그랬드래. 예전마냥 그렇게 지고 갔대, 친정을. 지고 가면서 그랬대. 어머니 아버지더러.

“우떻게 왔나?”

고. 반가와 하지도 않고 그러더래. 그래서 인저,

“우리 집 우떻게 사나?”

그러더래. 아버지가. 어머니,

“아, 이것 못 보냐구. 개나리 붓짐 지고 맨날 그 타령이라구. 에 뭐 별수 있냐구. 없는 사람이 별수 있나?”

고. 하면서 점심을 해 줘서 먹고 왔대. 그러면서,

“우리 우떻게 사나 어머니 아버지 좀 와 보슈.”

그러더래. 직 어머니 아버지더러.

“우리 집 와 보슈.”

그러더래. 그런데 인이가 맨날 그렇게 사니까 안 간겨여. 그래서 안 갔다가 ‘으떻게 사나? 그러니까 진짜 으떻게 사나? 그대로 맨날 사나?’ 그러고 아버지가 갔대. 어머니 아버지가 갔는데, 물어 물어 갔대. 가니까는 세상에 그 성(姓)을 묻고 그 사우 이름을 대니까는,

“이 집이라.”

고 그러더래. 세상에 안이 그냥 대문이 열두 대문도 더 되더라. 아주 그렇

게 잘 산대, 하인을 두고. 마루에서 왔다갔다 하더래, 딸이. 그래서 인저 불르니까 나오더래.

“아니, 니가 으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냐?”

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웬 일이냐?”

고 그랬다. [청중 : 거기가, 그러니까 그 여기가 이동면 샘골이라는 디여. 샘골.] 옛날이 그랬지. [청중 : 아니 옛날에 용인군, 용인군, 바로 용인 살면 그 이동면 고개 있잖아, 고개. 고 넘어가며는 샘골이란 동네가 있어.] 그것도 우리 작은 어머니가 해 주었었어.

[청중 : 그것 그것 있는 말이여. 샘골이라는데 그때는 그 저 사람이 안 살고, 말하자면 그 그냥 산이 그냥 우거지고 그래. 그랬을 적이야. 그 사람들 이 거기 와서 하천 밥 파먹고 살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 질 중이, 그 아래 저기 그 이동면 저 덩굴, 덩굴이 아니라 저 뭐여 굴암, 굴암절 중들이 그렇게 가르켜 준 거여. 굴암절 중.

[조사자 : 이것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청중 : 실제 있었어. 거기 거기 우리 어려서두 그 부자가 그 이경하라고, 경하집이라고 아주 부자집 이 여기 와서 땅 사고 그랬었어요. 그건 뭐 실지 있었던 얘기여. 그런 그 사람들은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이여.]

16 구렁덩덩 인선비

조돈희(70, 여)/성복리T 2취

[성복 2리 자택] 박중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6.)

앞의 이야기 도중에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하시다가 잊어버렸는지, 앞의 이야기가 끝나고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 손녀의 사진을 보여 주시겠다고며 앨범을 찾으셨다. 그래서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돌려 달라고 다시 청하였다. 처음과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전에 한 번을 그러더래. 우리 작은 어머니가 가마니 치며 새끼 꼬며, 얘기를 잘 해 줘. 한 번은 그러드래.

딸이, 딸이 삼 형젠데, 삼 형젠가 사 형젠데. 인제 숯장사를 했대. 그 저기 엄마 아버지가 숯장사를 했대. 숯장사를 했는데 저기 그러더래. 딸이 삼 형젠데, 근데 그 집애가 구렁이가 엄청 크게 있다. [조사자 : 구렁이요?] 잉. 구렁이가. 그러면 인제 그러더래.

“나 저기 있는 저 색시 장가 안 들여주면,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갈 꺼라.”

구 그러더래. 구렁이가 그렇게 말을 해드래.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간다’구. 그러니까 큰일 났지 뭐여.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 간다니까 큰일 난 거여, 어머니가. 기가 맥히지 뭐여, 기냥 말을 하더래. 그래서 인제 그랬대. 딸이 왔길래, 큰딸이 왔는데,

“야, 아무개야! 너 저기 있는 구렁덩덩 신선비한테 시집 갈래?”

그러니까,

“아휴, 별꼴도 다 많다구. 내가 왜 구렁이한테 시집을 가냐?”

구. 그냥 딸이 펄펄 뛰더래, 인자 큰딸이. 그래서 인제 또 작은딸한테,

“야, 아무개야! 너 저 건너 구렁덩덩 신선비한테 시집 갈래?”

그러니까. 인자 구렁덩덩 신선비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인제 사람인가 봐, 말을 하는 게. 그런데 또 그냥 펄펄 뛰더래, 이 딸이 그냥.

“싫다.”

고. 펄펄 뛰더래 그냥. 그러니까 또 셋째 딸이 왔더래. 셋째 딸더러,

“애, 나 원을 좀 하나 풀어 줄래?”

“왜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듣는다.”

그러더래. 이 셋째 딸이.

“그래 말썽 좀 해 보라.”

고. 그러더래.

“저 건너 아무개 어머니가 저기 구렁덩덩 신선비한테 시집 갈래? 그 사이에 장가를 안 들여주며는 도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하나?”

구 그래드래. 이 색시가 옆에서 그러드래.

“아, 나는 부모가 해시는 대로 해요.”
 그러드래. ‘아 나는 부모가 보내주는 데로 가지. 반대를 안 한다’고 그러드래, 셋째 딸이.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해서 잔치를 했거든. 잔치를 했는데 첫 날밤에 요렇게 빼죽한 칼을 주더래. 칼을 주면서,
 “나를 요렇게 배에서부터 요렇게 죄 찢라고 그러드래. 살을 찢라.”
 고. 그런데 찢는데,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잘 생긴 사람이 나오더래. 그냥 아주 선비가 나오더래. 그러면서,
 “이 내 꺾테기를 당신 주머니에다가, 이 허리춤에다가 넣어 가지구 태우지는 말라.”
 고 그러드래. 이 ‘태우지 말라’고 그러드래.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를 갈건가 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년이, 신랑이 어디 갔는데,
 “나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데려 갈까 그러드래. ‘간다’ 그랬는데,
 “이거를 태워서 내가 냄새를 맡으며는 당신한테 못 온다.”
 그러드래. 그래 이, 저이 딸년덜이 그냥 그제 셈이 나서,
 “너, 그 저 구렁이 꺾테기 어쨌어? 어쨌어?”
 그러드래. 그래서,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거를 신랑 가는데 태웠대, 그거를. 태워가지고 그 냄새를 맡고 신랑이 안 왔더라고요.

17 절친한 친구의 우정 시험

허현욱(78, 남)/성북리T 2뒤3앞

[성북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6.)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 손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은 할아버지께서 다시 자리에 앉으시면서 할머니 말씀에 이어서 해 주신 이야기이다.

두 사람이 형제처럼 아주 참 친하게 어려서부터 자라요. 자라면서 인제 공부를 하면서 둘이 약속을 하는 거여.

“니가 잘 되고 내가 못 살면은 니가 나를 봐줘야 하고, 내가 잘 되고 니가 못 살면 내가 너를 봐주고.”

그렇게 아주 인제 약속을 하면서 인제 글방에 대니는 거여. 그래가지구 크게 자라서, 아 이거 한 놈은 과거를 봐서 평양감사가 됐는데, 아 이건 세상 과거를 봐도 그냥 과거에 떨어져. 거 맨날 술이나 먹고 그냥 건달 생활을 하고 인제 그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우니까는 할 수 없이 친구를 찾아가는 거여, 평양을. 인자 감사가 되었으니까 물론 찾아, 찾아줄 거 아니여. 인제 좀 참 봐 줄 거 아니여. 그래서 평양을 찾아가니까, 찾아가서 인제, 평양에 그 자기 친구 있는데 가서 하인보고,

“시골에서 아무 데서 친구가 찾아왔다고 가 전해라.”

그러니까. 그 이름까지 가르쳐 줘서 전했는데, 그냥 전하면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거던. 근데 들어가서 얘길 하고 나오더니 에,

“자기 일이 바쁘니까, 사랑방에서 좀 며칠만 쉬어 계시래요.”

그래거던. 그래 야속하잖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친군데, 며칠 사랑에서 있으래니 좀 야속하잖아.

“아마 볼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구. 사랑방에서 인제 자는데, 그 평양에 감홍주라는 술이 있는데, 참 술이 좋아. 그래 친구한테 가서 감홍주도 얻어먹고 그릴려고 그랬는데, 감홍주 구경도 시키지도 않고 그저 조석으로 밥만 그냥 그리고 푸대접 하듯이 주거든. 그래 한 사흘 지났는데 또 그러니까,

“한 사흘만 더 있으라.”

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흘을 더 있는 데도, 아 영 나오질 않거던. 그래서 하인보고,

“야! 들어가서 친구가 야속해서 말이여. 그냥 간다고 그래라.”

그래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럼, 가실래면 가시래요.”

아, 그렇게 푸대접을 하거든. 얼마나 야속해. 한참 나오다 보니까 감홍주 파는 데가, 그냥 술집이 근사한 데가 있더라. 이렇게 쓱 보더니 들어가서,

“감홍주 있느냐?”

고 그러니까.

“있다.”

고 그러더라.

“얼마든지 드린다.”

고. 그래서 감홍주를 그냥 실컷 먹고 그냥,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이 들은 거여. 한 이틀을 잤는지 사흘을 잤는지 자고 일어나니까, 잠결에 귀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저력저력 나거든. 그래서 아니 고건 나중이로구나.

자다 깨보니까 염라대왕이로다가 되었어, 이 사람이. 염라대왕. 그 인자 하인들이 쪽 늘어서 굴복사례 하고선,

“아, 대왕님! 이제 일어 나시느냐?”

고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염라대왕이 되셨습니다.”

이거여. 그것 참 이상하거든 그냥. 술 먹고 실컷 자고 일어나니까 염라대왕이 됐으니. 그러면,

“염라대왕이 됐으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허겠느냐?”

고. 그저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양에 아무 그 감사놈 그 옥중에다가 잡아다 널(넣을) 수 있느냐?”

“그렇겠습니다.”

이 이 하도 야속하게 해서 말이야. 염라대왕이 돼서 원수를 갚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에(Tape 3앞에 계속) 들어가 앉으니까,

“그 가방 좀 가지고 오니라.”

하이 그냥 (녹음이 지워짐 : 상을 차려 오는데) 기가 맥히게 차려 오거던. 그래서 싹껏 거기서 먹었어. 먹구선 이틀을 잤는지 사흘을 잤는지, 싹껏 자고 일어나서, 일어나선 잠이 깬는데, 뒤에 참 또랑물 내려가는 소리가,
“졸졸졸!”

나더래. 그래 깨보니까 평양 개울 천지에 가서 두리 누워서 자거든. 자기 입고 간 옷 그대로 입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당체 알 수, 알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보고 그렇게 물으니까,

“여기가 평양입니다.”

이거여. 그래 금방 염라, 염라대왕이 됐다, 금방 또 도로 되는지, 이게 정말. 인제 그 친구라도 암만 잘못 했어도 그 귀신도 못 나오는 그 옥에다 친구를 가둬놓고선, 금방 이 저기 염라대왕이 됐다고 해서 그 짓을 해놨으니,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말이여.

그냥 그대로 그 입은 옷을 입고 서울을 온 거야. 자기네 집이로. 와보니까 자기, 자기네 집자리에 그냥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짓고, 하인이 뭐 몇 명 두고 아주 그냥 굉장히 잘 해 놔거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저기 하나, 자기 부인이 그냥 참 수단걸로 입고 나와선,

“아 이게 무슨 것이냐고. 당신이 이게, 당신 간 뒤에서, 평양에서 돈이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 잘 짓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 이게 뭐냐.”

고. 아 이래 보니까, 그 감사가 장냥(장난)을 한 거예요. [조사자 : 친구를요?] 예. [조사자 : 장난을 헨 거요?] 친구가 장냥을 한 거여. 술을 잔뜩 맥여 놓고서 그 죽었다 살아난거랑 매찬가지거든. 술 잔뜩 맥었다가 깨고 난 다음에 염라대왕이 되게 해 것도 그 친구가 맹글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허냐 하는 꼴을 불라고 그렇게 한 건데.

아 그 아 이 뭐 장냥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놈의 이 사람을 찾아가 보긴 봐야겠는데, 아 그 자기한테 푸대접했다고 해서 친구를 그냥 무지무지한 그 옥에다 가둬놓고 이 짓을 했으니, 이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나 가 보긴 가 봐야 한다.”

고. 평양을 또 가니깐 그냥 맨발로 쫓아 나와서, 그냥 악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나 미안해서 이것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니까.

“아니야. 내가 장냥 한 번 헨 거여.(웃음) 그러니까 섭섭한 것 생각치 말고, 우리 더 친, 더 친절히 지내자.”

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좀 저기 먹어야 돼요. 아무리 잘못 했어도 좀 저기 했었는데(웃음) 그냥.

18 집안 대 잇기(씨내리)

허현옥(78, 남)/성북리T 3앞

[성북 2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손정화, 은순희, 변민숙 조사(1999. 5. 16.)

할아버지께서 유씨 집안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자 할머니께서 ‘육먹을 애기’라며 말씀하지 못하게 말리셨다. 그렇지만 ‘옛날 이야기인데, 해도 괜찮으니 해달라’고 조르자 해 주신 이야기이다.

유씨 두 내우분이, 지금은 사십이, 사십이 돼도 젊지만 옛날엔 한 삼십씩만 돼도 늙, 늙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내우가 삼십, 한 삼십이 되도록 어린애 하나도 못 나. 딸도 못 낳고 아들도 못 낳고.

근데 그 집 하인을(은) 그냥은 낳기만 하면 아들을 낳아. 아들 한 십형제를 낳았던 말이야. 근데 두 내외가, 그 유씨 두 내우가 죽어지면은 유가 네란 거는 아주 멸종이여. 우리 허서방네 모냥, 우리 허서방네 그 저 뭐야, 가락국왕 그 낭반의 자손인데. 그래서 부인허고 남편허고 하루는 저녁에 자면서 의논을 했어요.

“하인이 참 낳기만 하면 아들을 퍽퍽 낳 놓으니까, 우리 그 사람의 씨를 한 번 받아 보자.”

고. 그래 둘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들였어. 불러 들여가지고.

“우리 씨만 하나 생산해 주려는 논을 한 두어 섬지기 줄테니 우리 씨를

좀 부쳐다오. 그리고 만약에 이 소리를 탄 사람한테 만약에 하려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아주 죽을 테니까 그런 각오하고 해라.”

그러니깐. 처음엔 이 사람이,

“원 별말씀 다 하신다.”

고 그냥 그래. 그러나 그 어떻게, 두 내우가 다 약속해 가지고 허는 걸. 그래 하룻저녁 참 애기가 설 때쯤 됐는지 하룻저녁 참 잤는데, 아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가지구 열 달만에 아들을 낳았어. 그래 유씨, 유씨 집안에 대를 이은 거여. 씨를. 그래 눈 두 점지기 쥐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참 여러 아들들 데리고 참 넉넉하게 사는데.

아, 애가 나아, 나와가지고 자라서 공부를 어떻게 잘 하는지 잘 해가지고, 아이 나라에서 과거 보는데, 과거를 급제해 가지고 참 벼슬을 크게 했어요. 해서 정말 대궐에 가서 있는데, 이 놈이 가만히 생각해니깐, 이제 먹을 것도 많고 재산 저도 넉넉하니까는, 아 이게 인날(?) 암만 하인이래도 내 자식은 서울 가서 과거 급제해 가지고 증말 양반노릇을 하고 사는데, 자기는 이게 뭐난 말이야. 하인 노릇하고 살고, 그런게 자기 아들을 찾는 다 이거여. 그 영감쟁이 보고, 유씨 보고 와서,

“인저 아들을 나를 주시오.”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뭐. 이거 서로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 만일에 아들을 달래서 가져가며는, 아들 없는 것도 원통한데 이것 뺏기고 우리 망신하고 큰일 났단 말이여. 그러니깐,

“에휴,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나?”

고. 사랑 문을 딱 닫아 댕, 닫어 저 안으로 잠그고선, 그냥 조석을 갖다 쥐도 먹지 않고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사랑에서 드러눕는 거여 그냥. ‘굶어 죽는다’고. 이것 야단 났지 뭐여. 아이 이것 대감이 통 조석을 안 들고 그렇게 드러 누워 있으니, 이 노인네 죽으면 큰일 나겠다고 그냥 서울로다가, 아들한테로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 아들이 그냥 사랑 앞에 와서 굴복사례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누가 있습니까? 부자간에 누군데 못할 말이 뭐십니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하시고, 돌아가셔도 돌아가셔야지

않습니까?”

하고선, 그러니까 이 영감이 가만 있다가 생각하니까 그냥 죽어도 좀 원통하더라. 아들한테 그런 사실 얘기나 하고 죽는다고, 문을 열어주고 아들을 불러 들여서 사실 얘길 했어.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니가 태어났다. 근데 니의 생부가 너를 찾는다고 하니 이게 이거 난 살, 죽지 살지 못하겠다.”

인제 그러니까,

“염려 마시라구. 가만 계시라.”

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집이 보고,

“술 많이 좀 해 담그라.”

고 일르고 소 두 마리 잡고 그렇게 해서, 근 지금 이 수지읍 하면 수지읍 사람들을 다 모여 놓고 잔치를 하는 거여, 이 아들이. 그래 이런 교단을 떡 내놓고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동네 여러 사람들 술을 얼간하게 맥이고, 피기 실컷 맥이고선,

“지가 이 수수께끼 한 마디 하겠습니까.”

“아, 하라.”구.

“그런데 이 밭을 아래 웃데기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꼭대기 밭을 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밭장 밭을 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팔을 심고 갑이라는 사람은 콩을 심었는데, 이 콩, 콩 한 알이 여기 떠내려 가서 이 팔 밭에 가서 났어요. 났는데 이 콩이 아주 그냥 우러지게 열어, 열렸거든. 근데 이 콩 심은 사람이, ‘그 콩, 콩은 우리 씨가 내려가 난 거니까, 그 콩나 무는 우리 꺼다.’ 그 찾는다.”

이 말이여. 그 수수께끼를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여. 그래니깐 그 많은 사람들이,

“야, 뭐 이것, 응 씨 덩진 사람이 무신 소용이 있느, 있느냐 이 말이여. 밭창에서 매 가꾼 사람이 임자지. 씨 가진 사람은 소용없다.”

고. 그러니깐 이 사람이,

“내가 사실은 그렇게 됐다.”

이거여. 그거랑 똑같으잖아. 씨가 떨어져서 유씨가 됐는데, 이 매 가꾼 사

람이 아주 입자다 이거여. 그래 '사실 내가 그렇다' 그러니깐. 그것하고 똑 같으다 이 말이여.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래도 저기 생부니까 죽이던 못하고 말이지, 그냥 멀리멀리 그냥 몇 백 리로 그냥 구양(귀양) 보내, 보내다시피 지 생부를 말이야 그냥 보내놓고.

그 유씨의, 말하자면 씨를 퍼쳐가지고 지금까지 유씨가 내려왔대.

6. 상현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신용철, 최종원 조사(1997. 5. 15, 20)

상현리는 수지읍 사무소에서 서남쪽으로 6~7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의동과 하동이 수원으로 편입되어 끝에 있는 마을이 되었다. 그리고 광주 수원간 국도를 따라 자연마을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곳은 원래 용인군 지내면에 속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지내면 상리, 가산, 깊은말, 원촌, 만현과 수진면의 정평리 일부를 합치고 상리와 만현의 글자를 따서 상현리라 칭하고 수지면에 편입되었다. 이 상현리에 속하는 자연마을로는 서원말, 독바위, 깊은말, 길마재, 대장간말, 느진재, 삼막골, 절골말, 야지말, 가산 등이 있다.

서원말은 한자어로 院村이라고 하는데, 조선조 중종 때 명현 조광조를 모신 심곡서원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마을이다. 깊은말은 서원말 서쪽에 있는 심골 또는 심곡이라고 하는데, 심곡서원과 관련되어 생긴 이름인 것 같다. 느진재는 서원말 동쪽에 있는 마을로 한자어 만현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바위는 이곳의 고개에 있는 바위가 독처럼 생겼기 때문에 독바위 고개라고 붙여졌는데, 그 아래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불려진다. 그리고 그 동쪽에 고개가 길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길마재 아래 있는 마을이 붙여진 길마재가 있다. 가산은 마을의 가장 서쪽에 있는 국도변에 위치한 마을로, 독바위 서북쪽인 동시에 깊은골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절골말은 성불사라는 절이 있어서, 대장간말은 대장간이 있어서 불려진 이름이

며, 지형에 따라 양지바른 쪽이라고 해서 양지말과 산으로 막혀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산막곡이 변음이 된 삼막골이 있다.

2) 설화

① 풍덕천의 유래

이장님(48, 남)/상현리 T 1앞

[상현 1리 이장택] 박종수, 강현모, 신용철, 최종원 조사(1997. 5. 20.)

상현리 도착 시간이 12시쯤이었고, 여기서 이장님택을 방문하여 상현리의 여러 가지를 들었다. 더 조사를 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 다녔지만,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 하였다. 상현리는 지역은 크지만 인가가 떨어져 있고, 집보다는 공장이 많았다.

관교산 줄기로 해갓고 절이 굉장히 많았지. 임진왜란 때, 임진 외란 때 풍덕천하고 수지 있는데 이질산이라고 있어. 이질산하고 소실봉이 예날에는 그 망루네(경계선)는데, 그 소실봉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손가락으로 앞의 관교산 줄기를 가르키며.) 저 아래는 그 다 봐여.

[조사자1 : 저 산 꼭대기요.] 응. 거기가 상현 2리인데, 상현 3리이고 여기는 상현 2리이고, 거기서 보며는 다 봐여. 소실봉하고 이질산 그 근처에서 임진왜란 때 싸웠어. 소실봉에서 왜군하고 우리 군하고, [조사자1 : 그럼 거기서 초소 역할을 한 건가요, 거기?] 싸웠는데, 우리는, 게들이 그것 점령을 했었어. 소실봉을.

소실봉을 점령했는데, 우리는 무기가 없잖아. 도끼나 그런 것 갖고 싸움을 했는데, 임진왜란 때. 그런게 게들한테 당해 내질 못 했지. 훈련된 병사하고 훈련 안 된 병사하고 같을 순 없잖아. 그래 그때 전부 거기와 쫓겨 내려와갓고 이질산 밑창에는 연못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 거기에 빠져갓고 풍덕풍덕 빠져서 풍덕천이 된 거야.(일동웃음.)

이질산이, 그래서 이질산이 된 거야. [조사자1 : (어리둥절해 하며)이질

산이요?] (집 앞의 산 밑을 가리키며)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조사자1 : 예, 요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때 관(관)교산 줄기에 있는 절로 피신을 간 거야. 사람들이. [조사자1 :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2 왜군에게 불 태워진 절들

이장님(48, 남/상현리T 1앞

[상현 1리 이장대] 박종수, 강현모, 신용철, 최종원 조사(1997. 5. 20.)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해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나라가 불교를 숭배했던 말이야. 그런데 이조 시대 때 이성계가 정권을 잡으면서 억불숭유 정책을 썼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퇴치시킨다는.

그래 옛날에는 고려 시대 때는 절(寺)이 민가에 있었어요, 절. 같이 공존했지. 고려말의 그 신돈이라든가 하는 중들이 너무 했기 때문에, 이성계가 쫓아 버렸어. 산으로 가야 절들이 있어.

그래 여기도 절이 많았었는데, 근게 이게 전부 도망갔잖아. 옛날에 그 마을에는 그 여자들만 놔두고 도망가니까, 일본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전부, 남자들이 절에 있으니까 전부 불태운 거야. 그래서 절이 그 때 많이 불 타 없어졌지. 지금도 여기에 절이 있지.

[조사자1 : 그럼 여기에는 터만 있는 건가요?] 우리 동네가 심곡서원이 라는 깊은 심자 계곡 꼭자를 쓰거든. 그래서 여기가 동네가 상현리거든. 뭐냐면 윗 상자에 보리 현자를 쓰지. 물줄기가 여기서는 탄천리로 빠지는 거고, 여기는 평택으로 가는 거야. 상현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평택이고, 이쪽으로 가면 탄천으로 가는 거야.(분당쪽을 가리키며.)

[조사자1 : 탄천이요?] 탄천이 어디 나면 저기 분당쪽으로 빠져갔구, 저기 저 망보 쪽으로. 그래 물이 글리 빠지는 거구. 여기 저기 수지를 몰 수

자애다 가지 지자를 쓴단 말이야. 그래 전래가 있는 거야. 수지가 왜 수지가 됐느냐하든, 물이 갈려 나가는 것 아니야. 그래서 수지가 된 거지.

7. 죽전리

1) 마을개관

·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죽전리는 원래 용인군 수진면 지역으로, 큰 못이 있어 대지 또는 죽전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금바위, 점촌, 풍덕내를 합하여 죽전리라고 하여 읍삼면에 편입시켰다가 1973년 수지면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마을을 이루는 자연마을로는 곧은 길이 지난다고 해서 중통마을, 어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마을에 큰 연못을 파서 대지라고 불렀던 것이 이름으로 된 대지마을, 대지 연못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안대지마을, 동네 양편에 검고 큰 바위가 있어 검바위의 뜻으로 신암의 뜻을 가진 금바위 혹은 검바위 또는 한자어 현암마을, 대지 북동쪽에 새로 마을이 이룩되어 붙여진 새터, 마지막으로 풍덕천리에 가까운 마을이므로 붙여진 풍덕내 등이 있다.

죽전리는 이미 개발된 분당 신시가지가 바로 보이며 얼마 전부터 시작된 용인, 수지지구의 개발이 한창인 곳이다. 이러한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과 함께 민간에 의한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빌라형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한창 들어서면서 동네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동쪽은 산골짜기로 연결되어 있고, 북에서 남서 방향으로 천이 흐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서쪽은 평지이고 동쪽은 구릉으로 이어지는 지형이었다. 대개는 농사가 주 수입원이었고, 농사의 형태는 논농사와 밭농사가 주였지만 비닐하우스에 의한 화원도 간간이 눈에 띄었으며 양봉하는 곳도 있었다. 이러한 농촌 풍경 사이로 간간이 공장들이 눈에 띄었는데 오래 전부터 있었다

는 시멘트 공장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조그마한 공장 혹은 창고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최근에 대규모의 물류센터도 서울과 가까운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과 함께 그곳의 지역적 문제 역시 커져가고 있었다. 죽전리 이장 남용식씨(46세)에 의하면 현재 마을에는 500여 세대가 있는데, 그 중 25세대 정도의 토박이 주민들은 지금도 잘 어울리고 있으나, 나중에 이전해 온 사람들은 마을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리하여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인심이 사나워지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걸어 다니는 일이 많고, 초등학교는 죽전리 내에 있으나 중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도로의 확장도 정부의 임의대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전에는 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때 동네 단위로 줄다리기나 율놀이 등 민속놀이 즐기기 동네였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노인정과 친목회를 중심으로 토박이들 간의 교류는 유지되고 있었다. 비록 바로 뒤로 검은빛의 고층 아파트가 병풍같이 둘러지고 있었지만, 강변에 있는 죽전 25노인정 근처에는 조금 폐쇄적이지만 지역 교유의 지역성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설화

1 형제투쟁

김황복(74, 남)/죽전리T 1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은 죽전리에 도착하여 이장을 찾아가 마을의 개관을 조사한 뒤에 이곳 노인정을 소개받고 찾아갔을 때, 제보자를 위시하여 3명의 할아버지들이 계셨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쓸만한 이야기를 해야지 뭐, 아무 얘기나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럼 저 시방은 이 사회가 바뀌어서 옛날하고 틀리지 않우. 거 시방 사회가 바뀌어서 너무 돈 때문에 동기간에 의리가 좋

다가도 이거 뭐 재판을 하지 않나.

그런데 옛날에 형제가 사는데, 화목이 좋은 사람 애길 하는 거요. 그래 형제가 인제 이렇게 의리가 좋은데,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하나 얻었어. 게서 저 그걸 얻어 가지고는 아주 반씩 딱 갈라서 말이지 가지고 왔시우. 가지고 와서 인제 형이 가만히 저녁에 자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형제 대에는 이거 저 의리가 좋게 반씩 노나 가졌지만은, 장차 인저 앞으로 애들이 그 금전 관계 때문에, 이걸 두면은 금전관계 때문에 인저 그 저게 된다 이거여, 불안해진다.”

이거여. 의리가 좋아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일어나서 동상보고, “여보게. 그 금덩어리 어제 줬은 거 있지?”

“네!”

“그것 갖다 버리세.”

“왜요?”

“그것 두면은 재산관계 때문에 앞으로 애들이 의리가 좋지 않아. 그러 니깐 그 은은 자리에 가설랑 갖다 물에다 던지자.”

고.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러니까, 동상이 인자 참 복종을 하거든. 근까 그 들이 가설랑 금덩어릴 똑같이 그냥 물이다 던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참 재산이 읍지. 그걸 저 던졌으니까. 그러니깐 의리 상할 필요가 없잖 우. 인제 장래 자식들이. 그래갖고 화목하게 잘 살더래요.

그게 인저 지금은 그것 참 돈 때문에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 뭐. 이 동네도 참 그전에 화목들이 좋던 집안들두, 시방 금전관계 때문에 재판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참 사실 좋지 않은 거거든. 돈 때문에 잉. 그걸 참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러구 화목을 위해서 잘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구 그냥 돈에만 욕심이 나서 그 의리가 상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② 원님의 재판

김황복(74, 남)/죽전리T 1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해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앞의 끝에 재판이란 점에서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생각하여 구술하였다.

쌍쓰런 애기 같다.(청중들 웃음) [조사자 : 아이 아니예요.] 거 예날에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하나 얻었어요. 이것도 금덩어리 얻은 얘기야.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거지.

“이거 누가 잃어버리고 갔으니 얼마나 서운하냐!”

그래서 그걸 놓구는 기달리고 앉았는데, 주인이 오면 찾아 줄려구.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한 사람이 오더라 이거야. 게 이걸,

“금덩어리 봤느냐?”

고 그러니까.

“아이 이걸 줬었는데, 시방 주인이 나타날 때 바라고 앉았다. 당신 꺼면 가져 가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똑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내 건 두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를 어쨌느냐?”

이거야. 그래 이 사람은 한 덩어리밖에 안 줬어서, 그걸 양심껏 그 주인을 찾아 줄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영똥하게,

“두 덩어리 중에 하나 어쨌고 한 덩어리만 주느냐 말이지. 당신 어마 감춘 거 아니냐?”

그래구 서로 욕신각신 싸울 꺼 아냐. 게 둘이 해결은 못 짓지. 그래 둘이 인자 짝(계속) 싸우다가, 예날에 그 인제 거 원님 있잖아, 거 원. 시방으로 말하자면 군수 이런 것마냥. 그때, 그때는 이 문관 무관을 곁했어요. 그거 다 혼자 그 원님이 재판을 하고 이랬지 그때는.

“그래 원님한테로 가자.”

게 이눔도,
“갑시다.”

그래 둘이 갔다. 가서 이젠 그런 사실을 얘기하니까, 원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금덩어릴 줏은 사람은 참 양심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저 놈 잃어버린 놈은 엉뚱하게 하나를 더 내 놓으라고 하니까, 그것 도둑놈 아니요. 그래 가만히 앉아 연구를 해 가지고는,

“어 그러면, 당신은 금덩어리를 둘을 잃어 버렸어까, 두 덩어리를 잃어 버렸으니까 두 덩어릴 줏은 사람한테 가서 찾아라. 이 사람은 한 덩어리 밖에 안 주었으니까 이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는 저 한 덩어리 잃어버린 사람이 오거든 찾아 줄테니까 가라.”

그래 인저 재판을 이겼지 뭐야. 게 나와서 인저 금덩어리 하나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우. 그런데 춤을 좀 한 번 추고 이냥 흥을 한 번 풀어야 할 텐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그래 옛날에는 그저 저 배방앗간이구, 방앗간이 인저 험수룩한데, 외단데 이렇게 험수룩한 데다 지어, 지어 났거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는 어찌뜯지, 킁킁하지 뭘. 비적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 그냥 자기 흥을 풀어가면서 춤을 춘 거야, 한바당. [조사자 : 혼자서요?] 응. 그랬더니 그거 남 보지 못하게, 그냥 저 흥을 한 번 풀어 볼려구 그냥. 그 금덩어리 한 덩어리를 줏었느니까 부자된 거 아냐. 그 원님이 또 그렇게 재판을 내렸고.

아 그런데 이거 거지가 거기다 애를 낳아서 이렇게 놓은 것을 모르고 그냥 밟아 죽이는 것도 모르고 혼자 춘 거야, 그냥. 그런데 얼마를 추다 보니까는 비적문이 열리더라 이거야. 아 근데 보니까 그지여. 그지가 들어오더니,

“어머, 우리 애가 어디로 갔지.”

그러더니 죽었지 뭐, 밟아 터져 죽었지. 아 그래가지고 이거 또 소송이 됐네, 인제 또. 그 남의 자식을 밟아 죽였으니 어떻게 해. 일부로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자기 흥 푸느냐 그랬는데, 이걸 보지를 못하고는 추다가 밟아 죽었으니 어떻게 해. 그래 둘이 또 해결을 못 짓잖아. 그래 원님한테 또 갔어.

“이걸 해결 질라면 원님한테로 가자.”

그래 가서, 둘이 갔는데 원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 사전에 금덩어리 관계 때문에 재판하러 온 사람인데, 저 사람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또 걸려 들어왔단 말여. 그래 전 재판을 어떻게 내리고 허니,

“자, 그럼 죽은 자식은 살릴 수 없잖느냐. 그러니깐 참 이런 아가씨들 듣는데 이게 책피한 애긴데, 그러면 좋은 수가 있다.”

이거여.

“그래 무슨 수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죽은 자식을 살릴 수는 없고 당신 마나님을 저 사람을 쥐서 데리고 살다, 게서 애를 낳거든 애하고 찾아가라.”

이거여. 아 그래 이눔이 그것 허락을 해줄 꺼 같야.(웃음)

“아이 난 애구 뭐구 예편네는 못 준다.”

이거여. 그래서 또 그 죄를 모면하고 잘 살다 죽더래.(웃음) 이거 뿐이여.

3 주변지 지명 유래

김황복(74, 남)/죽전리T 1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지명에 대해 묻자 제보자가 들려주었다.

① 대지의 유래

감 비슷하게 생겨서 감바위라고 했지.

저기 저 ‘대지’라는데, 요기 요 물 건너가 대지거든. 거기가 죽전 1리인데, 게 그전에 거기 대지, 수지면 죽전리 대지거든. 근대 그게 큰 대(大)자

에 못 지(池)자로 쓰거든, 그 큰 못이 있었다구.

그래 그 전에 저 어씨라는, 어씨가 살았거든. 그래서 고기 어(漁)자 어씨면은 인제 못이 있어야 고기가 놀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유래가 있어요. [조사자 : 거기서 그걸 만들었어요?] 아니.

그때는 그걸 했지만, 시방은 그게 또 학교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따지(地)자로 또 그걸 같았어요. [조사자 : 아. 그 마을 이름 지으면서요?] 그래. 큰 땅이다. 이래가지고 그 큰 대(大)자 따 지(地)자.

② 군량들의 유래

그게 아파트 단지가 있고 허지만, 거기가 임진왜란 때, 그게 저 이진장 대라고 그러지. 장대는 인제 그 진을 쳐놓고, 인제 그 저쪽에는 왜군이 있었구. 이쪽에는 한국군이 있었구. 또 그렇게 또 싸움을 해갔구.

요 시방 요기 이 아파트 아직은 안 지었지만 이것 전철 길이 있잖우? 거기가 군량뜰이라는 데야, 군량뜰. 이 나라 전장에는 군량이 많아야 되거든. 식량이.

그래서 인제 그, 그게 오리나무 숲인데, 그걸 전부 작동을 해서 쌓아 놓고는 덮어뺐단 말이여. [조사자 : 거기다 군량을.] 영. 게서 인제 그 일본군이 지나가다가,

“저게 뭐냐?”

그러고 물을 때.

“그것 군량이다.”

그래서 그 들 이름이 군량뜰이다. 이렇게서 시방 다 인제 다 뭐 매물하고, 뭐 집들을 짓고 했지만은, 거 유래가 그렇게 되 있어요, 그게. 군량뜰이라는 들이에요. 그게 평수는 한 8만여 평 되지.

4 여수회에 묘자리 잡은 지관

구병장(84, 남/죽전리T 1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지명 유래를 채록한 뒤에, 옆에 있는 제보자가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판에 끼어 들어 구술하여 주었다.

전에, (기침) 전에는 부모 돌아가시면 저 저기 뭐라고 하지? 거기 채빈(초분)해 봐.(청중들이 채봉(초분)에 대한 논쟁 생략) 채빈. 채빈이라고두 하고, 여긴 채빈이라고 하고. 저긴 채봉이라고 얘기 하는데. 그걸 해놓구선 몇 해구 몇 해구 명당을 거기다 산소를 갔다드라. 전날 갔드라 땅에다 파묻는다 이거야.(무슨 말인지 잘 파악 안 됨)

그러한데 거의 남한에 있는 지사란 지사는 그 다 갖, 부잔데, 지사란 지사는 그 소문 듣고서 돈 벌러들 오거던. 원 당채 (명당자리가) 안 잡아져. 잡을 중 몰라 그런지 어쩐지 잡들 았구서는, 그래 하다하다서나서는 밋 해를 나가는데, 낭중에(나중에) 어떤 한 분이 에 왔더라. 왔는데.(쩍)

“나가(내가) 명당은 며칠 대며 잡아야 할텐데, 이것 그렇게 할라면 나를 꼭 업구 가야지, 한 발짝이라도 건던 못 한다 이거여. 문 앞에서부터 업고 산이를 다 당겨야지.”

“아, 그런다.”

구. 5형제데, 아들이.(기침) 아 그제 산이를 땡기는데, 말하자면 이런 데 높은 산이었던게벼. 점드락 가야 못 잡구선 그냥 내려온단 말야. 죽갔지요 그 무거운 놈의 것 업고 땡길라니, 생각을 하니.(웃음) 아 그래서 한 20일을 땡기는데 업구 땡긴단 이거여. 20일을 업구 넘겨 땡기는데, 5형제 다 맞아 죽갔어, 업구 땡기다가.

그 막내 놈이 우자드라. 우자야. 우악해요. 굶어 부수고. 저내 산말랭이에서 내려다나 내려놓고,

“아버지 산소는 못 얻드래도 당신은 못 업고 땡기겠어. 오늘 당신을 여

기다 패죽여 버려야겠어. 우리 5형제가 말라 죽어, 더 업구 땡기다간.”
막대기를 저 맨들어 가지구 후드려 썰라고 한게.

“아이고 내일은 꼭 잡아 주마 하고 내일 만일 안 잡아 주거든 날 죽이라.”

구. 그랬다 이기야. 그래서 이제 그냥 데리고 내려, 업, 그뎨 걸어간다고 하는 거야, 이상하게.

“아니야. 오늘은 업고, 업고 간다.”

고. 아들들이 업고들, 올려서 업고 내려왔어. 하루 저녁 자고서, 그 이튿날 또,

“업자.”

고 한게.

“그냥 가자.”고

“안 된다.”

고. 그리고,

“업자.”

고. 자손들이 험게 업고 올, 올라갔다 이거야. 어디계쯤 가더니 가서,

“여기다 쓰라고 산소를 여기다 들이면 앞으로 괜찮을 데라.”

구. 아 그래서 인제 사인을 달라는디, 집에 내려와서는 인자 사인을 잡아서 장사를 지냈다 이거여. 지냈는데 지사는 가고, 어서 사는 주소도 안 알려주고 갔다 이거여. 갔는디 거 지사가 한 두어 달 있다가서나 찾아왔더라.

왔는데 그 안에 묘를 파게 됐어. 묘를 파게 되었어. 아 아 인저 팔라니 팔 수도 읊고 헌디, 이상을 했거든.

“왜 파느냐 하니냐, 파서 뱀쫓려는 것도 아니고.”

“저히 아버지가 살은, 살았을 때 그 옷 고대로 입고서 저녁마두 오나서 ‘너들 잘 있니?’ 허고서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하고 가고 가고 하는데,”

한 열흘을 그냥 하다본게, 막내놈이 있다 생각한게, ‘이게 죽은 지 아버지가 뗏자리(묘자리)에서 벌써 썩어서, 다 모셨는데 올 리도 없고. 오실 리도 없구, 좌우간 이게 이상스런 일이다’ 하구선 몽둥이를 하나 헤 가지

고선 방으로 들어와서,

“이거 오늘 여기서 꽤 죽인다.”

고 말이야. 아 그러니 밑이, 적 그 성(형)들만 난리 났거든. 적 아버지 꽤 죽인당께.

“아 이놈아! 아버지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

붙잡고 못하게 하네. 허락을 하나 맡거나 그 놈이, 우자한 놈이 후드려 패서 죽였다는 거야. 여수 여수. 그래 여수회에다 잡아주구, [청중들 : 여우.] 어, 여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우자가 없으면 거기다 묘 써서 견딜들 못 하. 집안 망하지, 그 여수 여수 때문에. 그래서 그거나 한 마디 하지. 그만하죠(웃음) 그것도 말이 안 되야. 나 못 하.

5 바른 정승집안 묘자리잡기

최병호(72, 남)/죽전리T 1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같은 풍수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옆에 있던 제보자가 이야기판에 나서 이어 주었다.

한 마디 해야했는데, 옛날에 거 김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방으로 말하면 참 뭐 국무총리 무슨 이런디 벼슬 하나 하신 분인데, 그런데 자기 저 어머님인지 아버지진지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은 상을 당했어.

그러니까 뭐 참 양심 바른 그 정승이니까, 시방 같으면 뭐여 금품을 갈취를 해서랑 부자가 될텐데, 그렇게 어려워요. 게 양심껏 사니까. 근데 상을 당했는데, 장사를 지내야 할텐데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무슨 이 정승인가 누가 인제 친구가 있는데, 저 아래서 어디가 산다. 그 인제 아들보고, “아무개야!”

그러니까. 아들이,

“네!”

그리고 인자 대답을 하니까.

“그 아무개 내 친구 있지 않느냐. 그 정승한테 가설랑 그런 애길하면 그래도 장례비는 줄 거다. 가서 좀 얻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보냈다. 그 참 그뎨 뭐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한 며칠을 간 거지 인자 뭐야. 가서 이제, 가니까는 그 아버지 친구되는 분이,

“아니 니가 어떤 일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여. 그러니까 이제 입맛을 썹썹 다시고, 그 말을 참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가 자꾸 다그쳐 물으니까 그때서 이제 입을 열을 거야. 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아버지가 인제 아무런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장례비가 없지 않냐구. 그러게 없으니까 좀 가 보라고 해서 왔다.”

고. 그러니까는.

“어 그래!”

근데 그 분은 잘 살거든. 그래서 장례비를 줬어요.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걸어오는데, 한강을 건널텐데 서울 한강을. 저쪽에서 두 내외가 싸우는데, 남자는 물로 들어갈라구 하고 여자는 끌어 잡아 들이구, 옥신각신 하거든. 그래서 이제 거길 쫓아갔어요, 이 사람이. 돈을, 그 장례비를 얻어가지구 오다가 무슨 사건인가 하고 쫓아가 본 거여. 가서 보니까는 그렇게 두 내외인데 싸우거든. 물로 들어갈라고 하고 남자는, 여자는 이제 잡아대리구.

“근데 왜들 그러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방으로 말하자면 세관 일을 보는 사람이야. 그 저 옛날에는 구슬이라고 하지, 구슬. 그 나라 돈을 인저 받아서 갖다 상납을 시키는 그 사람이야, 그계. 근데 이 놈이 다 집어 썼다. 그래 나라에서 이제,

“아무 날 가져 와라. 그 돈을 가져 와라.”

그러니까. 갖다 줄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야 한다.”

돈을 갖다 갚을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싸우드라. 그 가만히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은 안 됐거든. 사람이 생명은 중한데, 돈 때문에 죽는냐 이거여.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인자 그 장례비, 즈이 아버지 심부름을 해서 가져오는 돈을,

“그래 이거면은 되겠느냐?”

고 이러니까는.

“아 그만함 된다.”

구. 그냥 내줬어. 내 줬으니 이 사람이 거든히 살았어, 뭘 저. 그것 갖다, 나라에 갖다 상납 했으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돈을 주고 돌아설 때, 그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여 귀 밑에 흑이 있거든. 그걸 어떻게 봤는지, 저 아무 때고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찬데. 그래 이제 장례를 못 지내는 거지 뭐. 그 지 아버지가,

“돈 가지고 왔나?”

그러니까는,

“그 사정이 이러저러 해서, 오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을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꾸중도 안 해.

“어 그거 잘 했다.”

어 자기 아버지가 ‘그것 잘 했다’ 그저 그러고는 돈이 없으니 장사도 못 지내는 거지 뭘. 근데 밤중에 서울 집은 왜 언덕받이도 있고 그렇잖어. 아 별안간 밤중에 문밖에서,

“광!”

하는 소리가 나거든. 어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뒷문을 열고 가 보니까, 웬 술주정꾼이 하나 그 언덕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궁굴러서 떨어졌거덩. 그래 뭐 술이 만취가 되서 그러니까는, 부자가 이제 끌어들여서 자기 아래목에다가 참 누어서 이제 하루 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깨어 났거든.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구 도사야, 도사. 그래 이제 하두 그 집 참 인품이 좋고 착하니까 도와 줄려구 온거지 말하자면. 그 이제 술주정꾼으로

이제 가장을 한 거지. 근데 아이 아 사람이 깨서 보니까는 웃목에다 시체를 이렇게 해서 가려놨잖아.

“그래 무슨 일이나?”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덩.

“아, 그러냐고. 아무 날에 장사를 모시도록 하라.”

구. 그래 산소자리를 잡는데, 저 남양 저쪽으로 갔대. 그저 아들을 데리고 저 간 거지. 가서는 산머리 턱에 앉아서 참 이렇게 좌우를 돌,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꼭 쓸 데가 한 자리 있는데, 감히 거기를 쓸 수가 없데요.

왜냐 하면 그 집 그 개화집인데 잘 지었거던. 그때부터 이제 좀 형세가 늘어서 잘 살거던. 근데 그 장독 복판에다가 이 산소를 모셔야 할텐데, 감히 어떻게 남의 집 장독에 가서, 장독 복판에다가 이 묻게 달라고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여. 그러니까 뭐 저 죽느냐 사나 할 수 없는 거지 뤄.

그래서 이제 내려가설랑 주인을 찾았어. 찾아 찾으니까 이제 참 주인이 나오거덩. 나오더니 벌써 인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갚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뜻 보니까 여 귀 밑에 점이 있더라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다. 우리 돈을 쥐서 우리가 살은 그 사람이다.’ 그래 그걸 알고는 인쳐,

“상황이 이래저래 해설랑은 그때는 이렇게 되서 했는데, 시방 산소자리를 모실라고 산소자리를 보러 왔는데, 이 집 장독 복판에다 꼭 모셔야 할텐데 그거를 허락을 해 주시겠느냐?”

아 그러니까. 그 선뜻,

“어이, 모시라.”

고. 그 은혜를 갚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갚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참 명당자리거든, 거기야. 그 도사가 잡으니 뭐 말할 거 읊지 뭘. 그래서 거기다가 참 장례를 모시고 나서 형세가 낮어 잘 살다 죽었대요.

그런 애길 내 들었지요. 그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예요.(웃음)

6 베틀형국의 덕림 조씨 묘자리

구병장(84, 남)/죽전리T 1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명당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제보자가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저기 부여군, 부여군 임천 임천면 거기 조씨들이 있어. 덕림 조씨. 조씨들이 잘 돼 지금. 잘 돼 나가고, 거기 국회의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런 분들인데.

거 참 그 분도 그전에,(기침) 시조 때, 에 신성당에서 참 뛰시기 뭐(더듬으며) 뭐죠 그게? 천막? [청중 : 초막.] 초막 지어 놓고, 계단 있는 모시해 입구서는 인제 묘자리를 인자, [청중 : 처봉.] [청중2 : 처봉이라고 해.] 거기는 처봉이라고 안 해. 우리게는.

그런데 아 그래 해놓고선 묘자리를 이냥 잡으려 당기는데, 암만(기침) 거 임천 거기 덕림이란 데가 베틀형국 있다는 거. 베틀형국. 베틀형국에다 쓰면 참 자손이 잘 되겠는데, 그 지사가 참 무획이야. 무획이. [청중 : 이 무학이. 무학이.] 무획이가 잡으려 덩겨도 잡들 못 하. 만날 가 봐야, 몇 해 두고 가 봐야 자해(?)를 못 하. 건게 그, [청중 : 거 무학 대사가 서울에, 그 사대문 세우다고 한잖아.] 거기도 거긴 다 해구.

그런디 그래서 인제 그래두 또 가 보고, 또 가 보고 거 묵은 묘는 하나 있드랴. 큰 묘이 묵은 묘이. 먼저 쓴 묘이 있는데 묵었드랴. 묵었는데 게 우대에 쓰면 어떤가 어떤가 대구 돌아댕겨 봐야 자해를 못 하겠어. 그래 인제 돌아오고 돌아오고 몇 해를 그냥 해두, 해마두 거기를 가는 거야. 자리는 좋은게. 그런데 자해를 못 혀. 자해를 잘 못하면 소용 없거든.

그래 인제 하루는 참 무획이가 거기를 돌아 다닌는데, 그 전에 그 오두막집이 하나 없는데, 오두막집 하나가 있드랴. 근데 거기 베를,

“잘국. 잘국.”

배 찌는 소리가 나. 근데 그 마당에는 요런(조사자 가리키며) 처녀처럼 생긴 처녀가 돌아댕기더라. 그래,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래 국물 좀 떠 오너라.”

그런게

“국물이 없어유!”

그런게.

“저런 무핵이 눈구녕 같은 년! 돌려 봐라 이놈아.”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봤더니 백마강이 났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 자해를 하고서 와서, 거기다 묘 쓰고서 덕립 조씨들이 막 일어나는 거여. 지금. 계속. [청중 : 백마강?] 어 백마강. 됐지.(웃음)

7 엽을 먼저 뺀 서울

김항복(74, 남)/죽전리T 1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무학대사가 나오자, 서울을 세운 이야기를 말하였다. 그리고 앞 재보자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4대문 실(세울) 적에, 그 무학대사가 그걸 자리를 잡아서 했는데, 그것 학의 혈이라거든, 학의. 학은 이 죽지(날개) 먼저 눌러 놓아야 꿈쩍을 안 하지. 덮어 놓고 여기 등허리에다 무얼 세워 놓으니까, 이 놈이 발광을 하니 썰어질 수밖에 있어!

그러니 이것 동대문이었던지 북문이었던지, 인저 그걸 세우는데, 만날 시면 쓰러진다 이거여. 그래서 그 도선이라는 대사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아이-구 저 무학이 저 놈 저 바보라고 말이여. 아이 학의 혈이면, 학의 죽지를 먼저 눌러 놓고 무얼을 얹어 올려 놓아야 가만이 있지. 기냥 저 위

에 올려 놓으면, 이놈이 꿈지럭거리면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학을 뿔 죽지 먼저 눌러 놓고서, 그렇게 혈이 있느니까. 거기다
 뿔 좀 성을 쌓대던지, [칭중 : 성부터 쌓고 했디야.] 거기다 뿔 좀, 꺾테기
 가 끈땃 없으니까.

8 수두 고친다고 속여 밥 얻어먹은 사람

구병장(84, 남)/죽전리T 1뒤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예전에는 과거보러 서울 갔다가서나 다 털어먹고서, 노자 떨어져 얻어
 먹고서 내려오는 판이거든, 전이는. 전에는 다 그랬디야. 암만 돈 모아가
 서도 다 쓰고선 그 얻어먹구서 내려오는 기야.

그런디 참 농사 때가 됐단 문양여. 지심 매고할 때, 그때였는데 정자나
 무 밑에 가서 일하고선 일꾼들이 잔뜩 죽 앉았는데, 거기 앉아서 그 분들
 이, 저 서울 갔다 오는 분, 두 분이 내려오다가 그, 그것 그 사람 이름도
 알아야 줄이 맞는 건데, 이게 줄이 안 맞아.

그래 인제 거기 쉬어 있는데, 술 얻어먹구 그러구 앉아서 농주도 얻어
 먹구 그러구 앉어 놀다가. 암것도 모르는데, 둘이 갔어야 거기서 뭐 어디
 서 자나 모르는데 말이야.

“아 여기 수두인가를 앓는 사람이 있소?”

“왜? 수두를 앓는 사람 있으면 고칠라구?”

그런게,

“그건 뭐 백발백중 고치지요”

뿔어 암것도 모르는 놈이 그런다 말이며. 감초 하나 못 쓸어 먹는 놈이 그
 령게 얘기를 허거든.

“그래, 그 자식 미쳤어.”

“거 지금, 그러면 당장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 그런게.

“하룻 저녁 자야지요. 어떻게 저녁에 금방네 생각해서 고치느냐?”

고. 아 이제 그 아픈 사람이 참 부자던 모양이여. 데리고 와서 잘 차려서 저녁 잘 대접하고, 아침에 또 잘 차려서 대접하고서.(기침) 아이 동네사람들이 거 ‘수두를 고친다’고 그런게, 잔뜩 왔거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 여럿이 이냥 왔는데,

“여기 저 멧통 있느냐?”

고. 아 멧통. 그전에 멧통 여간 많어. 구 소매,

“그것 있다.”구

“큰 자구 있느냐?”고

“아 큰 자구두 그치 있구 말구. 이 동네 목수가 많은데, 큰 자구 얼마든지 있다.”구.

“그럼, 큰 자구히고 멧통하고 가져 오라.”

구. 그러고선 이제 또 담배만 먹고 이놈이 앉아서,(기침) 호령 하나.

“다리를 그 멧통 위에다 올려 놓으라.”

고 허드랴.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게 그 놈이 두루매기 입구서, 이렇게 뒤로 건어 끼고서, 큰 자구 들고서 이렇게서 막 찍을라구 헌게 발을 이렇게 오그리거든,

“저렇게 큰 놈의 자리를 깎지 앓고서 어떻게 고쳐. 에이.”

그러고 내뺐디야.(웃음) [조사자 : 병 고친다고 속여가지고 그냥 밥만 얻어 먹었구나!] 그랴. 암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디, 근디 의견이 좋지, 그계.

9 임금님의 쫓기를 고친 사람

김황복(74, 남)/죽전리T 1뒤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가 사기적인 방법이지만 병을 고치다는 점에서 같은 소재라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아 그 저 옛날에 그 저 하두 어려우니까, 임금님이 여기가 좋기가 나가 지고 이렇게 구멍이 뺨 뚫렸는데,

“이저를 고칠 사람이 있으면 상금을 많이 준다.”

구 말이지. 아 이놈이 하두 어려운 놈이니까, 인자 가서 밥이나 좀 실컷 얻어 먹으려고. 아 나라에서 그 대접하니까 그 저 열상이고, 뭐 밥상이 좋을 것 아니야. 그 갔다. 아무 것도 참 모르는 놈이 간겨여.

“내가 고치겠다.”

고 말이지. 인자 가서 첫번이 주안상을 내왔는데, 그것 참 눈이 부시게 해 내왔지. 뭐가 뭔지 잘 모르지 뭐. 근데 첫 숟가락을 이놈이 뚫었는데, 이 밥이 떨어졌거든. 첫 숟갈을 이게 뜬게. 그래 그래가지고 다시 떠 먹고, 이저를 이렇게 비켜 놓았다가.

인제 보름만 있으면, 병을 못 고치면 죽을 판이여. 나라 일을 그짓말 했으니, 아무 것도 모르는 놈이 그짓말하고 왔으니까. 그래 하구한 날, 보름 야마 기한을 달란 모양이지. 보름 동안 밥 먹을 때마다 수시로 앉아서 그냥 이걸 만지고, 콧물 눈물 이런 거 그냥 묻혀서 만지고 만지고 그랬는대.

이제 보름이 되었을 거 아니야. 하야간 병을 고쳐야 할 꺼 아니야. 그래 그 저 그놈을, 주물른 놈의 그 밥풀을, 그저를 여기다 딱, 좋기 난 데다가 끼우니까 속 들어가거든. 딱 맞거든.

근데 자기 자신도 이것 나오리라고는 생각은 안한 거지. 이젠 죽었다고 하고 인제 참 새끼 꼬고 앉아 있는 거지 인저. 아 그런데 그게 약이 되리라고 그랬는지, 그게 살라고 그랬는지 이걸 넣어 놓고 나서 차차 나아서 거뜬히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 나라에서 그냥 상금을 주, 얼마나 먹고 살만큼 주었지 뭐. 그래서 팔자를 고쳐서 잘 살다 죽었다.(일동 웃음) 그래 약이 되려면 우수한 거예요. 뭐 개똥도 약이라고 그러잖아.

Ⅹ 책보를 싸아줘야 하는 꼬마 신랑

김황복(74, 남)/죽전리T 2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에서 일어났던 6.25의 전쟁에 관한 일화들을 길게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떠올랐는지 제보자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우리들 배틀 사행교라고 있지. 그걸 내려놓고는 술 한 잔씩 먹으러 들어가면, 인제 술집 주모가,

“아 이놈의 신랑이 얼마한가 본다.”

고, 이놈은 낫자루를 얼마나 큰 놈을 사다 채 놓았는지, 낫자루를 참 큼직한 것을 사다 줘. 아 그러니까 이놈의 목가지가, 이놈이 찢어진 채로 그대로 쓰고 앉아 있는 거여. 이것. 그냥 다 여까지 다 내려쓰고, 그러니까 주모가,

“아이구 이놈의 신랑은 그냥 낫가우리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다.”

고 그랬어. 낫가우리 속에. 그래갖고서 그 부인 책보 싸 주고, 저기 여기도 부인이 책보 싸 줘요.

Ⅺ 바보 신랑

구병장(84, 남)/죽전리T 2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와 유사한 어린 신랑이란 측면에서 생각이 났는지,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7~8살 처 먹은디 다 장가를 갔어. 아 내우간에 친정이를 갔어. 갔는데 친정어서 떡을 해 주는데, 아 처음이 인자 시루에다 찌가지고서는

인저 찌는다.

꼬마 죄 신랑을 먼저 띠어 주고 싶은데, 한 줄을 번들거리며 주었던 말이여. 아 여간 뜨거울 거여. 그런데,

“아 뜨거! 아 뜨거!” 험게.

“고물 하나 튀어간 것 뜨겁다고 혀. 고물 하나 튀어간 것.”
그런게.

“이게 고물 하나여. 윈 두렵이지.”

그 떠들면서 말했다는 겨.(웃음) 그런데 이것 뜨겁다고 험게,

“이게 윈 두렵이지. 고물여?”

12 대호를 잡아다는 상전(추노)

최병호(72, 남)/죽전리T 2와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호랑이에 대해 묻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 옛날은 으 양반은 종들 많이, 그 종이라고 그러지. 그 자기 데리고 있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전부 인저 참, 나중에는 그냥 그 상전이 죄 땅하게 되니까 죄 뿔뿔이 죄 떠나. 지금으로 말하면 저런 재 넘어 가서 살게 되거든. 그럼 한 마실이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만 사는 곳이거든.

그러니 상전이 이렇게 살다보니까니 다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읊어.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 부리던 그 사람이니까 거길 가는 거지. 아 그래 참, 아 들깨 서 말도 못 끓어지는 기운이여, 기운은. 그냥 뭐 저 허리 꼬부리지고 그렇지.

근데 가다가 그런, 저런 재를 하나 넘어 가는데, 딱 이렇게 앉아 이제 힘도 들고 쉬니까, 그냥 대호란 놈이 그냥 펠펠 뛰더니, 척 와서 소나무

사이에 가서 끼는 거여. 아 그래 이놈이 꿈쩍을 못하던 말이여, 이놈이. 대호란 놈이. 꿈쩍을 못하고 있어.

아 그러 인제 이 상전이 그 아래로 내려가설랑 보니까, 그냥 그 마실에 서 사발통문을 돌리는 거여, 사발통문. 사발통문이라고 요렇게 저 이웃끼리 요 말로다 전부 사발, 그러니까 ‘저 상전이 왔으니 저걸 오늘 저녁 어떻게 없애자’ 이 말이여.

아 근데 사랑에 앉아서 얘기가 하는 소리가 가만히, 저 거기에 인제 최고 그냥 총각 놈이 하나 쟤 놈이 그 대호를 3년 동안을 쫓아다니 거여. 그래도 못 잡았어, 그래도, 아 그런데 얘기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고 하니, “내가 저 오늘 여기 오다가, 저 대호 한 마리 잡아서 소나무 사이에다가 끼어 놓았으니까.”

잉.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여. 아 그런데 사발통문 돌리다가 그냥 이걸 죄 목살시키는 거여. 저 놈의 영감을 만약시 건들었다가는 무슨 재주를 피울 줄 모르거든. 응 그러니까 그 사발통문 돌리던 것을 죄 목살시키고, 그냥 냅다 조랑말에다 바리바리 실어설랑 그냥 실어서 그 저 넘구는 거여.

그래서 언제나 이 말이라는 것은, 들개 서 말을 못 짊어져도 말은 강하게 하라는 거여, 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여. 무슨 재주를 가졌는지 모르거든. 그런데 그 놈의 영감 건들었다간 그 놈의 동네 뿌리 빠지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조랑말에다가 먹을 거 뭐해서 그냥 실고, 바리바리 해서.

저 양반은 웃긴 왜 웃어.(웃음) [칭중 : 호랑이를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그것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쫓아가니까. 그 약한 양반이 소나무 새 로 요렇게(동작을 해 보이며) 살짝 넘어가니까, 요놈이 골로 쫓아가다가 거기 낀 거라고(웃음)]

13 이를 잡아 힘센 하인을 누른 상전

김황복(74, 남)/죽전리T 2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힘이 없는 사람이 추노를 갔다가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였다는 이야기를 마치자, 힘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같은 소재란 점에서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아 이놈이 참 항우 장사지 뭐여. 아 근데 요놈을 꺾어야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옛날에는 이가 많았거든. 이걸 집어설랑 바위돌 위에 올려 놓고 이걸 주먹으로, 이 죽으라고 내치니까 이는 안 죽고 바위돌만 쪽 쪼 개지거든.

“애이 이놈아! 이까지 거 못 죽이느냐?”

고 이 사람이 이거 집어가지고 손톱에다 놓고 이렇게 ‘뚝뚝’ 했거든.

“아이구! 나는 이기기겨 주먹으로 후려 때려도 안 죽는데, 이 손가락으로 죽이니까 얼마나 세냐!”

이거여. 그 때부터는 상전을 이렇게(손짓하며) 높여 보고 무서워 하더라.

14 상전을 골려 먹은 품

최병호(72, 남)/죽전리T 2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가 상전이 지혜로 하인을 골려먹은 이야기라면, 이번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이다. 상전을 지혜로 골탕을 먹인 이야기로 같은 지우담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이 났는지 앞의 제보자를 이어서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그때는 몇 일을 닦았는지 닦아가지고는, 인제 “그

“행자하는 그 거기다 찰밥을, 대추를 좀 넣어서 찰밥을 지으라.”

고 했어. 그 늦요강에다가 하날 가뜩 퍼서 인저 가지고 가는 거야. 아 이놈이 상전이, 아 시장깨나 하니까,

“아 그저 먹을 것 좀 싸가지고 온 거 내놓아.”

아 이거 요강에다 이놈의 자식이 밥을 담아가지고 왔지 뭐야.

“애이 망할 자식! 니나 먹어라.”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여간 그냥 찰밥에다 잘 해가지고 왔지. 그런게 저 혼자 먹으니까. 아 이놈의 상전은 못 먹잖아. 이런 우라질. 잉 아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에이 이놈의 새끼! 가 저 팔죽이나 한 그릇 사 오너라.”

그런게. 아 이놈 자식이 팔죽을 사가지고 오다가 울타리 가쟁이를 꺾어가지고 이놈의 팔죽을 것을 자꾸 젖고 있네. 아 그래,

“이놈아! 너 무얼 그렇게 젖니?”

그러니까.

“아이 오다가 제 코가 여기 떨어졌었요. 그래 코 건져내느라고 그래요.”
그런게.(웃음) 아 그런게,

“에이 이놈의 자숙! 니나 먹어라. [청중 : 니나 쳐 먹어라.] 응. 니나 쳐 먹으라.”

고. 하(기가 찬 듯이) 그러니까. 이놈의 상전은 노다지 굶는 거지 뭐야. [청중 : 그래서 말을 타고 갔는데, 그 심부름 시켰더니, 이놈의 자식이 지가 쳐먹으려고 그냥 코도 안 빠졌는데 휘휘 저으면서 오니까, 그 물어보니 코가 빠졌다고 하니까. ‘니나 먹어라’ 그러고는 인제 자기가 가 사 먹어야 할 꺼 아니여. 그러니까 말을 매끼면서,

“이 서울이라는 데는 눈만 감으면 코 비어간다.”

이러는 때라.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양반은 뭘 사 먹으러 갔다. 이놈이 말을 고삐를 짜르고는, 갖다 팔아 먹고는 고삐는 외양의 땅 머리통 속에 쥐고 있는 거여.(일동 웃음) 아 그래 양반이 와 보니까, 말은 읊고 고삐만 쥐고 이 자식이 코만 가리고 있거던. 그래 와서,

“넌 마! 말은 어찌고 고삐를 붙들고 코를 박고 있나?”

그랬더니,

“아 코 비어 간다문요.”

(웃음)지가 잘라서 팔아 놓고는 그, 그 그것말 한 거지.(웃음)

15 어사를 알아본 아낙네

김황복(74, 남)/죽전리T 2와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일자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이라든가 여자 진맥하기 등에 대해 말씀 나누다가, 조사자가 어사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생각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어사가) 가다 날이 저물어. 어디 자고 가야할 것 아니여. 그런데 내외 할 시절에야 주인을 마음대로 찾지도 못하고, 저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거든. 그 밖에, 문밖에 서서,

“아무개야!”

이러고 부르거든. [청중 : 이리 오너라 한다니깐.] 하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 암행어사가 인저 그래도 사랑채에 자고 가는데, 저녁을 인자 안주인이 저녁상을 내왔거든. 저녁을 인저 해서, 자는 사람이니께 저녁을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여. 그러니까는 인제,

“누구나?”

고 물어보아야 할걸대, 무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우. 그러니까는 이 상 귀퉁이에다가 뉘라고 있지, 뉘가. 그 저 벼가 들까진 벼여. 방아찝다가 생기는 거 있거든. 안까진 게. 그 뉘를 세 귀퉁이에다 봐서 내어 보냈데요. 그래,

“뉘시오?”

그 말이며. ‘누구시냐’ 이런 얘가지. 그런게 어사는 저녁상을 먹고는, 인저 생선을 해서 내왔거든. 그래 인저 생선 도막 그 가시를 네 귀퉁이에다 놓아서 들여 보냈어. 그때 벌써,

“어사다.”

고기 어자 인저, 네 귀퉁이는 봐서 어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알게 되었지. 그래 말은 서로 대화허지.

16 시골 사위와 서울 사위

최병호(72, 남)/죽전리 2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소년과수나 웬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였다. 그리고 생각이 났는지 이 이야기를 계속하여 이어 주었다.

와 시골 사위하고 서울 사위. 서울 사위가 뭐 제대로 뭐 참 공부나 하고 만날 이 참 양반노릇이나 하는 거지. 시골 사위는 맨날 인자 장작이나 패고 아 이런 거 허지 뭐.

아 그런데 이 놈의 장모가 가만히 보니까, 서울 사위는 쪽상에다가 네 모 상에다 상을 그득하게 차리고. 이 시골 사위는 그 만만히 보고 요런 쪼도래상에다가 고기다 상을 차리는 거여.

아 그러니 가만히, 옛날에는 이렇게 아랫목에 부엌 쪽으로 유리를 붙쳤거든. 아 그래 눈썰 사납잖아, 그거. 제기 동선데, 시골 사위는 만사위고, 그 밑에 동서인데. 아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그러서 시골 사위가 뭘 알아. 서울 사위는 글 많이 배우고 그랬으니까.

“야! 우리 글 찾아내기 하자.”

시골 사위가 그러니까.

“아 그러자.”

고. 서울 사위는 답답하지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 이놈의 거,

“눈목 변에 나무 목 한 자가 뭐냐?”

그랬거든. 눈목 변에다가 아이 변이라는게, 옆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손바닥에 써 보이며) 변이라고. 아 근데 이놈의 서울 사위가 아무리 더듬어 봐도 이 놈의 자가 무신 잔 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놈은 한 따위로 있다가,

“이놈아! 그게 서룻 상(相)자라.”

그러거든. 서로 상자. 이게 한 따위로 붙친게 서툰 상자가 되거든.(웃음)
아이 그러니 이놈의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장모가 이것 부엌에서 상을 보
고 있다가 들으니까는, 아 이것 서울 사위가 졌네, 한 번 졌어. 음. 아 그
래 또 한 번 더 하는데,

“입구 밑에 점 찍은 자가 무신 자나?”

하니까. 아 이놈의 한문자에 아무리 더듬어 봐야, 이놈의 입구 밑에 점찍
은 자가 뭔지 알 수가 있다. 아 그런게 요놈의 인저 시골 사위가,

“아 이놈아! 그것 옛날에 이쪽 국문에, 요 밑에 자가 있어. 요 위 요렇
게.(쓰며) 꾸부려 점 찍으면, 아 그런데 마메머메 하는 밑에 마자라.”

고 아 그러니 또 졌네. 두 번 졌어.(웃음) 아 이놈의 장모가 가만히 보니
게 자꾸 지거든, 서울 사위가. 그래 그저 그래서 또 허는데,

“아 입구 안에 점 찍은 자가 무슨 자나?”

그러니까는. 아 이놈의 입구 안에 점 찍은게 또 뭔지 알 수가 있다. 그러
니까,

“아이 그거 이 사람이! 덩병 덩잘세.”

울물 안에 돌집어 넣는 자가 덩병 덩자래. 그냥 덩병덩병 하니까는 덩병
덩자라고 아 그래 그 장모가 상을 그냥 허물더라는 거여. 허물어서 다시
그냥 다시 허물어서 다시 보는 거여. 그래 그냥 상을 이렇게 먹고는 자기
쳐보고 그랬다는 거여.

“나는 인제 처갓집에 다 갔다. 니나 당길려면 댕기고 잉, 난 이제 처가
집에 안 가니까 니나 댕기라.”

고 그렇게 그랬대는 거여. 그게 이제 시골 사위, 서울 사위 이 차별을 무
진장 했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시골 사위는 장작을 뽀개도 한 번에 뽀
나가잖아. 서울 사위는 뽀개 봤어. 이 부가등을 맨들어 놓거든. 그래도 서
울 사위가 장작 뽀개한다고, 잘 타잖아. 그래 서울 사위 맨날 칭찬해 주는
거여.

“서울 사위가 장작 뽀개 것 더 잘 탄다.”

이거여. 아 이놈의 시골 사위는 한 번에 나간게 뭐 불 붙이면 제대로 타
나. 아 이러니 만날, 아무리 장작을 잘 뽀개도 그렇다니까. [청중 : 사람

인자에 한 일한 자가 무슨 자야?]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차별도 무지하게 많았지만은, 차별이 참 많았거든. [청중 : 아 그래 사람은 배워야 해.] 무진장 차별이 그때 많았어.

17 천지교야도 석지교야냐

최병호(72, 남)/죽전리T 2앞

[25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경덕, 이지연, 주혜원, 이상욱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사위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 구술하여 주었다.

아 이 사위들은 그저 참 잘 공부께나 한 사위는, 그저 뭐, 그러니까 높을 고자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산지교야는 석지교야.”

라 말이여. 이 산지교야는 석지교야. 산이 높으면 돌이 많다 이거여. 그런데 못 배운 사위가 있다가, 임 가만히 말꼬리 하나 치고 들어서 그러는,

“천지교야도 석지교야냐?”

이 말이여. 하늘도 높은데 돌이 많더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천지교야도 석지교야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변, 이게 말이라는게 그게 참 하는게 여러 가지여. 하늘이 높은 데도 돌이 많더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돌이 많다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천지교야도, 천지교야도 석지교야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하늘이 높은 데 돌이 많더냐 이 말이여.

여 백

IV. 구성면

- ① 언남리
- ② 마북리
- ③ 청덕리
- ④ 동백리
- ⑤ 풍 리
- ⑥ 상하리
- ⑦ 보성리

여 백

1. 언남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언남리는 용인시에서 구도로를 따라 서북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원래 용인군 읍내면 지역으로 마북리와 함께 용인읍내, 읍내라고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언동과 남동을 합쳐 언남리라고 하여 읍삼면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용인군청이 금량장리로 옮겨간 뒤에 이곳을 구읍내 또는 읍내라고 한다.

용인군청이 금량장리로 옮겨간 것에 대하여 이곳 사람들은 이곳이 일제에 반항하는 양반사회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도시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곳을 건설한 곳이 용인이라고 주장한다.

어떠하든 이곳은 용인군의 중심지였을 때에는 교통의 요지였으나, 현재 용인파수원을 잇는 새로운 국도가 신갈을 지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가 서쪽을, 그리고 영동고속도로가 남쪽을 지나고 있지만, 톨게이트가 신갈에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으로 발전도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아파트단지의 건설로 인하여 구성면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언남리의 자연마을로는 남동마을과 언동마을이 있다. 남동은 마북리와 더불어 용인 읍내를 이루고 있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언동은 용인향교가 이곳으로 옮겨온 뒤에 먼저 향교가 있던 곳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인데, 이 마을에 하마비가 서게 되어 하마비 마을이라고도 하였다.

2) 설화

① 도깨비 일화(1)

제보자(82, 남) /언남리T 1왕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은 언남리에 도착하여 노인정을 찾아갔을 때 2~3명의 할아버지들이 모여 담소하고 있었다.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완송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왜정 때 겪은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고 하였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자, 어릴 때 겪었던 도깨비에 대해 말씀하였다.

어느 분이, 내가 겪은 얘기여. 난 시골이거든 고향이, 충주. 충주덴, 에 지금으로 말하면 도깨비가 생겼었어. 아까도 저기서 도깨비 얘기했지만 말이야. 도깨비가 생기는데, 도깨비가 집안에서 지랄하거든.

근데 도깨비가 아주 마찰쑈데, 아주 엄청스럽게 나빠요, 도깨비가. 다른 사람 못 건달여. 소가 어디로 도망갔어. [조사자 : 아 도망갔어요?] 그래. 도망가는데 그 집이 담배 해 놓고 이런데 있거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건초 속에 가 있어요. 건초 속에가, 소가. 그것도 귀신이 그랬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 다른 사람은 못 건드려요. 그걸 소가. 그런 것도 있구.

그 집에 도깨비가 심해가지구, 그 집 뒤에 우물이 있어, 뒤에. 저 끝에 이렇게 장독간도 있구. 그 밤나무 크게 있어, 엄청 큰 거. 근데 그 밤나무 에다가 썩은 새끼로다가 시루, 그 뒤주 시루, 뒤주로 만든 시루를 매달아, 썩은 새(새끼)줄에 매달아. 도깨비가 그렇게 용하다구, 도깨비가.(웃음)

그리고 저기서 또 얘기하드만, 도깨비가 음 술을 말이며 술 안에다 너으. [청중 : 술을 너?] 술안에 너으며 소당, 소당. [청중 : 소당, 술뚜껑에 넣는다 말이며.] 소당. 술뚜껑. [조사자 : 아, 술뚜껑을 넣는다고요?] 응. 이 너으면, 속에다 너으면 빌어야 끄내 놔. 안 빌면 안 끄내 놔. 사람이 못 끄내어.(웃음) [조사자 : 이 사람이 도깨비한테 막 빌어야지 끄내 놔요?] 그려. 빌어.

그려 근데, 도깨비들이 있으면 곳을 하거든, 곳. 곳하면 또 저 또 만며

느리들이 춤추는 거를 꼴보기 싫다고 그러.(웃음) 도깨비가 홀리니까 춤추 거던.(웃음) [조사자 : 예. 아 저기 아주머니들이 춤을 춰요?] 응. 며느리가. 며느리들이. [조사자 : 며느리들이 도깨비에 홀려서 춤을 춰요? 그래 곳을 하면.] 그래. 예전엔, 지금은 여자들 춤추고 그랬지만, 예전엔 그러지 못했 거든. 춤출 여자가 없고, 춤추고, [청중 : 예전엔 여자가 바깥에 나가질 못 했어요?] 그래. 그래 내가 했어, 다 했어.

2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강태용(75, 남)/언남리T 1앞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완송 할아버지가 정용에 관련된 실화를 구술하여 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도깨비도 있고 호랑이도 있다고 하여, 조사자들이 호랑이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호랑이가 엄청 많았어요. 요새는, 인왕산 호랑이가 많았지만.

그 애길 들어 보면 고개마다 저 떡을 이고 가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웃음)

그러거든, 호랑이가. [청중 : 애덜, 애덜 적이로구만.] 응. 애덜 적에. 아 근게 떡 하나 찻단 말야, 호랑일. 또 한 고개 또 넘으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 옛날에 무슨 호랑이가 말했나, 그전이 옛날 얘기여. 그래 또 찻단 말이야. 어런이, 애들 줄 놈을 걸을 다 찻네. 아이 그래 잡아 먹었네. 그래 문에 보니까, 야, 호랑이가,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인자 애들한테 가서 그랬거던. 그랬더니,

“손 잡아 보세요.”

그런게 아이 손에 털이, 이만한 털이,

“우리 엄마 아니예요?”

그런게. 옛날 얘기가 그렇다니까, 옷겨가지고 근 옛날이야.(일동 웃음) 그
래 야중에 털은게, 또 아들 갖다 줄려고 헌 것을 호랭이한테 다 뺏기고,
호랭이란 놈이 또 들어가서 애를 잡아 먹을라구. 그래도 아 잤었으니까,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이러니까,

“손 내미세요.”

그래 싹 내밀었더니,

“아, 우리 엄마 손 아니라.”

구. 미끄러워져. 그래 호랭이가 있었던 말이여. [조사자 : 얘기가 맞네.]
[청중 : 옛날 얘기는 알아듣질 못 해.] 옛날에도 호랭이가 담배를 피웠는
데, 호랭이가 담배를 어떻게 피나, 불을 무서워 하는데.(일동 웃음)

3 성씨 '나'의 유래

이완송(88, 남/언남리T 1왕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제보자는 실제로 경험하였던 일화에 대해서 말씀하였
다. 그러다가 이곳 원산면에서 금이 많이 났다고 하면서 이곳의 지명에 대해 열거하였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리(리에) 표얼 받이 났던데, 예전에 말야 예전에 역사가 있어. 고기 말
야 고기, 고기서 전부 이름을 짓고, 창 의 전부 이름을, 이름 짓고 승(성씨)
을 지었는데. 그저 승을 짓는데 하나가 빠졌어. 성을 다 지었는데.

“나 좀 해 주.”

그러니까,

“나주라 그래라. 나주 나가라.”

그랬어.

“나가라.”

구. 그래라 또 낭구도, 그려 낭구도 전부 이름을 지었는데, 한 낭구 빠졌는데,

“넌, 나도 밤나무라 그래라.”

그래. 왜 책 있잖아, 왜 책 안 봤어. [조사자 : 아 그래서, 너도 밤나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도 밤나무. [조사자 : 나도 밤나무.] [조사자2 : 나가도 그런 거예요?] 응. 나가두 그래. 나가두 전부 이름을 짓고 고기도 이름을 짓구 전부 지었는데, 하나가 빠졌다 이거여.

“왜 난 안 저 썼어.”

그런게, ‘넌 나가라 그래라.’ 나두 하나까, 나가라 ‘그래라.’ [조사자 : 어 나두, 그럼 나두.] 그래서 고기도 전부 이름을 짓고, 낭구도 전부 이름을 짓구. 지방 동네도 이름을 짓구.

거 어려운 거여, 무슨 꼭질이 있어야 지은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 글자가 보면 그럴 거야. 아마 뭐든지 그려, 무슨 고을 이름.

④ 황진이가 기생이 된 이유

김관식(76, 남)/언남리T 1앞뒤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민속과 실제적으로 경험하였던 내용을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그때 옆에 있던 제보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지금 옛날 얘기 들어야, 하나 볼 것도 없고 그런데, 옛날 얘기 내 하나 할게. 옛날에 황진이 기생, 황진이 얘기를 내가 요즘 책을 하나 읽어서 이렇게 대강 기억나는 대로 얘기할 게. 이것 상당히 길어.

황진이 어마이가, 처녀 적인데 빨래를 하러 갔거든, 개천으로. 빨래를 해가지고 저 개천서, 옆에서지 빨래를 부석부석 하고 있는데, 무슨 그림자

가 비쳐.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께, 개천 우이 다리 위가, 웬 총각이 하나 와서 떡 앓, 와서 책장을 넘겨 보고 있거든.

그러니께 황진이 어마이두, 그때만 해두 뭐 옛날이니께, 그가 이렇고 하고 있다가설라무니 총각을 유심히 보니께, 총각이 조금 있다가 쭈뼛쭈뼛 내려오더니,

“아, 미안하지만, 나 물 한 그릇 떠 주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개천물을, 그때 개천이 맑으니께, 개천물을 갖다설라무니스리 떡 떠 주는데, 물을 한 바가지 떠주니께, 물을 먹다 가서, 그만 물을 먹고서, 그만 그걸 먹고선 삼켰거든. 그래가지구서 그제 황진이 어머니가, 이거 무구 기일에 그러면서 여자 건 남자 그 거인이거든. 사겼어. 사제가 지구 난 것이, 섬섬이 난 것이, [조사자 : 황진이에요?] 황진이거든.

그래서 이름은 황가로 낳았지만, 그래 황진여인데, 그래 황진이가 낳는데, 그래 황진이 아버지는 없잖아, 그러니께 저 어마이만 있고, 저 황진이 엄마만 있고.

그러다가 지 엄마가 돌아가고, 그런데 낸중에 에 황가 재산 좀 있다 말야. 그래가지구 황진이가 에 이제 그제 밥벌이 식모를 데리고서, 이제 세장, [청중 : 비장 아니여, 비장.] 살아가고 있는데, 한날은(Tape 뒷면에 계속) 있으니께, 낸중에 한참 있드니, 다시 살살 있드니 또 끄치더니, 문 바깥에서 대문 앞에서 왁자왁자 하거든. 하니께,

“왜 그러나?”

하구 식모를 찾아가지구 물으니께.

“아, 상여가 고만 꼼짝을 못하구, 그 뒷뜰에 와가지고 꼼짝을 못 한다.” 그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아, 상여가 움직이지 않으니, 저것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께, 그 저 황진이는 책을 읽다,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으면서 가만 있으니께, 조금 있다가 바깥에서, 문 바깥에서 누굴 찾는 소리가 나거든, 문 두드리기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 식모가 문을 딱 여니께 허연 영감이, 수염이 허영게 난 영감이 오셨는데,

“아 이거 야단났다.”

고. 그러면서니,

“저렇게 상여가 나가다가 저렇게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시야?”

그러니까,

“아 대책을 어떻게 세워 주냐?”

고. 내지 말자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구 있는데, 그 영감이 있다가서,

“그렇지만, 우리 조카, 조카가 시름시름 총각으로서 앓다가선 그만 죽고 말았는데, 상여를 내, 내다 물어려고 했는데, 상여가 움직이지 못하니 어떻게 하느냐?”

고. 아 그럼서 그래서 낸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 물어보니,

“옛날의 얘길 들어보니, 무슨 원한이 있어 그러니까, 나와서 좀 빌어 줘야지. 빌지 않으면 저 상여가 떠나지 않으니까, 게 나와서 빌어 달라.”

고 그러거든. 아 주인이라는 건 처녀 혼자, 황진이 혼자 있는데, 그것 뭐 처녀가 어떻게 과거에 나가, 밖에. 남자들은 전부 상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 못 나가구 있다가서리, 낸중에 하두 영감이 와서무리 아 이것 비니까, 황진이가 저 그, 저 식모가 있다가서리,

“저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그때 책을 딱 덮고서리 그만 바깥에 나가보니까 상여가 움푹 안하고 있거든. 황진이가 그래서 나가서 그때,

“어떻게 이 처, 총각이 어떻게 죽었나?”니까.

“아 그 놈이 사연인즉은, 내 조카가 사연인즉은 도무지 아지를 못하고 총각으로 있다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아 그래 사실은 올래(올라)도 못 가는 거이 니가 올라도 못 갈 때, 이제 나무에 못 오른다고. 다 이 집 아가씨를 사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었다.”

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황진이가 그때,

“예구 내가 뭐 터쳐 가야 되니까 할 수 없다.”

고. 그만 나가서설라무니, 그만 상여있는 데를 나가서, 혼자 내 이렇게 보

고서 상여가 먹지는 못하니께, 할 수 없어서 차려논 음식을, 음식 다 저 식모보구 ‘차리랴’구 해가지구, 음식을 차려가지구 황진이가 음식을 차려서 그 저 상여 앞에 놓구서, 거기서 절을 하는데, 절을 네 번 하구서는 그 황진이, 그때 거 황진이 뭐 옛날에 소사리는 꿈에서 내갓지만, 술을, 공부 를 많이 했으니께 술을 주면서,

“유세차.”

하고서 나니 인제,

“아 불귀의 객이 이제 청춘에 돌아가는데, 잘 가라.”

그러면서리 축원을 읽어서, 아 그래서 제발 이제, 술을 부어 놓구서는 그냥 거기서 예를 올리니께, 아 예를 올리니께 조금 있다가설라무니 아 상여가 덜씩덜씩 하거든. [조사자 : 아 상여가요?] 그럼. 그 상여꾼들이 와가지고서 전부 그만 매구서 그만 면서기 지난께 갖다 묻었지.

문구. 그렇가구선 아 처녀가, 참 아 총각 죽은 귀신한테 절 했다는 소문이 이리 슬슬 날 거 아니야. 그래 소문이 나가지구 황진이가,

“내가 아버지도 없구, 처녀로서 그렇게 사랑받는데 도저히 이거 그래 그럴 수 없다.”

생각이 있어. 그래서 기생으로 나온 기여. 기생으러 나왔는데, 황진이가 기생으러 나와서, 기생 공부를 해가지고 기생이 되가지고, 기생이 돼가지고 이제 군수한테 가서 적을 올리구. 그러카구 기생에 적이 올랐는데, 올라가지구 이제 있는데. 정말 그러니께 한량패들이 전부 뒀지. 그러니께 많이 올라갔잖아.

“아, 너 한 집 한 채 줄꾸메, 나, 내 수청 들라.”

고. 애기해도 황진이가 말을 안 듣거든. 그래가지구 황진이가 아 그때 소문이 나가지구, 소문이 나가지구 난중에 인제 거시기 하는데, 누구루 제일 유명한가 할 것 같으며는, 황진이가 난맬(?)를 걸었는데 도무지 실망하는 기색이 없거든, 자기 남편이. 한게 그만 숨은 양께, 그만 생각을 하니께, 그때 서화담이라고 있었어. 서화담. [조사자 : 서화담이여.]

서화담. 그저 명기열전에 보면 다 있어. 서화담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도승이거든, 절에. 제일 유명하다고 소문이 났거든, 학잔데. 그러구선 저

금강산에 가만 저 서산대사라고 있어. 서산대사. 서산대사가 있구, 상선생이 있는데.

“그런데나 한 번 가 봤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황진이가 인제 그래가지구 서화담, 저 서화담 절에 가서,

“이제 그 선상을 한 번 골려보겠다.”

구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가 가지고 비 온께, 비 오는데 저쪽 사람들이 다 공부를, 글 배우면서서리 그애 다 있지만, 다 잊어버렸지만 책을 읽었어. 근데 거, 그 서화담 서당 사람들이, 노릇 졌다고 옷을 다 벗고, 그 사람들이 그날 비가 오니까.

“아이구 내 자고, 여기서 나 좀 자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겠다고 허고서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청취불능]. 이런 그래도 끄떡 안 해거든, 그 사람이. 근데 여내 남자들은, 그 남자들은 황진이 못 봐서 당췌 기가 맥혀 하는데, 고만 그렇게 하고 그러하게 날렸어. 날려가지고 또 금강산 안에도 그 노래 잘 하는 사람, 송도니께 그 이제 대생이거든.

대생이니께 이 서울엔, 송도에서 이제 한량패들이 전부 와 가지군 그래도 끄떡 안 하구. 이 술장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그 이 저 제일 노래 잘 하는, 아주 문화재지, 말하자면. 그런 서울서 그런 사람이 내려왔거든. 내려와서 황진이 하구 만나서 주고받고, 이 노래를 주고받고 하는데 정말 명창이지. 서로 아주 어울렸지.

어울렸는데 그러가면서 그 사람을 따라서 금강산을 갔 갔됐어, 황진이가. 걸어서, 그때 세월에. 송도에서 걸어 금강산에 갔다가, 금강산에 가서 그때 저 사명당의 무덤, 무덤까지 찾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거 황진이 얘기는 무척 길더만.

그런데 그저 그래가지고 이 황진이가 그럼, 거기서 그 노래 노래 선생 하구 놀다가, 이제 그때 오육 년인가 살면서 선생하구, 노래 선생하구 살면서 금강산에까지 갔다오서 육 년인가 살다가, 육 년 또 송도에 가서 살다가, 서울에서 육 년 살구, 송도에서 육 년 살구.

그래 사는데, 거기에 다 있더라. 그래가지구 황진이가, [청중 : 황진이에 대해 조금 아시네.] 간단히 내가 줄여서 얘기할게.(청중과 잠시 대화 생략) [청중 : 황진이 얘기 잘 아시든대.] 아이 다 잃어버렸어. 나 얘기 간단히 밖에 몰라요.

그래서 황진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을, 죽게 되니까 자기 식모를 불러서,

“난 이제 이 병 가지구 깨어나지 못하겠으니, 나 좀 죽거든 내 재산 네 가져라.”

그러구선 인제 유언을 하고 죽는데, 그래서 그만 참 해가지구 죽었거든. 죽었는데,

“나 죽은 후에, 나 시신은, 내가 여러 사람을 녹여가지구 거시기 거시기 했으니, 이 나를 땅에 파 묻지 말고 나를 이제 아무 개창변에 갖다가서, 대로 그냥 묻으라고, 그냥 묻지 말고 개창변에 갖다 그냥 빠뜨려라.”

했어. 그러니까,

“아, 그럴 수야 있느냐?”

고. 인자 식모가 그러니까.

“아 내가 너무 여러 사람을 갖다, 여러 사람의 간장을 녹였으니 나를 갖다가 시체를 그냥 까마귀 까치가 뜯어 먹게끔 그냥 개창변에다 갖다 묻으라. 저 두라.”

구 이랬는데. 낸중에 죽은 다음에 갖다가서 개창변에 모래사장에다 갖다가 그냥 놔 뒀었거든. 놔 두니까 까막 까치가 붙어와 있지. 와 있는데, 그때 에 저 서울에서 명기 같이 살던 사람이, 하두 기가 맥히니까 갖다가 묻는데. 지금 저 관악산, 관악산 거기 사람 많은 다니는 길옆에다 갖다가 딱 묻어 뒀어. 피알을 했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오는 사람마다 침을 뱉고, 와 절을 하고. 이래 황진이가 그래가지구, 이 그랬다는 얘기가 소설책에 나와 있어.

5] 홍수 전설

이순창(80, 남)/언남리T 1뒤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이곳에 관한 전설을 부탁하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여기가 옛날엔 바다였어. [조사자 : 여기가요?] 여기가. 바다였었는데, 거기서 낚시질 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있구. 굴 껍데기가 여기서 나와요. [조사자 : 어 그래요?] 굴 껍데기. [조사자 : 여기가 바다였어요?] 예.

6] 도깨비 일화(2)

이순창(80, 남)/언남리T 1뒤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채록하는 목적에 대해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효자 효부 이야기를 부탁하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왜정 시절의 상황을 설명하다가 이 도깨비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야 옛날엔 도깨비가, 도깨비 몰를 테지. 도깨비가 그냥 이 불이 퍼런 불이 길게 깔려서 텀병 오고, 텀병 잉겨 오고, 그래서 인자, [조사자 : 보셨어요?] 아 그럼 봤죠. 그냥 짹짹이- 이렇게 깔려서 밖으로 금방 저기 와요.

그래가지고 도깨비가, 술을 먹고, 술 안 먹었어도 도깨비가 인자 흘리면 이 불을 확 비춰 줘요. 그러면 가. 환하니까 이냥 길인 줄 알고 가 보면, 눈두렁이고 발두렁이니 막 그냥 해서 자빠지고, 막 나무 끝이 걸쳐서 이냥 옷은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구.

[청중 : 나중에 보면 뭐냐 하면, 빗자루야. 빗자루. 도깨비가 빗자루여. 빗자루가 돌아다니는 그런 거야.] 그게 인제 도깨비란 얘기여. 구신이여. 구신인데, 나중에 구신인데 그 빗자루를 붙였어. 예 그 야중에 도깨비를 잡으려면, 도깨비는 도망가고 빗자락이 있어요. [조사자 : 아 도깨비가 빗자루에 씌운 거예요?] 응. 나는 나이를 많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습시다.

7 곶나루 전설

이순창(80, 남) /언남리T 1뒤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의 생애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보자는 충남 공주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15년 전에 이사를 오신 분으로, 현재 노인회 부회장을 하고 있다. 또다른 이야기를 부탁드리자 공주에 들었던 곶나루터에 관련된 전설을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옛날에요, 여기서 들은 게 아니라 저기 어디 가면은 그 동네가 있어요. 동네. 이 동네가 있는데, 그 남자가 그때는 먹을 것이 죽으니까, 해서 뭐 산으로 나물 뜯으러 갔어요. 나물 뜯으러 갔었는데, 인자 강을 건너서 나물을 뜯어서 인자 짚아서 인자 먹고 있거든요. 죽을 썬 먹고.

그렇게 있는데, 꿈이란 놈이 붙잡아 갔었어. 붙잡어가지고 그 굴속에다 넣버렸어요. [조사자 : 꿈이요?] 응. 꿈이. 사람을. 남자를. 그래가지고 인저 그 꿈이란 것이 인자 암놈인데, 숫놈이 읊다 말이여. 그런게 붙잡아가지고 참 이건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참 교미를 했시오.

교미를 해가지고 그 꿈이 새끼를 낳시유. 인자 남자허고. [조사자 : 사람허고요?] 저 꿈허고 교미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인제 새끼 낳기 전이 는 도망갈까 봐, 그 큰 바위들을 이 굴속에다 덮고서루, 가서 인자 먹이(떡이)를 구해서 문 열고, 그 사냥해 가지고 그 남자도 먹었지.

그렇게 날고기. 그렇게 먹다가 인자 하나, 둘, 셋. 둘 낳고 셋 낳은 다음에, 인자 ‘싹체까지는 안 도망갈 테지’ 하구서루 인제 먹이를 구하러 갔단

말이유. 왔는디 이 남자가 그냥 이렇게 되니까는 그냥, 그 날고기만 먹고 허니께 막 털이 막 사방이 나가지고 곱히고 거반 갈단 말이여.

그래서 도망왔시유. 도망왔는디, 인자 강을 건너야 인제 재기 동넨디, 강을 건널라고 허니께, 거기서 곱이 소리를 막 질르고 그냥 허드래요. [조사자 : 도망갔다고요?] 응. 도망갔다고. 그래 인제 강은 인제 곱이 못 건너 가고.

허는디 그 새끼 말이유, 그래 거 그 자리에다 다 직여 버렸이유. [조사자 : 곱이?] 응. 곱이. 지 새끼를. 그래 그런 전설이 낫시유.

8] 안삼 동자

이순창(80, 남/언남리T 2와)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앞에서 이완송 할아버지의 실제로 살아온 내력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런 다음에 위의 이야기를 구술한 제보자가 다시 이야기판에 끼어들어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밧, 밧 천 년 전이, 이 참 두 내외하고 젊은 내외가 살고, 이 죄 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 분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병이 들었어.

거 인자 그래서, 인자 죄 죄 내외는, 여자는, 며느리는 나물을 뜯어 먹고 남자는 저 나무를 해서 팔아서 그 연명을 해 나간다 이거여. 해 나기는 다, 그 안 부인이, 큰 병이루 인자 들었다 이거야.

그래 그 약을 그냥 해 줘도 낫들 안 혀. [조사자 : 어머니가요?] 응, 어머니가. 그래 인자 내 동네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인고기를 먹어야 산다.”

[조사자 : 사람 고기요?] 응. 그러드래요. 인자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인자 아들 며느리 보고,

“나는 약을 소용없다. 그 애길 들어보니까 인고기를 먹어야 산다. 그러니께 약을 해 볼 생각을 말어라.”

그래 인고기를 구헐 도리가 읍다 말이여. 그래 남의 자식을 생각할 수도 읍고. 그런디 아들은 하나 있어. 인제 두 살 먹은 것이. 그래 인저 두 내외 상의를 했어.

“우리는 낳으면 자식이니까, 우리의 아들을 삶아서 드리자 말이여. 어머니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회복을 못하니 어이 하자.”

그러니께. 아들은 말이여 죄의 직접 어머니디, 미느리가 그렇게 하느디 남자가 반대를 했어.

“아이구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아들을 삶아서 드리느냐?”

그러니께. 며느리가 자꾸 권해도 이 남자가 불응을 하.

“안 된다.”

고. 나무를 인자 남자가 하러 갔어. 갔는데 꼭 우리 아들은 저 삶아 드릴라고, 저기서 놀다가 인자 아장아장, 두 살 먹었은게 아장아장 오는 것을 인자 불을 땀어. 큰 그릇에다가, 가마솥에 불을 땀어. 인저 아들이 오면 그 죽일라고. 죽여서 해 들(드릴)라고.

그 젊은 사람은 잘 들어야 더(돼요). 그렇게 했느디, 아이 물을 이래 팔팔 끓였느디, 차마 아들 온다 말이여, 놀다가. 오느디 이냥 붙잡어다가 소두방 뚜껑에다가 집어 쳐넣어.

에 뚜껑을 탁 덮고서는 불을 때느디, 눈물을 찰찰 흘려가며 불을 때지. 뭐 좋겼어. 아 인저 다 인자 삶아졌거니 하고 인자 드릴라고, 소두방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이것만한 동삼이라 이거여, 동삼. 그러니께 조금 있다가,

“아이구 그럼 남무(남의) 아들을 삶었나비다.”

하고서루 보니께, 죄 아들이 와, 놀다가. 그래 삶은 것은 동삼이라 이거여. 그것을 먹고서루 그 죄 인자 시어머니가 낫었시유. 나아서 그 인제 시방 갔, 죽였지만, 그 비석을 에 및 백 년 및 천 년부텀 이 비석이 있어요. 아주 효, 효부라고.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있으니

까 그 잡고서 내려왔다 이거여. 그러니까 지금은 만 명이래도 그런 사람이 없었요. 누가, 이 아가씨도 참 시집 가서 어린내 낳는다 그 시어머니 이렇게 하는 짚아서 주셨소.

[청중 : 그것 중단하겠는데, 내 부모,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자 효부 노릇을 하기 위해서, 제 자식을 삶으려는 어떤 그 자신부터 그 맘을 편히 먹고 차라리 자기 넓적다리를 그냥 칼로 썬 오려설랑은 그걸 삶어 주었을 때는 그게 바로 효자지, 아니 자식 삶아설라든 부모를 살리겠다는.]

그것은 나이 먹고 적고 하는 걸로 따지는 건디, 옳은 예를 들기 위해 그것을 내가 들은 거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이 옛날부터 전설로 내려온 거유.

9 이야기 책을 잘 읽어 장가들기

이복례(82, 여)/언남리T 2앞

[개인주택]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앞의 남자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개인 주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는 4~5명이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는데,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제보자가 선뜻 응하면서 이야기 판을 형성하였다. 이야기 판은 매우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장가를 못 들었어, 늙은 총각이. 저런 총각이.(일동 웃음) 그래서 이 신랑이 어떻게 요치를 꾸미면 저 색씨한테 장가를 갈까 하구, 뭐 산골에서 뭐 나무나 해 때고 석물이나 허고 그러는 거지. 수수는 먹고. 그래서 인자 꾸렸어.

꾸며가지고는, ‘인자 내가 저 놈의 색씨한테로 장가를 가야 짓는데, 그 짓말을 해야겠다.’ 그러고,

“할머니! 할머니!”

인제 이런 얘기책을 그렇게 가져와선,

“할머니! 내가 얘기책을 보고 왔는데.”

그러더라. 그래니가, 삭, 색시 엄마가 아주 좋아서,

“애기책 좀 보라.”

고. 그래서설랑은 인제 신랑이, 저런 늙은 총각이 인제 얘기를, 애기책을 읽는 거여.

“우술 쫄래 병거지, 자 쫄래 웅태기, 바다만 별판에 징검자, 너럭 바위 백홍자, 이무난에 아옹자, 청소나궁 부용장.”

그러니깐,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서,

“그냥 애기책 잘 본다.”

고. 그래서 사위로 삼어설랑은 색시를 그렇게 잘 얻었다. 신랑이, 저런 늙은 총각. [조사자 : 그래, 잘 살았대요?] 그게 다여. [청중들 : 이 고것만 혀. 고것만 알아. 딴 것도 해 봐.] 딴 것도 정신이 사나워서 다 잊어 버렸어. 82이나 먹은 늙은이가 뭘 알아.

10 옥새를 찾은 사람

이복례(82, 여)/언남리T 2앞

[개인주택]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친 앞 제보자에게 옆에 있던 제보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권하자 잊어 먹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생각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아주 그냥 기술이 아주 어떻게 똥구녕이 어려운디, 그냥 어떻게 벌어먹을 수가 읍드랴. 그래 이놈이 무슨 수를 꾸뻐어, 그놈이, 그놈 역시,

“지(저)는 혈을 코로 냄새 맡는다.”

고. 이려고 돌아다녔는데, 나라에게 이리 붙잡아 들여갔어. 붙들어 들어가서,

“아, 너 그러면 뭘 잘 찾아낼래?”

허니께. 그러니께,

“뭘든 찾아내라면 찾아 내아졌습니다.”

이랬거든. 근데 이놈이 그냥, 큰일 났더라. 나라 임금님한테 그 소리는 해 놓고 못 찾으면 어떡하나 이러쿵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너,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옥쇄를 잊어 버렸으니까, 옥쇄를 찾아라.”
이랬어. 그 옥쇄가 나라 임금님의 이런 경화라만. 그래서 그 인자, 그 옥쇄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인제 몇 날 며칠 돌아다니다며 코로 맏겨갖고 그래서 그걸 찾았어. 그리로, 그 노린 것을 찾아다 주니까, 그냥 나라에서 뭘 별거 별거 다 쫓아. 그냥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가고 하는 놈의 집이서 그냥, 금방 그냥 금시발복을 해서 부자가 되가지고 그냥 할 때, 그 친구가 하는 말,

“너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니?”

“이러구 저러구 해서 부자가 됐다.”

구. 그리고 났는데, 그제 인제 소문이 나가지고 인제 중국, 중국 나라로다 이 사람이 또 데러가게 됐어. 그제 중국 나라에 가서루는, 붙잡혀 갔는데, 거기서 옥쇄를 훔쳐 간 놈이 큰일 났더라. 조선으러서 용한 사람이 저렇게 왔으니, 나만 꼼짝없이 붙잡으면 죽을텐데 큰일 났더라.

그래서 인제 그 사람이 저녁마다 가서 그 사람이 자는 방안에를, 독방을 이렇게 쫓는데, 독방을 가서 엿을 듣는 거여. 인자 무얼 하나 하고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비바람이 치는데,

“빼기둑! 빼기둑!”

나무 관절에서 똑같이 켜는 놈이 이렇게 부딪혀서 부지덕 거리는 거여.

“비기둑! 비기둑!”

이러니께. 인제 방에서 앉아서 하는 말이,

“빼기둑이지. 빼둑이인지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인제 자네는 그 사람 보고 죽어라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다 죽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인제 ‘빼둑이 빼둑이가’ 인자 그 사람의 인제 [조사자 :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여. 옥쇄를 훔쳐간 놈이 이름이여, 인제. 그런데 이 놈이 인자 큰일 났더라. 덜덜덜덜 떨어 인제 거기를 인자 참, 조선서 용하다는 사람 들어간 방안을 들어가서 참 저런 날리간 듯기 절을 하면서,

“나 목숨만 살려 달라.”

고 응 그래더라.

“그럼, 니가 그럼 옥쇄를 니가 훔쳐 갔느냐?”

하니께.

“내가 훔쳐다가 그 연못에다 넣다.”

고 그랬거든.

“오냐!”

이제 속으로 ‘오냐! 이제 나도 살았구나!’ 이러구는 있는데. 이제 식전에 흰히 밝아서는, 암만 중국 사람 왕이래도 비서가 많을 거 아니여. 그 인제 왕을 불러가지구서 허는 말이, 저 비서, 저 비서관더러,

“저 연못에 줌, 물을 줌 퍼 달라고 그래라.”

고. 그래 인저 뭐,

“연못은 왜 푸래느냐?”

인제 그 왕이 그러드랴. 그리니까 인저,

“푸시라.”

고. 그래 참 비서들을 쫓 불러가지고 그냥 그 순식간에 푸지 뭐. 그까지것 연못, 그래 퍼내고 나니께, 거기 가서 참 저 풍덩 이만한 옥쇄가 빠졌더라. 그래서 인저 건져 주고 나서, 다 한국, 참 조선 왕한테 고 돈을 그렇게 많이 타서 부자, 또 중국 왕한테도 타서 돈이 부자. 이래가지고 이냥 부자 금수(금시)발복을 하고, 궤 어매, 아버지를 그냥 호강을 막 시키더래요. 그리고나더니 이놈이 낮을 어느 날 싹 갈아가지고 코를 싹 자르더라.

“이걸 잘라야 딴 나라에서 나를 안 불러가겠다.”

고 말이여. [청중 : 그 냄새를 맡아서.] 응. 냄새 맡아가지고 찾았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이걸 싹 잘르드랴요. 그리고 잘 살다 죽더라. [청중 : 천상 오래 살라니까.] 그렇게 그랬다고.

11 의연 형보다 나은 아우의 표영

이철성(72, 여)/언남리T 2뒤

[개인주택]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가 노래를 마친 후에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지껄이기가 싫다고 하였다. 그래도 자꾸 손자에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술해 줄 것을 부탁하자, 싫다고 하던 할머니가 스스로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 이어서 이야기를 구술하기 시작했다. 영감의 고향은 평안남도이고 자신의 고향은 대전인데, 이곳에서 늙었다고 한다.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냥 평정한 농사꾼이구 하나는 의사래. 옛날에.

의산데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이 동생이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소문을 들으면, 형이 각처에 땡기면서 병이란 병은 다 고치는 그렇게 명의여. 그런데도 자기 어머니 병은 못 고치거든.

그러니까 하루는 동생이 그냥 어머니를 업구서, 형만 만나기만 만나면 형을 죽일라구.

“남의 병은 고쳐 주면서 어찌 어머니 병은 못 고치느냐?”

구. 죽일라구 형을 찾아다니는 것야. 어머니를 업구서. 근데 그냥 아마 오뉴월이었었나 봐, 여름철에. 그냥 한 번은 어머니를 업구서 가는데,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졸려 죽겠다.”

그러더래. 아니야 참. 그래서는 이렇게 큰 정자 밑에서, 인자 이렇게 잠을 재우고선 저기를 했는데, 이 노인네가 또,

“이 고기가 떡구 싶다.”

구. ‘고기가 먹고 싶다’구 그래서 이젠 이렇게, 그 옛날에 어디 뭐 고기가 있어? [조사자 : 그렇죠.] 고기도 없구 그냥 무슨 길로 아들이 찾아땡기다가 워다 가서 황계, 누런 닭, 황계를 한 마리 구해다가, 워서 죽었겠지 뭐. 죽은 닭이나 뭐 그런 걸 구해다가 어머니를 파 드렸디야. 근래 그걸 잡숫

고 났더니 이 노인네가 그냥,

“아이고 졸려 죽겠다.”

고 말이야. 그래서 인자 그참 날두 덩구 해서 큰 피마주, 아주까리, [조사자 : 아, 아주까리요?] 아주까리. [조사자 : 그걸 피마주라고 그래요?] 응. 피마주라고 그러지. 아주까리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있어서, 그 정자 밑에서 잠을 재웠디야, 어머니를. 그러더니 이 노인네가 거기서 한숨을 실컷 주무시고 나더니 그냥,

“물이 먹구 싶다구. 물을 달라.”

고 그러더래. 그러니 그냥 그 워디 뭐 갑자기 또 물이 워디 있어? 그래 이 아들이 그냥 그 물을 구하러 멀리 이렇게 찾아 댕기는데, 참 워디 산골고랭이를 갔던가 요런 바가지 같은 디에 물이 꼴로 고여 있는디, 물이 있으면서 거기 지렁이가 하나 빠져 있더라. 그래도 어머니가 물을 찾고 그러는데 어떡하? 그 지렁이가 빠져 있으니까 건져 내버리구서 그 물을 갖다가 어머니를 드렸대.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그 물을 잡숫더니 낫았대요, 병이. 병이 나서는 인자는,

“아 인자는 됐구나!”

하구선. 그 어머니를 모시고서는 형만 찾지만 인자 찾으면 죽일라구. 찾아서 돌아 댕기는데, 그 참 어느 고을에 가서 물어보니께,

“그 형이 워디 있다.”

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 이제 그래 그는 명의니까 고을 고을마다 당기는 동네마다 가는 디만두 다 이름이, 이름이 다 났지 뭐야. 그래 고을에 가서,

“이러이러한 의사 모르느냐?”

그러니까.

“어디 있다.”

구. 가르쳐 주더라. 그래 거기를 가서 참 형을 참 만났디야. 그래 그 형이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불치의 병이여. 그 형이 인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못 고쳐준 거여. 그런데 동생이 고쳐가지고 데리고 왔으니, 참 저기하거든. 그러니,

“너, 대관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머니 병이 나았느냐?”

하구 물어 봤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고기가 잡숫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황계를 구해다가 해드리구. 또 ‘잠이 자구 싶다’구 그래서, 피마주 나무, 아주까루 낭구 밑에서 한숨을 주무시구 나더니, ‘물이 먹구 싶다’서 이런 바가지에 고여 있는 물에 거기에 지렁이가 빠져 있는 걸 건져 내버리구서 그 물을 갖다 드렸더니 그 물을 잡숫고 나왔다.”

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형이 무릎을 딱 치면서,

“과연, 니가 효자긴 효자다. 하늘에서 난 효자라.”

고. 그러면서 무릎을 치더래. 그러니까 동생이,

“너, 그럼 대관절 어머니 병이, 그 약이나 좀 대(알려) 달라.”

그랬대. 그러니까 형이 하는 소리가,

“어머니 병의 약은 황계 황계를 먹구, 아주까루 나무 밑에서 취한, 취한, 그러니까 잠을 자는 취한을 하구서, 천년 두골의 만년수에 청지렁이가 빠져 있는 물을 먹어야 낫는대.”

그러니까 그 바가지가 두골이 천 년 먹은, 만 년 묵은 두골에 천년수, 천 년 묵은 물이여. 그라 그 물에 천, 그러니까 그 약을 구하러구 이 큰 아들두 그냥 그렇게 각 고을마다 땡기면서 병을 이제 공궤루(공짜로) 남을 고쳐준 거여. 그냥 그 약을 고친, 구할, 그래두 그런 약이 워딧어? [조사자 : 그렇죠] 그래서 고쳐 주구서 저기를 그 약을 그렇게 가르키니까, 또 아우는 그냥 무릎을 딱 치면서,

“과연, 너는 하늘에서 나린 명의로구나!”

그러면서. 두 형제가 부동켜 안고서, 형은 아우를 효자라구 칭찬을 하구, 아우는 형을 명의라구 칭찬을 하구 그랬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러니까 형이, 그러니까 형의 그 효성과 아우의 효심이 어머니를 고친 거여. 형두 어머니를 고칠라구 그렇게 각처를 땡기면서 좋은 일을 한 거지.

[조사자 : 하늘이 감동한 거죠] 응. 고쳐줄러구. 하늘이 감동해서 그렇게 아우를 통해서 그렇게 황계와 만년 두골의 천년수에 또 거기에 또 마침 청지렁이가 빠진 그 물을 주신 거지, 하늘이. 그래서 그걸 먹구 나온 거지. 그러니까 마침 또 피마주 나무가 그렇게 커, 거기에 취한을 할 수

있게 그림 낭구가 있구. 그런게 두 형제가 다 효자라구.

12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피난

이철성(72, 여)/안남리T 2뒤

[개인주택]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피난과 관련된 자신이 경험하였던 일화를 길게 말씀하였다. 그런 도중에 피난과 관련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한 집에서 그냥 가솔, 며느리, 그 종들 모두 데리고 다 피난을 가. 가고, 그 참 제일 어른, 그쪽에서 그러니께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오늘부터 피난을 갈테니 너들 다 준비를 해라.”

그라구서는 준비를 시켰어. 그래 그냥 인저,

“너들은 내가 시키는대루 하라.”

구. 할아버지가 그라구 가. 가는,

“가는 도중 눈을 뜨지 말구. 눈을 감구 가자.”

구. 그래가지구서 밤새도록 이제 가는 거여. 가구서는 이제 저기를 문,

“이제 다 여기에 왔으니, 여기가 안전 지대니까는 너들 밥 해 먹어라.”

그라면 이제 참 밥을 해 먹구. 그래 이제 밥을 이렇게 하구서는 이제 또 이렇게 피난길을 떠나구 그라지. 그렇게 뭐 가다가다 할아버지가 또,

“이제 여기가 또 안전지대니께 너들 여기서 와서 밥들 해 먹어라.”

그래가지구서 인제 한 일 주일을 그라구서, 이 할아버지가 그라구 멍기면, 그런게 그, 그 가솔들이 다 할아버지 말을 그렇게 잘 듣구서 순종을 한 거여. 그 빨강이들도 알면서두.

그래 그게 뭐냐며는, 이 할아버지가 워디 가덜 안 허구 자기의 집에서, 그 가솔을 어떻게 다 워디로 데리고 갈 수 없은게 그냥 자기네 집에서만 그렇게,

“이게 우리 집이다라구는 안 하구, 이렇게 피난 가는 것다.”

구. 그렇게 석여가지구서는, 그래 그 기술들이 다들 가족들이 이 할아버지 말을 잘 들었기 땀에 한 명도 낙오자가 읍이 다 무사히 그 난리를 잘 치뤘대. 그 자기네 집에서 그렇게 그냥. [조사자 : 할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시네요?] 응. 지혜롭게. 그렇게 그냥 할아버지가 잘 지냈지.

그래가지구 이렇게 어른에게 잘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돼. 그런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家長)말을 잘 들으면, 그 가정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 개들이 눈 떠 보구, 종들이,

“아이구, 여기가 우리 집이네. 그 할아버지 왜 그러냐?”

구.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두 있었으며는 무사히 그렇게 맞지들 못했지. [조사자 : 뽀뽀이 흘으지거나.] 응, 그래. 다 알면서두 그래두 그 할아버지 말을 복종을 했기 때문에 더 살들 아주 그냥, 옛날 같으면.

지금도 같지만은 저 산적들이 쳐들어 왔다구. 왜적이 쳐들어 오구. 그 동네를 슬쩍슬쩍 지나가는 난리니께 이렇게 일진.

3) 민요

1 회 심 곡

이복례(82, 여)/언남리T 2뒤

[개인주택] 박종수, 강현모, 권현정, 유경화, 한규태, 박수영, 김은미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이 할머니 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자, 주위에서 제보자를 부추겼다. 그러자 정신이 사납다고 하며 부르기 시작했다.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더 있는가?
 이 세상(세상)에 생긴 사람
 누 덕으로 생겼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어머니전 배)아버님전 배(뺨)를 빌고
 어머니전 살을 빌어
 칠성님전 명을 빌구
 지성님전 복을 빌어
 이 세상에 탄성하니
 한두 살에 철 몰라서
 부모 은공 갚을쏜가?
 이삼 십이 당도허니
 부모 은공 못 다 갚고

아이고 왜 잘 하다가 이렇게 잊어버려지냐?(제보자가 기운이 없다고 말
 하자, 청중이 웃으면서 아프고 난 뒤에 그러하다고 대답하였다. 한참 뒤
 다시 제보자가 노래하였다.)

[청취불능] 집이 돌아오니
 망령이 다 흠을 보고
 구석구석 웃는 모양
 원통하고 절통하여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아이고 몰르겠어. 잘 되는데 안 돼. [청중 : 그만 혀.] (제보자가 잘 기억
 이 나지 않자 주위에서 그만하라고 말했다. 한참 뒤 다시 노래를 이었다.)

배 고포데 밥을 주어
 아사공덕 해였는가?
 옷 입는데 옷을 주어
 남게 공덕 해였는가?
 높은 산에 별당 지어

(행인, 참) 좋은 곳에 집을 지어
행인 공덕 해였느냐?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원(월)천 공덕 해였느냐?
목 말른데 물을 주어
급수 공덕 해였느냐?
병든 사람 약을 주어
화병 공덕 해였느냐?
좋은 밭에 원두 나와
행인 공덕 해였느냐?
높은 산에 별당지어
월천 공덕 해였느냐?

여 백

2. 마북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 (1996. 5. 18.)

마북면은 언남리 북쪽에 인접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원래 언남리와 함께 용인군 읍내면 지역으로, 이곳을 읍내 또는 용인읍내라고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마곡과 북동을 합쳐 마북리라고 하고 읍삼면에 편입되었다. 뒤에 용인군청이 금량장리로 옮겨간 뒤에 이곳을 구읍내 또는 구읍이라고 한다.

마북리를 구성하는 자연마을로는 삼거리, 북동, 구교동, 하마곡, 상마곡, 하늘말 등이 있다. 삼거리는 마북리의 서쪽에 세 갈래 난 큰 길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북동은 언남리와 함께 읍내리를 이룰 때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불렸으며, 구교동은 용인향교가 있어 교동이라고 하던 것이 향교가 언동으로 옮겨가 뒤에 향교가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를 구향교라고도 하는데 이는 구향교의 변음으로 향교가 있었던 마을에서 유래된 것 같다. 그리고 마곡은 말골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의 마운사라는 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골은 원래 한 마을이었는데, 점차 커지면서 아랫마골(하마곡) 윗마골(상마곡)로 나누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늘말은 마북리의 맨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이다.

마북리도 언남리와 함께 군청이 옮겨가기 전까지는 용인의 교통, 문화의 중심였으나, 용인과 수원을 잇는 새로운 국도가 생기면서 소외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 설화

① 치성을 드리면 아들 낳는 미력당

노인회장(?), 남/마복리T 1앞

[창고 뒤 숲]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은 마복리에 도착하여 노인정을 찾아가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노인회 총무님이 어느 창고 뒤에 있는 숲으로 안내하였다. 그곳에서 노인회 회장을 만나서 재차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곳의 형성된 유래에 대해 말씀을 한 뒤에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가지구, 예 전에 저 여기 현으로 있을 당시에 여기 미력당이라고 여기 미력을 모신 게 있고. [조사자 : 미력당이요?] 예, 미력. 미력님이 지금도 있어요, 미력. 집이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근데 이 저 어떤 분들은 거기에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못 낳는 분이 아들을 낳는다는 사람도 있고. 전에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거기 치성을 드려가지고 아드님을 나셔가지고, 아들을 못 낳다가.

그래서 지금은 작고하셨지마는 그 분이 안성 땅에 살면서도, 여가만 오며는 꼭 들려가고 그랬더랬어요.

② 할미성의 유래

노인회장(?), 남/마복리T 1앞

[창고 뒤 숲]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 구성면이 퇴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자가 성 쌓은 이야기에 대해 묻자 할미성에 말씀하였다.

[조사자 : 할미성이 있어가지구 성이 된 거 아니요?] 아니야. 할미성이

하루 아침에 다 쌓았다는. 자연농원이라는 거기에 할미성이 있는데, 그래서 성산이야, 성산.

할머니 한 분이 인제 그, 그러니까 그때 저 거기라고 할 수는 없고, 할머니 한 분이 치마폭에다 돌을 날라서 그걸 쌓았다는, 하루 저녁에. 그런 전설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보려는 돌무덤이가 기다랗게 있지마는, 그것이 할머니가 치마폭에 날라다가 쌓더라는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이름이 할미성이예요. 할머니가 치마폭에 쌓다고 해서 할미성이라고 전설이 내려와요. [조사자 : 하루 저녁에요?] 하룻밤이라는 건 모르겠고. 글썄 할머니가 치마폭에 날라다가 쌓다는데. [조사자 : 할머니가 왜 돌을 쌓았는데요?] 글썄, 이 저 적을 막기 위해설랑 그랬겠죠.

필연 옛날에 성에선 옛날에 적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더라어요. 여기뿐 아니라 그 옛날의 도시는, 지금은 도시 아니고 농촌이라두 적을 막기 위해서.

서울을 맨든다고 수원을 했던 거야. 수원엔 안전히 그랬던 거야. 수원은 사대문이 다 있어요. 다 있지. 거기가 서울이 됐으면 수도를 할려고 터를 완전히 잡아놓고 그래가지곤 정조가 그랬나?

[조사자 : 할미성은 전쟁이 나서 쌓은.] 전쟁이 나서가 아니구, 에 옛날에도 이 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치마폭에 돌을 날라다가 쌓았던 말이야.

3 마북리 인근 지명 유래

노인회장(?, 남)/마북리T 1앞

[참고 뒤 숲]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할미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민담을 채록하기 위하여 유도하였으나 이곳의 전설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여 주었다.

① 동등배

근데 전에 여기가 바다였었는지, 강이었었는지 몰라요. 그래 저 위에 올라가며는 동등바위라고 있고, 동등배. 배가 골짜기서 내려오는 물에 배가 동실동실 떠다닌다고 해설랑 동등배라고 했고.

② 굴바위

또 조금 내려오며는 에 굴바위라고 있어요. 바위가 꽤 큰 게 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바위는 지금 없어졌지만서두, 그 바위에 굴 꺾테기가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로 볼 때에 여기가 전에 바다가 아니었었잖나. 바다에 관한 소리를 들었었는디.

③ 낚시질한 관교산

관(광)교산에. ‘옛날에 거기서 낚시질하다가 누가 빠져 죽었다.’ 여기 그 말은 없었어. ‘관교산에 배 매는 고리가 있다.’ 관교산.

그 사이에 그렇게 몇 천 년 전인지 모르고. 몇 백 년 전이지. 몇 백 년은 무슨 몇 백 년 전이야. 2천 년 전인데, 굴꺾테기 있었다는 거 보면 바다가 있었다. 바다가 있었다는.

[조사자 : 경계천이요?] 어? [조사자 : 무슨 산이라 그러셨는데요? 관교산이죠?] 관교산은 내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④ 왜근과 싸웠던 이진봉과 말무덤

노인회장(? , 남)/마북리T 1앞

[참고 뒤 숲]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래, 지금 한 백육십 년 전, 이조 중엽에는 파평윤씨가 세력을 폈으니 까. 그리고 여기가 성종이 한 번 구성면에 왔다갔더라는 거.

언제적 애긴지 그건 모르겠는데, 에 일본 군인이 쳐들어 오는데 선바라 나라고, 지금 요 고속도로 그쪽에가 선바라니 고개예요. 선바라니라는 거지, 선바라니. 이미에 이진(이진)봉이 있고.

이진봉에서 저거 무슨 땀가 일본놈이 저거할 때가, 무슨 때예요? 무슨 땀지는 모르겠어. 전설만 들었는데. 그래 인제 일본놈이 쳐들어올 때가. [조사자 : 임진왜란?] 생각이 안나네. 들었어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미 저기는 전설이 있어요. 일본놈이 진치구. 저쪽에서는, 우리 생각이 안나네. 그리구, 음. 일본놈이 무슨 만세통이라 그러지. [조사자 : 만세통 아네요?] 여기에 인제 만세 부를 당시에, 병자호란은 아니지.

미력땅에 미력이 있구 한데, 거기서 의병들이 총 쏘고 드뭇벼도, 쫓아와 도 거기설랑 많이 희생이 됐고. 거기서 말무덤이라고 있어요. 고개 말무덤 인데 거기서 말이 죽어설랑 말을 묻었다고 해가지고 말무덤이가 되고. 이 머리가 일본놈을 저 꼬리루다 저기 해가지고선 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미석. 이미 적장에 쓰면 급장이라고 해서 개은이라고 거기다 그렇다 그러는데 문씨는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가. [조사자 : 임진왜란?] 아, 임진왜란 때 그랬다는 거야. 근데 저 오유환씨네 오장군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사람이예요. 갑옷까지 다 있었어요. 있잖아? [청중 : 없어요. 죄 뺏겼어요.] 누구한테, 인민군한테? 일본놈이 다 가져갔지. (현실적인 이야기 생략)

[조사자 : 임진왜란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임진왜란 때. 후후. 그때 우리가 듣기에는 저 임진왜란 때에 여기 말무덤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로 요 느티나무 굵은 거 교목 있고. 거기 자리가 말무덤이라는 텐데.

거기서 인제 만세들을 부르고, 일본군이랑 저쪽에설랑은 이리 들어오는데, 에 그때 당시에 인제 무수히 죽었다. [조사자 : 말무덤은 왜 생긴 건데요?] 말을 묻어서 거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무덤이. 일정 때에 조선총독

부 역사계에 있는 사람이 문씨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오 장군 얘기가 나오고 문씨네가 그 당시에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미 그 얘기가 나오니깐 귀담아 들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다 진을 치고, 저쪽 풍동내 뒤 어디 산에다 진을 치구. 여기서 일본놈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구 이미 뒷산에다 해가지고 이미 이런 역사가 있다. 조선총독부 역사가가 이런 얘길 하는 걸 들었어요. 오씨네, 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고향이 거기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했는데, 또 오 장군의 얘기를 하더라고. 임진왜란이 어느 왕 때 시덴지.

5 민영환 선생 일화

노인회장(?), 남/마복리T 1앞

[창고 뒤 숲]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성씨들에 대해 말씀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민영환 선생의 이름이 나와 그에 대해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 : 민영환 선생님이 원래 이 고장 출신이신가요?] 이 고장 출신이 아니지. 수진면, 같은 용인 땅이지. [조사자 : 그 분이 원래 충신 아니에요?] 그 일한 함방 때 반대하고선 그랬거든. 등대신이지.

그러다 반대하는 바람에 자살한 거죠? 자폭한 거죠? 그랬는데 대나무가 그집 마루에서 솟아나왔다는 얘기가 있구. [조사자 : 죽은 자리에서요?]

그런데 일정 때 제대로 장사를 못 지낸단 말이에요, 일본놈 땀에. 암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다 암장했었겠지. 그래가지고선 해방되서 이리 다시 모신 거지. 근데 시체가 생생하데요. 옷두 그냥 생생하고. 이장할 때? 원래 그 명주옷 같은 비단옷으로 하면 안 썩는데매.

내가 이장을 해보니까요 옷이 그대로 있는데, 가서 만져보니깐 그냥 재

가 됐다. 아 그래서 화장을 해야할텐데 그냥 피사피사 해. 원래 오래 됐으니깐 그대로 영산만 있지.

6 동동바위의 유래

제보자(70대, 여)/마복리T 1앞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노인회장에게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노인회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래 거기 있는 할머니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자 떡이나 술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할미성과 미륵당에 대해 묻자 그 가는 방법이나 있는 사실만을 말씀하였다. 앞에서 들었던 동동바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할머니, 여기가요 옛날에 바다였다는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강이나 바다요?] 그 얘기는 있더라구. 여기가 개울이었다는 얘기는 있어. 바다고 요기 앞에 남산이 어디서 떠내려와서 그게 산이 됐다는. [조사자 : 아, 산이 떠내려온 거예요?] 그래, 여기가 모래하고 돌이여. 옛날에 마포서 내려왔던면서. 장마 저가지고 뚝대가 뚝대나 어쨌대나.

[조사자 : 어디서 뚝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뚝대가 뚝는지 어쨌는지 봐야지. 안 봤잖어. 말만 그렇대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지.

[조사자 : 동동바위요?] 그래, 저 맞아. 저 마포리 동동바위. 이리 쪽 을 라오면 거기여. 가 봐. 이렇게 말바국 자국이 있어. 그런데 현대 건설에서 개발을 해와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너럭바위?

7 도개비 일화(1)

제보자(70대, 여)/마복리T 1앞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으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였다고 한다.

① 고향 평안도 중화에 귀은 도깨비

내가 고향이 이북인데, 이북 저 평안남도 중화라고 하는 데가 있어. 중화라고 하는. 해방 전에 거기서 내려가지고 지금은 차가 많지만, 옛날은 차가 드물잖아. 중화서 우리 집은 한 15리를 걸어서 가야 돼. 거기서 걸어가 갈 때 큰 개울이 하나 있거든. 나도 그런 건 처음이여.

개울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우리 큰 딸을 업고 우리 막내 시누하고 같이 가는데, 개울 저쪽에서 하얗게 아래위로 하얗게 입은 사람이 우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 그래 나는 무서워서, 남자니까, 여자 둘이 걸어가니까 해꼬지 할 줄 알고.

그냥 무서워서 두리번두리번 하고 가도 영 안 보여. 그러더니 조끔만 가면 동네에 개가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개가 그냥 짖는데, 개 짖는 소리도 안 나. 그래서 내가 우리 시누보고,

“아이고 누이! 여기서 어떤 한 남자가 우리 앞에 한 열 발짝 이상을 안 걸더라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누이는 못 봤어?”

“나도 봤다.”

고 그러면서,

“나는 그까짓 거 도깨비 아니라 호랑이가 나와도 안 무섭다.”

고 그래. 그래 나는 그게 남잔 줄만 알고, 귀신이고 도깨비고 그런 건 없는 건 줄 알았거든. 그런데 집에 가서 그런 얘기하니까 거기서 도깨비가 나온데, 그 개울에서.

남자한테는 여자로 보이고, 여자한테는 남자로 보이고. 할아버지들한테는 애들로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는 혼자 가면 흘린대. 우리는 그때 둘이 가서 안 흘렸어. 할아버지는 흘러가지고 산으로 어디고 헤매고 다녔대. 그 이튿날 밝아서 보니까 옷이 그냥 죄 찢어졌다고 그래. 그 도깨비한테 흘러가지고 그 도깨비가 해꼬지하거나 사람을 잡아먹거나 그러더

라는데.

흘러가지고 그렇게 끌고 돌아다녔대. 혼자 다니면 홀리는데, 우리는 둘이니께. 장정이 있으면 그런 게 안 덤비거던. 장정이 없으니께 그런 것이 업신여기고 덤비는 거여. 그래서 그렇게 그거 한 번 봤지.

② 양고개에서 겪은 도깨비

여기서 그러니까 도깨비불이 이게 어디서 쫓아 오냐면, 양고개 있지. 거기 넘어서 거기서 미륵대기까지 그냥 막 쫓아오는 거여. 그럼 양고개 거기 있어. 나도 수원 가서 양고기 팔고 오는데, 거기서 웬 문길 아버지를 하필 만났는데, 그게 자전거를 탈탈탈 끌고 오는데, 내가,

“아이 아저씨, 어디 가세요?”

나는 문길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아이 여기 김사장네 가는 거면 같이 가자.”

고. 나는 그제 여기 무서워서 못 지나가는데, 아 글썽 그믐날여. 근데 이제 넘어오는데 빗자루만한 불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아 그래 이제 나는 ‘도깨비구나’ 그래, 이래선 아 글썽 그게 호랑인 줄 알았어. 근데 그때 문길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아 글썽, 우리 집사람이 내가 오는 줄 알고 마중을 나왔나. 저게 웬 불이여!”

“아이 여기 오세요. 마중 나왔으면 오겠지.”

아 근데 그놈이 차츰차츰 오더니, 신작로 가서 불을 들고 요렇게 섰어요. 아 그때는 사람도 죽이고 그랬어, 그 양고개서. 그래서 난 옛말에 살쥍살쥍 거기서 오니까 고놈이 꺼져요. 그 도깨비불이 꺼지더라고. 그래서,

“어디 보자.”

그러고 난 앞에서 오는데, 그이는 자전거를 끌고 탈탈탈 소리가 나지. 아 근데 내가 이리 가면 이리 쫓아오지, 저기 쫓아오지. 난 누가 미리 가는 줄 알았어. 아 근데 집에 가서 애길 들어보니, 아 그이가 눈이 시원찮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개울을 쭉 넘어서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는데 나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오는데 그 양반은 자전거를 들고 못 건너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자전거를 끌고 그 양반이 밀고, 이리 밀고 그래서 간신히 해서 건너와서 아 그래서 왔어요.

요놈의 도깨비가 와서 딱 서는데, 어디 서느냐 하면 그 아주머니네 뒷쪽에 거기 와서 서는 거야. 서낭당 뒤에 아 거기 서낭당. 아 그런데 서서 이렇게 보니까 자전거 끌고 오느라 나도 힘이 들고, 그 이도 힘이 들고, 그래서 아 그 이가,

“쉬었다 가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섰지. 나는 섰고, 그 이는 자전거 붙들고 서고. 그러는데 도깨비불이 이렇게 도는 거야. 막 사람잡고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길 나와서 동네 어귀니까,

“아 저기, 영감님 오는 데로 가자.”

근데 거기서 문길이가 엄마가 막 욕을 하는 거야. 밤늦게 막 다닌다고 어쨌느니. 아 그래서 난 뭐 집으로 왔지 뭐. 그래서 도깨비불도 봤어요, 난. [조사자 :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구 꺼지면 딱 가서 세 개가 되고, 아물아물. 그거 쳐다보면 어지러워. 또 없어져. 또 이게 또 하나가 돼. 커져 가지고 꺼지고 그래.

이, 도깨비는 보지는 못허구. 물레방앗간에만, 에 물레방앗간에만 거기서 이런 거 많았어요. 이 물레방아. 옛날엔 왜정 때고 뭐고 물레방아는 물가지구 방아를 찼지. 시방 통통방아를. 그래가지고 갔는데 물레방아에서 물이 확 떨어지면 그게 도깨비불이야. 도깨비는 보지 못허구. 뭐 일어나가지고 딱 나가 꺼져가지고. 또 두 개가 되구 또 한참 가다간 세 개가 되구. 또 꺼지면 여기 와서 또 하나가 되구. 그런 게 있었어.

8 지명 유래(무등기)

제보자(70대, 여)/마북리T 1뒤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옆에 듣기만 하던 할머니께서 생각이 났는지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여가 옛날에요, 여 강인가 바다였다는 그런 소리가 있던대. 옛날에, 아 니 옛날 거 아까 어떤 양반이 옛날에 예구리 얘기는 못 들었는데, 굴바닥 있어. 모옹치라고 물넘어 덩기는 무등치 있구, 또 굴무등치, 작은 무등치 이거 거루가 있어. 거루가 넘어댕겼다는 얘기가, 옛날에.

옛날 얘가지. 몇 백 년 전에. 몇 천 년 전에. 거이 걸어 댕겼구. 저기 무슨 고개야, 그 저 이 큰 무등치, 작은 무등치. 그 있어서 옛날에 그 뭐냐 그 얘기만 들었지, 뭐 옛날에. 몇 백 년 전에 있었는지는 몰라, 옛날에.

9 지름을 잡아 망한 집안

제보자 2(70대, 여)/마복리T 1뒤

[노인회관] 박중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걸,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구렁이 있잖아요. 구렁, 구렁이가 이런 들에 있는 구렁이는 들의 구렁이 구, 이 울 안에 있는 지름이야. 집에 지름. 집안을 지키는 지름.

근데 그 지름을 죽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지. 이 어느 집안이든지. 옛날에는 기와집이구 초가집이구 했었잖아. 다 지름이 다 있는 거여.

근게 나뻐려니께 그게 나타나는 거지. 나뻐려니께 그게 주인한테 들킨 거지. 안 나뻐라면 주인이 그게 뻐히 보이게 있어도 안 보이는 거여. 그러 니께 그게 제 집으로 들어나니께. 나뻐려니께 주인한테 들켰으니까는, 주인이 그게 망할려니께는 동네 청년들한테 잡으라고 해서 죽였으니께 지름 이니께 망하는 거지.

그럼 안 잡았으면, 안 잡았으면 괜찮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었는데 농사도 많이 짓구. 근데 무단히 소가 막 외양간에서 펴 쓰러지구 죽구. 할

아버지 그 억신 할아버지 죽구. 할머니 죽구. 손자들 둘 미쳐가지구 물에 빠져 죽구. 차에 깔려 죽구. 그래가지구 그 손자에서. 애 난 거, 저 둘하구며느리밖에 안 살았대니까, 지금. 다 죽구.

들에 있는 구렁이는, 들의 구렁이는 아무 것도 아니구, 이 울안에서 집 안에서 그 구렁이라는 게 있어. 누런 턱구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이야, 지금. 음, 그게.

10 도깨비에 홀린 남편

제보자(70대, 여)/마북리 T 1뒤

[노인회관]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앞에서 도깨비에 대해 말쑤한 것이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시집 살이와 관련되어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렇구나. 귀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스물한 살에 시집 가구, 스물두 살에. 그 담배농사 지려면 건주수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주수를 지려면 서까래 같은 거를 낮에는 못 비잖어. 비다 들키면 붙들려 가잖어. 그러니까 밤이면, 새벽이면 한 번씩 지게 지고 가서 그거를 덧 개씩, 지고 가서 비고 지고 오는데.

그걸 저다가 딱 놓더니 막 손뼉을 치더니, 깡깡깡깡 앞뒤로 돌아댕기는 게 도깨비가 붙들렸는가 봐. 그래서 나보고,

“뜨랑에다가 물 떠놓고 질하라. 그러고 빌으라.”

고. 막 하면서 앞뒤로 막 돌아다니면서,

“깡깡 깡깡.”

하고. 막 미치구 돌아다니는 거여. 그래서 그때 청주 할머니가 있었어. 청주 할머니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보구,

“아무리셔, 아버지가 별안간에 밤에 서까래를 끌여다가 하더니, 저래 가지구 미쳐가지구 돌아당기니 어떡하냐구. 뭐가 약이나?”

구 하니께. 도깨비가 들렸으니께는 매물 풀, 매물 풀 있잖아. 매물 가져다가 풀을 쭈어가지구 그걸루다가 앞뒤루다가 말라지구 다니면서 쩌(던)지면서 뭘 해야 된대. 그렇게 나는 새댁이니께 뭘 알아. 그러니께 그 할머니 보고,

“그것 좀 해 달라.”

고 했지. 그때 담배밭에, 담배 따서 다 쪼구. 수뽕이 은에 잎새 이렇게 나서 멧물을 다 뿌리잖어. 멧물을 몇 가마씩 했어요. 그래갖구 멧물을 써가지구 할머니가 그렇게 해줬어. 그랬더니 그게 가라앉더라구. 가라앉더니 그게 가라앉구서 얼마 있다가 군인이 나왔는데, 군인이 나온지 군인이 내일 모레 갈 거 같으면, 그쪽 동네 청년들이,

“송별회한다고 오라.”

구 그래. 그래서 거길 갔거든. 술을 먹고선 집에 온다고 한 청년이 거기 방죽이 있어요, 방죽 있어요. 청년들이 보니께 거 방죽 위루다가, 방죽 위로 가더라.

“그 키 큰 놈이 나를 몰고 간다.”

고 하더라. 그거 안 들켰으면 빠져 죽었잖어. 별 거를 다 적겼(꺾었)어. 그래가지구 그렇게 와가지구 군인 갔지.(이후 시집살이 관한 생략)

11 한약을 먹여 열녀를 만든 사람

제보자3(70대, 남)/마복리 T 1뒤

[노인회관 앞]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노인회관에서 할머니들의 조사를 마치고 막 노인회관을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있어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곳의 지명전설이나 역사적 사실, 인간적 측면에 관해 사실적인 일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가족에 관련된 일이라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야기 뒤로 자신이 결혼하였던 과정을 말씀하여 주었다.

그 열녀 얘기를 한번 할께, 그래. 우리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가 한약방

을 한 삼십 년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 밑에 사 형제를 뒀는데, 막내 아들이 그때 그 왜정 때 그 저 그 열병인데 장티푸스, 열이 막 올라가서 나는 병인데, 그땐 그 도청병원에 입원을 시켜도 안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없어도 이걸 내가 고친다.”

한약을 한 삼십 년 했으니까. [조사자 : 여기서요?] 응. 여기 지방에서. 그래가지구 자기 아들, 막내아들을 열병을 다스린다는 약을 갖다가 한약으로 조제를 하니까. 지금 한약, 대학 나온 사람하고는 다르지. 옛날과는. 그러니까 그 약을 조제한 것이 열을 돕는 것을 해가지고는 아들, 약 두 첩 먹고 그냥 죽었던 말여. 그래가지구 할아버지가 한약방 그 약재료를 다 때려부셨어.

“내가 내 아들 못 고치는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구 그 한약방을 다 때려부순 거야. 잉, 때려 부셨는데 그때 그 며느리가 몇 살이냐, 스물네 살이여. 아, 그 죽은 아들 부인이. 응, 부인이. 스물네 살이여. 옛날 그 결혼할 적에 그 양반 아들이 여기 우체국장이여, 큰 아들이. 그 사람이 육군소령 제대에다 미국 대사관, 육군사관학교, 미국까지 갔다온 사람이여.

근데 그 양반 어머니가 스물네 살에 그때 혼자 됐으니까. 우린 할아버진 어떻게 생각했느냐. 며느리가 스물네 살 되어서 애들은 삼 남매 두고 흑시나 개가 염려가 있을까 하고 방법을 쓴 거여. 그거, 약발 질은 약 해서 골라서 한약을 지어 먹여서 절기를 시킨 거여. 지금 말하면 홀몬제단이여. 아, 애 못 낳게요? 아니, 모든 감각이 없게. 아, 여자로서, 그 여자로서 남자를 봐도 흐리몽당하고 무감각으로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진 양반이여. 근데 그 양반이 작년에 돌아가서 일흔여덟에 돌아가셨는데, 그 삼 남매가 다 잘 살어. 열너비를 세워주지 않았어. 스물넷에 혼자 돼서 일흔여덟까지 살았으니, 그냥 무감각으로.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여. 그 시아버지가 그 한약을 지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양반 혼자 있을 양반이 아니지.

이 동네에도 무지무지하게 과부된 사람이 중간에 아들 두고도 난봉 부

리고 그런 사례가 많잖아. 그런데 그 양반 깨끗하게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가 열녀비 세워 드렸다고. 김해 김씨. 동네에서 아 우리 동네에서 아 우리 집안에서.

12 도깨비 일화(2)

제보자4(50대, 남)/마복리T 1뒤
[환경위원회 사무실]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은 노인회관 앞에서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문이 열려 있는 사무실의 안을 들여다보니 4명의 아저씨들이 담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옆에서 청중이 응원하자 구술한 것이다.

그래가지구 노인네가 술 늦게 잡수구,
“가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걸루 인해서 야광이라구, 그러나 밤에 비취는 거니까. 그거 가꾸 해매다 보면, 술집에 노인네들 용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묶어놨다는 얘기여.

그 등등배에 버드나무가 많거던. 거기다 묶어놓고 그 이튿날 와 보니까 싸래비나 도리깨 장치다 이 얘기여. 그것이 이제 소위 도깨비다 이 얘기지. 이제 그걸 갖다 도깨비라 그러는 거야.

밤새도록 해매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용감했던 모양이야. 노인네가 힘이 있던 모양이야. 그걸 묶어 놓고 보니까, 그 이튿날 와보니까 묶어놓은 것 자체가 싸래비 아니면 도리깨 짱짜다. 그것이 그 이튿날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도깨비, 그러니까 밤에 그걸로 해맸으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뭐, 그거 사실 전설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은 내가 들은 역사가 있어. 내가 현실은 보지 못한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순 없지.

13 숲이 있어야 풍아질 등등배

제보자 4(50대, 남)/마복리T 2앞

[환경위원회 사무실]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미륵당에 대해 말씀하여 주었다. 그런데 미륵당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패지지에 관한 것이어서 생략하고, 이어서 등등바위에 관해 구술한 것을 채록하였다.

그 등등배거든, 등등배. 등등배. 등등배는 여기가 개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숲이 이렇게 있다구. 숲이 있으니까 배 뜨는 거를 숲에다 묶는다는 뜻이야.

얼른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등등배. 그러니까 배가 물이 있다며는 숲이 쪽 있어. 여긴 맥혀야 된다는 얘기고, 이 배를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여기다 묶어 놓는다. 내가 풀이를 할 적엔 그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든, 앞으로 지금은 그 저 나무가 그 전엔 다 아주 험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뭐 도로가 난다, 뭐 난다 보니까 이거를 잘랐다 이런 얘기여.

그럼 우리 마을에서 볼 때에는 이 숲이 하나가 성장되어야 우리 마을이 부흥되는대. 응, 이걸 잘르므로 인해서 폐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런 뜻으로 인해서 나무를 한 가지를 더 세우고 여기를 가려줘야 된다는 얘기여. 왜 이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여기가 똑이다 이 얘기여. 이견 강이라고 볼 때에, 그럼 똑에서 가려줘야 된다는 뜻이여.

응, 숲을 가려야만이, 이게 만약에 유원지가, 얼른 현실로 따질 때는 유원지가 된다 이거여. 나무가 있어서 바다가, 저, 저수지가 있어서, 이게 그래야 감춰져야 이게 저수지의 관광지가 되는 기여. 얼른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며는 이 나무가 없으면 이견 허공이다 이런 얘기여. 만약에 배를 띄어도 만약에 천지지변으로 인해서 떠내려 갈 때는 묶을 때가 없다는 얘기야.

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뜻이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허구 싶은 거 뿐이지.

14 지명 전설

제보자 4(50대, 남)/마북리T 2앞
[환경위원회 사무실]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해서 이곳과 관련된 사실적이 이야기를 말씀하던 중에 이곳의 지명들에 대해 말씀하여 주었다.

① 부산 (떠내려온 산)

그전에 우리 천지개벽했다는 년이 몇 년도예요? 아, 천지개벽 당시에 남산이 떠내려왔다고 노인네들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 앞산, 저기 저 보이는 산이 그 옛날에 천지개벽 당시에 떠내려와가지구 저렇게 선거거든.

② 용바위

그리구 저 그 밑에 보면 냇가가 있어가지구 물이 흘러가지구 용바위라구 또 있어, 용바위. 바위에 그전에 용이 올라가다가 에, 그 암벽타고 올라가다가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옛날 어른들의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바위 밑창에 가서, 엄청 깊었어. 우리 그렇게 들어가서 보려는 손들고도 안 보였지. [청중 : 용바위가 어딘는 거지?] 고기 거기, 청계약품 바로 뒤에요. 남산 바로 밑이죠. (중간 부분에 민속놀이 대한 말씀 생략)

③ 홍수전설

그래가지구 여기가 내가 갱변인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놀다가 구덩이를 파다보면서, 그러니까 천지개벽 당시에 그게 밀려가지구 다 파묻힌 거지. 거기가 동네가 있었다는 거야, 마을.

그래가지구 옛날의 그 기와 깨진 거 그게 막 나와, 파보면. 그러구 그 아궁지 있지. 옛날 불 때던 아궁지. 그런 것이 거기 나오고. 옛날 낮같은 게 나오고 그래. 갱변에 가서 지금 아마 그걸 시작을, 그 발굴 시작을 해 보도 뭔가 있을 거야. 그 아궁지 형태도 나오구 그랬거든.

그래가지구 비로 역수가 되가지구 물바다가 됐던 거야, 이 동네가. 저 산이 그 당시에 떠내려왔다. 이런, 우린 보지 못했는데, 남산이라고 그러지 그 산을. 뜻은 그 전설이 조 있구. 사실 여기 전설이 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나는대. 하여간 여기가 옛날에 그 역사적으로 뭔가 좀 많이 있었어. 그래두 누가 여기 발굴하는 사람들이 가서 파보면 뭔가가 나올 거야. 그 당시에.

그것 뿐만이 아냐. 이 주위에도 우리네 밭이 많은데 밭 같은데 가서 일을 해보면서 그 옛날, 사기 기와 이런 게 깨진 게 엄청 많이 나온대구. 그런데 그게 옛날 노인들이 천지개벽이 됐다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거라구. [조사자 : 그게 언제쯤일까요?] 그 연도를 모르지, 우리가. 아주 오래 된 거지. 고려 시대? 고려 시대지. 그때, 고려 시대. 고려 시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 그전일 수가 있구요.

④ 감바위

·옛날 노인네들 얘기 들어보면서 그, 바우 우에 가서 감나무가 났테요, 그런 수도 있지. 바우 우에, 바우 우에 감이 났다고 해서 감바위. [조사자 : 그니까, 바위를 뚫고 이렇게, 바위를 뚫구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바우 우에 가서 감나무가 섰데는 거지. 거기가 바위가 많거든, 원래.

[조사자 : 감나무 뿌리가 그럼 바위에.] 바위에 올라앉아서 감나무가 낫다구 해서. 그니까 바위에, 자연, 자연목이라고 봐야지. 모래 가서 흙이 인제 물론 올라가 있었겠지, 바위 우에. 그 흙에 가서 감씨가 머이 떨어져든가 해가지구, 잉. 설악산에 가든 바윗돌에 가서 머 소나무 사는 거, 머 거 똑같은 거라구, 똑같은 거. 그러든 인제 흙이 있어야 사는 거는.

⑤ 돼지

돼지는, 돼지는 왜 돼지냐 하며는 그전에 그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보든 그 빨건 물이 흘르구 그랬지. 근데 인제 돼지피라고 그래서 돼지라구, 돼지라구 지었는데누먼.

[조사자 : 연못, 연못 이름이 돼지예요?] 마을 이름. [조사자 : 마을요?] 그니까 거 물이, 그니까 빨건 물이 흘렀단 얘기야? 흘렀는지 그 연못에 머 돼지피가 있어가꾸. [청중 : 아이, 얘기를 똑똑히 얘기 해야지.] 아이구, 에, 아이구 나두 이제 지나치는 얘기니까, 그런 들은 풍월이지.

⑥ 이진산

아, 저기, 이진산. 이진산은, 이진산은 저이 왜 임진왜란 때 저이 광고산 허구 마주 활질 해던 데래, 글썸. 그래서 거기가 유물들이 총알같은 거, 활, 활뿌리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그래. 게 광고산하구 일케 마주 보고 싸웠으니까. 산을 이렇게 아주 잘 다듬어 났어. 거기다 군량미 쌓구 뭐.

15 정몽주 일화

제보자5(50대, 남)/마복리T 2뒤

[환경위원회 사무실]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마침 밖에 나갔다 들어온 제보자가 ‘앞 제보자가 여러 가지 대해 이야기해 주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다시 하여도 된다고 하자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원래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에서 송충이를 입으로 씹었다는 이야기가 정몽주 산소와 관련되어 구술되었다.

송충이 안 먹는 얘기두 했수? 하하. [조사자 : 아이, 괜찮아요, 그냥. 하신 얘기 다시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청중 : 머(똥) 송충이 얘기? 송충이 얘긴 안 했어.] 살아 용인 죽어 광주. 그 송충이 얘길 해 줘야지. 여 광주 땅이 명당자리들이 좀 많다는 거여, 광주 땅이. 그래서 살아서는 용인, 죽어서는 광주라는 거여.

[청중 : 거 송충이 얘기 좀 해 봐, 송충이 얘기 해 봐.] 아니, 형님이 거, 저기 묘소 얘길 했는데는, 응 정, 그 선생님 거 묘소. 거 묘소 옆에 소나무가 엄청 좋은데. 소나무가 아주아주 머리께가 굵게 서 있는데. 걸 송충이, 송충이가 걸 먹지를 못 해. 그 나무 자체를.

송충이, 솔잎을. 송충이가 아니라 송충이. 송 어, 송충인가? 송이 값아떡질 못한다. 그걸 값아 먹질 못 해, 그 잎을. 그 이유는, 그 왜 이유가 머냐? 그 아들이라 그랬나. 그 아들인가 누가 그 송충이, 송충이를 하도 그 값아 먹으니까 입으로 그냥 이빨로 걸 잘라버린 거야, 송충이를 잡아가지구. 그 뒤서부터 그 주위에는 송충이가 안 먹는다 이런 그 역사의 말이 있어. [조사자 : 정몽주.] 어.

선생님 거 묘소 옆으루, 고 주위만. 그게 역사가 아니라 전설이겠지. 어, 전설, 예. 거이 깨물어가지구, 걸 무신 후로는 안 먹는다. 정몽주가 천주꾼(선죽교의 잘못)가 어디서 피흘리고 돌아간 사람이여.

그, 그거는 오작교라고 그랬나? 그거는 좀 태서, 태서에서. 어 글썸. 거기서 도끼를 가지구 오작교, 오작교라고 그랬나? 이방원이가 누가 죽였지 거. 이방원이지? 건 역사, 이방원이지. 그거 역사 나오잖어. [청중 : 그건 정몽주 선생이 아니구]. 정몽주여. [청중 : 정몽주여?] 정몽주여. 그 죽은게.

응. 그래서 다리에서, 다리에서 뭐 그래가지구 정몽주가 생일두미루두

구두 풍 터쳐 나와가지구 식어 있는데, 거 앞에 거 저 이 이방원 그 깃대 있잖아. 그게 쭈욱 날라가지구 거 저 높으루 들어가서 떨어졌디야. 아아, 거 명전. 명전. 그게 그리 날라가 떨어졌디야. 명전이 거기까 꽃힌 거야. 그랴, 그래서 그리 갔디야. 그런 말두 들은 거 같다.

그거는 이제 이 역사책에 나와. 그거는, 건 나와, 역사책에 나와. 거 한 번 가보긴 참 좋아. 명전이 날라가지구 거기 꽃혀서 거기다 그거를 썼다. 그건 역사책에 나와요.(정몽주 선생의 산소 관리가 잘못되고 있음을 한탄하는 현실적인 이야기 생략)

16 호랑이의 일화

제보자(50대, 남)/마북리T 2 뒤
[환경위원회 사무실]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호랑이에 대해 묻자 이곳에도 호랑이가 많았다고 하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① 호랑이와 동행한 사람

옛날 노인네들이 여기 이렇게 마을을 쓰욱 지나가다 보며는 범이 나타난다는 거야, 호랑이가. 그러믄 같이 온데, 이렇게. 같이 오다가 요 동네 딱 와가지고는,

“얘, 여기 큰 손님이 들어가시니 대접 잘 해 드려라.”

그러며는. 그날 개가 하나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 옛날 노인들이 그 호랑이를 무서워하질 았구, 그렇게 친구 삼아서 같이 다녔다는 거야. 개 짖는 데가, 버금바풀이란 데가 거 굉장히 험했거든요.

② 새끼를 예쁘다면 좋아하는 호랑이

동네 사람들이 이, 이렇게 나무를 뜯으러, 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바우 밑에 가서 그냥 복스런 강아지가 그냥 몇 마리가 그냥 웅기종기 나오드래. 그래서 이쁘니까는. 처음에 보니까는 이뻐 갖구,

“아, 이쁘다.”

하구 있는데. 속에서 에미가,

“우웅!”

헤드라는 거야. 거 웃는 소리래, 그게. 그래니까 이 여자들이 기냥 부어니 칼을 다 팽개치구서는 집으로 기냥 도망쳐 왔데는 거여. 도망쳐 왔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는 전부 집에다 물어다 났드래, 보은이를. 그런 얘기도 있드라구.

③ 부엉새와 함께 다니는 호랑이

우리 어려서 쫓아대닐 적에. 여기 여 호랑이들이야 많았지. 부엉새야 남 산에서도 많이 있었잖아, 부엉새는. 우리가 본 목적은 없잖어, 현 나이로. [청중 : 아니 부엉새는 봤지, 왜 못 봐요.] 봉새? 부엉이. 응, 부엉새들이 있지. 아, 그게, 이 남산에서 새끼 거냥 키웠잖아. 거 대학교 앞, 길에다가 그 자기네 집에서두 키우구 그랬었잖아. 그게 근데 그게, 새끼가 사람만가 이렇게 해.

딱딱딱 소리가 나, 이게. 꼬리 끝마다 소리 내죠. 딱따구리 모냥 에 소리 낸다구. 그러론 딱딱 이렇게 소리가 난대니까. 그나즈나 오늘 여기 역사 얘기 많이 듣네. 그 부엉새, 부엉새 노는 곳에는 항상 그 밑에는 범이 있대는 거야.

④ 스스로 겪은 호랑이

그 옛날에 여기 아주 그 참 저기 범들이 아마 엄청났었나 봐.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보구, 그냥 나무, 나무 가가지구, 머, 범 있대는 그 산에서 나무를 내가 잤었는데, 범인지는 몰라두 꼭 요만한

게 나타나더니 나를 보더니 그 나무, 소나무를 딱 기대가지구 딱 서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며, '범이 보며는 피해라'에 같이 이렇게 맞춰다 보지 말구. 거 맞춰다 보며는 잡아 먹는다는 게야, 범이. 그 자기를 해칠개배. 그래서 나는 얼른 이렇게 피해서, 거 다시 돌려다 보구 피하구 다시 돌려다보니까 없어진 거야. 그런 건 나 한 번 봤지. 근데 범 인진 몰르겠어요.

17 도깨비의 정체

제보자(50대, 남)/마복리 T 2 뒤

[환경위원회 사무실]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청중 : 거 저것두 말씀해 주슈. 옛날에 도깨비가 어떻게 있었다는 거.]
그니까 도깨비를, 그 내가 아까두 그런 얘길 했어. 그거를 밤새도록 허매 구 붙잡구 쪼매구 보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묶어는 걸 와서 보니까 도리께 짱짜 아니므는 싸래비드라. 빗자루. 이런 빗자루드라. 이런 얘길 내가 아까 분명히 했어. 분명히 얘기했다구.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에다가 피를 묻히지 말래는 거야. [조사자 : 나무에다가요.] 응, 나무에다가. 이런 나무에다가, 이런 나무에다가 피를 묻히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야. 죽은 나무든 잘라진 나무든. 그래서 인제 그걸 갖다 옛날에 도깨비라구, 한없이 쫓아다니구 며 끌려다니구. 옛날엔 그런 일이 흔했었지. 흔했지, 요 근래 와서.

그 이튿날 보며는 얼토당토 안 하니까. 지금 내가 왜 그거를 생생하게 기억을 해고 있냐며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 밤새도록 그 놈들한테 쫓겨다니구 묶어났긴 묶어났는데, 그 이튿날 가서 붙잡아

논 걸 보니까 도리깨 짱찌 아니면 싸래비드라구. 싸래비두 거꾸루 이르게 돼 있드라구.

18 **옷물의 유래**

제보자(50대, 남)/마복리T 2뒤
[환경위원회 사무실]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지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지명 전설은 앞에서 구술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 생략하고, 지금까지 채록하지 않은 옷물에 대해서 수록하였다.

옛날에 거 저기 용바위라고 하며는, 일케 쌍바위가 있었는데, 진짜 그 용바위라는 이름이 있었던 모양이야. 고 옆에 보드는 옷물이라고 있어, 옷물.

그니까 옷물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옷을 올렸을 적에, 옷나무 만져가지고 옷을 올렸다 그랬을 적에, 거기 가서 그 물에다가 딱 그 씻으며는 약을 안 먹어도 그냥 싹 난데는 거, 그런 그 아주 그 물이 있었다구. 그런데 지금은, 그 저 면허시험장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서 그 물땡꼬를 만드는 바람에 그게 읊어져 버렸어.

19 **배를 매어 휘어진 삼형제봉**

제보자(50대, 남)/마복리T 2뒤
[환경위원회 사무실] 박종수, 강현모, 서원태, 오한결, 최인석, 윤성훈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천지개벽에 관해 계속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홍수전설에 관한 내용 중에 광고산 삼 형제봉의 형상과 관련시킨 것이 특이하여 수록하였다.

[조사자 : 옛날에 이쪽이 바다나 강이나 뭐 그랬던 거 같다는대?] 여기? 여기는 글썸, 그 강 강이 있었다고 봐야지. 왜 그러냐면 여기, 저 길, 여 그 도로, 도로 옆에 깊이 파며는 모래바닥이 나와, 모래바닥이. 그니까 여기 강이 옛날에 있었데는 건 사실이야. 왜, 그러고 앞에 그 떠내려 왔다는 산이, 그 남산.

그 우리네가 생각해두 그게 이해가 가더라구. 그게 뜻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이 등등배라고 그랬잖았어. 그러믄 그 뜻이 물이 굉장히 깊었다는 뜻을 생각했는데. 배가 뜰 정도로 물이 많았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냐, 내가 볼 때에.

저기 구계동을 여기 가보며는, 저 구계동 앞이 보르는 이 산 중턱으루다가 길이 내 있어요. 그럼 그만큼 그 개울이 넓구 물이 깊었기 땀에 길이 났대는 거지. 그럴 때는 확실히 여기가 물이 깊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조사자 : 아까 천지개벽.] 무슨 년에 천지개벽인가, 난 기억이 안 난다구. 을사 년인지 갑자 년인지는, 이 내가 잊어버리구 까먹었네. 천지개벽이 우리 그 아니 그 저기 보르는 노아홍수 때가 기 있었다구 그래요. 거기 저 강(광)교산에 보르는 이렇게 삼 형제봉이 있거던. 근데 이 봉에다가, 여기다 배, 배끈을 땀데는 이런 얘기두 있드라구. 강교산 있는 데 거 삼 형제봉이. 떠내려가지 못 허게.

이렇게 봉이 세 갠데, 이게 이렇게 약간 제쳐졌거던. 여기다 배를 땀데는 이런 얘기도 있드라구. [조사자 : 그럼 옛날에 이쪽이 강이었다는 얘기 하구요, 천지개벽이 났었던 얘기하구요, 그거는 서로 다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에 강을 갖고 있었다가 천지개벽이 되는 바람에, 그니까 물론 그냥 완전히 쓸어붓는 바람에 그 강이 없어지구 이런 육지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그래가지구 이 저, 그래가지구 이 산두 생기구, 이런 머 그 대답이 생기구, 머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내, 내가 생각하는 면에서 이게 사실, 틀림없이 사실은 있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아까두 내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그 어린 시절 그 이렇게 딱 머 어떻게 장난 놀다가 구멍이를 파보며는 그

런 것이 나와. 며 낫두 나오구, 무슨 며 이상한 그릇두 나오구 며 이래. 그 니가 여기가 전에 그 강가였지마는 그 강 주변으루 마을이 있었대는 건 사실이야.

그니까 그때, 게가 고려 때가 아닌가 난 그래. 그 저 그땔 거예요, 고려 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엄니는요 걸 환히 알아요, 엄니는. 그래갖구 난 엄니한테 다 들은 얘기지. 아니 우리 할머니는 그 천지개벽은 그 옛날 이구, 되게 한 번 이 장마 때 망한 적 있었대.

3. 청덕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한상언, 서대정, 주현정, 김소희 조사(1996. 6. 16., 1997. 6. 2.)

청덕리는 언남리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동북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이 청덕리는 원래 용인군 동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청수동과 덕수동 그리고 읍내동의 언동 일부를 합하여 청덕리라고 하여 읍삼면에 편입되었다.

이 청덕리를 이루는 중심 자연마을은 덕수동과 청수동이다. 덕수동은 덕수 또는 덕수굴이라고 하는데, 맑고 푸른 물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전설에 의하면 마을 위에 있는 절에서 떡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떡수동이란 말이 바뀌어 되었다고도 한다. 청수동은 물푸레울이라고 하는데, 물푸레나무가 많아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물이 항상 맑고 푸르게 흘러서 물푸른이란 말이 변해서 되었다는 설이 있다

2) 설화

1] 안 손님을 막아 망한 집안

이일순(55, 여)/청덕리T 1앞

[청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상언, 서대정 조사(1996. 6. 16.)

조사자들은 청덕리에 도착하여 노인정을 찾았으나 문이 닫혀 있어 막막하였다. 잠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각 개인집을 돌아다니며 조사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한 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잘 하는 분을 문자 제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그제 제보자의택을 찾아가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조사자들이 계속하여 간청하자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옛날에 아주 부잣집 양반이 있었대. 대감이지. 대감의 집이 있었는데, 그 대감이 얼마나 부잔지, 진짜 부자로 대감이 하도 잘 살으니까, 아 사람들이 꿔길 때가 없이 술상을 보는데, 메느리를 얻었는데 이양, 메느리가 그냥 술상을 이양 하도 봐서 이양,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그리고 인자 날이면 날마다 이양 저녁까지 술상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께, 그 메느리가 아주 힘이 들고 피로운 거야.

그런데 하루는 스님이 목탁을 ‘뚝뚝’ 두드리면서 시주를 하러 왔어. 그래서 그 있는 집이라, 아 있는 집이라 인저 쌀을 한 바가지 푹 퍼주며 인자 스님한테,

“스님! 저희는 손님이 하두 많이 와서 지가 술상 보기가 너무 피로우니께, 어떻게 하면 좀 손님 좀 안 오게 해, 하게 해 달라.”

고 그 스님한테 그러니께.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그제 소원이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네! 저는 힘이 들고 피로워서 그러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비법을 하나 가르켜 드릴테니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실래요?”

그러니까.

“그런다.”

그랬어. 아 그래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문 아침 저녁으로 쌀을 씻어서 일어가꼬, 그 돌을,”

지금은 사정이 좋은 시대라서 석발을 해서 돌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석발이 어디 있고, 옛날이니까 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 쌀을 또 식구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냥 돌이 바가지로 하나씩 나오지. 그러니까,

“그 바가지로 돌을 갖다가 이냥 아궁지에다 아침 저녁으로 넣으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자 삼 년만 그러면 손님이 없을 거라.”

고 그러니까.

“아 그러냐!”

고. 아 그랬어.

“아 그럼, 그렇게 할 거냐?”고.

“한다.”

고. 그리고 인저 스님은 시주를 받아갖고 갔어. 그 메느리는 아침 저녁 이루 뭐 이냥 바가지에 일으면 한 바가지씩 돌이 나오지. 그러면 그것을 아궁지에다 삼 년을 부니까, 그 집이가 아무 것도 읊이 홀랑 망했대래.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집에 사람이 오야 되고, 사람한테 진짜 사람이 끌어야 하고, 그 집안이 모든 것이 되는 거고. 그런게 사람이 ‘오는 손님 잉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랬대.’ 내 집에 오는 손님 후이 대 접해 보내면 복이 돌아오는 거고. 또 이 다음에라도 훗날에 자식 대대가 좋은 거지. 사람이 안 오는 집은 그만큼 인심을 잃고, 그마만큼 사람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라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런 저기가 있어서, 사람이 오야 되고 가야 되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서 참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대감 떠느리도 봐라. 응 아무리 술상 보기가 힘들어도 자기가 참고 견디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영화스러운데, 그게 구찬다고 그게 참지 못해 갖고, 그래갖고 홀랑 망하니까 뭐가 좋은게 있니.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 좋은 마음을 쓰고, 사람들에게 좋게 대해 조(줘)야 돼.

② 떠는 다리를 팔라 망하기 면한 집안

이일순(55, 여)/청덕리T 1앞

[청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상언, 서대정 조사(1996. 6. 1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도 앞의 이야기처럼 복을 소재로 한 이야기라 생각이 난 것 같다.

옛날에 참 스님이 어느 산을 넘고 재를 넘어서, 어느 한 고을을 들어 갔는데, 참 참 부자집이었어. 그래서 그 부자집을 찾았어. 해는 너울너울 저녁인데 지고, 어디 기거할 데가 없어가꼬, 인저 그 큰 집을 찾아갔어. 찾아 가서,

“주인장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안에서 어떤 진짜 종이 나와가꼬,

“왜 그러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 여기서 하룻밤 기거하고 갈 수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종이 인저 그 안에 들어가서 대감께서,

“대감님! 대감님! 저기 지나가는 스님이 하룻밤만 묵어가자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아. 묵어 가라.”

아 그래서 사랑방에, 옛날에는 안방, 건너방, 사랑방, 뒤편방, 뒤편방, 뒤편방 다 있었지. 그래서 백갈채를, 백갈채에다 그 어 그 스님을 채우고, 아들도 백갈채에다 채우고. 그래갖고 하룻밤을 자는데, 가만히 스님이 인자 자다가 보니까, 그 큰 아들이 계속 발을 떨고 자는 거야? 그래가꼬, 그 가만히 스님이 보니까 발을 계속 떨어.

그 발을 떠는 것을 보니까. 그 스님이 보니까, 그 집이가 밋 해 안 가서 망하겠어. 그 복이, 복이 달아나서. 그 다리를 하도 떨어서. 그래서 이 스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집은 인제 그 다리를 계속 그 아들이 떨다 보면, 이 집이 아주 뿌리도 안 남게 생기고, 그냥 가자니 집안이 흘랑 망해지고. 그러니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인자 그 스님이 참 생각타 못 해,

“내가 이 집에서 증말 이렇게 신세를 지고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이 집을 망가지면 안 된다.”

이러구서. 인자 자다가 일어나서 그 가만히 보니까 발을 꼭 떠는데, 그 복을 떨, 떨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스님이 인제 생각타 못 해, 인제 그 아들 다리를 툇 잘라 놓고서 그냥 가 버렸어. 가 버리고 그래서 세월이 얼마를, 몇 해를 인자 흘렸어.

그래갖고 ‘그 집은 어떻게 사냐?’ 그러고 인자 그 스님이 정말로, 참 또 그 집을 또 찾아가 본 거야. 그래갖고 참 찾아가 보니까 정말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잘 보전이 되어 있어서 잘하고 살어. 그래서,

“기세요 기세요. 인자 어 주인장 안 계십니까? 주인장 안 계십니까?” 인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깐. 인자 또 종이 역시 나와서,

“왜 그러시냐?”고.

“아, 이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 가자.”

고. 그러니까,

“그 저기 인자 대감한테 또 물어봐야 된다.”

고 그래서. 종이 또 인자 가서 대감한테 물어 보니까, 대감이 꺾꺾꺾 뛰는 거야.

“아 내가 좋은 일을 해갖고 우리 아들이 병신이 됐는데, 내가 어느 중을 재우냐고 안 재운다.”

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억지로 인자,

“하룻밤만 잔다.”

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자 또,

“들어 오라.”

고 그랬어. 그래 보니까 그 아들은 병신이 되고, 부자는 하나도 망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 스님이 한단 소리가 자면서,

“내가, 옛날에 한 몇 년, 7~8년 전에 내가 이 집에 왔다 갔오. 왔다 갔는데, 와서 같이 당신 아들이 허고 자다 보니까 당신 아들이 발을 어떻게 떠는데, 그 발을 떨어, 떨어 보면 이 삼 년 내에 당신이 하나도 재산이 남아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그 다리를 잘랐으니까, 당신네가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스님이 인자 그 대감한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대감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러시냐고. 난 그것도 몰랐다.”

고, 그러면서 후한 대접을 해 가꾸, 호의해서 잘 먹여서 그렇게서 보내서, 그 대감은 아들은 병신이 되었을망정, 그 집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여.

3 빌린 담배불을 버린 사람

이일순(55, 여)/청덕리T 1앞

[청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상언, 서대정 조사(1996. 6. 1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요즘 사람들의 예의가 없다고 질책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실화이다.

인저 어느, 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참 담배가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닷 어떤 사람이 꼬나 물고 피고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한다 소리가, 지나가다,

“아 담배 불 좀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배불을 주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배불을, 그 그 사람이 담배를 달라던 사람이 인자 담배불을 주니까, 그 담배불을 피고는 그, 그 준, 빌려준 사람 담배불을 갖다가 버리고 그냥 간 거야. 그런데 너무 그 사람이 황당하잖아. 도로,

“고맙다.”

고. 이렇게 도로, 도로 돌려줘야 하는 건데, 그 사람 담배불을 피고는 그 사람이 담배를 버리고 지(자기)만 피고 가는 거야. 가만히 뒤를 돌아서 그 보니까, 얼마나 그 남자가 피웁스러운지 싸가지가 너무 없는 거야. 사람이 진짜 담배불을 주었으면 그걸 도루 주면서 참,

“고마이 잘 폼다.”

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외려 그 사람 담배불을 탁 던지고서, 지 담배불만 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인저 그 사람이 피를 낸 거야.

“여보! 여보! 이리 와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야.

“나 담배불이 없으니까, 당신 담배불을 나한테 돌려 달라.”

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한테도 그 사람한테서 담배불을 빌렸으니까, 이 사람이 담배불을 도로 줘야 될 꺼 아니냐. 그래서 냅데 담배불을 자기도 이렇게 피고 나서 그 담배불을 딱 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이이가 황당해서, 그 이를 막 아래 위로 켜리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내 담배불을 빌려다 버렸으니까, 나도 당연히 버려야 되지 않느냐!”

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면 되지게 맞을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무 말없이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공을 모르면, 응 그 공의 댓가를 모르며는 자기

가 도루 그 죄를 받는 거여. 그러니께 사람은 공덕을 알아야 되고, 공을 알아야 되고, 자기 신세 진 사람을 알, 베풀 줄 알아야 그 미덕을 갖어야지. 자기 혼자 자기가 담배 붙었다고, 옆에 담배 핀 사람 것을 버리면, 그건 진짜 되지도 안는 거여.

그런게 죄 잘못이라 꿈적 못하고 잤다는 거야. 그러니께 사람은 그렇게 양보를 하고 살아야 돼.

4 쪽은 여자의 연한을 풀어준 연님

이일순(55, 여)/청덕리T 1앞

[청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상언, 서대정 조사(1996. 6. 16.)

앞의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계속하여 구술한 것이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아랑의 정조’와 같이 귀신 이야기 유형으로 끝부분이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다.

옛날에 참 부자로 잘 살으니까, 옛날에는 다 지금은 파출부라고 그러고, 지금 저기라 그러지. 여자는 파출부라고 그러고, 남자는 인자 그 집 저기, 일하는 일꾼이라고 그러지. 그 전에는 머슴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대감네서 참 잘 살으니까 머슴을 하나 뒀어. 머슴을 하나 뒀는데, 그 집이가 무남독녀 외딸이야. 아들도 읍고, 아들도 읍고 딸 하난데, 참 그 딸이 이쁘게 생겼어.

아 그 머슴이 진짜 너무너무 그 딸을 보고 미치고 환장하졌는 거야. 그러니 감히 자기네 대감의 딸인데 어떻게 넘 볼 수가 없는 거야. 아주 그 여자가 너무너무 이쁘고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그래서 이 머슴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바로 이렇게 문에 나가자면은 인제 바로 그 앞에 큰 대나무 밭이 충충하게 들어 섰어. 그래서 그 인제 그 종이 인제 한다 소리가,

“야! 우리 저기 참 좋은데 있으니까, 조기 잠깐 갈래.”

인제 그러고서니, 그 개를 데리고 꼬시고 갔어. 가가꾸서니 그 이냥 그 애를, 이냥 죽여버렸어. 죽여 버리고 난, 나갖고 그 머슴, 머슴이 겁이 나니께 그 애는 인제 대밭에다 버리고, 그 머슴은 인자 도망을 갔어. 정 처없이 도망을 갔어.

근데 그 딸은 세상에 암만 찾아 봐도 없는 거야. 행방 불명인 거야. 그러니 글썽 암만 수소문을 하고, 뭐 지금같이 좋은 세상에야 뭐 찾지. 그러니께 암만 수소문을 해도 그 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참 무남독녀 외딸이니깐, 그 엄마 아버지 그 식구가 얼마나 한이 되겠니.

그러니께 인제 대감도 그만 두고, 벼슬도 싫고 그 고을을 떠난 거야. 그 고을을 떠나갖고, 다시 그 고을에 오는 대감이 오는 족족 그 대감이 죽는 거야. 응. 그 여자가 죽고 나서. 인제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갖고 인제 그 소문이, 소문이 소문이 이렇게 퍼져갖고 인자 나라까지 갔는데, 인자 나라에 소문이 났으니까, 어느 아주 인제 사또가, 참 사또가,

“내가 그 점, 그 고을을 지키겠다.”

고 인자 그러고 아주 왔어. 아주 대담한 인제 사또가. 그래가꼬 인제 딱 열두 시가 되면, 인제 그 사또가 하나씩 죽어 나가는 거야, 부임 하면은. 그래서 그 이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인제 열두 시가 딱 되는데, 이냥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냥, 회오리 바람이 싹 꺼지더니. 이냥 촛불이 딱 꺼지더래. 아 그래서 이이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만이 있으니까, 하얀 소복한 여자가 오더니 딱 들어오더래. 그래서,

“너는 누구냐? 뭐가 소원이길래, 이렇게 오는, 고을에 오는 저기 사또 마다 다 이렇게 죽어 나가느냐?”

그러니까.

“예! 나는 그게 아니라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전이 여기서 살던 대감의 무남독녀 외딸인데, 그 머슴이 나를 신세를 조져 놓고, 나를 죽이고 이렇게 도망을 가서 내가 그게 한이 되어, 그 한풀이를 할라고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거라.”

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그 한을 풀어주면 너 괜찮겠느냐?”

고 그러니까.

“아 괜찮다.”

고 그러더라. 그래서 인자 그 이는 인자 그러고 갔대.

“그럼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가 한을 풀어 주마.”

인자 이려고서니, 그 사람이 증말 인자 날이 밝기를 기다려갔고, 날이 밝아갔고 인자 신하들을 다 불러갔구서,

“야! 저 대밭에 그 시신이 있으니께, 그 대나무를 전부 다 잘라갔고 그 시신을 찾아서 좋은, 물 좋고 산 좋고 아주 경치 좋고 좋은 디다가 물어 주라.”

고 인자 그랬대. 그랬더니 인제 시신이 맏(땃), 맏, 맏 십 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인자 뼈대기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추려다가 좋은, 아주 명당자리에다 묻어줬구 잘 위했더니, 그 고을이 번성해 갖고 대대손손 자식들 그렇게 잘 되고, 자식마다 벼슬을 했다는 거야.

5 달래나 보기

이일순(55, 여)/청덕리T 1앞

[청덕리 자택] 박종수, 감현모, 한상언, 서대정 조사 (1996. 6. 1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이 없으셨다. 그래서 조사자가 음담패설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달래나 바위 전설을 간략하게 말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저 인저, 남매 인저 그러니까 이런 산꼴짜기야. 이런 산꼴짜기인데, 지금은 차도 있고 택시도 있고 뭐든지 있지. 그런데 인자 옛날만 해도 십 리, 이십 리를 걸어 가야만 심부름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인저 그 저기 저런 이렇게 두메 산꼴 남매를 인저, 남매를 심부름을 보냈던 거야. 인저 오빠하고 언니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심부름을 이렇게 보냈는데, 막 한 여름이었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여름이니까 비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오빠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어느 산꼴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소낙비가 막 쏟아지더라. 그래서 인자 소낙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누나의 입은 이 옷이, 다 이 야(나)체가, 이 몸 육체가 다 인제 비에 젖어가지고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생이 어떻게, 저기 참 그 동생이라네! 오빠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막 동생을 근데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 오빠! 달래 보지. 달래 보지.”

그러면서. 막 자기가 하소연 했다. 그 오빠를 그것을 응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못 살게 굴어가고, 그 강에서 둘이서 빠져가고, 그 강 이름이 달래,

“달래 보지. 달래 보지.”

했다는 거야. 그런 전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이것은 진짜 남녀간은 참 저기한 거야.

6] **독음하기 때문에 잡아먹어야 할 짐승**

이일순(55, 여)/청덕리T 1앞

[청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상언, 서대정 조사(1996. 6. 1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귀신이나 도깨비에 대해 묻자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이

것은 동물들을 오래 두면 도습(번신)하기 때문에 잡아먹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가 바쁘다고 하여 더 이상 채록할 수가 없었다.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개하고 닭 없는 데는 없다. 개하고 닭 없는 데가. 그러니까 개나. 닭은 잡아먹게 마련을 맨드어 놓은게, 닭이나 개는 오래 되면은 도습을 하는 거래.

그러게 왜 도습을 하니냐. 그래갖구서니, 그래서 이 개도 오래 놔두지 않고, 한 오륙 년 있다가 잡아 먹고. 닭도 한 이 년 일 년이면 잡아먹는 이유가.

아 옛날에 이냥 참 농사를 다들, 옛날이는 많이 짓고, 인자 가을에 타작하고. 그 이렇게 떨어진 벼 이삭을 또 이렇게, 웁 이렇게 두었다가 인자 또, 먹고 살기 힘들 때 인자 털어서 먹는 게 있어.

그랬는데 닭이 이냥 없더라. 닭이 암만 찾아도 큰 장닭인데 아주 읊드래. 그래서 그 주인은 의심을 낸 거야, 동네 사람을, ‘누구 갖다가 잡아 먹었다.’

옛날에는 그까지 짓, 닭 하나 잡아 먹어도 고소하고 뭐 이냥 씹하고 그러는 것 없는 거야. 다 그래서 옛날 인심이 좋은 거고, 지금은 살기가 너무 야박하다는 거야. 궁께 ‘누가 잡아 먹었나 보다’ 그러고 그냥 말았다.

그래가꼬 인저 그 해 봄이 됐는데, 그 인저 노적가리를 이렇게 인저 양식을 털어서, 인저 벼를 해서, 인저 쌀을 쪄라고 노적가리를 이렇게 이렇게 젖어서 인저 그걸 활려고 보니까, 아 꼬리는 배암이 되고, 웁 그 웃두리는 닭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닭이 오래 돼갖고 도습을 해서, 이 꼬리에서부터 배암이 도습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장닭이 죽은 줄 알았더니, 이 중간에는 배암이 딱, 이 꼬리서부터는 배암이 되고, 위에 닭하고 배암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나 닭이나 모든 짐승은 잡아먹게 마련을 왜 그렇게 해 놔

냐면, 그렇게 오래 되면 닭, 닭도 개도 모든 짐승도 도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잡아 먹기 마련이야.

7 부모의 자식 걱정

이옥선(61, 여)/청덕리T 1앞

[청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상언, 서대정 조사(1996. 6. 16.)

앞의 제보자에게 조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집안에 쉬고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하고 들어가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한다며 일화로 들어 설명한 것을 채록한 것이다.

아 그전에 옛날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아들 셋을 낳고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아버지 저기 뭐냐 그게.

아들이 셋인데, 하나는 소금 장사를 하고, 하나는 짚세기 장사를 하고,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는데,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비가 오면은 아 저기 짚세기 장사하고 소금 장사하고, 소금이 녹아서 못 쓰고.(웃음) 아 몰라요. 옛날에 노인네들이 조금 해 주는 거 들은 소린데, 그것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뭐 또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 아들이 우산을 못 팔아 밥을 못 먹고.

그래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부모는 그래서 걱정이래, 그렇게 평생 두고. 근데 나막신 장사는 또 비가 오면 못 신잖아, 가물어야 신지. 그래서 나막신 장사를 해도 그렇고. 아휴. 그렇게 옛날에는 왜 그렇게 살았나. 재 지금도 보며는 마찬가지로겠지, 그냥 자식 걱정 하는 거는.

8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이옥선(61, 여)/청덕리T 1앞

[청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한상언, 서대정 조사(1996.6.1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자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있고, 뿔 고개가 무척 길고 무섭고 험했다. 그래서 그 고개를 할머니가 떡을 팔고 가야 되는데 이 호랑이가, 떡을 팔다 가야 하는데 호랑이가,

“할머 어멈! 할멈 어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웃음)

그랬대. 그래가지고는 하나를 주고 나면, 한 고개 넘으면 또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또 주고, 낭중에는 다 주다주다 보니까는, 고개를 넘을 적마다 떡을 주다 보니까는, 낭중에는 사람까지 먹어 치러 들이드래.

그래서 어떻게 집으로 갔는지. 갔테냐 뭘 어쨌테냐. 이게 우리 형석(아들 이름)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여.

9 청덕리의 유래

이정희(79, 남)/청덕리T 2앞

[청덕 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주현정, 김소희 조사(1997. 6. 2.)

조사자들은 청덕 2리 도착하여 이곳저곳을 헤매었지만 제보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맨 처음 만난 73세의 박씨 할아버지는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서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 뒤에 마을 사람들의 소개로 제보자를 댁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청하자, 이곳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여 주었다.

여기 마을이, 마을은 오래된 마을이지. 옛날 때부터 오래된 마을. 청

덕리란 데는 옛날에 이 동네 이름이 높부레골(?) [조사자 : 네?] 높부레골. [조사자 : 높은 개울] 응. 높은 부레골이라고, 여기가.

[조사자 : 청덕 2리라는 그 마을이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할 만한 것 읍어요?] 청덕 2리? [조사자 :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 청덕리란 데가 으쨌 청덕리라면 물이, 물이 맑다고 해서, 여기가 저기 질이 일루두 안나고, 여기가 인자 막다른 디거든, 아주. [조사자 : 더 이상 읍어요?] 그렇지. [조사자 : 이 위로 마을이 읍어요?] 응 읍어.

여기가 아주 막바지여, 여기가. 그냥 그래서 여기가 물이 맑다고 해서 청덕리라고 했던 디야. 물이 맑고 저기 물이 좋아서.

10 덕수동의 유래

이정희(79, 남)/청덕리T 2앞

[청덕 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주현정, 김소희 조사(1997. 6. 2.)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실적인 일화 1편과 마을에 관련된 것을 들던 중에 채록하게 된 것이다.

덕수동인데, 위에 그 절이 있었대. [조사자 : 절이요?] 응. 절이 옛날에, 그 저 경찰대학 그 사격장 있어. 거기에 무슨 절이 있었대.

거기 그 절에 아주 아파 불공이 많이 들어왔던 문양이지. 그 장마 때면 떡이 그냥 굴러서 내 내려오고. 떡을 못 다 먹어서, 그 동네로 내려보내줘서, 거기가 그래 저가 덕수라고 하는데, 떡수동이여.

옛날이는 떡수동였다가 덕수동이라고 됐다고 그런 소리가 있어. 저 아래 마을에. [조사자 : 진짜 밤마다 떡 했다.](웃음) [조사자2 : 그때 고사 지내고 남은 떡.] 절에. 절에 이리 많이 주어서 떡이 많이 들어와서 떡을 처치를 못해서 말이야. 장마 때면 그냥 떡까지 막 떠내려 오고 그랬다는 거.

장마 때면 떡을 그 비가 많이 오면 절에 있는 물건이 떠내려오곤 했지. 절에는 제사 비슷한 걸 많이 하잖아. 그래서 떡이 많았어. 장마 때면 떡이 떠내려 와서, 우린 그 절을 떡집이라고 불렀지. 떡집. 떡집, 떡집하다가 그 동네가 덕수동이 되었잖아.

11 빈대 때문에 망한 절

이정희(79, 남)/청덕리T 2앞

[청덕 2리 제보자역] 박종수, 강현모, 주현정, 김소희 조사(1997. 6. 2.)

앞의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절에 관한 이야기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주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향교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거기 그 경찰대학교 그 사격장이 있는데, 거기. 예전에 그 절터가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여. [조사자 : 절터만 있고 절은 읍고요?] 응. 절은 읍고 절터가 있는대.

그 저기 이 무슨 무슨 이 빈대란 것 있잖아. 빈대가 하두 많아서 그 절이 부서졌데, 그 절이. [조사자 :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증말인 것처럼.(웃음)] 그런데 그 빈, 빈대 때문에 그 절을 저기 폐허했다는 거여.

4. 동백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희연, 박범진, 박홍희, 전병식,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6. 6. 4.-8., 1997. 6. 2.)

동백리는 언남리에서 남동쪽으로, 청덕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도 동쪽과 서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동쪽과 서북쪽이 트여 있는 분지형 마을이다. 마을의 북쪽에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동쪽 끝에 동백저수지와 할미성이 있고, 마성인터체인지를 통하여 에버랜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동백리는 용인군 동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동막과 백현의 이름을 따서 동백리라고 하고 읍삼면에 편입되었다.

동백에 속하는 자연마을로는 동막, 백현, 평촌, 어수물, 동진원이 있다. 동막은 어수물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원래 구읍내에서 동쪽에 막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백현은 동백리에서 포곡면 마성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잣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잣고개라고 하는데, 이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백현인데 그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촌은 벌말이라 하는데, 동막의 동남쪽에 넓은 들판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이다. 그리고 어수물은 어정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마신 우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동진원은 동막의 서쪽에 새로 생긴 특수한 마을이다.

이 동백리는 일반 농촌과는 달리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선 마을로, 집은 허름하게 보였지만 간혹 양옥집도 보였다. 이곳도 최근에 아파트단지 건설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있다. 이곳의 주민들은 논이나 밭에서 일하기보다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2) 설화

□ 구렁덩덩 신선비

전주 이씨(72, 여)/동백리T 1앞

[동백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희연, 박범진, 박홍희, 전병식 조사(1996. 6. 4.)

원래는 대정리라는 곳에서 사셨다는 할머니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 전주 이씨란 것만 알고, 연세는 72세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기억이 남달라서인지 그 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였다. 조사나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구렁덩덩 신선비나 한 번 할까? [조사자 : 좋지요. 그런 것.] 구렁덩덩 신선비. 그 다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그 아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

그런디 딸을 삼 형제, 딸, 딸을 삼 형제를 두었는데, 딸을 삼 형제(웃음), 그 하나는 저기, 한 집에는 구렁이를 낳고, 구렁이, 한 집이는 구렁이 낳아서 굴뚝에 갖다 놔는데, 그 구렁이가 그냥 점점 커서, 그냥 엄청 크요. 엄청 크는데, 그 딸 삼 형제 있는 집이서, 그 딸들을 다 시집을 보내야 할 텐데,

“너는 어디로 시집을 갈래?”

그러니까, 참,

“너는 누구 복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다 부모 복으로 산다고 그러드래.

“너는 누구 복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부모 복으로 산다.”

고 했는데, 그런디 막내 딸 하나가,

“나는 내 복으로 산다.”

고 그러더라. 막내 딸 하나가. 그래서, 그게 그냥 하도 알미워서, 막내 딸을 보고,

“저 앞에 구렁, 구렁이덩덩 신선비한테로 시집 가라.”

고. 그 색시에게 그랬거든. 그러게, 아 사람들을 다 이름을 몰러. 이름을 알아야 다 적어갈 수 있는데. 아 그런데 구렁이가 큰 미루나무 꼭대기에 가 서서, 꼭대기에 칭칭 감고 올라서서,

“아무개는 나하고 살거라.”

고. 소리를 지르거든, 구렁이가. 그런데 나는 그 구렁이덩덩 신선비한테로 시집을 갔거든. 아 그런데 그 큰 딸, 둘째 딸은 그렇게 저기해도 잘 살지를 못하고, 그 구렁이한테로 시집을 간 그 셋째 딸이 있는데, 그 구렁이 옷을, 허물을 아주 벗으니까 아주 그냥 시선비가 되더라. 그래서 그 색시가 그 선비하고 그렇게 잘 살았더라. 몇 마디 안 되야.

2 **저승갔다 와서 개심한 대왕**

곽영일(77, 남)/동백리T 2앞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희연, 박범진, 박흥희, 전병식 조사(1996. 6. 8.)

조사자들은 4일의 조사에서 성과가 없어서 재차 마을을 다시 찾았다. 마침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나와 앉아서 쉬고 있었다. 그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마침 심심하던 차에 조사자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제보자는 강원도 홍천이 고향으로 많은 연세와 지병으로 말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귀도 먹고 눈도 어둡고 하여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조사자들에게 항상 존대를 하는데 인상적이었다. 좀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사정 탓에 두 가지의 이야기로 만족해야 했다.

옛날에, 이 아마 우리 조선왕 적부터 내려온 문양인데. 그랬는데, 아주 그 왕이 어떻게, 앉아서 들으세요, 여기 여기 앉아서. 그 왕이 아주 어떻게 망하게 구는지, 아이 편히 앉어.(조사자에게) 어떻게 망하게 구는지 백성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시도 못 되게 지랄을 해서.

그래서 학자 한 분이 창호지를 한 권, 한 장 사다가 거기다가 아주 만

창 장서로다가 옥황상제님한테로다가,

“이 나라 왕이 이렇게 망케 하고, 백성이 살 수가 없으니, 한 한국 정치하는 사람마냥,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셔야 겠다.”

고.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선, 그걸 소제(소지)를 올렸어요. 그대 푹푹 말아가지고선 성냥불을 끄어대어가지고 소지를 올렸는데. 땅에서는 소제를 올렸는데, 옥황상제님은 그걸 온장(바른 한 장 : 여기서는 타기 전의 편지를 뜻함.)을 받았거든. 그래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 백, 왕이 하도 망할 짓을 하고, 백성이 아주 뭐 쪼그만 일이라도 잡아 채갖고, 아마 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만치 최악 되었던 몬양이여. 도대체 살 수가 없다.”

고. 그렇게 해가지고 옥황상제가 받아보니까두루, 그래서 그만 화가 나서, 열라대왕, 열라국에 열라대왕을 불러 가지고서,

“아 너희 나라 백성들이, 그 대왕이 그렇게 못되게 지랄을 해서 백성이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놈을 단박 잡아오지 왜 안 잡아 오느냐고. 당장 가서 잡아 오라.”

고. 옥황상제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잡아올 수 있어요. 뭐 사자들을 보내서, 와 가서 잡아 왔지. 그래 잡아오니까 그 왕이,

“아이 저는 아무 죄도 없는 그러는데, 왜 그러냐. 내 아무 죄가 없는데 뭐냐?”

고.

“너 나라의 왕으로써, 아무리 백성이 있고 왕이 있고. 또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서로의 왜 백성은 나라 왕을 다 위하고 왕은 백성을 아껴야 하는데, 국왕이 백성을 갖다가 도와주고 어디 하나라도 같이 하고, 그리고 배고픔 것도 좀 사랑해 주고 이래야지. 어디까지 그렇게 심하게 하니 어디 구천지옥이나 어디에다 가둔다.”

고 그러니까.

“아주 내가, 제발 다시 안 그럴테니 살려 달라구. 내놔 달라.”

구 그래도. 그래도,

“안 내놔 준다.”

는 거야.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왕이 죽었다’ 하니까, 옛날에 왕이 죽으면 뭐 어떻게 매장을 석 달이 되어 매장을 해는 거유. 그래가지구 그 장사는 삼 년이 되어 지내구. 그 대궐 안에다가 흙을 채려서 흙속에 묻어 놨다가 장사를 지낸다구. 그래 매장을 석 달만에 허니까, 그냥 죽은 것을 산 것처럼 해서 그냥 놔뒀어. 아 그 나라 백성들이 왕이 죽었던게 좋아서.

제가 이 거시기 이 8·15 보셨어요. (어떨결에 8·15 해방을 보았다는 병식형의 말에 할아버지는 형의 나이를 묻게 되고 TV에서 보았다고 얼버무렸다.) 8·15 해방 때 일본놈 밑에서 해 먹느라고 지랄을 하던 놈들 해방되니 뚜드려 맞고, 에 백성들이 그 왕 밑에서 해 먹던 놈들을 뚜드려 잡고, 저 뚜드려 패고. 뭐 일부난 소리지 뭐. 그때 이몽룡이 출두해가지고 변사또 그 뚜드려 패서 야단이 났었지. 아 그래서 뭐 와글 울고, 아주 백성들이 좋아서, 왕이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주. 그렇게 못 되게 지랄을 하더니. 그래 죽었는데, 이 왕이 자꾸 염라대왕더러 그래.

“내가 다시 안 그럴테니 살려 달라구. 이 내보내 달라.”

구 그러니까.

“그러면 내 보내는데, 너 득인심한 게 뭐야?”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너 이놈의 새끼! 너 득인심 아무 것도 읊어. 네 곳간을 가 보면 남한테 득인심한 것, 쫘토매 이 요만한 하나 백에 읊어.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너 아버지 시방 신도지옥에 백혀 있어. 그런데 아직 빛을 엄청나게 많이 졌다, 여기 와서. 빛을 많이 졌는데, 너 그 빛을 어떻게 갚을 꺼냐? 너 가리고 가야 된다.”

고 허니까.

“아니, 제가 뭐 돈이 있어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고장에, 거기 나룻배 뱃사공이 있는데”

자기 평생을 배 샀을, 배 통지 하나 안 받고 그냥 건네 놔 준거여. 아주 그냥 한 푼도 읊어. 농사꾼이구 장사꾼이고 무당, 행객이고 뭐이고 말할 것 없이. 그냥 다 건네놔 준거여. 그러니 그 득인심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인심인지. 자기는 굶어 죽, 죽을 판에 그것.

자기 부인은 애들이 한 뒷 되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가정에 다니면서 일 도와주고 얻어 먹고 ‘그 불쌍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밥을 한 그릇 주면, 자기 남편 갖다 주고 이렇게 살았거든. 그걸 들이 그렇게 해서 득인심 헨 그 뱃사공은 곳간을 가 보니까, 아주 말도 할 수 없이 곳간이 한 채가 한 뭐야 2km씩 나가게 지어 났는데, 그 따위 몇 채인데, 전곡 식량이 거기가 아주 짝 찼거든. 뭐 그 뱃사공은.

그런데 그 왕은 아무 것도 읊어. 짚 한 단뻘에 득인심을 안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이 뱃사공의 돈을 꾸 줄테여. 꾸 줄테니까 그 빚을 가리여.”

그래서 그 뱃사공은 돈을 꾸 줬어요. 꾸 줘서, 그래 직 아버지의 빚을 그 왕이 가리를 해갖고서 고만,

“가라.”

고 하니깐. 대낮으로 대궐로 찾아오나 살아났거든. 살아났다 하니,

“왕이 살았다.”

하니, 그만 백성들이야 그 밑에 해 쳐 먹던 놈의 새끼들 다 잡아챘는데. 그러니 죽었다 이거여. 죽었다고 인제 아 그냥 낙심천만해서 백성들이 애기한게, 그전 같으면 왕이 와서,

“내가 부러 먹던 부하들을 다 잡아챘으니들 죄 잡아들여야겠다.”

허는디 안 그러. 인자 백성들을 어디 참 노랑창에 해서 다칠까 봐 애를 쓰고, 어느 백성이 죽었는지 어느 백성이 다쳤는지 그것 보고 와가지고서, 아주 그냥 백성들을 뭐 얼마치 해치드라도, 그전 같으면 잡어챌 것인데 그냥 본척만척 해여. 그래 아주. 그러고서 백성을 굶을까 봐 애를 쓰고, 인제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 년년이 시화연풍이 들어와서, 아주 뭐 말도 할 수 없는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그만. 아주. 그 대왕이 그렇게 백성을 위로하니까. 아주 말도 할 수 없는 아주 참 부자 나라가 돼서, 그 나라가 부흥해야 백성들이 인제 잘 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왕이 살아나와가지고서, 그 뱃사공의 돈을 엄청나게 끌어다 써 났으

니, 저 아버지 빗 가리라고 써 났으니 어떻게 해여. 이것,

“그래 가 뱃사공을 갓고서 데리고 오느냐?”

그러니께,

“가지고 갓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께. 그래서 가서 뱃사공 허는 사람을, 그 뱃사공을 허는데, 하두 인자 그렇게 득인심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복채 주며, 돈이며 그 동네 사람들이 자꾸 뵈야 줘요. 그래가지고 안 받아요. 그저 간신히 먹고 지낼만 현디. 그래 나와 왕이 오라고 허니까 그이 가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남한테 적선을 많이 하고 득인심을 많이 했냐? 내가 이번에 죽어서 저승에 가니까, 저승이, 아버지는 나라의 대왕이 돼가지고 죽고, 우리 아버지는 정작 신도옥이 갖혀드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들이 잘 사실텐데 배사공님의 끈냥 창고가 얼마나 큰지, 창고 하나가 한 2Km 씩 되는게 한 여나무 개 되드라고 하면서, 거기 전곡 식량이 팍 차 있드라고. 그래 덕의 돈을 내가 췌서 우리 아버지 빗을 가리했다고. 그리고 내 그 신세를 갓기 위해서.”

아 그러며 뱃사공을 오도 가도 못하게 그 사람을 꼭 붙들여가지고선 벼슬을 아주 뉘 삼정승 육판서에다가 암행어사까정 해서 아주 벼슬을 기가 막히게 내려 뵈지. 아무 것도 모르는 그 뱃사공을, 글자 한 자 몰라요. 왜냐면 뱃사공이니까. 그렇게 벼슬을 아주 내렸거든. 좋은 집을 아주 저 쓰고 있는 대궐보다 더 좋게 집을 저가지고서는 그 가족을 서울다 이렇게 만사가 똥그러진 거지, 뱃사공 놈은.

그래 아주 그냥 한다는 기생들 악기 가지고 와서 날마두 풍악 올려 주고. 그런게 뱃사공이 그렇게 잘 살게 되었거든. 그렇게 남한테 득인심을 허면 만화를 허는 거여. 그래서 나라가 편안하게 되고. 뱃사공, 뱃사공도 잘 되고. 남한테 득인심을 많이 하니까 잘 되가지고 아주 큰 벼슬을 하고 있다.

그만 대왕이 죽었어요. 참 직장 있다 늦다없이 죽어. 마 왕이 죽우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대왕이 죽었어요.

“대왕! 아까운 대왕이 죽었다.”

고 뭐 야단 범석이지 뭐. 그래고 왕이 그 다음에는 잘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 후세에 그게. 옛날에는 먼저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그 대신 왕노릇을 허잖아요. 왜 또 왕노릇을 허는데, 그 아들이 또 그렇게 잘 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부흥해서 그렇게 잘 살드래요.

그래서 나라를, 나라는 언제나 대왕이 잘 해야 돼요. 대왕이 잘 해서 백성을 잘 생각해야지.

3 아버지를 속여 평양감사를 한 서손

곽영일(77, 남)/동백리T 2와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희연, 박범진, 박홍희, 전병식 조사(1996. 6. 8.)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친 후 음료수 한 잔을 드신 제보자는 천식 탓에 잠시 기침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낫두리와 아들 자랑을 하였다. 첫 번째의 좋은 이야기로 한껏 기대를 한 우리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주 잘 사구, 사람도 남한테 적선은 크게 못 해두 마음이래두, 마음이래두 착하게 허면, 마음으로 착하게 하면 그게 적선이야.

그전에, 이 옛날에는 서손을, 서손이라는 건 첩의 아들이 씨란 말이여. 그 첩을 얻어 아들을 뒀으면, 그 사람도 벼슬을 쥐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여. 안 쥐요. 그라고 제사를 지내도 서자에, 그 첩 마누라의 아들은 지하에 떨구서, 진실 자손들 뭐 그 사람들은 전부 구들 안에서 지사를 지내고, 첩의 아들은 마당에다 자리를 깔고서 거기서 지사, 절을 해요. 그러니 옛날이 상하 구분을 해가지고 아주 교약스럽잖아요. 그렇게 서손을 아주 팔세를 했어.

그런데 서자의 아들이 벼슬을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 당최(도대체) 우뜨게 할 수가 없, 뭐 격 아버지가 도대체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을. 격 아버지가 아주, 아주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하얀 백마를 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는데, 에이 한 번은 죄 아버지가 자꾸 앓어요. 앓을 적에 죄 아버지 그 백마를 훔쳐다가 먹을 갈아가지고선 아주 말등어리 전체를 아주 새까맣게 먹칠을 해 댔어요. 그래서 아주 치장을 잘 해서, 그래서 들판에다가 내다가 매 댔더니, 아이 죄 아버지가 앓다가 일어나 보니까, 말은 어느 도둑놈이 훔쳐가고 읊거든요.

“아이 이것 말을 잊어버렸다.”

고. 암만 찾으니 찾을 수가 있었요. 자기 말은 하얀 백말인데, 아 그 첩의 아들이,

“말을 찾아냈다.”

고. 해서 가 보니, 그것도 까만 말이지, 하얀 말은 아니여. 가 보니 말이 그렇게 좋은게 치장을 잘 해 댔거든.

“야! 너 그 말 어떻게 어떻게 샀니?”

그러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바늘로, 참 뛰어난 것 같아서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 너, 나한테 팔아라.”

하니까 아들이,

“아이구 상관 없습니다. 아버지 나 서손이라 벼슬도 하나 안 주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파느냐? 안 판다.”고.

“아이 내가 너 평양감사를 시켜 줄테니까 그래도 안 되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하시오?”

찾을라고 자꾸 그러고 그런게. 그래서 인자 그렇게 했는디. 그래서 말을 끌어 갔어요. 죄 아버지. 아이 아주 그 날로 당통 평양감사 파직시키고선, 그 다음에 감사가 사또거든요. 시방은 뭐 각 도 도지사지만. 그래 평양감사로 보냈어요.

보냈는디, 이 사람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뒤처러할 일이 큰일이거든요. 야단법석이 날 것, 인자 말을 어느 정도 있으며는 파발이 날 것이고, 거기 가서 감사를 지내서 그 영문거리에다가,

“우리가, 우리 형들이 삼 형제인데, 맨 맏형이 출도를 해가지고선 와서

날 잡으려고선, 석였다고 아버지를 석였다고 날 잡으러 올거라고. 그러니까 그 형은 세상에 뭘 좋아하느냐면, 아주 여자를 아주 이쁜 여자를 아주 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여자를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서, 그 대동강 오영문거리에다가 거기다 놔두고선, 내가 그러면 인제 우리 형이 오게 되면 처리가 될꺼라.”

그래서. 아니나 달라요. 이 말을 가지고 가서 그 산에다 매어 놓았는데, 제기 난데없는 소낙비가 퍼부어서, 아 그래서 하인덜더라,

“여기다 말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종들보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어 끌어왔는데, 아 말 등어리가 희끗희끗 해요. 비를 맞아서 그 딱칠한 게 벗어 저서. 그래서 그 놈을, 그 종들더러 이자,

“그 말 등어리를 물 퍼다 쥘 봐라.”

허니까. 물을 퍼다 쥘니까 하이얀 백마 자기 말이여. 그러니까,

“하 이놈의 새끼! 안 되겠다. 쫓아가지고서 평양감사를 보냈다.”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선,

“이놈의 새끼! 가서 아주 부정하다고 데려 오라.”

고. 그래 읍자리에서 감히 이렇게 출동해서 가는데, 그 사람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영문거리에다가 그, 아이 저 평안남도 그 거기 여자들이 연간 이뻐요. 그 직접 나가 보더라도 이쁘더라구.

아주 이쁜 여자를 하나 거가다가 나가서, 그 좋은 늦대야에다가 빨래를 담어가지고 가, 대동강가에 가서 빨래를 허잔니까, 아니나 달라요. 서울서 아주 큰 재상가의 아들이 말을 타고서 덜렁덜렁 오거든. 오더니 그 여자가 강가에 앉아서 빨래를 허니까, 그게 하두 이쁘니까, 그냥 그 강가에 내려 앉아가지고서,

“미안하지만 아주머니! 나 냉수 좀 한 그릇 주시요?”

그러니까.

“그러십시오.”

그러더니. 이 뭐 대접을 하나 가져 나왔더라고요, 이냥. 가져 나오더니, 다리를 쓱쓱 걷드니 강에 들어가서 물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러더니만, 그

한 복판의 물을 이렇게 막 뜨더니 강가에 와서, 버들잎을 한 움큼 떠서 거기다가 띄워 주거든. 그래서,

“이 버들잎은 왜 이렇게 띄워 주느냐?”

그러니까,

“요새 날이 덥고 이런데, 그냥 냉수 잡수시면 더위 잡수신다고. 그래서 이것 ‘홀홀’ 붙어 뱀버리고 잡수시면 더위도 안 잡수시고, 그 물 맛이 그렇게 좋다.”

고. 그런데, 아 그 말하는 것을 봐두 그렇고, 당체 그 여자한테 홀딱 반했거든. 그래 그걸 먹고서,

“그래 댁은 어디 사시오?”

“아이 뭐 사는게 아주 의부자식할 것 읍이 아주 형편이 읍다고. 남자가 아주 남봉쟁이로 댕기고, 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읍다.”

고 그러니깐. ‘남자허고 삼시다’ 그 말이여. 그래 당연히,

“여기서 나허고 살어 봅시다.”

그러니기는, 그 여자가 아주, 아주 그 멋 있고, 또 감사가 아주 감사허고 짚었요, 그렇게. 아이 그 하이 여자 뭐 뭐든지 허는 걸 보니까 아주 수수 반하겠거든. 그래서,

“나허고 살자.”

고 허니까.

“아이, 손님 계시라.”

고 그러니까. 빨래고 뭐고 그냥 휘휘 담어가지고선 남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주 음식을, 맛나는 음식을 해서 먹이고, 뭐 그냥 그 남자한테 헐렁헐렁 허니 뭐, 아이 그 남자가 아주 그냥 홀랑 반했지.

아 반했는데, 밤에 잘라고선, 그 두 내외가 다 색시 마누라를 얻었으니까, 아주 아래 위를 홀딱 벗고서 끌어 앉고서 두러누워 자자니까, 아이 웬놈이 한(밖앗)데서 소리를 지른다 말이여. :

“아이 문 베끼라(열라).”

고 소리를 질르니까,

“아이, 저 우리 사내가 왔다고. 큰일 났다고 말이여. 야단 쳐야 보냈다

고. 아주 그냥 뭐 만나면 나 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니 가능한 큰일 났다.”

고 말이여.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고. 그 옛날에 다 꿰착이 있어요. 저 이장 그릇, 옷 넣고 그라는 것. 그 문을 번쩍 열더니,

“여기 들어가 있으라.”

고. 흘랑 빨가 벗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있어. 그래 불을 썬서 있으니, 아이 이 사내 녀석이, 그래 사내도 아니래요. 그냥 두렁 씨운 거래요. 문을 활짝 제기 차고 났으니까 문을 젓히면서,

“아이구! 너 어떤 놈을 데리고 자다가, 이런 이 따위 행위를 하느냐?”

고 면서, 그러니까.

“아이 나는, 별다른 것도 없고, 아이 보다시피 보라고. 나 혼자 잤다.”

고. 그래서 여자가 한다 말이,

“나 인제 당신허고 안 살아. 안 살을테니까, 우리 살림살이 있는 것 우리 여기서 반씩 갈르자.”

그래 전부 인제 앉아서 반씩 갈르네요. 그래 갈르는데,

“저 농작을 어떻게 할라느냐?”

그러니까.

“저 내 친정에서 해갖고 온 것 아십니까?”

“친정에서 가져 왔어도 그 너 혼자 권리 없으니까 노뵈야 된다.”

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논느냐?”

허니깐,

“그러면 그걸 지구서 뭐 야, 평양감사한테 가서 재판을 해 보자.”

이랬어. 그래서 그 사내가 그 놈을 해 질머지면서, 농작을 걸머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왔은 걸 걸머지고선 감사한테 가서, 평양감사한테 가서 재판을 한다구. 재판을 하니까 평양감사가 뭐라고 허는고 허니,

“그러지 말고, 거기다 톱을, 대톱을 걸어서 반을 내리 쪼개서 하나이 반

씩 가져라.”

이랬어. 그래서 재기 대뜸을 갖다 주고서, 뭐 어느 영이라고 안, 안 할 수 있어요. 평양감사가 시키는데. 대뜸을 듣고서 이리 쏘으니, 이이 조금 있으니 툭날이, 아이 툭날이 거길 내 닫는다 말이며, 사람한테.

“아이구 사람 죽는다구. 사람 살리라.”

구. 그러면서. 북까치니까, 하필 확 열린다 나온께, 그 감사에 전실에 큰 아들이, 그 만성(만형)이 왔단 말이며.

“아이 형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우?”

그런 걸.

“아이 보나마나 저 여자를 같이 살자구 허고 그랬더니, 그 집에서 들어가 옷을 내가 이렇게 벗었더니, 이이 본서방이 왔다고 여기 들어가라고 해서 그랬다.”

고. 그러니 옷을 입혀가지고서는 그만 말을 태워가지고서, 거기 있으면 그 놈이, 그 남자가 죽이거든. 그러니까 아 그만 내뺐더니, 아이 평양감사가 그전에 제일 무서운게. 그래 그 놈이 재판하는 놈도, 평양감사가 그래 놓으니 그만,

“야중에 뭐 해도 그냥 쓰졌다!”

허고 말고. 찢거든요, 그렇게.(웃음)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그만 집을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래 그랬다.”

고 허니까.

“너 인제는 가야 또 안 되겠다. 둘째 놈을 또 보내야겠다.”

고. 그래 둘째 아들 놈을 또 보냈는데, 그 놈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말을 좋아하는데, 그래 인제 그 평양감사가 또 고기 집사관들 보고,

“그 사람은 아주 말을 그렇게 좋아 한다고. 그러니깐 말을, 그 좋은 말을 갖다가 요기 영문거리에다 매 놓고서, 아주 안장을 해고 이려고, 그 구

레도 아주 튼튼하게 해서, 거기서 준비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그 말을 보고 탐을 낼 거라.”

고. 그러구서 말을 갖다 놔. 이래 짜구서매. 아니나 달려요. 뭐 또 출도를 해가지고 또 오니까, 말을 거기서 그렇게 건사를 해가지고서 있었지.

“아, 그럼 말 좋다. 좀 타 보자.”

고 허니까.

“에이, 그 선생은 못 탈게요.”

그러니까.

“아이, 그 좀 타 보자.”

고. 그랬는디, 그래 인제 탈, 탈라고 그러는데 말이, 그 앞이 어미 말이에요. 이런 디가. 말 망아지가 있는데, 이 말 망아지를 호랭이 가죽을 씌워서 인제, 씌워서 따르 갖다 놓았은게, 이놈이 어미 젓 좀 먹고 싶어서 반짝 애를 쓰는 그냥 무렵인데, 그 사람더러,

“타라.”

고 허고서, 이런 타고선 그냥 태질을 허고서 서울로다가 치달릴 예정으로 그러고 있던 말이여. 이놈이 타고서 태질을 허면서 가니까, 아 뒤에서 여산대호가 딱 뜬다 말이여. 그 사람이 말새끼를 호랭이 가죽을 씌워 호랭이를 만들었으니, 아 그러다 보니 호랭이를, 대꾸 쫓아오지.

아 그래서 죽어라고 뛰드려 몰아서 집으로 왔어. 마방에다, 마방에다 들어 매니까 그래도 와, 어미 젓을 쭈쭈 먹어. 그래서 웬 일인가 가서 보니까, 호랭이 가죽을 씌워 놔오니 거기 쫓아와서 그러니, 석아 왔지. 그래서 직 아버지가,

“어 이번에 간 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됐다.”고.

“너 안 되겠다.”

그러고 셋째 아들 놈보고 가라고 그랬어. 그 놈은 아주 평생에 뭘 좋아하느냐면 신선, 신선 되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 평양감사가, 평양 모란봉이 있다고 그러지. 요즘 나오잖어. 모란봉 꼭대기에다가 아주 채알

을 쳐 놓고서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쁜 기생을 여섯을 인자 갖다 놓고, 남자 노인들 여섯을 인제, 그 옛날 그 도포를 입혀서 인제 갖다 놓고서, 거기서 뭐 풍장고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거든.

그런디 그 그 셋째 아들이 또 출도를 해가지고선 가니깐, 그 영문거리 에 가니깐 그 모란봉 꼭대기에서 아주 가진 풍악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 게 나거든. 그런게 그 영문거리 가 서 있으니까 노인 하나가 이만큼 대라 구, 괜히 장죽을 들고 서서 두런 대고 있네,

“아이 저 할아버지! 저 모란봉 꼭대기 저 뭘 하느냐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이 뭘, 뭘 소리를 듣고서 그러느냐?”

“아주 가진 풍악 소리가 난다.”

고 그러니깐.

“아 그것, 그 소리 들은 사람은 신선이 돼 갑니다. 그래 우리는 못 들어 요. 보통 여기 사람은 못 듣는다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신선이 돼 가 니까, 댁은 인제 신선이 될 수 있다고. 거 올라가 보라.”

구. 그 영문거리에다 말을 딱 매 놓고선 쫓아가니깐, 아니게 아니라 아주 이쁜 기생들이 여덟이 오더니, 아주 그냥 와서 영접을 해 주드라고. 그래 노인들 여덟이 앉아서 바둑을 두다가,

“야, 서울 그 아무개 판서 아저씨가 올 줄 알았네. 그런데 자네 이젠 신 선 됐네.”

그런다 말이여. 그 그러니 뭐 그 기생들이 소리를 허고, 춤을 추고. 아 그 래서 그 신선이 어디 있어요. 인제 아주 술을 독주를 해가지고선 그놈만 자꾸 퍼 먹이는 거여. 아주 술이 고주망태가 됐을 적에, 인자 천도 복상을 두 개를 해가지고서, 천도 복상 두 개는 어떻게 했냐며는, 인제 속에다 말 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선 곁에다가 아주 천도복상처럼 이렇게 해서, 그 래서 두 개를 그 사람을 주면서,

“집이 가면 그래도 신선이 되었다는, 그래도 뭘 표시가 있어야 된다.”

고 그러니까.

“이것 먹지 말고 집이 가거든 아버지 어머니를 드리라고. 그러고 갖고

같.”

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 아주 곤산해 있는데, 술이 고주망태가 됐을 적에, 그 좋은 이복 다 흘랑 바뀌어 놓고, 아주 걸거지 께신 이복을 입히고 채알도 그 좋은 것 찻던 것 다 걸어가 치워버리고, 다 섞은 채알, 채알 막 대기도 다 섞어 다 어지럽게 허고. 그러고는 거기서 놀던 기생들, 선녀 그 선녀들이라고 그러는데, 다 같이 내려오고.

술이 취해서 얼마만치 자다가 깨어나니까, 채알도 다 섞어 없어지고, 저 입었던 의복도 다 섞어서 그런데, ‘아이구 천도 복상은 있나!’ 허고서 보니까 천도 복상은 있거든요.

“아이구 큰일 났구나! 이것 천도 이것 백에 읊구나!”(웃음)

그 가다가 고 영문거리에 오니까, 그 말을 갖다가 치워버리고선, 말 죽은 말뻘다구만 수북허게 말 앞드려 죽은 것마냥 해 놓고, 그러고서 노인 하나 두런두런 허고 또 셋거든.

“할아버지! 말씀 좀 물으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요.”

“여기 서울 삼정승 육판서 그 막내 자제 분이 여기 와서 평양감사를 있었는데, 서손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그 어느만 때 와서 했었느냐?”

고. 그러니까 그 노인 나이 한 팔십 됐다는데,

“글쎄,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양반 와서, 와서 평양감사를 있는 데가 우리 아마 한 10대조 할아버지 적에 와 있었을 것이요. 그때 와서 평양감사를 하셨을 거라고. 나는 잘 모르겠다.”

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아 말을 저기다 때 놓았더니 저랬다.” 고.

“그 말이 다 죽어 없어져서 저렇게 다 번졌다.”고.

“그래요.”

이래요 하니께, 하지만 걸거지가 돼서 말도 읊고 뭐 그래서 그냥 사뭇 걸거지가 돼서 서울을 걸어 올라왔는데, 걸어올라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걸거지가 들어오니까,

“에라 이놈의 새끼!”
 허면서 몽땡이로다가 치니깐,
 “아이, 아버지! 뭐여 나는 신선이 됐던 거래요.”
 그러니까,
 “그 신선이 됐으면 무슨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천도 복상 두 개를 준다 말이요.
 “하나는 아버지 잡수고, 하나는 어머니가 잡수라.”
 고. 그래 천도 복상 두 개를 끄내가지고선, 하나에 하나씩 주니깐, 먹으니
 깡 제기 속에서 말뚱이 먹혀지드래요.
 “에라, 이 나쁜 새끼! 이젠 죽도 밥도 다 틀렸으니, 그 놈 평양감사 좀
 해 먹게 놔 뒤라. 헐 수 읍다.”
 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평양감사를 고냥 내내 해 먹었다고.

4] **혈이 끊겨진 할머니영**

박용철(72, 남)/동백리T 3왕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조사자들이 동백리에 도착하여 노인정을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 두 분이 답소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용건을 말씀을 드리자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도 성 쌓은 게 있어, 지금도 현장에 있어.(웃음) [조사자 : 조그만 자세하게 해 주세요?] 요기 높은 봉우리, 요 밤날 사이로, 응 그 바로 고 넘어가 자연 농원이야.

그 할미성이 그 저 왜정 때, 일본놈이 여기 쳐들어 왔을 때, 한국 사람 장사(장군) 못 나게, 여장군도 못 나게 거기 말뚱 꽂았다는 것도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됐어. 저기 잉. 이쪽에 와 봐. 현재 있어, 거기 가면. 여기 가운데 방향이잖아 여기. 요기 그 이쪽 저쪽에 고기, 고기다 고기다

‘장군 나온다’고 해서 일본 새끼들이 거기다 말뚝, 쇠말뚝 박았다. 얼마나 깊게 박은건지를 몰리지. 잉 그 생혈을 끊는데.

서울 하계장군들 산이 떠내려 왔대 이게. 뭐. 무슨 인신년 장마에. 그렇다니까 알지 몰러, 말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니니까. 인신년 장마를. 여기서 배가 있잖아. 여기 서울로 한강을 갔대. 여기 다리 놓은데끼. 그런데 이 산이 떠내려 왔디여. 임신년 장마가 얼마나 큰건지 몰러. 그렇다고 해왔잖아. 천상 그것 밖에 읊어.

말뚝 하나 박고, 여기서 저기 큰 못 있지. 고개 넘어 같은 것 일본놈이 장사 못 낳게, 장사 모르지. 장군 그래, [조사자 : 장군요?] 남한에 장군 못 낳게 끊는 거야. 산맥. 거기인데 그계. [조사자 :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응. 그래 몇 번 저기 하는데, 그렇게 되고 [조사자 : 아직도 안 뽑았어요?] 몰러. 산맥을 그렇다고 하지. 하고 하야튼 전설상에 그래.

저기 이 아래는 하야케 숨이 자거나, 고기 돌로 쌓여 있어. 저쪽에는 할머니성 요기 요 쌓여 있고. 그러나 말썸이지만 할머니가 치마로다 쌓다 이거야.

5 어수물

박용철(72, 남)/동백리T 3와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에서 노래부르기를 마치고 이곳의 지명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우리 애들도 대학교 다닌다고 하면서 숙제라니깐 해 준다고 했다. 그리고 옛날엔 가수 시험도 봤는데 합격했는지 결과도 보지 않고 재대하였다고 하였다. 옆 할아버지는 상쇠 출신이라 한다.

지금으로부터, 그것도 녹음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어수물이란 물이 있었어요. 우수강 이 여기 있는 어수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저기 녹음되는 거라고.

다 이 아람들이 이 상나무가 세 갠가 네 갠가 있어, 있었어. [청중 : 셋 개. 세 개.] 세 개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 그전에 지나가던, 저 뭐여, 저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정자도 좋고, 정자도 좋구 또 경치도 좋구 자리도 좋고, 응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앉으셔가지고 그 잡수보니가는, 과연 물이 좋아서 우물, 저기 잡수신 물이 좋아가지고 ‘임금님이 잡수었다’ 말해가지고, 잡수었다 해서 그냥 여기 전설이 어수물이란 거죠. 그냥 전설이. [조사자 : 어수물.] 어수물. 지금 요기 요 위에 있어.

그런데 지금은 개발이 되가지고 이 상나무도 베서 없어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저기 저 노광을 놓고 우물을 개조를 한 거죠. 여기 하두 물이 좋아서 어수물이라고.

6 도깨비의 정체

박용철(72, 남)/동백리T 3앞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입담은 천상에서 우러나야 된다면, 천상 연분이라 신장에서 우러나야 할 수 있다며 잠시 멈추었다. 그러다가 도깨비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지나가다가, 어디 지나가다가,

“이 도깨비다. 도깨비다.”

그러는 것은, 이렇게 들은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은, 도깨비라는 것은 자기 몸이, 몸이 허약해서 이 눈 앞에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헛 것이 되고 그러는 거지. 자기 몸만 건강해고, 저기서 상대자 불이란 것하고 아비돼서 합이가 돼, 아비가 돼서 맞아가지고, 그 아비된 내가 지며는 도깨비한테 흘리는 거여, 그제.

그리고 상대자 아비에 의해서 내가 이긴다며는 무사무책이 되고, 내가

심장이 약하게 되며는 도깨비한테 홀리고 그런다는 거여. 내 몸이 약하면. 도깨비 되는 것이 어디 있는 다 미신여.

7 도깨비와 귀신의 정체

박용철(72, 남)/동백리T 3뒤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에서 민요를 부른 뒤에 또 다른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① 도깨비의 정체

[청중1 : 고목 그게이 빛이 비취요, 그제.] 빛이 비취가 뭐여? [청중2 : 그제 인제 구신이 비춘다는 이거지, 불빛이. 그것이 도깨비 불이라고 그러지. 도깨비불.] 그런게 아까 얘기헌 거지.

[청중 : 그런게 빗자루도 또 오래 쓴 거 인제 내버린 거 그런게.] 그런데서 불빛이 비춘데 인제 할머니들 밤에 길가다가 인제 눈이 어려가지고 그제 불빛이 비추면 그제 도깨비 불이라고 그래. 밤새도록 그 불을 쫓아 다닌데, 흘러가지고.

옛날에 용운 할머니가 그랬었다는 것 아니여. 천동리 갔다오다가. 그제 귀신 나와다고 허는 거여. 귀신나온 거여, 그제.

② 집안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유

[청중1 : 이것 밤나무 썩은 것 있잖어. 고목나무. 고게 나무가 파랑게 보여. 옛날 고목이. 인자 고게 인자 우리 집이 집택에서 빗쳐야겠다 그래, 그렇게 한 거야.]

그런게 이 양반 말씀 맞는 것이 뭐냐면요, 밤나무가 이 썩은 끝트리 이렇게 이게 있으면, 이것이 보통 째째한 데에 있으면 이게 비쳐요, 이게. 이게 비친다고 불빛이. 근데 그것을 뭐 도깨비다 뭐 그런다 허는 거여. [청중2 : 귀신 나오고(웃음) 했다는 거여.] 영 그래. 귀신이다 뭐 도깨비다 허는 거여. [청중2 : 원니 귀신은 읊어.]

그리고 원 저 마 나무란 것은, 나무라는 것은 이 집안에는 대추나무나 밤나무, 느티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것을 이 집안에 심지 않는다는 거여. 심지, 심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밤나무는 100년 되면 저기 저 도섭을 허고, 100년 되며는. [청중2 : 밤 밤나무?] 밤나무. 또 느티나무는 200년 되면 도섭을 허고. 또 저기 전나무, 또 저기 뭐야 저 전나무, 전나무는 80년 만 되면 도섭을 현다고 허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이 미신 믿고 이런 사람은 이 집안에다가 저기 감나무 이외에는, 감나무 이외는 다른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것이야. [청중2 : 대추나무도 그렇데.] 응. 대추나무도 도섭을 허고 그러니까.

8 개를 쪼고 대신 살은 사람

김용식(67, 남)/동백리T 3뒤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에서 민요를 부른 뒤에, 조사자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면서 부탁을 하자 꺼내신 이야기이다.

사람 잡아 먹고, 짐승 잡아먹고 그런다고 허는데, 이 사람을 함부러 헤치지 않는 거여, 호랑이라는 것은. 영웅이라는 거여, 호랑이는. 영웅.

그런게 개 이런 것, 것은 막 잡아먹지만 사람은, 만약에 여기가 송산인데, 여기가 송산인데 호랑이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 사람 나타날 사람 읊지. 다 잡아먹어서. 이 함부로 못 잡아먹는 거여, 호랑이는.

여기 모현 정몽헌(몽주) 저 산소 알아. [청중 : 어디?] 용인 저쪽이, 모현. [청중 : 모현 누구 산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전에, [청중 : 이것 끄고 들어요.] 그전에 쪽바리 있잖아, 쪽바리. 쪽바리에 장작 쪼개서 이 소 등어리다 양쪽 신고 위에 싣는 거여. 그 수원 시장에 갔다 파는 거여, 장작을.(쪽바리에 대한 설명 생략)

그렇게 신고 대니는 양반이 있었는데, 한날 어지개 수원 시장을, 인자 여기서 한 6km 되지. 시오리가.(잠시 중단) 그런데 이 그 양반도 나같이 술 좋아 했나 봐. 그냥 산소 옆에서 주무셨대야. [청중 : 쪽바리 놔두고?] 응? [청중 : 쪽바리 놔두고?] 아니 쪽바리, 근게 그 나무해서 하는 양반이, 인자 일해서 그 천동리 고개 넘어서 있잖아. 서울 고개를 넘어가는데 혼자 주무셨대. 묘이 판데기서.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 또랭이(넷가) 가서 물을 갖다가 얼굴에 낀다며. 깨우라고 깨라고. [청중2 : 주무시지 말고 인자 가라고 그러나 보지 뭐.] 아니지. 호랑이가 살은 사람 먹지, 죽은 사람 안 먹는 대야. [청중 : 아하 죽은 사람 안 먹는다.] 예. 묘판에 누워 있으면 안 잡아 먹는다야. 죽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 그래서 인저, [청중 : 이것, 이것 녹음한 것 안 나오지요?] 그래 갖고,

“야, 너 배 고프냐?”

인자 이랬더니. 가죽 꼬랭이를, 호랑이 꼬랭이가 물만 대고 있으니 삭신(육신)이 얼마나 차가워, 그게. 그래서 저기 뭐여. 일어나 보니까 호랑이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집 가자.”

해서 갔다구만.(과거에 대한 대화 생략) 증조할아버지 집이 있잖아.

“너 배 고프냐?”

고. 데리고 왔대야. 그래 가니까 개가 킁킁 짓더라. 꿈에서 개를 몰고 갔더라. [청중2 : 개를 몰고 갔구만.] [청중 : 그개 함부로 저기 호랑이가 시하카시를 하지 않고.] [청중2 : 사람을 이제 해치지 않고 꺾을 몰어 갖데는 거지.]

9 강회를 신고 가다가 소를 죽인 사람

박용철(72, 남)/동백리T 3뒤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의 이야기를 이어서 곧바로 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또 그 말이 빠져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일 까야 아파. 여기 밤안골이라구 있어, 범안골이야. [청중 : 100년도 더 되었지. 넘은 것 같은데.] 인자 아까 얘기한 것은 30년 전 범안골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회를 켜는 데가 있어요. 그 강회라고. 강회라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강회는 이 물이, 물이 강해에 섞이며는 그냥 그 카바이트가 되어가지고 그냥 100도 200도까지 올라가요, 이 강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며는 강회를 섞어가지고 있지, 회다지 허면 강회가 되어. 지금부터 이 사람 얘기한 걸로다 쪽발이에다가 강회를 잔뜩 실었어요, 잔뜩. 그 양쪽에다가. [청중1 : 그 소에다가 실으면 죽어. 소 죽어. 그것.] 소에다 잔뜩 실었는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노새야. 어서 가자.”

술을 잔뜩 먹고 가다 보니, 어느덧 간 것이 20리 길을 가는데, 그때부턴 비가 쏟아지는 거야, 비가. 불 허니 이리 가도 비가 오고, 저리 가도 비가 오는데 비를 막을 장사가 읍고. 우산 갖고 가는 바람에 한참 가다 보니까 니 소가 팍 쓰러지더라 이거야, 소가. 그래 이놈의 주인이,

“아이구 왜 이리 지랄이랴!”

고 보니까 그만, 이 강회가 비가 왔기 때문에, [청중 :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어오지.] 비가 왔기 때문에. [청중 : 뜨거워지지.] 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00도 200도이면 조화 죽는 것 아니여. 그래 그랬다는 얘기는 전설의 얘기인데, 강회, 이 양반 마루, 말대루 윤이 안 닿으며는 그만큼 저기고. 윤이 다오며는 괜찮은데. 비가 오는 바람에 이 강회래가, 강회가 저기 물이 빼가지고 소가 죽었다는 이 전설이 있는데.

3) 민요

1 항부타령 (1)

김용식(67, 남)/동백리T 3앞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 제보자의 6·25와 관련된 실화담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알지 못 한다면 노래를 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숙제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부른다고 하였다.

얼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다.

하늘 같이도 높은 사랑

바다와 같이도 깊은 사랑

7년당 가문 날에

비발과 같이도 반긴 사랑

우리가 살면 몇 만 년 사시느냐.

우리가 살면도 얼씨구나~

몇 천 년 사시느냐.

2 논다지는 소리

김용식(67, 남)/동백리T 3앞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의 노래에 이어서 제보자 스스로 생각하여 불러주신 것이다.

이리~ 지거니여.

농사를 지면 천 년 만 년

논 천하에 대본
쌀 나무에 쌀이 열구,
금강에는 산상이 있구.
천 년 만 년 우리 시대
만수무강 하옵소서.

3 회심곡 (1)

박용철(72, 남)/동백리T 3와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의 노래에 이어서 불러 주신 것이다. 중간에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계속 이어서 불러 준 것이다.

일심무로 공덕 어머니전
여보시오~ 우리 인간
이내 말을 들어보소
아버님전 빼를 빌어
어머님전 살을 빌고
성단전에 녹음을 많아
부모님전 효성 대행에
상탕에는 녹음을 하고
중탕에는 배례하여
앞산 산청 유일이라.
우리 부모 살릴려고
강원도라 금강산에
인삼인들 허사로다.
부귀영화 무효지요,

세기 진천 성사일세.

옆의 김응식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다가 곧 이어서 계속하여 주었다.

아이고~
 이 세상에 나올 적에
 승인 공덕 공동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리
 밥은 먹을 공덕이요
 인삼~녹용 허사로다.

상사
 이 세상에 용로 붙은 에헤라 상사,
 신세상은 좁은 공덕 에헤라 강산.

4 항부타령 (2)

박용철(72, 남)/동백리T 3뒤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6·25때 일화를 구술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지 이 노래에 이어서 불러 주신 것이다.

몇 천 년 사시느냐
 우리가 놀며는 (얼마)
 얼시구나 몇 만 년 놀시느냐

이것 되시는 거지요.(청중 웃음)

천 길 만 길에 툇 떨어져라
당신 없으면
얼시구나 난 못 사리노다

니가 나한테 사랑을 하시다면
가시 발이 천 리라도
얼시구나 발 벗고 가노라

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 병들면 못 노나니
화무 십일홍이요
달도 차으면 기우나니

(잠시 잡담으로 중단)

갈 길이 바빠서
택시를 탔더니
되지 못한 운전수
얼키덩 회야가시만(회룡) 하노라

5 회심곡 (2)

박용철(72, 남)/동백리T 3뒤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의 노래를 마치고 옆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옆에서 못

한다고 말하자, 제보자는 현대판 유행가를 한 마디 부른 다음에 계속하여 불러 주신 것이다.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아버님전에 빼를 빌어
에허라 달궁

이 세상에 나온 인생
부모님 전에다 효도하야
에허라 달궁

일심 공덕을 잘 해서
부모 형제에게 의의 좋게
요것(웃음)

6 구 노래

김용식(67, 남)/동백리T 3취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쳐자 옆에 있던 제보자가 노래를 시작하여 주었다. 이 노래는 무경의 일종이라고 하겠다

(사설) 어느 대감이 내 대감이냐.

구름대감이냐. 터 대감이냐, 터쫓터 대감이냐, 시식 대감이냐.

그 눈에서, 낮이면 밤이 들고, 밤이면 스며 들어서,

아무튼 이 집의 만수무강 비나이다.

어머 처라.

그런 거야.(웃음)

내대감이 어느 대감.

실시 대감 구륵대감.

구륵대감이 터 대감.

터 대감이 어사 대감.

12대감에 전환해서 여디이구 저디여서, 여봐라! 여기 돈 좀 거라.

그러지. 그걸치다고(웃음) 잘 하지. [청중2 : 그거는 텔레비에 나오는 건데 뭐. 그런 건.] 그래 그게 바로 그게 굿노래여 그게. 아니 이런데 만신들 다 그래요 이런데 만신들도. 그리고 기를 뽑으라고 한다고, 기 이것. 이 기, 이 기를 뽑고서나 이저 한참 가다가 기 좀 뽑어.

뽑으면 인저 뭐 하이얀 기 좋다, 뭐 뽑으면, [청중2 : 빨강기.] 뭐. 빨간 기 뽑으면, 이자 뽑으면 또 돈을 봐야 돼. 거기다 이렇게. 그리고 파란 걸 만약에 뽑으면, 파란 걸 뽑으면 인저 거기서는 무당이 한 거리 허는 거야.

(사설) 너는 오는 달이 내년 달이나

삼사월이 물 조심하고 오찌고 저찌고

일월달에 어름 조심하고

어디가다가 길 조심하고

어디 가며는 쌍거풀이 있는데

쌍갈래 길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날테니 그때 조심해라

이런다고, 다 풀어서 허는 거라구, 그렇게. 오뉴월 무 무슨 조심하고 어찌 이런데, 그 사람 녀두리가 기에 맞게끔 만든 거라 방법이 옳다구. 그래서 다행이 빨간 것을 뽑으면 좋은데, 기가 12개인가, 12잔가 뭐 있는데, 어떻게 빨간건 줄 알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하얀기를 뽑으면,

너는 어딜 가나 구설수가 많구나.
 1년은 12달이요, 관운은 13달이라
 삼백은 육십 일에
 하루에도 귀신이 왔다갔다 하니
 가다가도 조심하거라.

이것 녹음되는 거지. 되는 거예요.(웃음)

7 장부타령 (3)

박용철(72, 남)/동백리T 3뒤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에서 이곳 마을에서 지내는 신신제에 대해 말씀을 한 뒤에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 하나
 강짜증은 내여 무엇하나
 청산리에 할 일도 많으니
 두리두릭 살아보자
 니나노 날리라 날리라 니나노
 열싸 좋아 열씨구나 좋다
 벌나비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우리가 살면 천 년 사나
 우리가 놀면 만 년 사나

8 회심곡 (3)

박용철(72, 남)/동백리T 3뒤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의 노래에 이어서 계속하여 준 것이다.

~ 딸을 낳으면 열녀로라
우리 부모 숭인 공덕에
부지지찬을 영계로다
세상유지 처자 아니
일신상사 천바지요
우리 아들 가르킬(칠) 제에
천 자 하며는 만 자 알고
만 자 알며는 육자로
상서를 올릴 적에
아버님 전에 공덕하고
어머님 전에 공덕하여서
부귀성사 하십소사
시시유는 무자유는
부지유자는 천금재라
하늘같이 내려다 보니
땅에 같이도 서서 보니
우리 부모 효자할 때에
젖은 자리는 내가 자고
말른 자리는 애기 재워
삼삭만에 피고 머고
육삭만에 육신 생겨
십삭만에 탄생하여

공덕으로 공덕전에
 부모님전에 자라소서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하늘같은 부모 얼씨구

[청중 : 아니 회심곡에다 저기 다 해 주지 그래.] 맨 먼저 회심곡 했어.
 아까 내가. [청중 : 언제.]

9 회심곡 (4)

박용철(72, 남)/동백리T 3뒤

[동백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장지현, 장은영 조사(1997. 6. 2.)

앞의 노래에 마치고 이곳의 노인회의 구성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을 한 뒤에 이 노래를
 이어서 불러 주었다.

~ 올 적에
 어느 대감은 믿고 살았느냐
 이런 사람은 믿고 살았으니
 내 가슴이 원통하고 원통하구나
 내 가슴이 슬프고 한이 없구나
 내 사연을 어느 누구에게 한을 하니
 에헤~

5. 중 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중리는 마북리에서 남동쪽으로 8km정도 떨어져 있는 용인시와 인접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구도로가 있어 자가용을 이용한 교통은 편하지만, 일반 교통여건은 불편하다. 이 마을도 동쪽과 서쪽에 산이 놓여 있어 남동에서 서북쪽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용인군 동변면 지역으로 중동 또는 중말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중리라고 하여 읍삼면에 편입하였다.

이 중리를 이루는 자연마을을 보면, 어정, 언목, 내촌, 외촌, 능우(능모랭이), 장자곡, 은직리, 초당골이 있다. 어정은 어정골이라고 하는데 충청도의 자린고비가 장독에 앉았던 파리를 쫓아왔다 이곳에서 잃어버리고 어정어정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언목은 어정의 동쪽에 있는데, 밤나무가 많아서 밤동산 또 울동산이라고 한다. 은직리는 중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고, 그곳에서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촌 즉 안말이라고 하고, 외촌은 밭말이라고 하는데 바깥말의 준말로 생각된다. 장자곡은 장자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부자들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그리고 초당골은 초당곡이라고도 하는데, 야은 길재가 초당을 짓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붙여진 이름으로 아래·위 마을로 나누고 있다.

2) 설화

1 어정과 어수물

정진수(58, 남)/중리T 1앞

[외촌 마을회관 나무밑]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조사자가 중리에 도착하였으나 시의원의 회갑이라 거의 전부 외지로 나가고 마을에는 몇 분의 노인들만 있었다. 그 분들도 아는 이야기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을 추천하여 주기만 하여 조사하는 데 애로가 많았다. 그러던 중에 제보자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 지방의 전설과 산신제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는 이철재 할아버지를 소개하여 주었다.

그래 인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여? 며(뫼)를 해야 되나? 여기 저 저기 있는 고개가 메주 고개여. 메주 고개데. [조사자 : 메주 고개요?]

옛, 옛날 진짜 뭐 인저 고려적 시대 때, 영 여기가 갖다 떨 할려고 나라를 줌 먹는 사람들이 뭘 중요한 걸 갖다가 여기다 버렸어. [조사자 : 중요한 거 뭐요?] 뭐 돈 찍는 기계라.

그런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암행어사 뭐 나라 상감들이 이제 말타고 메주 고개로 와서 몇 시간 동안 찾은 거여. 찾다가 없어서 이, 어정이라는 데가, 이 아래 어정어. 그 어정에서 어정어정(웃음) 어정 그러서 게 어정이라고 이름이 쳐진 거여.

그래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 저 아차지레는 데가 있어, 아차지 고개. 아차지 고개 가서, 거기 가서 보면 여기가 보이지 않아. 거, 거 중요한 물건을 버린 데가 나무목이라는 덴데, 메주 고개에서 보면 뻥히 보여도, 거 현지에 가서 보면 그게 오목하게 들어앉았기 땀에 그 현지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아차 잘못 왔다.”

말이여.(웃음) 다시 어정으로 대서 인자 어정거리다가 인저 목이 타고 그러니깐 이저 어수물이라는 뉘 가가지구, 목이 타니깐 그 나라 이제 상감

남들이 거기에, 이런 옛날 우물이 있지 영. 우물에서 물을 떠 먹었대, 목이 타니깐.

그래서 거, 그 지역 부락 이름 지명이 ‘어른들이 잡숫는 물이다’ 어수물 이라고 그랬어. [조사자 : 아 부락 이름이요?] 영. 뭐 그렇다는 얘기 밖에 여기 남길게 없어.

2 할미성과 바위의 유래

이병직(85, 남)/중리T 1앞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듣고 산신제와 이철재 할아버지의 고향인 황해도의 산천의 특색 등을 듣고 다른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이때 마을의 여러 어른들의 추천으로 이 마을 최고령자 이신 이병직 할아버지를 댁으로 찾아갔다. 가족들이 모두 출타 중이어서 집안은 매우 조용했다. 찾아온 취지를 말씀드리자 선뜻 집안의 내력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지방의 전설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석성산이라고 그러지. 특히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성산이라고 그러지. 석자 돌 석자 빼고, 제 성자, 성산이라고 여기는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 유식한 사람이 돌 석자니까 석성산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석성산이 있는데, 여기 할미 할미성이라는 데가 있고, 할아버 성이라는 데가 있거던, 석성산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1919년도에 그 때 여기 그러니깐, 남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을 쌓다고 해. 지금도 성터가 남아 있어.

저기 할매성이라는 성도 있고, 여기 할아버지 성이라는 석성산 주위에 있는 건대.(현재의 상황 생략) 급작히 석성산성이 있는데, 그런데 석성산도, 이가 빠져서 말이 잘 안 나와.(웃음)

거기 인저 농바위라는 바위가 있고, 또 통소바위란 바위가 있고. 또 농바위, 죽바위, 남태석 바위, 그 바위가 있지. 가 보면 농바위라는 건 똑 물

이 흐르는 것 똑 놓, 큰 농에 왜 채려놓은 것 같고.

여기서 기름 바위라는 바위, 무슨 왜 기름, 기름 바위냐 하면, 위 위서 물이 항상 줄줄줄줄 내려와서 기름이 흐르는 것 같아서 기름바위라.

또 남태석 바위는 왜 남태석 바위느냐 하면, 남쪽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남태석 바위라 그러고.

인제 죽바위는 왜 죽바위냐 하면, 죽이라는 건 대 죽자 죽이거던. 대나 무 몬양 이렇게 칭칭이 지니까 죽바위이라 그러고.

또 그 좌상바위라는 것이 있어, 또 좌상바위는 나(자신)모양으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좌상이라 그러니까는, 이 석성산에서 제일 큰 바위가 거기 있어. 석성바위라고.

통수 바위는 왜 통수 바위냐 하면, 옛날 그 태고 적에 에 뭐냐 하며는 천마가 짐 실렸다고, 뭐 크게 졌었거던. 그때 바위가 내다 끈질려서 이 중간까지 내려와 있거던. 그래 통수 가시마진, 무점, 그래서 통수 바위라 그러고.

③ 자린고비 때문에 생겨난 메주고개

이병직(85, 남)/중리T 1앞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바위명과 관련된 지명 유래에 대해 구술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충주의 자린고비와 관련되어서 이곳의 지명이 생긴 것이라 하겠다.

① 자린고비

그러고 인자 여기 메주 고개라는 데가 들을 때 이렇게 뽀쪽 정리되어 있고. 메주 고개라 있고 아차지 고개라 있고 그렇거던. 그게 왜 그 명칭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 말이지, 충주 자린고비라는 아주 몹시 고정 관념이 있었거덩.

왜 그랬냐 하면, 그 먹을만치 살아도 늘 보살피지도 않고, 그 길을 여
못 가게 한단 말여. 가령 우리 집 앞에 길이 이렇게 났으면 말여,

“생선 사시오. 고등어 사시오. 멸치를 사시오.”

그러면,

“이리 오지 말라고. 그건 먹으면 사발 한 사발 먹을 쥘 사발 가운뎃 먹
으니까 당채 그것을 여기 근처도 오지 말라.”

고. 그러니까 충주 자린고비가 왜 지독하냐 하나면 말여,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그걸, 조기를 한 마리 울(울타리) 넘어로 사서 딱 넣거던. 딱 넣으니까.

“어이고, 이거 도둑놈이 어(디)서 넘어 왔다.”

고. 손자가 엿을 들었어오, 그걸. 식구가 몇 식구가 하면, 식구가 여섯 식
구였거든. 아들, 손자, 며느리, 딸 모두 해서.

“천장에다 매달고 밥을 먹고, 밥 숟가락을 푹 퍼서 이렇게 입에다 넣고
서는 이렇게 쳐다 보잔 말여, 한 번씩.”

두 번씩, 여기 아들은 그 북어살이를 여기서 쳐다 보았자 뭐 먹으나 마나
하지 뭐.(웃음) 그렇게 지독했다던 사람이여.

② 메주 고개

그런데 그때 장에 인제 파리가, 옛날에 장독에 파리를, 파리가 상당히
컸거던, 그래도. 거 똥파리 비슷한 것, 아 그놈의 것 장항아리에 앉았다가
충추서 여기를 날라온 거여.(웃음) 그래 그 자린고비가 말여,

“저 놈의 저 장을 빨아먹고 있으니깐 쫓아가서 잡아야겠다.”

고.(웃음) 그래 인제 메주 고개라는 데가, 메주에가 자거든. 거 찾는 사람
이 거기에 와 앉았거덩. 깨 죽 나와서. 요 아래 어정이라는 데가 있거덩.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은 데여.

그래 어정어정 허고 굶어도 밟어도 영 없거덩. 그래서 옆에 가 보니까,
아 이놈이 흘렁 날르단 말여. 그래 그 인자 그 맞은 편에 보면 동이점이

있는데 왔었는지 몰러. 그 동이점에 그 고개가 아차지 고개여.

그것 와서 밟고 어찌자고 그러는데, 붙잡으려고 막 이렇게 손은 대고 있는데 훌럭 날아갔지 뭐여. 그래서,

“아차!”

하고선 날아가지 뭐여. 그래서 그걸 아차고개라 그런 얘기여.

4 저승에 살아온 내력

이병직(85, 남)/종리T 1앞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혹시 주위 사람이 저승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자신이 직접 갔다왔다고 하며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자신의 나이가 85세라며 금년 초에 꿈을 꿴다며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 이상한 것은 금년 초월 열흘 날 저녁에 꿈을 꿴어. [조사자 : 몇 월 달이라고요?] 금년 초월. [조사자 : 일월?] 정월 초 열흘날. [조사자 : 아, 정월 초?] 정월 초. [조사자 : 정월 초.] 1996년도.

그 저녁에 꿈을 꾸니깐, 여기서 죽 어떻게 했던지 여하튼 요단강이라는 데, 죽으면 건넌다는 그것, 그런 것 평소에 들었거덩. 요단, 요단강을 건너 가는 거기 인저 주라로도 들어가고, 지금 소태지에도 들어가고, 죄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었던 말이여.

인제 꿈을 꾸는데 요단강이라는 데를 보니깐, 우리 집에서부터 반면으로 와서 보니깐, 그래 여기서 신갈이라는 데를 봤지? 신갈꺼정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왔는데, 양쪽에 왔어. 양쪽에 이렇게 둘을 두 가닥을 이렇게 요기다 신갈까장 쪽. 그런데 보니깐 어름이 번질번질 해거덩. 그 번질번질한게 패명이 쓴 이 사람이,

“이리 건너 가시오.”

그러. [조사자 : 네에?] 그런데 그 밋을 보니깐, 요단강이란 데를 보니깐

그냥 물이 수로가 아주 겁나게 참사 밀려 가. 그래 거길 건너갔더니만, 난 미끄러워서 떨어질 줄 알았더니,

“이것 떨어져 못 건너가지 않느냐?”

고. 패랭이 쓴 놈보고 그러니깐,

“괜찮다고. 땅에서 초불 뜨지도 못 하지. 떨어질 위험 없으니깐 걱정 말고 건너 가라.”

고 그래. 그래 건너 갔어. 건너 가니깐, 건너 가서 보니깐 친구되는 사람이 책상, 걸상을 띄혀니 지키는 놈이 있어서, 이렇게 죽상 모양 여기 앉아서 책을 돌돌 돌리더니,

“에이 형님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책장을 넘기더니. 그러니깐 저쪽모리 보니깐 사람이 아주 하얗게 왔어. 난 사람이니깐, 이제 보니깐 그래,

“도로 건너 가라.”

고 그래, 날 보고.

“아이 여기 건너 가게끔 되어 있는데, 어찌 그리 도로 쫓아 보내냐?” 해니깐.

“아 저 낭반이 쫓아 내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니깐 가라.”

고. 그래서 그 역시 떠나서 그냥 건너온 적이 있어. 거 이게 저승 갔다 온 거여, 보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도로 어여 가라.”

고. 그래서 이 요단강 얘기를 친구하고 애들 보고나 손자, 증손자, 우리 증손자 4대가 살어, 지금. [조사자 : 이 집이에요?]

5 지명 유래

이병직(85, 남)/중리T 1앞뒤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에서 모심기 노래를 음영조로 불러 주신 후에 밭에서 일을 하던 아드님이 돌아와서 두 분의 권유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후에 다시 이곳의 지명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① 잣고개 (홍수전설)

그리고 잣고개라는 데가 있거덩. 잣고개데, 잣고개가 아니고 닳고개거덩. 예전엔 우리 우리 저 성산 넘어서 이쪽으로 왔다갔다 했던 데야. 그곳을 닳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지. [조사자 : 그런데 닳고개라고 그랬어요?] 응? [조사자 : 닳고개데 잣고개라고?] 응? [조사자 : 왜, 왜 그렇게 변하게 됐어요?]

그게 인저 배가 넘어왔다고 해서 거 닳이라고 하는 거 있잖어. 배에 난 닳 때문에, 닳고개를 그랬다 그 닳고개를 가지고 잣고개라고 했지. 그랬다는 전설이 있는데.

② 초당골

[조사자 : 다른 것?] 다른 건 이젠 없어. [조사자 : 아까 초당길, 초당길 마을인가?] 응. 거 메주고개. 메주 고개 있는 그쪽, 메주 고개 쪽에 초당골이라고 있거덩. 풀 초자, 진 당자, 고을 곡자. 그전에 초당이라는 데가 있었거덩.

그 초당이라는 거, 거 예전 전설 들어보면은 다른게 아니고, 그 서울가는 목로에서 인저 거기서 쉬어가고 그랬더라는 그런 초당 골짜구리라고. [조사자 : 아까 저기 무슨, 길재가 거기서 집을 짓고?] 응 그려. 그 길재가 거기서 살았다고 혀는 얘기가 있지. 그래서 초당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여. [조사자 : 그러니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길재 그 전설은 거 초당을 짓고서리, 그랬더니 여기 호수도 별루 없었거덩. 여기가 옛날로.

6 콩죽다랭이와 고서방 망한 유래

이병직(85, 남)/중리T 1뒤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화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고서방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에 처음에 살기로 했다는 거여. 요 부락에서 살다가. 근데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자식을 똑똑한 걸 낳아야 되는 거여. 근데 보편은 자식들을 모두 병신들을 낳고, 그러구 노름 했지.

그래가지고 살림을 망치고, 토지도 죄 팔아 먹고, 난중에 이제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요 뒤에 콩죽다랭이라는 게 있어. [조사자 : 예?] 콩죽. 그러니까 한 그릇을 먹는데, 그 남은, 다 팔아먹고 인저 요 뒤에 조그만 거 두 다랭이가 있으니까,

“콩죽 한 그릇만 주시오.”

그래서 콩죽다랭이가 지금도 있어. 논두렁에 지금. [조사자 : 아, 그럼 논 이름이에요?] 그럼. 콩죽다랭이라고. [조사자 : 콩죽다랭이.] 고서방네가 살다살다 못 살게 되서, 그냥 논 조그만 거 두 뱀이를 콩죽 한 그릇하고 팔아먹은 애기지.(웃음) 말년에는 그렇게 되었어, 그 고서방네가.

개척하던 사람이 이제 최후에는 자식들이 니 무엇냐며 자식들을 병신(병신)을 낳고, 점쟁이를 낳고, 모두 병신 말을 못하는 자식을 낳고 그랬지. [조사자2 : 모두 다요?] 응. 그래서 그 집이 아주 절단 났어.

7 호랑이를 잡은 장군

이병직(85, 남)/중리T 1뒤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비혈 묘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김유신이가 힘든, 힘이 장수거든. 그래 거 들에서 이렇게 똥을 누니까 말이야, 불 일을 보니까, 와서 이렇게 들여다 보고 있드리아. [조사자 : 호랑이가요?] 응. 호랑이가 들여다 보고 있드리아.

“이놈아! 내 앞에서 네가 어찌 왔느냐?”

고 허른서, 그래갖고 호랭이 꿈무늬를, 꿈지를 쥐고 있드랴. 호랭이 꿈쥐를 이렇게(시늬를 하며) 쥐고 있는데, 갈려구 이놈이 버티잖아. 그런데 꼬리를 이렇게, 그래 불 일을 이렇게 불, 불라고 그러니까 꼬리를 쥐고 있는데, 두 손을 이렇게 있는데 이놈이 갈려구 버틸길 것 아니야.

그래 움적움적 해서 몇 발자국 걸어가 있어. 그래서 옛 얘기에 ‘범 나고 장사났다’고 그랬거든, 옛날부터. [조사자 : 아, 범나고 장사 났다.] 잉.

그래서 여름에는, 하전에 어디에서 자려는 것 같으면, 들에서 많이 잤거든. 마당에서, 안마당에서 자고 바깥마당에서 자고. 그리고 모깃불 쬐고 이루구 자는데, 아 한밤중에 장수가 집에 와 보니까, 직희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아버님! 아기를 데려 갔어요.”

그러거든.

“에이, 그 놈이 또 데려갔나 보다.”

“그 놈이 데려갔다는 게 뭐이냐?”

허니깐은. 호랑이가 데려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앞산은 호랑이 굴이 있대는구려. 그런데 강감찬이가, 가서 인자 그 호랭이 있는델 아는데, 거기서 피아노게(?) 올라가서 차츰차츰 들어가 보니까, 즈희 어린애를, 혼자는 그 굴속에 가 뉘어 올드리아.

‘호랑이가 오면은 그냥 이 보복을 하고 죽이겠다.’고. 그래 인자 굴 속에 인자 들어와 있는 거여. 앉아 있는데 호랑이라는 짐승이 머리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대는구려. 꼭 꿈무늬루다 들어오는데, 꼬랑질 휘휘 이렇게 들루면서 들어오드데는구만.

그래 몇 발자국만 참 들어오드리아. 그래 들어오는 걸 한 손으로다가 꼬랑지 뭉치를 집었더니, 있으니깐 나갈라구 밖으로 나갈라고 악을 쓰는 기여. 이렇게 쥐고 가만히 생각하니께, 그냥 놔둬서 이 놈을 살릴 것 같거든. 이놈을 죽이긴 죽여야 하는데.

웁아. 왼손으로다가 꼬랑지를 감아서 쥐고, 바른손으로다가 호랑이 똥구떡(똥구멍) 속에다 쓱 집어 넣어.(웃음) 쓱 집어넣구서 창자를 움켜 쥐었다더구만. 움켜 쥐었으니 이제 끌려 나오면서 그 놈이 이제 죽을 지경이니까, 손가락을 넣어 창자를 움켜 쥐었으니까.

굴을 나와서, 거진 다 나와서 손을, 왼손을 한 바퀴 돌려. 이제 바른손은 창자 움켜쥐고. 그러구 보니까 그냥 창자가 움켜 쥐고, 호랑이가 그냥 왼편으로 내달아서 죽었드리아. 그래 그 이튿날 손자를 어떻게 끄내서 안구 나와서 떠느리를 쥐.

“아기 데려 왔다.”

그 이튿날 밝은 날 젊은 사람들 보고,

“저기 앞에, 산 밑에 가 보면 호랑이가 죽었을 테니까 가 보라.”

고. 그래 가 보니까, 창자가 그만 빠진 채 죽었더라고. 아 그런 얘기가 있어.

8 공짜로 변소 쓰기

이병직(85, 남)/중리T 1뒤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손님마마의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여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였다는 변소 얻어 쓴 이야기는 사실담이라고 할지라도 재치와 관련된 붕이 김선달형 유형이라고 생각되어 실게 되었다.

50년 전 일이며. 내가 한 삼십적, 삼십쯤 되었을 때, 남사면은 우리 종계를 하게 되어서 해마다 가거든. 시월 보름날이 인저 우리 시제란 말이

여. 시제 지나고 닷새 후면은 스무날이면은 우리 종계를 해요. 종계는 둘러 앉아서, 인저 집안에 인저 그 토지 사둔게 있고, 땅에서 수확한 것 있고. 이러 문서 추석, 추렴을 하기 위해 전부 걷어. 모이면서 그 날 시제를 지낸다 말이여.

그 때만 하드래도 50년 전이니까, 내가 30살 적이지. 돼지 한 마리면 얼마나 하느냐 하면, 잘 해야 한 육십원이나 칠십원 밖에 안 됐었거든. 한 마리가. 그래 그 땐 돈들이 어렵고 하니까 돼지 사 먹기가, 고기 사 먹기가 어렵거든. 여간 사람은.

그래서 그 날은 퍽이나 아주 갯날이라 돼지를, 통돼지를 한 마리 사서 집안이 12집이 되여서, 진탕망탕 애, 어른, 간나이, 총각 집안네가 전부 되여서 아주 잡아 뜯고 재미있게 먹는 날이거든. 잘 먹는 날이고.

그래 인제 쌀이 한, 한 스물다섯 가마 들어오고, 돈이 인제 지금은 육만원이지만, 그 때는 그저 깍해야 육천원이여. 그 때 쌀 한 말이 칠십, 칠십원씩 하고 그랬을 때니까. 그래 인저 통돼지를 사가지고 진탕망탕 인자 요리해가지고 먹게 되지 필. 그래 한 켓 먹는 거여. 그때 그 날은 인자 고기루만. 그 집안이 전부 되여서. 그래 지금은 그 비계라는, 돼지고기 비계라던 그냥 내버리고, 그냥 아궁이다 까 놓고 버리지만도, 그 때는 뭐 비계고 뭐이고 뭐 읊어서 못 먹고. 그러니까 양껏 먹, 먹었지 뭐여.

그래 뭐 너나 할 것 읊이 잔뜩 먹고 나니까, 이제 집에는 오긴 와야겠는데 배에서 천둥을 하기 시작하는 거여.(웃음)

“어아(어서) 가서 해야겠다.”

그래 거기서, 거기서 버스를 탈 적이엔, 남사면에서 버스를 타고 떠날 적엔 뒤가 마려워서 화장실을 꼭, 지금은 화장실이지만 옛날이는 변소라 했거든. 고 전에는 똥소간이라 하고.(웃음) 지금은 많이 개화된 거여. 아 급하긴 하고 어떻게. 거기서 버스는 떠나려고 하고, 가게에서는 그 젊은 부인네가 있는데 가게를 봐요. 가게를 가서 젊은 부인이 있어.

“아가씨! 변소 좀 빌려 주시오?”

그러니까.

“안 돼요.(웃음) 우리 남편 오면 큰일 난다고. 변소간 못 빌려 준다.”고.

“너무 급하니까, 그럼 50원을 줄테니 좀 빌려 주시요?”

아 돈이면 뭐 호랭이 죽인 놈이 띠어 먹는다고 허든가. 돈을 주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럼, 잠깐만 보고 오십시오.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하고. 그래 좋아 한단 말이여. 아 근데 화장실이라고, 좀 똥두간이라는데 보니까 평지도 아니고, 한 사각형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계단을 올라 가요.

한 층을 올라 가는데, 한 층을 올라가자마자 착 삐지 뒀여.(웃음) 그 땀 뒀 바지 저고리 입고 땀기니까, 여기 번지고 숨바지 위에 흑 두툼하게 입고 있는데, 아 그냥 그날 먹은 돼지에 그냥 술에 잔뜩 먹은 놈의 걸 한꺼번에 뒀지 뒀여, 그냥. 그래 이 바지 가랭이에. 엉덩이 그냥 금방 층층이 나고 벗을 수가 있어? 그래서 변소에 이것 가지도 못하고 계단을 올라서 다 그랬으니. 그것을 어찌 벗어서. 변소문을 열어 놓고 거기 첩퍼덕 앉았어. 아 그 젊은 처자가 오더니만,

“아 일을 다 봤거든 가세요. 우리 남편 오면 벼락 내린다고 가시라.”

고. 그려.

“가거나마나(조사자 웃음) 여기서 몇 밤을 묵어야겠다.”고(웃음)

“왜 묵어야겠네요? 아 일 다 봤으면 가지, 무엇 때문에 여기서 묵는데요?”

“아 50원 주고 산 변소요, 50원을 주고. 처음에는 안 된다는 걸 50원 주고 주인 허락했으니까 산 거 아니여. 그럼 지금 여기 똥도 못 싸고 바지에 다 뒀으니까, 천상 여기서 며칠 살아야겠다.”

고 그러니까.

“아, 그럼 돈 도로 가져가서, 여기서 빨리 가라.”

고. 그런 거여.

“그냥은 못 가요. 돈 50원 쥐었어도 천상 바지나 하나 주던지 잠뱅이를 하나 주던지 해야지, 이 똥싼 바지를 싸가지고 가지, 그 기냥은 갈 수가 없다고. 이 똥이, 똥, 바지에 똥이 천지니 이놈을 헐 수가 없으니까 천상 싸가지고 가야 할 테니까, 현 바지라도 하나 쥐야 가지 꺾꺾해서 그냥은 못 간다.”

고 그러니까. 잠뱅인가 무신 것 하날 갖다 줘서,

“이걸 입고 그것 내버리고 그것 가라.”

“내버리는 거 뭐냐고. 읊는 사람이 숨바지 저고리면 값이 얼마냐고. 집이 가 빨아 입을 테니까 무신 켜타리든지 뭐 하날 달라고. 싸아가지고 가겠다.”

고. 아이 점점 팔팔 뛰고 야단이어. 이놈.

“인제는 우리 남편 오면, 그럼 나도 혼나고 할 테니까 빨리 가라.”

고. 잠뱅이를 갖다 주더니만 그러. 그런게 이놈을 입고 가서 저놈(똥싼 바지)을 들고, 이 놈을 둘둘 말아서 들고 가니까 끈을 하날 주면서,

“이걸 붙들어 매서 가지고 가라.”

고. 그래 돈 50원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 밖앗을 나와서 잠뱅이를 입고 있는데, 시월달인게 선선해서 추워. 그래고 잠뱅이 흘 것을, 숨바지 저고리 입었던 것 잠뱅이 입고 오니까. 그래 버스가 와. 버스를 타고서니 인저 수월으로 오는데, 차 안에서들 야단이지 뭐여.

“이거 웬 변소내가 이렇게 나냐. 참 똥내가 나냐.”(웃음)

이러고 기절을 하지 뭐여. 이 수건에서 난다. 거기서 뻘스를 와서 신갈 어정 와서, 아 마누라가 보고 오더니,

“아이구 어떻게 된거냐고. 왜 이 잠뱅이를 입고 왔느냐고, 추운데?”

“추우나마나 이거 큰 일 났다구. 그냥 아랫도리가 똥이 범벅이니 어떡하냐?”

고. 그런게 아이 근데 마누라가, 우물이 거기 있었거던. 우물에 그냥 찬 물을 병병 떠가지고 불기짜을 뭐 그냥 씻겨주고 그러는데, 그 때 또 강아지가 나와서, 강아지가 한 여러 마리가. 어똥게 고생을 했던지. 그래도 마누라는 잘,

“설사, 늙은이, 젊은이가 웬 걸 적당이 먹지, 웬 걸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설사를 해서 고생을 하느냐?”

고. 그런 내 역사가 있어.(웃음)

9 이야기로 도둑을 쫓은 아저머니

심대선(75, 여)/중리T 1뒤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제보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몹시 피곤해 보이셨기 때문에, 조사자들은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노부부가 살고 계신 신축 사택으로 자리를 옮겼다. 방만한 집은 할아버지가 나가 안 계시고, 할머니만 계셔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부탁드리자, 처음에 사양하시다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다.

① 황새를 보고 지은 이야기

음 저기, 옛날에 음 황새가 있어. 황새. [조사자 : 황새요?] 황새가 있지. 근데 옛날에 여자 하나가 신랑한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라.”

더러야. 옛날 얘기를 허라니 험하게 읊지. 그래 오다 보니까는 황새가 논에서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드라. 그런더니 우렁이 있으니까 우렁을 딱 따서 끼룩 잡수더러야.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영감이 인자 했디야.(노래조로)

저기저기 들어오신다.

끼룩끼룩 까신다.(조사자 웃음)

둘레둘레 보신다.

끼룩끼룩 자신다.

글쎄 그걸 했지. 잊어버렸어.(웃음) 그것도 안 하나까 죄 잊어버려.

저기저기 오신다.

둘레둘레 보신다.

끼룩끼룩 자신다.(웃음)

그랬대. 잊어버려서 안 되겠네.

② 이야기로 도둑을 쫓은 아주머니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앉아서, 만날 앉아서 그러는 기야.

둘레둘레 보신다.

이리저리 보신다.

딱지를 그냥 떼신다.

끼룩끼룩 자신다.

저기저기 나가신다.

인제 이래. 밤낮 앉아서 그게 노래여. [조사자2 : 그 여자가요?] 응. 근데 시누 남편이, 저 도적놈이 도둑질을 하러 와서 둘레둘레 보더니 왔다갔다하고 둘레둘레 보니까.(웃음) 방에서.

“둘레둘레 보신다”

그러거든. 그래서 ‘나를 봤나 보다.’(웃음) 술을 훔쳐 갈라고, 술에 가서 딱딱 떼니까,

“딱지 가 떼신다.”(일동 웃음)

그러야. 그러니 또 그것도 못 뺏지. 그래서 ‘인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광안에, 장광에 가면서, 콩죽을 쑤어 먹다가 인제, 옛날에 그걸 많이 쑤었거든. 그걸 썬서 먹다가, 기니까 그 장광에 갔다 왔드랴. 아 그래서 가 보니까. 밥 없으니까 그거나 퍼 먹으니까, 그걸 이렇게 떠 먹으니까,

“끼룩끼룩 자, 자신다.”(웃음)

그러드리아. 그렇게 알구. 그렇게 알구서 안 가고, 알고서, ‘날 강돈 줄 알구서.’ 둘레둘레 보고 나갈라 나가니까 그러드리아.

“둘레둘레 보신다.”(웃음)

방안에서 이러드랴. 그래서 그 도둑질을 못하고 나, 갔드리아. 그냥 만날 앉아서,(노래조로)

저기저기 들어오신다.

둘레둘레 보신다.

딱아지를 떼신다.

요렇게 저렇게 보신다

끼룩끼룩 자신다.

저기저기 나가신다.

만날 앓아서 그것만 하더니, 도둑놈이 와 도둑질을 못 하겠드리아. 그 집은. 못 가.

10 할미성 성쌍기

심대선(75, 여)/중리T 1뒤2앞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해 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 지방에 널리 전승되고 있는 할미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돌로 행주성을 쌓는데, 저편쪽이는 할아버지, 이편쪽이는 할머니, 할머니야. 할머니인데 이렇게 맞추 건너다 봐. 여기는 성산이고, 저기는 장미암이라는 산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마주 건너다 보는데, 그 할미성, 할머니가 하루 저녁에 치마로다가 돌을 안아다가 이렇게 성을 쌓았대. 그런데 지금도 가 보면 있어. 그 흔적이 다 무너지지 않고.(tape 2앞에 계속) 돌로다 이만큼 싸서, 저쪽 이만큼 커다랗게 성을 쌓았어.

[조사자 : 예, 치마루요?] 응. 치마루. 옛날에 행주치마를 쳤거든.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앞에다 쪼그만 행주치마란 걸 입었어. 그 행주치마로 돌을 안어다가 하루저녁에 그걸 쌓았디아.

[조사자 : 할아버지, 그 반대편에 있는 바위는?] 할아버지? 저작산에 있는? [조사자 : 바위, 그 내용은?] 응? [조사자 : 그 얘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얘기는 몰려. 몰루구, 할머니만 그렇게 치마루, 행주치마루 돌을 쌓아다가 성을 쌓았다는.

11 허리 꿇긴 박숙 고개

심대선(75, 여)/중리T 1뒤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마을의 제사와 기우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었다. 그러다가 이 마을의 지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일본 정치 때, 일본 사람들이 그 고개를, 허리를 꿇었다야. 그래 허릴 꿇어서 거기서 피가 나왔다는 거여.

그 장수 허릴 꿇어서, 장수 허릴 꿇어서 이 동네에는 장수가 안 나온디야. 뒤쪽에 있는 박숙 고개가 허리, 고개를 허리를 꿇어서.

그거 꿇을 적에 피가 나왔다는 거여. [조사자 : 고개에서요?] 음, 고개에서. 그래서 피가 나왔는데. 그게 장수 허리래는구면. 그래서 장수가 이 동네에서는 안 나온다고 노인네들이 밤날 그러드만.

12 구렁덩덩 인선비

심대선(75, 여)/중리T 2앞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는 6·25에 관한 말씀을 길게 하였다. 그래서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얘기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시며 그만하시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할머니께 회미하게 남은 거래두 얘기해 달라고 애절하게 부탁하자 잠시 생각하시다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여기서 혼자 됐는데, 그냥 어느 재상갓집에서 아들을 낳는데. 이 딸네집이도 재상이 집이고, 이것도 재상가 집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방구렁이를 낳더라야.

그래서 그게 그냥 삼시 밥 먹고 그냥 놓아가지구 그래더래야. 구렁이 탈을 쓰고 나와서, 허물만 썼지. 그런데 자꾸만 아버지한테,

“재상갓집 딸하구 장가를 보내 달라.”

구. 자꾸만 그러더래야. 가운데 딸 하구. 그래서 인자 아들이 자꾸만, 그냥 병신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냥 한이 될까봐 그냥,

“아이구 어떻게 그 집에 가서 그런 말을 하니? 못 허겠다. 못 허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래 허라.”

드래. 그러서 그냥 이루 그냥 무릎을 꿇고 가서 사죄를 하고 그냥,

“그래서 왔노라.”

그냥 사정 얘기를 하니까는, 그 아버지가 딸 셋 성재 불러 놓고,

“누가 갈래느냐?”

물더라. 그러니까는 작은 딸은, 큰 딸은 다,

“싫다.”

그러구. 가운데 딸은,

“지가 가겠어유.”

그러더래야.

“그러믄 가라.”

구. 드디어 혼례를 했는데, 첫날 밤에 그 허물을 벗고, 벗으니까 그 언니들이 요 문을 엿을 봤지. 그 구멍을 뚫고. 옛날에는 문구녁을 뚫고 엿을 봤으니까. 보니까는 아주 그냥 깎은 선, 선비가 나왔지 뭐. 아주 그렇게 눈이 부셔서 보지 못 해요, 고와서. 그래 그게 샘이 났어.

근데 그 허물을 벗어서 베개 속에다 넣거든, 신랑이.

“이것을 아무도 못 보게 잘 간직허라.”

구. 그런 걸 언니들이 그걸, 언니허구 동상허고 빠가지구설랑은 그걸 갖다 없애 뿌렸지 뭐여. 그런게 그땡 구렁이 신랑이 어디로 가 뿌렸지. 그래서 인자 신랑을 찾아나선 거여. 찾아나서니까 온갖 한없이 땡기는 거지 뭐. 그래서 어디 가서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한테,

“여보! 그런 어중간한 저기나?”

고 물어봐서, 그런 사정을 얘기하니까는,

“그럼, 어디 어디 가서, 버들 고디기 앞사구 그것을 쭈르륵 훑어 갖구 물에다 이렇게 띄워 갖구 그것 물이, 그것 그냥 쫓아가서 그게 들어가거던 그리만 막 들어가라.”

고 그러드래. 그래가지구 몇 분 만에 신앙을 찾은 거지. 거그로 들어 가서. 그러니 어디 가서 인자 그 스님을 만나러, 거기 가지 앞사구를 또 흘려가지고 물에다 슬슬 뿌린게, 그것 떠내려갈 거 아녀. 그런게 그것도 말씀 들었어.

그래 그것 열심히 그것 가 보니까, 그것 나보다 그것 물로 내려가드라. 그래서 치마루다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뒤집어 쓰고, 얼굴에 물 안 들어가게 하려구. 이것을 뒤집어 쓰고, 그 치마로 훌쩍해서 이렇게 쓰고서는 그냥 쓱 들어가는 거여.

거그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엄청 좋게 기와집을 지어놓고 신앙이 그냥 앉아서, 그냥 들어가 거기서 살더래.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잘 살더래. 직 언니들은 내중에 잘못 살더래.(일동 웃음) 그 언니하고 동상은. 이무기가 됐어.(웃음) [조사자 : 이무기요?] 응.

13 복 많은 여가

심대선(75, 여)/중리T 2앞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도 복과 관련되어 잘 살았다는 소재에서 생각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내 복에 산다는 셋째 딸 이야기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옛날에 앵 그것도 역시 부자집 딸허고 혼인을 했어. 부자라고 해야 해도 올라가지 앵고. [조사자 : 뭐, 뭐가요?] 그 총각이. [조사자 : 그냥 총각

이] 응.

총각이 그 딸하고 혼인을 해다가, 그냥 오두막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허니까, 그냥 그래두 딸이 있으니까, 다 지내고 딸이 하나 나서더래야, 가서. 그래서 옛날에는 산에서 숯을 귀셔 숯냥구를 귀셔, 숯을 귀셔 팔어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게 그리 갔어, 부잣집 딸이. 숯무지 허는 사람한테. 아이 날마두 숯을 구은게 밥을 해서 아들한테 가주가더래. 그런게 이제 자기가,

“저도 한 번 좀 숯 구데기 좀 가보고 온다.”

고. 그러니까,

“아이구, 뭘 오느냐구 오지 말라.”

구. 시어머니가,

“자꾸만 가, 갖다 준다.”

구 그러니까. 그만,

“가자.”

구. 가서 보니까는, 그 숯, 이렇게 참나무에 크게 구덩이를 해 놓고서 참호를 꾸어서 거기다 쳐놓고 불을 때서 숯을 만드는 거거든. 그런게 가 보니까 그 이막들이 다 금이더래. 금덩이더래. 그런게 미느리가 암하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남편보고,

“내일 숯을 굽지 말고, 저 이막들을 빼서 지구 장에 가라.”

고. 그러니까 그 나, 신랑이,

“내 밥줄인데, 그걸 왜 빼라 그러냐?”

안 빼더래야. 그런 걸 자꾸만 그저,

“빼라구. 빼라구. 빼서 들구 가서 어느 재상가 양반이, ‘천 냥’거든 ‘싫다’구 그러구. ‘이천 냥’ 그러거든, 그래도 ‘죽다’구 그러구, ‘삼천 냥’ 할 때 ‘죽다’ 그러구, ‘오천 냥’ 부르는 사람한테 주라.”

구 그러더래. 그래 아무렇게 하두 그냥 ‘그 놈의 것 빼 줘어지고 가라’ 그래서 그것을 빼서 지고 갔는데, 어느 장 가서 이 양반이 그것을 오천 냥에 사더래야. 그래 벼락부자가 되더래. 그래 복이 그렇게 많으면 그런가 보더래.(웃음)

14 정조대왕의 효행(지지대 전설)과 뒤주왕

심대선(75, 여)/종리T 2앞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 앞에서 들었던 할미성에 대해 묻자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들으라고 하였다. 할미성에 대해 묻자 단편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영친왕의 손자 하나가. [조사자 : 영친왕이 엄험하다고요?] 응. 그 낭반이 효재라 봐. 그 양반이 소낭구 붙어 있는 송챙이를 손으로 안 잡고 이 입으로 잡았대는 거여. 그래서 소낭구가 크기도 혀. 아주 미끈미끈하게 올라가.

그 뒤주왕, 저 뒤주왕이라구 또 있어. 그러니까 영친왕 적에, 이 유월 스무날이면 비가 와. 많이 와, 인(옛)날에. 그 뒤주왕이 서러워서 비가 오는 거래라고 옛날에 그러드라구.

그 뒤주왕을 시 죽일, 일본 사람들이 죽일라구 헐 적에, 영 그냥 뒤즈, 먹다선 뒤주가 있어. 옛날에는 뒤주라고, 쌀 담아 먹는 뒤주가 있어, 큰 것. 그 뒤주에 가둬가지구 그냥 풀을 사뭇 그냥 뒤주에다 그냥 싸 놓았다구. 그냥 물어 죽게 하느라고. 떠서 죽었디잖어, 그 뒤주 안에서.

그래서 유월 스무날이면 비가 오더라구. 그러면 그 뒤주왕이 서러워서 우는 비라고들 그러시데.

15 착한 언행으로 복받은 석수

정순자(76, 여)/종리T 2앞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조사자들은 앞의 제보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볼 일이 있어 밖에 나간다고 하여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마침 할머니만 계신 집에 들어가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부탁하자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 혼자 계신 방이라 주위가 매우 조용했다.

옛날에 김씨하고 이씨하고 살았는데, 둘이 다 합해서 여간 다정한 친구였다. 근데 둘이 다 자식을 늦게 하나씩 뒀어. 그서 그 늦게 하나씩 두면서 둘이 다 꿈을 꿨단 말이여. 응 하나는 산에 가서 돌꽃을 얻고, 하나는 물에 가서 얻고. 그래서 하나는 석순가 하나는 석수고, 하나는 저기하고 돌 석자가 들어갔는데.

그런 아 아이들을, 김씨는 아들을 하나 두고 이씨도 아들 하나 뒀는데, 이, 이 둘이 다 잘 살았는데, 김씨가 그만 그 아이 그러니까 세 살에 죽었어. 죽으면서, [조사자 : 김씨가요?] 어머니가 죽었어. 세 살에 어머니가 죽고, 또 아홉 살 먹어서 아버지가 죽었어. 죽으면서 그 친구한테 그 재산을 다 맺겨주면서,

“내 아들을 니 아들과 같이 키워 달라.”

고. 그랬는데 그 김씨의 아들은 너무너무 착해. 엄마 아버지 잃은, 공부도 잘 하고 말도 잘 듣고 너무너무 착했는데, 이 이씨의 아들은 아주 못 뒀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컸는데, 그럭저럭 이제 한 인제 공부를 다 했어. 한 고등학생쯤 됐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 도와주고, 그 친구의 아들을 그냥 그 키운 엄마 아빠 일, 일을 전부 잘 도와주고 선생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 하고. 얼마나 칭찬을 받는데, 자기 낳은 아들은 아주 못 되먹었어. 그저 그냥,

“이리 가라.”

면. 저리 가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인제 그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아들보다도 그 친구의 아들을 너무너무도 사랑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친구가 그냥 미워서 죽는 거여.

“너는 니가 내 부모 사랑을 독차지를 하다니.”

허구서 그냥, 저 잘못하는 것은 안 생각하고 너무너무 그냥 미워서 그냥,

그러다가 한 번은 결심을 했어, 이놈이.

“요놈을 내가 죽여버려야 혀.”

그래가지구서 저기 끌구 나가가지구서 죽일라구 인제 작정을 했는데, 그래가지구 싸우다가 어떻게 그냥 막 피투성이하고 들어왔단 말여. 들어와가지구서,

“내가 여기 못 있겠다.”

고. 엄마한테 그런 얘길,

“나를 죽일려구 마음을 먹으니 내가 못 있겠다.”

그래가지구서 인제, 그러니께 돈을 한 짐씩 주워서 내 보냈어.

“이게 네 아버지 재산이라.”

고. 그래 그걸 짚어지고 이 사람, 이 석수가 하염없이 울면서 가는 거야, 인자. 가다가나닝게 어떤 길이 그냥 산꼭대기를 넘기도 했는데, 그 산꼭대기를 넘어서 가느라고 인제 이렇게 가다나니께 칼을 든 강도가 나섰어. 강도가 나서가지구서,

“돈 내봐라.”

그랬단 말여. 그러니께 다 벗어 뒀어, 돈을. 벗어 주는데, 칼을 가지구 그냥 낫선 강도란 놈이 인자 돈을 인자 다 거의 빼앗는데, 그러니까 인자 예전에는 나랏님이지, 지금은 순경이지만은. 오다 보니까는 강도란 말여. 그래가지구서 와서 잡았어.

“웬 일이나?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 석수가? [조사자 : 애가 도둑이요?] 그래야 되겠지. 그러는데,

“이 돈을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가 빛을 많이 져서, 이제 아버지의 빛을 내가 갚으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안 받을려고 그러고 나는 줄라고 하고 그런다.”

구. 그렇게 말을 했어.

“좋은 친구들이로구만!”

이러구들 그냥 가버렸어 그냥. 근데 이 강도가 회개를 했어. 강도도 못 사는 사람이 아녀. 그냥 골짜구니에 아주 좋은 토지는 다가 그 집거구. 으리

우리하구 잘 사는 집이여. 그러는데 너무 고마와가지구서 그냥 칼을 내버리고서 손을 잡았어.

“너는 내 동생이다. 나는 니 형이고 너는 내 동생이니 우리 집에 가자.” 구. 그래서 그 강도가 인제 석수를 데리구 갔어. 집에 가 보니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소도 맥이고 말도 맥이고 세상에 으리으리하게 그렇게 부자로 사는데, 그렇게 강도질을 해다 집에도 안 가지고 가. 그냥 나와서 그냥 그 집으로 이렇게 죄 말어서 큰 먹어 치우고, 또 도둑질하고 또 강도질하고 이렇게 살아온 오는 사람인데, 그래 거기 들어가가지구 가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집이야. 그러는데 인제 사랑을 척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너하구 나하구 형제니, 아버지를 봐야될 거 아니냐구. 아버지한테 인사를 가자.”

구. 데리고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니까. 나이 든 노인네가 얘기, 젊잖은 노인네가 달려다 보면서,

“나는 아들이 없소.”

그러거덩. ‘나는 아들이 없소’ 아주 빌면서,

“좀 들어가게 해 달라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 내 동생을 하나 데리구 왔다가.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아버지! 내가 이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죽었을 몸이 지금 내가 이 동생으로 말미암아 안 죽고 살아서 아버지한테 왔으니, 나를 보지 말고 이 동, 내 동생을 좀 봐 달라.”

고. 이려고 사정을 하니까, 그래 이 노인네가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눈을 떴어. 그 얘기 들으니 그 참 착한 사람이거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가지구서 이 노인네가 그 자기 아들보다도 그 사람을 둘째 아들을 삼아가지구서 너무너무 잘 사는 기여, 인자.

거기서 막 그냥 좋은 집을 하나 지어가지구서. 지 돈두 많이 가져갔겠지만서두. 좋은 집을 지어가지구 장가 들여서 재밌게 사는데, 항상 마음에 수심을 가져, 그 사람이. [조사자 : 석수가?] 석수가. 항상 마음에 수심을 가져서, 자기 그 아버지가,

“너는 모든 것이 그럴 것이 없고 좋은데, 이렇게 나는 좋은데 너는 항상 수심을 가졌느냐?”

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기야.

“나는 어려서 부모를 양친을 다 잃고 아버지의 친구가 나를 데려다가 키운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못 돼서 내가 거기를 못 있고 나왔는데, 지금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도저히 몰라서. 내가 잘 먹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좋은데, 그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하면 도저히 먹는게 살이 안 간다.”

고. 울면서 얘길 했던 말이야. 그런데,

“아하, 그러냐구.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를 가 니가 모셔 오라.”

구. 그래가지구 가마하구 말 타구 그냥 거하게 해가지구 갔단 말여. 가니까 그 아들놈이 다 떨어져 먹고, 노인 두 노인네가 거지같이 되서 있었더라. 그래서 그 석수가 그 어머니 아버지를 다 모시고 와가지고, 못 살겠으니께 찾아와서 그 늙도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잘 살더라.

16 가르친 여자에게 배반당한 나무장사

정순재(76, 여)/중리T 2뒤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웃으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현재,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만주 들어가면 도문이라는 데가 있었던 말이야. [조사자 : 도문이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금. [조사자 : 아니에요, 녹음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노인, 두 노인, 두 부부가 무남독녀 외딸을 하나 뒀어. 너무너무 산골에서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집에서.

그런데 인저 다 늙고 벌어 먹을 기운이 없어서, 고것은 인제 사위를 삼았어. 이 다음에 키워가지고 결혼해 주기로. 사위를 삼았는데 학교 땡기는

거를, 이제 사위를 장가도 못간 농촌 총각한테 시집을 보낼라고 인제 했는데, 자꾸 공부를 한단 말이여. 공부를 잘 하니까. 응 장래 마누라를 공부 를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이 가서 낭구 장사도 하고, 그냥 다 정성껏 해 가 지고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학교를 가겠다.”

고. 해서 또 중학교를 가. 중학교 갔다 나와서는,

“고등학교 가겠다.”

고 그러니께. 부모네들은 못 가게 하는데, ‘가겠다’고 자꾸 그러니께, 이 사람이 또 고등학교를 넣어 줬어. 넣어 줘서 아주 갓은 고생을 다 하는 거 야. 낭구 장사도 하고, 없어가지고. [조사자 : 낭구 장사가 뭐예요?] 나무. 나무. 때는 나무. 이 나무 때 있잖아, 그전에. 나무 장사도 하고, 갓은 품도 팔고 이래가지고 그 장래 마누라를 공부를 시키는 거야. 고등학교를 나오 더니 또,

“대학을 간다.”

고. 그냥 대학을 간다고, 자꾸. 그런게 직 부모네가,

“인전 식을 올리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

고. 그래도 그냥 빠티고 간다고 일본 동경을 갔어. 저 유학을 갔어. 그래 가가지고 갔는데,

“그래 가라.”

고 그러고. 자꾸 돈을 그래 죽자 살자 벌어서 거기다 돈을 줬단 말이여. 그래 처음에 가 가지고는 편지도 하고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 편지가 없더라고. 편지가 없었는데, 그래 이 놈의 기집애가 고만 마 음이 변한 거야. 같이 땡기는 대학생하고 연예를 해 가지고서. 한 번은 인 자 편지가 왔어.

“그 아무디 밖앗방을 치워 놓으라고 손님을 모시고 간다.”

고. 그래가지고서 대학을 어쩌다 했는데, 이제 이 남편 될 사람이, 또 연애 를 해 가지고서 대학생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되 겠어. 너무너무 기가 막힐 꺼 아니여. 기가 빠지게 벌어서 공부를 시켰는 데, 이제 공부를 다 시켜 놓니까 딴 신랑을 연애를 해 가지고, 대학생을

연애를 해가지고 왔으니. 보니까 참 보기가 좋단 말이야. 그래 저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그 집을 나왔어.

“야,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죽자 사자 공부를 했어, 나왔어. 남의 일본 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공부를 그냥 자꾸 그냥 이 혼자서 공부를 해 가지고서 한 중학교 정도 됐드래. [조사자 : 원래 남편이?] 어. 배가지고서 거기서 인자 나와서 도문이라는, 도문이 만주하고 조선이야. 도문은 만주고 남양은 예 한국이야. 그렇게 여 다리가 있어. 이쪽 다리는 남양 다리, 남양 세관이 있는데, 조사하는 세관이 있는데, 이 쪽은 남양이고 이쪽은 도문이야. 중국은 도문이고 이 한국은 남양인데.

거기에 도문에서 세관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세관장이 됐어.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 다 그 조사를 해서 인자 비밀히, 일이 엄밀히 밀수를 해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조사를 해서 다 뺏고, 또 잘못 걸리면 징역도 가고 이래. 그래서 그 때 그레가지고서 세관 내려 와가지고서 인제 세관장이 되가지고, 그만하면 출세한 거 아니여?

그래는데 한 번은 이 아편을 해 가지고선 이 대학생이 기집 사내가 들이 아편을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다가 들켰단 말이야. 그레 들켜서 그걸 뺏고 압수를 하고 잡아 넣고 보니까, 옛날의 자기 마누라 대목이야. 그 두 부부란 말이야. 그레 이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가 막혀 가만히 생각을 해다가 여러 사람한테 앉혀 놓고선 옛 말을 해요.

“예전에 이리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심하고 해 가지고서 도문세관장이 되고, 세관에서 조사하는 사람이 되고. 어느 날 그 두 대학생, 다 대학간 두 부부가 밀수를 해 가지고 들어가다가 잡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라고 물으니까,

“이주 다 잡아 죽여버려야지 그런 것 그냥 두느냐?”(웃음)

모두 그러드래. 그러니까,

“그게 저 말하자면 그 사람이 나라고. 그 낭구 장사 못 생긴 이 나고, 여기 붙들려 온 이 사람들이 그 부부라고. 대학 간 그 부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두 부부로 인하여 그 못 생긴 낭구꾼이 내 은인이라고. 그가 안 그랬더라면 한 평생 고생하고 낭구 장사 해 먹고 고생하고 살았을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 기를 쓰고 나와 공부를 해, 해가지고 세관쫓 났으니 내가 출세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과거에 다 훌륭한 배운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놔 주자고 그러드래. 가 두지 말고 놔 주자.”

고. 그러니까 모두 그냥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 같으면 그냥 안 둔다.”

고. 모두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출세를 해서 큰 사람이 되고, 그 낭구꾼의 뼈를 팔, 뼈뽕 팔은 돈을 가지고 공부한 여자는 그렇게 비참한 여자가 되드래.

17 지네 색씨와 구렁이

송학석(50, 남)/중리T 2앞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길거리에서 만나 <민요 2>를 불러준 제보자는 바쁘시다면 떠나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나섰다가 집에서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한 편의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주위가 매우 조용하였다.

옛날 어느 고을에 떠꺼머리 총각이 살았어. 꽤나 부지런한 청년이었는데,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에이, 차라리 죽어 버리자.”

그래 가지고 인제 새끼줄을 하나 가지고 어느 날 밤에 뒷산으로 올라갔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보이지도 않는데 가서 목을 매달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한참을 올라가다가 어느 좋은 나무를 하나 발견을 하고서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서 나무에다 줄을 메고, 자기 목에다 메고 뛰어 내릴 작정인데, 근데 그 깊은 밤중에 불빛이 슬쩍슬쩍 보인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 내리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내려다 보고 있으니, 어떤 굉장한 미인이 나타났어. 그리고 또 하나는 등불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종 같고. 그래서 [조사자 : 종?] ‘저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밤중에 도무지 웬 여자가 이렇게 있냐?’ 근데 바로 나무 밑에 오더니,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 죽을라고 생각하며는 뭘 못 해. 죽을 힘 가지고 살겠다. 아 사람이 장(항상) 고생 하나. 안 그래.”

“맞아요.”

하 그러면서 자기를 영 바보 취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여, 꼭 아는 것처럼. 그래서 도무지 뭐야. 그래서 내려가 봤어. 내려가서,

“아니 둘이 누군데, 이렇게 남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사실은 당신 얘기했다고. 사람이 왜 죽느냐고 사람의 한 번 목숨은 하나 뿐인데 왜 죽느냐고. 우리 집에 가자.”

고 아 그래서 똑 흘린 것처럼 이제 그 집을 따라 갔어. 따라갔더니 좀 깊은 산으로 척 더 들어갔는데, 그 산에 세상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나오는 거야. 우리니 그리로 인도 받아서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잘 꾸며 놨는지 하영튼 굉장한 부잣집 같애. 그래서 안방으로 딱 모셔서 앉게 하더니, 어 주안상을 내오고 대접을 융숭히 하는 거야. 그래서,

“도무지 여기서, 이 깊은 산 중에서 두 분이 이렇게 사느냐?”

고 그랬더니.

“아, 그렇다.”

고 아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근데 여기 주인 여자가 하는 말이,

“여기서 그냥 같이 살자고. 뭐 의식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고 그래 뭐 어차피 죽을려고 산에까지 왔던 사람이고, 또 미인이고, 보니까 또 처녀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고 그리고서 거기서 살게 됐네, 인저. 거기서 인자 얼마 동안 사는데, 집이 궁급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아, 내 집에 좀 갔다 오겠다.”

고. 분명히 당황해 한단 말이야. 야 그 사람이,

“아이 내가 집에 갔다 오겠다.”

고 그랬더니,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아, 왜 안 되냐?”

고 말이여.

“아이,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길 거라.”고.

“무슨 곤란한 일이 있느냐고. 내 갔다 온다.”

고. 그래서 겨우 허락을 맡아가지고서는 그 집을 어 나섰어. 그러니 짝 내려 와서 자기 동네까지 오는데 벌써 날이 저물었지. 달이 휘영청 밝은데, 동네 길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데, 웬 영감 하나가 저쪽에서 이렇게 접점 다가오더니, 말을 건넨단 말이야.

“어, 젊은이! 지금 어디서 오, 오시냐?”

“아, 나 나는 우리 집에서 온다.”

고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혀를 끝끝 차면서,

“젊은이, 참 큰일 났네.”

“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어떤 색시하고 같이 살겠지.”

“허 그렇습니다. 그 영감님 어떻게 아십니까?”

“그게 사실은 사람이 아니네.”

“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지금 살다가 오는 길인데.”

“정 의심스러우면은 한 번 가 보게. 가보고 다시 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세요.”

아 그래서,

“아, 그럼시다 그럼.”

그러고서는 인제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 올라가서 가만히 그 지역을 보니까 집이 없단 말이야. 그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숨어서 가만히 보니까, 큰 바위 밑인데 지네가 두 마리 있는 거야. 큰 지네 한 마리가 있고 작은 지네가 있는데. 아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영감님 말이 맞아. 가만히 빠져 나왔어. 나와가지고서 그 영감님한테 다시 와 가지고,

“아니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같이 살았던 여자가 지네란 말입니까.”

“맞네. 그 지네가 천년 묵은 지넬세. 자네는 이제 큰일 났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빠져 나갈 길은 없습니까?”

“길이 하나 있지. 그 지네를 자네가 죽여야 되네.”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 사람아! 그 지네를 죽이기 전에 자네는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네. 어디를 가던지 그 지네가 따라갈 걸세. 그러니까 그 지네를 죽여야 하네.”

“그러면 영감님이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러지.”

그러더니 곰방대를 하나 주는 거야. 그러면서 담배도 주고.

“그러면 이것을, 담배를 계속 피우게. 담배를 계속 피우다가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면은 그 여자한테 딱 침을 한 번 뱉어 보게. 그러면은 지네가 죽을 걸세.”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영감님이 준 담뱃대를 가지고, 곰방대를 가지고 다시 인제 갔어.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이상하게 가보면 밤이야. 그래서 딱 대문을 들어서니까, 어제 저녁엔 분명히 없었던 기와집이 다시 있어. 그래서 대문을 들어서곤, 들어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가 나왔는데 영 풀이 한풀 죽은 모습이야.

그저 아무 소리 앓고선 방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이 여자가 얼굴이 핑장히 당황해 하고 초조해 하고 그래.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서 어 이 젊은이도 아무 소리 안하고 담배를 빼끔빼끔 피우면서 생각을 했어. 담배를 다 피우면, 그러고서는 인자 그 침을 딱 뱉어

놓면 저 지네가 죽을 거다. 그 담배를 피우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어차피 죽을려고 산에까지 왔는데, 그래도 저 여자 때문에 얼마
 동안이라도 그래도 행복하게 지냈는데, 아휴 차라리 나야 어차피 죽을 몸,
 내가 비록 지네라고 하지만 나한테 잘 해줬는데 내가 죽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 담배를 다 피우고 침을 뱉어야 되겠는데,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고서는 불끈 일어나서 창밖에다가 침을 탁 뱉었어. 그런데 별안간 이
 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막 창밖에서 그냥 영감 비명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깜짝 놀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자기 지네 색시가 채주를 세 번
 훌쩍을 딱 세 번 넘더니 더 이쁜 여자가 뒀어. 그러면서,

“서방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일어요.”

그랬더니, 그 지네 색시가 그러는 거야.

“어제 어떤 영감을 하나 만나셨지요?”

“아 그렇소.”

“그래, 그 영감님이 그 침 나한테 뱉으라고 했죠?”

“그렇소.”

“그것은, 사실은 구렁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릴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에 큰 구렁이와 지네가 7년을 같이 살다
 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사람
 으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내기를 한 거야.

“한 사람을 구해 주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갚으면 지네가 사람이
 되는 거고, 은혜를 안 갚고 침을 뱉으면 구렁이가 사람이 되는 거고.”

둘이 이런 약조를 하고서 내기를 한 거지. 그런데 이 짧은이가 도저히 지
 네한테 침을 뱉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어서 밖에 침을 뱉었
 는데, 그 때 어 그 구렁이가 옆에 창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독한 진을

쏘여, 저 몸에 묻고, 침을 뱉으니까. 거기서 이냥 죽은 거야.

“내다 보라.”

고. 내다보니까 진짜 큰 구렁이가 하나 죽어, 죽어 있어. 그러더니 그 지네 색시가,

“저는 이제 완전히 사람됐습니다. 사람입니다.”

이러고 감격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네 색시, 그 지네 색시가 사람이 됐지. 그 젊음이하고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네. 끝이야.

3) 민요

1 모심기 노래

이병직(85, 남)/종리T 1악

[외촌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앞의 묘지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그 관련된 실제적인 일화들을 말씀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옛날에 전해 들으신 민요나 잡가가 있는지 물었더니, 한참을 사양하시다가 몇 소절을 불러주셨다. 제보자는 병을 앓으신 후로 목이 거칠어졌다고 하시며 음영조로 불러 주신 것이다.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모를 심자 모를 심어
빠지지 말고 게자리 놓지 말고 심자
여기도 하나 심고
여기도 하나 심고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다 심어 보자

게자리, 게자리라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풀고루 심어야 되

는데, 여기 심고 여기 빼놓고 심는 것(손짓) 게자리라 하거든.

게자리 말고 풀고루 심자
너도 심고 나도 심자
풀고루 심자 여기로 심자

② 옛날에 옛날에 감자 새끼가

이동욱(66, 여)/중리T 2앞

[마을 길가] 박종수, 강현모, 김동훈, 김용희, 김재숙, 송미나, 최혜숙 조사(1996. 5. 18.)

정순자 할머니댁에서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설 때,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 뵈게 된 할머니이다. 할머니에게 좋은 이야기 하나 들려달라고 부탁하자, 처음에 사양하시다가 짧은 노래를 하나 부르셨다.

(옛날에 옛날에) 감자 새끼가
직 아버지 팔아먹고 도망가다가
들켰네 들켰네 순경한테 들켰네
순경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별로 받아라

그것 밖에 모르겠다. [조사자 : (웃음)무슨 소리에요? 민요예요?] 우리 나라서 옛날 이야기 아이가. [조사자 : 아하 재밌다.]

여 백

6. 상하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승연, 손명기, 양권석, 장선호, 길성진, 김유미, 양윤정, 지성원, 최명신 조사(1996. 5. 18. 25.)

상하리는 구성면의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수원과 용인을 잇는 새로 생긴 국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이 상하리도 중리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이 북쪽과 남쪽에 있어 남동에서 서북쪽으로 길게 뻗혀 있는 형상으로, 마을에 큰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상하리는 용인군 동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상지석, 하지석, 수원동을 합해 상·하지석의 이름을 따서 상하리라고 하여 읍삼면 지역에 편입되었다.

이 상하리의 자연마을로는 갈곡, 상지석, 하지석, 수원동, 민제궁이 있다. 갈곡은 칩이 많았으므로 갈골, 갈말골이라고 한다. 하지석은 아래핀돌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고인돌이 두 군데 있어 아래 고인돌이 있는 쪽의 마을을 하지석이라 칭하고 위쪽에 있는 마을을 상지석 즉 윗핀돌이라고 한다. 수원동은 상지석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부터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 장수하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이와 달리 경안천과 신갈천의 물줄기가 갈리는 수원지라는데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그리고 민제궁은 꼴안이라고 하는데, 숙종의 장모가 되는 풍창부부인 조씨의 묘소와 제실이 있는 민씨가의 제실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 설화

I 독수리 새끼 구해두고 살아남 사람

임선옥(76, 여)/상하리T 1왕

[상하리 지택] 박종수, 강현모, 김승연, 손명기, 양권석, 장선호 조사(1996. 5. 18.)

조사자는 대전에 올라와 주어진 장소인 상하리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노인정을 찾았으나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을 묻자 제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조사자들이 택을 방문하였을 때 쉬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반갑게 맞아주었으나 ‘갑자기 이야기가 생각이 나나’ 하면서 잠시 후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어렸을 때 증조부한테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인저 말하자면 그 저 거시기 책을 끼고서, 옛날에 왜 저기, 저기 있지. 공부시키는데, 큰 글 가리키(가르치)는데, 천재들 가리키고 하는 선생님한테 가는데. 거기다. [조사자 : 서당을?] 서당을 보내는데.

보내는데 가다가니 보니까는 낭구꾼 애들이, 한 몇 명이 서서 독수리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서는 그냥 공을 치더라, 독도리.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쌍하거든, 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런게,

“애 애들이! 그 독수리 나 줄래. 내가 돈 오십 원만 줄테니까?”

오 전이지. 그런게 오십, 그때는 오 전께, 오 전, 오 전일 꺼야. [조사자 : 할머니 오십 원이 아니죠?] 응. 오십 원이 아니고. 그래 주니까 개가, 그 사람들이, 아 이것 죽일건디 뭐, 오십 원, 오 전 준다는데 안 줘, 얼른 찾지. 얼른 준께, 이 이놈이여 공부는 하러 안 가고서 집이루 막 때(뛰어) 왔거든.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거 아버지랑 엄마랑 야단하는 거지.

“너희들이 자식 같칠키라고 했지, 왜 가서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왜 저기, 도로 집이로 왜 오느냐?”

고 그런께.

“아니라구. 이 내가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 내가 샀느니라구. 애들이 공을 치구. 이것 불상하지 않느냐?”

구 하니께.

“오늘은 내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못 해도, 이걸 집을 저서 잘 해 놓고서, 놓고서는 무슨 인저 저 거시기 짐승을 잡아다가니, 고기도 잡아다 메기고, 이제 땅개미도 잡아다 메기고 그럴 꺼라고 안 된다.”

고 그러니께.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옛날에 손자 하나를 뒀다가 구여우(귀여)니께,

“내가 할테니, 너는 얼른 너른 가라. 얼른 댕장이 공부하러 가라.”

고. 그래 이놈이 그것 잡아 놓았더니, 학교 가서 공부가 돼야, 그거때미. 그거가, 독수리 새끼 어떻게 되는게미, 그것때미 공부가 돼야. 가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구 집으로 기냥 뛰어와 보니께, 참 할아버지가 잘 해 놓으시고는 고기를 잡아다가니 메기고 헌단 말여.

그런게 날마다 인저 그 할아버지가, 개가 먹기는 게 할아버지가 메기는 거야. 할아버지가 하는 거여, 그건 공부해야 할테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인제 이력저력 하다가니 독수리 새끼 완전히 다 컸거든. 그러니 그 독수리도 새끼를 까야지. 그것도 혼자만 그렇게 기르며 뭐 하, 할 수가 읍지. 그래서 손주를 하루는, 손주도 크고, 하루는 불러가지고서는,

“만물 짐승이란 게 새끼를 가서 낳겠다고, 저럴 저걸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께는 내 놔 줘라, 가라고 지 집으로 보내라. 그래야 짝을 맞춰서 가서 저기 이 세상에 난 바람이 있지, 할 꺼 아니냐!”

그러니께. 그때만 해도 애들이래도 암만 어른 말이 무서우니께,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억지루다가니 그냥 독수리를 이젠 막,

“이젠 네 갈 디루 가라구. 그만큼이나 컸으니까.”

그라구 막 장대미를 가지고 내두르구 그래두, 이놈의 독수리가 안 날라가구 도로 드르구, 도로 드르구 그러거든. 도저히 인저 할아버지가 화를 내고 걱정을 하시구. 그래서 할 수 없어서는 그냥 독수리드러 진언을 했어.

“내가 너를 죽는 거 길러 놔 줬으면, 너도 가서 한 때를 보고 살아야지. 여기 와 노다지(항상) 있으면 너 하나 죽여주면 고만 아니냐. 그런게 얼른

다른 데로 가라구. 가서 너도 새끼를 까서 살으라.”

구. 아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에헴 횡 날러가더라, 한없이 그냥. 그렇게 그날로 보냈더니. 근데 개가 커서 인자 장가를 가게 됐던 그거여. 그렇게 컸으니까. 장가를 가게 되서 장가를 갔는데, 먼 디로다가니 장가를 해서, 집이 부자집으로 잘 살고, 또 아들도 훌륭하구 그러니까. 가서 장가를 보냈는데.

첫날밤에 딱 됐는데, 어찌 소, 저 대변을 보고 싶다 그거여. 밤이. 근디 ‘첫날밤에는 언제든지 문턱을 한 번 건너오면 다시 건너가지 말으라’는 거여. 웬 대변을 보고 싶으니까,

“아, 내가 대변을 보고 싶어서, 천상 내 대변을 보고 오야겠다.”

고 열, 색시더러, 앉아있는 색시더러 그러니께는,

“걱정하지 말으시구, 여기 요강이 있으니 여기다 대변을 보시라구.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압두 없는데 내가 치겠다구. 걱정하지 말고 쌓아라.”고 허니께.

“세상에 장부가 어떻게 방에서 대변을 보고 있느냐. 그런게 당치도 않은 소리라.”

고 그러고서 확 뛰어나가는 바람에, 기냥 뛰어나갈 때 기냥 색시가 기냥 도포자락을 꼭잡아 붙잡아단 말여. 붙잡았는디, 거기서 백얏에 호랭이가 있다가니 그냥 신랑 채가지고 내뺐지. 도포자락 한 자락을 주먹에 쥐었던 말여. 그 찢어져서 나가서, 어디 되게 쥐어순께. 호랭이는 끌어가고 색시는 안 놓구 그런게, 한 조각이 떨어져서 주먹이 췌 있어, 이렇게. 그래서 (기침) 그렇게 췌 있는데, 호산이 갔은께 할 수 읍지 뭐. 어디가 ‘아야’ 소리 어떻게 할 거여. 할 수 읍지, 호랭이가 업어 갔으니.

그런데 이놈의 호랭이 등어리, 폭신한 등어리 인저 타고서는 한없이 가는다, 당체 뭐 닭이 울어도 안, 지 집을 못 찾아. 얼마나 먼 디로 갔는지. 거. 비호같은 짐승이 업고는 가는다, 한없이 가더니 부여 먼동이 트고 먼디 사람이 불만한 안 빌만한 하니께는, 저희 집에다 갖다 놓는디 보니께는, 한 높은 산 긴긴 바위 있는 그 밀구녕에다가니 갖다가니 놔두는디, 갖다 놔두고 저도 힘 드넌지,

“휴!”

허고 한숨을 쉬더니, 그 집 굴로다가 들어가더니만서도 새끼를 한 여섯 마리 끄내가지고서 그냥 온단 말이지, 나온단 말여. 여섯 마리를 끄내가지고 나와서는, 등어리를 한 번 발로다가 탁 굶는다, 그때만 해도 옛날에 부잣집 아들이라 인자 도포 있지, 두루매기 있지, 그러고 인저 저기 마고자기 있지, 재끼 있잖아. 넷 이상을 찢어지더라. 가만히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신랑이 생각하기에, 그럴 짝에 얼른 생각하기에,

“자 독수리! 너는 나 죽는 걸 보느냐? 나는 너를 살려 주었는데?”

그러고서는 이렇게 건강동이란 것이 정신을 말짱하니께, 획 바라다 보니께는 비호같이 독수리가 들어달라 오더라네. 독수리가 비호같이 들어달라 오더니, 볼 거 없이 호랭이 새끼 여섯 마리를 다 찢더라, 옆구리에다. 그계 닭 그런 것도 막 잡는 거거든. 이렇게 찢는 거거든. [조사자 : 이렇게요?] 응.

이 쪼그만한 게 그까이 것 뭐 집어서 덮석 옆구리에다가니 쪽 찢대서 다 찢버리더라, 그냥. 다 찢더니 그냥 달만 안 달만, 달만 안 달만 날라가는디, 그냥 이놈의 호랭이가 미치겠지. 새끼를 다 물고 가니깐. 미칠 거 아녀, 환장할라고 하지. 그저 달만 안 달만, 그저 땅이 그저 와서 쫓아올만 하면 또 내빼고, 쫓아올만 하면 또 내빼고. 디립대 가는디 한없이 갔어요. 그때 그 신랑이 가만히 생각해,

“자, 독수리가 나를 살르라고 물고 가는데, 내가 여기서 가 봤자 몇 발작이나 같건가. 잉 지친 사람인다.”

그래서 가만히 쳐다 보니까는 굴도토리 나무가 하늘로 바중한 게 하나 있더라. 클리 올라갔어 인저, 한없이 그냥 올라갔어. 올라가서 가만히 내려다 보고 앉았으니께는, 한 몇 시간 됐는디, 한 점심 때쯤 거반 됐는디 오더라. 그만 눈에다 불을 확 키고 오는디, 아무 것도 못 가지고 그냥 오는 거여. 그런게 이놈의 독수리는 갖다가니 기냥 바다, 바다에 집어넣어 버려고, 지 새끼를. 바다에 집어 내뺐지고 날라가 버린다 이말여.

그러니께 다 죽여쓰께 뭐, 여기서 밥이나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래서 와 보니께는 밥도 읊지. 새끼도 잃어버렸지. 이놈의 이게 그냥, 이젠 호랭이

도 미칠지경이지 뭐. 새끼도 읊지 밥도 읊지, 이젠 어떻게 할 거여. 그래가 지고서는 그냥 하 냄새는 나니께는 둘레둘레 보더니, 어디 도토리 그 굴 도토리 나무를 이렇게 바라다 보니께는, 거, 거기 있거든.

그러니께 열바람에 기냥 한 번 뛰어단 말여. 거반 다 올라오더랴. 뛰니가 거기를. [조사자 : 호랑이가 뛰니까요?] 응. 힘이 장사니까. 거반 다 올라오더니, 양중에 두 번째는 못 다 올라오더랴. 그렇지만 뛰을 적에는 그 힘으로 뛰었지만은, 내려질 적에 무슨 힘이 있나베. 내릴 적에는 보니까 그냥 내려졌지. 그렇게 해서 한 중간쯤, 한 서너, 네댓 번 그 짓을 하더니, 양중에는 못 올라오더랴.

인제 뺏으려진 거야, 아주. 그래 저 놈이 죽었나 안 죽었나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가만히 거기서 쳐다보다가 가만히 내려와 낭구를 하나를 꺾어가지고서, 낭구에서 이냥이냥 해 보니께 꿈쩍 안거든. 죽은 게 확실하단 말이지.

그 옛날 장도칼을 가지고 대냈어. [조사자 : 장도칼요?] 응. 장도칼을 다녀. 옛날 칼 하나를 가지고, 장도칼을 가지고 대냈어. 은장도를 가지고 땡겼여, 남자구 여자구 은장도를 하나씩 가졌거든. 그러니 시집가는 색시 집에 은장도를 가지고 가고, 신랑도 은장도를 가지고 있었지.

자 은장도를 내가지고서는, 니려와서는 그냥 배때기를, 호랭이 배때기를 갈려서 뜨거운 간을 인저 끄내서 먹고 이려고서. 인저 도포니 뭐 두루매기니 뭐 잠동사니를 다 똥똥 뭉쳐서 다 씹어지고 그래 씹어지고 이제 거지가 되는 거지 뭐. 나오면서, 그럭저럭 나오면서 하루 밥 한 때도 얻어 먹고, 그러나 못 얻어먹을 때도 있고. 한디(밖앗)서 잠을 자가매 그렇하고 가만히 오는 판인데, 이제 아주 거지가 된 거여. 양지쪽에서 이나 잡고, 시수도 앓고 인자 그지가 돼버린 거야.

그치만 이쪽에서는 인자 그냥 손주가 호랭이에 물려갔으니 야단이 날 거 아녀. 야단 벼락이 났지. 그러는 판인데, 인제 개는 인제 그 신랑 인저 거지가 되어가지고서로 색시 집으로 오는 거여. 어딘지도 몰르고 덩굴고, 제길 장가 가서 뭐 알아. 어디가 어딘 지도 모르고 옛날이야, 지금이야 약으니까 알지만 그때야 차가 있어 뭐 있어. 아무 것도 없지. 옛날 인력거

백에 없었어요. 인력거.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 그래 오다가니, 오니까는 아 밥을 좀 얻어 먹을라고 했더니,

“아, 이 새끼야! 저기 저 큰 부잣집에 가서 얻어 먹어.”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소리가,

“에이 참 불상하드라. 애통하는디 에이 호산이가 갔어. 작년 이 때가 됐나 뻐, 어째 내.”

자기네들끼리 그러는디. 거기다가 밥 얻어 먹을라고 자꾸 떠박질르고 야단하고 발길로 차고 그런단 말여. 그래서,

“그 집이 어디냐?”

고 그러니께.

“저기 저쪽 저 집이라.”

고 한단 말여. 그래 그 집을 향하고 갔단 말여. 가 보니께 울고 야단을 치는디 참 굉장하단 말여. 그러디 신랑이 호산이 갔다고 별 수 없는지랴. 가만히 보니께 별 수 없는 조화더랴. 그래서는 그 할아버지가 사랑방에 앉아서 지침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거 할아버지한테 들어갈라고 하니께, 이 그지가 들어갈라고 그러니께는 못 들어가게 되서, 그 종들이 그냥,

“이 새끼! 어디를 들어 가느냐?”

고. 그러문서 잡아닥뜨리고 잡아닥뜨리고 허니께, 그 할아버지가 보시고서는,

“가만 내버려 두라. 그런데 또 무슨 일 있는지도 모르겠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께.

“할 말은 지가 뭐 있겠느냐고. 붓하고 먹하고나 종이하고나 좀 주시라고. 그러문 제가 저 할 말을 좀 할아버지한테 써서 드리겠다.”

고 그러닌께. 옛날에 글이란게 좋아했으니께. 그러문 종이하고 먹, 먹하고 붓하고 해서 밀짚하고 해서 내 찻단 말여. 그러니께는 그 사람들더러,

“가만 내버려 두라고. 뭐하는지 가만 내버려 두라.”

고.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그냥 저기해가지고서는 지가 벌에서 거 독수리 가지고 예, 거시기 한 꺼(거기)까지 쪽 내려써가지고서는 갖다가니, 할

아버지한테를 갖다가니 드리미니께, 별 수 없는 자기 손주 사원디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여. 뭐 가지고, 증거가 없지. 그러니까 손녀 딸한테로 쫓아 들어가서,

“울길랑 고만 두고 가만 있거라. 너 그 네 남편하고 이별할 적에 뭐 폐적(표적)이 없느냐?”

고 그러니께.

“첫날 밤에 이별하는데 무슨 폐적이 있느냐고. 무슨 말 한 마디나 해 보고 내가 저거 했느냐고. 폐적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그러나 한 가지 거는 있다고. 도포자락 한 자락은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이 막 지칭(제칭) 밑에 있다고. 그 저 상 거 지칭 밑에 거기 있다.”

고. 그래서는 가서는 그 얘기를 하니까는,(기침)

“그 웃은, 그 입었던 웃은 엇째느냐?”

그러니께.

“이 짙어진 게 기라.”

고 그러거든.

“그러믄 한 번 끌러 보라.”

고. 그래 끌러놓고서는 그 조각을 갖다 대니께 그 놈이지 뭐. 질랑 쫓은게 속은 깨끗하지, 똑 같으지 뭐. [조사자 : 그렇죠] 위만 드러워졌지 속에 똑 같으지. 그러니께 고거 갖다가 대보니께 자그 사위, 정말로 고기서 똑 떨어져진 거(니)까 딱 들어 맞았던 말여. 그래서 다시 장가를 가고 훌륭하게 하고 살더라. 됐어 인저.(일동 웃음)

만물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라고 은혜가 없는게 그까지께 사람이냐고. 그러니께 만물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그래 사람이 이 따우로 하고

2 도깨비가 된 빗자락

최경량(72, 여)/상하리T 1앞

[상하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승연, 손명기, 양권석, 장선호 조사(1996. 5. 18.)

앞의 긴 이야기를 마치고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이것저것을 유도하여 보았지만 채록할 수가 없었다. 그래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다니다가 집에 혼자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났다. 조사자가 옛날에 도깨비나 귀신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그 각시 때여. 나 각시 때. 각시 때 잉 할아버지네 옛을 꼬아가꼬 가는데, 탐이. 그렇게 저기 도깨비불이 질질질질질 흘러가마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네 가서 그 소리를 하니까, 동네꾼들 보고,

“진짜 도깨비인가?”

이 동네꾼들 보고 얘기해서 동네꾼들이라, 그 그튼날 잉 그러니께 감춰서 봤다. 감춰서 보니까, 참 질질질질 이렇게 흘러드라. 흘러서는 가서 막 꼭 붙드러가꼬서는 낭구에다, 낭구에다 저 새내끼로 동동 감꼬 왔다. 붙들 붙을 붙드러 갖고 [조사자 : 낭구에다가요?] 나무에다. [조사자 : 나무에다가요] 선 나무에다.

그렇게 붙들어 맨는데, 그 그튼날 가 보니께 빗자락 일러라, 빗자락. 빗자락을 그렇게 묶었드라. 그런데 빗자락에가 피 묻었드라. 여게 그래서 되여.

3 독계를 잘 지내고 안 자식

최경량(72, 여)/상하리T 1앞

[상하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승연, 손명기, 양권석, 장선호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끝내고, 조사자가 이것저것을 묻다가 '지네 장터'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네 부인, 나무꾼과 선녀'의 유형이 결합된 보은담의 성격의 이야기이다

옛날 얘기해야지.(웃음) 옛날에 으 아들 하나를, 아주 잘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는데, 에 하루는 중이 오더니,

“시주 좀 달라.”

고 하드랴. 그래서 인저 이이 문 대문을 열고 주니께, 고개를 이렇게(흉내를 내며) 잉 안을 들여다 보더니, 어린네 하나가 걸어 대니까, 그 집 어린애 하나 외아들이니께 배갈에도 안 내보내고 별거로 키지. 그러니께,

“저, 게 내일 내보내라고 내보내야지 집에다 두며는 닷새도 못 살고 죽는다.”

그러더랴. 그러니 그 소리 듣고 그냥 말어. 근께 시주 주고 가는 놈 막 붙들어 갖고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고 하니께.

“애가 이렇게 명이 짧다.”

고 하드랴.

“나 하라는 대로 허잖으면, 나 뭐허드러 당신네 가자고 그러느냐?”고.

“들고 가자.”

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말 들으며는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

고 그러니께.

“가자.”

고 하드랴. 으,

“말 듣는다.”

고. 그래서 가니까.(웃음) 으 가니까 저기 옛날에 얘기 잘 했는데, 못 허건네. 가니까, 정신 났네 다시 허여.(녹음 중단) 으,

“아주 우리 아들 좀 살려 달라.”

고 그러니께.

“내 말 들을려나?”

고 해서.

“죽어도 들어야지. 그거 하난데 안 듣느냐?”

고 그러니께.

“내일 나날이 보따리를 해서, 짊어져서 내보라고 하더랴. 저 산꼭대기로 해서 내 보내라.”

고 그러니께. 애가 갈라고 혀, 엄마 밑에서. 참 달래갖고서는,

“니가 그래야 오래 산다니께 가라.”

고. 옛날엔 다 그렇게 명들이 짧았어. 그래서는 나날이 보따리를 해서 그 너머를 넘어가니까 머리 쉬퍼런 더꺼머리 총각이,

“아주, 으 도련님! 어디 가느냐?”

고 그러더랴. 그래서는,

“이렇게 중이 와서 으, ‘나 명 짧다’고 해서,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명이 길게 나가 고생하고 들어 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

고 그러니께.

“암디도 가지 말고 나만 따라 다니라. 따라 다니라.”

고 그러드랴. 그래서 낮에는 잘 텔고 다니는데, 밤에는 옛날에 선황뎡이머는 돌막 잔뜩 싸여, 싸메고 그런 선황뎡이 갖다가, 선황뎡이 그 전에 옛날에 집도 있었어. 그 집이가 혼자 재고서는 자기는 없어지더랴. 그러고 자고 그 그튼날,

“도련님! 잘 잤느냐?”

고 그래서.

“왜, 나 혼자 두고 그러고 다니느냐?”

고 그러니께.

“혼자 자고 그렇게 해야 잉 고상을, 나중에 명이 질다고만, 도련님은 으 오늘 저녁에도 혼자 자야 한다.”

고 그러더랴. 그러고서는 또 나가더랴. 방, 음음 저기 선황뎡이 집 하나 또 있는데 가서,

“예(여기)서 도련님 자라고 그러드라. 내가 하라는대로만 하라.”
고 그래서 앉아 있으니께 그지 하나가 들어 오더라. 거기로 선황댁이 집
이루. 그지가 들어와서 그 그지를 아룻목에다 뉘고 개를 옷목에다 뉘고서
는,

“도련님! 나 하는대로 요렇게 꿈쩍 말고 있으라.”

고 그러드라. 그러구서는, [조사자 : 거지를요?] 응. 그러고서는,

“나는 다른 데로 가 자야 한다.”

고 막 가더라. 그래서는 그렇게 했더니, 참 밤중쯤 되니께 호랭이가 들어
오더니, 이놈도 아룻목차도 냄새 맡아보고, 옷목차도 냄새 맡아보고 허더
니, 옷목(아룻목의 잘못)차 가서,

“아득. 아득.”

그 자리에서 다 깨물어 먹더라. 그러니께 그 그지를. 깨물어 먹고 날이 밝
으, 흰허게 밝으니께 또 와서 그러더라

“엇저녁에 도련님 고상했죠? 무서운 거 봤죠?”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데 나 자, 그놈 먹고 나도 먹을라나 했더니, 그냥 가더
라.”고.

“그러면 인저 이 나는 더 이상 인저 도련님을 인저 못 살리니까, 인저
이 이게 끝이라고 그러더라. 끝이니까.”

으 저 선황댁이 집이 저기, 저기 하나 갈쳐주면서 또,

“거기가 혼저 자라고 그러더라. 자머는 또 무슨 수단이 생긴다.”

고. 그래서는 그래서 그렇게 자니까, 그러니께 그게 뛰여. 그 그 학자가 한
문글을 읽더라. [조사자 : 거기 가니까요?] 응. 그래서는,

“나 좀, 여기 좀 들어가겠다.”

니께. 쳐다도 안 보고 끌어다가 자기 무릎 밑에 놓터라.

“아무 소리도 말라.”

고 무릎 밑에 놓고는 또 공부를 하더라. 근디 조금 있더니 호랭이가 오고서,

“아이 달라고 그러더라. 시간 돼서 먹어야 한다.”

고. 꼭 옛날엔 산신령이 시켜야 먹었지. 사람 안 잡아 먹었다. 지금도 안

잡아 먹잖아. 산신령이 집, ‘시간이 됐으니까 달라’고 그러더라. 그래도 안 주니까, 이 준방을 막 입으로 막 물어 뜯드라. 물어 뜯어도 안 내주니까, 그 뒤로는 아무 소리 없어서 그 학자가 문을 열어 보니까, 호랑이가,

“고 시간이 넘으려는 나는 죽는다.”

고 하더니 죽었더라. [조사자 : 호랑이가요?] 응. 그런데 그 저기 그 도련님이 시킨대로 그렇게고 나설랑은 이, 저 하이 저기 뭐여.

“더 올라가려는, 거기 더 산꼭대기로 올라가려는 이 선녀들이 앉았을텐게 그루 가라고 하더라. 그러구서 계(그곳에)가 가 자라고 하더라. 자면은 이렇게 선녀들이 나타날 거라.”

고. 그래서 인저 그 꼭대기서 올라가서. 자니까, 그 그튼날 그래 또 자니까, 그렇게 선녀들이 오너서는,

“고만 자라고. 웬 잠을 이렇게 자느냐고. 고만 자라.”

고. ‘고만 자라고, 고만 자라’고 하느디 그래도 그냥 잤다. 그러구서는 이 그 먼저번이 그, 아이고 꺼꼴로 바로 되네. 저기 그 더꺼머리 총각이,

“거기 선녀에게 가서 얘기하고 나서, 허구 나면, 허구 나면 그계 끝이랑 해 가며, 나는 잉 도련님네 눈뚱에다가.”

옛날 저 뚱제들 안 지내여. [조사자 : 뚱 제사요?] 뚱, 뚱, 뚱제 지내여. 떡 해 놓고.

“뚱제 지내느디, 그거 은어 먹고 도련님네 눈뚱을 지켜주고 내가 그렇게 산 놈이라고. 거기서 위해서 난 그거 먹고 산놈이니께, 그 은혜를 갚느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인저 선녀들 앞에 못 간다고. 선녀들이 있는 디를 가서는 그냥 잉 거기 있으라.”

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선녀들이 인저, 인저 거기서 이상하게 되네. 선녀들이 그러구선 잠 깨보니까, 바우 위가 그냥 자기 지가 앉았드라. [조사자 : 바우 위요?] 바우 위가. 바우 위가 앉았드라. 지네는 그 소리 듣고서는,

“나는 인저 도련님! 그렇게 한 번만 고생하면 된다고 하면서, 나는 간다고. 그 눈뚱이다가 해마다 지성이나 들여 달라.”

고. 해가마 가느디, 커다란 지네가 막 널러 가더라. 그 뚱으로 또 간다고. 그거여.

4 구렁덩덩 신선비

최경량(72, 여)/상하리T 1앞

[상하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승연, 손명기, 양권석, 장선호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지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특색이다.

옛날에 딸을 삼 형젤 낳다. 삼 형젤 낳는데 셋째 딸이 제일 예뻐었다. 그런디 참 한 집이가, 이웃지서. 그런디 한 집이는 엄마가 낳는디 구렁이를 낳다. 구렁이를 낳는디, 꺼꾸루 가네 또.

구렁이를 낳는디, 이 그 방에다 놓을 수 있어. 이 샓갓 있지, 머리에다 쓰는 것. 그거를 씌어서 잉 질(제일) 뜻뜻한 디가 굴뚝^{*} 뒤지. 굴뚝 뒤디 이렇게 덮어 놓고 덮어 놓고. 그 잉 그렇게 넘들이 구렁이 낳으니께, 다 오너 들여다 볼 꺼 아녀. 들여다 보고 하는디, 그 집 딸 싯 있는 집이, 큰 딸 이랑 작은 딸이랑은 오너 구경하더니, 이렇게 열어 보더니,

“아이고, 드러워! 저 구렁이 저 어떻게 하느냐?”

고. 두 애는 그러구. 또 막내는 들여다 보고는 그러더니.

“아이고 아주머니! 이 구렁덩덩 신선비 낳구먼!”

그러더라. 그 소리를 구렁이가 듣고는, 그냥 잉,

“그 집 셋째 딸을 은어야지, 나는 못 산다.”

고. 지 엄마를 그렇게 졸러더라. 옛날에는 구렁이도 말했다며. [조사자 : 네?] 옛날에는 구렁이도 말했다. [조사자 : 말 했다고요?] 응. 말을 했다. 지 엄마가, 지 엄마 보고는,

“니가 구렁인디 어떤 놈이 오너 살까마 그런 소릴 하느냐?”

고. 지 부모도 거기서두 인자 말 안 듣고 하면은, 자 밤이 자다 밤이, 아침이 일어나면은 구렁이가 가서 그냥, ‘딸 안 준다’고 문 열두 못 하구 나오게 똥을 그렇게 갖다 놓더라. [조사자 : 구렁이가요?] 응. 그렇게 심술을 치더라. 그래서는 인자 그래서 성가시니께 저녁마두 그렇게 심술을 피니

까, 오매가 오매 아배가,

“니가 구렁덩덩 신선비님 소리를 듣고 저러니까 니가 저질른, 사람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심술을 피고 똥이니 뭐니 별 걸 다 심술을 피니, 워치기 살것느냐고. 잉 그러니까는 니가 가거라.”

그러니까. 지 언니들은,

“그걸 구루, 구랭이 게로 시집 보내면 어떻게 하나?”

고. 지더른 다 시집 잘 왔는디,

“너 갈 맘 있냐?”

고 하니까. 두말 않고,

“간다.”

고 하더랴. 그 시째배가. 그래서는 인저 아 저 저 결혼식을 했다니면 그러. 구랭이허고 결혼식을 했는데, 잉 밤 인저 첫날밤을 치루잖아. 치루는데 이 그 구랭이하고 첫날밤을 치루는데, 밤 오란(오래 되었)디, 첫날밤이면 옛들 다 보잖남. 옛 보는디, 옛두 인저 다 끝난디, [조사자 : 예. 옛. 옛?] 옛. 옛. 옛 보는 것두 끝났어. 그러니까 밤중이 오라지, 밤이. 그래가꾸서는 앉아 있는디 구랭이가,

“물 좀 끓여 달라.”

고 하더랴. ‘물, 물 좀 끓여다 달라’고 하더랴. 각시 보고. 그래서 인저 아무도 읍고, 지 언니덜 기다로 뭘 꼼짝도 않고 있다가, 인저 지언니들 자는디 인저 물을 한 소락지 끓여다 갖다 노니께 거기 들어 가더랴, 구랭이가. 구랭이가 들어가더니 허물을 훌쩍 벗고 참 구렁덩덩 신선비가 되더랴. 남자 선비가 되더랴. 그러면서 그 껌질을 건져서 지 아내더러,

“아주 이거, 니 언니덜 뵈지 말고. 엄마 아버지도 뵈지 말고. 쟁인 장모도 아무도 뵈지 말고 니가 꼭 간직하고 있으라.”

고 그러드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기집애들이 너 야중에,

“너는 어떻게 이 말대로 뵈느냐?”

고. 마 오 그 구랭이 그렇게 사람됐다 해가마, 그때부터론 또 심술이 나와서 싸우고 그렇게 했다. 지 지 언니들이. 그러구서는 인저 하루는 그러드랴.

“너 아주 내가 하라는대로 해야지. 그거 잘 껌데기 간직해야지 음 내가 선비가 된다고. 물 속에서 선비가 된다.”

고. 그러더니, 그래서 잘 간직했는데, ‘간직하고 있는데 그이는 과거급제를 보러 가더라. 구랭이 선비 신선비가. 그러니 막 시험볼 때, 시험볼 때 그 둘째 년이라 훔쳐 갔어, 껌질을. 그래서는 거기서 시험 못 보고 그냥 오너서는, 아주 도로 구랭이가 되더라, 도로. 도로 구랭이 됐다. [조사자 : 끝난 거예요, 할머니!] 잉 그려. 도로 구랭이가 됐다.

5] 당대 천석지기 묘자리

김인준(75, 남)/상하리T 1와

[상하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승연, 손명기, 양권석, 장선호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시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조사자들은 이번에는 할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작정하고 할아버지가 쉬고 있는 집을 찾아 다녔다. 그러다가 집에 혼자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반갑게 구술하여 주었다.

떠꺼머리 총각인데 나이가 많았어. 나이가 많고 장가도 못 못 가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뭐 한 번은 그 사람이 그래,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갔셨단 말야. 그러니까 총각이 장례를 모실 수가 없잖아. 어려운 처지에 어쩔 수가 없었어.

자기 어머니를 거적에 다 들들 말아서, 지구서는 한없이 간 거지. 가서 어느 고개 길에 당도해 가지고서는 지계를 딱 바쳐 놓고서는 있는데 한심하잖아. 자기 어머니를 하나 묘를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 거기서는,

“옛다.”

하고서는 그냥 지계를 뒤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혔다.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냥 시체를 때굴때굴 굴러거든, 비탈에서. 그러더니 어느 덩굴에 가서 딱 걸려서 스더랴.

“아, 여기가 우리 어머니 묘자리구나!”

아덜은 지체 않고 거기다 묘를 그대로 썼단 말여. 그리고는 인저 해는 니 엇니엇 넘어가는데, 하늘을 바라라고 가만히 앉아 있을나니께는, 곧장 그 아래에서 그냥 천호탱이가 말을 타고 올라오드라는 거야. 말을 타고 올라 오더니, 아 그 뭐여 그러더니 그냥 말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영 일어나 지를 앓거든. 아 그래 천호탱이가 막 그냥 때리고 그래도 그냥 꾀작도 앓 더랴.

아 그런게 해는 넘어가니까 천호탱이가 그냥 말을 그냥 두고 가는데, 총각이 보다보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천호탱이 간질러서 말고삐를 쥐고 번쩍 일으키니까, 아 말이 벌떡 일어나더랴. 그래 올라 타고 싶어서, 총각 이 말을 타서 그냥 한없이 가서서 어디 충무, 거길 갔데요.

거길 갔는데, 근저 말은 있으니까는, 그 집에 객주집에 들어간 거지 인저. 들어가서 주인을 찾은 거야. 주인을 찾아가지고,

“오늘 하루 저녁 쉬어 가겠다고 우선 마냥 시장하니깐 저 뭐 술하고 떡하고.”

술을 먹고, 말은 있으니깐 돈은 한 푼은 없어도 나중엔 말이라도 잡히면 될 꺼 아니예요. 그래 방 하나, 물 받아 달라 해서 받아 주고. 그래 자는데, 근데 늦은, 이른 봄이래. 이른 봄, 찬바람 살살 불고.

그래 있는데, 밤중쯤 되니깐 문이 사르르 열린디, 찬바람이 술 들어오 드랴. 옛날에야 불이 있어, 캄캄한 밤에. [청중 :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두러누워 잘려고 하니깐, 시간을 딱 맞춰서 고 시간되면, 문을 사르르 열고 술 들어오드랴. 그러드래요. 하두 이상스러워서 보니깐, 밤에 이렇게 눈을 번쩍번쩍번쩍 히드래요, 땅바닥에.

그래 와 보는, 하는데, 이렇게 일어나 보니깐, 하 청어를 이런 걸 갖다가 방에다 막 물어다 놓는 거야, 고양이가요. 그래 청어를 물어다 놓고 나가고, 또 고 시간 되면 청어를 또 한 마리 물어다 놓고 나가고. 자꾸 그러 더라는 거여.

“웁지. 이거 이상스런 길조로구나!”

하구서는, 인자 옷을 주워 입고서 그 고양이 오는 데를 인저 기다려 가지

고 고양이를 쫓아갔어. 그러니까 아 그냥 해일이 일어가지고 가서 바다물을 치밀어, 거기다. 백사장으로 치몰아가지고, 하여튼들 그 뭐 청어떼를 잡다가 그냥 한없이 그냥 그 백사장에 다 몰아넣고 물이 쭉 빠지니깐, 다 그러든 청어는 잡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그냥 부지런히 들어가서 주인보러,

“여기 어디 새끼 좀 구할 데 없느냐?”

고. 옛날에는 새끼 꼬지 않았어요.

“새끼 얼마든지 좋으니깐 좀 구해 오라고. 그러놓곤 가서 술국 좀 끓여 놓으라.”

고. 그 해놓고서는 먹고 나가서는 그냥 말뚝을 두문두문 박고서 새끼줄로 짝 갖다 띄어 댔어요. 그 저 청어 모인 데를. 하 거 날이 밝으니깐,

“이건 내 꺼요.”

하니깐. 그 사람들, 그땐 옛날엔 ‘내 꺼요’ 하면, 그건 그땐 자기 꺼였어요. 그래 ‘내 꺼다’ 하니까는 그걸 팔았는데. 천석군이 땅을, 천석지기 땅을 샀어요. 그의 유래가 그 어머니 모의 자리가 당대 천석군이 자리래요. 당대에. 그래니깐 그 말이 거기에서 질려서 못 간 거란 말이지.

그래가꾸 당대 부자가 된거지. [조사자 : 묘자리 때문이에요?] 아. 묘자리 때문에. 그 묘자리가 그렇게 좋다는 거지. 아 당대 천석군 묘자리지.

6 임금이 방문할 자리를 안 지관

김인준(75, 남)/상하리T 1앞

[상하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승연, 손명기, 양권석, 장선호 조사(1996. 5. 18.)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아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여기 여 옛날에 숙종대왕이 그 뭐, 그 지금으로 치면 뭐 경호원인가 그

걸 하나 데리고 오는데, 지지대 고개 오는데, 어떤 총각이 저기 개울에서 뿔 득득 삼으로 파묻어. ‘질질’ 통곡을 하면서 파더래요. 그래서 숙종대왕이 그 저기 저 경호원 하나를 데리고서 인저 저기 피나리 붓다리 싸 들고, 그게 아마 순찰인가 뭐 그게 뭐야. 나왔단 말야 경호원하고. 그래 경호원 보러,

“저 저기서 뿔 좀 하나 물어 봐라.”

그러니깐.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서, 그 사람도 역시 총각이여. 총각인데, 그리 장렐 지낼 저기 형편도 못 되고 그러는데,

“쪼 근너 사는 쪼기 저 오막살이 집에 노인, ‘여기 아주 그냥 당일애 그냥 뭐, 쌀이 이백 가마에 뭐, 좋은 묘자리가 생길 거라는 좋은 터라’고 해서 여기다 묻느라.”

고 그러니깐. 그 사람이 인저 그 숙종대왕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여.

“어느 놈이 그 참 너를 불쌍하게 하고서는 좋은 묘자리를 안 잡아 주고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고 어디냐고. 가 보자.”

고 ‘거 어디냐’고 물으니까,

“저기 저 외딴집이라.”

고 그래 가 물어보니까, 참말 오막살이 집에 기어들고 기어나는 집에, 노인네가 주인 찾으니까 나오드랴. 그래,

“늬댁이시요. 어찌 왔소?”

그러니까.

“아니 여기 주인이나?”고

“주인이라.”고.

“그래. 당신이 저 아래 저 총각도 묘자리 잡아줬다른?”

“아 내가 잡아줬지요.”

“그래 그 사람이 지금, 뭐 자기 어머니 시신 하나 묻을 그럴 형편이 못 되는데, 아 좋은 자리라도 잡아 주야지, 그 따위 저런 물에다 갖다 묻으란 말이나?”

구 그러니깐.

“여보! 거 알덜 못하는 소리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나 좋은 자리인데

그러냐구. 방금 뭐 쌀이 이백 가마가 들어올 자리요. 좋은 묘자리 금방 생길 자리인데 어떻게 안 좋으냐?”

고 그러니깐.

“아, 당신이 그렇게 좋은 자리 알 것 같으면, 왜 이런 오막살이 집에서 사느냐?”

고 그러니깐.

“아 참 아무 것도 모르는 소릴 허들 말라고. 아 이 자리가 대한 나라 상감님이 오실 자리인데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러냐?”

고 그러니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깐 자기가 임금이란 말이여.

“그래 그럼, 그럼 여기 상감이 오신다면 몇 날 몇 시에 온단 말이요.”
그러니깐.

“가만히 있소. 내 책에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들어가더니 뭘 떠들고 나오더니, 대반 나와서 그냥 절을 하면서,

“상감님!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 달라.”

고 그러드래. 아 그 얼마나 잘 압니까. 그래서 그 분이, 그냥 그 저 총각이 쓰는데, 그냥 대반 가서 지필을 꺼내가지고 저기 수원 그때 부윤이라고 그랬나 뭐한테다 써 보냈데요.

“쌀 이백 가마에 묘자리 갖다 좋은 것 잡아 주라.”

고. 그래서 그냥 대반 그날로 쌀을 이백 가마 들어오고, 묘자리를 좋은 것 잡아주고.

7 새끼 세 발

임선옥(76, 여)/상하리T 2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성진, 김유미, 양윤정, 지성원, 최명선 조사(1996. 5. 25.)

조사자들이 마을에 도착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집에서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찾아온 내력을 설명하자 옛날에는 많이 알았는데 요즘 누가 그런 애

기 하나 하면서 좀 꺼려하였다. 옆에 있던 청중이 권하고, 조사자들이 다시 부탁을 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1주일 전에 다른 팀에게 구술한 적이 있는데, 추계리가 고향인 제보자는 학장 노릇을 한 할아버지가 고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다고 한다. 특히 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더라. 그랬는데 바보야, 아주 천치 바보야. 암것도 몰리. 근데 지엄니가 만나면 한 이십 살이 넘어지니까,

“저 오라질 놈의 새끼! 뭘 해야라. 아무 짝에도 쓸데없이. 바보가 됐으니 인제 뭘 햐. 아무 짝에도 못 쓰것는다.”

“그럼, 좁쌀이나 좀 한 되 내 놉. 내가 심고 올께.”

“제깃 바보가 뭘 심어.”

인제 뵈단 말야. 금방 심고 와. 어디다 파묻고 온 거여. 갖다 파묻고 온 거여, 가서. 구덩이 파고 파묻고, 좁쌀 한 되를. 심기는 뭘 심어 파묻고 온 거지.

그라구 그라구 하더니, 하루는 짚을 밤낮 축여가주구 나가더라. ‘저 놈의 새끼가 뭐 할라고 저렇게 축여가주구 나가나’ 그랬더니. 새끼 서 발을 파가지구 왔다 갔다 하더라. 날마다 새끼 서 발만 파가지구. ‘저 우라질 놈의 새끼가 뭐 저렇게 만날 새끼 서 발만 파가지구 저렇게고 대니나’ 했더니 하루는 그냥 그, 옛날에 시집살이가 좀 심했소.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그냥 물동이를 이고 왔다가는 깨뜨렸단 말이지. 그러께, ‘아이구, 거시기 도련님!’ 저 거시기 말하자면 옛날에는 총각이라고 했지.

“총각! 그 새끼 서 발 나 줘. 그러면 내가 정확히 내가 동이를 깨뜨렸으니 어떡햐. 몰래 내가 뭐 해 줄께.”

그런께.

“그럼, 여깁수.”

그래 뵈단 말이지. 그런께 쌀 한 말을 퍼다 주더라. 그 놈을 좇어지구 나가는 거야, 이놈이.(웃음) 좇어지고 나가니까, 아 글썽 큰 부자집에서 말을 한 마리 죽었다고 갖다가 떠밀어다 내빌라고 하더라. 그런께,

“내, 서 발, 한 말, 내 저기 쌀 한 말 줄게 그 말, 죽은 말 나 줄라우?”

아 그러니께,

아 그 문을 켜데 주지 안 줘, 쌀 한 말 준다는다. 얼른 줘지. 주니께 이 놈이 그놈을 가지구서 마전이를 갔어. [조사자 : 네?] 마전이를 갔어 인저. 말하자면 저 마전이는 말들을 전부 인저 저녁이는 갔다가 마전예다 매놓고 하루 술값을 받는 거여. 저녁 재워준 술값을.

거기다 가는데 저녁이 인저 어둑집한테 가서는, 그저 좋은 말을 낮에 봐 왔다가는 그 놈이 매놓으디 가서는, 그러니께 ‘우렁이도 두령을 넘어갈 피가 있고, 죽을 놈도 살 피가 있다’는 게 그거여. [청중 : 그래, 그래 맞아.] 그래 잘 갖다가 꿰 놓고, 잘 갖다 매놓고 그래서, 그 좀 그러고 죄 말을 갖다가니 참 돌맹이로 패서 죽은 말인께, 돌맹이로 패서, 그냥 유리작구를 맨들어 놓고, 그러구는 그 중 좋은 말을 끌러 놔 버렸어. 그라고 와서 자는 거여, 저의 말도 맏다고.

그러니께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께는, 죽은 말인께 나자빠졌지 뭘. 그 가만히 있으니까 죄 찢어발기고, 그런게 인제 좋은 말이 인자 땡기며 죽은 거 가서 훑아보고 그랬단 말이지.

“느의 말이, 날, 이 우리 말을 물어 죽었다.”

고. 아우성을 치니께는 할 수 없이 말을 쫓지 어떡하. 할 수 없지, 어떡하 쫓지. 그런게,

“가져 가라.”

그러구 쫓단 말야. 그런게 산 말을 가지고 나가는 거여. 나갔더니 아니 옆집 색시가 죽었다고, 부자집 색시가 죽었다고 그냥 갖다가니 가마예다 떠매서 갖다가 벌리라고, 갖다가니 문을라고 가지고 온단 말이며. 그러니께,

“내가 말 한 마리 줄 테니, 그 죽은 색시 나 줄라우?”

그러니께. 죽은 색시를 갖다 뭘 해. 갖다 문을 테지. 그냥, 그냥 장사를 지내고서 그냥 허 묘만을 써 놓고서 쫓단 말야. 그래고서 말 하나를 얻었잖아, 그 사람이. 그러니께 인제,

“이것 죽은 색시를 갖다가 어느 날 어떤 주막예다 갖다가 놔 달라.”

고. 그 사람이 배쪽곤해서 갖다 놔 쫓단 말이지. 놔 주었으니까 인자 갖다가니 인저 잘 갖다 뉘어 놓고, 그 사람들이 알아. 그래 죽을 적에는 다 원

삼 쪽두리를 해 놓거든. 아 죽은 놈의 색시를 잘 갖다가 뉘어놓고서는 혼자 말을 하는 거지.

“밤 두 상만 차려 오라.”

그래가지구서. 많이 먹어. 죄 앓어 인자 서로, 서로 주고 받는마냥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라고 있으니까는 그 집의 색시가 아주 참 잘 둔 색시가 있으니까. 새색시니까 한 번 들어간 본 거여.

“엄마 엄마! 나 색시가 저렇게 있었는데, 남자는 저기 나가 돌아다니, 나 갔은게 혼자 있으니까, 색시방에 가서 잠깐 놀다 올까?”

“그럼, 그래라.”

저 엄니가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죽은 색시 방에 들어간 거여. 아 죽은 색신께 죽었을 건 사실 아니여. 그러니까 조금 있다 들어와가지구선 그 색시가 죽었으니 나갔버렸단 말이여.

“이 방에 누가 들어왔느냐고. [청중 : 난리 났네.] 사람 죽었다.”

고. 아우성이 나네. 그러니까 살인죄로 몰리게 됐단 말이야. 들어온 사람은 저빨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럴 꺼 없이 내 딸을 데려 가거라.”

살인죄로 몰리까바니, 그 집에서 딸을 쥐버렸어. 그 놈을 가지고서 인저 집으로 오는 거여, 인저.(웃음) 색시 장가 들었으니까 좋을 것 아니여. 집으로 오니까는, [조사자 : 머리가 아주 영리하군요?] 잉.

그래가지 색시를 데리고 집이를 오니까는, 옛날의 색시가 보니까 참 잘 났거든. 옛날에는 장돌뱅이 있잖아. 뭐 짊어지고 다니는 장돌뱅이들. 옛날 이는 뭐 차가 있어, 뭐여 짊어지고 다녔어, 그전에는. 장돌뱅이가,(보니까) 바보는 바본데 색시는 이쁘거든. 그러니까는 인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나하고 수수께끼를 한 번 할래?”

그라는 거야. 바보 데리고. 그러니까,

“무슨 수수께끼야?”

“내 이 보화를 내가 장돌이 보화를 너를 다 줄테니, 내가 지면 다 줄려고. 니가 지면 색시를 나를 줄래?”

그러니까.

“그러자.”

수수께끼를 했던 말이지. [조사자 :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 옛날에 뭐, [청중 : 수수께끼 있어.] 수수께끼라고 한게, 아 그 사람이,

“천 년 만 년 물어도 안 튀기는 씨가 뭐냐?”

그러니까.

“그까짓 놈의 거 접시라.”

고 그랬던 말이지. 그런게 움 튀는 거야. 그러니까 ‘접시라’ 그런게, 접시지 뭐야. 접시를 천 년 만 년 물어도 짝이 나와? 안 나지. 그러니,

“나는 가르켜 냈으니께 니가 한 번 해라.”

그랬다고. 아 그까짓 놈의 거, 저 지나간 역사를 얘기하라는 거여 잉. 말하자면 그런게,

“산내끼 서 발, 동냥, 산내끼 서 발, 죽은 말, 산 말,(웃음) 이려고 죽은 색시, 산 색시?”

그러니까, 그 놈을 누가 알아? 지(자기)나 알지.(웃음) 그렇잖아 인저. 산내끼 서 발, 동이 하나, 동이 하나가 인저 죽은 말이, 죽은 말이 산 말이. (청중들 웃음) 죽은 색시, 죽은 색시가 산 색시. 지나 알지 누가 알아 그 놈의 걸.(웃음) 암두 모르지. 알 턱이 있어, 지나 알지. 그러니까 그 놈이 졌단 말이지.

“그럼,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니가 한 번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증인이 하나 들어. 그렇게 하다보니 쪽 뒀었던 말이지. 수수께끼는 수수께끼거든. 그래서 저서 그 보화를 다 얻었던 말이지. 아 이놈이 장가를 가서, 아 집이를 가서 잘하고 살더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암만 못 생겨도 저 죽을 궁리, 아 저 살 궁리는 한다는 거여. 두령도, ‘우령도 두령 넘어갈 피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 얘기하니까 아주 그것 배꼽 빼드라고.(웃음) 나는 그 얘기 어떻게 배꼽을, 오줌을 썼다고. 아주 그냥 산내끼 서 발, 뭐 죽은 말, 어떻게 웃은지 아주 배꼽을 뺐다고. [청중 : 끝났네, 인저.] 그랬어.

8 도둑보다 더 대담한 도둑질

임선옥(76, 여)/상하리T 2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길성진, 김유미, 양윤정, 지성원, 최명신 조사(1996. 5. 2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은혜갚은 솔개의 새끼라고 앞의 <설화 1>을 구술하였다. 그리고 조사자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젠 그만하자’하고 말솜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더 많이 해가야 한다고 말하자, 잠시 생각을 하더니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옛날에 도둑질 했어. 도둑놈이 강도야 아주. 아주 역적이야, 아주 강도. 역적이 땡기면서 있는 놈 털어서 읊는 놈 갖다 멕이는 거여. 그걸 몰강 갖다가, 그것 갖다가 지가 다 먹는 것 아니여. 읊는 놈, 있는 놈 부잣집 털어다가 있는 사람, 읊는 사람 멕이고 그라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는디 어떤 집을 가두, 그 집을 하나 들어가 보니깐,

“아이구 여보!”

그러니께는.

“내 배고파 죽겠어.”

“여보! 배 고프기는 그만두고, 내일 아침, 내일이 아버지 기일인디 어떻게 하라구. 지금 뭐래두 진지를 떠 놔 드려야 할텐데 어떻게하면 좋우. [청중 : 가만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우. 어떻게하면 좋우.”

그란단 말이야. 그러니께,

“아이구! 아버지 기골 남살에, 산 사람이 죽겠는디 뭐, 아이구 배고파 죽겠네.”

“아이구, 산 사람은 어떻게든 몰이라도 먹고 살지만, 돌아가신 분이 한번 오실텐데, 어떻게 기구래두, 다른 뭐래두 해서 죽이래두 써 봤으면, 어떻게든 조우.”

그래구 안달을 하거든. 도둑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께 안 됐단 말이지.

“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도둑질을, 그전에는 엽전이지. 엽전을 얼마를 훔쳐 가지고 왔는디,

그 놈을 갖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라구서는 그 가운데 속이다가니 갖다 집어 뒤집어 넣어 버렸어. 그 엽전, 주서운 돈을 갖다가 인저 넣고서는 소 두방을 덮어 버렸어.

그렇게 해논께, 이제 그 암만 옛날에 거죽하니까, 가난한 집이래도 그래도 불이라도 때야 할테니까 잔, 밥 해 먹는 칫하고 불이라도 때노라고, 나와서 불을 때느라고 물을 불라고 보니까네, 술이가 돈이 한 덩이 무치란 말이여. 그 도둑놈이 갖다 술에 넣어서.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넣은 거여.

“아이구! 세상에 이게 어쩐 일이나?”

첫번에는 구렁이라고 아우성을 치더니, 낭중은 돈이라고,

“아이구 이것 좀 보우. 아버님 영혼이 와서 돈을 갖다 넣으셨는지, 어쩐는지 이렇게 돈이 많으니 어쩐 일이나?”

고. 그래 그날 가서는 그날 제사 흥정을 하고, 쌀을 팔고서 떡을 허고, 그냥 그날루서 그냥 제사를 잘 지내는다. 인자 그 도둑놈이 지키는 거여, 앉아서. 가만이 어떻게 지사를 지내냐 불라고 지켰더니, 지사를 지내고 합문을 하더랴. 그전이는 지사를 지내고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어. 합문을 하고 나가는다, 그 때는 합문을 허고 들어가는 판이다, 그때 딱 들어가서 나가긴 나가.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인저 좀 시장해서 잠깐 불을 켜 집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

고. 그라면서 대접을 잘 했던 말이지, 그 사람들이. 대접, 그 사람이 돈을 준 건데. 대접을 잘 해서, 두 놈이여. 대접을 잘 하고서는 앉아서는,

“여기 주무시고 가시라구.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

구 그라니까네.

“그런게 아니라, 내가 어제 여기와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여기를 느그 집에 도둑질하러 왔더니, 그렇게 그냥 기구를 못 지내서 그래서 내가 도둑질한 걸 갖다가 넣어 뒀느니라구. 술에다가.”

그 그랬더니 절을 백 번이나 하구.

“그냥 그러나 돈 잊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구. 그러나 참 서운하다구. 아이구 제사는 잘 지냈으나 좀 안 됐다구. 아버님이 여기 거시기나 하셨나 모르겠다구. 도둑질 한 돈으로 해서.”

자기 혼자 마음으로 하는 거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디,

“자 오늘 이제 제사를 다 지내기로 했으께, 니가 내 말을 들을라느냐 안 들을라느냐?”

그러니께는. 아니 도둑놈 들이 앉아서 ‘내 말을 들을라느냐 안 들을라느냐’ 하니께, 들어가지 안 들으면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 그래,

“들겠다.”

구. 그러니께 부잣집을 떨러가는 거여 인자.

“떨러 가자.”

어떻게 떨러 가느냐믄, 그 부잣집 그 창고에다 불을 질러버렸어. 불을 지르니 그것 불끄러 간 동안에 도둑질 할라고. 그러니께는 도둑 맞고, 이 저 거시기 났데요. 화제 난데요. 아 불을 끄러 다 갔단 말이지.

그때 그냥 볼 거 없이 그냥, 그냥 도둑질을 가서 인자 돈, 그 가마를 이렇게 끌구 와서, 다 끌구 허는디, 아 이 도둑놈 아닌 것은 점점 더 끌구 나오네. 그러니께,

“이놈아 그만 해. 어떻게 가지고 갈라고 해.”

그러니께.

“가만 있어유!”

하구. 더 끌구 나오구.

“가만 있어유!”

하고 더 끌구 나오구. 이것 참 큰 일 났네.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 얼릉 가지구 가야 겠는디. 아니 이거 밤새는 줄 몰른다구, 도둑놈 밤새는 줄, 밤새는 줄 모르는 거여.(웃음)

“가만 있으유.”

하고 더 끌구 나오구서.

“아이, 정말 이제 얼른 나와.(청중 웃음) 불 끄기 전에 가야 혀, 얼른 나와.”

이제 불은 다 끄게 됐는데, 환장하졌지 뭐여 글썄. [칭중 : 그렇지.] 아 그 래가지구서는, 인자 어떻 해서는 인자 해 났는데, 방애를 들어가 보니까 노인네가 하나 이렇게 꼬부리고 앉았던 말이야.(웃음) 온 몸을, 노인네를 푹푹 뭉쳐서 갖다 나무에다 매달아 버렸어.(웃음)

매달구서 그냥 돈을 짚어지고서는 그냥 가마를 짚어지고서 그냥 어느 저저 하야, 그 놈은. 그 도둑놈 아닌 것이 세 가마를 해 났으니, 어떻게 그 놈을 어떻게 다 가지구 와. 이리 건들하다가 저리 건들하다가 간신히 집 이다 끌어다 놓구서. 그러니까 강도여, 그게 역적이여.

그러다 놓구서 인자 그 집에 갔네. 가보니까네 아 그 늙은이를, 가서 인자 갖다 놓구서 가보니까, 가서 가만히 본께 그 늙은이는,

“아이구! 내가 니 애비다.”하고

“아이, 이 도둑놈, 니 애비다!”

하데.(웃음) ‘내가 니 애비다’ 하고,

“아니 이런 오라질 놈의 도둑놈이 니 애비여?”

하고 진짓 후드려 뺐단 말이여.(웃음) [칭중 : 재밌네.] 죽게 흐드려 뺐단 말이제.

“아이구, 내가 니 애비여.”(웃음)

그 놈의 늙은이가 죽게 됐지 뭐여, 글썄. ‘하도 니 애비’라고 해 노니까, 하 두 죽게 생겼으니께 끌러 놓은께, 증말 직 애비,(웃음) 증말 지 애비란 말 이지. [칭중 : 어?]

“아이구! 세상에 우리 아버지를 누가 이렇게 해 났느냐?”

구.(웃음) 아니 그래서 그냥 갖다가니 뉘어 놓고 인자 그냥 병원이나 있어. 뭐 그래서 약을 지어 먹이구 그라는데. 이튿날은 도둑놈, 역적이 그냥 웃을 아주 자알 입구 와가지구서,

“아, 여기 도둑을 당신이 어저녁에 잡았다 해는데, 도둑을 내노라.”
는 거지. 도둑을 내노라는 거지.

“난 나라에서 왔다고. 니들이 도둑 잡았다고 해서 나라에서 왔다.”

구. 아 그러니까는 큰일 났지. 지 아비를 어떻게 내놔, 죽게 생겼는데. 그 령지 알아도 죽게 생겼는데, 뚜드려 패서.(웃음) 아 그런게 지 아버지를

어떻게 내 놔. 도저히 내 놓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저 얘기하지 마라구. 그런 소리하지 말구.”

그래서 돈을 댕 가마를 주면서,

“이 늙이나 가져가서 용서하시라구. 이 늙이나 가져 가시라구. 절대 도둑맞은 적 없다.”

구. 그냥 아달이드라. 그 돈을 갖다가 다 그 없는 사람들을 줘 부자를 맨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살게 맨들었다. 그래 도둑질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여. 그래서 잘 살었다. 간단하지 뭐.

9 할미장사와 할미영

제보자(70대, 남)/상하리T 2뒤

[수안동] 박종수, 강현모, 길성진, 김유미, 양윤정, 지성원, 최명신 조사(1996. 5. 2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자리를 옮겼다. 돌아다니다가 한 70대 노인을 만나 찾아온 내력을 말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민지근 어머니의 묘소를 쓴 실질적이 내력을 말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 그 옛날에는 장사가 많았었어. [청중 : 청어같은 장사더군만.] 아이 여기 저기 정신병원 올라가는데, 밑창에 할미바위라고 있잖어. [조사자 : 할미바위요?] 응. 장사가. 그 장사 할머니가. [청중 : 다 양쪽에다 돌을 놓고 다 받쳐서.]

그 바위들을 이렇게 이고 가다가, 그 얼마나 심(힘)이 시면 이 다섯 손가락이 났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놔서 할미바위라고, 할미바위라고 했었요.

[조사자 : 바위에 이렇게 손가락이 났어요?] 손가락 자욱이 났어. [청중 2 : 바위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바위가 물렁물렁 해가지고 손가락 자욱이 났다고.] 매주 몬양 이렇게 자욱이 났어. [청중1 : 하두 기운이 시니까.] 기운이 시니까. [청중2 : 기운이 시니까 바위가 찌그러 빠렸어.(웃음)] [청

중 : 그런게 길력 신 사람은 하루.]

왜 여기 저기 중리 가면, 손산 저 할미성이라고 있잖아. 그 할미성을 그 하루 식전에 쌓았다는 거여. [조사자 : 성을요?] 그럼. [청중1 : 저기 저 고향이 그 고창인디, 그 고창읍성은 여자들이 다 쌓았데요. 여 날라가지고.] 그저 치, 치마폭에 담고 여다가 하루 식전에 다 쌓았다는 거여. 그러니, [청중1 : 아주 아름답드리인디. 성이.] 그 무지허게 쌓은 거지.

10 아기장수

제보자2(60대, 여//상하리T 2뒤

[자택] 박종수, 강현모, 길성진, 김유미, 양윤정, 지성원, 최명신 조사(1996. 5. 2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다시 다른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그래서 60대 할머니들이 3명이 앉아서 쉬고 있는 곳을 가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부탁드리자 간략한 도깨비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리고 민간요법을 말씀하다가 조사자가 힘이 센 장수에 대해 말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장사를 낳는데, 인자 한날 어미가 가서 빨래했디야. 걸래를 빨아가지고 오니까, 저런 시렁이 옛날에 많았잖ాయ. 그래 거기가 날래 올라 앉았디래, 애가.

그래 인저 무서워서, 보니까 등허리에 날개가 이렇게 달렸드래. [조사자 : 애기예요?] 응? [조사자 : 애기 등예요?] 애기 등에 가서. [청중1 : 애기 등이 아니라 겨드랑이에 가서.] [청중2 : 겨드랑 밑에가 달렸데, 등이 아니라.] 그런데, 달렸는데 아이 여기 사흘만 있으면 인자 그제 나갈거래.

그래 말까지 다 대령하고 있는데, 인제 죄 엄마가 다담이 돌을 얹어 놔서 죽인 거여. 이 다담이 독을 얹어 놔서. 무서우니까.

[조사자 : 애기에 여기가 뭐가 나 있으니까요?] 응. 그리고 날름 저기 여기가, 실장에다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선 인제 말고개, 거기 고개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말허고 다 대려(대령)하고 있는 거여, 칼허고 장수들이.

그런 놈을 얹어 죽었으니깐, 그냥,

“쿵! 쿵!”

말이 집고 올라갔다는 그 마루 고개가 지금도 있어요. [조사자 : 지금도 있어요.] 응. 옛날에는 인자 그렇게 미련 떨었다고. 그 가만 두지, 왜 죽여 클새.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절단 났어, 그 집안이.

그래 지금 말바위란 게 그게 있어, 바위가 지금도 고개가 이렇게 올라간 고개 있고. 그래 거기가 마루 고개여. 옛날에 장수가 울로 보고 그리 나갈건데 죽여 녀서.

II 호랑이를 잡은 아이들

제보자3(70대, 남)/상하리T 3앞

[자택] 박종수, 강현모, 길성진, 김유미, 양윤정, 지성원, 최명신 조사(1996. 5. 2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가 짧은 단막설화를 구술한 뒤에 도깨비와 귀신에 관해 말씀하였으나 서사적 구조를 이루지 못한 단편적인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조사자들은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자리를 옮겨 최순호씨 후손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

아주 저 산골인데, 나는 뭐 가보지는 못 했어요. 가 보지는 못 했는데, 그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있는 집이라구요. [청취불능] 집인데, 대개 보면 집이, 부엌문을 거쳐서 방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게 부엌문이란 거는 밑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깔고 이런 나무로 문에 아래 넘어서 땡기는데, 요기가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런게 겨울게 추우니까, 애들이 부엌안에 밤새도록 늘 불을 지피고 있어요. 나무 많으니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메 어디 나가서 늦도록 안 오시니까네, 어머니가 아이들 쪼그만 거 들 놔 두고, 아버지를 데릴러 갔다고요. 밤에.

“너, 집 좀 잘 보고 있어라. 그 불 다 지피고 추우니깐 있어라.”

그런데, 그래 인제 가서 암만 기다려도 오질 안 하잖아요. 그래 인제 이

밑으로 뛰이, 인제 이렇게 이 짐승이 이렇게 고개를 쭉 들이미는, 이 여게는 들어가면 고개를 빼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빼, 들어갈 적이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나올, 땡기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 짐승이 이렇게 고개를 쭉 드미니(까), 애들 뛰이 강아지, 개로, 강아지인 줄 알고,

“참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 근 낭중에 자꾸 무서운 기가 나니까네, 인제 아궁이에서 불을 뛰 뛰 막대기에다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짐승 주둥에다가 자꾸 이렇게 대니까네, 아이 짐승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말하잖애. 아이 무서우니까 자꾸 불을 갖다가 그냥 대니까, 대 놓고 이래 있으니까네, 뭐 호랑인 줄 모르면, 알면 겁났겠지요.

겁나는데, 인제 그러니까 호랑이가 거기서 죽어 비렸어.(웃음) 죽어 버리니까 부모가 열매, 열매 있다가 대문 앞에 떡 오니까네, 아 글세 호랑이가 밑을 머리를 대고, 뭐 아이들을 잡아먹는 줄 알았지요. 그래 먼데서 막 보고 몽둥이를 가지고, 어때 몽둥이로 때리고 이래도 끄덕 안 한다.

아이 호랭이, 와 보니까 애들이 호랑이 잡아 놔온 거야. 그래 그 집이 거기서 그 호랑이 가죽 팔고, 뼈(뼈) 팔고 이래가지고, 호랭이 고기 팔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팔자 끈쳐가지고요.(웃음) 도, 도시에 나와서 아주 큰 부자로 살았다는 그런 얘기야.

7. 보정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숙향, 이상덕 조사(1997. 5. 25.)

보정리는 구성면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넓은 들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앙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마을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 마을은 동쪽과 서쪽에 산재해 있고 마을 중앙에 커다란 하천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과 용인으로 이어지는 국도가 있어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보정리는 용인군 서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보수원, 이현, 독정리와 구흥면 역촌의 일부를 합쳐 보정리라고 하여 읍삼면에 편입되었다.

이 보정리를 이루는 자연마을로는 소실, 연원, 이현, 독정, 신촌, 삼막골, 문촌, 점촌, 중말 등이 있다. 소실은 소실봉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연원은 보수원을 가르키는데, 보수원은 조선시대 역원제에 따라 이곳에 국립여관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 것 같고, 연원은 연못에 연꽃이 매우 많아서 붙었다고 한다. 이현은 마을의 뒷고개가 너무 질어서 질고개라고 하였던 것이 한자로 기록된 것이다. 이현을 이미라고도 하는데, 이미 이피는 산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산의 이름이 이진산으로 옛날에 진이 있다는 예진산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독정은 독쟁이라고 하는데, 마을 북쪽인 이곳에 정자가 홀로 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 한자어로 바꿔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촌은 독정의 서쪽에 있는 도로가 생기면서 새로 생긴 마을인데, 옛날에 장승이 있어 장승배기라고도 부른다.

삼막골은 마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생긴 지 100년이 채 안되는 마을로, 인삼막이 있는 곳에 생긴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밖에도 문씨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문촌, 주막이 있다고 해서 점촌, 마을의 중간에 있다는 중말 등이 있다.

2) 설화

① 함정에 빠진 사람 구해내기

이순남(70대, 여)/보정리T 1앞

[보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숙향, 이상덕 조사(1997. 5. 25.)

조사자들은 보정리에 도착하여 마을 노인정을 들렀으나 문이 닫혀 있어,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잘 한다는 제보자를 소개를 받고 맥으로 찾아갔다. 제보자는 좀 한가한 처지였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좀 수월한 편이었다. 조사는 조사자가 호랑이에 대해 묻자, 호랑이 이야기를 하다가 함정에 빠진 사람 구해내기에 대해 말씀하였다.

[조사자1 : 할머니 혹시 옛날에요, 뭐지 강원도, 강원돈가 거기 가면 뭐 호랑이 아직도 많다고 하잖아요. 막. 밖에 막.] 아직도 있지. 아직도 있어요, 여기. [조사자2 : 있어요?] 있는데. 깊은 산중에 있는데, 여기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 쉬쉬하니까 몰라. [조사자2 : 그런데 그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도 있구,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그것두. 물려 죽은 사람두 있구 그렇치 뭐.

옛날에는 짐승들이 전부 말을 했으니까 지금 같으지 않구. [조사자2 : 짐승들이요?] 짐승들이 다 말을 했어. 옛날에는 짐승이 이렇게 말을 허는데, 사람이 있어. 여기 저 사람이 어딜 갔다 오는데 함정을 파 났더라. 함정을 파 났는데, 함정을 파 났는데 가서 인저,

“사람 살리라.”

고 그러드라. 그래서 인저 보니까는 소가 한 마리가 빠졌드라. [조사자2 : 소가요?] 응. [조사자2 : 함정예요?] 응. 소가 한 마리가 빠졌는데.

“그저를 좀 건져 달라.”

고 그러니깐.

“나 좀 살려 달라.”

고 그러니깐. 아 잘못 했구나. 사람이 빠졌는데 짐승이 가니까, ‘나 좀 소가 가니까,

“나 좀 건져 나오.”

하니까는.

“가만 있으라고 내 저(저기) 가 물어 보고 오마.”

고. 그리고 낭구 밑으로 가 낭구더러 물어 보니까. 낭구더러 물어 보니까 그러드라.

“에이 사람 살려, 사람 살려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니까는,

“이런 짐승이 됐으며는 그거를 원주(원조)를 안 해주고, 붙잡아다 잡아 먹고, 응, 붙잡아다 잡아 먹구. 그렇지 않으면 땡벌에 갖다가 일 시키고 그러니까 난 못 한다.”.

그러드라. 그래 인저 또 한 번,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구. 내기를 하자.”

구 그러드라. 또 어디 가서 인자 토끼가 있더라. 그 앞에 가서 또 물어 보니깐, 토끼도 역시 그러드라.

“아이고 사람은, [조사자2 : 살려주면 안 된다.] 응. 살려주지 않고 저렇게 짐승들을 쫓아다 먹으니깐 난 못 하겠다. 안 살려 준다.”

그러더라. 그 소린 내가 들었어. 그런게 몰로. [조사자2 : 그래서 사람 안 살려 줬어요?] 응? [조사자2 : 사람 안 살려주고 끝난 거예요?] 아니지. 그러닝기는 그래구 나서 어디로 갔는데, 누구한테다 물어 보니까는, [청취 불능] 어떻게 했더라. 물어 보니깐,

“살려 주라.”

그러드래. 그래서 살려 줘서 살아났단 말이 있어.

2 우렁이 색시

이순남(70대, 여//보정리T 1앞

[보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숙향, 이상덕 조사(1997. 5. 2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곧바로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 내가, 내 우스운 소리 한 마디 하지. [조사자1 : 예 고맙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이렇게 처녀들이 각각 살았잖어. 각각 살았는데, 엄마두 없구.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 앉아서 하. 나는 이렇게 앉아오니. [조사자1 : 아니 여기 앉아서, 좋아요 우리도 따듯하고.]

그래서 인자 그 사람이 어렵게 살으니까, 뭐 어렵게 사는데 뭐, 여편네가 있어? 부모가 있어? 아무도 없으니까 저런 나무(님의) 머슴살이 일하는데, 저런 땀 갔더라. 갔더니 우렁이가 있더라, 그 눈에. 우렁이를 잡아다가 인자, 핵 지끔으로 이르른 각녀나난(?) 복이지.

우렁이를 잡아다가, 아 무슨 그 때는 무신 유리병이 어디 있겠어. 무슨 사발이나 그렇겠지. 그런 데다 갔다가 물을 담아 놓고 그걸 넣었데. 거기다 우렁이를 넣는데, 그러니까 인저 갔다 오지 땀.

갔다 오니까는 올 때쯤 되니까는 밥을 아주 상을 받쳐서 밥을 차려다 놓고 뚜껑을 덮어 놓고 갔더라. [조사자2 : 누가요?] 인저 글세. [조사자2 : 아 글세?] 응. 인저 그렇게 해 놓고 갔더라. 이상은 하더라. 이상은 하는데, 배는 고파 밥은 먹어야겠고, 이게 어떻게 해다 놓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못 먹고 주제주제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다가.(차가 지나감) 근데 주제주제 하다가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반찬도 좋고 그러니까 먹었대.

먹고 난데 사흘 동안을 그 짓을 하더라. 사흘 동안 그 짓을 하는데, 사흘 되던 날은 지켜 섰다가,

“이이, 나는 우렁아 잘 있거라. 나는 어디 갔다 온다.”

이러고 나갔더라. 그리고 나가드니 인저 그 올 때쯤 되니까 인저 밥을 또 그렇게 해 났더라. 해 놓고는, 인저 해 놓고는 들어 갈라고, 그릇 속으로

들어 갈라고 그러는 걸 꼭 붙잡았다, 그 남자가. 꼭 붙잡고,

“어떤 처년데, 여길 와서 이렇게 밥을 해 놓고 이렇고 하느냐?”

고. 그러나니까는,

“무(뭐)가 어땋게 되서 그랬데나, 무가 어땋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까, 아직 여기 나갈 때가 안 된다.”

그러드랴.

“이 인간이 안 된다.”

그러드랴.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으니까, 말해 보라.”

고 그랬대. 그래 붙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갖다 놓고서 나갔대. 또
인자 또 나갔대야. 나갔다고 나가니까는 아이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이 저
런데 논이고 다 다닐 꺼 아니여.

“우렁아! 우렁아! 너는 이렇게 잘 저기 함는데, 나는 집도 절도 웁고 삭
시도 웁고 어머니도 없으니, 나는 농사를 지어 이렇게 잘 지었는데 누구
하고 먹고 사니?”

그러드랴. 그러니까,

“나하고 먹고 살지. 누구하고 먹고 살어.”

이러드랴. [조사자2 : 우렁이 가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문이가 모
른다 이거여. 영문이도 모르니까 또 한 마디 그러니까, 또 그러드랴. 그래
서 두 마디 하고 낫지 뭐여 인지. 그 사람도 남의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니
까, 저런 산골짜기에 논이 조그만 게 있으니까 그걸, 쪼그만하게 따비 대
서 모를 심꿨는데 잘 되드랴. 그래 한 낱은 또 가서,

“아유 벼는 이렇게 잘 됐는데 누구하고 먹나?”

그랬대.

“나하고 먹지.”

그러더니,

“나하고 먹지, 누구하고 먹어.”

[조사자2 : 아 모습은 안 보이는 데요?] 안 보이지. [조사자2 : 목소리
만?] 응. 목소리만이지 보이지 않는다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데리고

와 가지고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하구 살아가지구 아들 딸 낳고 잘 살다 죽었다야.

3 모기의 복수

이순남(70대, 여)/보정리T 1앞

[보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숙향, 이상덕 조사(1997. 5. 2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날씨에 대해 말씀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내가 들었는데, 옛날에 내가 들었는데, 인저 그 어머니가 어렵게 살았다야, 친정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렵게 살았는데.

애들이 조금해서 놀러 갔다 왔다야. 놀러 갔다 오니까는 울타리에 가장(가지)에 벌건 뽕가 널렸드랴. 그래서 인자 칠모르는 맘에 뭘 알아. 몰르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들 옷 해 줄라고 옷 바꿔다 몰들여 났다.”
고. 아이 춤을 덩실덩실 추드랴. 그래서 이 여자가,
“그게 아니다.”

그러더라.

“그럼, 어머니! 뭐 할머니! 왜 그러유?”

그러니까.

“아니다. 밥도둑 놈이 와서 너의 어머니 죽이고 꺾테기를 거기다 널었다.”

[조사자1 : 뭘 넣어요?] [조사자2 : 꺾테기.] 잉. 그러니까 인자 쪼끄만 애가 알았던 모양여, 인저. 그 처에 알았었기에 그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누구냐?”

고 그러니까는. 인자 처음에는 밥을 자꾸 훔쳐 가드랴. 밥을 자꾸 훔쳐 가니까, 어려운 형편에 그 어디가 한 술씩 얻어다가 자식 맥일라고 놔 두면,

그 밥도둑 놈이 훔쳐간 디야. 그래서,

“아휴!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다가는, 한날은 지켜가지고 서서 뭐라고 말을 했더니 죽이더라. 죽여
가지고 살은 어떻게 했는지 난 그건 모르고, 껌데기를 이 울타리 가정에
다 널었드랴. 그랬더니 아들이 갔다 오더니,

“우리 엄니 옷 해 즐라고, 설에 옷 해 즐려고 옷감 바뀐다가 물들여
났다.”

고 좋아 하드래. 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허니깐,

“그래요.”

그러더니, 아마 요렇게(우리들을 기리키며) 나이는 됐던 몬양이여. 그랬는
데 어디를 가더니 바늘을 수도 없이 사 왔드래, 바늘을. [조사자2 : 바늘이
요?] 바늘. 바늘을 몇 쌍을 사 왔는지 모르드래. 그래 인제 사가지고 와서
는,

“그래 그 집을 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옴아요?”

ane더라. 그 애가,

“찾아 갈려면 찾아갈 수가 없다. 부잣집 집에서 한참 넘어가다 보면 골
짜기에 집이 두 채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거기에 갔디야. 그러니까
저물었지. 거걸 찾아가느라고 찾아가니깐, 가서 인자 주인을 찾으니깐,

“누구나?”

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이 저물어서 하룻밤 유하고 가자.”

고 그랬디랴.

“아 그럼, 그러라.”

구. ‘하룻밤 유하고 간다’고 그러니까는, ‘아 그럼 그러라’고 그랬디야. ‘그
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자라.”

고. 해서는 거기서 자는데, 아유 어느 때 쫓인가,

“난 그만 가야겠서요.”

그러고 나왔디아. 나와가지고는 마루 밑으로 들어갔디아. 마루 밑으로 들어가는데, 아 여름이니까는 말리(마루)서 자지. 옛날엔 어딜 그렇게 지금 처럼 모기장이 있구 어디가 그랴. 그러니까 인자 말리에 가 드러누워 자는데, 말리 밑에서 바늘로다 찔렀디아, 밥 도둑놈을. 자꾸만 바늘로 찌르니깐,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모기 왜 이러.”

자꾸 이러드랴. 그러니까 인자,

“아유! 따가우면 못 자겠다. 방에가 자야지.”

또 방에 들어갔디아. 또 방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찔렀대. ‘아~ 따갑지 따겨우니까 바게(견디)다 바게다 못 해.

“아유 어떻게 해야 옳아. 이것 어떻게 옳아.”

이러고는, ‘어디 가 자.’ 어짜고 그래더래. 그래 그러더니 큰 가마솥에 하나 있는데 그리 쑥 들어 가드래, 저 사람이. 그리 쑥 들어가니까는 솔당을 얼른 덮고는 큰 돌을 갖다 지질러 났디아. 그리고 거기다 불을 땀디아. 불을 땀더니 팔팔 쭈을 때니까,

“아유, 뜨거! 아이 뜨거. 그만 그만.”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자, 얼마마나 아무 소리가 없드래야. 아무 소리가 없으니깐 그냥 두지, 그냥 놔 뒀으면 될 걸 열어 봤대요. 열어 보니까 모기가,

“앵~!”

하고 달아나드랴, 모기가. [조사자1 : 모기가?] 모기가. 앵하고 달아나드랴. 그러더니 그러고 달아나드니,

“나도 웬수 갓았다.”

그러더래. 그 바늘로 찌른 것을 웬수 갓았다는 거드래. 그리 그래서 그 웬수 갓느라고 모기가 여름이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기 문디아. 그래서 모기라는 거야. [조사자1 : 아~ 그게 모기 얘기였구나!] 그게 모기야.

4] 뛰어난 소도둑

정규환(70대, 남)/보정리T 1와

[보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숙향, 이상덕 조사(1997. 5. 25.)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 듣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이 제보자는 앞의 제보자에게 소개를 받고 맥으로 찾아가 만나게 되었다.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생각하다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었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지. 여러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근처의 소라는 것은 다 끌어다 팔아 먹었어, 훔쳐다가. 훔쳐다가 팔아 먹었는데, 한 집 것을 못 끌어 갔어. 한 집 거를.

아 그러니 그 놈의 소가 이상한 소거든. 끌러 들어가면 죽 발을 안 띄어, 소가. 거기서 그냥. 그래 이 도둑놈이 무슨 피를 부렸느냐 하면은, 선비 차림을 하고 그 집을 저녁 때 갔어. 아 가서,

“주인장! 계십니까?”

하니까.

“누구시오.”

이거야. 그래,

“지나가는 객인데, 그래 하루 저녁 좀 쉬고 갈라고 찾아 왔습니다.”

“그러시오. 그래 사랑으로 들어가시오.”

그래 사랑으로 들어갔단 이런 이야기. 사랑으로 들어갔더니 저녁상을 차려다 주어서 저녁을 같이 앉아 먹고, 앉아서 쓸데없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여. 하면서,

“아 저리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엇그저께 저녁에 소를 잊어버렸다고 난리 야단들을 함디다.”

“이, 이 근처의 소 죄 들어다 누가 팔아 먹었습니다, 도둑놈이.”

“그래 딱엔 괜찮으셨소?”

“아 우리야! 괜찮지.”

“그래 어떻게 괜찮으셨소?”

소, 그걸 뭐라고 하나. 왜 오뉴월에 쇠붙알 늘어진다 하는 속담 있지. 그런 얘기 들어 봤어. 그 소 붙알에다시리 끈타불 저, 지금은 나일론이지 옛날은 노나끈이야. 노나끈을 해서 끌어가지고 꼭 요렇게 붙잡어 매어 놔어. 요렇게 붙잡아 매놔어. 잡아다니면 이리 쪼져, 그냥 움직이면 쪼져.(일동웃음) 그래 이렇게 해서 이걸 그 끈하고 제 손목하고서 딱 사랑에 놓고 자는 거여. 아 그래 어느 때나 뒤척이나 보며는 이 소가 꿈틀을 댔는데 나가지를 안드라 이거여. 벌써 이 쥐고 있으니까 같, 갈 수가 있나 못 가지. (조사자 웃음) 그래 그렇다고 그럴 얘길 했어.

“그래서 우리 소는 누구도 못 끌어 간다.”

이런 얘기여.

“아~ 그거 참 좋은 얘기라.”

고. 한 밤중쯤 되서 어튼지 집에 와 데리고 얘기를 하고, 인제 잠, 실것들을 인석 쪽에서 어쨌든지, 가서 칼로다 노나끈을 요걸 싹 끊었어, 이 손목에 쥔 걸을. 요걸 싹 끊고 가서 오양간에 있는 걸 싹 끊고 소를 끌고 갔어, 그냥. 끌고 갔어.

이게 인자 늦도록 앉아서 얘길하다 보니까는, 늦잠이 들어가지고서 아침에 쇠죽을 쭈러 일어나 보니까, 아이 손님이 어디로 갔어. 손님이 읊어. 아 이게 어디 화장실에 갔나 보다 허고, 인자 이렇게 생각을 허고 나가서 쇠죽을 쓸라고 외양간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깐 소가 읊거든.

“아, 이게 도둑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소를 잃어버리더라. 그러게 내 암암리에 비밀이래는 건,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 [조사자 : (웃음)아! 교훈이네요, 교훈이에요, 교훈!]

5 원님과 여가 배사당

정규환(70대, 남)/보정리T.1앞

[보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숙향, 이상덕 조사(1997. 5. 2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땀기면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라며 구술하여 주었다.

그 충청도에 어느 선비가 살았어. 충청도에 어느 선비가 살았는데, 아들을 갖다가시리 어디를 보냈냐며는 서울 장안으로다가시리 이 뭐야 저, 무슨 교육이라 그래. 그때 당시 저 왜, [조사자2 : 보통 교육이요?] 아니. 보통교육이 아니고, 아 그거 또 잊어버렸네.(기침) 아이고 이런 얘기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금방 삭막하기 마련이야.

이게 교육을 받으러 보냈는데, 그래 옛날에는 서울, 저 아래대서 서울을 가자면 이 차라는 게 없어, 전연. [조사자1 : 예 그렇죠.] 뭐 기차고 뭐고, 뭐 차라는게 전연 없어. [조사자2 : 길도 그렇고.] 응. 길도 그저 사람 땀기는 길. 그래도 좀 있는 집이고 땀한 집 자식이라고 하면은, 잉 저 과거, 과거보러 참 간다고 하며는 하인이 조랑말에다가시리 짐을 해 싣고, 그 선비를 태워가지고 끌고 갔어, 옛날에는. 그 인재 직끔은 그런게 없으니까는, 차로다 왕래가 되고 비행기로 왕래가 되고, 뭐 앉아서 어디고 전화로 다 왕래가 되지마는 옛날엔 그게 없었던 이런 얘기가.

게 이래서 과거를 보러 그야말로 참 서울을 딱 가게 되어서 갔는데, 그 근동 친구가 하나 있어. 절친한 친구, 절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서 같이 동행을 했더라 이런 얘기가. 그래 가서 과거를 보고서 그 발표 날을 까정도 지키고 있는 거야. 그 인재 발표을 하는데 보니까 낙방을 맞, 했어.(일동 웃음) 그래 떨어졌으니까 그냉 내려올 수밖에.

게 오다가시리 옛날에는, 직끔은 그 강 다리라는 게 많지만은, 옛날에는 다리라는 게 없어, 응. [조사자2 : 나룻배.] 응 나룻배. 노를 잡고 나룻배를

타고 왕래를 했어. 그래 이렇게 떡 가서 과거를 시험을 보고 낙방을 해서 왔, 오는데, 그래 배전에 와서 도로 배를 타는 거여 인저. 그런데 시험 보러가서 떨어진 놈이 한풀 죽은 거지, 그제 한풀, 한 팔 떨어진 거지. 그래 거기 와서 보니까는 배가 딱 있드라 이거여. 그래,

“저 건너를 좀 갑시다.”

허고, 배를 딱 탄 거야 이냥, 이 선비가. 그래 노를 젓고 가는 거지 인저. 그래 이 사공이 누구냐면 여자야. 여자가 사공이야. 아 그래 이 선비가 하는 말이 뭐냐고 했냐면은,

“아 여보! 이 사공이라는 것을 남자도 힘이 드는 건데, 이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사공을 하느냐?”

허고 허니까는,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여보!’ 하는 거요 여보라는 것은 집에서 부부기간에 하는 얘기지, 남남끼리는 그게 실례가 아니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말이지. 아 이려고 하거든. 그래 이 선비가 하는 말이 무어냐며는,

“내가 당신 배를 탔는데, 그 뭐 내가 ‘여보’라고 하는 게 잘못 됐느냐?” 이거야. 아 이 여자가 험 말이 없는 거라. 여자 배를 탔으니까, 여보라고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야.(조사자 웃음) 이 그래 여자가 가만히 허니까, 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선비래도. 그래 갔다 떡 내려 났어. 저 건너 갔다 내려 놓고, 배를 돌려 놓고서,

“야, 이 자식놈아! 잘 가거라, 조심해서.”

“자식이 뭐냐?”

아 이려고 묻는 거여.

“야, 니가 내 배에서 내려, 나왔으니까 자식이 아니냐?”

이거여. [조사자2 : (웃음)아~ 그 이야기 되네요.] 아 그러자 이 선비가 가만히 생각해니까, 아 그것도 맞는 얘기야, 이게. 그 여자의 배에서 나왔으니까는 자식 소리를 듣게 돼 있드라 이거야.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헛튼 소리를 그 후로는 하지 않드래, 그 선비가. 어 그런 얘기도 있는 거여.

6] 해와 달이 된 약이

제보자(70대, 여)보정리T 1왕

[보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숙향, 이상덕 조사(1997. 5. 25.)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한 할머니가 집안에서 쉬고 있어, 들어가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좀 꺼리시는 듯하였다. 조사자가 자꾸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많은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호랑이가, 지 엄마가 떡 장사를 하는데, 저 고개를 넘어가서 팔고 오는데,
“떡을 달라.”

고 해서나 뭐,

“없다.”

고 그랬대나. 그러니 떡을 다 뺏어 먹었대. 그러고서 나중에는 또 잡아 먹었다야. 그 떡 이고 팔러 갔다운 사람을. 그런데 인저 잡아먹고, 애들을. 그 애들만 있는데 가서,

“문을 열어 달라.”

고 했다 인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니깐, 뭐 벌써 호랑이인 줄 알고,

“엄마! 손 좀 디밀어 보라.”

고 하니깐. 털복숭이 발을 디밀어 댔다지 뭐야. 그러니까 안 열어 줬지. 안 열어 줬는데 그냥 자꾸,

“엄마라고. 열어 달라고. 열어 달라.”

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더니 그냥, 그냥 열었대, 호랑이가. 열어가지고 잡아 먹게 되니깐은, 그냥 저 하늘, 하늘 고목 저 낭구로 올라가서,

“하느님! 하느님! 살리래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 보내고, 죽일래거든 헛 동아줄을 내려 보내라.”

고 했더니. 새 동아줄을 내려 보냈대. 그래서 남매가 그걸 타고 올라갔는데, 그게 남자는 해가 되고 여자는 뭐 달이 됐대나. 잉 남자는 달이 되고 여자는 해가 됐대나 봐. 그런데 호랑이도 저두 뛰올라와서,

“살리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보내고, 죽일려거든 현 동아줄을.”
 근데 이냥 중간만큼은 새 동아줄을 허고, 중간만큼은 현 동아줄을. 올라가
 다가 떨어져 뒤졌디아.(일동 웃음) 그래서 수수깁을 거기다 놔는데, 수수
 깁이 피가 묻은게 그게 호랑이 피라. [조사자2 : 아 붉은 수수발이네.] 지
 금 수수깁도 이런 사람은 모를 꺼여. 옛날에는 수수들을 심것잖어, 밭에다
 가. 그런데 지금은 수수들도 안 심거서, 그전에는 있으면.

그래서 떨어져 뒤졌데, 그건. 중간만큼은 새 것을 내려보내고, 중간만큼
 은 현 것을. 그래 그 애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해가 되고 달이 되고 그랬디아.

7 나무꾼과 선녀

제보자1(70대, 여)/보정리T 1와

[보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숙향, 이상덕 조사(1997. 5. 2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그 들은 내력을 채록한 뒤에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
 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나무꾼 얘기라고 하자 생각이 났는지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1 : 나무꾼 얘기 그건.] 나무꾼 얘기?

노루가 뭐 저 파묻어 주고 그런 거? [조사자2 : 그런 것도 있어요? 해
 주세요.] 별안간 또 생각을 해야지.(웃음) 잉 또 노루가 그냥 어디서 별안
 간 뛰어 오면서,

“나 좀 숨켜 달라.”

고 그러드래. 나무를 북북 끊고 있으니까는, 총각이. 그래서 그냥 낭구 속
 에다 폭 파묻어 줬디아. 그런데 그냥 뒤, 포수가 오드니,

“여기 노루 가는 것 못 봤나?”

고 그러드래. 그래,

“못 봤다.”

고. 거기다 물어 놓고서. 근데 인제 간 뒤에 내놔 주었디아. 내놔 줬는데

그 노루가— 옛날에는 말을 했디야. 장가도 못 드는 저기 총각이니까, 뭐, 저 하늘에서 뭐 탈루박이 내려오며는 그, 저기 선녀가 저기 탈루박에서 내려온데, 어디 밤중쯤 되서 가면은. 그래서 그런디,

“두젠가 세째 내려오는 탈루박을 감추라.”

고 그러드랴. 이 옷도 감추고 이 선녀 옷도 감추고.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목욕하는데, 옷도 감추고 그래라고 그래서 감춰. 감췄는데, 또 그 노루가 하는 말대로 감췄는데, 이냥 선녀 하나가 내려오더니, 인제 목욕을 하고 옷을 입으니까 저 옷이 읊잖어.

그러니까 그냥 찢찢 매고 울구 그냥 야단, 다른 사람 다 올라갔는데 저만 못 올라가니깐 그냥 울구 야단이래. 그 나무꾼이,

“그러지 말라구. 나하고 살자.”

그랬디야. ‘나하고 살자’구 그냥 그러구, 어디 갈데두 없고 그러니까 살자구 그래서 그 나무꾼하고 사는데,

“애를 셋 낳면 그 옷을 내주라.”

는데. 둘 낳는데 내 줬다는군. 그러더니 그냥 양쪽에다 끼구 올라 갔디야; 그느므 선녀가. 그래서 막 울고 울구 올라다가 고만 뒀디야.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떻게 했대든가. 그거를 그렇게 가지구, 응 가지구 올라갔는데, 그 총각이 거기로 또 타루박이 내려오드래, 또 선녀 타루박이. 근데 넷째 타루박에 가, 올라가서 올라갔디야. 올라갔드니 애들이,

“아버지 왔다.”

고 그러드래,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그냥 거기 올라가서 재밌게 살았었디야, 총각이. 해 달래서 해 줬지. [조사자2 :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네.] 응. 나무꾼이 그렇게 기냥 타루박이 뒀으니, 또 울구 있으니까 또 노루가,

“왜 우느냐?”

그러드래. 그래서,

“아이 기냥 옷을 그냥 셋 낳면 내주레는 걸, 둘 낳은 걸 내줬다고 그래서 잉 올라갔다.”

그랬더니,

“그러면 타루박을 넷째, 셋째 타루박에 가, 또 올라가서 타구 올라가

라.”

고 그러드래. 총각, 저기 노루가. 그래 타고 올라갔더니 애들이,
“아버지 왔다.”

고. 하늘, 하늘에서 막 그러드래. 그래서 올라가서 잘 살았대.(웃음)

3) 민요

1] 상여소리

제보자1(70대, 여)/보정리T 1뒤

[보정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숙향, 이상덕 조사(1997. 5. 25.)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채록하기 위하여 무척 노력하였다. 그런데 할머니는 조금 아는 듯하면서 이야기를 구술할 것을 부탁하면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시는 노래가 있으면 해 달라’고 하자 이 노래를 불러주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
꽃이라고 피어 오나
앞이라고 피어 오나

청승맞게 하잖여.

박종수(朴鍾洙)

- 공주사대 졸업
- 문학박사(단국대)
- 현재 용인대 교수
- 주요논저: 『대학학문』, 『문학과 인생』,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보경문화사)
『용인 남부지역의 구비전승』(태학사)
『조선조 기류 문학의 연구』(학위논문)
『충남 연기지방의 설화연구』 외 다수

강현모(姜賢模)

- 한남대학교 졸업
- 문학박사(한양대)
- 현재 한양대, 한남대, 용인대 강사
- 주요논저: 『부여지방의 구비전승』(상, 하)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북부, 남부)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학위논문)
『이몽학 설화의 연구』 외 다수

용인 서부지역의 구비전승

초판 1쇄 인쇄 1999. 9. 27.

초판 1쇄 발행 1999. 9. 30.

지은이 박종수 · 강현모

펴낸이 지현구

펴낸곳 태학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7-42

전화 (02)584-1740(대) / 팩스 (02)584-1730

천리안·하이텔 ID: thaehak4

등록 제22-1455호

값 20,000원

ISBN 89-7626-487-8 03810

☞ 저자와의 협의아래 인지를 생략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한 곳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태학사가 펴낸 고전문학 연구

조선문학사(상·중·하)

이가원/신국판

(상)20,000원 (중)25,000원 (하)25,000원

사씨남정기

김만중 지음, 이래종 옮김/신국판 · 12,000원

한국기록소화사론

황인덕 지음/신국판 · 13,000원

한국고전비평론 자료집

조남권 · 정민 공역/신국판 · 15,000원

영세보장

정양완 역해/신국판 · 30,000원

조선시대 일화 연구

이강욱/신국판 · 15,000원

삼한습유

최창록/신국판 · 20,000원

養兒錄

이상주/신국판 · 10,000원

남호거사 성춘향가

윤주필/신국판 · 20,000원

한국의 가전문학(상·하)

김창룡/신국판 · 각권 12,000원

가사읽기

윤덕진/신국판 · 12,000원

역주 과정록

김윤조/신국판 · 12,000원

옛문학의 비평적 시각

김명희/신국판 · 16,000원

한국소설의 변신 논리

김미란/신국판 · 13,000원

태평한화골계전

이래종/신국판 · 13,000원

조선후기 우화소설선

유영대 · 신해진/신국판 · 8,000원

효행문학연구

천병식/신국판 · 9,000원



9 788976 264879

03810

ISBN 89-7626-487-8

값 20,000원